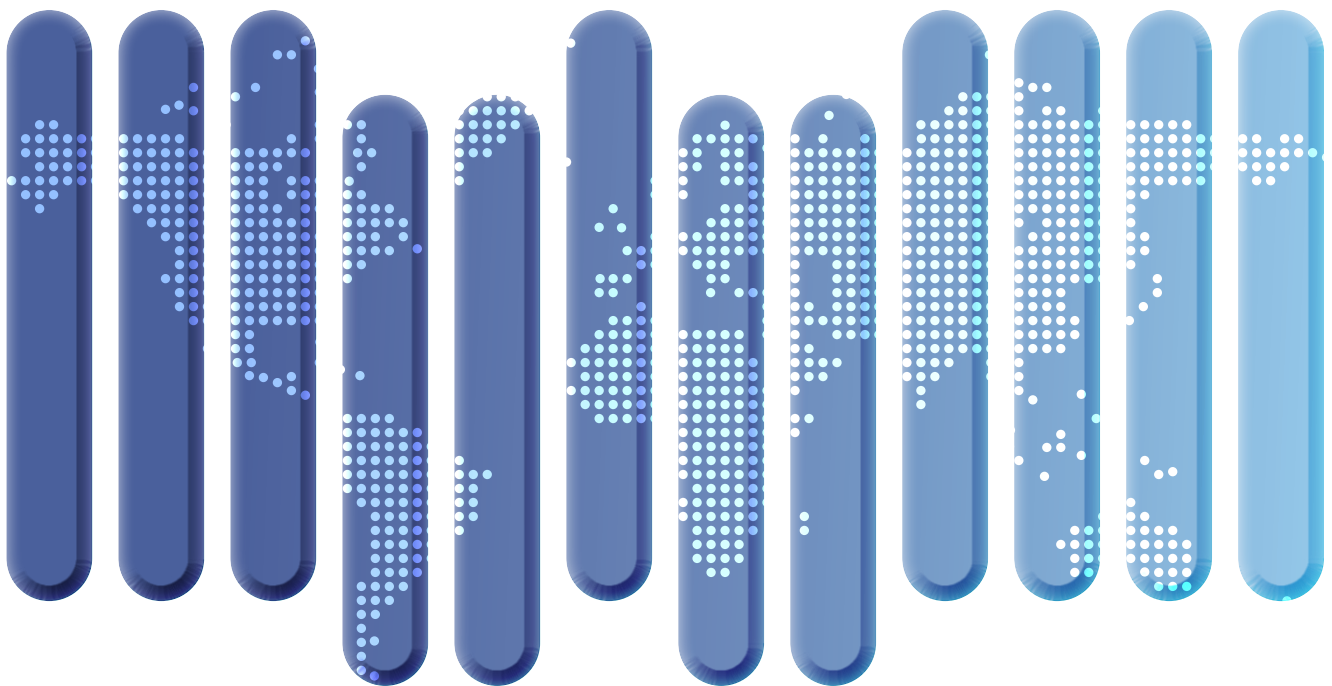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일반국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록함
2.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 의해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수행됨
3. 일반국민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는 국방·안보정책 수립 경험자 및 전문가, 영향력이 있는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4. 통계 자료의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자세한 내용은 조사개요, 조사결과에 수록되어 있음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1
제2장 주요결과 요약	5
제3장 조사결과 분석	25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25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25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27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29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31
1) 강대국의 패권전쟁	31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33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35
4) 세계 경제 침체	37
5) 국제범죄·테러 증가	39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41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43
8) 북한 군사적 위협	45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47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49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51
12) 주변국 환경오염	53

Contents.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55
1) 국내정치 불안정	55
2) 부정부패 확산	57
3) 물가상승·경기침체	59
4) 불평등심화·양극화	61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63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65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67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69
9) 개인정보 유출	71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73
11) 질병·감염병 확산	75
12) 자연재해·환경파괴	77
6. 국가안보 관련 의견	79
1)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	79
2)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	81
3)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83
4)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85
5)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87
6)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	89
7.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91
1) 군사안보적 측면	91
2) 경제안보적 측면	93

Contents.

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95
1) 미국	95
2) 일본	97
3) 중국	99
4) 러시아	101
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103
1) 미국	103
2) 일본	105
3) 중국	107
4) 러시아	109
10.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11
11.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113
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115
 II.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117
1. 한·미 동맹관계	117
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119
1) 군사동맹 강화	119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121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123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125
3.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127
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129

Contents.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131
6. 주한미군 주둔시기	133
7. 주한미군 관련 의견	135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135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137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139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141
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143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145
 III. 북한 관련 사항	147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147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149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151
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153
5.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155
6.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157
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159
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161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163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165
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167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169

Contents.

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171
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	173
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	175
16. 한반도 통일 전망	177
17. 한반도 통일 방식	179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181

I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83

1. 군에 대한 신뢰도	183
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185
3.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	187
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189
5.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191
6.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193
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195
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	197
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199
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201
11.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203
12.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	205
13.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207
14.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209
1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211

Contents.

1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213
17.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215
18.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217
1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219
2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221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221
2) 국방백서	223
3) 국방일보	225
4) 국방FM(라디오)	227
5) 국방TV(텔레비전)	229
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231
2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233
1) 믿을 수 있다	233
2) 청렴하다	235
3) 개방적이다	237
4) 혁신적이다	239
5) 친근하다	241
 V.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243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243
2.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245
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247
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249

Contents.

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251
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	253
6.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255
1)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	255
2)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257
3) 병사들의 자기개발	259
4) 병영부조리 예방	261
5)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	263
 제4장 시계열 GAP분석	 267
 부록 설문지	 287

제 1 장

조사 개요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 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조사방법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수	1,200명	10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76\%p$ (일반국민)	
조사기간	2022년 9월 15일 ~ 10월 7일	

I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분석됨.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IV.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300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3
	전문가	100	7.7
[일반국민]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6.7
	중	570	47.5
	하	190	15.8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9
	30대	193	16.1
	40대	247	20.6
	50대	254	21.2
	60대 이상	279	23.3
지역별	서울	225	18.8
	경기/인천	386	32.2
	부산/울산/경남	179	14.9
	대구/경북	121	10.1
	광주/전라	114	9.5
	대전/충청/세종	127	10.6
	강원/제주	48	4.0
지역크기	대도시	526	43.8
	중·소도시	629	52.4
	읍/면	45	3.8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45	3.8
	자영업자	165	13.8
	판매/서비스직	236	19.7
	기능/숙련공	104	8.7
	일반 노무직	50	4.2
	사무/기술직	304	25.3
	경영/관리직	12	1.0
	전문/자유직	12	1.0
	전업주부	176	14.7
	학생	47	3.9
	무직/휴직/은퇴	40	3.3
	기타	9	0.8
학력별	중졸 이하	55	4.6
	고등학교	458	38.2
	전문대	269	22.4
	4년제 대학교	410	34.2
	대학원 이상	8	0.7
생활수준별	상	62	5.2
	중	565	47.1
	하	573	47.8

제2장

주요결과 요약

제2장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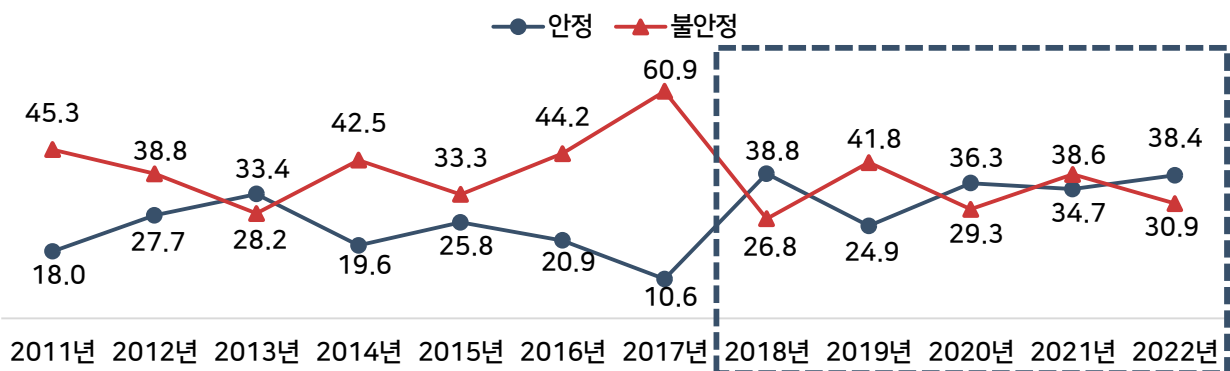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 ✓ 국가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4%로 '불안정적'(30.9%)보다 7.5%p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도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인식은 3.7%p 증가하였음.(2021년 34.7%)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24.3%)보다 10.9%p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도에 비해 '높다'라는 응답이 2.4%p 증가하였음.(2021년 32.8%)
-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8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5%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5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1%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이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4%로 '불안정적'(30.9%)이라는 응답보다 7.5%p 높게 나타남.
-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추세비교 결과 2021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4%로 3.7%p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0.9%로 7.7%p 감소함.
 - 2018년부터 전반적 안보상황을 안정적이라는 응답 비율과 불안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을 Gap 분석으로 살펴 보면, 등락이 심한 경향이 보이며,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는 판단유보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최근 5년간의 안정적이라는 응답 변동폭(24.9%~38.8%)과 불안정적이라는 응답 변동폭(26.8%~41.8%)이 점차 30~40%대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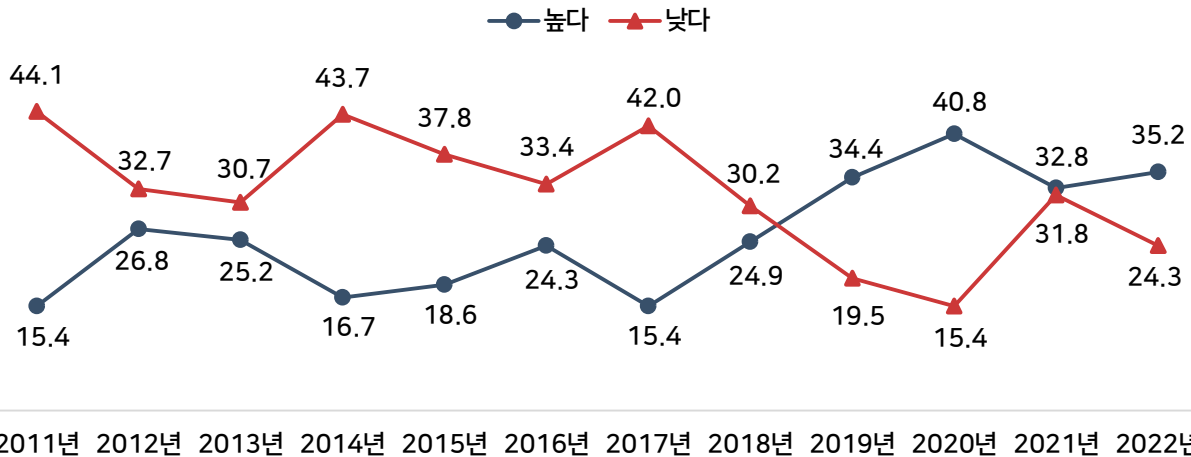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안정-불안정	-27.3%p	-11.1%p	5.2%p	-22.9%p	-7.5%p	-23.3%p	-50.3%p	12.0%p	-16.9%p	7.0%p	-3.9%p	+7.5%p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24.3%)보다 10.9%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2.4%p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7.6%p 감소함.

<그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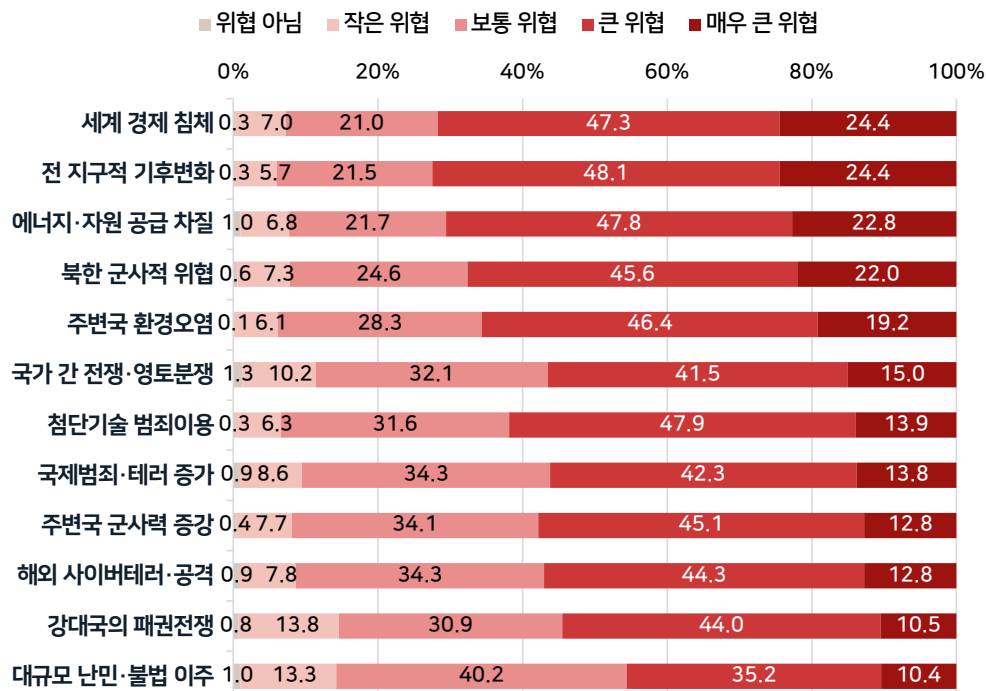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대외요인으로는 매우 큰 위협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계 경제 침체'와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각 24.4%),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22.8%), '북한 군사적 위협'(22.0%) 등의 순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통적인 군사적인 위협 요인에서 경제, 기후, 에너지 등 다각적인 요인으로 국가안보 영향 요인이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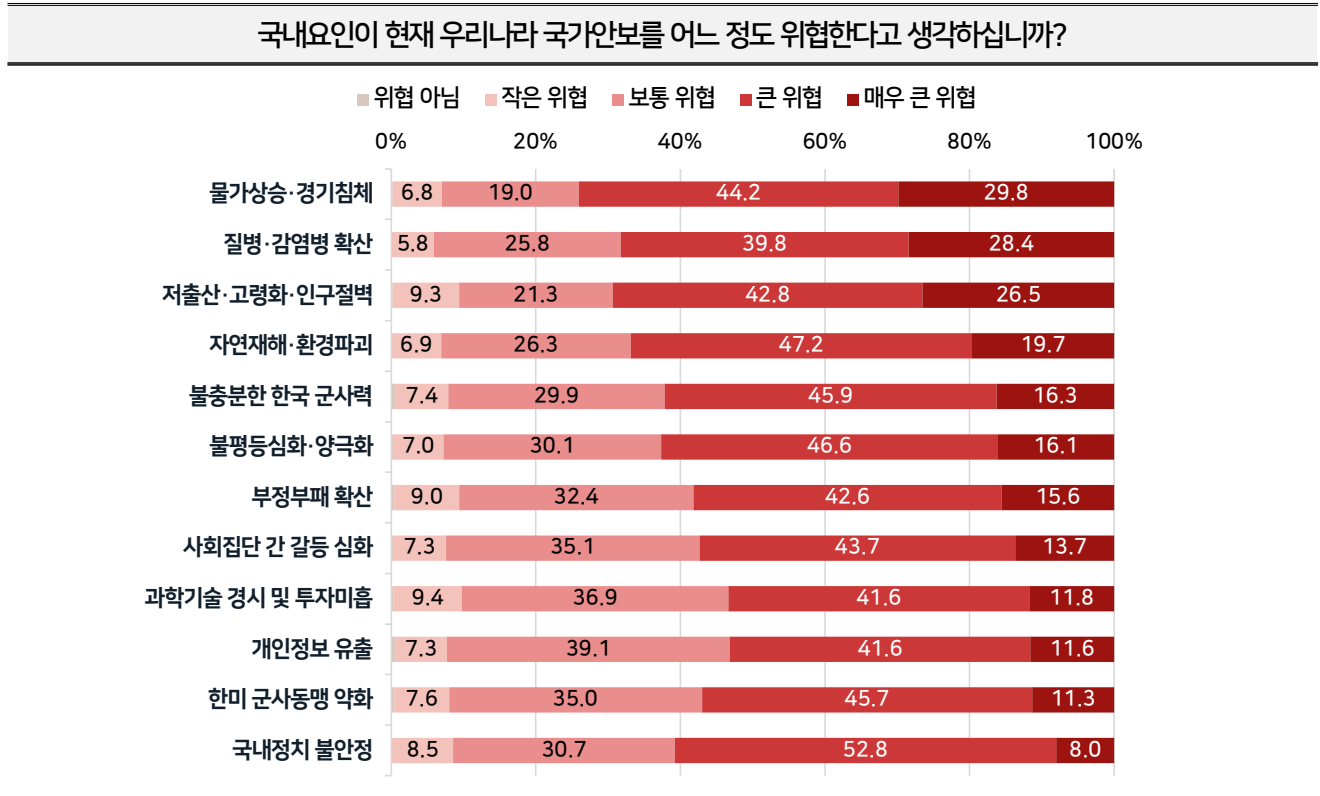
<그림>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대외요인

국외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대내요인으로는 매우 큰 위협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가상승·경기침체'(29.8%), '질병·감염병 확산'(28.4%),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26.5%), '자연재해·환경파괴'(19.7%) 등의 순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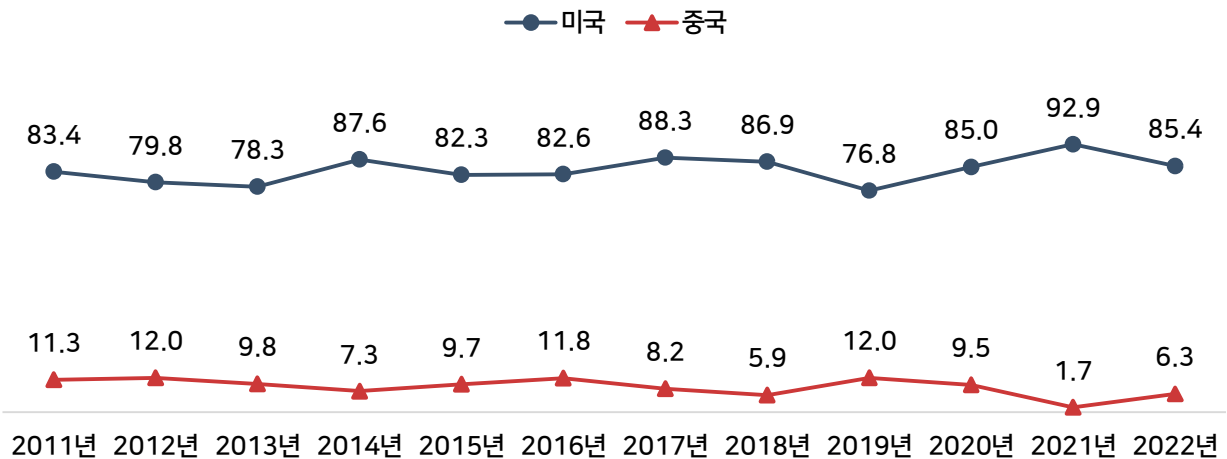
<그림>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대내요인



-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6.3%), '러시아'(4.5%), '일본'(2.7%) 순으로 나타남(기타 1.1%).
- ▶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5%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4.6%p 증가함.

<그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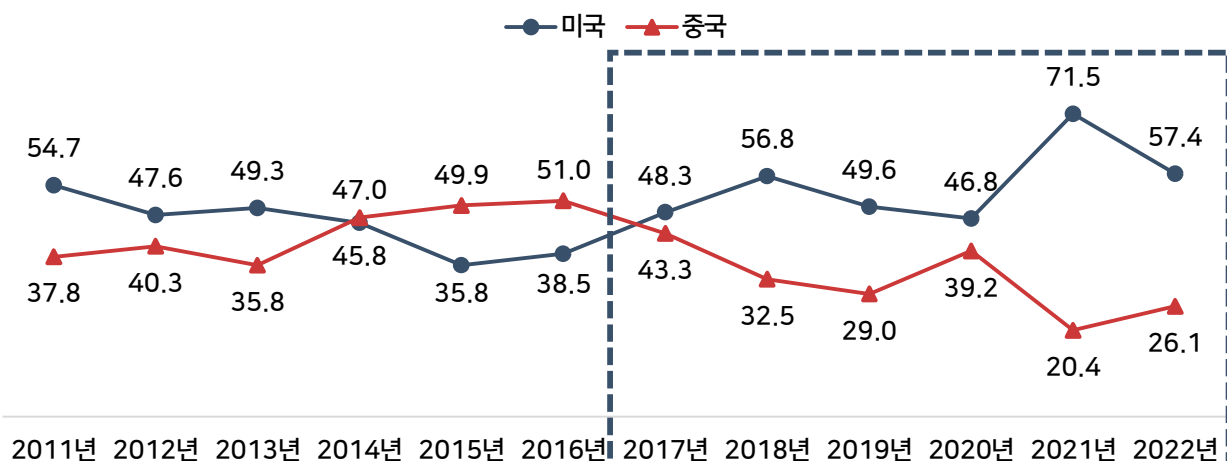
귀하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6.1%), '일본'(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1%p로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5.7%p 증가함.
 - 2017년부터 일반국민들은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2021년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71.5%)이라는 응답과 '중국'(20.4%)이라는 응답이 크게 차이가 난 원인은 코로나19 지속화로 인한 중국 의존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온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사이의 역할 중요도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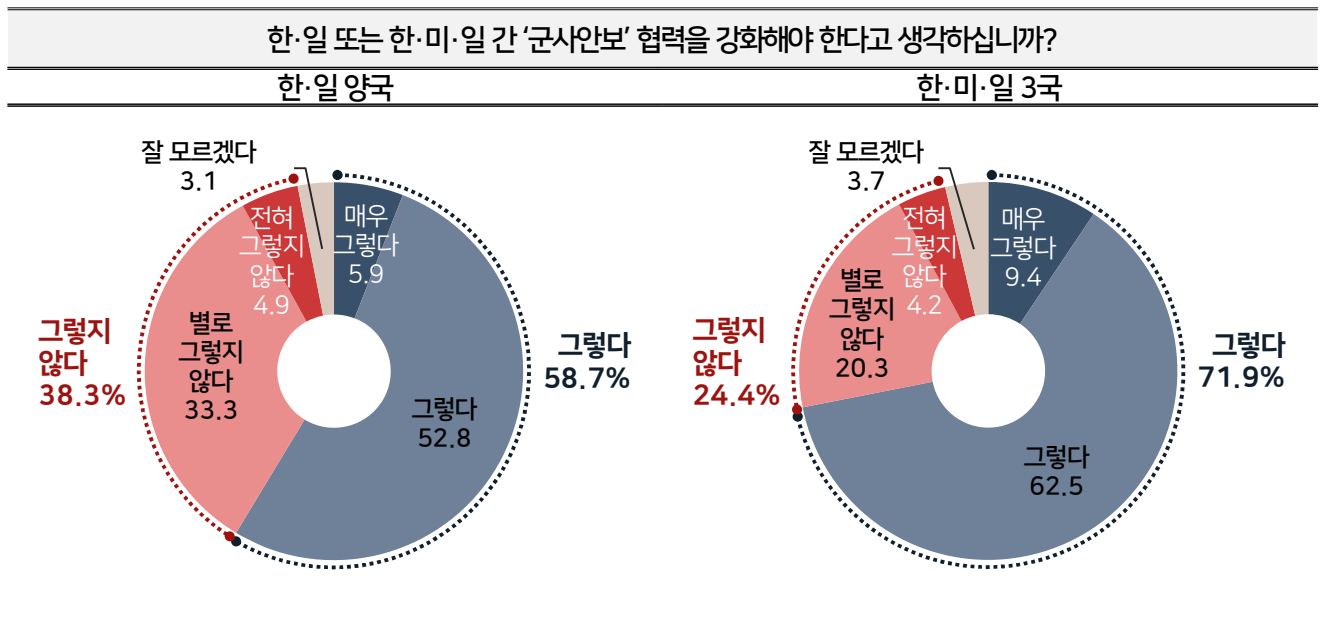
<그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귀하는 경제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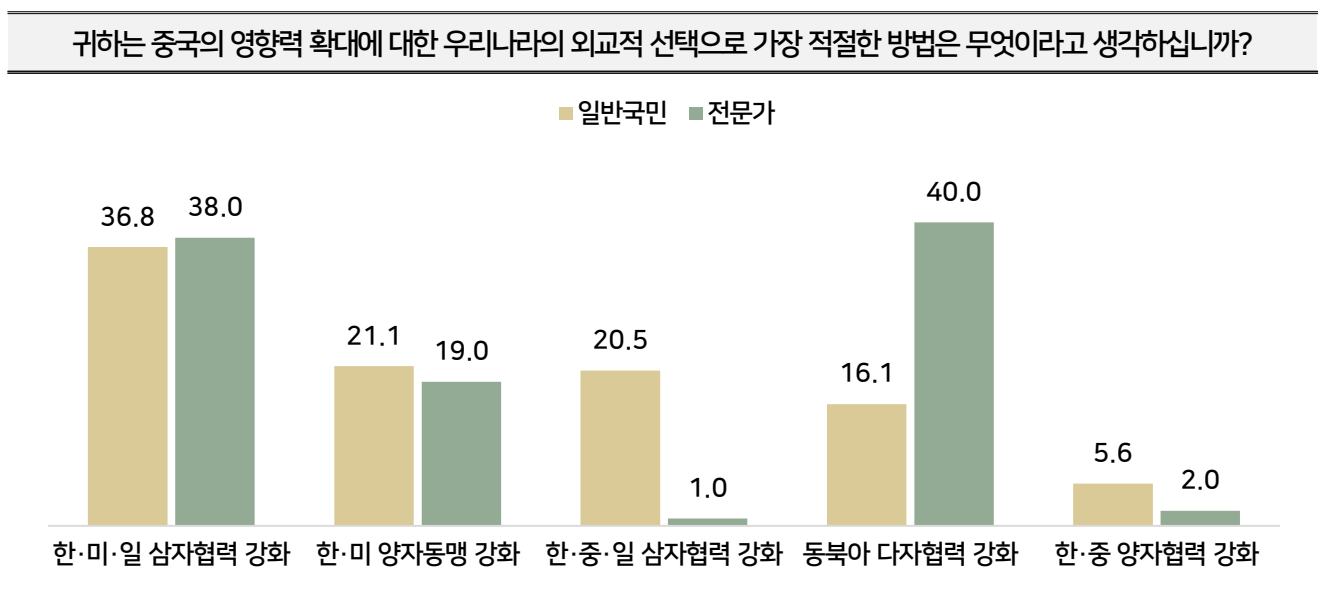
- ▶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났으며,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71.9%로 나타남.

<그림> 군사안보 협력 강화



-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일반국민은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40.0%)와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38.0%)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남.

<그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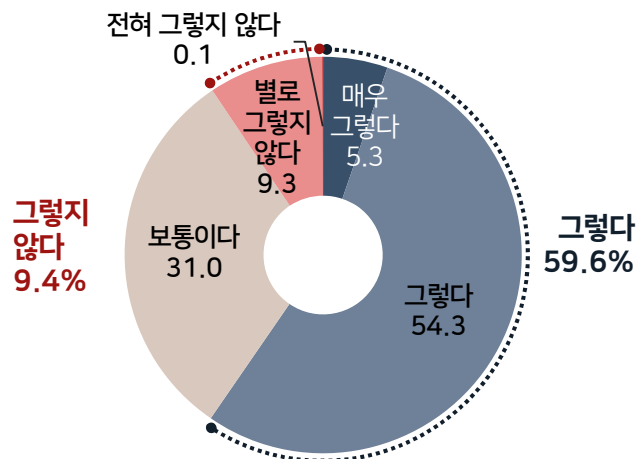
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 현재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59.6%로 나타남.
- ✓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저해요인으로는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37.0%),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8.8%p 감소함. (2021년 78.8%)
- ✓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이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대비 1.2%p 감소함. (2021년 74.5%)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 동맹이 '돈독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2.2%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대비 22.9%p 증가함.(2021년 19.3%)

- ▶ 현재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나 '그렇다'라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간의 차이는 50.2%p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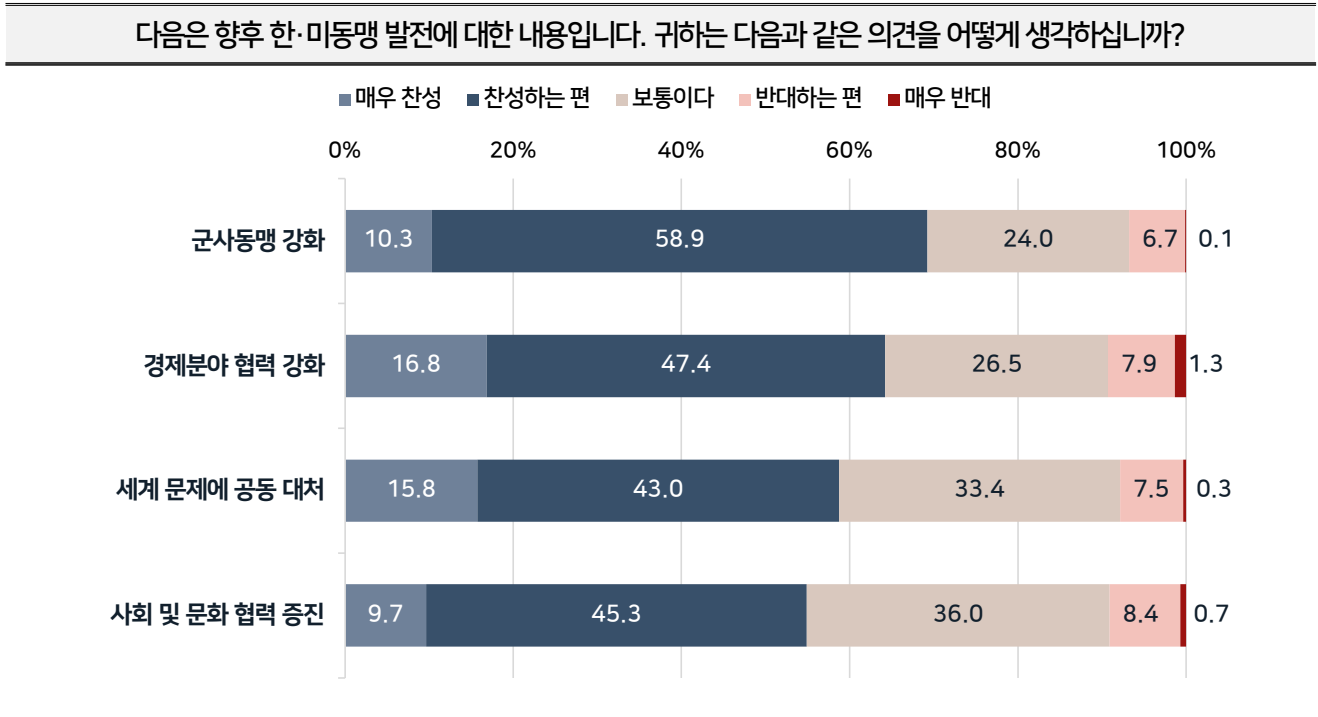
<그림> 현재 한·미동맹관계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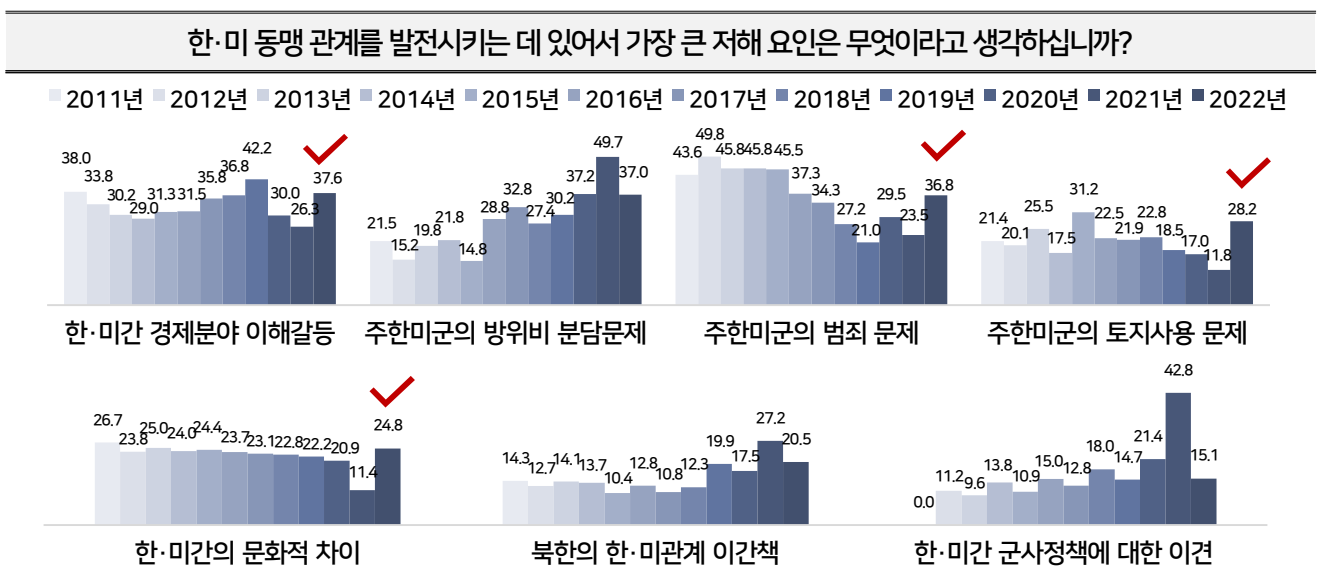
- ▶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매우 찬성+찬성하는 편) 응답 기준으로 '군사동맹 강화'라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분야 협력 강화'(64.3%),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58.8%),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5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 3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37.0%),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대비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와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등의 국방 관련 응답 비율은 감소한 반면,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와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등의 경제·문화·치안 관련한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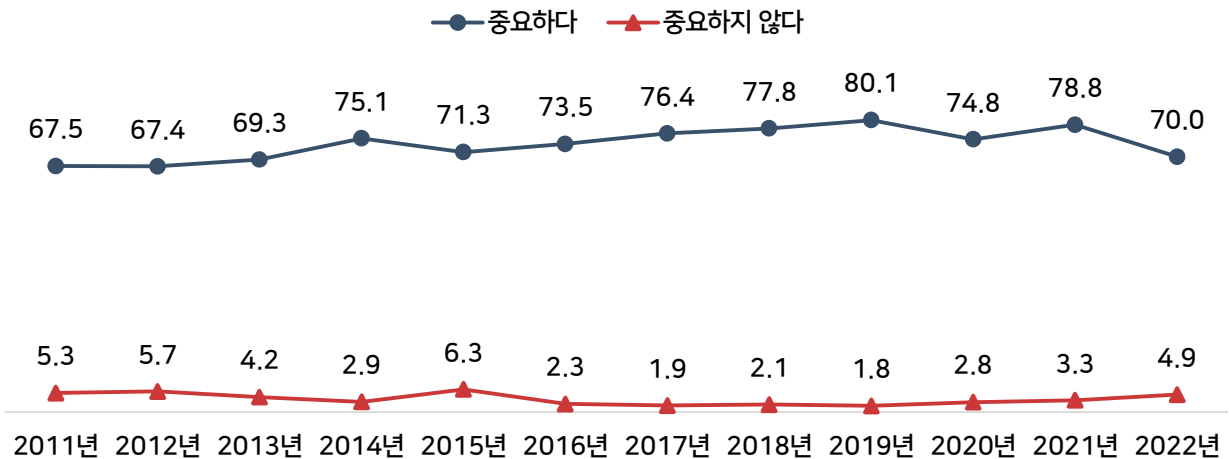
<그림>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중요하지 않다'(4.9%)보다 65.1%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8.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p 증가함.

<그림>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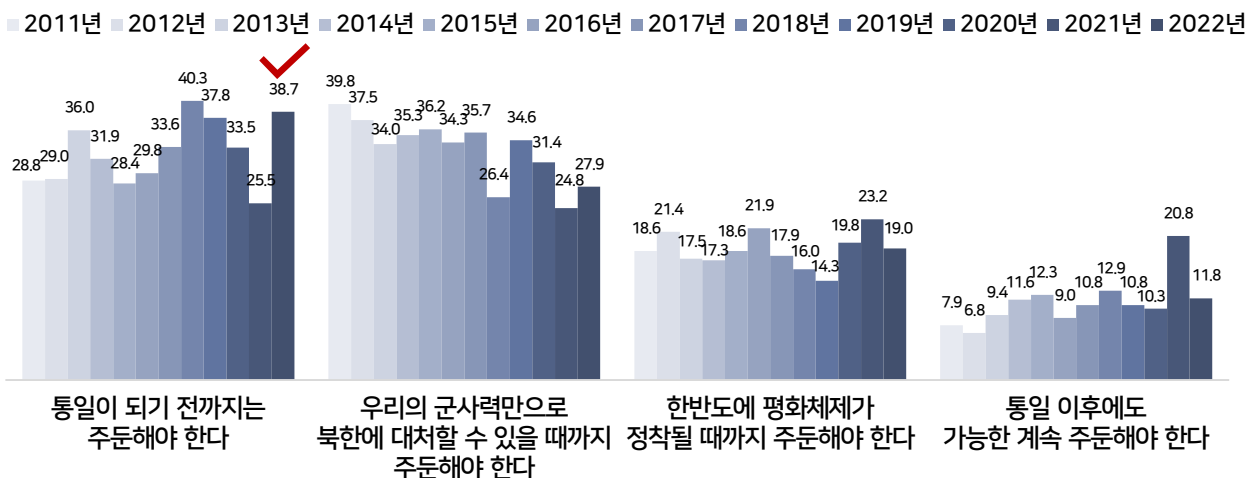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주한미군 주둔 시기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p 증가함.

<그림> 주한미군 주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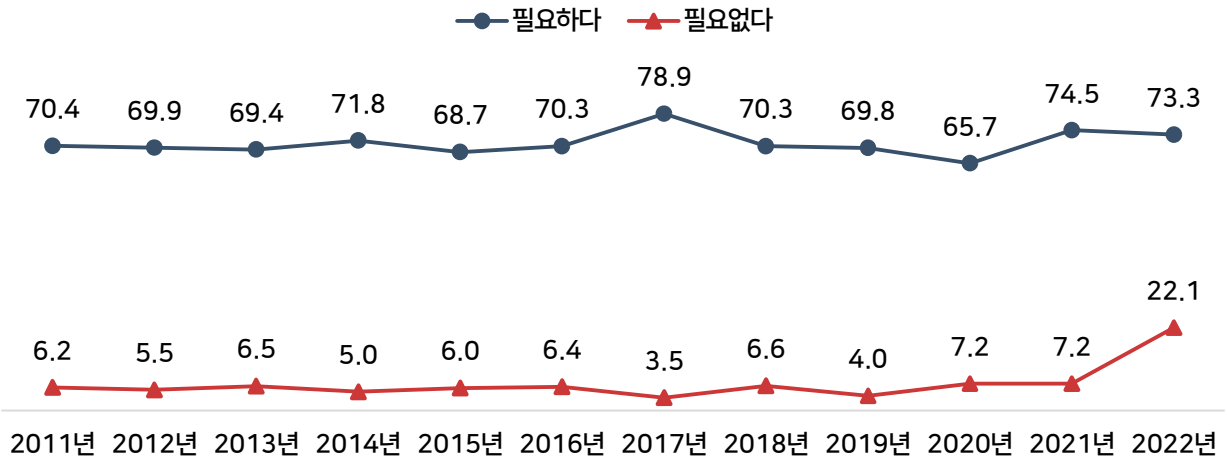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필요없다'(22.1%)보다 51.3%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1.2%p 감소함.

<그림>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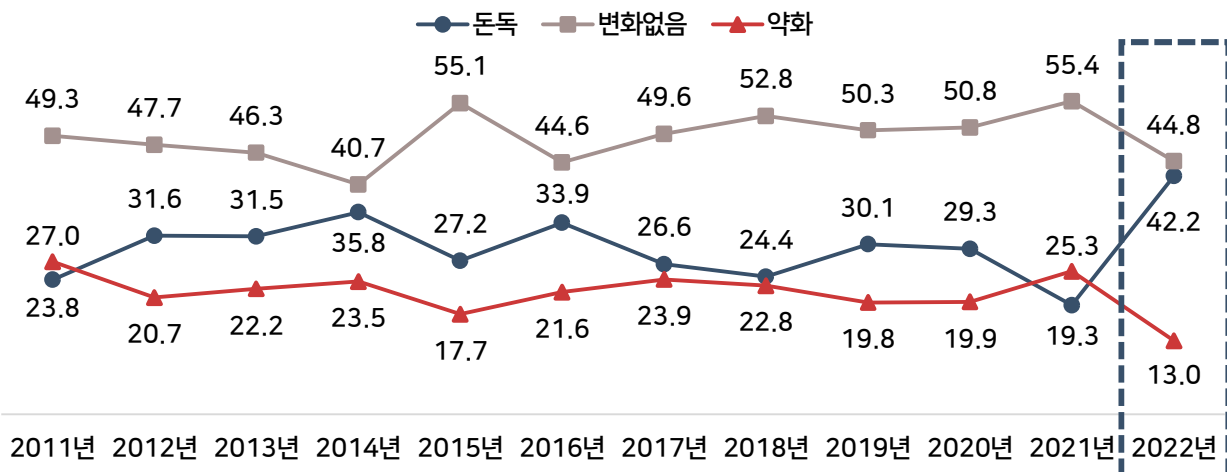
귀하는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42.2%로, '악화될 것이다'(13.0%)보다 29.2%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22.9%p 증가함.
- 과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중의 미래연합사 평가와 검증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귀하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I. 북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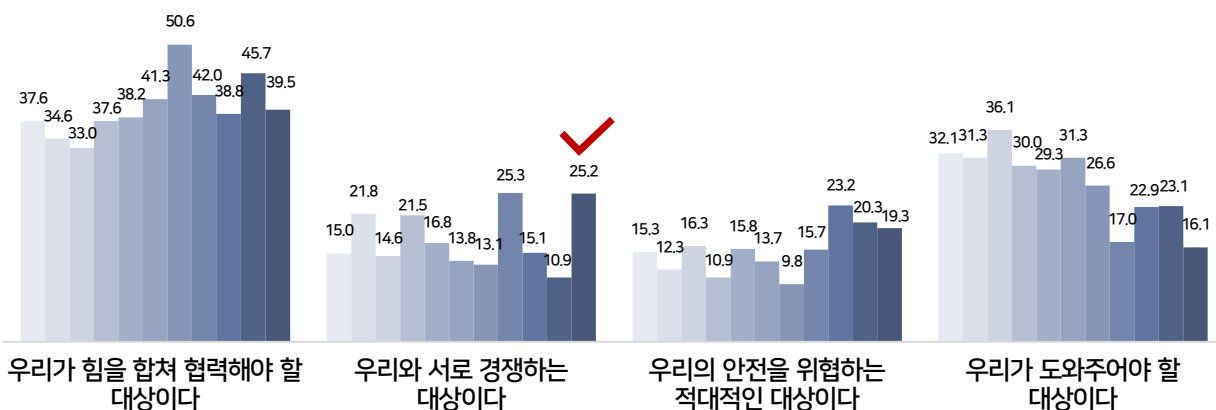
-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39.5%로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는 응답(25.2%)이 2021년(10.9%) 대비 14.3%p 증가함
-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3.4%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21.8%)보다 21.7%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2%p(2021년 44.6%),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10.7%p(2021년 32.4%) 감소함.
-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41.8%로 '북한 우위'(18.7%)라는 응답보다 23.2%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10.5%p 증가함.(2021년 52.3%)
- ✓ 북한의 도발 가능성(향후 2~3년 이내)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35.4%로, '낮다'(28.3%)보다 7.1%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높다'라는 응답은 0.2%p(2021년 35.2%)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6.7%p(2021년 3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69.7%로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7.2%p 감소함. (2021년 76.9%)

-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은 6.2%p 감소한 반면,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라는 응답은 14.3%p 증가함

<그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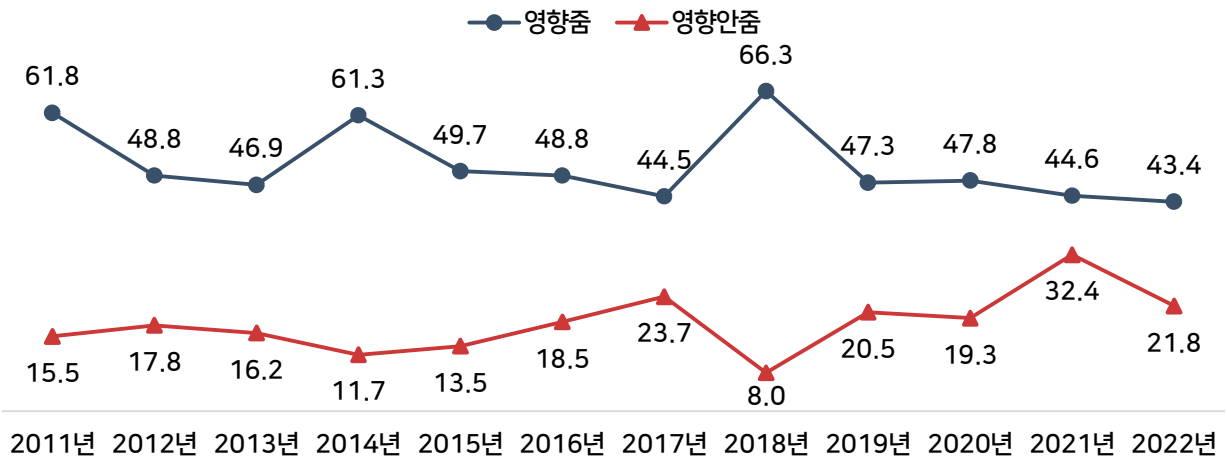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3.4%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21.8%)보다 21.7%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2%p 감소함.

<그림>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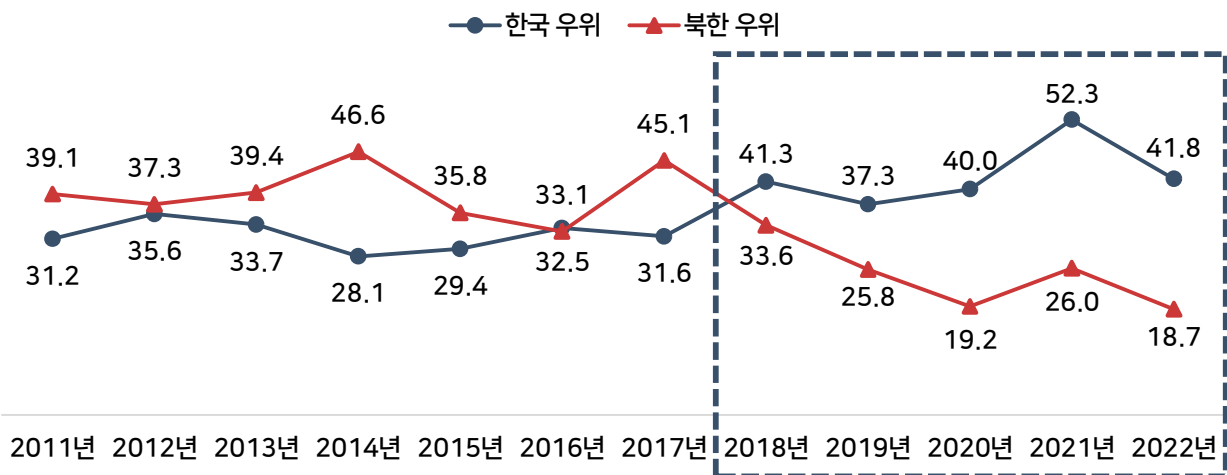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41.8%로, '북한 우위'(18.7%)라는 응답보다 23.2%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10.5%p,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7.3%p 증가함.
- 2018년 이후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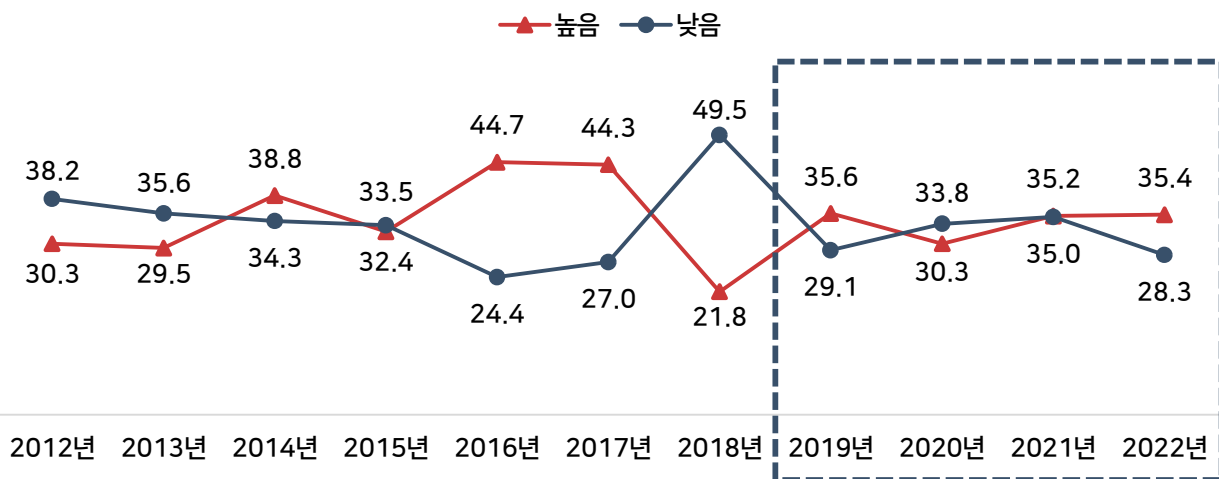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이내)이 '높다'는 응답이 35.4%로, '낮다'(28.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이내)이 '높다'는 응답은 0.2%p 증가함.
- 2019년부터 '높다'는 응답과 '낮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응답자가 경험하지 않은 위험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점차 판단유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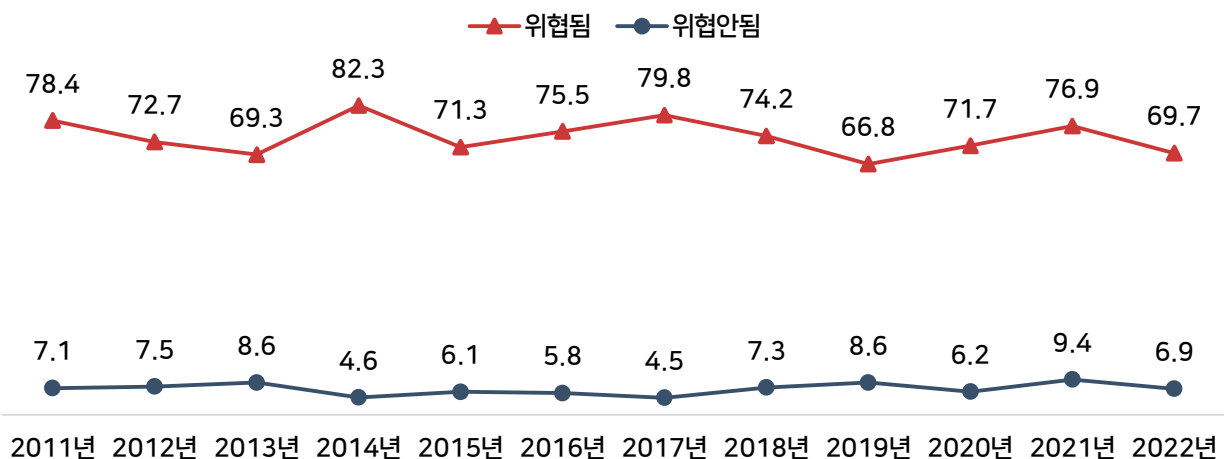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69.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6.9%)보다 62.8%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7.2%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북한 핵무기 보유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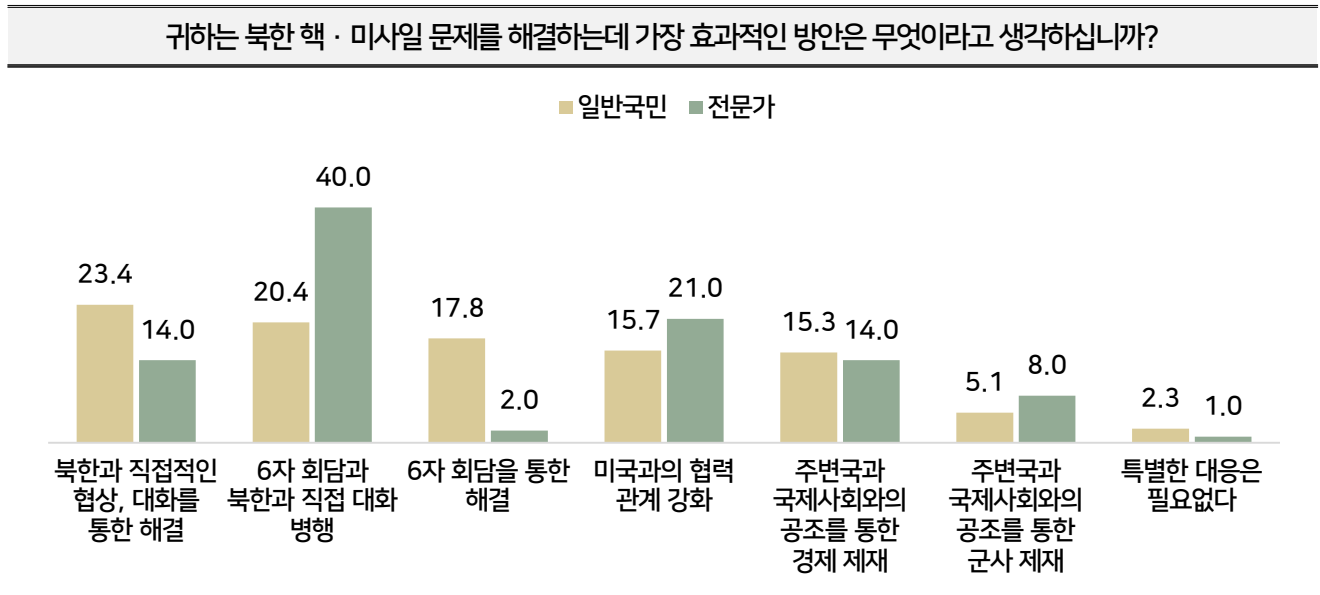
<그림>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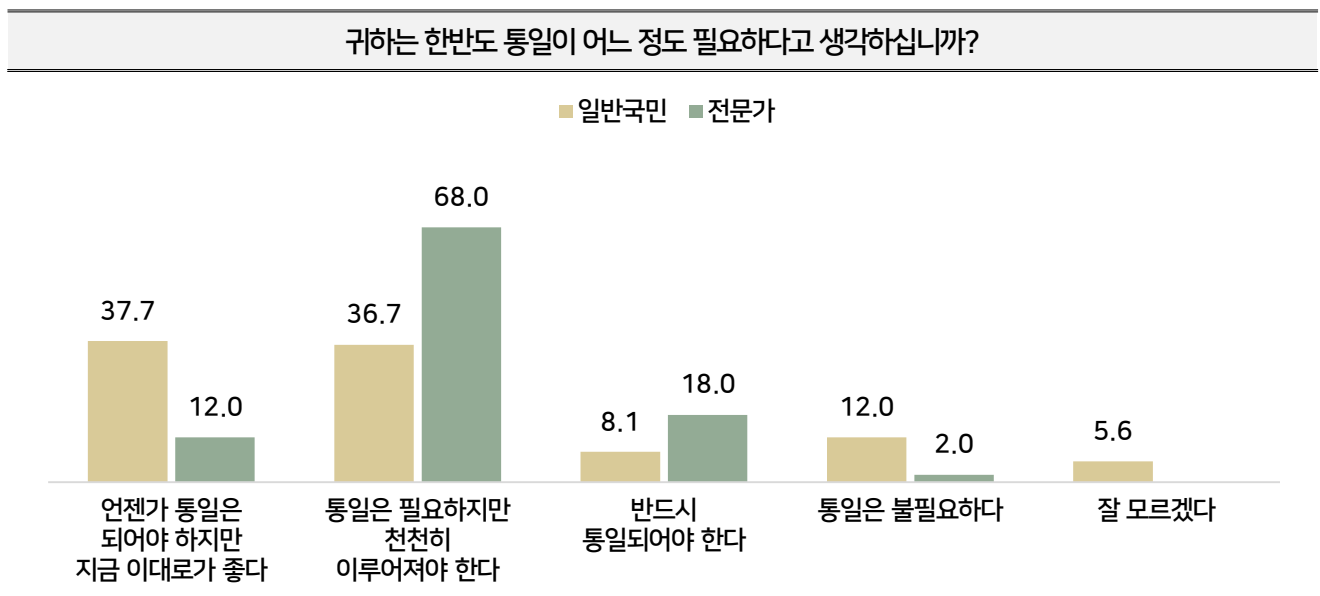
- ▶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일반국민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23.4%)과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20.4%)이 주를 이룬 반면, 전문가는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40.0%)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함.

<그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 ▶ **우리나라 통일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37.7%)와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36.7%)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는 반면, 전문가는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68.0%)는 응답이 주로 나타나 다른 입장 차이를 보임.

<그림> 우리나라 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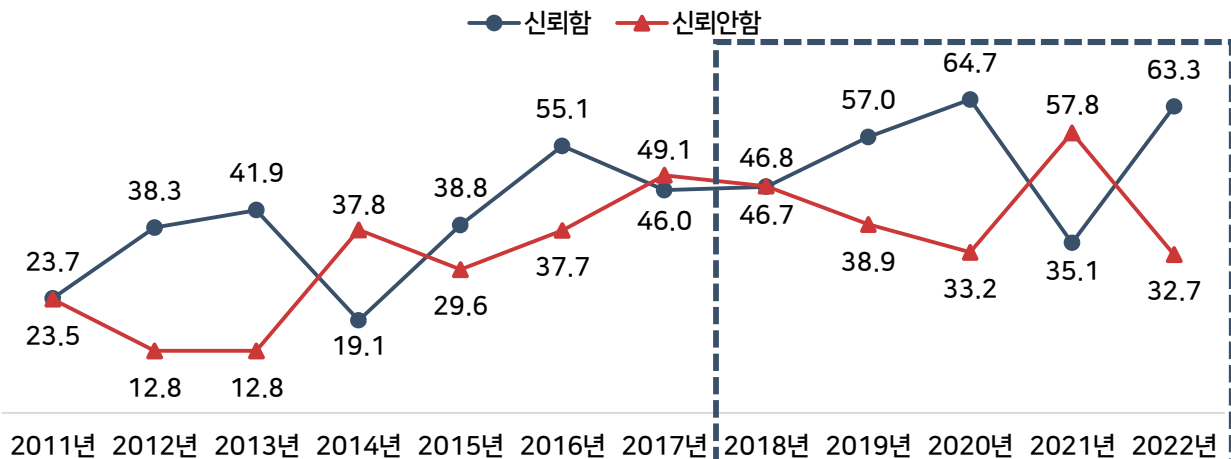
I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 ✓ 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63.3%로, '신뢰하지 않는다'(32.7%)보다 30.6%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28.2%p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1%p 감소하였음.
-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56.7%로, '반대한다'(7.8%)보다 높게 나타남.
-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줄여야 한다'(7.3%)보다 33.3%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0.1%p,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57.0%로, '효율적이다'(30.0%)보다 27.0%p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0.4%p 감소하였고,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16.3%p 증가함.
-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장병 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5%), '첨단무기체계 확보'(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9%로, '공정하다'(39.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2021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63.3%)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32.7%)보다 30.6%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8.2%p 증가함.

<그림>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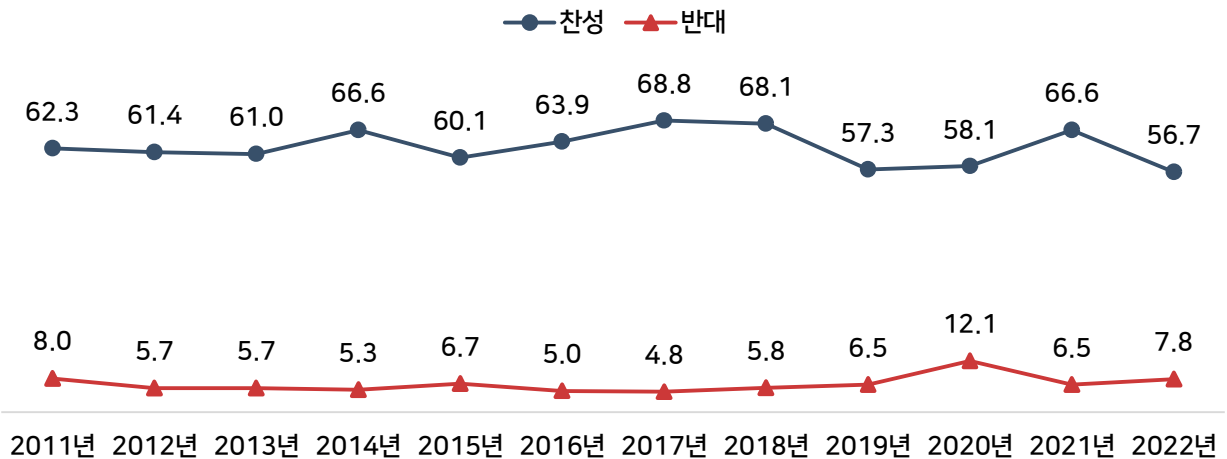
귀하는 우리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7%로, '반대한다'(7.8%)보다 48.8%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9.9%p 감소함.

<그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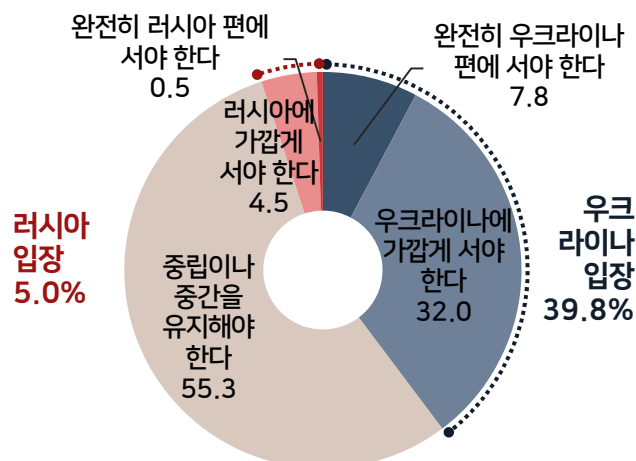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제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 '중립이나 중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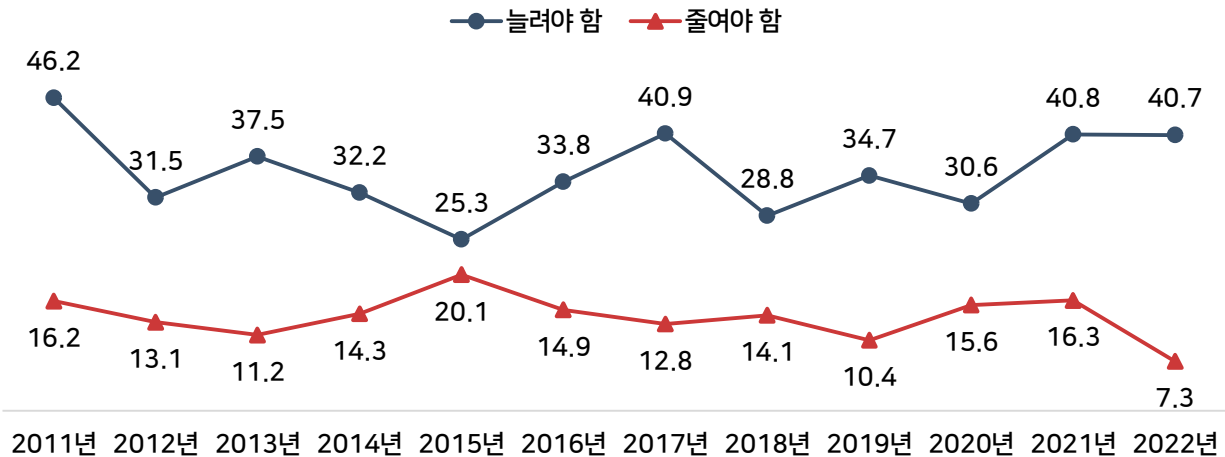
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줄여야 한다'(7.3%)보다 33.3%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0.1%p 감소함.

<그림> 한국의 국방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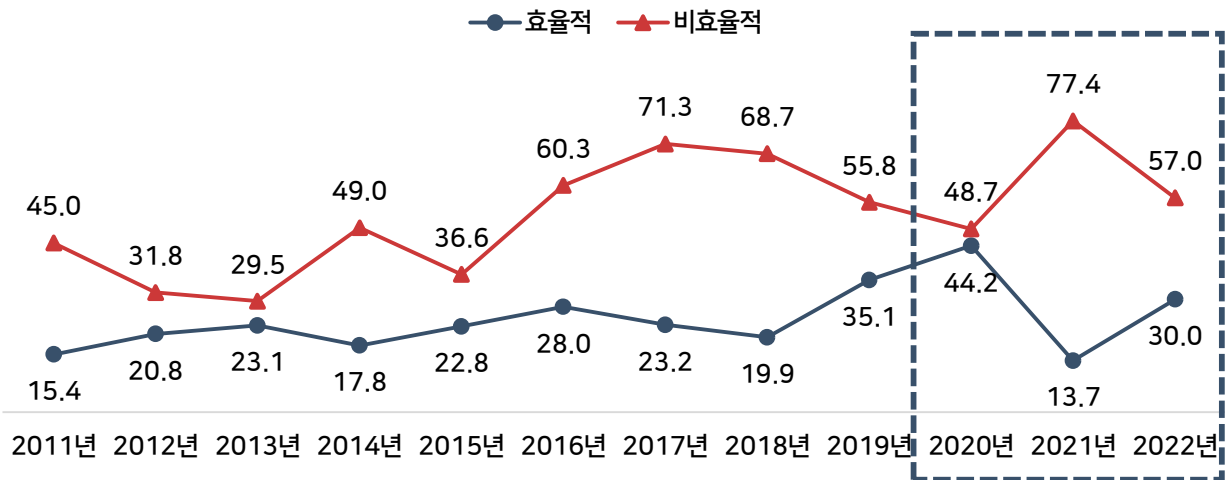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57.0%로, '효율적이다'(30.0%)보다 27.0%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0.4%p 감소함.

<그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귀하는 우리 군이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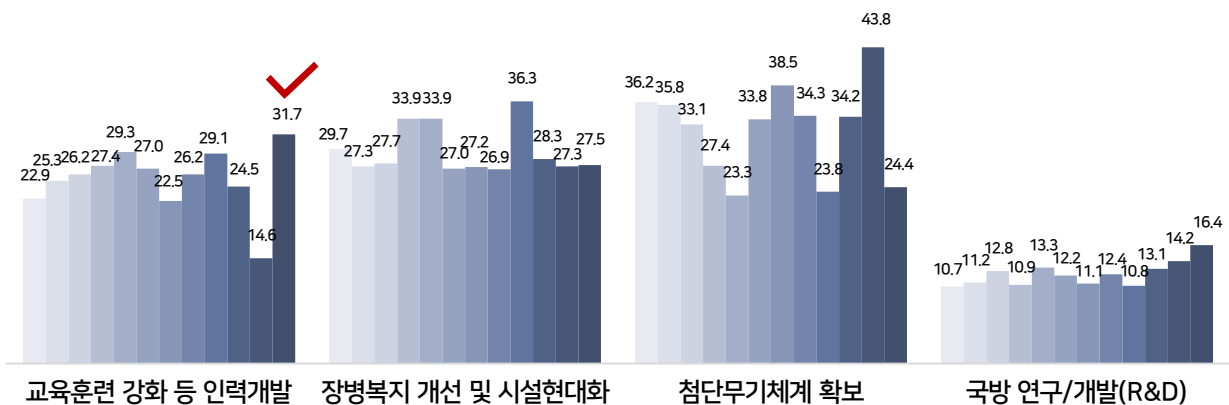


-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5%), '첨단 무기체계 확보'(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17.1%p 증가함.
- 상대적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함.

<그림>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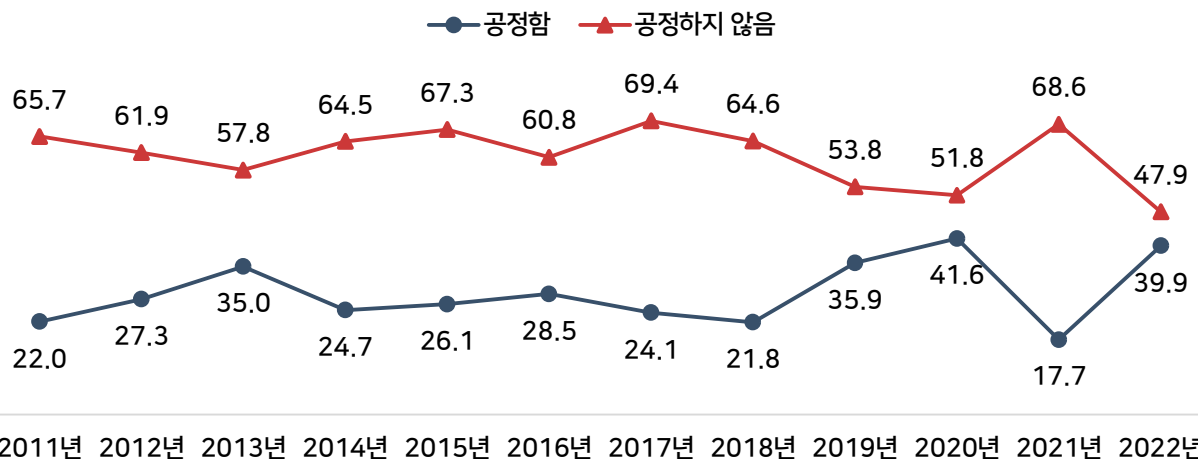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9%로, '공정하다'(39.9%) 보다 8.0%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0.7%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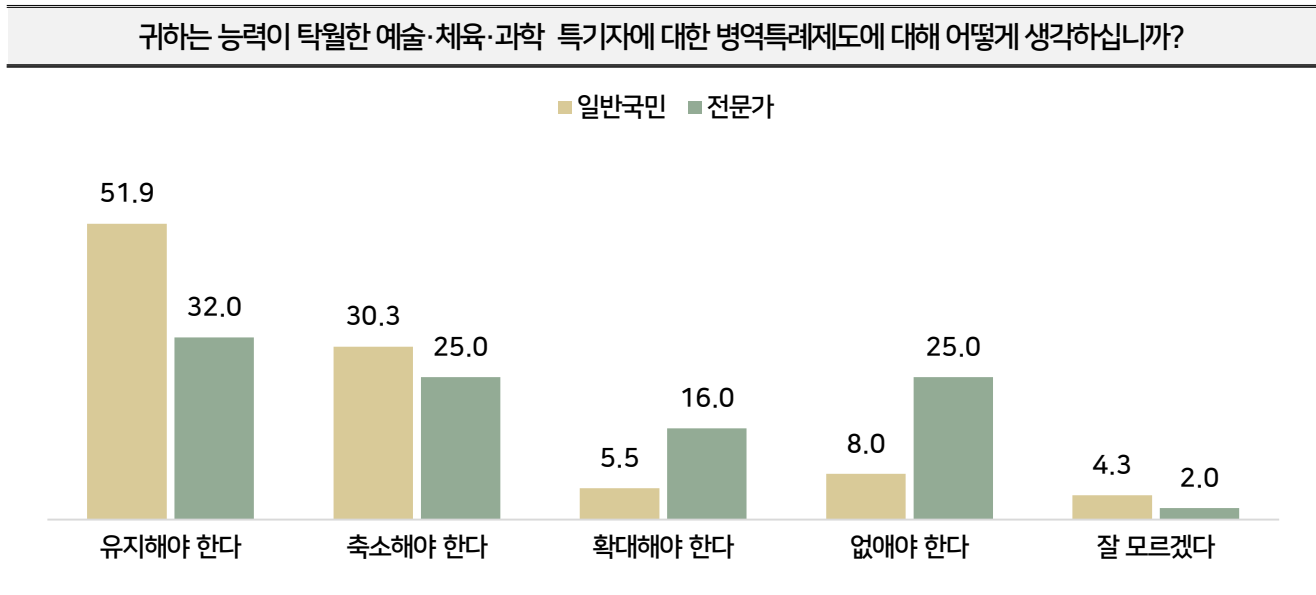
<그림>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귀하는 무기선정 등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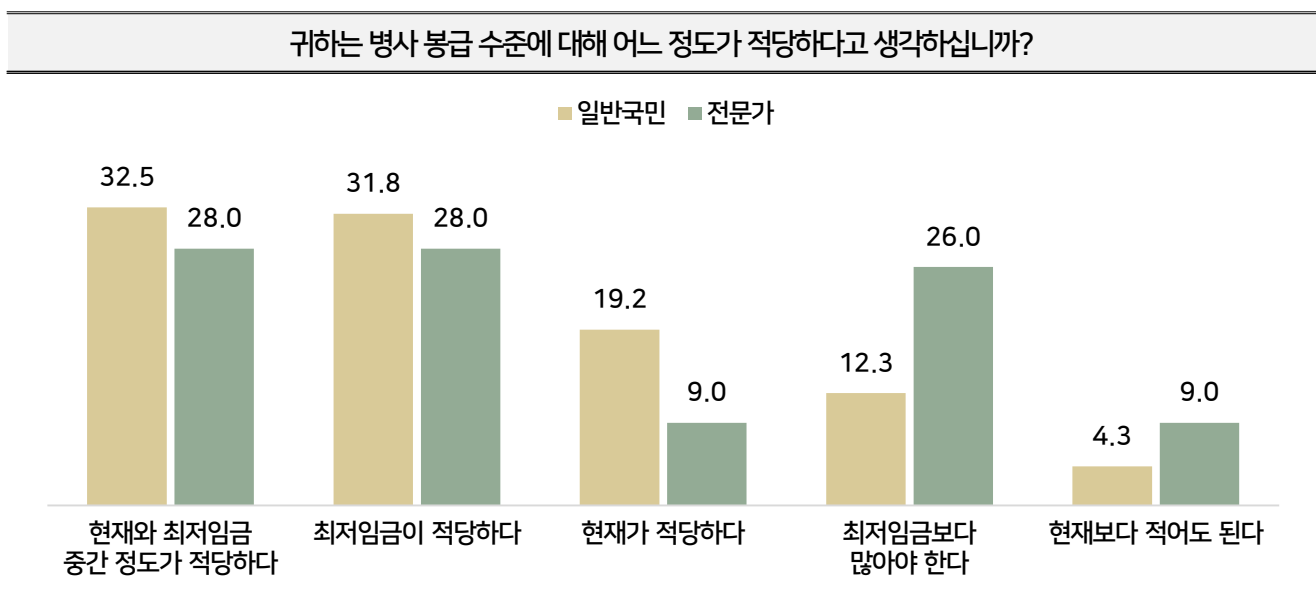
- ▶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반국민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은 반면, 전문가는 '유지'(32.0%)하거나 '축소'(25.0%), '폐지'(25.0%) 등의 의견으로 분산되어서 나타남.

<그림>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 ▶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반국민은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32.5%)와 '최저임금이 적당하다'(31.8%)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전문가 또한,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28.0%)와 '최저임금이 적당하다'(28.0%),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26.0%)는 응답이 주로 나타나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제3장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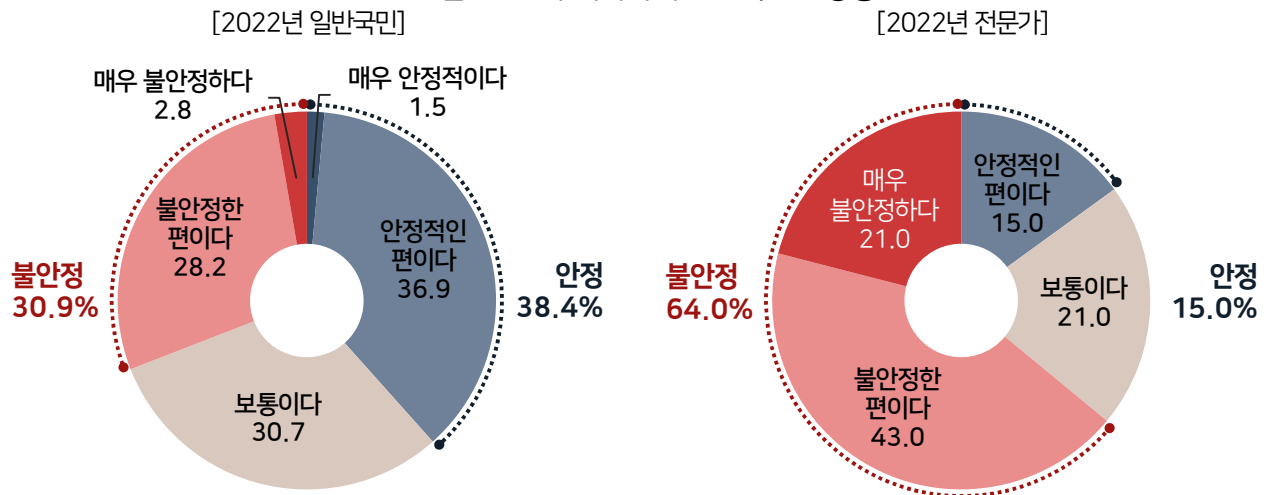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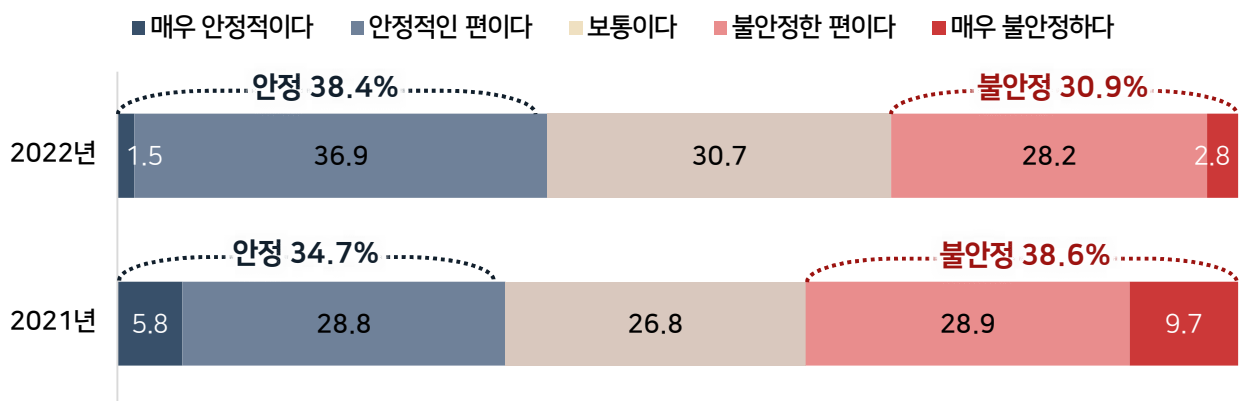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38.4%, 전문가 15.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4%로 '불안정'(30.9%)보다 7.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4%로 3.7%p(2021년 34.7%) 증가한 반면, '불안정'이라는 응답은 30.9%로 7.7%p(2021년 38.6%) 감소함.
- ▶ **[전문가]**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이 64.0%로 '안정적'(15.0%)이라는 응답보다 49.0%p 높게 나타남.
- ▷ 안보상황이 일반국민은 '안정적', 전문가는 '불안정적'이라고 인식함.

<그림 1-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본인의 안보수준의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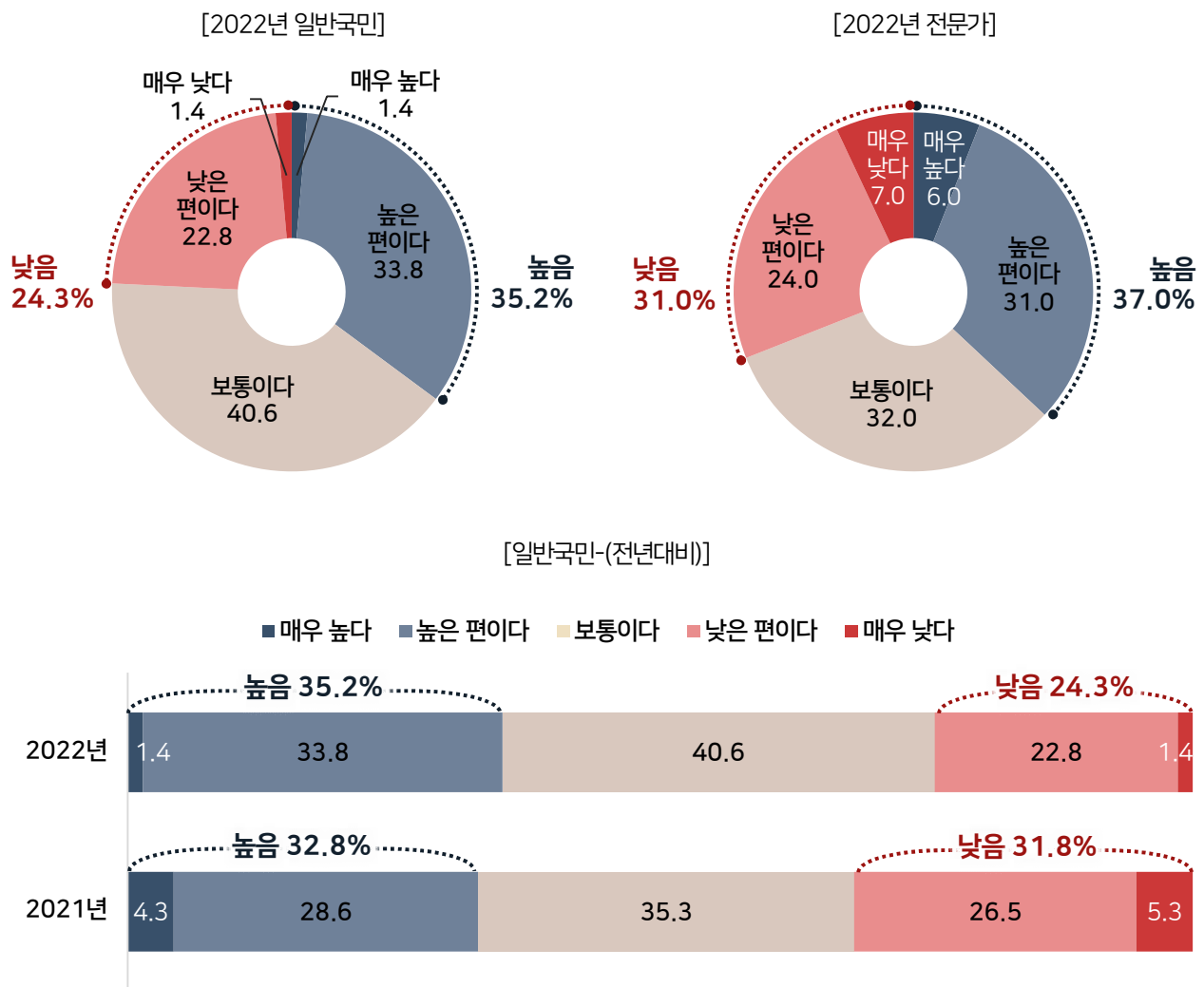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 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 하다	종합		
								안정	보통	불안정
전체		1,300	1.4	35.2	29.9	29.3	4.2	36.6	29.9	3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	36.9	30.7	28.2	2.8	38.4	30.7	30.9
	전문가	100	-	15.0	21.0	43.0	21.0	15.0	21.0	6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0	51.8	23.6	19.8	2.7	53.9	23.6	22.5
	중	570	1.1	31.2	35.8	30.0	1.9	32.3	35.8	31.9
	하	190	1.6	19.5	31.6	42.1	5.3	21.1	31.6	47.4
성별	남성	720	1.5	35.3	30.8	29.4	2.9	36.8	30.8	32.4
	여성	480	1.5	39.4	30.4	26.3	2.5	40.8	30.4	28.8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32.6	36.1	27.8	1.8	34.4	36.1	29.5
	30대	193	1.0	41.5	29.5	25.4	2.6	42.5	29.5	28.0
	40대	247	1.6	36.4	30.4	29.6	2.0	38.1	30.4	31.6
	50대	254	2.0	39.4	26.8	28.3	3.5	41.3	26.8	31.9
	60대 이상	279	1.1	35.5	30.8	29.0	3.6	36.6	30.8	32.6
지역별	서울	225	0.9	35.6	32.4	31.1	0.0	36.4	32.4	31.1
	경기/인천	386	1.6	31.1	29.8	32.6	4.9	32.6	29.8	37.6
	부산/울산/경남	179	0.0	53.6	32.4	14.0	0.0	53.6	32.4	14.0
	대구/경북	121	1.7	21.5	38.8	33.9	4.1	23.1	38.8	38.0
	광주/전라	114	0.0	36.8	22.8	34.2	6.1	36.8	22.8	40.4
	대전/충청/세종	127	4.7	53.5	27.6	14.2	0.0	58.3	27.6	14.2
	강원/제주	48	4.2	22.9	29.2	39.6	4.2	27.1	29.2	43.8
지역크기	대도시	526	1.0	32.5	32.7	32.1	1.7	33.5	32.7	33.8
	중소도시	629	2.1	40.4	29.9	24.0	3.7	42.4	29.9	27.7
	읍/면	45	0.0	40.0	17.8	40.0	2.2	40.0	17.8	4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6.7	31.1	33.3	6.7	28.9	31.1	40.0
	자영업자	165	1.2	33.3	32.1	27.9	5.5	34.5	32.1	33.3
	판매/서비스직	236	1.7	42.8	27.1	27.1	1.3	44.5	27.1	28.4
	기능/숙련공	104	1.0	40.4	33.7	22.1	2.9	41.3	33.7	25.0
	일반 노무직	50	0.0	30.0	32.0	30.0	8.0	30.0	32.0	38.0
	사무/기술직	304	1.6	33.6	29.3	34.2	1.3	35.2	29.3	35.5
	경영/관리직	12	0.0	33.3	8.3	41.7	16.7	33.3	8.3	58.3
	전문/자유직	12	8.3	33.3	50.0	8.3	0.0	41.7	50.0	8.3
	전업주부	176	0.6	43.8	29.5	24.4	1.7	44.3	29.5	26.1
	학생	47	4.3	29.8	36.2	25.5	4.3	34.0	36.2	29.8
	무직/휴직/은퇴	40	2.5	42.5	37.5	17.5	0.0	45.0	37.5	17.5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66.7	33.3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41.8	29.1	27.3	0.0	43.6	29.1	2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9	42.6	30.6	22.7	3.3	43.4	30.6	26.0
	전문대(중퇴/졸업)	269	3.0	40.9	30.5	23.0	2.6	43.9	30.5	25.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	27.6	31.5	37.8	2.2	28.5	31.5	40.0
	대학원 이상	8	12.5	25.0	12.5	25.0	25.0	37.5	12.5	50.0
생활 수준별	상	62	1.6	40.3	22.6	33.9	1.6	41.9	22.6	35.5
	중	565	1.6	35.8	30.8	29.4	2.5	37.3	30.8	31.9
	하	573	1.4	37.7	31.4	26.4	3.1	39.1	31.4	29.5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5.2%, 전문가 3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24.3%)보다 10.9%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2.4%p(2021년 32.8%) 증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4.3%로 7.5%p(2021년 31.8%) 감소하였음.
- ▶ [전문가]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7.0%로, '낮다'(31.0%)는 응답보다 6.0%p 높게 나타남.

<그림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특성별 분석]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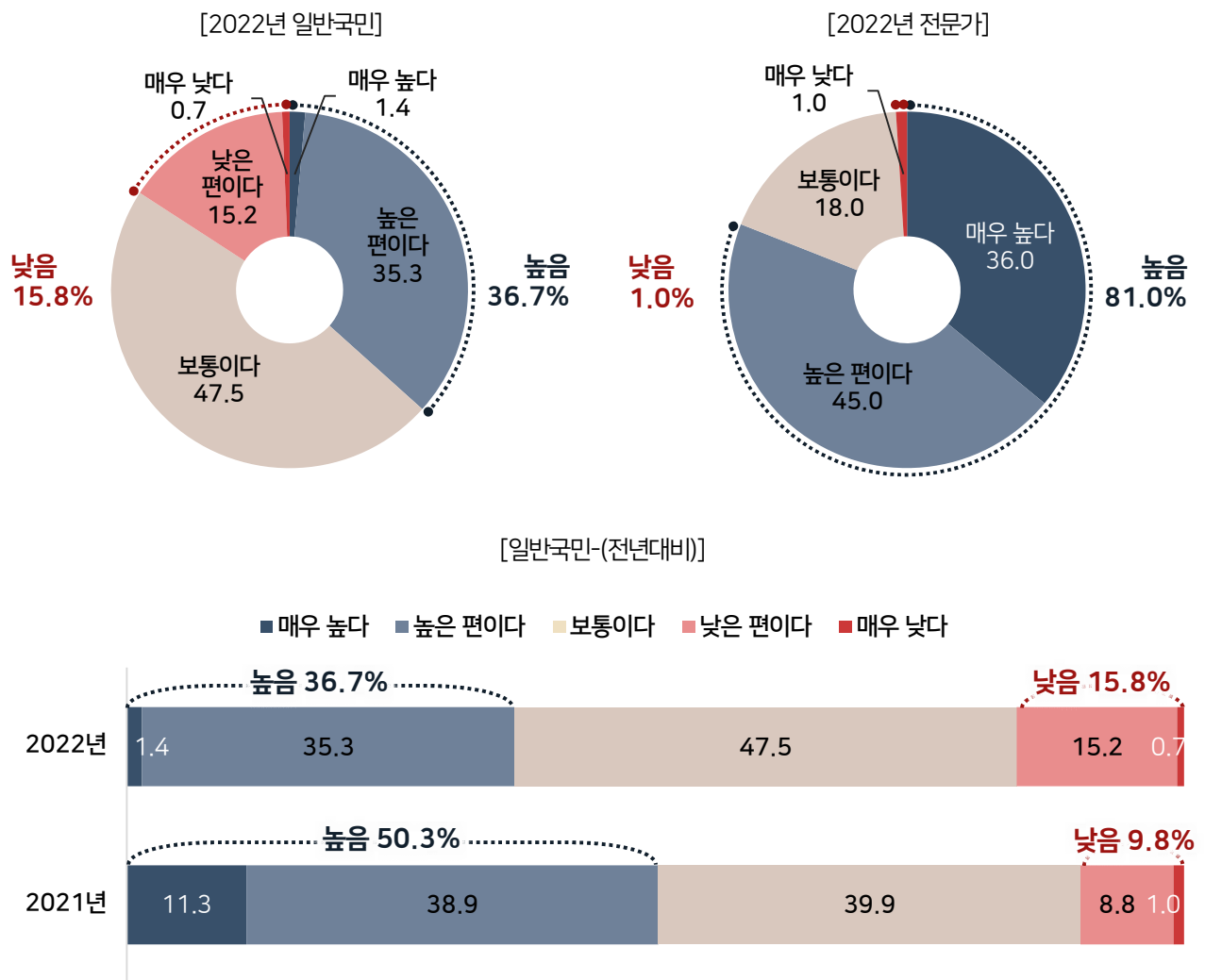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300	1.8	33.5	39.9	22.9	1.8	35.3	39.9	24.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33.8	40.6	22.8	1.4	35.2	40.6	24.3
	전문가	100	6.0	31.0	32.0	24.0	7.0	37.0	32.0	3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4	55.5	32.3	8.0	0.9	58.9	32.3	8.9
	중	570	0.4	23.7	50.5	25.3	0.2	24.0	50.5	25.4
	하	190	0.0	13.7	30.0	50.0	6.3	13.7	30.0	56.3
성별	남성	720	1.3	31.8	39.9	25.8	1.3	33.1	39.9	27.1
	여성	480	1.7	36.7	41.7	18.3	1.7	38.3	41.7	2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31.7	44.9	20.3	2.6	32.2	44.9	22.9
	30대	193	1.0	26.9	48.7	21.8	1.6	28.0	48.7	23.3
	40대	247	1.6	37.2	36.4	23.9	0.8	38.9	36.4	24.7
	50대	254	2.0	29.9	42.5	24.8	0.8	31.9	42.5	25.6
	60대 이상	279	1.8	40.5	33.3	22.9	1.4	42.3	33.3	24.4
지역별	서울	225	2.7	32.4	37.8	26.2	0.9	35.1	37.8	27.1
	경기/인천	386	0.8	30.8	39.1	27.2	2.1	31.6	39.1	29.3
	부산/울산/경남	179	0.6	30.2	50.8	17.3	1.1	30.7	50.8	18.4
	대구/경북	121	1.7	26.4	44.6	26.4	0.8	28.1	44.6	27.3
	광주/전라	114	2.6	53.5	36.0	7.0	0.9	56.1	36.0	7.9
	대전/충청/세종	127	0.0	44.9	36.2	18.1	0.8	44.9	36.2	18.9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4.2	18.8	39.6	33.3	4.2	22.9	39.6	37.5
	대도시	526	1.7	31.4	40.1	25.5	1.3	33.1	40.1	26.8
	중소도시	629	1.1	35.1	42.3	20.2	1.3	36.2	42.3	21.5
	읍/면	45	2.2	42.2	22.2	28.9	4.4	44.4	22.2	33.3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33.3	33.3	24.4	4.4	37.8	33.3	28.9
	자영업자	165	2.4	26.1	43.6	26.1	1.8	28.5	43.6	27.9
	판매/서비스직	236	0.8	36.9	40.3	21.2	0.8	37.7	40.3	22.0
	기능/숙련공	104	1.0	37.5	29.8	30.8	1.0	38.5	29.8	31.7
	일반 노무직	50	0.0	32.0	36.0	30.0	2.0	32.0	36.0	32.0
	사무/기술직	304	1.3	31.9	45.1	21.1	0.7	33.2	45.1	21.7
	경영/관리직	12	0.0	33.3	16.7	50.0	0.0	33.3	16.7	50.0
	전문/자유직	12	8.3	25.0	16.7	50.0	0.0	33.3	16.7	50.0
	전업주부	176	1.1	40.9	40.9	15.3	1.7	42.0	40.9	17.0
	학생	47	2.1	23.4	44.7	23.4	6.4	25.5	44.7	29.8
	무직/휴직/은퇴	40	0.0	45.0	35.0	20.0	0.0	45.0	35.0	20.0
	기타	9	0.0	0.0	88.9	11.1	0.0	0.0	88.9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38.2	32.7	25.5	1.8	40.0	32.7	2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5	38.6	39.7	18.8	1.3	40.2	39.7	20.1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37.5	36.1	23.4	1.5	39.0	36.1	24.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	25.1	45.6	26.8	1.5	26.1	45.6	28.3
	대학원 이상	8	12.5	37.5	37.5	12.5	0.0	50.0	37.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6	29.0	40.3	27.4	1.6	30.6	40.3	29.0
	중	565	0.7	34.2	41.8	21.9	1.4	34.9	41.8	23.4
	하	573	2.1	33.9	39.4	23.2	1.4	36.0	39.4	24.6

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6.7%, 전문가 81.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6.7%로 '낮다'(15.8%)라는 응답보다 20.9%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13.6%p(2021년 50.3%) 감소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6.0%p(2021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81.0%, '낮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남.

<그림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특성별 분석]

- ▷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1-3>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종합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전체		1,300	4.1	36.0	45.2	14.0	0.7	40.1	45.2	14.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4	35.3	47.5	15.2	0.7	36.7	47.5	15.8
	전문가	100	36.0	45.0	18.0	-	1.0	81.0	18.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9	96.1	0.0	0.0	0.0	100.0	0.0	0.0
	중	57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하	190	0.0	0.0	0.0	95.8	4.2	0.0	0.0	100.0
성별	남성	720	1.8	38.1	48.1	11.9	0.1	39.9	48.1	12.1
	여성	480	0.8	31.0	46.7	20.0	1.5	31.9	46.7	21.5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32.6	50.2	15.0	1.3	33.5	50.2	16.3
	30대	193	1.0	33.7	50.3	14.5	0.5	34.7	50.3	15.0
	40대	247	1.2	38.1	44.5	15.8	0.4	39.3	44.5	16.2
	50대	254	1.2	36.2	47.6	14.2	0.8	37.4	47.6	15.0
	60대 이상	279	2.5	35.1	45.9	16.1	0.4	37.6	45.9	16.5
지역별	서울	225	0.9	33.8	48.4	16.0	0.9	34.7	48.4	16.9
	경기/인천	386	1.3	31.9	47.2	18.7	1.0	33.2	47.2	19.7
	부산/울산/경남	179	1.1	40.2	53.1	5.6	0.0	41.3	53.1	5.6
	대구/경북	121	0.8	26.4	57.0	14.9	0.8	27.3	57.0	15.7
	광주/전라	114	2.6	58.8	29.8	8.8	0.0	61.4	29.8	8.8
	대전/충청/세종	127	0.8	26.0	46.5	26.8	0.0	26.8	46.5	26.8
	강원/제주	48	6.3	41.7	45.8	4.2	2.1	47.9	45.8	6.3
지역크기	대도시	526	1.9	32.9	47.3	16.9	1.0	34.8	47.3	17.9
	중소도시	629	1.0	36.4	48.0	14.1	0.5	37.4	48.0	14.6
	읍/면	45	2.2	46.7	42.2	8.9	0.0	48.9	42.2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4.4	44.4	28.9	0.0	26.7	44.4	28.9
	자영업자	165	1.2	39.4	45.5	13.9	0.0	40.6	45.5	13.9
	판매/서비스직	236	0.8	35.6	48.7	14.0	0.8	36.4	48.7	14.8
	기능/숙련공	104	1.9	40.4	45.2	12.5	0.0	42.3	45.2	12.5
	일반 노무직	50	2.0	30.0	52.0	16.0	0.0	32.0	52.0	16.0
	사무/기술직	304	1.6	38.5	47.7	11.5	0.7	40.1	47.7	12.2
	경영/관리직	12	0.0	41.7	58.3	0.0	0.0	41.7	58.3	0.0
	전문/자유직	12	16.7	25.0	50.0	8.3	0.0	41.7	50.0	8.3
	전업주부	176	0.6	29.0	46.0	23.3	1.1	29.5	46.0	24.4
	학생	47	2.1	27.7	42.6	23.4	4.3	29.8	42.6	27.7
	무직/휴직/은퇴	40	0.0	40.0	52.5	7.5	0.0	40.0	52.5	7.5
	기타	9	0.0	11.1	77.8	11.1	0.0	11.1	77.8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20.0	49.1	27.3	0.0	23.6	49.1	2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1	36.5	45.0	17.0	0.4	37.6	45.0	17.5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39.4	45.7	11.9	1.5	40.9	45.7	13.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	32.7	51.7	13.9	0.5	33.9	51.7	14.4
	대학원 이상	8	12.5	62.5	25.0	0.0	0.0	75.0	25.0	0.0
생활 수준별	상	62	1.6	33.9	56.5	8.1	0.0	35.5	56.5	8.1
	중	565	1.4	35.6	48.0	14.7	0.4	37.0	48.0	15.0
	하	573	1.4	35.1	46.1	16.4	1.0	36.5	46.1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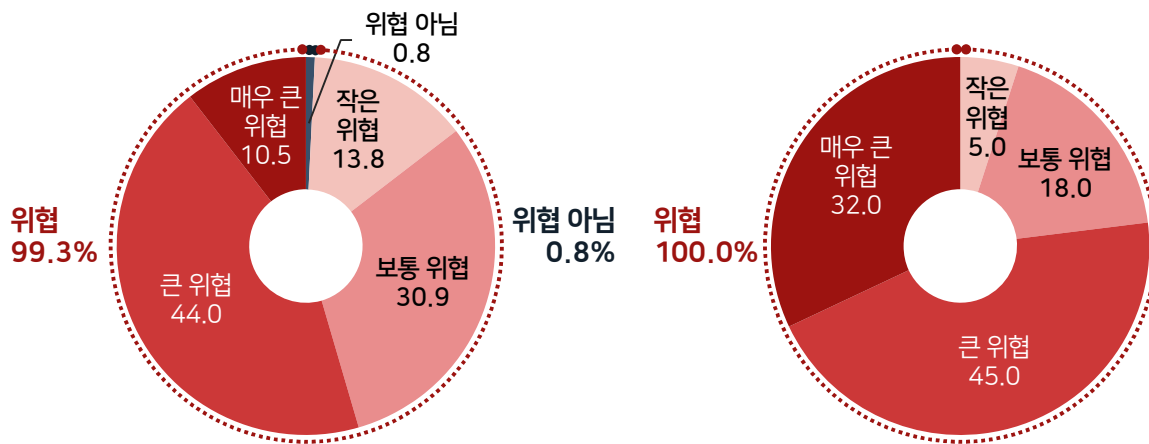
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1) 강대국의 패권전쟁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3%,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3%로 '위협이 아니다'(0.8%)라는 응답보다 98.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강대국의 패권전쟁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중',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강대국의 패권전쟁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7	13.2	29.9	44.1	12.2	0.7	9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8	13.8	30.9	44.0	10.5	0.8	99.3
	전문가	100	-	5.0	18.0	45.0	32.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9	9.3	25.0	48.0	16.8	0.9	99.1
	중	570	0.2	16.0	34.6	42.5	6.8	0.2	99.8
	하	190	2.1	17.9	33.7	39.5	6.8	2.1	97.9
성별	남성	720	0.6	14.3	29.9	45.7	9.6	0.6	99.4
	여성	480	1.0	13.1	32.5	41.5	11.9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	14.5	26.0	49.3	8.8	1.3	98.7
	30대	193	0.5	13.5	34.7	42.5	8.8	0.5	99.5
	40대	247	0.4	15.0	31.2	42.9	10.5	0.4	99.6
	50대	254	0.4	13.4	36.6	39.0	10.6	0.4	99.6
	60대 이상	279	1.1	12.9	26.9	46.2	12.9	1.1	98.9
지역별	서울	225	0.4	16.0	30.2	46.2	7.1	0.4	99.6
	경기/인천	386	1.3	14.8	31.3	36.0	16.6	1.3	98.7
	부산/울산/경남	179	0.0	2.8	44.7	43.6	8.9	0.0	100.0
	대구/경북	121	0.8	18.2	35.5	42.1	3.3	0.8	99.2
	광주/전라	114	0.0	3.5	13.2	68.4	14.9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8	30.7	26.8	37.0	4.7	0.8	99.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6.3	20.8	64.6	6.3	2.1	97.9
	대도시	526	0.8	15.0	28.5	47.7	8.0	0.8	99.2
	중소도시	629	0.8	13.5	32.6	40.7	12.4	0.8	99.2
	읍/면	45	0.0	4.4	35.6	46.7	13.3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2	28.9	57.8	8.9	2.2	97.8
	자영업자	165	0.0	17.0	24.8	46.7	11.5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1.3	17.8	31.4	40.7	8.9	1.3	98.7
	기능/숙련공	104	1.0	5.8	32.7	53.8	6.7	1.0	99.0
	일반 노무직	50	0.0	24.0	24.0	38.0	1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3	11.2	29.6	46.4	12.5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0.0	50.0	16.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41.7	33.3	8.3	0.0	100.0
	전업주부	176	0.6	13.6	31.8	42.6	11.4	0.6	99.4
	학생	47	2.1	14.9	25.5	53.2	4.3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2.5	25.0	50.0	15.0	7.5	2.5	97.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88.9	11.1	0.0	0.0	100.0
	중졸 이하	55	1.8	18.2	40.0	29.1	10.9	1.8	9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14.2	31.7	41.9	11.6	0.7	99.3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17.8	29.7	42.4	8.6	1.5	98.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10.0	30.0	49.5	10.2	0.2	99.8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25.0	12.5	37.5	25.0	0.0	100.0
	상	62	1.6	8.1	25.8	54.8	9.7	1.6	98.4
	중	565	0.5	12.4	29.0	45.1	12.9	0.5	99.5
	하	573	0.9	15.9	33.3	41.7	8.2	0.9	99.1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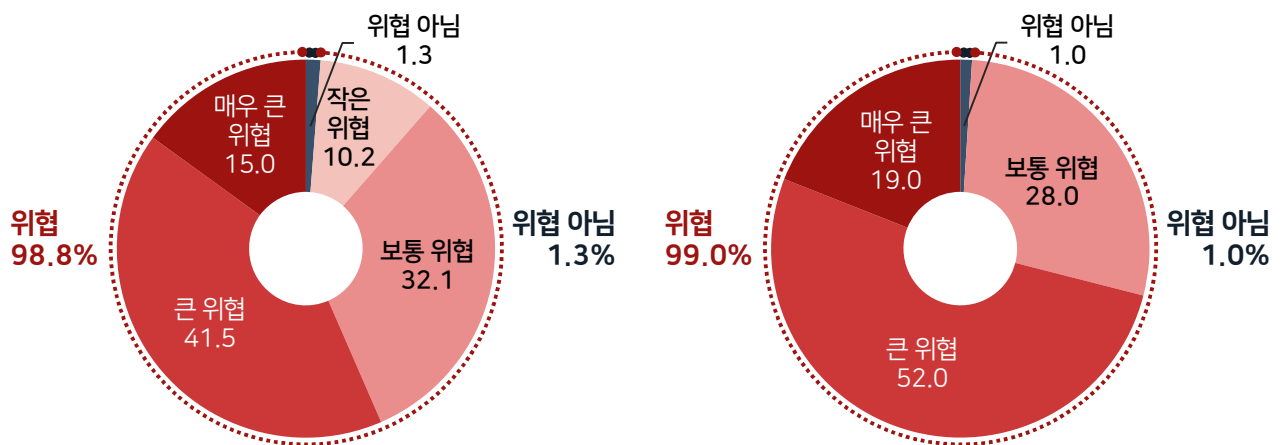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8.8%, 전문가는 99.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8.8%로 '위협이 아니다'(1.3%)라는 응답보다 97.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0%로 '위협이 아니다'(1.0%)라는 응답보다 98.0%p 높게 나타남.

<그림 1-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 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2	9.4	31.8	42.3	15.3	1.2	9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3	10.2	32.1	41.5	15.0	1.3	98.8
	전문가	100	1.0	-	28.0	52.0	19.0	1.0	9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	5.9	30.2	40.2	22.3	1.4	98.6
	중	570	1.2	13.0	33.5	40.7	11.6	1.2	98.8
	하	190	1.1	11.6	32.1	46.8	8.4	1.1	98.9
성별	남성	720	1.0	9.9	31.3	42.8	15.1	1.0	99.0
	여성	480	1.7	10.6	33.3	39.6	14.8	1.7	98.3
연령별	20대 이하	227	2.2	11.5	33.5	39.2	13.7	2.2	97.8
	30대	193	1.0	11.9	30.6	44.0	12.4	1.0	99.0
	40대	247	0.8	8.5	31.6	40.1	19.0	0.8	99.2
	50대	254	0.4	12.2	32.3	40.2	15.0	0.4	99.6
	60대 이상	279	1.8	7.5	32.3	44.1	14.3	1.8	98.2
지역별	서울	225	0.0	12.9	29.8	46.7	10.7	0.0	100.0
	경기/인천	386	0.5	9.6	33.7	36.5	19.7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36.3	46.4	16.2	0.0	100.0
	대구/경북	121	1.7	11.6	42.1	38.0	6.6	1.7	98.3
	광주/전라	114	1.8	0.9	21.9	50.9	24.6	1.8	98.2
	대전/충청/세종	127	6.3	26.8	26.8	33.1	7.1	6.3	93.7
	강원/제주	48	2.1	10.4	27.1	47.9	12.5	2.1	97.9
지역크기	대도시	526	1.0	8.2	31.2	46.4	13.3	1.0	99.0
	중소도시	629	1.6	12.2	32.4	37.8	15.9	1.6	98.4
	읍/면	45	0.0	4.4	37.8	35.6	22.2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8.9	28.9	42.2	17.8	2.2	97.8
	자영업자	165	0.0	7.3	33.3	43.6	15.8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1.7	11.4	35.2	36.9	14.8	1.7	98.3
	기능/숙련공	104	0.0	6.7	29.8	49.0	14.4	0.0	100.0
	일반 노무직	50	6.0	2.0	40.0	36.0	16.0	6.0	94.0
	사무/기술직	304	1.3	9.5	30.6	40.1	18.4	1.3	98.7
	경영/관리직	12	0.0	8.3	25.0	41.7	25.0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16.7	50.0	16.7	0.0	100.0
	전업주부	176	0.6	11.4	31.3	46.6	10.2	0.6	99.4
	학생	47	0.0	19.1	34.0	38.3	8.5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5.0	20.0	30.0	32.5	12.5	5.0	95.0
	기타	9	0.0	22.2	22.2	55.6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7.3	49.1	30.9	10.9	1.8	9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9	9.8	32.3	41.7	15.3	0.9	99.1
	전문대(중퇴/졸업)	269	3.0	11.2	33.8	38.7	13.4	3.0	97.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10.5	28.5	44.4	16.1	0.5	99.5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50.0	25.0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3.2	6.5	22.6	54.8	12.9	3.2	96.8
	중	565	0.5	10.4	32.7	40.4	15.9	0.5	99.5
	하	573	1.7	10.3	32.5	41.2	14.3	1.7	98.3

3)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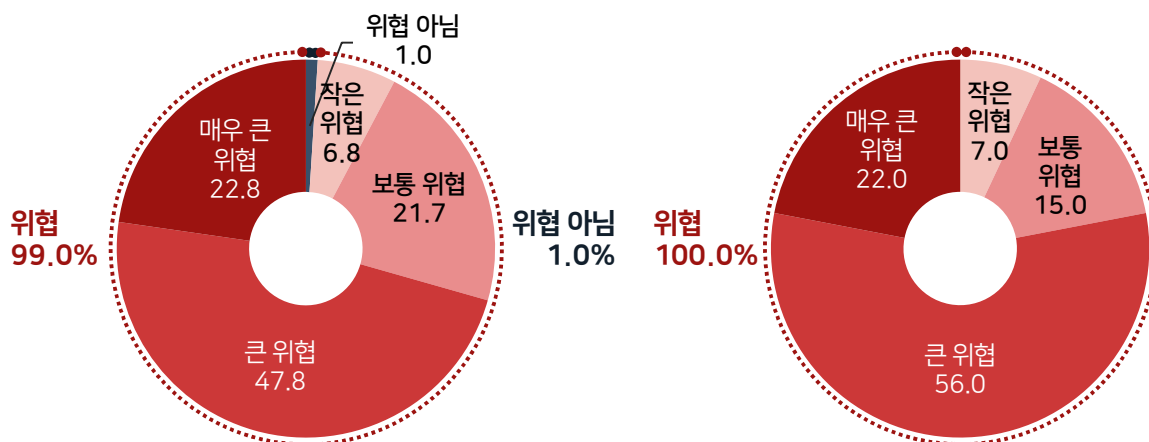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0%,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0%로 '위협이 아니다'(1.0%)라는 응답보다 98.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 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하', 연령별로 '40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4-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에너지·자원 공급 차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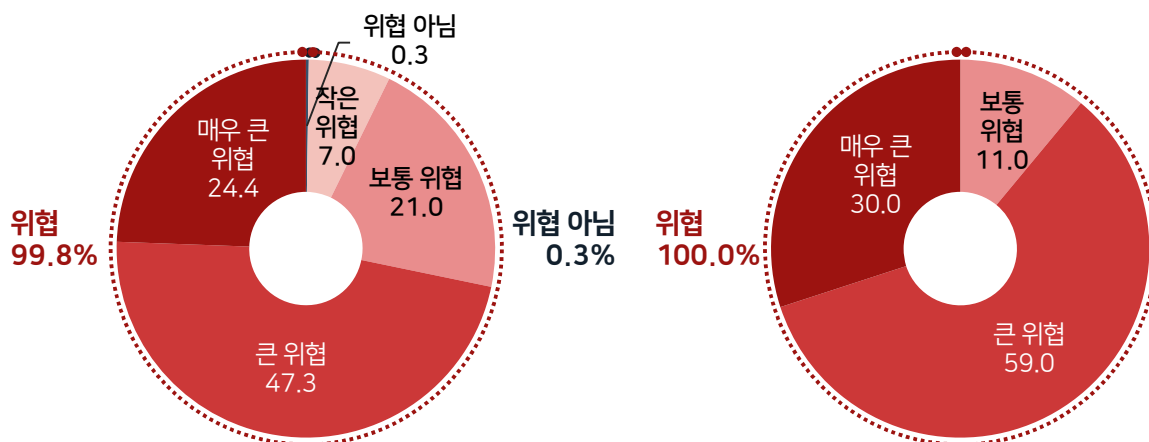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9	6.8	21.2	48.5	22.7	0.9	9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	6.8	21.7	47.8	22.8	1.0	99.0
	전문가	100	-	7.0	15.0	56.0	22.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	5.5	19.1	46.1	28.2	1.1	98.9
	중	570	1.1	7.5	23.5	50.4	17.5	1.1	98.9
	하	190	0.5	7.4	22.1	44.2	25.8	0.5	99.5
성별	남성	720	1.0	5.7	21.9	48.9	22.5	1.0	99.0
	여성	480	1.0	8.3	21.3	46.3	23.1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5.7	28.6	44.5	20.3	0.9	99.1
	30대	193	0.5	7.3	19.7	51.8	20.7	0.5	99.5
	40대	247	0.0	8.5	17.8	48.6	25.1	0.0	100.0
	50대	254	1.6	5.5	21.3	48.8	22.8	1.6	98.4
	60대 이상	279	1.8	6.8	21.1	46.2	24.0	1.8	98.2
지역별	서울	225	0.0	6.2	21.8	54.7	17.3	0.0	100.0
	경기/인천	386	0.3	5.2	17.4	44.8	32.4	0.3	99.7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16.2	55.9	26.8	0.0	100.0
	대구/경북	121	0.8	6.6	32.2	52.1	8.3	0.8	99.2
	광주/전라	114	0.0	2.6	21.9	46.5	28.9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7.9	24.4	33.9	28.3	5.5	7.9	92.1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6.3	16.7	54.2	22.9	0.0	100.0
	대도시	526	0.0	4.2	24.0	51.0	20.9	0.0	100.0
	중소도시	629	1.9	8.9	19.9	44.8	24.5	1.9	98.1
직업별	읍/면	45	0.0	6.7	20.0	53.3	20.0	0.0	100.0
	농/어/임업	45	2.2	2.2	33.3	40.0	22.2	2.2	97.8
	자영업자	165	0.0	6.7	21.8	50.3	21.2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1.3	7.6	22.5	47.9	20.8	1.3	98.7
	기능/숙련공	104	0.0	2.9	15.4	59.6	22.1	0.0	100.0
	일반 노무직	50	2.0	10.0	20.0	48.0	20.0	2.0	98.0
	사무/기술직	304	0.7	6.6	22.0	45.1	25.7	0.7	99.3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33.3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33.3	50.0	16.7	0.0	100.0
	전업주부	176	1.1	9.1	19.9	45.5	24.4	1.1	98.9
	학생	47	2.1	4.3	21.3	48.9	23.4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5.0	12.5	25.0	40.0	17.5	5.0	95.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0.0	88.9	11.1	0.0	100.0
	중졸 이하	55	1.8	10.9	21.8	54.5	10.9	1.8	9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1	5.9	20.7	49.3	22.9	1.1	98.9
	전문대(중퇴/졸업)	269	0.7	9.7	25.7	43.5	20.4	0.7	99.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	5.4	20.5	47.8	25.4	1.0	99.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0.0	62.5	37.5	0.0	100.0
	상	62	0.0	6.5	19.4	46.8	27.4	0.0	100.0
	중	565	0.9	6.4	19.6	48.5	24.6	0.9	99.1
	하	573	1.2	7.2	23.9	47.3	20.4	1.2	98.8

4) 세계 경제 침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8%,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8%로 '위협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세계 경제 침체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세계 경제 침체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2	6.5	20.2	48.2	24.8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7.0	21.0	47.3	24.4	0.3	99.8
	전문가	100	-	-	11.0	59.0	30.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5.2	14.8	51.6	28.2	0.2	99.8
	중	570	0.2	7.5	24.7	45.8	21.8	0.2	99.8
	하	190	0.5	9.5	24.2	42.1	23.7	0.5	99.5
성별	남성	720	0.0	7.4	21.7	45.6	25.4	0.0	100.0
	여성	480	0.6	6.5	20.0	50.0	22.9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5.7	19.4	50.2	24.7	0.0	100.0
	30대	193	0.5	3.6	23.3	47.7	24.9	0.5	99.5
	40대	247	0.4	6.5	22.7	43.3	27.1	0.4	99.6
	50대	254	0.4	10.6	18.5	46.1	24.4	0.4	99.6
	60대 이상	279	0.0	7.5	21.5	49.5	21.5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8.0	16.4	55.6	20.0	0.0	100.0
	경기/인천	386	0.3	4.7	16.3	45.6	33.2	0.3	99.7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20.7	56.4	22.9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8	33.1	50.4	10.7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0	14.0	47.4	38.6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1.6	30.7	39.4	22.0	6.3	1.6	98.4
	강원/제주	48	0.0	4.2	18.8	47.9	29.2	0.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0.0	6.3	24.0	47.1	22.6	0.0	100.0
	중소도시	629	0.5	7.6	18.6	46.7	26.6	0.5	99.5
	읍/면	45	0.0	6.7	20.0	57.8	15.6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13.3	28.9	44.4	13.3	0.0	100.0
	자영업자	165	0.0	5.5	20.0	50.3	24.2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4	6.8	25.8	44.9	22.0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3.8	19.2	47.1	29.8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2.0	36.0	38.0	1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4.9	19.4	48.7	27.0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41.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25.0	41.7	33.3	0.0	100.0
	전업주부	176	1.1	7.4	14.8	52.8	23.9	1.1	98.9
	학생	47	0.0	8.5	21.3	40.4	29.8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5.0	17.5	35.0	22.5	0.0	100.0
	기타	9	0.0	0.0	0.0	77.8	22.2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7.3	27.3	49.1	16.4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9.4	22.3	48.0	20.1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6	22.3	45.7	23.0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3.4	18.3	47.3	30.7	0.2	99.8
	대학원 이상	8	0.0	0.0	0.0	50.0	50.0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6.5	14.5	45.2	33.9	0.0	100.0
	중	565	0.5	6.7	19.5	46.5	26.7	0.5	99.5
	하	573	0.0	7.3	23.2	48.3	21.1	0.0	100.0

5) 국제범죄·테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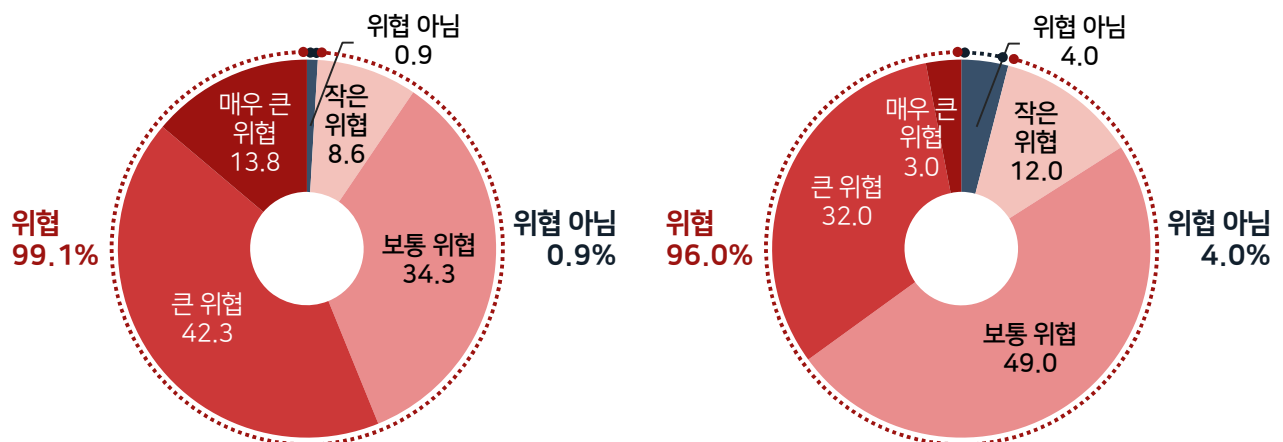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1%, 전문가는 9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1%로 '위협이 아니다'(0.9%)라는 응답보다 98.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6.0%로 '위협이 아니다'(4.0%)라는 응답보다 92.0%p 높게 나타남.

<그림 1-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국제범죄·테러 증가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국제범죄·테러 증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40대', 생활수준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국제범죄·테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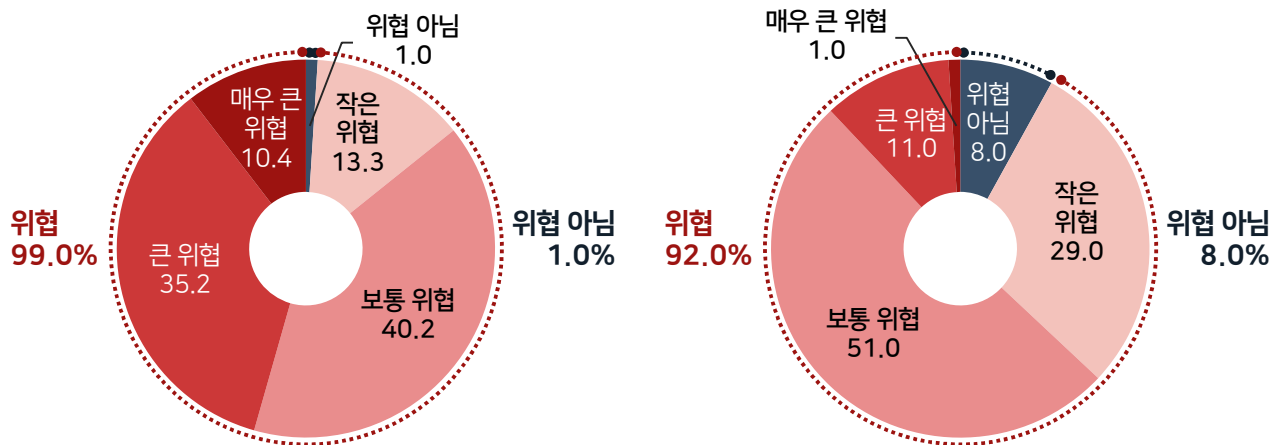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2	8.8	35.5	41.5	13.0	1.2	9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8.6	34.3	42.3	13.8	0.9	99.1
	전문가	100	4.0	12.0	49.0	32.0	3.0	4.0	9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5	7.7	25.7	45.9	20.2	0.5	99.5
	중	570	1.1	9.1	38.4	41.6	9.8	1.1	98.9
	하	190	1.6	8.9	42.1	36.3	11.1	1.6	98.4
성별	남성	720	0.7	9.2	32.5	44.0	13.6	0.7	99.3
	여성	480	1.3	7.7	37.1	39.8	14.2	1.3	98.8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10.1	31.7	43.2	13.2	1.8	98.2
	30대	193	2.1	8.8	37.3	38.3	13.5	2.1	97.9
	40대	247	0.0	9.3	30.0	44.5	16.2	0.0	100.0
	50대	254	0.8	7.9	39.4	39.0	13.0	0.8	99.2
	60대 이상	279	0.4	7.2	33.7	45.5	13.3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0	10.2	34.7	45.3	9.8	0.0	100.0
	경기/인천	386	1.6	5.2	36.5	38.6	18.1	1.6	98.4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25.7	58.1	16.2	0.0	100.0
	대구/경북	121	0.8	17.4	40.5	29.8	11.6	0.8	99.2
	광주/전라	114	0.0	3.5	29.8	53.5	13.2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3.1	23.6	42.5	24.4	6.3	3.1	96.9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10.4	20.8	52.1	16.7	0.0	100.0
	대도시	526	1.0	9.5	34.6	41.8	13.1	1.0	99.0
	중소도시	629	1.0	7.6	33.5	42.6	15.3	1.0	99.0
	읍/면	45	0.0	11.1	42.2	44.4	2.2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8.9	44.4	42.2	4.4	0.0	100.0
	자영업자	165	0.0	7.3	32.1	47.3	13.3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8	9.3	33.5	42.4	14.0	0.8	99.2
	기능/숙련공	104	1.0	4.8	26.9	52.9	14.4	1.0	99.0
	일반 노무직	50	0.0	12.0	50.0	24.0	1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1.3	8.2	30.6	43.4	16.4	1.3	98.7
	경영/관리직	12	0.0	8.3	33.3	58.3	0.0	0.0	100.0
	전문/자유직	12	8.3	0.0	8.3	75.0	8.3	8.3	91.7
	전업주부	176	0.0	9.7	43.2	33.0	14.2	0.0	100.0
	학생	47	2.1	12.8	36.2	34.0	14.9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2.5	12.5	27.5	47.5	10.0	2.5	97.5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0.0	55.6	33.3	0.0	11.1	88.9
	중졸 이하	55	0.0	9.1	34.5	52.7	3.6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7.4	37.1	40.0	14.8	0.7	99.3
	전문대(중퇴/졸업)	269	1.9	12.6	29.7	42.0	13.8	1.9	98.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7.3	34.4	43.7	14.1	0.5	99.5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0.0	25.0	50.0	12.5	12.5	87.5
	상	62	1.6	3.2	35.5	50.0	9.7	1.6	98.4
	중	565	0.4	7.8	29.4	46.0	16.5	0.4	99.6
	하	573	1.4	9.9	39.1	37.9	11.7	1.4	98.6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0%, 전문가는 9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0%로 '위협이 아니다'(1.0%)라는 응답보다 98.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2.0%로 '위협이 아니다'(8.0%)라는 응답보다 84.0%p 높게 나타남.

<그림 1-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 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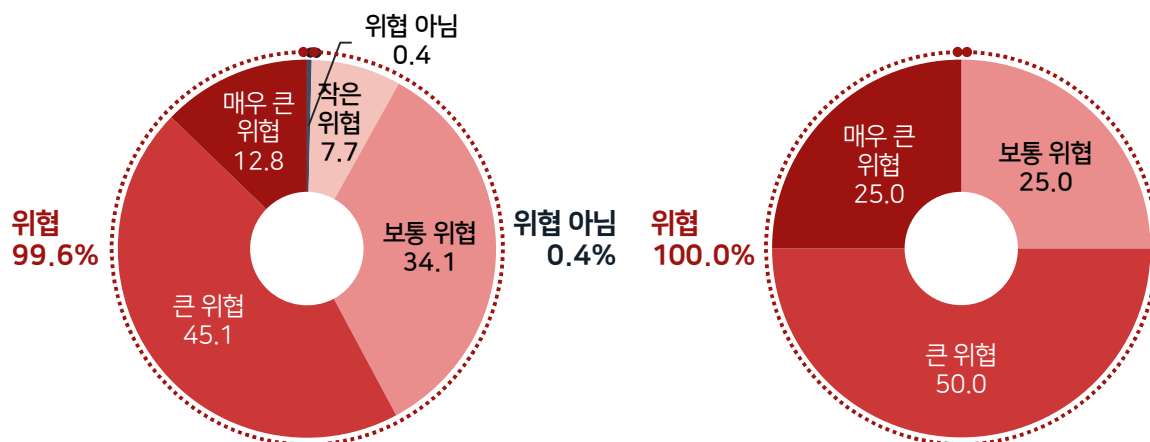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5	14.5	41.0	33.3	9.7	1.5	9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	13.3	40.2	35.2	10.4	1.0	99.0
	전문가	100	8.0	29.0	51.0	11.0	1.0	8.0	9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8	10.2	37.5	38.4	12.0	1.8	98.2
	중	570	0.7	14.9	42.6	32.3	9.5	0.7	99.3
	하	190	0.0	15.3	38.9	36.3	9.5	0.0	100.0
성별	남성	720	1.3	13.2	41.1	35.1	9.3	1.3	98.8
	여성	480	0.6	13.3	38.8	35.2	12.1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12.3	38.8	34.8	13.2	0.9	99.1
	30대	193	0.5	12.4	44.6	31.6	10.9	0.5	99.5
	40대	247	1.6	12.6	38.5	37.7	9.7	1.6	98.4
	50대	254	0.8	15.7	38.6	36.6	8.3	0.8	99.2
	60대 이상	279	1.1	12.9	41.2	34.4	10.4	1.1	98.9
지역별	서울	225	2.2	18.2	41.8	29.3	8.4	2.2	97.8
	경기/인천	386	0.0	8.3	35.5	39.6	16.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1.7	51.4	39.1	7.8	0.0	100.0
	대구/경북	121	0.0	17.4	46.3	29.8	6.6	0.0	100.0
	광주/전라	114	0.9	8.8	35.1	46.5	8.8	0.9	99.1
	대전/충청/세종	127	3.1	38.6	31.5	22.0	4.7	3.1	96.9
	강원/제주	48	4.2	6.3	47.9	33.3	8.3	4.2	95.8
지역크기	대도시	526	1.1	16.3	40.9	32.3	9.3	1.1	98.9
	중소도시	629	1.0	10.2	39.1	38.2	11.6	1.0	99.0
	읍/면	45	0.0	20.0	46.7	26.7	6.7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11.1	42.2	37.8	8.9	0.0	100.0
	자영업자	165	1.2	13.9	45.5	30.9	8.5	1.2	98.8
	판매/서비스직	236	0.8	14.4	37.3	32.2	15.3	0.8	99.2
	기능/숙련공	104	1.0	11.5	42.3	36.5	8.7	1.0	99.0
	일반 노무직	50	2.0	18.0	40.0	36.0	4.0	2.0	98.0
	사무/기술직	304	1.0	9.5	39.8	39.1	10.5	1.0	99.0
	경영/관리직	12	0.0	25.0	16.7	50.0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58.3	33.3	0.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14.8	38.1	38.1	9.1	0.0	100.0
	학생	47	0.0	21.3	36.2	34.0	8.5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7.5	17.5	40.0	17.5	17.5	7.5	92.5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16.4	49.1	30.9	3.6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1	13.8	38.2	34.9	12.0	1.1	98.9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14.5	42.4	31.6	10.0	1.5	98.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7	11.5	39.5	38.3	10.0	0.7	99.3
	대학원 이상	8	0.0	12.5	50.0	37.5	0.0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1.6	11.3	48.4	33.9	4.8	1.6	98.4
	중	565	0.9	10.8	39.8	38.4	10.1	0.9	99.1
	하	573	1.0	15.9	39.6	32.1	11.3	1.0	99.0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6%,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6%로 '위협이 아니다'(0.4%)라는 응답보다 99.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주변국 군사력 증강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주변국 군사력 증강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4	7.1	33.4	45.5	13.7	0.4	99.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7.7	34.1	45.1	12.8	0.4	99.6
	전문가	100	-	-	25.0	50.0	25.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6.4	27.7	50.2	15.7	0.0	100.0
	중	570	0.5	8.4	40.0	40.5	10.5	0.5	99.5
	하	190	1.1	8.4	31.1	46.8	12.6	1.1	98.9
성별	남성	720	0.0	8.5	35.0	44.9	11.7	0.0	100.0
	여성	480	1.0	6.5	32.7	45.4	14.4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6.2	36.6	42.7	14.1	0.4	99.6
	30대	193	1.0	7.8	30.1	46.6	14.5	1.0	99.0
	40대	247	0.0	8.1	33.2	45.3	13.4	0.0	100.0
	50대	254	0.4	8.7	34.6	44.5	11.8	0.4	99.6
	60대 이상	279	0.4	7.5	35.1	46.2	10.8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0	6.2	37.3	46.2	10.2	0.0	100.0
	경기/인천	386	0.3	8.3	25.1	45.3	21.0	0.3	99.7
	부산/울산/경남	179	0.0	0.6	53.6	40.8	5.0	0.0	100.0
	대구/경북	121	0.0	9.1	34.7	46.3	9.9	0.0	100.0
	광주/전라	114	0.9	2.6	29.8	56.1	10.5	0.9	99.1
	대전/충청/세종	127	2.4	22.8	29.9	36.2	8.7	2.4	97.6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4.2	37.5	47.9	10.4	0.0	100.0
	대도시	526	0.4	6.1	34.8	46.6	12.2	0.4	99.6
	중소도시	629	0.5	8.7	34.3	42.6	13.8	0.5	99.5
직업별	읍/면	45	0.0	11.1	22.2	62.2	4.4	0.0	100.0
	농/어/임업	45	0.0	4.4	26.7	57.8	11.1	0.0	100.0
	자영업자	165	0.0	6.1	35.2	47.3	11.5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4	7.6	36.0	40.7	15.3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7.7	41.3	41.3	9.6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2.0	36.0	44.0	8.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1.0	6.6	30.9	47.7	13.8	1.0	99.0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41.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33.3	41.7	8.3	0.0	100.0
	전업주부	176	0.6	6.8	34.7	44.3	13.6	0.6	99.4
	학생	47	0.0	8.5	27.7	57.4	6.4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2.5	35.0	30.0	12.5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55.6	44.4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7.3	49.1	34.5	9.1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7.2	33.8	46.5	12.0	0.4	99.6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9.3	34.2	42.8	13.4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7.1	32.2	46.6	13.7	0.5	99.5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12.5	37.5	37.5	12.5	0.0	100.0
	상	62	1.6	6.5	30.6	46.8	14.5	1.6	98.4
	중	565	0.2	6.2	30.8	49.0	13.8	0.2	99.8
	하	573	0.5	9.2	37.7	41.0	11.5	0.5	99.5

8) 북한 군사적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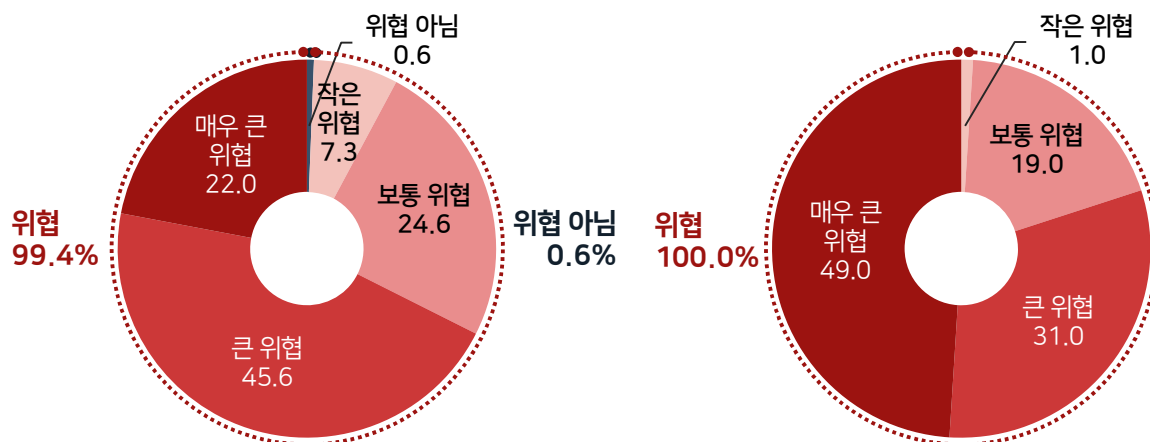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4%,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4%로 '위협이 아니다'(0.6%)라는 응답보다 98.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북한 군사적 위협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40대', 생활수준이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북한 군사적 위협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5	6.8	24.2	44.5	24.1	0.5	99.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7.3	24.6	45.6	22.0	0.6	99.4
	전문가	100	-	1.0	19.0	31.0	49.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5	6.6	16.8	51.8	24.3	0.5	99.5
	중	570	0.7	6.8	28.9	41.8	21.8	0.7	99.3
	하	190	0.5	10.0	29.5	42.6	17.4	0.5	99.5
성별	남성	720	0.3	8.2	25.7	45.7	20.1	0.3	99.7
	여성	480	1.0	5.8	22.9	45.4	24.8	1.0	99.0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6.2	23.8	48.9	19.4	1.8	98.2
	30대	193	0.0	6.7	25.9	46.6	20.7	0.0	100.0
	40대	247	0.0	7.3	22.7	45.3	24.7	0.0	100.0
	50대	254	0.4	6.3	26.8	48.4	18.1	0.4	99.6
	60대 이상	279	0.7	9.3	24.0	39.8	26.2	0.7	99.3
지역별	서울	225	0.0	6.7	23.1	48.0	22.2	0.0	100.0
	경기/인천	386	0.5	6.7	21.2	42.2	29.3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39.1	43.0	16.8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8	32.2	41.3	20.7	0.0	100.0
	광주/전라	114	0.9	1.8	9.6	65.8	21.9	0.9	99.1
	대전/충청/세종	127	1.6	26.0	27.6	37.0	7.9	1.6	98.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4.2	4.2	12.5	56.3	22.9	4.2	95.8
	대도시	526	0.6	6.1	25.9	43.5	24.0	0.6	99.4
	중소도시	629	0.6	8.3	24.0	46.4	20.7	0.6	99.4
직업별	읍/면	45	0.0	6.7	17.8	57.8	17.8	0.0	100.0
	농/어/임업	45	0.0	6.7	20.0	53.3	20.0	0.0	100.0
	자영업자	165	0.0	7.3	24.2	45.5	23.0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8	8.1	26.7	42.8	21.6	0.8	99.2
	기능/숙련공	104	0.0	7.7	23.1	54.8	14.4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0.0	36.0	28.0	26.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7	5.3	24.0	46.4	23.7	0.7	99.3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41.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25.0	41.7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6	4.5	21.0	51.7	22.2	0.6	99.4
	학생	47	2.1	12.8	21.3	36.2	27.7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2.5	20.0	27.5	32.5	17.5	2.5	97.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55.6	44.4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12.7	25.5	41.8	20.0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7.6	25.1	43.2	23.4	0.7	99.3
	전문대(중퇴/졸업)	269	1.1	8.2	23.8	51.3	15.6	1.1	98.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5.6	24.4	44.9	24.9	0.2	99.8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50.0	25.0	0.0	100.0
	상	62	3.2	3.2	29.0	38.7	25.8	3.2	96.8
	중	565	0.2	7.6	22.3	48.1	21.8	0.2	99.8
	하	573	0.7	7.3	26.4	43.8	21.8	0.7	99.3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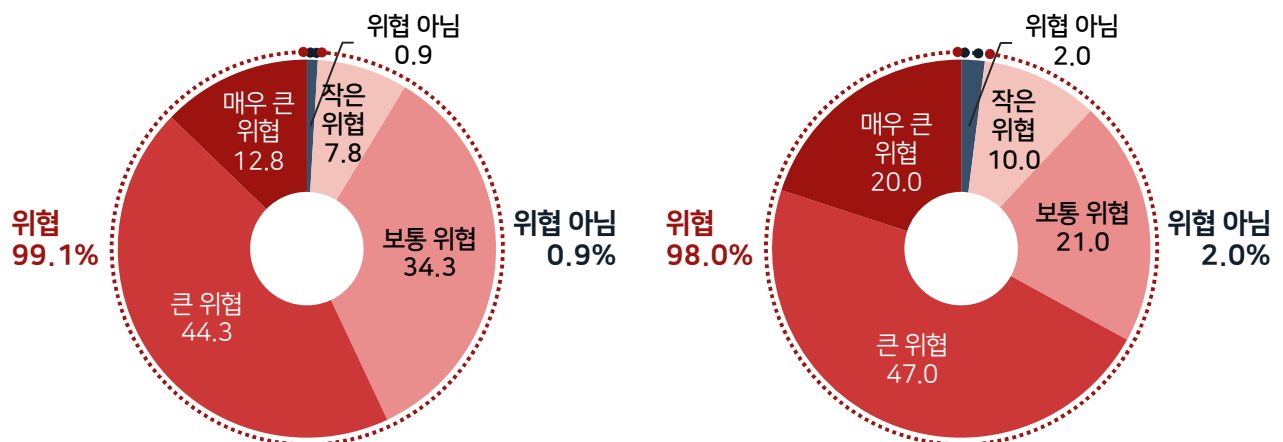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1%, 전문가는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1%로 '위협이 아니다'(0.9%)라는 응답보다 98.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이 아니다'(2.0%)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1-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해외 사이버테러·공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 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하',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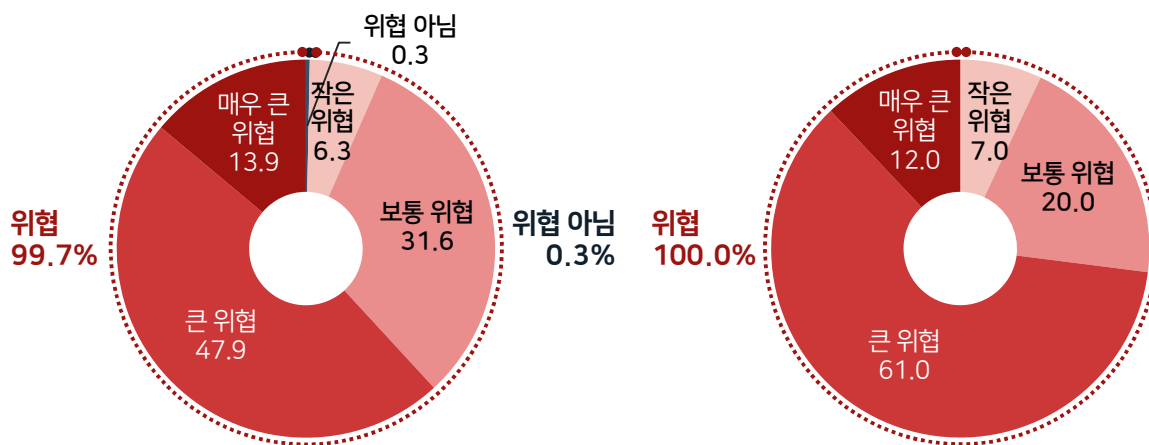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1.0	7.9	33.3	44.5	13.3	1.0	9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7.8	34.3	44.3	12.8	0.9	99.1
	전문가	100	2.0	10.0	21.0	47.0	20.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9	5.7	28.2	47.3	18.0	0.9	99.1
	중	570	1.1	8.1	36.3	44.7	9.8	1.1	98.9
	하	190	0.5	11.6	42.6	35.8	9.5	0.5	99.5
성별	남성	720	1.1	6.4	34.7	45.8	11.9	1.1	98.9
	여성	480	0.6	9.8	33.8	41.9	14.0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	10.1	31.7	43.2	13.7	1.3	98.7
	30대	193	0.0	7.8	29.0	51.3	11.9	0.0	100.0
	40대	247	1.2	9.3	34.0	40.5	15.0	1.2	98.8
	50대	254	1.6	6.3	39.8	40.6	11.8	1.6	98.4
	60대 이상	279	0.4	5.7	35.5	47.0	11.5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4	10.7	34.7	46.7	7.6	0.4	99.6
	경기/인천	386	0.5	5.4	31.9	43.8	18.4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0.6	32.4	55.3	11.7	0.0	100.0
	대구/경북	121	0.0	7.4	40.5	41.3	10.7	0.0	100.0
	광주/전라	114	0.0	2.6	28.9	56.1	12.3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4.7	26.8	43.3	20.5	4.7	4.7	95.3
	강원/제주	48	4.2	2.1	33.3	37.5	22.9	4.2	95.8
지역크기	대도시	526	0.8	7.8	38.8	42.4	10.3	0.8	99.2
	중소도시	629	1.0	7.9	29.9	45.9	15.3	1.0	99.0
	읍/면	45	2.2	4.4	44.4	42.2	6.7	2.2	97.8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4	51.1	37.8	6.7	0.0	100.0
	자영업자	165	1.2	2.4	32.7	51.5	12.1	1.2	98.8
	판매/서비스직	236	1.3	11.4	33.5	40.3	13.6	1.3	98.7
	기능/숙련공	104	0.0	4.8	30.8	51.9	12.5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2.0	44.0	38.0	6.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3	8.2	30.3	46.1	15.1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58.3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8.3	8.3	41.7	25.0	16.7	8.3	91.7
	전업주부	176	0.0	8.0	36.4	41.5	14.2	0.0	100.0
	학생	47	6.4	8.5	34.0	40.4	10.6	6.4	93.6
	무직/휴직/은퇴	40	2.5	12.5	37.5	40.0	7.5	2.5	97.5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9.1	49.1	38.2	3.6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7.9	36.2	42.8	12.7	0.4	99.6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9.3	36.4	40.1	12.6	1.5	98.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	6.6	29.0	49.3	14.1	1.0	99.0
	대학원 이상	8	12.5	0.0	25.0	50.0	12.5	12.5	87.5
생활 수준별	상	62	1.6	4.8	27.4	53.2	12.9	1.6	98.4
	중	565	0.9	7.1	32.6	44.1	15.4	0.9	99.1
	하	573	0.9	8.7	36.8	43.5	10.1	0.9	99.1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7%,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7%로 '위협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4%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첨단기술 범죄이용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첨단기술 범죄이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연령별로 '30대'와 '60대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4-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첨단기술 범죄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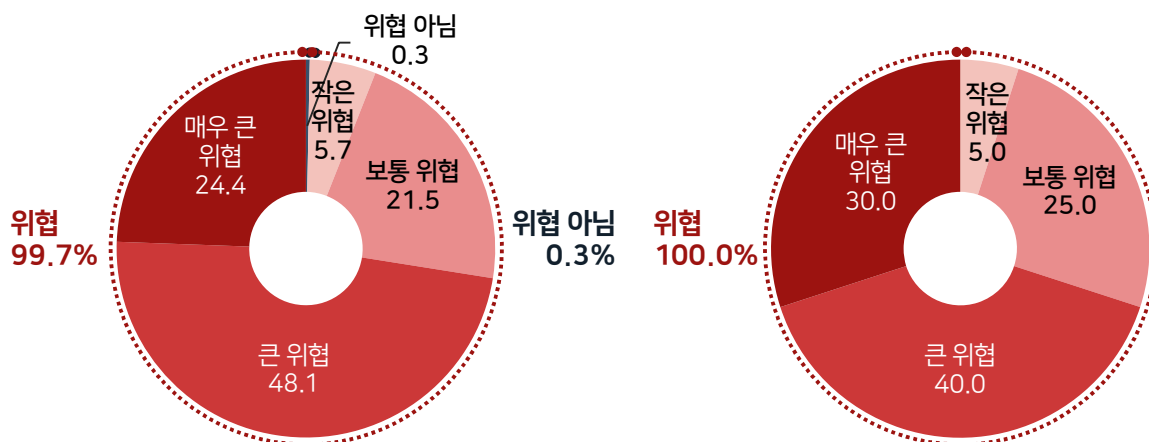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3	6.3	30.7	48.9	13.8	0.3	99.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6.3	31.6	47.9	13.9	0.3	99.7
	전문가	100	-	7.0	20.0	61.0	12.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4.1	27.7	49.5	18.6	0.0	100.0
	중	570	0.5	7.4	31.9	47.9	12.3	0.5	99.5
	하	190	0.5	7.9	39.5	44.2	7.9	0.5	99.5
성별	남성	720	0.4	6.0	30.8	48.5	14.3	0.4	99.6
	여성	480	0.2	6.7	32.7	47.1	13.3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7.0	29.1	50.7	12.8	0.4	99.6
	30대	193	0.0	6.2	31.1	46.6	16.1	0.0	100.0
	40대	247	0.4	6.1	31.2	47.8	14.6	0.4	99.6
	50대	254	0.8	5.9	29.1	50.0	14.2	0.8	99.2
	60대 이상	279	0.0	6.1	36.6	44.8	12.5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4.9	40.9	46.2	8.0	0.0	100.0
	경기/인천	386	0.0	3.6	27.7	46.4	22.3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0.6	28.5	59.8	11.2	0.0	100.0
	대구/경북	121	0.0	9.9	29.8	52.9	7.4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9	27.2	56.1	15.8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3.1	26.0	34.6	31.5	4.7	3.1	96.9
	강원/제주	48	0.0	6.3	37.5	35.4	20.8	0.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0.2	4.2	36.3	47.9	11.4	0.2	99.8
	중소도시	629	0.5	8.1	27.7	47.7	16.1	0.5	99.5
	읍/면	45	0.0	4.4	31.1	51.1	13.3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11.1	28.9	51.1	8.9	0.0	100.0
	자영업자	165	0.6	4.2	28.5	55.8	10.9	0.6	99.4
	판매/서비스직	236	0.4	6.4	34.7	44.9	13.6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0.0	29.8	55.8	14.4	0.0	100.0
	일반 노무직	50	2.0	10.0	56.0	22.0	10.0	2.0	98.0
	사무/기술직	304	0.3	5.3	28.0	48.7	17.8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66.7	0.0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16.7	58.3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8.0	34.1	43.8	14.2	0.0	100.0
	학생	47	0.0	6.4	31.9	46.8	14.9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2.5	22.5	45.0	10.0	0.0	100.0
	기타	9	0.0	11.1	33.3	55.6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7.3	32.7	50.9	9.1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6.6	34.1	47.8	11.4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9	33.1	43.5	14.1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4.1	27.6	50.5	17.3	0.5	99.5
	대학원 이상	8	0.0	0.0	37.5	50.0	12.5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3.2	21.0	58.1	17.7	0.0	100.0
	중	565	0.2	6.5	28.7	49.0	15.6	0.2	99.8
	하	573	0.5	6.3	35.6	45.7	11.9	0.5	99.5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7%,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7%로 '위협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4%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전 지구적 기후변화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생활수준이 '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전 지구적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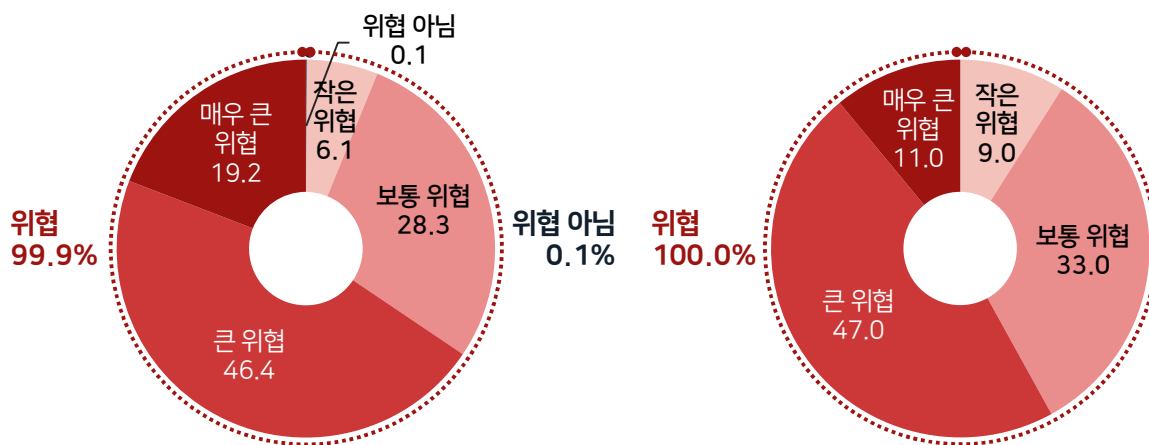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3	5.6	21.8	47.5	24.8	0.3	99.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5.7	21.5	48.1	24.4	0.3	99.7
	전문가	100	-	5.0	25.0	40.0	30.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4.1	16.6	51.6	27.5	0.2	99.8
	중	570	0.4	6.0	23.7	46.7	23.3	0.4	99.6
	하	190	0.5	8.4	26.3	44.2	20.5	0.5	99.5
성별	남성	720	0.1	6.3	21.7	47.5	24.4	0.1	99.9
	여성	480	0.6	4.8	21.3	49.0	24.4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6.2	22.5	45.4	26.0	0.0	100.0
	30대	193	1.0	6.7	17.6	49.7	24.9	1.0	99.0
	40대	247	0.0	5.3	20.6	51.8	22.3	0.0	100.0
	50대	254	0.8	4.7	22.0	46.1	26.4	0.8	99.2
	60대 이상	279	0.0	5.7	23.7	47.7	22.9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6.2	24.4	48.9	20.4	0.0	100.0
	경기/인천	386	0.3	3.6	15.0	51.0	30.1	0.3	99.7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16.8	56.4	26.8	0.0	100.0
	대구/경북	121	0.0	4.1	37.2	44.6	14.0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9	17.5	50.9	30.7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2.4	25.2	33.9	31.5	7.1	2.4	97.6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4.2	14.6	35.4	45.8	0.0	100.0
	대도시	526	0.0	5.1	24.7	48.1	22.1	0.0	100.0
	중소도시	629	0.6	6.5	18.6	47.9	26.4	0.6	99.4
직업별	읍/면	45	0.0	0.0	24.4	51.1	24.4	0.0	100.0
	농/어/임업	45	0.0	2.2	40.0	26.7	31.1	0.0	100.0
	자영업자	165	0.0	5.5	22.4	48.5	23.6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0	6.8	22.5	51.7	19.1	0.0	100.0
	기능/숙련공	104	0.0	1.9	18.3	54.8	25.0	0.0	100.0
	일반 노무직	50	2.0	10.0	28.0	38.0	22.0	2.0	98.0
	사무/기술직	304	0.3	5.3	19.7	48.0	26.6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58.3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25.0	33.3	33.3	0.0	100.0
	전업주부	176	1.1	3.4	18.2	50.0	27.3	1.1	98.9
	학생	47	0.0	6.4	19.1	38.3	36.2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2.5	17.5	42.5	17.5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22.2	77.8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0.0	27.3	50.9	21.8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5.2	22.9	48.7	22.9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7	8.2	20.4	49.1	21.6	0.7	99.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5.1	19.5	46.6	28.5	0.2	99.8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12.5	37.5	37.5	12.5	0.0	100.0
	상	62	0.0	4.8	12.9	48.4	33.9	0.0	100.0
	중	565	0.5	6.0	21.2	46.4	25.8	0.5	99.5
	하	573	0.2	5.4	22.7	49.7	22.0	0.2	99.8

12) 주변국 환경오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9%,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9%로 '위협이 아니다'(0.1%)라는 응답보다 99.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4-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주변국 환경오염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중 주변국 환경오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중'과 '하', 성별로 '여성', 생활수준이 '상'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 주변국 환경오염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1	6.3	28.6	46.5	18.5	0.1	99.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1	6.1	28.3	46.4	19.2	0.1	99.9
	전문가	100	-	9.0	33.0	47.0	11.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4.1	20.2	49.8	25.7	0.2	99.8
	중	570	0.0	7.0	31.9	44.9	16.1	0.0	100.0
	하	190	0.0	7.9	35.8	43.2	13.2	0.0	100.0
성별	남성	720	0.1	6.0	28.8	47.2	17.9	0.1	99.9
	여성	480	0.0	6.3	27.5	45.2	21.0	0.0	10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5.3	28.6	44.5	21.6	0.0	100.0
	30대	193	0.0	4.1	29.0	47.2	19.7	0.0	100.0
	40대	247	0.0	7.7	27.1	46.2	19.0	0.0	100.0
	50대	254	0.0	5.9	28.0	49.6	16.5	0.0	100.0
	60대 이상	279	0.4	6.8	28.7	44.8	19.4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0	4.9	36.9	44.0	14.2	0.0	100.0
	경기/인천	386	0.0	4.1	22.5	49.7	23.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26.8	57.5	15.6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8	37.2	47.1	9.9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0	13.2	52.6	34.2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8	29.1	37.8	22.8	9.4	0.8	99.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4.2	27.1	35.4	33.3	0.0	100.0
	대도시	526	0.0	4.4	34.8	45.1	15.8	0.0	100.0
	중소도시	629	0.2	7.9	22.4	47.9	21.6	0.2	99.8
직업별	읍/면	45	0.0	0.0	33.3	42.2	24.4	0.0	100.0
	농/어/임업	45	0.0	2.2	31.1	44.4	22.2	0.0	100.0
	자영업자	165	0.0	3.6	25.5	55.2	15.8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0	8.5	31.4	42.4	17.8	0.0	100.0
	기능/숙련공	104	0.0	3.8	29.8	49.0	17.3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0.0	34.0	36.0	20.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4.9	26.6	45.1	23.4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58.3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8.3	66.7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7.4	25.0	48.3	19.3	0.0	100.0
	학생	47	0.0	6.4	29.8	42.6	21.3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2.5	15.0	30.0	40.0	12.5	2.5	97.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55.6	44.4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3.6	29.1	50.9	16.4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6.8	29.5	45.9	17.7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8.9	28.3	47.2	15.6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0	3.9	26.6	46.1	23.4	0.0	100.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37.5	37.5	25.0	0.0	100.0
	상	62	0.0	4.8	21.0	54.8	19.4	0.0	100.0
	중	565	0.0	6.5	26.2	45.0	22.3	0.0	100.0
	하	573	0.2	5.8	31.1	46.9	16.1	0.2	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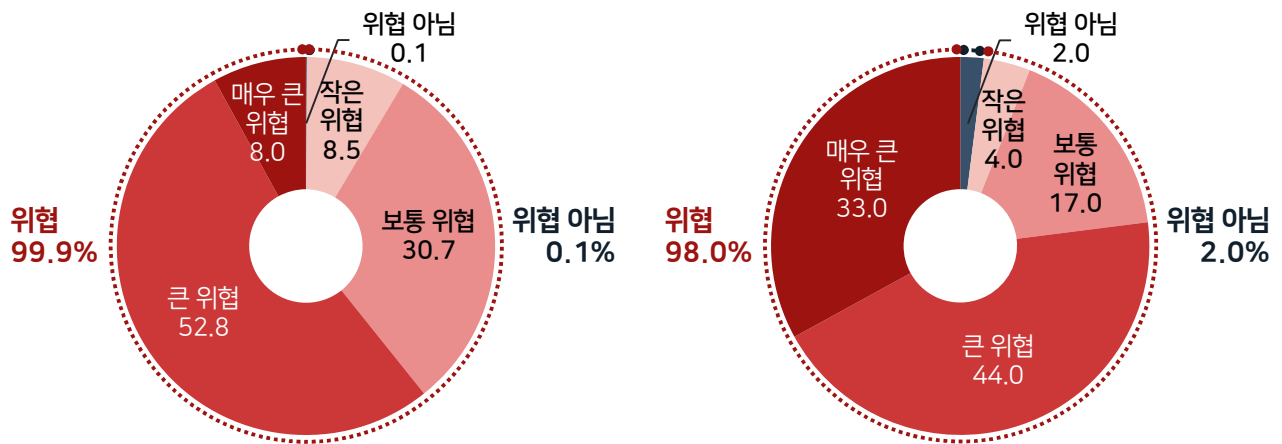
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1) 국내정치 불안정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9%, 전문가는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9%로 '위협이 아니다'(0.1%)라는 응답보다 99.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이 아니다'(2.0%)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1-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국내정치 불안정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국내정치 불안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생활수준이 '중'과 '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국내정치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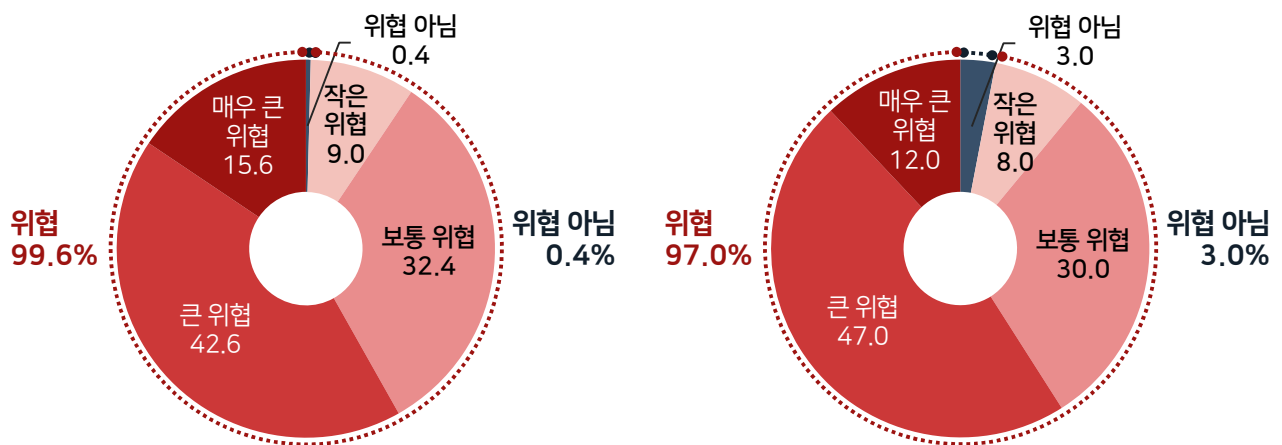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2	8.2	29.6	52.1	9.9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1	8.5	30.7	52.8	8.0	0.1	99.9
	전문가	100	2.0	4.0	17.0	44.0	33.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6.6	25.2	58.2	10.0	0.0	100.0
	중	570	0.2	9.8	34.4	49.5	6.1	0.2	99.8
	하	190	0.0	8.9	32.1	50.0	8.9	0.0	100.0
성별	남성	720	0.0	9.2	30.6	53.1	7.2	0.0	100.0
	여성	480	0.2	7.5	30.8	52.3	9.2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7.9	29.1	57.7	5.3	0.0	100.0
	30대	193	0.0	6.7	27.5	59.1	6.7	0.0	100.0
	40대	247	0.0	9.3	30.4	51.4	8.9	0.0	100.0
	50대	254	0.0	9.4	34.6	47.6	8.3	0.0	100.0
	60대 이상	279	0.4	8.6	30.8	50.2	10.0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0	5.8	23.6	64.9	5.8	0.0	100.0
	경기/인천	386	0.3	6.7	27.7	54.7	10.6	0.3	99.7
	부산/울산/경남	179	0.0	1.7	50.8	41.9	5.6	0.0	100.0
	대구/경북	121	0.0	12.4	37.2	45.5	5.0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9	14.0	75.4	9.6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0	32.3	34.6	29.9	3.1	0.0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6.3	25.0	45.8	22.9	0.0	100.0
	대도시	526	0.2	8.6	31.2	53.6	6.5	0.2	99.8
	중소도시	629	0.0	9.1	29.9	51.4	9.7	0.0	100.0
직업별	읍/면	45	0.0	0.0	35.6	62.2	2.2	0.0	100.0
	농/어/임업	45	0.0	0.0	33.3	60.0	6.7	0.0	100.0
	자영업자	165	0.0	8.5	34.5	47.3	9.7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0	11.4	27.5	52.5	8.5	0.0	100.0
	기능/숙련공	104	0.0	4.8	32.7	58.7	3.8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20.0	26.0	40.0	1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6.9	28.9	58.9	5.3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8.3	25.0	50.0	16.7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33.3	58.3	0.0	0.0	100.0
	전업주부	176	0.6	6.3	28.4	52.3	12.5	0.6	99.4
	학생	47	0.0	12.8	19.1	59.6	8.5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15.0	57.5	22.5	5.0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77.8	22.2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5.5	45.5	38.2	10.9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9.8	30.6	48.3	11.1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11.9	31.6	49.8	6.7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0	4.9	28.3	61.7	5.1	0.0	100.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25.0	25.0	50.0	0.0	0.0	100.0
	상	62	1.6	8.1	33.9	54.8	1.6	1.6	98.4
	중	565	0.0	9.0	30.6	53.8	6.5	0.0	100.0
	하	573	0.0	8.0	30.4	51.5	10.1	0.0	100.0

2) 부정부패 확산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6%, 전문가는 9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6%로 '위협이 아니다'(0.4%)라는 응답보다 99.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7.0%로 '위협이 아니다'(3.0%)라는 응답보다 94.0%p 높게 나타남.

<그림 1-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부정부패 확산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부정부패 확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연령별로 '60대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5-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부정부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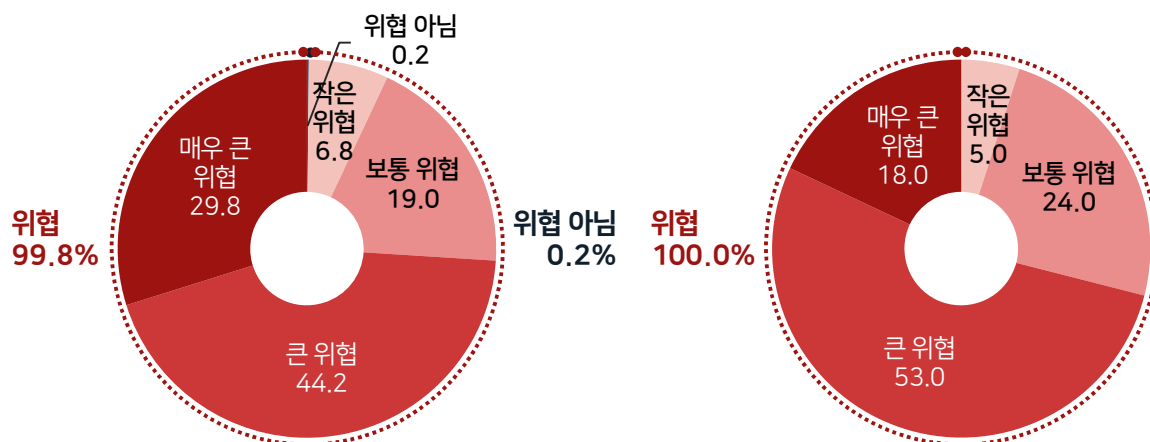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6	8.9	32.2	42.9	15.3	0.6	9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9.0	32.4	42.6	15.6	0.4	99.6
	전문가	100	3.0	8.0	30.0	47.0	12.0	3.0	9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8.4	28.0	43.9	19.8	0.0	100.0
	중	570	0.7	8.8	35.3	42.6	12.6	0.7	99.3
	하	190	0.5	11.1	34.2	39.5	14.7	0.5	99.5
성별	남성	720	0.3	8.9	33.2	42.1	15.6	0.3	99.7
	여성	480	0.6	9.2	31.3	43.3	15.6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8.4	27.8	42.7	20.3	0.9	99.1
	30대	193	0.5	6.7	33.2	46.6	13.0	0.5	99.5
	40대	247	0.4	10.1	32.8	40.5	16.2	0.4	99.6
	50대	254	0.4	10.2	33.1	42.5	13.8	0.4	99.6
	60대 이상	279	0.0	9.0	34.8	41.6	14.7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11.1	23.6	52.9	12.4	0.0	100.0
	경기/인천	386	0.0	9.1	24.9	44.8	21.2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51.4	41.9	5.6	0.0	100.0
	대구/경북	121	0.0	9.1	35.5	42.1	13.2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9	30.7	41.2	27.2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3.1	26.0	40.9	24.4	5.5	3.1	96.9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2.1	37.5	31.3	27.1	2.1	97.9
	대도시	526	0.0	8.4	32.1	48.9	10.6	0.0	100.0
	중소도시	629	0.8	9.9	31.5	38.2	19.7	0.8	99.2
	읍/면	45	0.0	4.4	48.9	31.1	15.6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6.7	37.8	40.0	15.6	0.0	100.0
	자영업자	165	0.6	5.5	30.9	44.2	18.8	0.6	99.4
	판매/서비스직	236	0.4	13.6	33.1	40.3	12.7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5.8	42.3	41.3	10.6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8.0	48.0	26.0	18.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1.0	7.9	28.3	45.4	17.4	1.0	99.0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66.7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41.7	33.3	8.3	0.0	100.0
	전업주부	176	0.0	8.0	28.4	49.4	14.2	0.0	100.0
	학생	47	0.0	12.8	25.5	29.8	31.9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17.5	42.5	30.0	10.0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33.3	66.7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10.9	49.1	30.9	9.1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0	9.4	31.4	43.4	15.7	0.0	100.0
	전문대(중퇴/졸업)	269	0.7	11.2	34.6	40.9	12.6	0.7	99.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7	6.8	29.8	44.6	18.0	0.7	99.3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12.5	37.5	25.0	25.0	0.0	100.0
	상	62	0.0	3.2	25.8	62.9	8.1	0.0	100.0
	중	565	0.2	11.0	34.3	40.4	14.2	0.2	99.8
	하	573	0.7	7.7	31.2	42.6	17.8	0.7	99.3

3) 물가상승·경기침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8%,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8%로 '위협이 아니다'(0.2%)라는 응답보다 99.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물가상승·경기침체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물가상승·경기침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유의미한 특성이 없음.

<표 1-5-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물가상승·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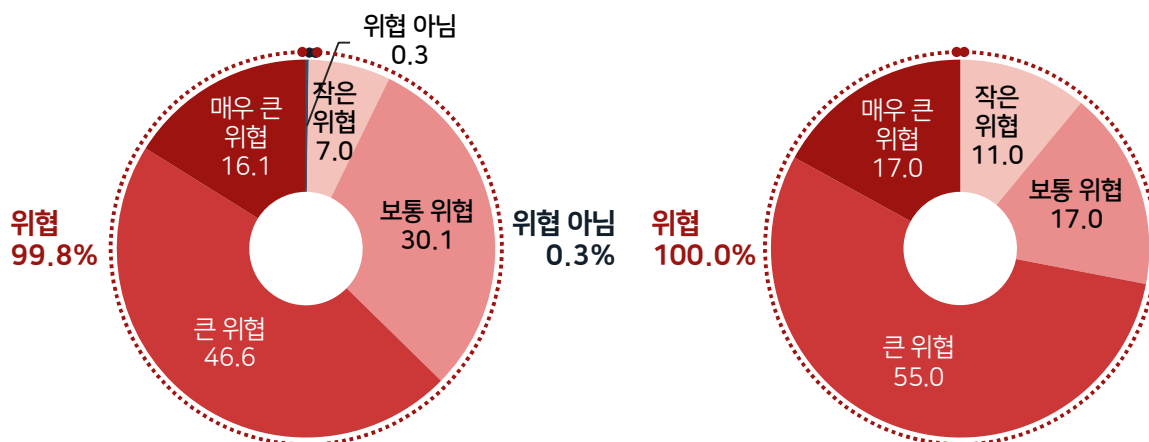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2	6.7	19.4	44.8	28.9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2	6.8	19.0	44.2	29.8	0.2	99.8
	전문가	100	-	5.0	24.0	53.0	18.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4.5	15.5	42.7	37.3	0.0	100.0
	중	570	0.4	6.7	20.2	48.2	24.6	0.4	99.6
	하	190	0.0	12.6	23.7	35.3	28.4	0.0	100.0
성별	남성	720	0.1	6.9	19.3	44.9	28.8	0.1	99.9
	여성	480	0.2	6.7	18.5	43.1	31.5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6.2	20.3	45.4	28.2	0.0	100.0
	30대	193	0.0	6.2	19.2	45.6	29.0	0.0	100.0
	40대	247	0.8	8.1	16.6	40.5	34.0	0.8	99.2
	50대	254	0.0	7.5	18.1	40.6	33.9	0.0	100.0
	60대 이상	279	0.0	6.1	20.8	48.7	24.4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8.4	19.6	45.8	26.2	0.0	100.0
	경기/인천	386	0.0	5.2	13.5	42.7	38.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11.7	54.7	32.4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0	24.0	49.6	21.5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0	18.4	43.0	38.6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8	25.2	38.6	29.9	5.5	0.8	99.2
	강원/제주	48	2.1	6.3	25.0	35.4	31.3	2.1	97.9
지역크기	대도시	526	0.0	5.7	22.4	44.3	27.6	0.0	100.0
	중소도시	629	0.3	7.9	16.2	43.7	31.8	0.3	99.7
	읍/면	45	0.0	4.4	17.8	48.9	28.9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4	35.6	33.3	26.7	0.0	100.0
	자영업자	165	0.6	4.8	9.7	52.1	32.7	0.6	99.4
	판매/서비스직	236	0.4	9.3	19.5	41.1	29.7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7.7	19.2	44.2	28.8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8.0	32.0	36.0	2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5.6	20.1	45.4	28.9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0.0	25.0	50.0	25.0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33.3	33.3	33.3	0.0	100.0
	전업주부	176	0.0	5.1	16.5	42.6	35.8	0.0	100.0
	학생	47	0.0	8.5	21.3	34.0	36.2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0.0	15.0	55.0	10.0	0.0	100.0
	기타	9	0.0	0.0	11.1	77.8	11.1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3.6	30.9	45.5	20.0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0	8.1	18.3	42.6	31.0	0.0	100.0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2	21.9	40.5	29.0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5.1	16.3	47.6	30.7	0.2	99.8
	대학원 이상	8	0.0	0.0	12.5	75.0	12.5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3.2	19.4	58.1	19.4	0.0	100.0
	중	565	0.4	7.4	16.3	46.5	29.4	0.4	99.6
	하	573	0.0	6.6	21.6	40.3	31.4	0.0	100.0

4) 불평등심화·양극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8%,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8%로 '위협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평등심화·양극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5-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불평등심화·양극화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유의미한 특성이 없음.

<표 1-5-4>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불평등심화·양극화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2	7.3	29.1	47.2	16.2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7.0	30.1	46.6	16.1	0.3	99.8
	전문가	100	-	11.0	17.0	55.0	17.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5.0	25.2	50.5	19.1	0.2	99.8
	중	570	0.2	7.9	32.8	43.9	15.3	0.2	99.8
	하	190	0.5	8.9	33.2	45.8	11.6	0.5	99.5
성별	남성	720	0.3	6.8	31.9	44.6	16.4	0.3	99.7
	여성	480	0.2	7.3	27.3	49.6	15.6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6.6	25.1	51.1	16.3	0.9	99.1
	30대	193	0.0	6.7	29.0	44.6	19.7	0.0	100.0
	40대	247	0.4	8.1	28.3	49.4	13.8	0.4	99.6
	50대	254	0.0	4.7	33.1	44.9	17.3	0.0	100.0
	60대 이상	279	0.0	8.6	33.7	43.4	14.3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5.8	24.9	57.3	12.0	0.0	100.0
	경기/인천	386	0.5	7.5	22.0	44.0	25.9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2.2	37.4	46.9	13.4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0	38.8	47.9	8.3	0.0	100.0
	광주/전라	114	0.0	2.6	29.8	53.5	14.0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0	22.0	44.1	29.9	3.9	0.0	100.0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2.1	33.3	39.6	22.9	2.1	97.9
	대도시	526	0.2	6.8	28.3	51.5	13.1	0.2	99.8
	중소도시	629	0.2	7.2	31.8	42.0	18.9	0.2	99.8
	읍/면	45	2.2	6.7	26.7	53.3	11.1	2.2	97.8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6.7	42.2	44.4	6.7	0.0	100.0
	자영업자	165	0.0	5.5	36.4	44.2	13.9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4	7.6	35.2	37.3	19.5	0.4	99.6
	기능/숙련공	104	1.0	3.8	33.7	45.2	16.3	1.0	99.0
	일반 노무직	50	0.0	18.0	28.0	44.0	10.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6.6	23.7	52.0	17.8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8.3	41.7	41.7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16.7	41.7	33.3	0.0	100.0
	전업주부	176	0.0	5.7	25.6	54.0	14.8	0.0	100.0
	학생	47	2.1	4.3	23.4	55.3	14.9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0.0	17.5	32.5	35.0	15.0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22.2	66.7	11.1	0.0	100.0
	중졸 이하	55	0.0	7.3	45.5	40.0	7.3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0	7.4	31.7	44.5	16.4	0.0	100.0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6	31.2	45.7	14.1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5.6	25.6	50.0	18.3	0.5	99.5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62.5	12.5	0.0	100.0
	상	62	0.0	9.7	19.4	58.1	12.9	0.0	100.0
	중	565	0.5	6.5	27.4	48.5	17.0	0.5	99.5
	하	573	0.0	7.2	33.9	43.5	15.5	0.0	100.0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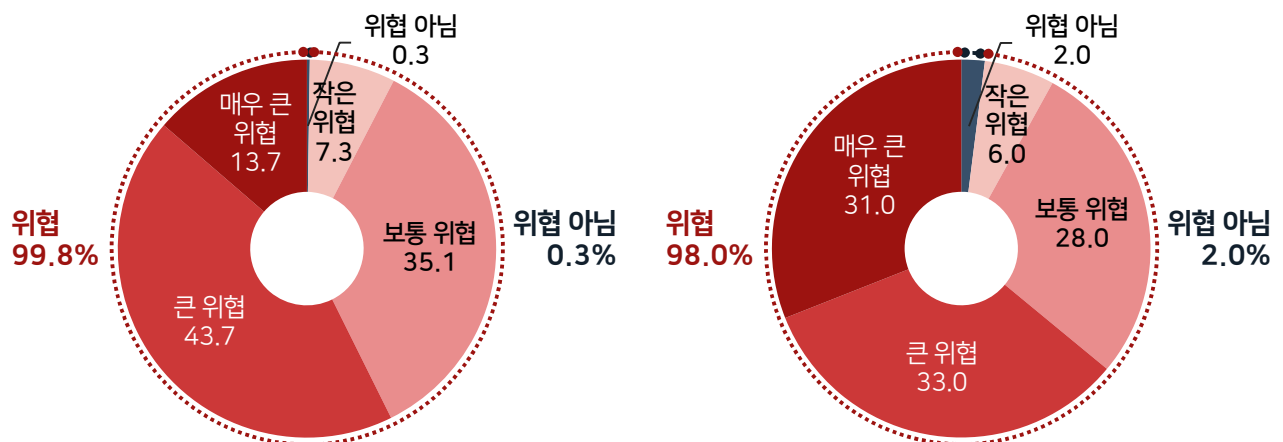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8%, 전문가는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99.8%로 '위험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98.0%로 '위험이 아니다'(2.0%)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1-5-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 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중', 연령별로 '30대'와 '50대', 생활수준이 '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4	7.2	34.5	42.8	15.0	0.4	99.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7.3	35.1	43.7	13.7	0.3	99.8
	전문가	100	2.0	6.0	28.0	33.0	31.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5	5.2	30.9	48.0	15.5	0.5	99.5
	중	570	0.0	7.9	37.0	41.9	13.2	0.0	100.0
	하	190	0.5	10.5	38.9	38.9	11.1	0.5	99.5
성별	남성	720	0.3	7.5	34.0	44.0	14.2	0.3	99.7
	여성	480	0.2	7.1	36.7	43.1	12.9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7.5	29.1	46.7	16.3	0.4	99.6
	30대	193	0.0	6.2	34.2	47.2	12.4	0.0	100.0
	40대	247	0.4	8.1	36.4	41.3	13.8	0.4	99.6
	50대	254	0.0	6.7	35.8	45.3	12.2	0.0	100.0
	60대 이상	279	0.4	7.9	38.7	39.4	13.6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0	5.8	30.2	51.6	12.4	0.0	100.0
	경기/인천	386	0.5	7.3	29.3	42.5	20.5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1.7	51.4	40.8	6.1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0	41.3	45.5	8.3	0.0	100.0
	광주/전라	114	0.0	1.8	21.1	58.8	18.4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8	26.0	48.0	22.0	3.1	0.8	99.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6.3	27.1	43.8	22.9	0.0	100.0
	대도시	526	0.2	7.0	35.9	45.6	11.2	0.2	99.8
	중소도시	629	0.3	8.1	34.3	41.2	16.1	0.3	99.7
직업별	읍/면	45	0.0	0.0	35.6	55.6	8.9	0.0	100.0
	농/어/임업	45	0.0	6.7	40.0	42.2	11.1	0.0	100.0
	자영업자	165	0.0	6.7	38.8	41.8	12.7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4	8.9	31.8	45.8	13.1	0.4	99.6
	기능/숙련공	104	1.0	3.8	35.6	45.2	14.4	1.0	99.0
	일반 노무직	50	0.0	14.0	38.0	40.0	8.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4.9	33.9	45.7	15.5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16.7	33.3	25.0	25.0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8.3	50.0	16.7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6.8	38.6	40.9	13.6	0.0	100.0
	학생	47	0.0	6.4	36.2	48.9	8.5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2.5	22.5	25.0	37.5	12.5	2.5	97.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0.0	77.8	22.2	0.0	100.0
	중졸 이하	55	0.0	5.5	43.6	41.8	9.1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8.1	36.9	42.4	12.4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6	39.8	38.3	13.0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6.1	29.0	48.8	15.9	0.2	99.8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50.0	25.0	0.0	100.0
	상	62	0.0	8.1	25.8	50.0	16.1	0.0	100.0
	중	565	0.4	7.3	34.7	44.1	13.6	0.4	99.6
	하	573	0.2	7.3	36.5	42.6	13.4	0.2	99.8

6)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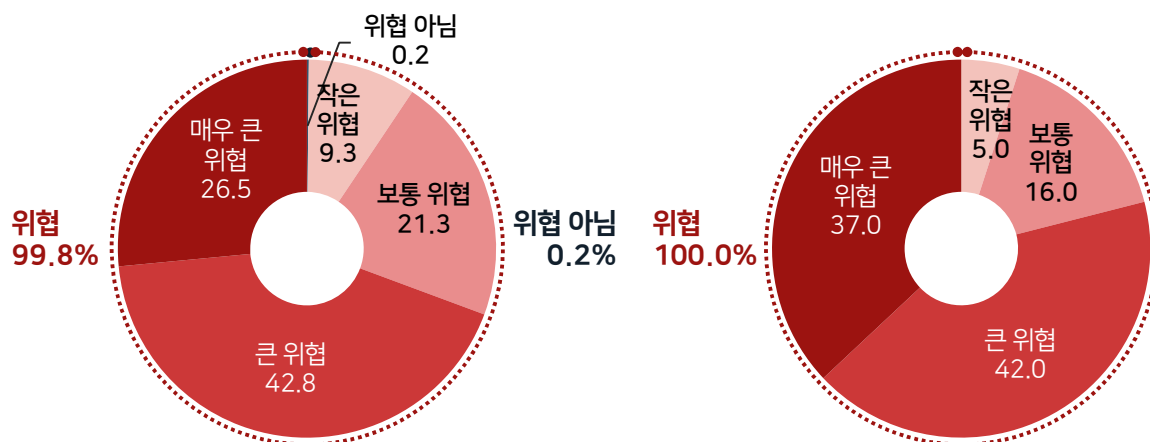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8%,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8%로 '위협이 아니다'(0.2%)라는 응답보다 99.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5-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생활수준이 '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6>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2	8.9	20.8	42.8	27.3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2	9.3	21.3	42.8	26.5	0.2	99.8
	전문가	100	-	5.0	16.0	42.0	37.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8.0	20.2	38.6	33.2	0.0	100.0
	중	570	0.2	9.1	21.9	46.1	22.6	0.2	99.8
	하	190	0.5	12.6	21.6	42.6	22.6	0.5	99.5
성별	남성	720	0.3	10.1	20.7	43.8	25.1	0.3	99.7
	여성	480	0.0	7.9	22.1	41.5	28.5	0.0	10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11.5	21.1	39.6	27.8	0.0	100.0
	30대	193	0.5	7.8	17.6	44.6	29.5	0.5	99.5
	40대	247	0.0	10.5	23.1	38.9	27.5	0.0	100.0
	50대	254	0.4	8.7	23.6	40.9	26.4	0.4	99.6
	60대 이상	279	0.0	7.9	20.1	49.5	22.6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9.8	31.1	42.2	16.9	0.0	100.0
	경기/인천	386	0.0	7.3	19.2	42.0	31.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11.2	51.4	36.3	0.0	100.0
	대구/경북	121	0.0	7.4	20.7	54.5	17.4	0.0	100.0
	광주/전라	114	0.0	7.0	12.3	40.4	40.4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1.6	32.3	31.5	27.6	7.1	1.6	98.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2.1	25.0	37.5	35.4	0.0	100.0
	대도시	526	0.2	8.2	24.3	42.2	25.1	0.2	99.8
	중소도시	629	0.2	10.0	18.8	43.1	28.0	0.2	99.8
직업별	읍/면	45	0.0	11.1	20.0	46.7	22.2	0.0	100.0
	농/어/임업	45	0.0	13.3	26.7	42.2	17.8	0.0	100.0
	자영업자	165	0.0	7.9	18.8	50.9	22.4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0	11.0	25.0	42.8	21.2	0.0	100.0
	기능/숙련공	104	0.0	5.8	22.1	50.0	22.1	0.0	100.0
	일반 노무직	50	2.0	10.0	36.0	40.0	12.0	2.0	98.0
	사무/기술직	304	0.3	8.6	20.1	38.8	32.2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0.0	25.0	41.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16.7	33.3	33.3	0.0	100.0
	전업주부	176	0.0	6.3	19.3	42.6	31.8	0.0	100.0
	학생	47	0.0	14.9	8.5	42.6	34.0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20.0	20.0	35.0	25.0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11.1	0.0	22.2	66.7	0.0	100.0
	중졸 이하	55	0.0	7.3	21.8	52.7	18.2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10.0	23.6	44.1	22.1	0.2	99.8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11.5	22.3	39.0	26.8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0	6.8	18.0	43.2	32.0	0.0	100.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25.0	12.5	12.5	50.0	0.0	100.0
	상	62	0.0	11.3	12.9	43.5	32.3	0.0	100.0
	중	565	0.2	8.0	21.2	42.3	28.3	0.2	99.8
	하	573	0.2	10.3	22.2	43.3	24.1	0.2	99.8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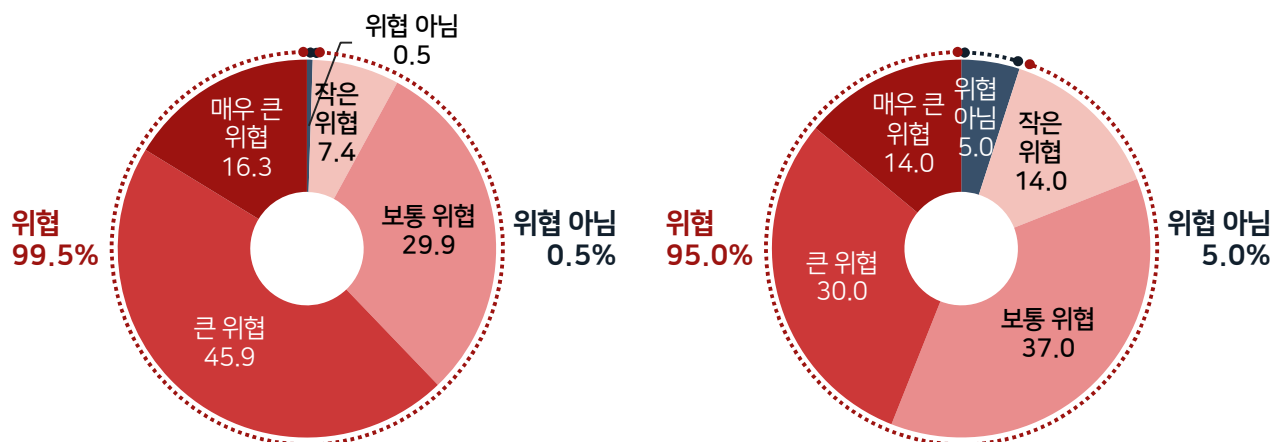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5%, 전문가는 95.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5%로 '위협이 아니다'(0.5%)라는 응답보다 99.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5.0%로 '위협이 아니다'(5.0%)라는 응답보다 90.0%p 높게 나타남.

<그림 1-5-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 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성별로 '여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5-7>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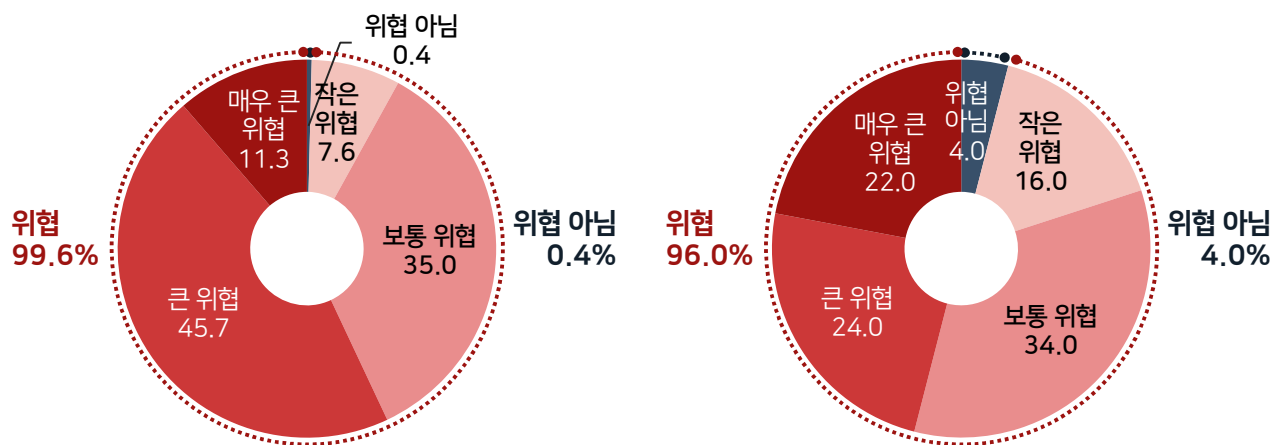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8	7.9	30.5	44.7	16.1	0.8	99.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7.4	29.9	45.9	16.3	0.5	99.5
	전문가	100	5.0	14.0	37.0	30.0	14.0	5.0	9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4.8	29.3	46.8	18.9	0.2	99.8
	중	570	0.7	9.1	29.8	44.9	15.4	0.7	99.3
	하	190	0.5	8.4	31.6	46.8	12.6	0.5	99.5
성별	남성	720	0.6	7.5	29.2	48.5	14.3	0.6	99.4
	여성	480	0.4	7.3	31.0	42.1	19.2	0.4	99.6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9.3	30.8	45.4	13.7	0.9	99.1
	30대	193	0.5	5.7	28.5	46.1	19.2	0.5	99.5
	40대	247	0.4	7.3	27.5	48.2	16.6	0.4	99.6
	50대	254	0.0	6.7	32.3	45.7	15.4	0.0	100.0
	60대 이상	279	0.7	7.9	30.1	44.4	16.8	0.7	99.3
지역별	서울	225	0.0	7.1	30.2	43.6	19.1	0.0	100.0
	경기/인천	386	0.8	6.2	23.8	45.3	23.8	0.8	99.2
	부산/울산/경남	179	0.0	1.7	41.3	47.5	9.5	0.0	100.0
	대구/경북	121	0.0	7.4	42.1	36.4	14.0	0.0	100.0
	광주/전라	114	0.0	1.8	22.8	65.8	9.6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1.6	26.8	26.8	40.2	4.7	1.6	98.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2.1	29.2	47.9	18.8	2.1	97.9
	대도시	526	1.0	6.8	29.1	43.7	19.4	1.0	99.0
	중소도시	629	0.0	7.9	30.4	47.5	14.1	0.0	100.0
직업별	읍/면	45	2.2	6.7	33.3	48.9	8.9	2.2	97.8
	농/어/임업	45	2.2	8.9	24.4	53.3	11.1	2.2	97.8
	자영업자	165	0.6	3.6	32.7	42.4	20.6	0.6	99.4
	판매/서비스직	236	0.4	7.2	31.4	48.7	12.3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7.7	26.9	53.8	11.5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0.0	34.0	42.0	14.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3	7.9	30.3	43.8	17.8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16.7	8.3	41.7	33.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25.0	8.3	41.7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6	6.3	28.4	45.5	19.3	0.6	99.4
	학생	47	2.1	6.4	23.4	53.2	14.9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0.0	15.0	35.0	35.0	15.0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9.1	41.8	30.9	18.2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9	6.8	30.3	47.2	14.8	0.9	99.1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10.4	26.4	50.2	13.0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6.1	30.2	43.4	19.8	0.5	99.5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62.5	12.5	0.0	100.0
	상	62	1.6	8.1	32.3	35.5	22.6	1.6	98.4
	중	565	0.5	8.1	23.4	50.4	17.5	0.5	99.5
	하	573	0.3	6.6	36.1	42.6	14.3	0.3	99.7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6%, 전문가는 9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6%로 '위협이 아니다'(0.4%)라는 응답보다 99.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6.0%로 '위협이 아니다'(4.0%)라는 응답보다 92.0%p 높게 나타남.

<그림 1-5-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한미 군사동맹 약화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한미 군사동맹 약화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성별로 '남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5-8>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한미 군사동맹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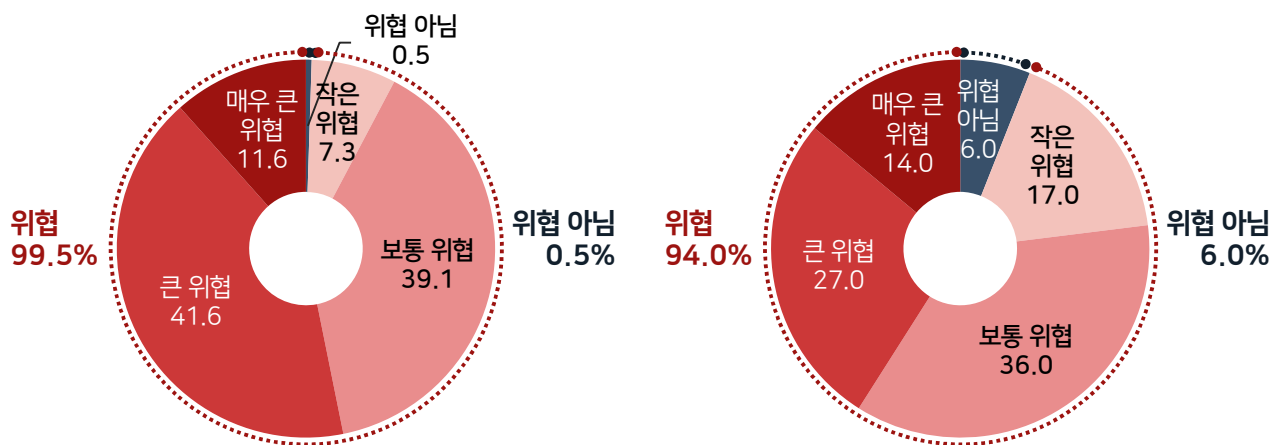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협 아님	작은 위협	보통 위협	큰 위협	매우 큰 위협	종합	
								위협 아님	위협
전체		1,300	0.7	8.2	34.9	44.0	12.2	0.7	9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4	7.6	35.0	45.7	11.3	0.4	99.6
	전문가	100	4.0	16.0	34.0	24.0	22.0	4.0	9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6.8	28.6	51.8	12.5	0.2	99.8
	중	570	0.5	8.9	38.8	40.9	10.9	0.5	99.5
	하	190	0.5	5.3	38.4	45.8	10.0	0.5	99.5
성별	남성	720	0.3	8.8	35.3	44.4	11.3	0.3	99.7
	여성	480	0.6	5.8	34.6	47.5	11.5	0.6	9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7.9	34.4	44.5	12.3	0.9	99.1
	30대	193	0.0	6.2	35.2	50.3	8.3	0.0	100.0
	40대	247	0.4	8.5	31.6	49.0	10.5	0.4	99.6
	50대	254	0.8	8.7	37.4	42.1	11.0	0.8	99.2
	60대 이상	279	0.0	6.5	36.2	43.7	13.6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10.7	36.4	46.2	6.7	0.0	100.0
	경기/인천	386	0.5	6.5	30.6	47.4	15.0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0.6	45.3	48.0	6.1	0.0	100.0
	대구/경북	121	0.0	9.1	38.8	44.6	7.4	0.0	100.0
	광주/전라	114	0.0	2.6	27.2	45.6	24.6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1.6	19.7	38.6	31.5	8.7	1.6	98.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4.2	25.0	60.4	8.3	2.1	97.9
	대도시	526	0.4	7.2	35.6	46.2	10.6	0.4	99.6
	중소도시	629	0.5	7.8	35.3	44.8	11.6	0.5	99.5
직업별	읍/면	45	0.0	8.9	24.4	51.1	15.6	0.0	100.0
	농/어/임업	45	0.0	6.7	26.7	53.3	13.3	0.0	100.0
	자영업자	165	0.6	3.6	37.0	46.1	12.7	0.6	99.4
	판매/서비스직	236	0.4	9.3	35.6	43.6	11.0	0.4	99.6
	기능/숙련공	104	0.0	11.5	36.5	42.3	9.6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12.0	34.0	36.0	18.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3	7.6	34.9	45.4	11.8	0.3	99.7
	경영/관리직	12	0.0	8.3	8.3	83.3	0.0	0.0	100.0
	전문/자유직	12	8.3	0.0	16.7	75.0	0.0	8.3	91.7
	전업주부	176	0.6	5.1	32.4	51.7	10.2	0.6	99.4
	학생	47	0.0	6.4	34.0	48.9	10.6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15.0	50.0	22.5	12.5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7.3	50.9	32.7	9.1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7.6	35.2	44.5	12.2	0.4	99.6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9.7	38.3	42.4	9.7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6.3	31.0	50.2	12.0	0.5	99.5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0.0	12.5	75.0	0.0	12.5	87.5
	상	62	1.6	9.7	29.0	50.0	9.7	1.6	98.4
	중	565	0.5	8.0	33.1	46.0	12.4	0.5	99.5
	하	573	0.2	7.0	37.5	44.9	10.5	0.2	99.8

9) 개인정보 유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5%, 전문가는 9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99.5%로 '위험이 아니다'(0.5%)라는 응답보다 99.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94.0%로 '위험이 아니다'(6.0%)라는 응답보다 88.0%p 높게 나타남.

<그림 1-5-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개인정보 유출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9>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개인정보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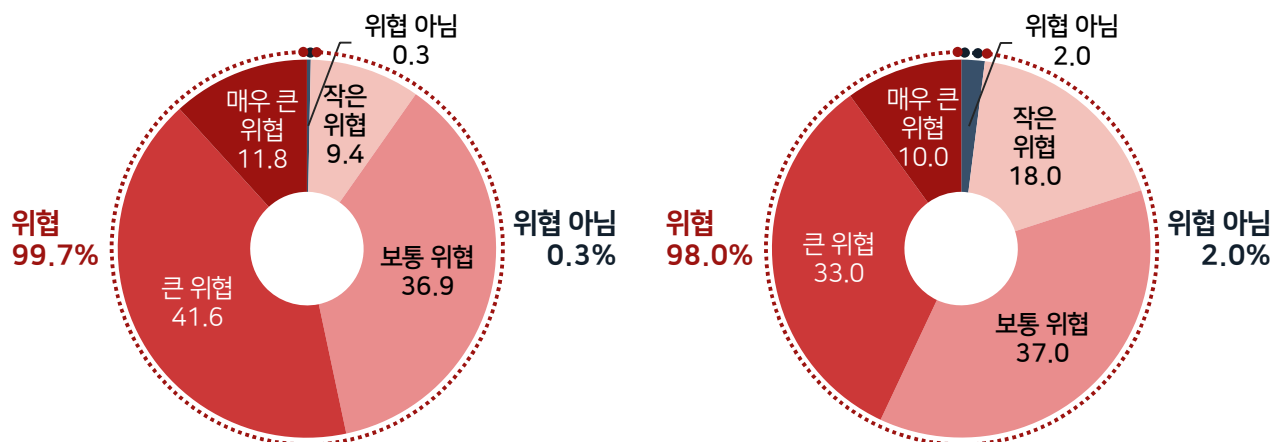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9	8.0	38.8	40.5	11.8	0.9	99.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7.3	39.1	41.6	11.6	0.5	99.5
	전문가	100	6.0	17.0	36.0	27.0	14.0	6.0	9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7.7	30.9	46.1	15.0	0.2	99.8
	중	570	0.5	6.3	43.9	40.0	9.3	0.5	99.5
	하	190	1.1	8.9	43.7	35.8	10.5	1.1	98.9
성별	남성	720	0.7	6.5	41.5	40.4	10.8	0.7	99.3
	여성	480	0.2	8.3	35.4	43.3	12.7	0.2	9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9.3	32.2	46.7	11.9	0.0	100.0
	30대	193	0.5	5.7	37.3	43.0	13.5	0.5	99.5
	40대	247	0.4	7.3	40.1	39.7	12.6	0.4	99.6
	50대	254	1.2	5.9	41.7	39.4	11.8	1.2	98.8
	60대 이상	279	0.4	7.9	42.7	40.1	9.0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4	6.7	35.6	49.3	8.0	0.4	99.6
	경기/인천	386	0.5	6.5	38.6	38.9	15.5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2.2	28.5	58.7	10.6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0	49.6	32.2	13.2	0.0	100.0
	광주/전라	114	0.0	10.5	36.8	43.9	8.8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2.4	18.9	52.8	20.5	5.5	2.4	97.6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2.1	41.7	37.5	18.8	0.0	100.0
	대도시	526	1.0	6.8	42.6	41.8	7.8	1.0	99.0
	중소도시	629	0.2	7.5	35.3	42.0	15.1	0.2	99.8
	읍/면	45	0.0	8.9	51.1	33.3	6.7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8.9	37.8	35.6	15.6	2.2	97.8
	자영업자	165	0.0	3.6	42.4	41.2	12.7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8	7.6	36.4	42.8	12.3	0.8	99.2
	기능/숙련공	104	0.0	3.8	44.2	41.3	10.6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20.0	52.0	20.0	8.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3	6.9	37.2	44.4	11.2	0.3	99.7
	경영/관리직	12	8.3	0.0	25.0	58.3	8.3	8.3	91.7
	전문/자유직	12	8.3	0.0	41.7	33.3	16.7	8.3	91.7
	전업주부	176	0.0	8.0	36.4	44.3	11.4	0.0	100.0
	학생	47	0.0	8.5	31.9	44.7	14.9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12.5	45.0	35.0	7.5	0.0	10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11.1	66.7	22.2	0.0	0.0	100.0
	중졸 이하	55	0.0	10.9	45.5	38.2	5.5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8.3	42.1	39.5	9.6	0.4	99.6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8.9	39.8	40.5	10.8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7	4.4	34.4	45.4	15.1	0.7	99.3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12.5	37.5	25.0	12.5	12.5	87.5
	상	62	1.6	4.8	35.5	51.6	6.5	1.6	98.4
	중	565	0.4	5.1	36.6	44.4	13.5	0.4	99.6
	하	573	0.5	9.6	41.9	37.7	10.3	0.5	99.5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7%, 전문가는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9.7%로 '위협이 아니다'(0.3%)라는 응답보다 99.4%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이 아니다'(2.0%)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1-5-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상', 연령별로 '40대', 생활수준이 '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5-10>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5	10.1	36.9	40.9	11.6	0.5	99.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9.4	36.9	41.6	11.8	0.3	99.7
	전문가	100	2.0	18.0	37.0	33.0	10.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9.1	31.8	44.1	15.0	0.0	100.0
	중	570	0.5	9.5	40.5	38.9	10.5	0.5	99.5
	하	190	0.5	10.0	37.9	43.7	7.9	0.5	99.5
성별	남성	720	0.3	10.4	36.7	41.1	11.5	0.3	99.7
	여성	480	0.4	7.9	37.3	42.3	12.1	0.4	99.6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10.1	36.1	42.3	11.0	0.4	99.6
	30대	193	0.5	8.3	38.9	37.3	15.0	0.5	99.5
	40대	247	0.0	8.9	38.9	39.7	12.6	0.0	100.0
	50대	254	0.4	9.1	36.6	42.5	11.4	0.4	99.6
	60대 이상	279	0.4	10.4	34.8	44.8	9.7	0.4	99.6
지역별	서울	225	0.4	9.8	44.9	36.9	8.0	0.4	99.6
	경기/인천	386	0.5	7.5	34.7	39.4	17.9	0.5	99.5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45.8	39.7	13.4	0.0	100.0
	대구/경북	121	0.0	12.4	34.7	44.6	8.3	0.0	100.0
	광주/전라	114	0.0	3.5	20.2	69.3	7.0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8	29.9	33.1	31.5	4.7	0.8	99.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6.3	39.6	41.7	12.5	0.0	100.0
	대도시	526	0.6	8.0	39.4	41.3	10.8	0.6	99.4
	중소도시	629	0.2	10.5	36.1	40.7	12.6	0.2	99.8
직업별	읍/면	45	0.0	11.1	20.0	57.8	11.1	0.0	100.0
	농/어/임업	45	0.0	11.1	22.2	57.8	8.9	0.0	100.0
	자영업자	165	0.0	10.3	34.5	44.2	10.9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4	10.2	37.7	38.6	13.1	0.4	99.6
	기능/숙련공	104	1.0	8.7	31.7	51.0	7.7	1.0	99.0
	일반 노무직	50	0.0	10.0	56.0	22.0	12.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7	8.9	37.8	41.8	10.9	0.7	99.3
	경영/관리직	12	0.0	25.0	25.0	41.7	8.3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6.7	33.3	25.0	25.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6.8	37.5	40.9	14.8	0.0	100.0
	학생	47	0.0	8.5	31.9	42.6	17.0	0.0	100.0
	무직/휴직/은퇴	40	0.0	12.5	42.5	37.5	7.5	0.0	100.0
	기타	9	0.0	0.0	66.7	33.3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14.5	38.2	40.0	7.3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9.4	34.9	43.4	11.8	0.4	99.6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10.0	40.1	39.0	10.4	0.4	99.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8.0	37.1	41.2	13.4	0.2	99.8
	대학원 이상	8	0.0	25.0	25.0	50.0	0.0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11.3	41.9	40.3	6.5	0.0	100.0
	중	565	0.5	10.1	34.0	45.1	10.3	0.5	99.5
	하	573	0.2	8.6	39.3	38.2	13.8	0.2	99.8

11) 질병·감염병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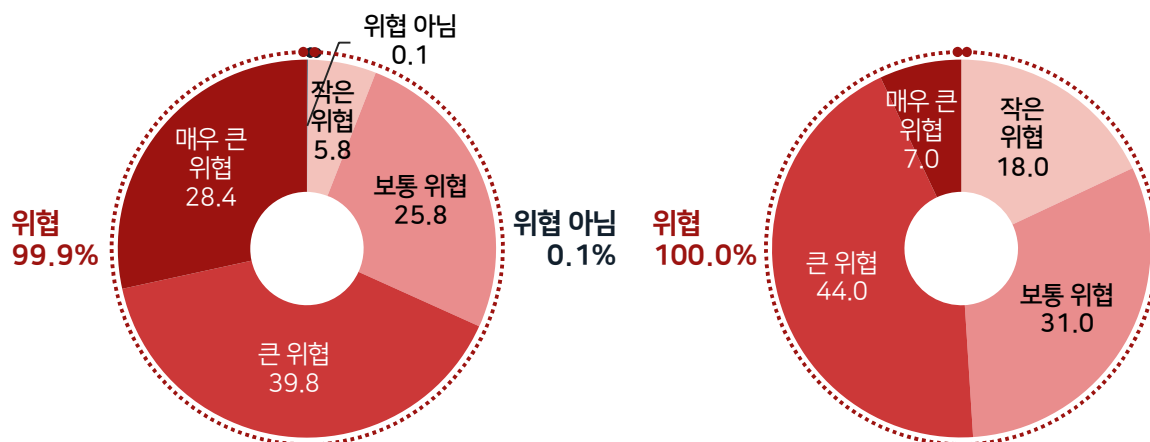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9.9%, 전문가는 10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99.9%로 '위험이 아니다'(0.1%)라는 응답보다 99.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위험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그림 1-5-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질병·감염병 확산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질병·감염병 확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유의미한 특성이 없음.

<표 1-5-11>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질병·감염병 확산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1	6.8	26.2	40.2	26.8	0.1	99.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1	5.8	25.8	39.8	28.4	0.1	99.9
	전문가	100	-	18.0	31.0	44.0	7.0	-	10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3.0	23.6	41.8	31.6	0.0	100.0
	중	570	0.2	7.5	25.4	38.4	28.4	0.2	99.8
	하	190	0.0	7.4	32.1	39.5	21.1	0.0	100.0
성별	남성	720	0.1	6.4	24.7	40.8	27.9	0.1	99.9
	여성	480	0.0	5.0	27.5	38.3	29.2	0.0	10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7.0	25.6	39.6	27.3	0.4	99.6
	30대	193	0.0	6.2	23.8	41.5	28.5	0.0	100.0
	40대	247	0.0	5.3	24.7	39.3	30.8	0.0	100.0
	50대	254	0.0	5.5	29.1	35.4	29.9	0.0	100.0
	60대 이상	279	0.0	5.4	25.4	43.4	25.8	0.0	100.0
지역별	서울	225	0.0	5.3	32.0	42.7	20.0	0.0	100.0
	경기/인천	386	0.0	5.4	18.1	39.1	37.3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14.5	51.4	34.1	0.0	100.0
	대구/경북	121	0.0	5.0	43.8	43.0	8.3	0.0	100.0
	광주/전라	114	0.0	0.0	19.3	43.0	37.7	0.0	100.0
	대전/충청/세종	127	0.0	23.6	40.9	18.9	16.5	0.0	100.0
	강원/제주	48	2.1	2.1	31.3	29.2	35.4	2.1	97.9
지역크기	대도시	526	0.0	6.7	28.1	39.7	25.5	0.0	100.0
	중소도시	629	0.0	5.2	23.5	40.4	30.8	0.0	100.0
	읍/면	45	2.2	4.4	31.1	33.3	28.9	2.2	97.8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6.7	33.3	28.9	31.1	0.0	100.0
	자영업자	165	0.0	3.0	24.2	46.1	26.7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0.0	6.8	28.8	39.8	24.6	0.0	100.0
	기능/숙련공	104	0.0	1.9	30.8	38.5	28.8	0.0	100.0
	일반 노무직	50	0.0	8.0	30.0	36.0	26.0	0.0	100.0
	사무/기술직	304	0.0	5.6	22.7	43.4	28.3	0.0	100.0
	경영/관리직	12	0.0	8.3	25.0	41.7	25.0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0.0	25.0	25.0	50.0	0.0	100.0
	전업주부	176	0.0	5.7	19.9	38.1	36.4	0.0	100.0
	학생	47	2.1	10.6	23.4	29.8	34.0	2.1	97.9
	무직/휴직/은퇴	40	0.0	17.5	35.0	30.0	17.5	0.0	100.0
	기타	9	0.0	0.0	55.6	44.4	0.0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3.6	34.5	41.8	20.0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0	5.0	27.7	39.3	27.9	0.0	100.0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8.6	25.3	39.4	26.8	0.0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5.4	22.4	41.0	31.0	0.2	99.8
	대학원 이상	8	0.0	0.0	50.0	12.5	37.5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4.8	24.2	41.9	29.0	0.0	100.0
	중	565	0.2	6.5	24.2	37.9	31.2	0.2	99.8
	하	573	0.0	5.2	27.6	41.5	25.7	0.0	100.0

12) 자연재해·환경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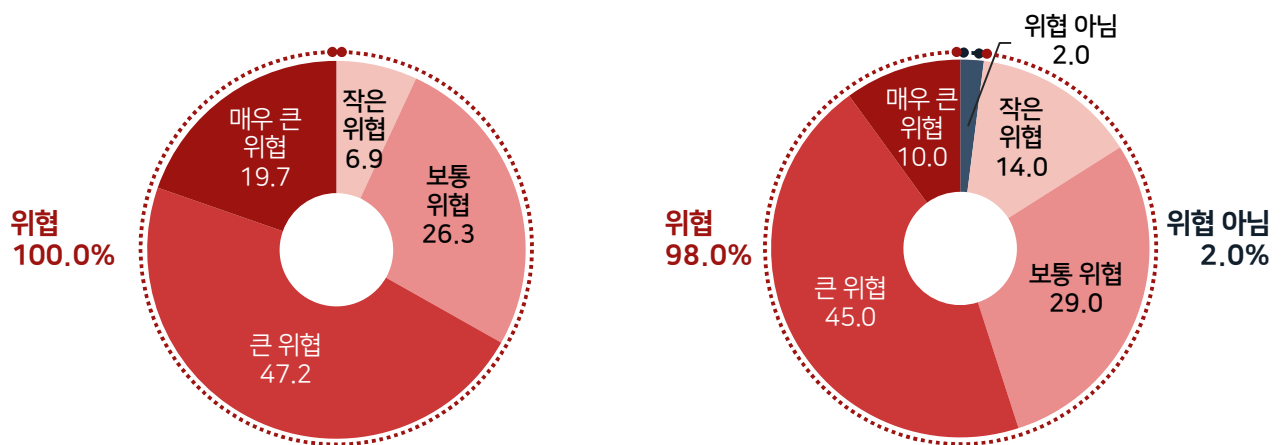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100.0%, 전문가는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남.
- ▶ **[전문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위협이다'라는 응답이 98.0%로 '위협이 아니다'(2.0%)라는 응답보다 96.0%p 높게 나타남.

<그림 1-5-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자연재해·환경파괴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중 자연재해·환경파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험이다'라는 응답은 유의미한 특성이 없음.

<표 1-5-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내요인 - 자연재해·환경파괴

단위[%]		사례수 (명)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종합	
								위험 아님	위험
전체		1,300	0.2	7.5	26.5	47.0	18.9	0.2	9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	6.9	26.3	47.2	19.7	-	100.0
	전문가	100	2.0	14.0	29.0	45.0	10.0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	4.1	23.4	49.1	23.4	-	100.0
	중	570	-	8.2	27.4	46.3	18.1	-	100.0
	하	190	-	9.5	29.5	45.3	15.8	-	100.0
성별	남성	720	-	6.8	26.5	47.5	19.2	-	100.0
	여성	480	-	7.1	25.8	46.7	20.4	-	10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	4.8	24.2	49.8	21.1	-	100.0
	30대	193	-	5.7	23.8	53.4	17.1	-	100.0
	40대	247	-	10.1	25.5	42.9	21.5	-	100.0
	50대	254	-	7.1	28.0	46.1	18.9	-	100.0
	60대 이상	279	-	6.5	28.7	45.5	19.4	-	100.0
지역별	서울	225	-	4.4	32.0	48.4	15.1	-	100.0
	경기/인천	386	-	5.2	21.2	47.4	26.2	-	100.0
	부산/울산/경남	179	-	0.6	30.7	50.3	18.4	-	100.0
	대구/경북	121	-	6.6	36.4	50.4	6.6	-	100.0
	광주/전라	114	-	0.0	10.5	64.9	24.6	-	100.0
	대전/충청/세종	127	-	33.1	29.1	25.2	12.6	-	100.0
	강원/제주	48	-	4.2	27.1	35.4	33.3	-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	4.8	30.4	48.1	16.7	-	100.0
	중소도시	629	-	8.9	23.5	46.1	21.5	-	100.0
	읍/면	45	-	4.4	15.6	51.1	28.9	-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	6.7	28.9	37.8	26.7	-	100.0
	자영업자	165	-	5.5	27.3	52.1	15.2	-	100.0
	판매/서비스직	236	-	6.4	33.5	43.2	16.9	-	100.0
	기능/숙련공	104	-	4.8	26.9	52.9	15.4	-	100.0
	일반 노무직	50	-	10.0	26.0	38.0	26.0	-	100.0
	사무/기술직	304	-	6.3	22.7	51.3	19.7	-	100.0
	경영/관리직	12	-	16.7	16.7	41.7	25.0	-	100.0
	전문/자유직	12	-	8.3	8.3	50.0	33.3	-	100.0
	전업주부	176	-	8.5	21.6	46.6	23.3	-	100.0
	학생	47	-	6.4	17.0	46.8	29.8	-	100.0
	무직/휴직/은퇴	40	-	15.0	37.5	27.5	20.0	-	100.0
	기타	9	-	0.0	44.4	55.6	0.0	-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	3.6	32.7	45.5	18.2	-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	8.1	27.5	46.1	18.3	-	100.0
	전문대(중퇴/졸업)	269	-	8.2	30.1	43.5	18.2	-	10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	5.4	21.0	51.2	22.4	-	100.0
	대학원 이상	8	-	0.0	50.0	37.5	12.5	-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	8.1	22.6	41.9	27.4	-	100.0
	중	565	-	7.1	24.4	46.9	21.6	-	100.0
	하	573	-	6.6	28.4	48.0	16.9	-	100.0

6. 국가안보 관련 의견

1)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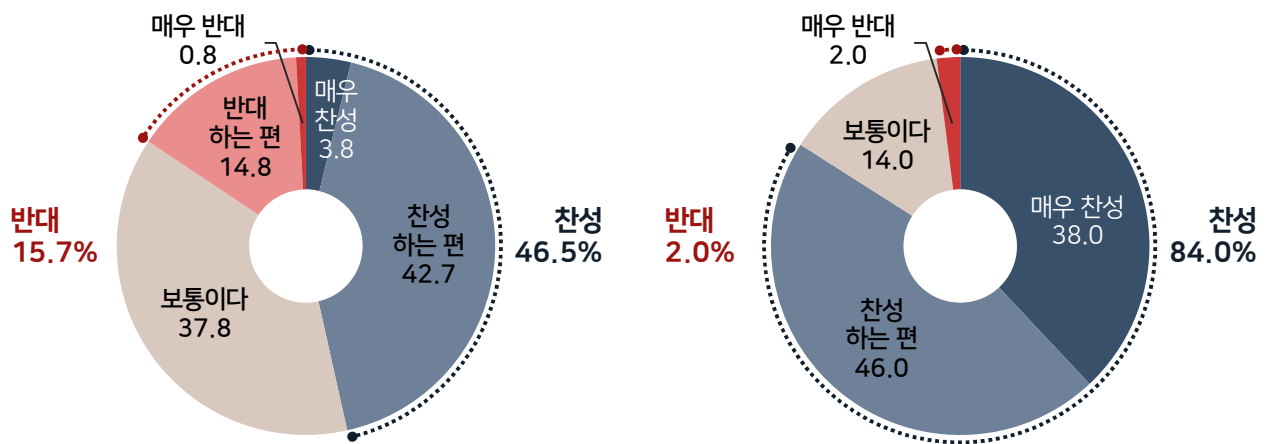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6.5%, 전문가는 8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6.5%로 '반대한다'(15.7%)라는 응답보다 30.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84.0%로 '반대한다'(2.0%)라는 응답보다 82.0%p 높게 나타남.

<그림 1-6-1> 국가안보 관련 의견 -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1> 국가안보 관련 의견 -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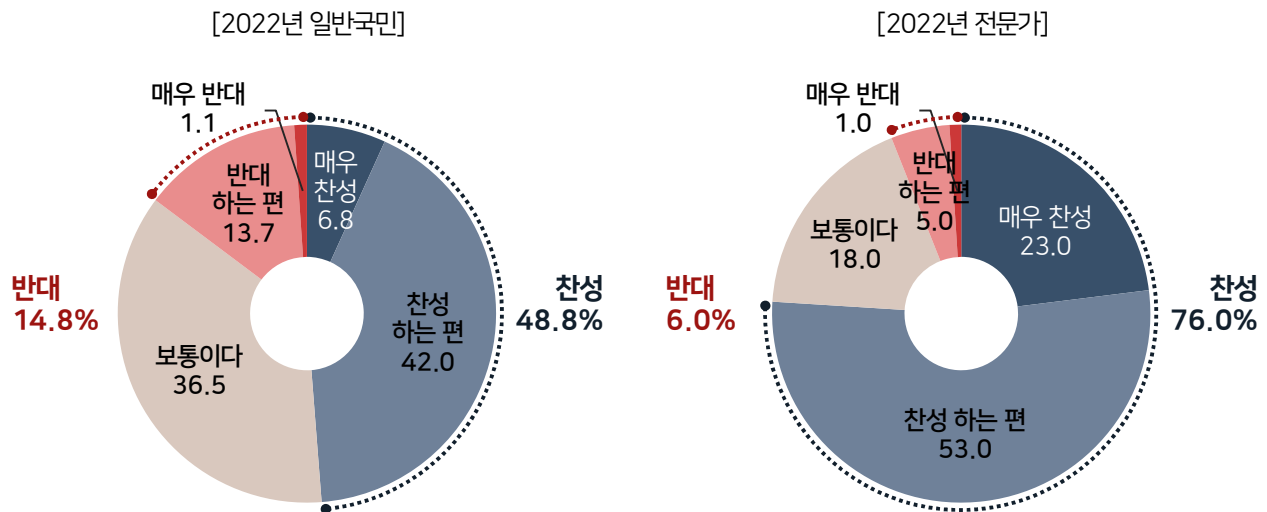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6.5	42.9	36.0	13.7	0.9	49.4	36.0	1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	42.7	37.8	14.8	0.8	46.5	37.8	15.7
	전문가	100	38.0	46.0	14.0	-	2.0	84.0	14.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6.4	48.9	30.7	13.6	0.5	55.2	30.7	14.1
	중	570	2.6	42.8	41.2	12.5	0.9	45.4	41.2	13.3
	하	190	1.6	27.9	44.2	24.7	1.6	29.5	44.2	26.3
성별	남성	720	5.0	41.9	37.9	14.2	1.0	46.9	37.9	15.1
	여성	480	2.1	43.8	37.7	15.8	0.6	45.8	37.7	16.5
연령별	20대 이하	227	3.5	48.5	31.7	16.3	0.0	52.0	31.7	16.3
	30대	193	4.1	42.0	38.3	14.5	1.0	46.1	38.3	15.5
	40대	247	3.6	43.7	39.3	12.1	1.2	47.4	39.3	13.4
	50대	254	3.1	40.6	40.2	15.4	0.8	43.7	40.2	16.1
	60대 이상	279	4.7	39.4	39.1	15.8	1.1	44.1	39.1	16.8
지역별	서울	225	3.6	42.2	33.8	20.0	0.4	45.8	33.8	20.4
	경기/인천	386	5.2	43.0	34.7	16.6	0.5	48.2	34.7	17.1
	부산/울산/경남	179	0.6	43.0	45.3	10.6	0.6	43.6	45.3	11.2
	대구/경북	121	1.7	38.8	49.6	6.6	3.3	40.5	49.6	9.9
	광주/전라	114	8.8	55.3	22.8	13.2	0.0	64.0	22.8	13.2
	대전/충청/세종	127	0.8	37.0	44.9	15.7	1.6	37.8	44.9	17.3
	강원/제주	48	8.3	35.4	41.7	14.6	0.0	43.8	41.7	14.6
지역크기	대도시	526	3.2	48.7	34.2	13.1	0.8	51.9	34.2	13.9
	중소도시	629	4.3	38.2	40.4	16.4	0.8	42.4	40.4	17.2
	읍/면	45	4.4	35.6	44.4	13.3	2.2	40.0	44.4	15.6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44.4	33.3	17.8	2.2	46.7	33.3	20.0
	자영업자	165	6.1	30.3	44.2	17.6	1.8	36.4	44.2	19.4
	판매/서비스직	236	2.1	40.7	39.0	17.4	0.8	42.8	39.0	18.2
	기능/숙련공	104	3.8	43.3	34.6	17.3	1.0	47.1	34.6	18.3
	일반 노무직	50	12.0	26.0	52.0	8.0	2.0	38.0	52.0	10.0
	사무/기술직	304	4.9	52.6	29.6	12.8	0.0	57.6	29.6	12.8
	경영/관리직	12	8.3	58.3	16.7	16.7	0.0	66.7	16.7	16.7
	전문/자유직	12	0.0	41.7	50.0	8.3	0.0	41.7	50.0	8.3
	전업주부	176	1.1	42.0	42.6	13.1	1.1	43.2	42.6	14.2
	학생	47	4.3	51.1	27.7	17.0	0.0	55.3	27.7	17.0
	무직/휴직/은퇴	40	0.0	37.5	50.0	12.5	0.0	37.5	50.0	12.5
	기타	9	0.0	33.3	66.7	0.0	0.0	33.3	66.7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23.6	60.0	14.5	1.8	23.6	60.0	1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1	39.5	38.6	17.0	0.7	43.7	38.6	17.7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43.5	39.4	12.3	0.4	48.0	39.4	12.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7	48.0	33.2	13.9	1.2	51.7	33.2	15.1
	대학원 이상	8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0.0	48.4	35.5	16.1	0.0	48.4	35.5	16.1
	중	565	3.7	46.7	35.6	13.3	0.7	50.4	35.6	14.0
	하	573	4.4	38.0	40.3	16.2	1.0	42.4	40.3	17.3

2)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8.8%, 전문가는 7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8%로 '반대한다'(14.8%)라는 응답보다 34.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6.0%로 '반대한다'(6.0%)라는 응답보다 70.0%p 높게 나타남.

<그림 1-6-2>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6-2> 국가안보 관련 의견 -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8.0	42.8	35.1	13.0	1.1	50.8	35.1	1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8	42.0	36.5	13.7	1.1	48.8	36.5	14.8
	전문가	100	23.0	53.0	18.0	5.0	1.0	76.0	18.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7	44.3	36.4	9.8	1.8	52.0	36.4	11.6
	중	570	6.0	43.5	35.8	14.2	0.5	49.5	35.8	14.7
	하	190	6.8	32.1	38.9	21.1	1.1	38.9	38.9	22.1
성별	남성	720	5.4	42.4	37.4	13.9	1.0	47.8	37.4	14.9
	여성	480	8.8	41.5	35.2	13.3	1.3	50.2	35.2	14.6
연령별	20대 이하	227	7.9	33.0	39.6	18.1	1.3	41.0	39.6	19.4
	30대	193	4.1	38.3	40.9	15.5	1.0	42.5	40.9	16.6
	40대	247	6.5	42.9	35.2	13.8	1.6	49.4	35.2	15.4
	50대	254	7.9	46.1	31.9	13.0	1.2	53.9	31.9	14.2
	60대 이상	279	6.8	47.3	36.2	9.3	0.4	54.1	36.2	9.7
지역별	서울	225	3.1	38.7	41.3	16.9	0.0	41.8	41.3	16.9
	경기/인천	386	3.6	39.4	38.3	16.6	2.1	43.0	38.3	18.7
	부산/울산/경남	179	5.6	34.6	44.1	15.1	0.6	40.2	44.1	15.6
	대구/경북	121	10.7	43.8	33.9	10.7	0.8	54.5	33.9	11.6
	광주/전라	114	12.3	60.5	21.1	4.4	1.8	72.8	21.1	6.1
	대전/충청/세종	127	8.7	49.6	32.3	9.4	0.0	58.3	32.3	9.4
	강원/제주	48	25.0	37.5	25.0	10.4	2.1	62.5	25.0	12.5
지역크기	대도시	526	4.9	40.7	38.0	15.6	0.8	45.6	38.0	16.3
	중소도시	629	8.6	41.2	36.6	12.2	1.4	49.8	36.6	13.7
	읍/면	45	2.2	68.9	17.8	11.1	0.0	71.1	17.8	11.1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55.6	26.7	11.1	0.0	62.2	26.7	11.1
	자영업자	165	7.3	49.7	30.9	11.5	0.6	57.0	30.9	12.1
	판매/서비스직	236	6.8	38.1	38.1	14.8	2.1	44.9	38.1	16.9
	기능/숙련공	104	5.8	44.2	31.7	17.3	1.0	50.0	31.7	18.3
	일반 노무직	50	4.0	54.0	30.0	12.0	0.0	58.0	30.0	12.0
	사무/기술직	304	8.9	38.2	38.2	14.1	0.7	47.0	38.2	14.8
	경영/관리직	12	0.0	33.3	58.3	8.3	0.0	33.3	58.3	8.3
	전문/자유직	12	0.0	33.3	50.0	8.3	8.3	33.3	50.0	16.7
	전업주부	176	4.0	47.2	36.4	11.4	1.1	51.1	36.4	12.5
	학생	47	10.6	23.4	46.8	17.0	2.1	34.0	46.8	19.1
	무직/휴직/은퇴	40	5.0	37.5	45.0	12.5	0.0	42.5	45.0	12.5
	기타	9	11.1	11.1	44.4	33.3	0.0	22.2	44.4	33.3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54.5	36.4	5.5	0.0	58.2	36.4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1	46.1	35.2	11.4	1.3	52.2	35.2	12.7
	전문대(중퇴/졸업)	269	9.7	39.8	35.3	14.9	0.4	49.4	35.3	15.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6.1	37.8	38.3	16.6	1.2	43.9	38.3	17.8
	대학원 이상	8	0.0	12.5	62.5	12.5	12.5	12.5	62.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6	40.3	40.3	14.5	3.2	41.9	40.3	17.7
	중	565	8.3	40.2	35.8	14.5	1.2	48.5	35.8	15.8
	하	573	5.8	44.0	36.8	12.7	0.7	49.7	36.8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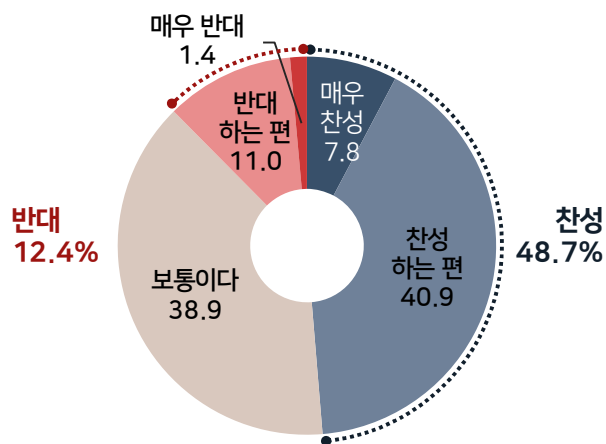
3)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8.7%, 전문가는 69.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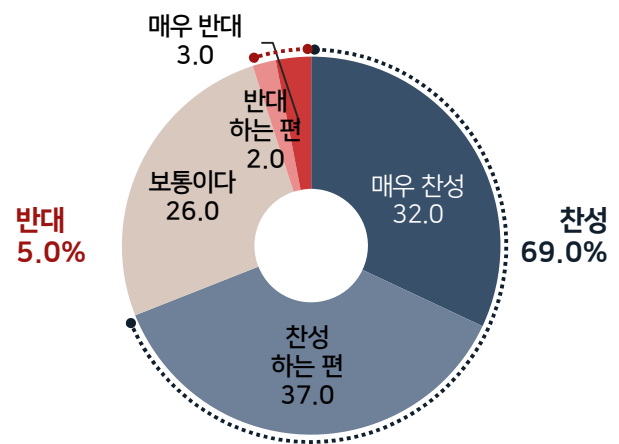
- ▶ **[일반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8.7%로 '반대한다'(12.4%)라는 응답보다 36.3%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9.0%로 '반대한다'(5.0%)라는 응답보다 64.0%p 높게 나타남.

<그림 1-6-3>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3> 국가안보 관련 의견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럽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9.6	40.6	37.9	10.3	1.5	50.2	37.9	11.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8	40.9	38.9	11.0	1.4	48.7	38.9	12.4
	전문가	100	32.0	37.0	26.0	2.0	3.0	69.0	26.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3	47.5	36.1	8.0	1.1	54.8	36.1	9.1
	중	570	7.9	38.1	41.6	11.4	1.1	46.0	41.6	12.5
	하	190	8.4	34.2	37.4	16.8	3.2	42.6	37.4	20.0
성별	남성	720	7.1	41.0	38.2	12.4	1.4	48.1	38.2	13.8
	여성	480	8.8	40.8	40.0	9.0	1.5	49.6	40.0	10.4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37.9	43.6	12.8	0.9	42.7	43.6	13.7
	30대	193	7.8	38.3	39.9	11.9	2.1	46.1	39.9	14.0
	40대	247	8.9	41.3	35.2	12.6	2.0	50.2	35.2	14.6
	50대	254	8.7	39.4	41.7	9.1	1.2	48.0	41.7	10.2
	60대 이상	279	8.2	46.2	35.1	9.3	1.1	54.5	35.1	10.4
지역별	서울	225	5.8	40.4	37.3	14.2	2.2	46.2	37.3	16.4
	경기/인천	386	6.7	37.0	41.5	12.2	2.6	43.8	41.5	14.8
	부산/울산/경남	179	2.2	47.5	37.4	12.8	0.0	49.7	37.4	12.8
	대구/경북	121	13.2	34.7	44.6	7.4	0.0	47.9	44.6	7.4
	광주/전라	114	12.3	43.0	36.8	6.1	1.8	55.3	36.8	7.9
	대전/충청/세종	127	10.2	48.0	36.2	5.5	0.0	58.3	36.2	5.5
	강원/제주	48	14.6	41.7	29.2	14.6	0.0	56.3	29.2	14.6
지역크기	대도시	526	4.9	43.0	39.4	11.2	1.5	47.9	39.4	12.7
	중소도시	629	10.3	39.0	38.5	10.8	1.4	49.3	38.5	12.2
	읍/면	45	4.4	44.4	40.0	11.1	0.0	48.9	40.0	11.1
직업별	농/어/임업	45	13.3	31.1	44.4	11.1	0.0	44.4	44.4	11.1
	자영업자	165	7.9	43.0	37.0	8.5	3.6	50.9	37.0	12.1
	판매/서비스직	236	8.9	39.4	38.1	11.9	1.7	48.3	38.1	13.6
	기능/숙련공	104	10.6	36.5	32.7	17.3	2.9	47.1	32.7	20.2
	일반 노무직	50	4.0	40.0	42.0	14.0	0.0	44.0	42.0	14.0
	사무/기술직	304	5.9	41.4	41.8	10.2	0.7	47.4	41.8	10.9
	경영/관리직	12	0.0	50.0	41.7	8.3	0.0	50.0	41.7	8.3
	전문/자유직	12	16.7	16.7	58.3	8.3	0.0	33.3	58.3	8.3
	전업주부	176	9.1	42.6	38.1	9.1	1.1	51.7	38.1	10.2
	학생	47	4.3	48.9	38.3	8.5	0.0	53.2	38.3	8.5
	무직/휴직/은퇴	40	2.5	57.5	22.5	17.5	0.0	60.0	22.5	17.5
	기타	9	11.1	0.0	88.9	0.0	0.0	11.1	88.9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9.1	40.0	41.8	9.1	0.0	49.1	41.8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0	43.0	37.8	11.1	1.1	50.0	37.8	12.2
	전문대(중퇴/졸업)	269	10.0	41.6	36.4	9.7	2.2	51.7	36.4	11.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6.8	38.0	41.7	12.0	1.5	44.9	41.7	13.4
	대학원 이상	8	12.5	50.0	25.0	12.5	0.0	6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4.8	30.6	48.4	14.5	1.6	35.5	48.4	16.1
	중	565	8.8	41.8	37.2	10.6	1.6	50.6	37.2	12.2
	하	573	7.0	41.2	39.6	11.0	1.2	48.2	39.6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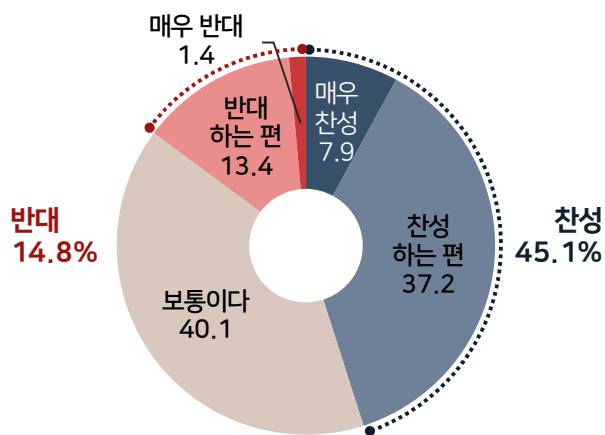
4)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5.1%, 전문가는 8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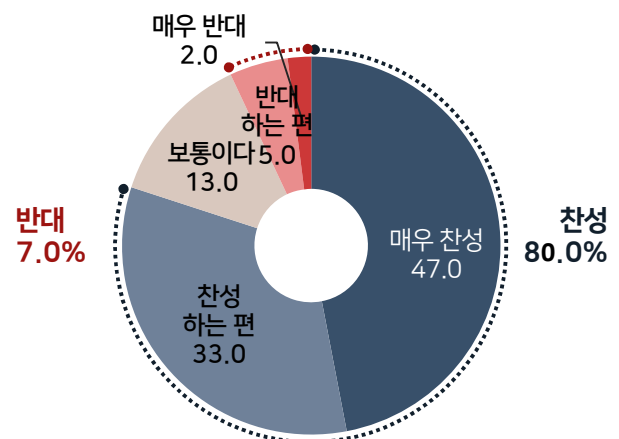
- ▶ [일반국민]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5.1%로 '반대한다'(14.8%)라는 응답보다 30.3%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80.0%로 '반대한다'(7.0%)라는 응답보다 73.0%p 높게 나타남.

<그림 1-6-4>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4> 국가안보 관련 의견 -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0.9	36.8	38.0	12.8	1.5	47.8	38.0	1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9	37.2	40.1	13.4	1.4	45.1	40.1	14.8
	전문가	100	47.0	33.0	13.0	5.0	2.0	80.0	13.0	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6	42.7	36.8	8.2	0.7	54.3	36.8	8.9
	중	570	6.3	35.3	43.2	13.7	1.6	41.6	43.2	15.3
	하	190	4.2	30.0	38.4	24.7	2.6	34.2	38.4	27.4
성별	남성	720	9.9	42.1	33.9	13.3	0.8	51.9	33.9	14.2
	여성	480	5.0	29.8	49.4	13.5	2.3	34.8	49.4	15.8
연령별	20대 이하	227	7.5	36.6	38.3	15.4	2.2	44.1	38.3	17.6
	30대	193	8.3	39.9	37.8	12.4	1.6	48.2	37.8	14.0
	40대	247	9.3	36.4	37.7	14.6	2.0	45.7	37.7	16.6
	50대	254	7.1	36.6	42.5	13.4	0.4	43.7	42.5	13.8
	60대 이상	279	7.5	36.9	43.0	11.5	1.1	44.4	43.0	12.5
지역별	서울	225	5.8	39.6	40.9	12.9	0.9	45.3	40.9	13.8
	경기/인천	386	9.1	36.8	34.5	17.6	2.1	45.9	34.5	19.7
	부산/울산/경남	179	7.8	33.5	45.3	13.4	0.0	41.3	45.3	13.4
	대구/경북	121	5.0	38.0	45.5	9.1	2.5	43.0	45.5	11.6
	광주/전라	114	15.8	41.2	35.1	6.1	1.8	57.0	35.1	7.9
	대전/충청/세종	127	3.1	35.4	47.2	13.4	0.8	38.6	47.2	14.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0.4	35.4	41.7	10.4	2.1	45.8	41.7	12.5
	대도시	526	7.2	38.6	41.6	11.6	1.0	45.8	41.6	12.5
	중소도시	629	8.4	36.2	38.2	15.3	1.9	44.7	38.2	17.2
직업별	읍/면	45	8.9	33.3	48.9	8.9	0.0	42.2	48.9	8.9
	농/어/임업	45	11.1	53.3	20.0	15.6	0.0	64.4	20.0	15.6
	자영업자	165	10.3	38.2	36.4	12.1	3.0	48.5	36.4	15.2
	판매/서비스직	236	7.2	37.3	36.9	18.2	0.4	44.5	36.9	18.6
	기능/숙련공	104	6.7	44.2	35.6	11.5	1.9	51.0	35.6	13.5
	일반 노무직	50	10.0	20.0	56.0	14.0	0.0	30.0	56.0	14.0
	사무/기술직	304	8.2	40.1	39.5	10.5	1.6	48.4	39.5	12.2
	경영/관리직	12	25.0	50.0	16.7	8.3	0.0	75.0	16.7	8.3
	전문/자유직	12	8.3	41.7	33.3	16.7	0.0	50.0	33.3	16.7
	전업주부	176	4.0	31.3	51.7	11.9	1.1	35.2	51.7	13.1
	학생	47	8.5	40.4	31.9	17.0	2.1	48.9	31.9	19.1
	무직/휴직/은퇴	40	7.5	17.5	55.0	17.5	2.5	25.0	55.0	20.0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11.1	66.7	11.1	0.0	22.2	66.7	11.1
	중졸 이하	55	3.6	29.1	52.7	14.5	0.0	32.7	52.7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9	35.2	42.6	13.5	0.9	43.0	42.6	14.4
	전문대(중퇴/졸업)	269	6.7	43.5	35.3	12.6	1.9	50.2	35.3	14.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8	36.6	39.0	13.7	2.0	45.4	39.0	15.6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37.5	25.0	25.0	12.5	0.0	62.5	25.0	12.5
	상	62	6.5	32.3	46.8	11.3	3.2	38.7	46.8	14.5
	중	565	8.7	38.9	37.9	13.5	1.1	47.6	37.9	14.5
	하	573	7.3	36.0	41.5	13.6	1.6	43.3	41.5	15.2

5)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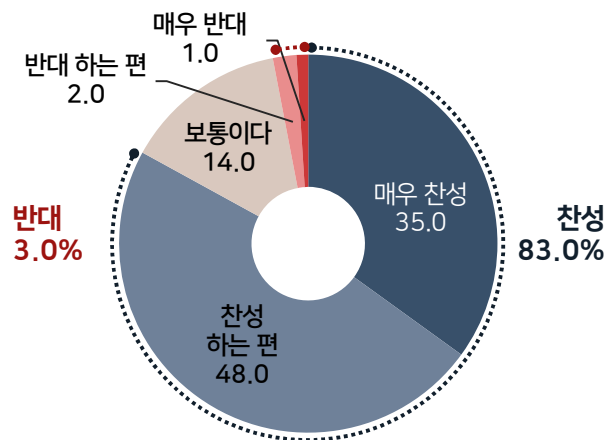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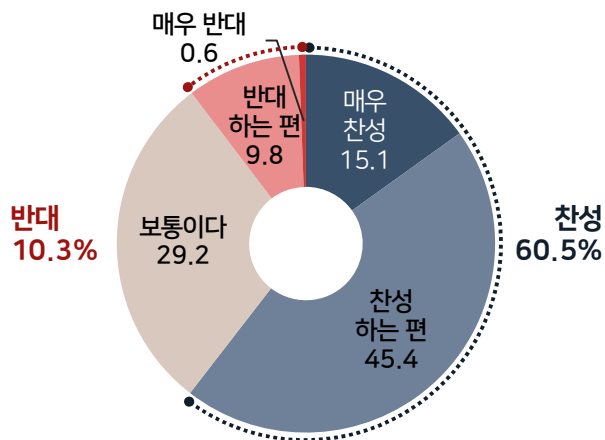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60.5%, 전문가는 83.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0.5%로 '반대한다'(10.3%)라는 응답보다 50.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83.0%로 '반대한다'(3.0%)라는 응답보다 80.0%p 높게 나타남.

<그림 1-6-5>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이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50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6-5> 국가안보 관련 의견 -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6.6	45.6	28.0	9.2	0.6	62.2	28.0	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1	45.4	29.2	9.8	0.6	60.5	29.2	10.3
	전문가	100	35.0	48.0	14.0	2.0	1.0	83.0	14.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8.0	45.9	25.9	9.8	0.5	63.9	25.9	10.2
	중	570	14.0	46.7	30.0	8.8	0.5	60.7	30.0	9.3
	하	190	11.6	40.5	34.2	12.6	1.1	52.1	34.2	13.7
성별	남성	720	16.5	44.4	28.8	9.4	0.8	61.0	28.8	10.3
	여성	480	12.9	46.9	29.8	10.2	0.2	59.8	29.8	10.4
연령별	20대 이하	227	12.8	48.0	28.2	10.1	0.9	60.8	28.2	11.0
	30대	193	16.1	42.0	31.6	10.4	0.0	58.0	31.6	10.4
	40대	247	15.8	44.1	27.9	10.9	1.2	59.9	27.9	12.1
	50대	254	16.5	46.5	28.7	7.9	0.4	63.0	28.7	8.3
	60대 이상	279	14.3	45.9	29.7	9.7	0.4	60.2	29.7	10.0
지역별	서울	225	13.3	48.9	24.4	12.4	0.9	62.2	24.4	13.3
	경기/인천	386	21.0	42.0	27.5	9.3	0.3	63.0	27.5	9.6
	부산/울산/경남	179	7.3	48.6	30.2	12.8	1.1	55.9	30.2	14.0
	대구/경북	121	11.6	44.6	38.8	5.0	0.0	56.2	38.8	5.0
	광주/전라	114	26.3	38.6	23.7	10.5	0.9	64.9	23.7	11.4
	대전/충청/세종	127	2.4	48.0	42.5	6.3	0.8	50.4	42.5	7.1
	강원/제주	48	20.8	56.3	14.6	8.3	0.0	77.1	14.6	8.3
지역크기	대도시	526	13.9	50.8	25.1	9.5	0.8	64.6	25.1	10.3
	중소도시	629	16.1	41.3	32.3	10.0	0.3	57.4	32.3	10.3
	읍/면	45	15.6	40.0	33.3	8.9	2.2	55.6	33.3	11.1
직업별	농/어/임업	45	15.6	35.6	37.8	11.1	0.0	51.1	37.8	11.1
	자영업자	165	16.4	46.7	26.1	10.3	0.6	63.0	26.1	10.9
	판매/서비스직	236	10.2	45.8	35.2	7.6	1.3	55.9	35.2	8.9
	기능/숙련공	104	14.4	45.2	27.9	11.5	1.0	59.6	27.9	12.5
	일반 노무직	50	16.0	34.0	40.0	10.0	0.0	50.0	40.0	10.0
	사무/기술직	304	17.1	46.4	26.6	9.5	0.3	63.5	26.6	9.9
	경영/관리직	12	33.3	41.7	25.0	0.0	0.0	75.0	25.0	0.0
	전문/자유직	12	33.3	41.7	16.7	8.3	0.0	75.0	16.7	8.3
	전업주부	176	15.3	50.0	25.0	9.1	0.6	65.3	25.0	9.7
	학생	47	17.0	46.8	27.7	8.5	0.0	63.8	27.7	8.5
	무직/휴직/은퇴	40	7.5	40.0	27.5	25.0	0.0	47.5	27.5	25.0
	기타	9	22.2	33.3	44.4	0.0	0.0	55.6	44.4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41.8	38.2	10.9	1.8	49.1	38.2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2.7	44.3	32.3	10.5	0.2	57.0	32.3	10.7
	전문대(중퇴/졸업)	269	12.6	47.2	32.0	7.1	1.1	59.9	32.0	8.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0.0	46.3	22.7	10.5	0.5	66.3	22.7	11.0
	대학원 이상	8	37.5	25.0	25.0	12.5	0.0	6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2.9	56.5	21.0	9.7	0.0	69.4	21.0	9.7
	중	565	16.3	48.8	25.7	8.8	0.4	65.1	25.7	9.2
	하	573	14.1	40.8	33.5	10.6	0.9	55.0	33.5	11.5

6)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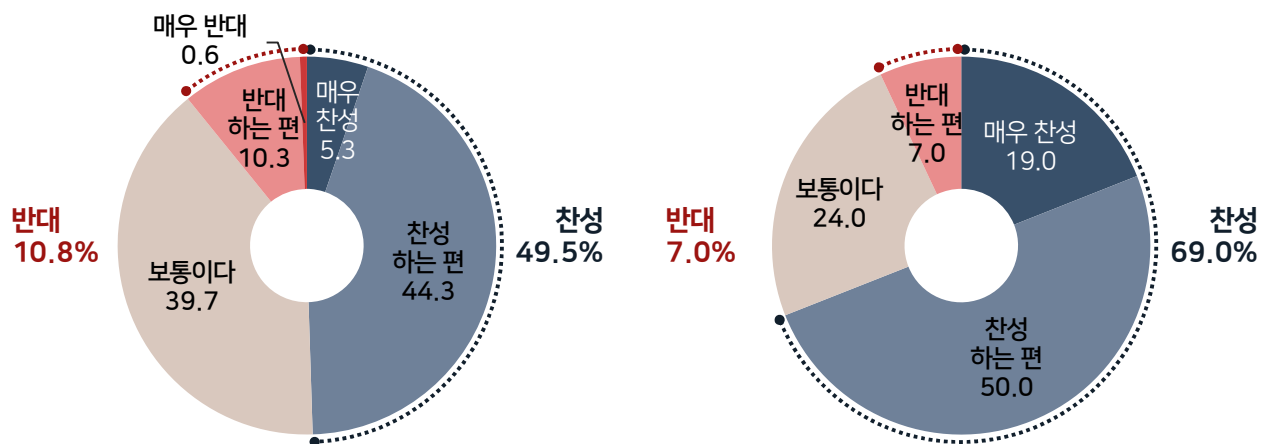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9.5%, 전문가는 69.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9.5%로 '반대한다'(10.8%)라는 응답보다 38.7%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9.0%로 '반대한다'(7.0%)라는 응답보다 62.0%p 높게 나타남.

<그림 1-6-6>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가안보 관련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6-6> 국가안보 관련 의견 -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6.3	44.7	38.5	10.0	0.5	51.0	38.5	10.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	44.3	39.7	10.3	0.6	49.5	39.7	10.8
	전문가	100	19.0	50.0	24.0	7.0	-	69.0	24.0	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3	49.5	32.7	9.5	0.9	56.8	32.7	10.5
	중	570	4.2	44.7	41.1	9.6	0.4	48.9	41.1	10.0
	하	190	3.7	30.5	51.6	13.7	0.5	34.2	51.6	14.2
성별	남성	720	4.7	42.9	42.1	9.9	0.4	47.6	42.1	10.3
	여성	480	6.0	46.3	36.0	10.8	0.8	52.3	36.0	11.7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44.1	38.3	11.9	0.9	48.9	38.3	12.8
	30대	193	5.2	48.2	35.8	10.9	0.0	53.4	35.8	10.9
	40대	247	4.9	45.3	38.1	11.7	0.0	50.2	38.1	11.7
	50대	254	6.3	44.1	39.8	9.4	0.4	50.4	39.8	9.8
	60대 이상	279	5.0	40.9	44.8	7.9	1.4	45.9	44.8	9.3
지역별	서울	225	1.3	46.7	39.6	12.0	0.4	48.0	39.6	12.4
	경기/인천	386	9.3	41.7	37.0	11.4	0.5	51.0	37.0	11.9
	부산/울산/경남	179	2.8	44.1	40.8	11.7	0.6	46.9	40.8	12.3
	대구/경북	121	4.1	41.3	46.3	8.3	0.0	45.5	46.3	8.3
	광주/전라	114	5.3	53.5	30.7	8.8	1.8	58.8	30.7	10.5
	대전/충청/세종	127	2.4	37.8	53.5	6.3	0.0	40.2	53.5	6.3
	강원/제주	48	10.4	56.3	25.0	6.3	2.1	66.7	25.0	8.3
지역크기	대도시	526	4.2	46.8	39.7	9.1	0.2	51.0	39.7	9.3
	중소도시	629	6.5	41.7	39.9	11.0	1.0	48.2	39.9	11.9
	읍/면	45	0.0	51.1	35.6	13.3	0.0	51.1	35.6	13.3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6.7	42.2	11.1	0.0	46.7	42.2	11.1
	자영업자	165	5.5	41.2	40.6	11.5	1.2	46.7	40.6	12.7
	판매/서비스직	236	5.1	37.3	44.5	11.4	1.7	42.4	44.5	13.1
	기능/숙련공	104	4.8	41.3	41.3	12.5	0.0	46.2	41.3	12.5
	일반 노무직	50	4.0	48.0	40.0	8.0	0.0	52.0	40.0	8.0
	사무/기술직	304	5.3	49.3	37.5	7.9	0.0	54.6	37.5	7.9
	경영/관리직	12	8.3	75.0	16.7	0.0	0.0	83.3	16.7	0.0
	전문/자유직	12	8.3	66.7	8.3	16.7	0.0	75.0	8.3	16.7
	전업주부	176	6.8	45.5	36.9	10.8	0.0	52.3	36.9	10.8
	학생	47	4.3	55.3	27.7	10.6	2.1	59.6	27.7	12.8
	무직/휴직/은퇴	40	5.0	30.0	52.5	12.5	0.0	35.0	52.5	12.5
	기타	9	11.1	22.2	66.7	0.0	0.0	33.3	66.7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36.4	47.3	14.5	0.0	38.2	47.3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2	41.0	43.0	9.8	0.9	46.3	43.0	10.7
	전문대(중퇴/졸업)	269	7.4	37.5	42.8	11.9	0.4	45.0	42.8	12.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1	53.2	32.9	9.3	0.5	57.3	32.9	9.8
	대학원 이상	8	12.5	50.0	37.5	0.0	0.0	62.5	37.5	0.0
생활 수준별	상	62	4.8	51.6	33.9	9.7	0.0	56.5	33.9	9.7
	중	565	5.3	48.1	37.2	8.7	0.7	53.5	37.2	9.4
	하	573	5.2	39.6	42.8	11.9	0.5	44.9	42.8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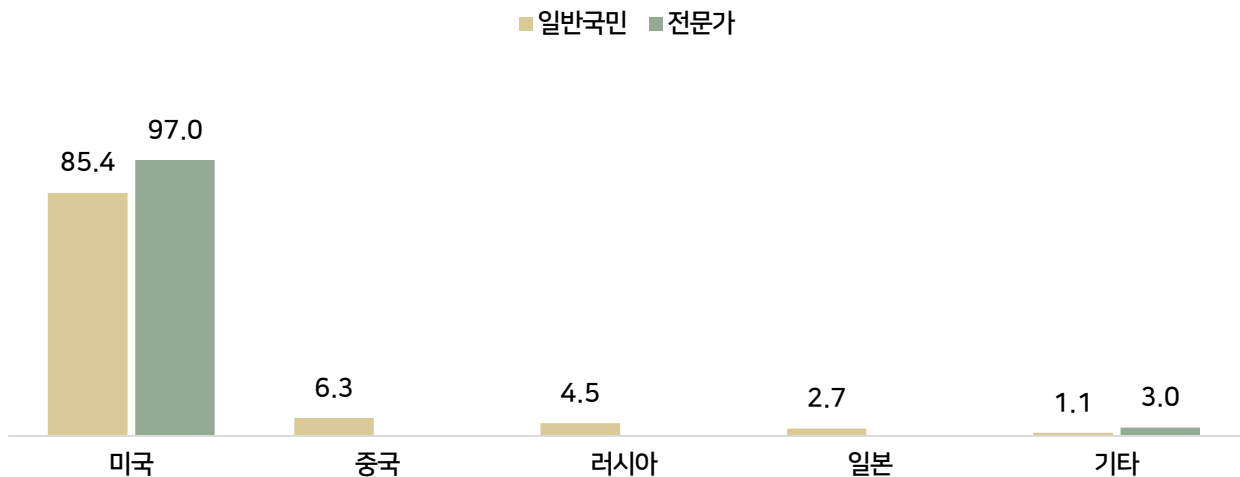
7. 군사안보 및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1) 군사안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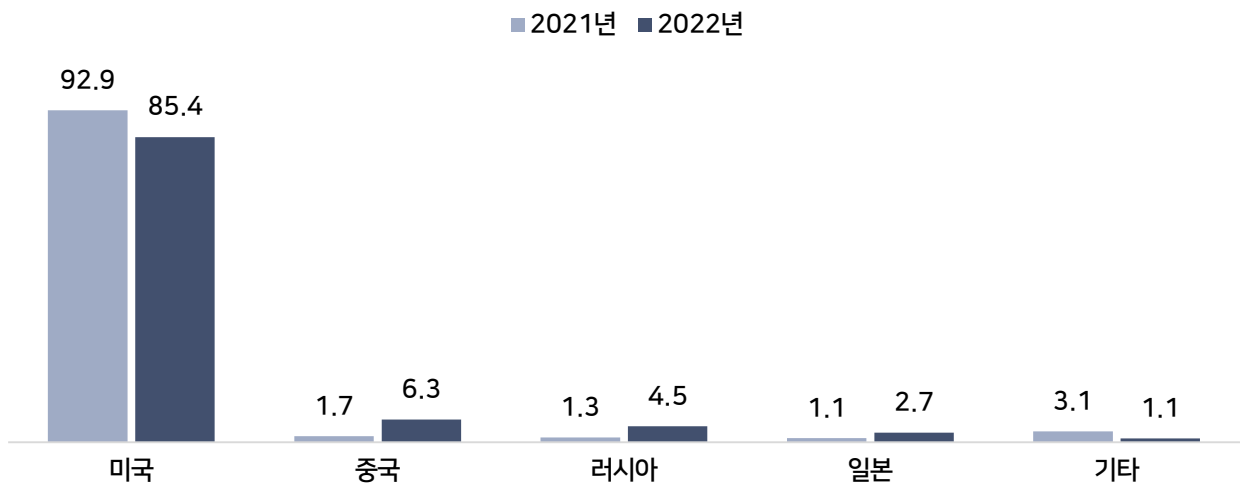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5.4%, 전문가 9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중국'(6.3%), '러시아'(4.5%), '일본'(2.7%) 순으로 나타남(기타 1.1%).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은 7.5%p(2021년 92.9%)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4.6%p(2021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97.0%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7-1>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미국'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국'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낮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7-1>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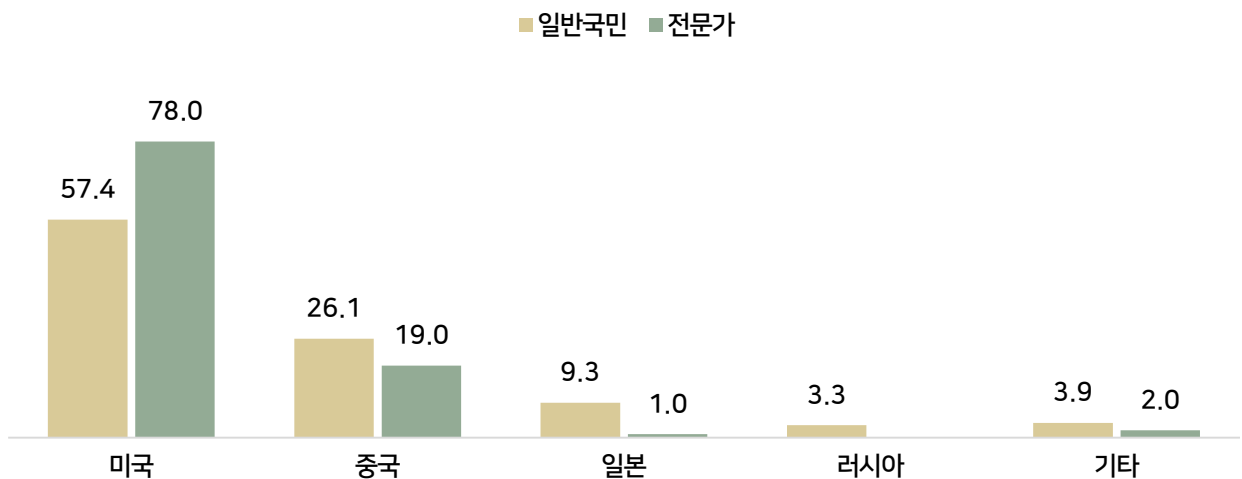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기타
전체		1,300	86.3	5.8	4.2	2.5	1.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5.4	6.3	4.5	2.7	1.1
	전문가	100	97.0	-	-	-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5.7	5.9	4.8	3.0	0.7
	중	570	85.4	6.7	3.7	2.5	1.8
	하	190	84.7	6.3	6.3	2.6	0.0
성별	남성	720	84.3	7.6	4.2	2.6	1.3
	여성	480	87.1	4.4	5.0	2.7	0.8
연령별	20대 이하	227	86.3	6.6	5.3	0.9	0.9
	30대	193	80.8	7.3	5.7	4.7	1.6
	40대	247	84.2	7.3	4.0	3.2	1.2
	50대	254	87.0	5.5	3.5	2.8	1.2
	60대 이상	279	87.5	5.4	4.3	2.2	0.7
지역별	서울	225	78.7	10.7	8.0	2.7	0.0
	경기/인천	386	80.3	4.9	8.3	4.1	2.3
	부산/울산/경남	179	99.4	0.0	0.0	0.6	0.0
	대구/경북	121	95.9	3.3	0.8	0.0	0.0
	광주/전라	114	92.1	5.3	1.8	0.9	0.0
	대전/충청/세종	127	77.2	17.3	0.8	3.9	0.8
	강원/제주	48	85.4	2.1	0.0	6.3	6.3
지역크기	대도시	526	87.6	5.9	3.8	2.5	0.2
	중소도시	629	83.1	6.8	5.2	3.0	1.7
	읍/면	45	91.1	4.4	2.2	0.0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86.7	2.2	8.9	2.2	0.0
	자영업자	165	84.2	5.5	4.8	4.2	1.2
	판매/서비스직	236	85.6	6.8	5.1	2.5	0.0
	기능/숙련공	104	83.7	8.7	3.8	2.9	1.0
	일반 노무직	50	84.0	8.0	4.0	4.0	0.0
	사무/기술직	304	85.5	7.2	4.6	2.0	0.7
	경영/관리직	12	100.0	0.0	0.0	0.0	0.0
	전문/자유직	12	91.7	0.0	0.0	0.0	8.3
	전업주부	176	86.4	4.0	4.0	3.4	2.3
	학생	47	87.2	4.3	4.3	0.0	4.3
	무직/휴직/은퇴	40	77.5	15.0	2.5	2.5	2.5
	기타	9	100.0	0.0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85.5	7.3	5.5	1.8	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84.1	5.9	5.0	3.9	1.1
	전문대(중퇴/졸업)	269	85.9	8.2	4.1	1.5	0.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6.8	5.6	4.1	2.0	1.5
	대학원 이상	8	75.0	0.0	0.0	12.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88.7	4.8	1.6	3.2	1.6
	중	565	87.4	6.0	3.5	1.9	1.1
	하	573	83.1	6.8	5.8	3.3	1.0

2) 경제안보적 측면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7.4%, 전문가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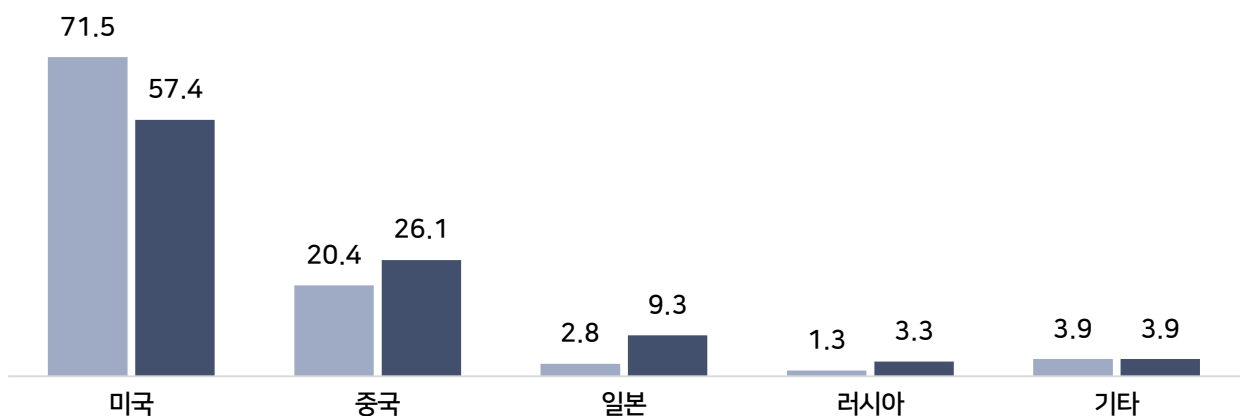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26.1%), '일본'(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3.9%)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응답은 14.1%p (2021년 71.5%)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5.7%p(2021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7-2>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미국'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7-2>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

단위[%]		사례수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전체		1,300	59.0	25.5	8.6	3.8	3.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7.4	26.1	9.3	3.9	3.3
	전문가	100	78.0	19.0	1.0	-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61.4	24.5	9.1	2.0	3.0
	중	570	54.2	27.7	9.6	5.8	2.6
	하	190	57.9	24.7	8.4	2.6	6.3
성별	남성	720	56.5	27.1	9.7	3.6	3.1
	여성	480	58.8	24.6	8.5	4.4	3.8
연령별	20대 이하	227	55.5	26.4	10.1	4.4	3.5
	30대	193	57.5	25.9	8.3	5.7	2.6
	40대	247	58.7	22.3	8.9	5.7	4.5
	50대	254	55.5	30.7	9.1	2.4	2.4
	60대 이상	279	59.5	25.1	9.7	2.2	3.6
지역별	서울	225	45.8	23.1	12.9	7.1	11.1
	경기/인천	386	52.6	29.5	10.4	5.7	1.8
	부산/울산/경남	179	74.3	10.1	13.4	0.6	1.7
	대구/경북	121	87.6	4.1	5.8	1.7	0.8
	광주/전라	114	44.7	44.7	7.0	0.0	3.5
	대전/충청/세종	127	45.7	54.3	0.0	0.0	0.0
	강원/제주	48	72.9	8.3	6.3	12.5	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60.6	22.8	8.2	3.6	4.8
	중소도시	629	54.7	28.3	10.5	4.5	2.1
	읍/면	45	57.8	33.3	4.4	0.0	4.4
직업별	농/어/임업	45	64.4	28.9	2.2	0.0	4.4
	자영업자	165	57.6	23.0	12.1	3.6	3.6
	판매/서비스직	236	58.1	22.9	14.0	1.7	3.4
	기능/숙련공	104	57.7	28.8	5.8	1.9	5.8
	일반 노무직	50	48.0	38.0	14.0	0.0	0.0
	사무/기술직	304	55.9	28.3	9.5	3.3	3.0
	경영/관리직	12	66.7	33.3	0.0	0.0	0.0
	전문/자유직	12	75.0	16.7	0.0	8.3	0.0
	전업주부	176	61.9	20.5	5.7	8.5	3.4
	학생	47	57.4	21.3	8.5	10.6	2.1
	무직/휴직/은퇴	40	50.0	35.0	2.5	10.0	2.5
	기타	9	11.1	77.8	0.0	0.0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6.4	29.1	10.9	1.8	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9.0	27.7	6.6	2.8	3.9
	전문대(중퇴/졸업)	269	56.9	26.8	12.3	2.2	1.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56.6	22.9	10.2	6.3	3.9
	대학원 이상	8	37.5	50.0	0.0	12.5	0.0
생활 수준별	상	62	43.5	30.6	14.5	11.3	0.0
	중	565	56.3	25.7	10.8	3.9	3.4
	하	573	60.0	26.0	7.2	3.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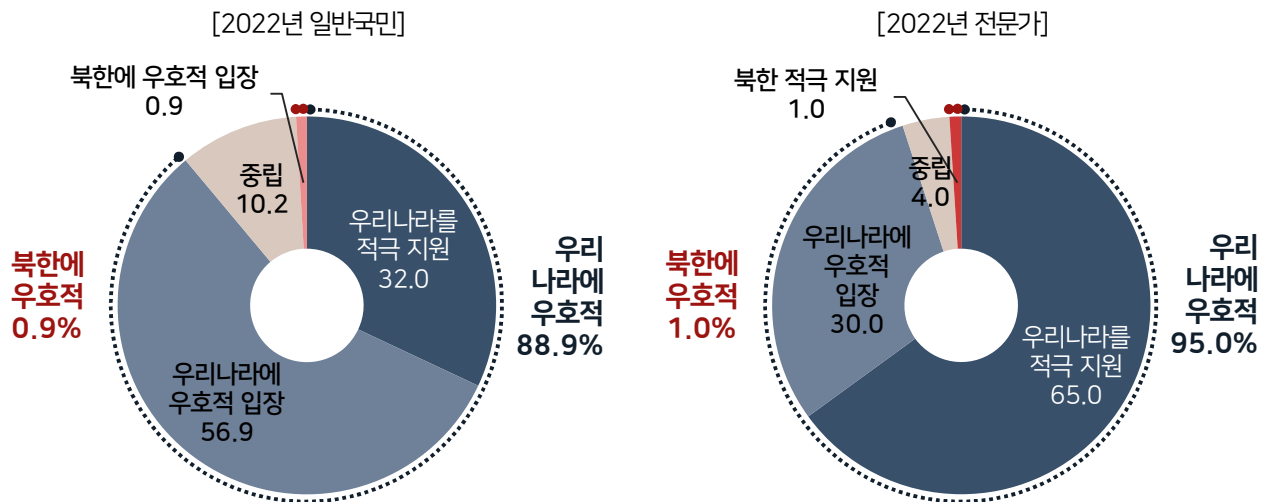
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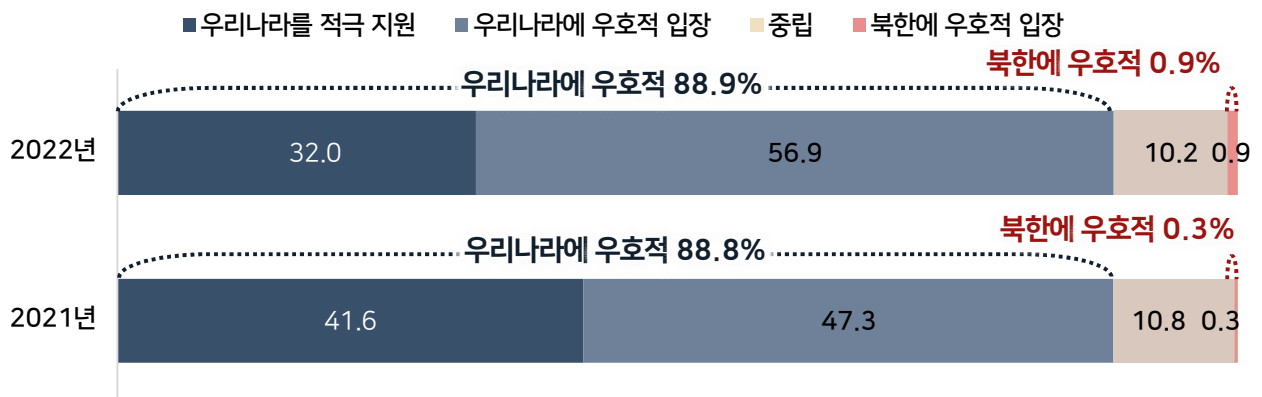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88.9%, 전문가 95.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8.9%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0.9%)이라는 응답보다 88.0%p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0.1%p(2021년 88.8%),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0.6%p(2021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95.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8-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미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1-8-1>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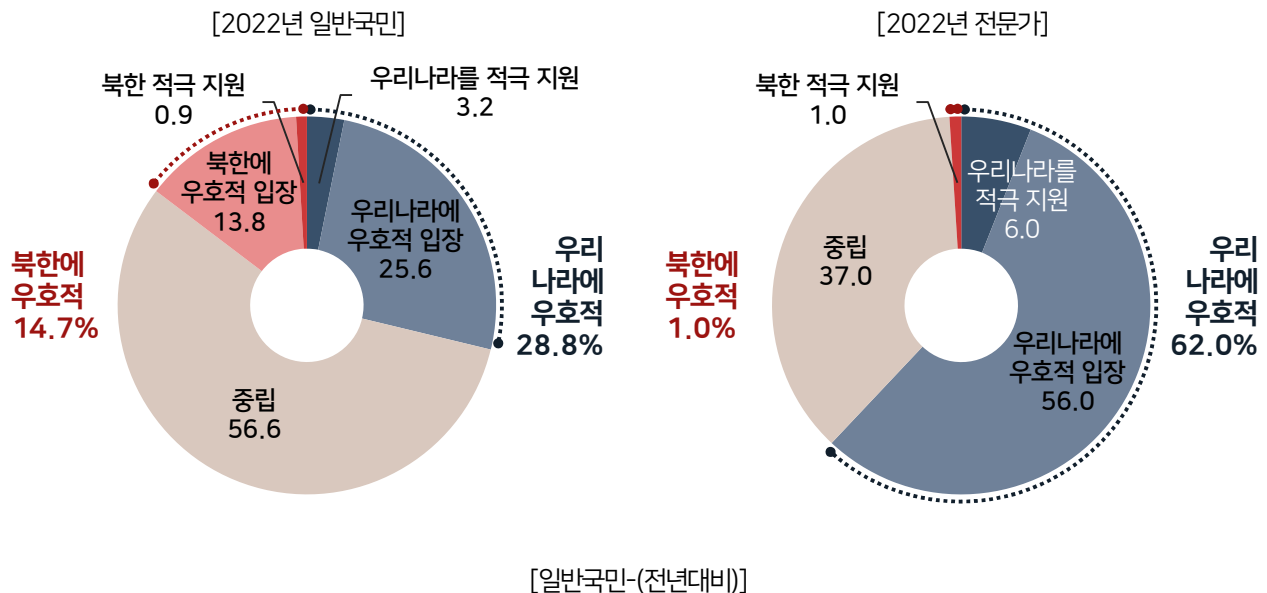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34.5	54.8	9.7	0.8	0.1	89.4	9.7	0.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0	56.9	10.2	0.9	-	88.9	10.2	0.9
	전문가	100	65.0	30.0	4.0	-	1.0	95.0	4.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3.9	52.7	11.8	1.6	-	86.6	11.8	1.6
	중	570	30.4	59.1	10.2	0.4	-	89.5	10.2	0.4
	하	190	32.6	60.0	6.3	1.1	-	92.6	6.3	1.1
성별	남성	720	32.2	56.9	9.9	1.0	-	89.2	9.9	1.0
	여성	480	31.7	56.9	10.6	0.8	-	88.5	10.6	0.8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0	64.3	8.8	0.9	-	90.3	8.8	0.9
	30대	193	33.2	51.3	14.0	1.6	-	84.5	14.0	1.6
	40대	247	31.2	59.9	7.7	1.2	-	91.1	7.7	1.2
	50대	254	33.5	56.3	9.8	0.4	-	89.8	9.8	0.4
	60대 이상	279	35.5	52.7	11.1	0.7	-	88.2	11.1	0.7
지역별	서울	225	35.6	46.7	14.7	3.1	-	82.2	14.7	3.1
	경기/인천	386	37.0	54.4	7.8	0.8	-	91.5	7.8	0.8
	부산/울산/경남	179	37.4	47.5	14.5	0.6	-	84.9	14.5	0.6
	대구/경북	121	38.0	57.0	5.0	0.0	-	95.0	5.0	0.0
	광주/전라	114	14.0	80.7	5.3	0.0	-	94.7	5.3	0.0
	대전/충청/세종	127	15.0	77.2	7.9	0.0	-	92.1	7.9	0.0
	강원/제주	48	27.1	50.0	22.9	0.0	-	77.1	22.9	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32.5	55.1	11.0	1.3	-	87.6	11.0	1.3
	중소도시	629	32.9	57.1	9.4	0.6	-	90.0	9.4	0.6
	읍/면	45	13.3	75.6	11.1	0.0	-	88.9	11.1	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2	71.1	6.7	0.0	-	93.3	6.7	0.0
	자영업자	165	28.5	55.2	15.8	0.6	-	83.6	15.8	0.6
	판매/서비스직	236	33.1	57.6	8.5	0.8	-	90.7	8.5	0.8
	기능/숙련공	104	35.6	49.0	13.5	1.9	-	84.6	13.5	1.9
	일반 노무직	50	26.0	66.0	8.0	0.0	-	92.0	8.0	0.0
	사무/기술직	304	33.9	56.6	8.2	1.3	-	90.5	8.2	1.3
	경영/관리직	12	41.7	58.3	0.0	0.0	-	100.0	0.0	0.0
	전문/자유직	12	25.0	66.7	8.3	0.0	-	91.7	8.3	0.0
	전업주부	176	31.3	55.7	11.9	1.1	-	86.9	11.9	1.1
	학생	47	36.2	55.3	8.5	0.0	-	91.5	8.5	0.0
	무직/휴직/은퇴	40	25.0	67.5	7.5	0.0	-	92.5	7.5	0.0
	기타	9	66.7	22.2	11.1	0.0	-	88.9	11.1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29.1	50.9	18.2	1.8	-	80.0	18.2	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1.7	56.8	11.1	0.4	-	88.4	11.1	0.4
	전문대(중퇴/졸업)	269	31.6	59.5	8.6	0.4	-	91.1	8.6	0.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3.4	56.3	8.8	1.5	-	89.8	8.8	1.5
	대학원 이상	8	12.5	50.0	25.0	12.5	-	6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29.0	59.7	11.3	0.0	-	88.7	11.3	0.0
	중	565	34.3	56.1	8.7	0.9	-	90.4	8.7	0.9
	하	573	30.0	57.4	11.5	1.0	-	87.4	11.5	1.0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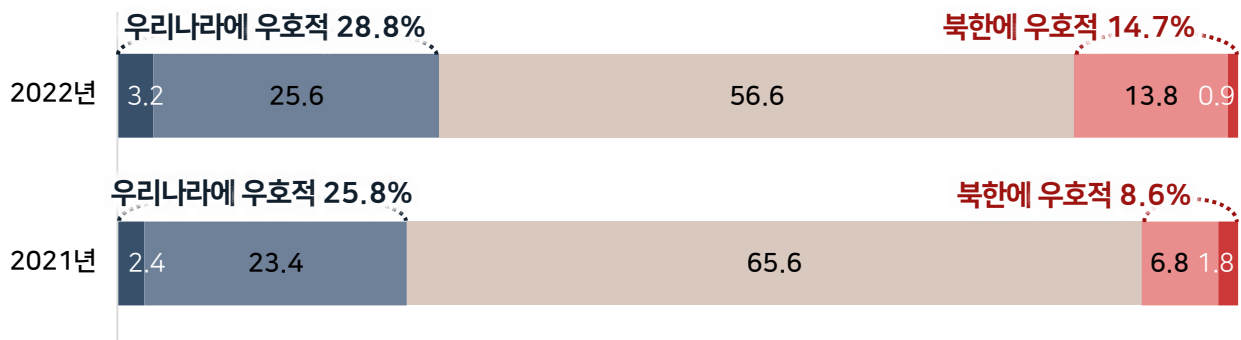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28.8%, 전문가 6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8.8%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14.7%)보다 14.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0%p(2021년 25.8%),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1%p(2021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2.0%,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37.0%로 나타남(북한에 우호 : 1.0%).
-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으나,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두 배 이상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1-8-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 중립 ■ 북한에 우호적 입장 ■ 북한 적극 지원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8-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일본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3.4	27.9	55.1	12.7	0.9	31.3	55.1	13.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25.6	56.6	13.8	0.9	28.8	56.6	14.7
	전문가	100	6.0	56.0	37.0	-	1.0	62.0	37.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6	24.3	58.6	11.6	1.8	28.0	58.6	13.4
	중	570	3.3	26.0	56.1	14.0	0.5	29.3	56.1	14.6
	하	190	1.6	27.4	53.2	17.9	0.0	28.9	53.2	17.9
성별	남성	720	3.3	25.8	57.1	12.9	0.8	29.2	57.1	13.8
	여성	480	2.9	25.2	55.8	15.0	1.0	28.1	55.8	16.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23.8	59.9	15.4	0.4	24.2	59.9	15.9
	30대	193	3.6	28.5	56.0	10.9	1.0	32.1	56.0	11.9
	40대	247	1.2	26.7	55.9	15.8	0.4	27.9	55.9	16.2
	50대	254	4.3	24.8	56.3	13.8	0.8	29.1	56.3	14.6
	60대 이상	279	5.7	24.7	55.2	12.5	1.8	30.5	55.2	14.3
지역별	서울	225	5.8	41.3	40.4	12.4	0.0	47.1	40.4	12.4
	경기/인천	386	3.1	29.3	49.7	17.4	0.5	32.4	49.7	17.9
	부산/울산/경남	179	3.4	19.0	62.0	12.3	3.4	22.3	62.0	15.6
	대구/경북	121	4.1	23.1	52.9	19.0	0.8	27.3	52.9	19.8
	광주/전라	114	0.9	14.0	77.2	6.1	1.8	14.9	77.2	7.9
	대전/충청/세종	127	0.8	11.0	84.3	3.9	0.0	11.8	84.3	3.9
	강원/제주	48	0.0	18.8	54.2	27.1	0.0	18.8	54.2	27.1
지역크기	대도시	526	3.2	30.0	54.8	11.6	0.4	33.3	54.8	12.0
	중소도시	629	3.3	22.9	57.4	14.9	1.4	26.2	57.4	16.4
	읍/면	45	0.0	11.1	66.7	22.2	0.0	11.1	66.7	2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0.0	62.2	15.6	0.0	22.2	62.2	15.6
	자영업자	165	4.8	22.4	51.5	20.0	1.2	27.3	51.5	21.2
	판매/서비스직	236	3.8	31.4	51.7	11.9	1.3	35.2	51.7	13.1
	기능/숙련공	104	1.9	15.4	69.2	11.5	1.9	17.3	69.2	13.5
	일반 노무직	50	6.0	24.0	58.0	8.0	4.0	30.0	58.0	12.0
	사무/기술직	304	1.3	29.3	57.6	11.5	0.3	30.6	57.6	11.8
	경영/관리직	12	8.3	33.3	58.3	0.0	0.0	41.7	58.3	0.0
	전문/자유직	12	0.0	8.3	75.0	16.7	0.0	8.3	75.0	16.7
	전업주부	176	4.5	26.7	51.7	16.5	0.6	31.3	51.7	17.0
	학생	47	0.0	14.9	70.2	14.9	0.0	14.9	70.2	14.9
	무직/휴직/은퇴	40	2.5	17.5	62.5	17.5	0.0	20.0	62.5	17.5
	기타	9	11.1	44.4	33.3	11.1	0.0	55.6	33.3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23.6	56.4	16.4	0.0	27.3	56.4	1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8	24.9	52.8	15.7	1.7	29.7	52.8	17.5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26.0	58.7	13.0	0.7	27.5	58.7	13.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4	26.8	59.3	11.2	0.2	29.3	59.3	11.5
	대학원 이상	8	0.0	0.0	62.5	37.5	0.0	0.0	62.5	37.5
생활 수준별	상	62	3.2	22.6	53.2	17.7	3.2	25.8	53.2	21.0
	중	565	3.9	24.8	60.5	9.9	0.9	28.7	60.5	10.8
	하	573	2.4	26.7	53.1	17.1	0.7	29.1	53.1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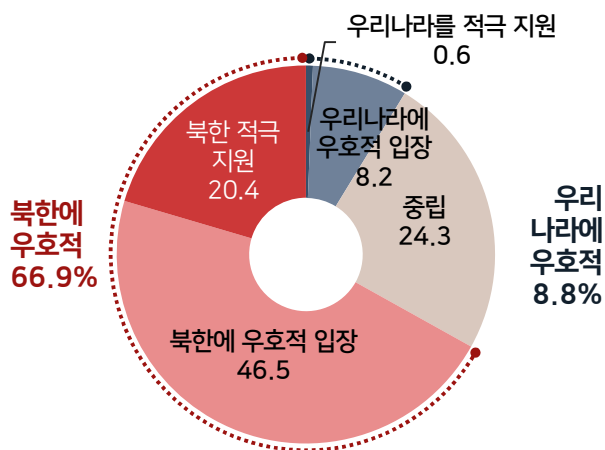
3) 중국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66.9%, 전문가 80.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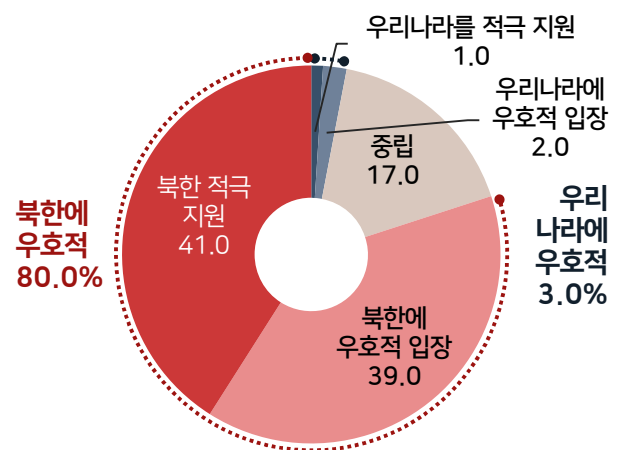
-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6.9%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8.8%)보다 58.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3.4%p(2021년 80.3%)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4.7%p(2021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0.0%,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17.0%로 나타남(우리나라에 우호적 : 3.0%).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1-8-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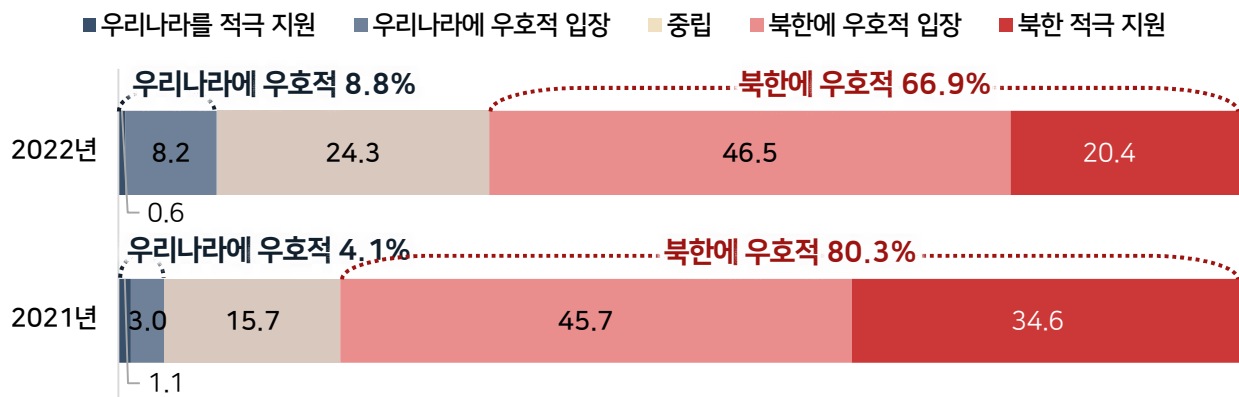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에 우호 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1-8-3>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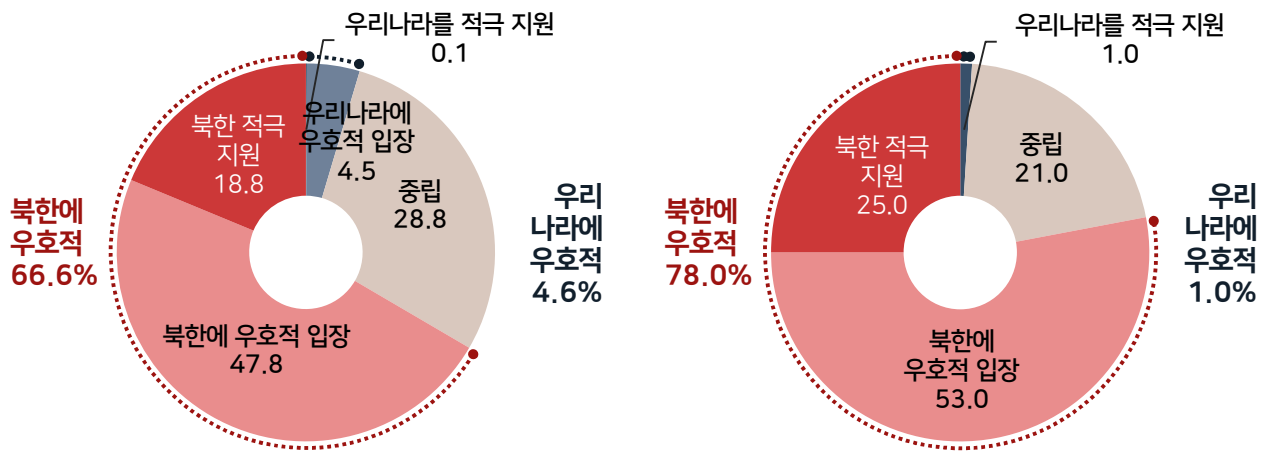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0.6	7.7	23.8	45.9	22.0	8.3	23.8	6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8.2	24.3	46.5	20.4	8.8	24.3	66.9
	전문가	100	1.0	2.0	17.0	39.0	41.0	3.0	17.0	8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7	7.5	21.1	41.4	29.3	8.2	21.1	70.7
	중	570	0.7	8.8	25.4	50.2	14.9	9.5	25.4	65.1
	하	190	0.0	7.9	28.4	47.4	16.3	7.9	28.4	63.7
성별	남성	720	0.7	7.8	23.8	48.2	19.6	8.5	23.8	67.8
	여성	480	0.4	8.8	25.2	44.0	21.7	9.2	25.2	65.6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7.0	18.9	56.4	16.7	7.9	18.9	73.1
	30대	193	0.0	7.3	26.4	44.6	21.8	7.3	26.4	66.3
	40대	247	0.4	7.7	26.3	44.1	21.5	8.1	26.3	65.6
	50대	254	1.6	9.8	23.2	44.1	21.3	11.4	23.2	65.4
	60대 이상	279	0.0	8.6	26.5	44.1	20.8	8.6	26.5	64.9
지역별	서울	225	0.4	9.8	26.7	50.2	12.9	10.2	26.7	63.1
	경기/인천	386	1.3	9.6	21.5	46.9	20.7	10.9	21.5	67.6
	부산/울산/경남	179	0.0	0.6	31.8	38.5	29.1	0.6	31.8	67.6
	대구/경북	121	0.8	5.0	28.9	43.0	22.3	5.8	28.9	65.3
	광주/전라	114	0.0	7.9	10.5	50.9	30.7	7.9	10.5	81.6
	대전/충청/세종	127	0.0	14.2	24.4	48.0	13.4	14.2	24.4	61.4
	강원/제주	48	0.0	10.4	29.2	50.0	10.4	10.4	29.2	6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0.4	8.0	21.5	49.8	20.3	8.4	21.5	70.2
	중소도시	629	0.8	8.7	27.2	42.6	20.7	9.5	27.2	63.3
	읍/면	45	0.0	2.2	17.8	62.2	17.8	2.2	17.8	8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4.4	31.1	51.1	11.1	6.7	31.1	62.2
	자영업자	165	0.6	7.3	25.5	44.2	22.4	7.9	25.5	66.7
	판매/서비스직	236	0.8	7.6	26.3	44.9	20.3	8.5	26.3	65.3
	기능/숙련공	104	0.0	6.7	22.1	48.1	23.1	6.7	22.1	71.2
	일반 노무직	50	0.0	24.0	22.0	36.0	18.0	24.0	22.0	54.0
	사무/기술직	304	0.7	8.2	22.4	49.0	19.7	8.9	22.4	68.8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41.7	25.0	0.0	33.3	66.7
	전문/자유직	12	0.0	0.0	33.3	41.7	25.0	0.0	33.3	66.7
	전업주부	176	0.0	7.4	25.0	45.5	22.2	7.4	25.0	67.6
	학생	47	0.0	6.4	12.8	57.4	23.4	6.4	12.8	80.9
	무직/휴직/은퇴	40	2.5	15.0	32.5	37.5	12.5	17.5	32.5	5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11.1	77.8	11.1	0.0	11.1	88.9
	중졸 이하	55	0.0	14.5	36.4	36.4	12.7	14.5	36.4	4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9	9.6	25.8	41.3	22.5	10.5	25.8	63.8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8.9	23.8	47.2	19.7	9.3	23.8	66.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5.4	22.0	53.4	18.8	5.9	22.0	72.2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0.0	37.5	62.5	0.0	0.0	100.0
	상	62	0.0	3.2	19.4	54.8	22.6	3.2	19.4	77.4
	중	565	0.7	8.3	26.2	46.0	18.8	9.0	26.2	64.8
	하	573	0.5	8.6	23.0	46.1	21.8	9.1	23.0	67.9

4)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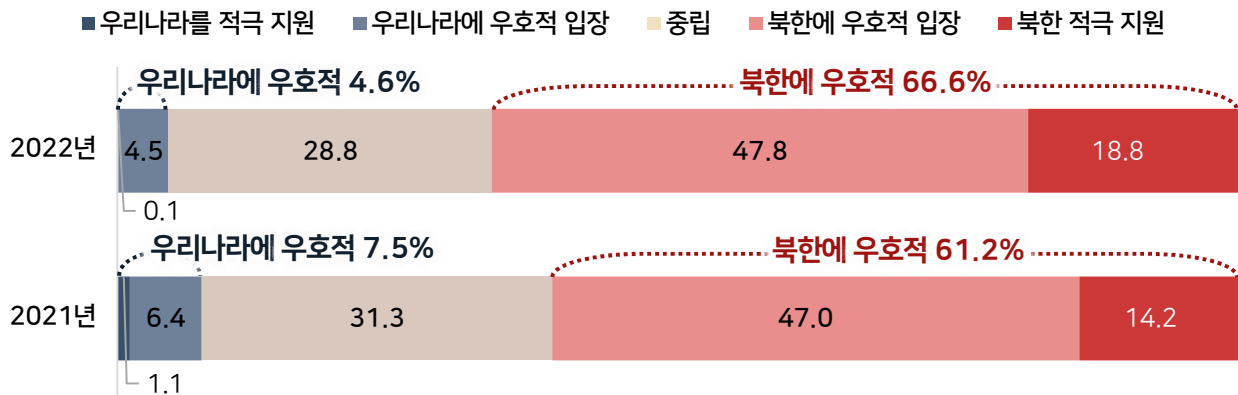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66.6%, 전문가 7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66.6%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4.6%)보다 62.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4%p(2021년 61.2%)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9%p(2021년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78.0%, '중립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21.0%로 나타남(우리나라에 우호적 : 1.0%).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

<그림 1-8-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8-4>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 - 러시아

단위[%]		사례수 (명)	우리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 적극 지원	종합		
								우리나라에 우호적	중립	북한에 우호적
전체		1,300	0.2	4.2	28.2	48.2	19.2	4.3	28.2	67.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1	4.5	28.8	47.8	18.8	4.6	28.8	66.6
	전문가	100	1.0	-	21.0	53.0	25.0	1.0	21.0	7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5.0	25.5	45.0	24.5	5.0	25.5	69.5
	중	570	0.2	4.6	29.3	50.5	15.4	4.7	29.3	66.0
	하	190	0.0	3.2	35.3	46.3	15.3	3.2	35.3	61.6
성별	남성	720	0.1	5.1	28.9	47.8	18.1	5.3	28.9	65.8
	여성	480	0.0	3.5	28.8	47.9	19.8	3.5	28.8	67.7
연령별	20대 이하	227	0.0	4.8	28.6	48.9	17.6	4.8	28.6	66.5
	30대	193	0.0	5.2	31.1	44.6	19.2	5.2	31.1	63.7
	40대	247	0.0	4.0	25.5	50.6	19.8	4.0	25.5	70.4
	50대	254	0.4	4.7	28.0	48.0	18.9	5.1	28.0	66.9
	60대 이상	279	0.0	3.9	31.2	46.6	18.3	3.9	31.2	64.9
지역별	서울	225	0.0	2.2	32.4	51.6	13.8	2.2	32.4	65.3
	경기/인천	386	0.0	7.0	37.3	38.1	17.6	7.0	37.3	55.7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14.0	62.0	24.0	0.0	14.0	86.0
	대구/경북	121	0.8	2.5	19.8	44.6	32.2	3.3	19.8	76.9
	광주/전라	114	0.0	3.5	14.9	65.8	15.8	3.5	14.9	81.6
	대전/충청/세종	127	0.0	10.2	40.2	38.6	11.0	10.2	40.2	49.6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0.0	4.2	25.0	45.8	25.0	4.2	25.0	70.8
	대도시	526	0.0	2.3	27.6	51.7	18.4	2.3	27.6	70.2
	중소도시	629	0.2	6.5	30.4	43.9	19.1	6.7	30.4	63.0
직업별	읍/면	45	0.0	2.2	22.2	57.8	17.8	2.2	22.2	75.6
	농/어/임업	45	2.2	2.2	31.1	48.9	15.6	4.4	31.1	64.4
	자영업자	165	0.0	2.4	27.9	47.9	21.8	2.4	27.9	69.7
	판매/서비스직	236	0.0	5.9	29.7	46.2	18.2	5.9	29.7	64.4
	기능/숙련공	104	0.0	6.7	17.3	53.8	22.1	6.7	17.3	76.0
	일반 노무직	50	0.0	2.0	48.0	34.0	16.0	2.0	48.0	50.0
	사무/기술직	304	0.0	4.9	27.0	49.3	18.8	4.9	27.0	68.1
	경영/관리직	12	0.0	0.0	33.3	50.0	16.7	0.0	33.3	66.7
	전문/자유직	12	0.0	0.0	50.0	41.7	8.3	0.0	50.0	50.0
	전업주부	176	0.0	4.5	28.4	48.9	18.2	4.5	28.4	67.0
	학생	47	0.0	2.1	25.5	51.1	21.3	2.1	25.5	72.3
	무직/휴직/은퇴	40	0.0	7.5	47.5	35.0	10.0	7.5	47.5	45.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0.0	11.1	66.7	22.2	0.0	11.1	88.9
	중졸 이하	55	0.0	1.8	43.6	41.8	12.7	1.8	43.6	5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4.4	32.3	42.1	21.0	4.6	32.3	63.1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8.2	21.9	51.3	18.6	8.2	21.9	69.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0	2.7	27.6	53.2	16.6	2.7	27.6	69.8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25.0	50.0	0.0	25.0	75.0
	상	62	0.0	3.2	19.4	46.8	30.6	3.2	19.4	77.4
	중	565	0.2	5.7	28.0	48.0	18.2	5.8	28.0	66.2
	하	573	0.0	3.5	30.7	47.8	18.0	3.5	30.7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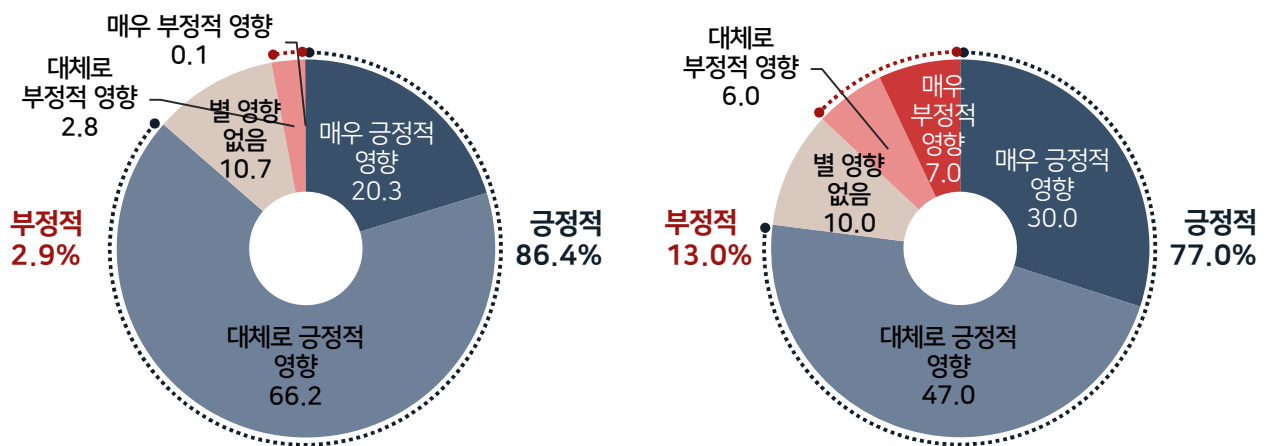
9.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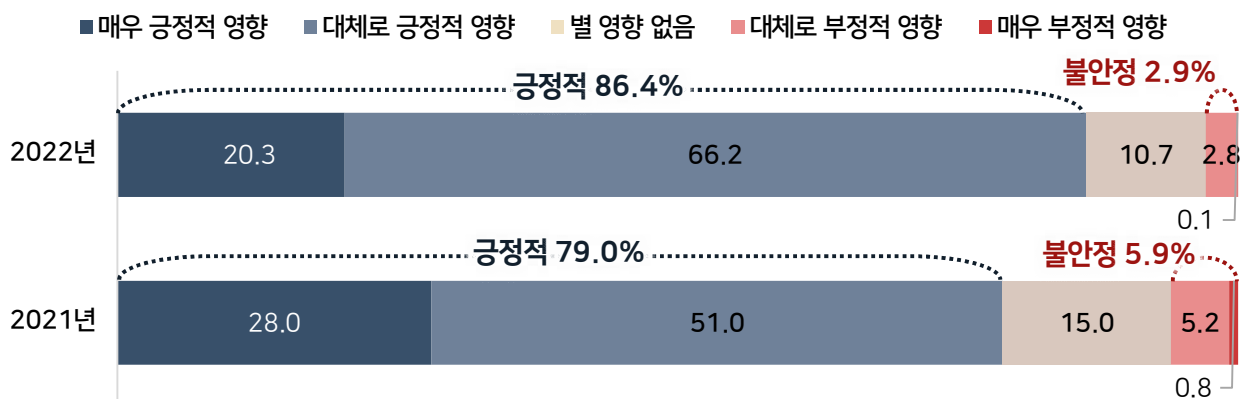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86.4%, 전문가 7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6.4%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2.9%)이라는 응답보다 83.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4%p(2021년 79.0%) 증가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0%p(2021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7.0%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13.0%)이라는 응답보다 64.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리나라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9-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높게 가운데,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1-9-1>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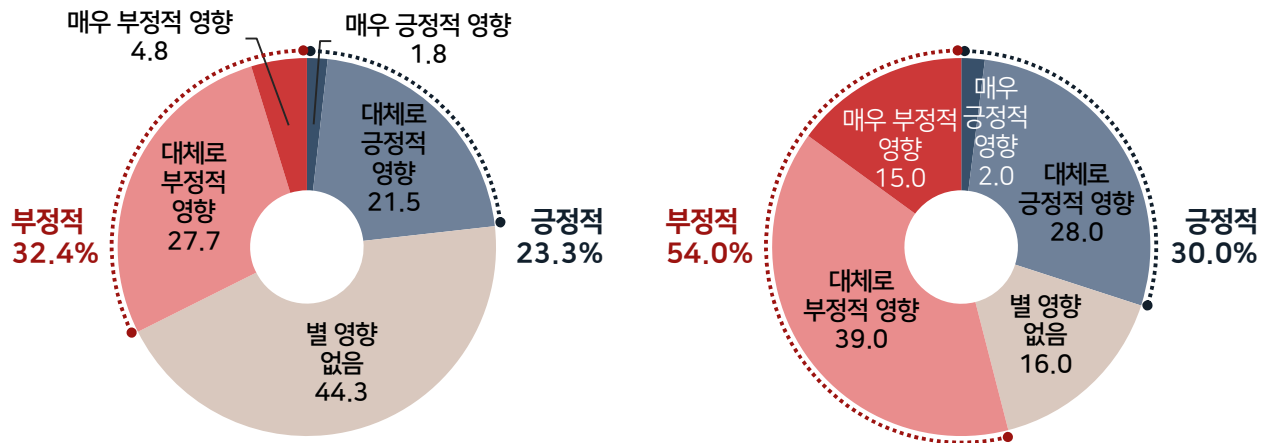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없음	부정적
전체		1,300	21.0	64.7	10.6	3.1	0.6	85.7	10.6	3.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3	66.2	10.7	2.8	0.1	86.4	10.7	2.9
	전문가	100	30.0	47.0	10.0	6.0	7.0	77.0	10.0	1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1.6	64.1	11.8	2.5	0.0	85.7	11.8	2.5
	중	570	19.1	67.4	10.2	3.3	0.0	86.5	10.2	3.3
	하	190	20.5	67.4	9.5	2.1	0.5	87.9	9.5	2.6
성별	남성	720	19.2	67.2	10.1	3.3	0.1	86.4	10.1	3.5
	여성	480	21.9	64.6	11.5	2.1	0.0	86.5	11.5	2.1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9	63.9	12.3	4.8	0.0	82.8	12.3	4.8
	30대	193	21.8	67.9	7.8	2.6	0.0	89.6	7.8	2.6
	40대	247	18.6	67.6	11.3	2.4	0.0	86.2	11.3	2.4
	50대	254	19.3	67.7	9.4	3.1	0.4	87.0	9.4	3.5
	60대 이상	279	22.6	64.2	11.8	1.4	0.0	86.7	11.8	1.4
지역별	서울	225	24.4	56.0	13.3	6.2	0.0	80.4	13.3	6.2
	경기/인천	386	21.5	65.0	10.6	2.6	0.3	86.5	10.6	2.8
	부산/울산/경남	179	22.3	66.5	10.6	0.6	0.0	88.8	10.6	0.6
	대구/경북	121	28.1	63.6	5.0	3.3	0.0	91.7	5.0	3.3
	광주/전라	114	5.3	83.3	7.9	3.5	0.0	88.6	7.9	3.5
	대전/충청/세종	127	11.8	73.2	15.0	0.0	0.0	85.0	15.0	0.0
	강원/제주	48	20.8	68.8	8.3	2.1	0.0	89.6	8.3	2.1
지역크기	대도시	526	22.4	64.3	9.9	3.2	0.2	86.7	9.9	3.4
	중소도시	629	19.6	66.9	11.0	2.5	0.0	86.5	11.0	2.5
	읍/면	45	4.4	77.8	15.6	2.2	0.0	82.2	15.6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13.3	71.1	11.1	4.4	0.0	84.4	11.1	4.4
	자영업자	165	17.6	69.1	10.9	2.4	0.0	86.7	10.9	2.4
	판매/서비스직	236	22.9	63.1	9.7	4.2	0.0	86.0	9.7	4.2
	기능/숙련공	104	18.3	63.5	12.5	4.8	1.0	81.7	12.5	5.8
	일반 노무직	50	16.0	76.0	8.0	0.0	0.0	92.0	8.0	0.0
	사무/기술직	304	19.1	66.4	10.9	3.6	0.0	85.5	10.9	3.6
	경영/관리직	12	25.0	66.7	8.3	0.0	0.0	91.7	8.3	0.0
	전문/자유직	12	16.7	75.0	8.3	0.0	0.0	91.7	8.3	0.0
	전업주부	176	22.2	65.3	11.9	0.6	0.0	87.5	11.9	0.6
	학생	47	23.4	61.7	12.8	2.1	0.0	85.1	12.8	2.1
	무직/휴직/은퇴	40	20.0	72.5	7.5	0.0	0.0	92.5	7.5	0.0
	기타	9	66.7	33.3	0.0	0.0	0.0	10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2.7	74.5	12.7	0.0	0.0	87.3	12.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1.8	63.8	11.4	2.8	0.2	85.6	11.4	3.1
	전문대(중퇴/졸업)	269	19.0	71.0	7.8	2.2	0.0	90.0	7.8	2.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0.5	64.1	11.7	3.7	0.0	84.6	11.7	3.7
	대학원 이상	8	12.5	87.5	0.0	0.0	0.0	100.0	0.0	0.0
생활 수준별	상	62	21.0	64.5	11.3	3.2	0.0	85.5	11.3	3.2
	중	565	20.4	64.2	11.9	3.5	0.0	84.6	11.9	3.5
	하	573	20.1	68.2	9.4	2.1	0.2	88.3	9.4	2.3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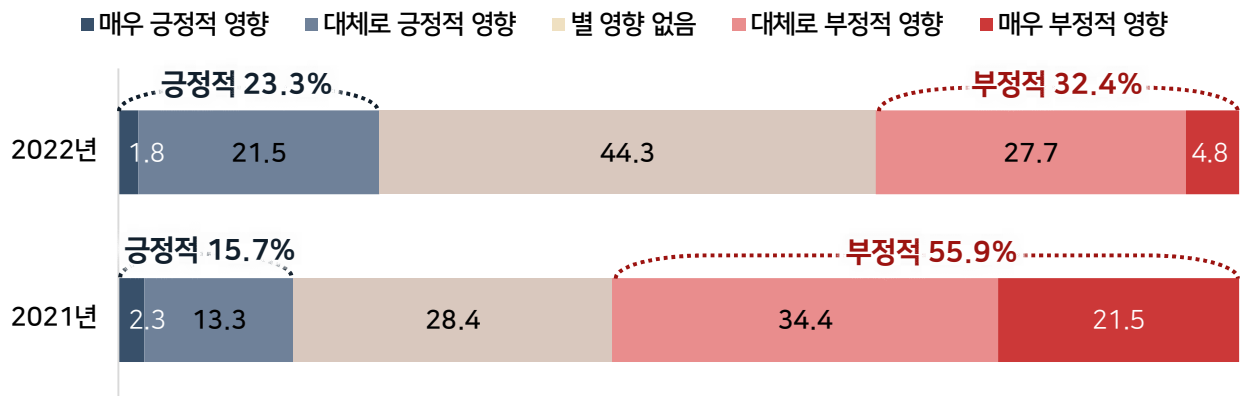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2.4%, 전문가 5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2.4%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23.3%)이라는 응답보다 9.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6%p(2021년 15.7%) 증가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3.5%p(2021년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0%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30.0%)이라는 응답보다 24.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9-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남.

<표 1-9-2>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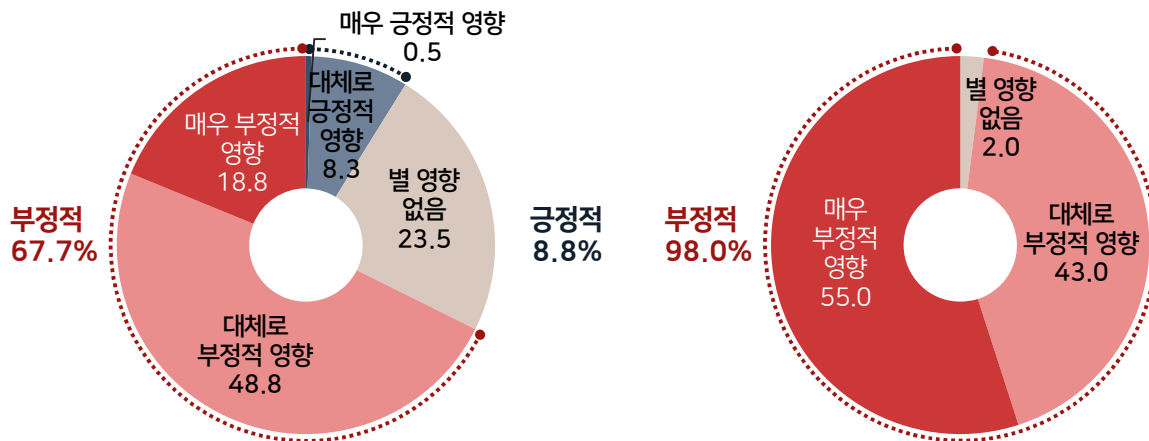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없음	부정적
전체		1,300	1.8	22.0	42.2	28.5	5.5	23.8	42.2	3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8	21.5	44.3	27.7	4.8	23.3	44.3	32.4
	전문가	100	2.0	28.0	16.0	39.0	15.0	30.0	16.0	5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	22.5	43.4	24.8	8.0	23.9	43.4	32.7
	중	570	1.9	21.1	46.5	27.7	2.8	23.0	46.5	30.5
	하	190	2.1	20.5	40.0	34.2	3.2	22.6	40.0	37.4
성별	남성	720	2.1	22.1	43.6	27.8	4.4	24.2	43.6	32.2
	여성	480	1.3	20.6	45.4	27.5	5.2	21.9	45.4	32.7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26.0	39.2	27.8	6.2	26.9	39.2	33.9
	30대	193	1.0	23.3	46.1	25.4	4.1	24.4	46.1	29.5
	40대	247	0.8	20.2	44.5	29.1	5.3	21.1	44.5	34.4
	50대	254	2.4	19.7	47.6	26.0	4.3	22.0	47.6	30.3
	60대 이상	279	3.2	19.4	44.1	29.4	3.9	22.6	44.1	33.3
지역별	서울	225	2.7	31.1	40.0	23.6	2.7	33.8	40.0	26.2
	경기/인천	386	1.8	23.6	45.1	24.4	5.2	25.4	45.1	29.5
	부산/울산/경남	179	1.7	20.7	37.4	36.3	3.9	22.3	37.4	40.2
	대구/경북	121	1.7	22.3	36.4	33.9	5.8	24.0	36.4	39.7
	광주/전라	114	1.8	10.5	54.4	22.8	10.5	12.3	54.4	33.3
	대전/충청/세종	127	0.8	11.0	60.6	26.0	1.6	11.8	60.6	27.6
	강원/제주	48	0.0	14.6	37.5	41.7	6.3	14.6	37.5	47.9
지역크기	대도시	526	1.5	21.5	43.5	30.2	3.2	23.0	43.5	33.5
	중소도시	629	2.1	22.4	44.5	25.1	5.9	24.5	44.5	31.0
	읍/면	45	0.0	8.9	51.1	33.3	6.7	8.9	51.1	4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8.9	53.3	28.9	6.7	11.1	53.3	35.6
	자영업자	165	1.8	16.4	43.6	32.7	5.5	18.2	43.6	38.2
	판매/서비스직	236	1.7	29.2	39.4	25.4	4.2	30.9	39.4	29.7
	기능/숙련공	104	2.9	18.3	46.2	29.8	2.9	21.2	46.2	32.7
	일반 노무직	50	0.0	20.0	52.0	26.0	2.0	20.0	52.0	28.0
	사무/기술직	304	1.3	22.4	42.8	26.3	7.2	23.7	42.8	33.6
	경영/관리직	12	0.0	8.3	58.3	25.0	8.3	8.3	58.3	33.3
	전문/자유직	12	0.0	16.7	41.7	33.3	8.3	16.7	41.7	41.7
	전업주부	176	3.4	17.6	46.0	30.1	2.8	21.0	46.0	33.0
	학생	47	0.0	25.5	44.7	25.5	4.3	25.5	44.7	29.8
	무직/휴직/은퇴	40	0.0	27.5	50.0	22.5	0.0	27.5	50.0	22.5
	기타	9	0.0	44.4	55.6	0.0	0.0	44.4	55.6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18.2	47.3	32.7	0.0	20.0	47.3	3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4	21.2	44.8	27.3	4.4	23.6	44.8	31.7
	전문대(중퇴/졸업)	269	1.9	20.4	44.6	30.5	2.6	22.3	44.6	33.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	23.4	43.9	24.9	6.8	24.4	43.9	31.7
	대학원 이상	8	0.0	0.0	12.5	62.5	25.0	0.0	12.5	87.5
생활 수준별	상	62	3.2	16.1	45.2	24.2	11.3	19.4	45.2	35.5
	중	565	2.3	22.3	41.1	28.3	6.0	24.6	41.1	34.3
	하	573	1.0	21.3	47.5	27.4	2.8	22.3	47.5	30.2

3)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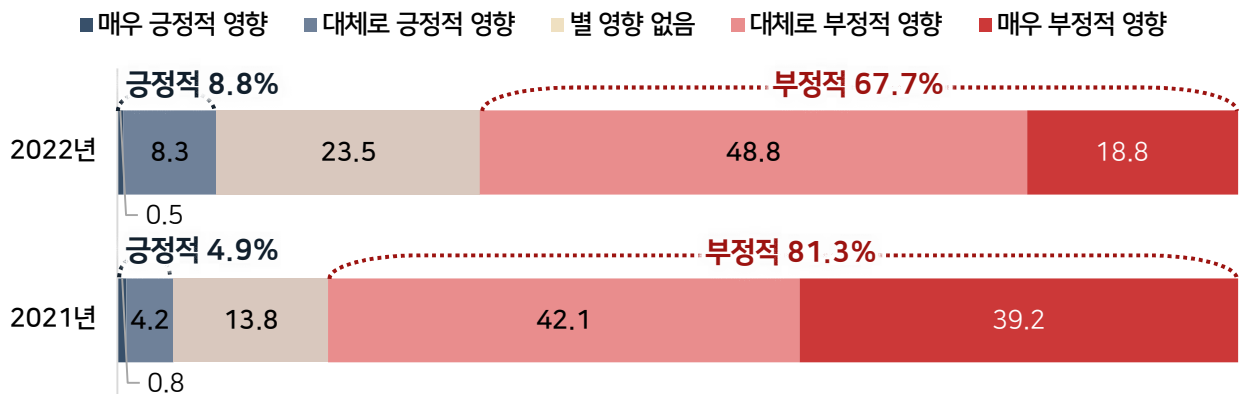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7.7%, 전문가 9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7.7%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8.8%)이라는 응답보다 58.9%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9%p(2021년 4.9%) 증가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3.6%p(2021년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98.0%로 나타남(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 ▷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매우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1-9-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1-9-3>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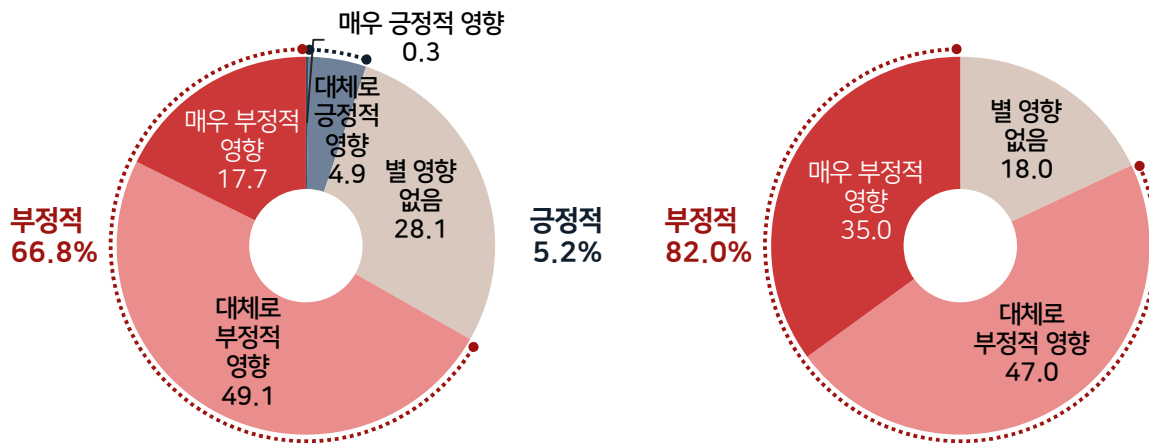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없음	부정적
전체		1,300	0.5	7.7	21.8	48.4	21.6	8.2	21.8	7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5	8.3	23.5	48.8	18.8	8.8	23.5	67.7
	전문가	100	-	-	2.0	43.0	55.0	-	2.0	9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	9.3	18.6	44.3	26.6	10.5	18.6	70.9
	중	570	0.2	8.1	25.3	52.3	14.2	8.2	25.3	66.5
	하	190	0.0	6.8	29.5	48.9	14.7	6.8	29.5	63.7
성별	남성	720	0.6	9.6	21.1	48.5	20.3	10.1	21.1	68.8
	여성	480	0.4	6.5	27.1	49.4	16.7	6.9	27.1	66.0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	8.4	19.8	55.5	15.0	9.7	19.8	70.5
	30대	193	0.0	7.8	25.9	45.6	20.7	7.8	25.9	66.3
	40대	247	0.4	6.5	27.5	46.2	19.4	6.9	27.5	65.6
	50대	254	0.4	10.6	22.8	50.0	16.1	11.0	22.8	66.1
	60대 이상	279	0.4	8.2	21.9	47.0	22.6	8.6	21.9	69.5
지역별	서울	225	0.4	6.7	25.3	52.4	15.1	7.1	25.3	67.6
	경기/인천	386	1.3	8.8	26.2	46.6	17.1	10.1	26.2	63.7
	부산/울산/경남	179	0.0	1.1	19.0	52.0	27.9	1.1	19.0	79.9
	대구/경북	121	0.0	10.7	28.9	32.2	28.1	10.7	28.9	60.3
	광주/전라	114	0.0	13.2	7.9	60.5	18.4	13.2	7.9	78.9
	대전/충청/세종	127	0.0	13.4	29.1	47.2	10.2	13.4	29.1	57.5
	강원/제주	48	0.0	8.3	18.8	56.3	16.7	8.3	18.8	72.9
지역크기	대도시	526	0.2	5.1	19.8	55.3	19.6	5.3	19.8	74.9
	중소도시	629	0.8	11.4	26.7	43.1	18.0	12.2	26.7	61.0
	읍/면	45	0.0	2.2	22.2	53.3	22.2	2.2	22.2	75.6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2	28.9	51.1	17.8	2.2	28.9	68.9
	자영업자	165	0.0	7.9	20.6	50.3	21.2	7.9	20.6	71.5
	판매/서비스직	236	1.3	11.0	28.4	42.8	16.5	12.3	28.4	59.3
	기능/숙련공	104	0.0	9.6	20.2	51.9	18.3	9.6	20.2	70.2
	일반 노무직	50	0.0	10.0	36.0	40.0	14.0	10.0	36.0	54.0
	사무/기술직	304	0.3	8.2	23.7	47.7	20.1	8.6	23.7	67.8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58.3	16.7	8.3	16.7	75.0
	전문/자유직	12	0.0	0.0	16.7	66.7	16.7	0.0	16.7	83.3
	전업주부	176	0.6	6.8	19.9	52.3	20.5	7.4	19.9	72.7
	학생	47	0.0	6.4	14.9	57.4	21.3	6.4	14.9	78.7
	무직/휴직/은퇴	40	2.5	7.5	27.5	47.5	15.0	10.0	27.5	62.5
	기타	9	0.0	11.1	0.0	77.8	11.1	11.1	0.0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9.1	30.9	45.5	14.5	9.1	30.9	6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2	9.8	23.1	45.9	21.0	10.0	23.1	66.8
	전문대(중퇴/졸업)	269	0.7	10.0	24.5	51.7	13.0	10.8	24.5	64.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7	5.6	22.7	50.7	20.2	6.3	22.7	71.0
	대학원 이상	8	0.0	0.0	0.0	50.0	50.0	0.0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3.2	14.5	53.2	29.0	3.2	14.5	82.3
	중	565	0.7	7.4	23.2	50.1	18.6	8.1	23.2	68.7
	하	573	0.3	9.8	24.8	47.1	18.0	10.1	24.8	65.1

4)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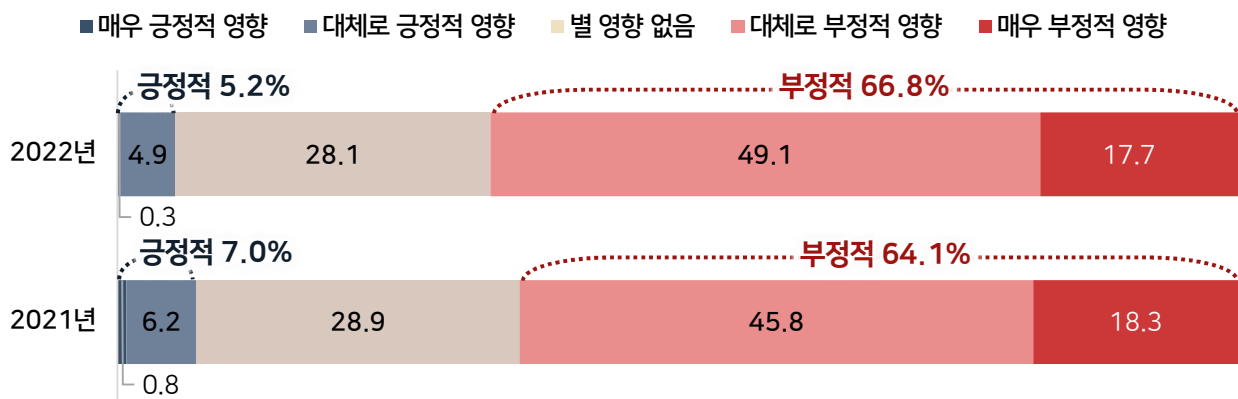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6.8%, 전문가 8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6.8%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5.2%)이라는 응답보다 61.6%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8%p(2021년 7.0%) 감소하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7%p(2021년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2.0%로 나타남(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0.0%).

<그림 1-9-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1-9-4>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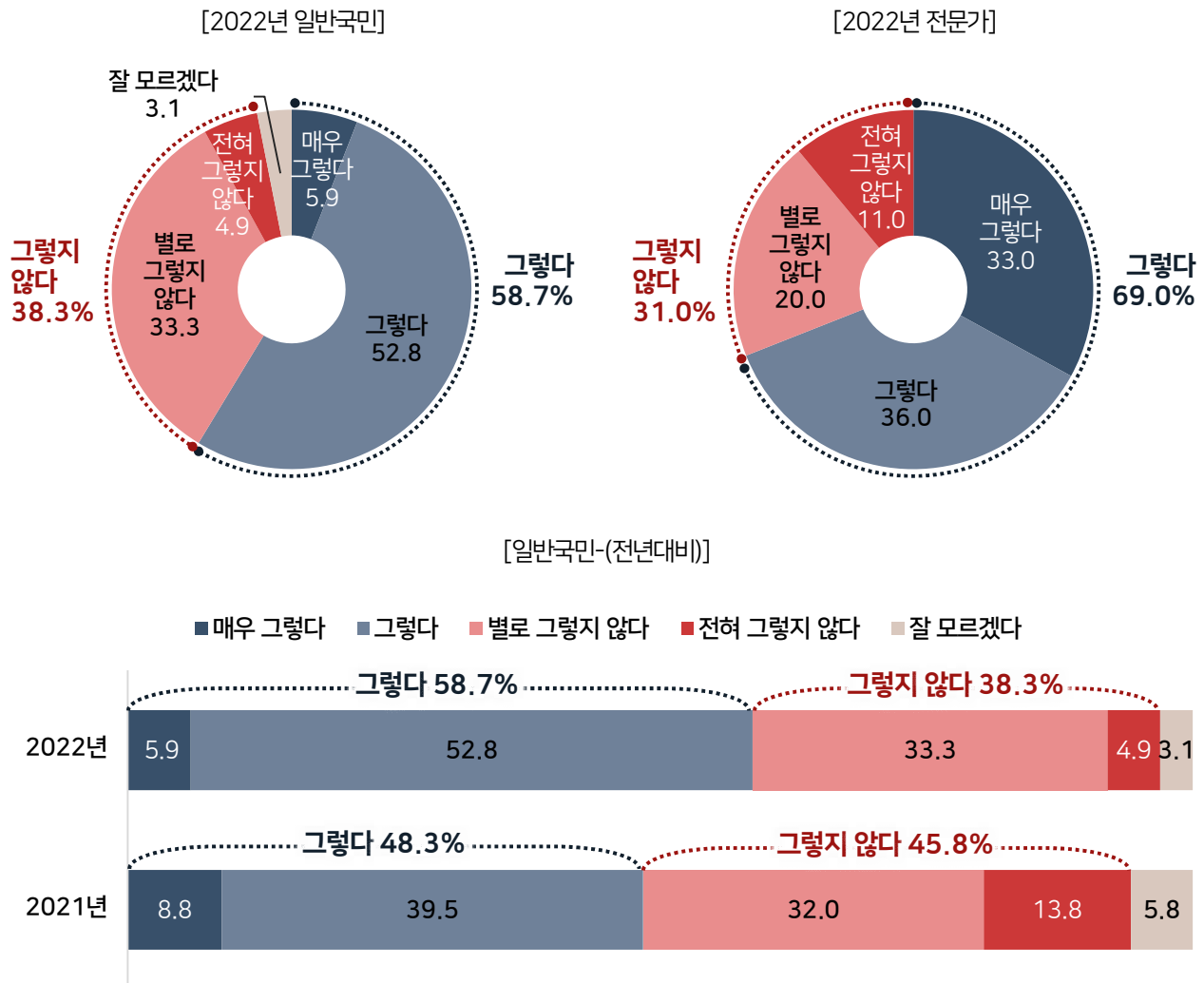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별 영향없음	부정적
전체		1,300	0.2	4.5	27.3	48.9	19.0	4.8	27.3	67.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3	4.9	28.1	49.1	17.7	5.2	28.1	66.8
	전문가	100	-	-	18.0	47.0	35.0	-	18.0	8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2	6.1	25.9	43.4	24.3	6.4	25.9	67.7
	중	570	0.4	4.7	28.2	51.2	15.4	5.1	28.2	66.7
	하	190	0.0	2.6	32.6	55.8	8.9	2.6	32.6	64.7
성별	남성	720	0.4	5.4	29.2	46.1	18.9	5.8	29.2	65.0
	여성	480	0.0	4.2	26.5	53.5	15.8	4.2	26.5	69.4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5.7	22.9	55.9	15.0	6.2	22.9	70.9
	30대	193	1.0	6.2	28.5	47.2	17.1	7.3	28.5	64.2
	40대	247	0.0	4.9	27.9	50.2	17.0	4.9	27.9	67.2
	50대	254	0.0	4.3	32.7	46.1	16.9	4.3	32.7	63.0
	60대 이상	279	0.0	3.9	28.0	46.6	21.5	3.9	28.0	68.1
지역별	서울	225	0.0	4.4	25.3	54.7	15.6	4.4	25.3	70.2
	경기/인천	386	0.5	7.8	32.1	45.6	14.0	8.3	32.1	59.6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11.2	66.5	22.3	0.0	11.2	88.8
	대구/경북	121	0.0	4.1	28.9	32.2	34.7	4.1	28.9	66.9
	광주/전라	114	0.0	2.6	21.9	57.9	17.5	2.6	21.9	75.4
	대전/충청/세종	127	0.8	5.5	51.2	35.4	7.1	6.3	51.2	42.5
	강원/제주	48	0.0	8.3	22.9	43.8	25.0	8.3	22.9	68.8
지역크기	대도시	526	0.0	2.5	24.9	53.2	19.4	2.5	24.9	72.6
	중소도시	629	0.5	7.2	30.8	45.2	16.4	7.6	30.8	61.5
	읍/면	45	0.0	2.2	26.7	55.6	15.6	2.2	26.7	71.1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2	46.7	37.8	13.3	2.2	46.7	51.1
	자영업자	165	0.0	4.2	26.7	44.8	24.2	4.2	26.7	69.1
	판매/서비스직	236	0.0	6.4	29.2	50.8	13.6	6.4	29.2	64.4
	기능/숙련공	104	0.0	3.8	31.7	43.3	21.2	3.8	31.7	64.4
	일반 노무직	50	0.0	4.0	38.0	40.0	18.0	4.0	38.0	58.0
	사무/기술직	304	1.0	6.6	22.0	51.3	19.1	7.6	22.0	70.4
	경영/관리직	12	0.0	0.0	50.0	33.3	16.7	0.0	50.0	50.0
	전문/자유직	12	0.0	0.0	25.0	66.7	8.3	0.0	25.0	75.0
	전업주부	176	0.0	2.3	26.7	56.3	14.8	2.3	26.7	71.0
	학생	47	0.0	6.4	19.1	55.3	19.1	6.4	19.1	74.5
	무직/휴직/은퇴	40	0.0	5.0	45.0	37.5	12.5	5.0	45.0	50.0
	기타	9	0.0	11.1	11.1	55.6	22.2	11.1	11.1	77.8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3.6	41.8	41.8	12.7	3.6	41.8	5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0	4.6	32.1	43.4	19.9	4.6	32.1	63.3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7.4	27.5	48.0	16.7	7.8	27.5	64.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3.9	22.2	57.6	15.9	4.4	22.2	73.4
	대학원 이상	8	0.0	0.0	25.0	25.0	50.0	0.0	25.0	75.0
생활 수준별	상	62	0.0	1.6	21.0	50.0	27.4	1.6	21.0	77.4
	중	565	0.4	4.2	27.1	49.7	18.6	4.6	27.1	68.3
	하	573	0.2	5.9	29.8	48.3	15.7	6.1	29.8	64.0

10.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58.7%, 전문가 69.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8.7%로 '그렇지 않다'(38.3%)보다 20.4%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응답은 10.4%p(2021년 48.3%)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5%p(2021년 4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9.0%로 '그렇지 않다'(31.0%)보다 38.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및 전문가 공히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보다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10>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특성별 분석]

- ▷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 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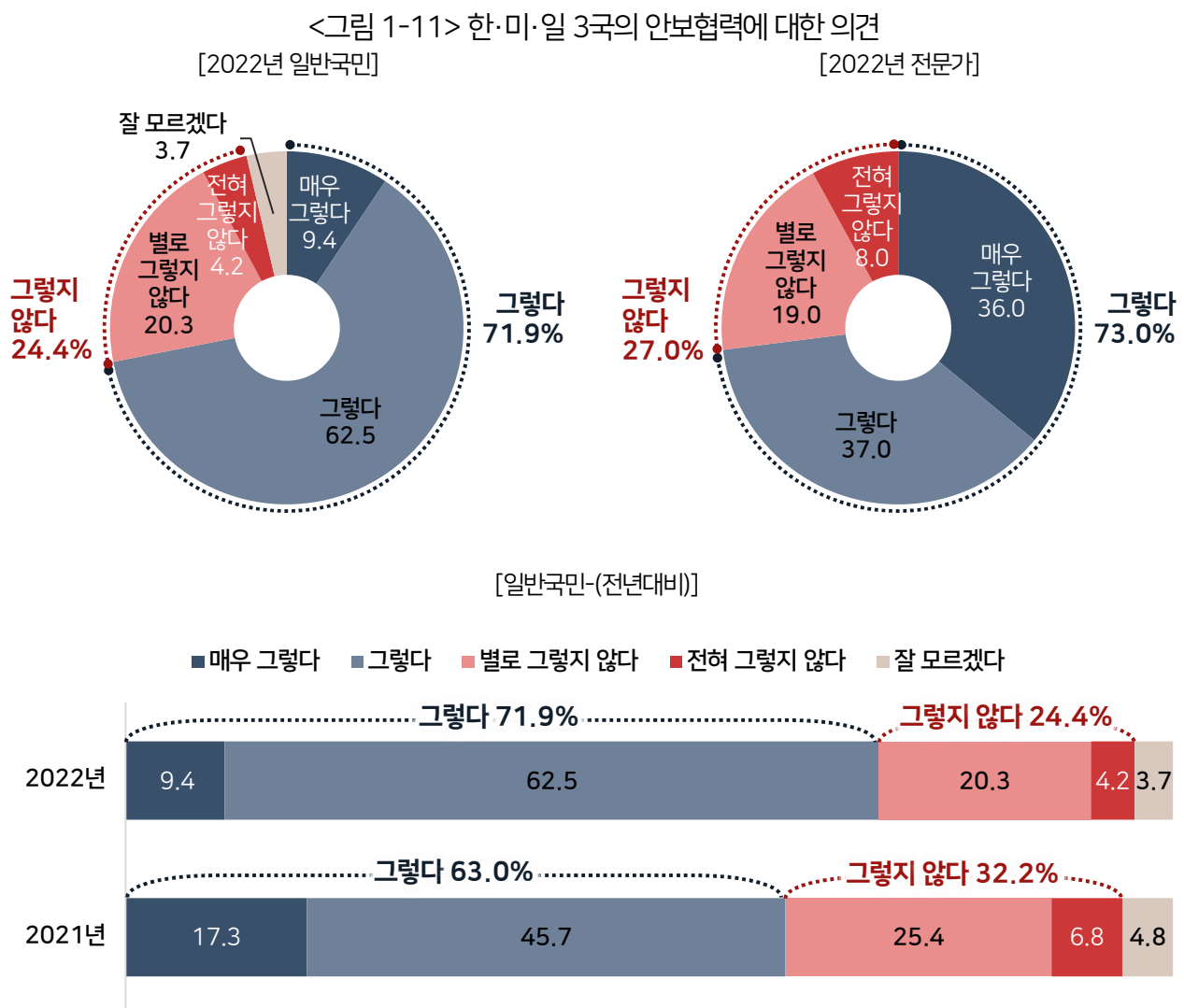
<표 1-10>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8.0	51.5	32.3	5.4	2.8	59.5	37.7	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9	52.8	33.3	4.9	3.1	58.7	38.3	3.1
	전문가	100	33.0	36.0	20.0	11.0	-	69.0	31.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2	58.2	28.6	3.9	1.1	66.4	32.5	1.1
	중	570	4.6	54.0	34.0	3.7	3.7	58.6	37.7	3.7
	하	190	4.7	36.3	42.1	11.1	5.8	41.1	53.2	5.8
성별	남성	720	5.7	55.1	32.4	5.1	1.7	60.8	37.5	1.7
	여성	480	6.3	49.2	34.8	4.6	5.2	55.4	39.4	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3.1	53.3	37.4	4.0	2.2	56.4	41.4	2.2
	30대	193	6.7	51.3	37.3	3.1	1.6	58.0	40.4	1.6
	40대	247	6.5	54.7	28.7	6.9	3.2	61.1	35.6	3.2
	50대	254	4.3	55.1	31.5	5.1	3.9	59.4	36.6	3.9
	60대 이상	279	8.6	49.5	33.0	5.0	3.9	58.1	38.0	3.9
지역별	서울	225	8.4	51.6	36.4	2.7	0.9	60.0	39.1	0.9
	경기/인천	386	7.5	45.9	36.8	6.0	3.9	53.4	42.7	3.9
	부산/울산/경남	179	3.9	70.4	20.1	3.9	1.7	74.3	24.0	1.7
	대구/경북	121	5.0	43.8	40.5	3.3	7.4	48.8	43.8	7.4
	광주/전라	114	3.5	57.9	30.7	7.9	0.0	61.4	38.6	0.0
	대전/충청/세종	127	2.4	55.1	33.9	4.7	3.9	57.5	38.6	3.9
	강원/제주	48	6.3	52.1	27.1	8.3	6.3	58.3	35.4	6.3
지역크기	대도시	526	7.0	50.6	35.6	4.6	2.3	57.6	40.1	2.3
	중소도시	629	5.4	54.8	31.2	5.1	3.5	60.3	36.2	3.5
	읍/면	45	0.0	48.9	37.8	6.7	6.7	48.9	44.4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53.3	31.1	4.4	4.4	60.0	35.6	4.4
	자영업자	165	4.2	52.1	30.3	9.7	3.6	56.4	40.0	3.6
	판매/서비스직	236	4.7	54.2	35.2	3.8	2.1	58.9	39.0	2.1
	기능/숙련공	104	6.7	61.5	24.0	6.7	1.0	68.3	30.8	1.0
	일반 노무직	50	8.0	34.0	44.0	4.0	10.0	42.0	48.0	10.0
	사무/기술직	304	7.9	48.7	36.5	4.3	2.6	56.6	40.8	2.6
	경영/관리직	12	8.3	50.0	41.7	0.0	0.0	58.3	41.7	0.0
	전문/자유직	12	16.7	33.3	41.7	8.3	0.0	50.0	50.0	0.0
	전업주부	176	5.7	51.1	34.7	4.0	4.5	56.8	38.6	4.5
	학생	47	0.0	74.5	23.4	0.0	2.1	74.5	23.4	2.1
	무직/휴직/은퇴	40	5.0	65.0	22.5	5.0	2.5	70.0	27.5	2.5
	기타	9	0.0	55.6	44.4	0.0	0.0	55.6	44.4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49.1	36.4	1.8	7.3	54.5	38.2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0	52.6	32.1	5.0	3.3	59.6	37.1	3.3
	전문대(중퇴/졸업)	269	5.6	58.0	28.3	4.5	3.7	63.6	32.7	3.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5.1	50.7	37.1	5.1	2.0	55.9	42.2	2.0
	대학원 이상	8	0.0	12.5	62.5	25.0	0.0	12.5	87.5	0.0
생활 수준별	상	62	8.1	43.5	33.9	12.9	1.6	51.6	46.8	1.6
	중	565	6.5	54.2	31.7	4.8	2.8	60.7	36.5	2.8
	하	573	5.1	52.4	34.9	4.2	3.5	57.4	39.1	3.5

11.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1.9%, 전문가 73.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1.9%로, '그렇지 않다'(24.4%)보다 47.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응답은 8.9%p(2021년 63.0%)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8%p(2021년 3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0%로, '그렇지 않다'(27.0%)보다 46.0%p 높게 나타남.



[특성별 분석]

- ▷ 한·미·일간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표 1-11>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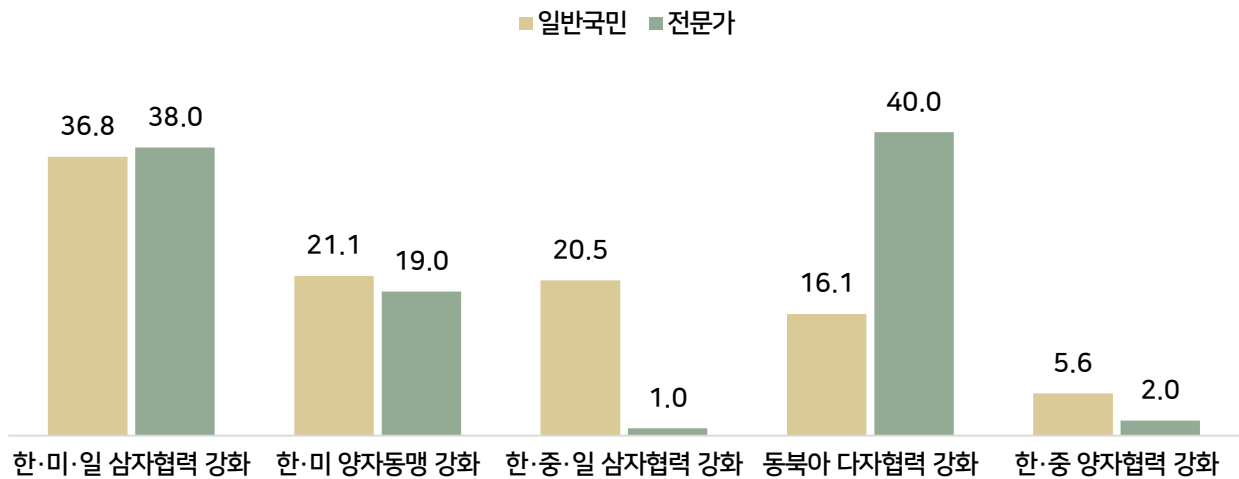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11.5	60.5	20.2	4.5	3.4	72.0	24.6	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4	62.5	20.3	4.2	3.7	71.9	24.4	3.7
	전문가	100	36.0	37.0	19.0	8.0	-	73.0	27.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2.7	65.5	17.0	2.7	2.0	78.2	19.8	2.0
	중	570	7.2	64.7	21.8	2.5	3.9	71.9	24.2	3.9
	하	190	8.4	48.9	23.2	12.6	6.8	57.4	35.8	6.8
성별	남성	720	9.4	64.6	19.7	4.6	1.7	74.0	24.3	1.7
	여성	480	9.4	59.4	21.0	3.5	6.7	68.8	24.6	6.7
연령별	20대 이하	227	7.9	63.0	22.0	5.3	1.8	70.9	27.3	1.8
	30대	193	9.3	68.9	17.1	3.1	1.6	78.2	20.2	1.6
	40대	247	9.7	65.6	16.6	4.5	3.6	75.3	21.1	3.6
	50대	254	10.2	59.1	20.9	4.7	5.1	69.3	25.6	5.1
	60대 이상	279	9.7	58.1	23.7	3.2	5.4	67.7	26.9	5.4
지역별	서울	225	10.7	65.3	16.4	5.8	1.8	76.0	22.2	1.8
	경기/인천	386	13.0	57.0	21.5	4.9	3.6	69.9	26.4	3.6
	부산/울산/경남	179	6.1	69.3	20.1	2.2	2.2	75.4	22.3	2.2
	대구/경북	121	9.9	62.8	20.7	2.5	4.1	72.7	23.1	4.1
	광주/전라	114	3.5	63.2	22.8	4.4	6.1	66.7	27.2	6.1
	대전/충청/세종	127	3.1	66.1	23.6	3.1	3.9	69.3	26.8	3.9
	강원/제주	48	16.7	56.3	12.5	4.2	10.4	72.9	16.7	1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9.5	62.4	21.1	4.0	3.0	71.9	25.1	3.0
	중소도시	629	9.7	63.4	18.4	4.5	4.0	73.1	22.9	4.0
	읍/면	45	4.4	51.1	35.6	2.2	6.7	55.6	37.8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66.7	20.0	2.2	4.4	73.3	22.2	4.4
	자영업자	165	9.7	61.2	18.8	5.5	4.8	70.9	24.2	4.8
	판매/서비스직	236	7.6	64.8	23.3	2.5	1.7	72.5	25.8	1.7
	기능/숙련공	104	9.6	60.6	22.1	5.8	1.9	70.2	27.9	1.9
	일반 노무직	50	10.0	42.0	30.0	6.0	12.0	52.0	36.0	12.0
	사무/기술직	304	12.8	61.8	18.1	4.9	2.3	74.7	23.0	2.3
	경영/관리직	12	16.7	58.3	16.7	0.0	8.3	75.0	16.7	8.3
	전문/자유직	12	8.3	75.0	8.3	8.3	0.0	83.3	16.7	0.0
	전업주부	176	7.4	63.6	19.3	3.4	6.3	71.0	22.7	6.3
	학생	47	8.5	66.0	19.1	4.3	2.1	74.5	23.4	2.1
	무직/휴직/은퇴	40	5.0	70.0	17.5	2.5	5.0	75.0	20.0	5.0
	기타	9	0.0	77.8	22.2	0.0	0.0	77.8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58.2	25.5	3.6	5.5	65.5	29.1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8.7	61.6	21.0	3.9	4.8	70.3	24.9	4.8
	전문대(중퇴/졸업)	269	12.6	66.9	16.0	2.2	2.2	79.6	18.2	2.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3	62.0	21.5	5.4	2.9	70.2	26.8	2.9
	대학원 이상	8	12.5	25.0	25.0	25.0	12.5	37.5	50.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8.1	56.5	22.6	9.7	3.2	64.5	32.3	3.2
	중	565	9.7	64.6	18.4	3.9	3.4	74.3	22.3	3.4
	하	573	9.2	61.1	21.8	3.8	4.0	70.3	25.7	4.0

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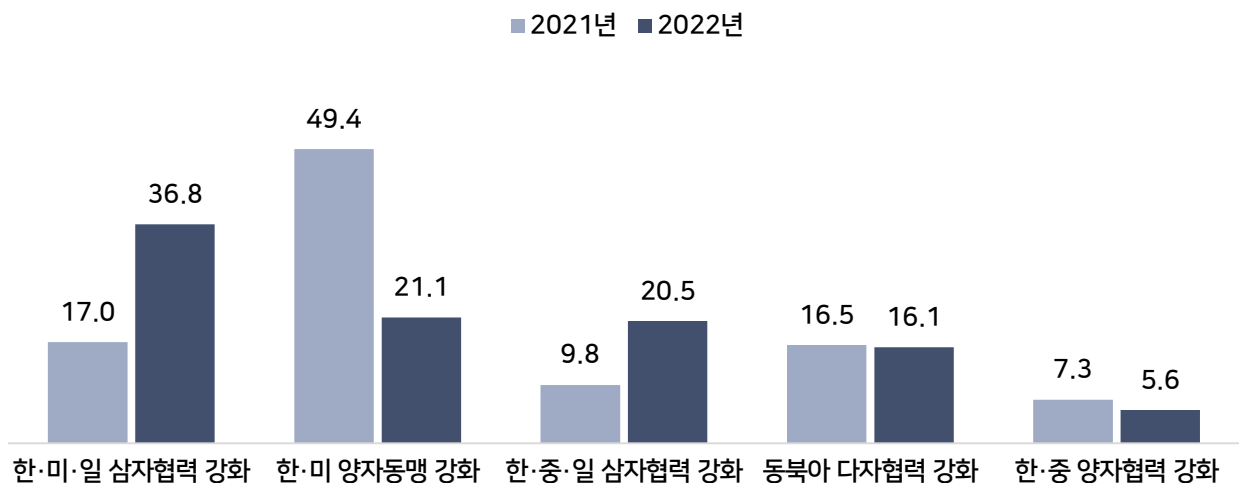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일반국민은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36.8%), 전문가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4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선택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가 3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양자동맹 강화'(21.1%),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는 19.8%p(2021년 17.0%) 증가하였고, '한·미·일 양자동맹 강화'라는 응답은 28.3%p(2021년 4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가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38.0%), '한·미·일 양자동맹 강화'(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크기별로 '중소도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1-12>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단위[%]		사례수 (명)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한·미 양자동맹 강화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한·중 양자협력 강화
전체		1,300	36.8	20.9	19.0	17.9	5.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8	21.1	20.5	16.1	5.6
	전문가	100	38.0	19.0	1.0	40.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8.2	19.5	20.0	13.2	9.1
	중	570	36.5	23.2	18.1	18.6	3.7
	하	190	34.2	18.4	28.9	15.3	3.2
성별	남성	720	36.0	20.1	21.1	16.9	5.8
	여성	480	37.9	22.5	19.6	14.8	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31.3	20.3	22.5	19.8	6.2
	30대	193	35.2	23.3	24.4	13.0	4.1
	40대	247	37.7	19.8	19.0	17.8	5.7
	50대	254	39.4	20.5	17.3	17.3	5.5
	60대 이상	279	39.1	21.9	20.4	12.5	6.1
지역별	서울	225	37.8	14.2	20.9	18.7	8.4
	경기/인천	386	39.1	17.4	19.2	20.7	3.6
	부산/울산/경남	179	44.1	20.1	22.3	11.2	2.2
	대구/경북	121	27.3	44.6	13.2	8.3	6.6
	광주/전라	114	31.6	25.4	14.0	16.7	12.3
	대전/충청/세종	127	33.9	22.0	33.9	4.7	5.5
	강원/제주	48	29.2	14.6	20.8	33.3	2.1
지역크기	대도시	526	32.5	27.9	16.3	16.0	7.2
	중소도시	629	41.7	16.1	23.4	15.4	3.5
	읍/면	45	17.8	11.1	28.9	26.7	15.6
직업별	농/어/임업	45	33.3	26.7	31.1	6.7	2.2
	자영업자	165	35.8	27.3	17.0	17.0	3.0
	판매/서비스직	236	36.0	18.6	22.5	12.7	10.2
	기능/숙련공	104	42.3	16.3	24.0	15.4	1.9
	일반 노무직	50	40.0	24.0	20.0	10.0	6.0
	사무/기술직	304	35.2	19.7	19.1	20.4	5.6
	경영/관리직	12	41.7	8.3	8.3	41.7	0.0
	전문/자유직	12	16.7	33.3	25.0	16.7	8.3
	전업주부	176	39.8	22.7	18.2	15.3	4.0
	학생	47	31.9	23.4	19.1	17.0	8.5
	무직/후직/은퇴	40	37.5	15.0	27.5	12.5	7.5
	기타	9	44.4	11.1	22.2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41.8	14.5	21.8	10.9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9.5	19.7	22.9	13.1	4.8
	전문대(중퇴/졸업)	269	40.5	23.8	16.4	12.3	7.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0.7	21.5	20.7	22.7	4.4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25.0	37.5	0.0	12.5	25.0
	상	62	21.0	29.0	9.7	35.5	4.8
	중	565	34.7	18.9	21.2	20.5	4.6
	하	573	40.5	22.3	20.9	9.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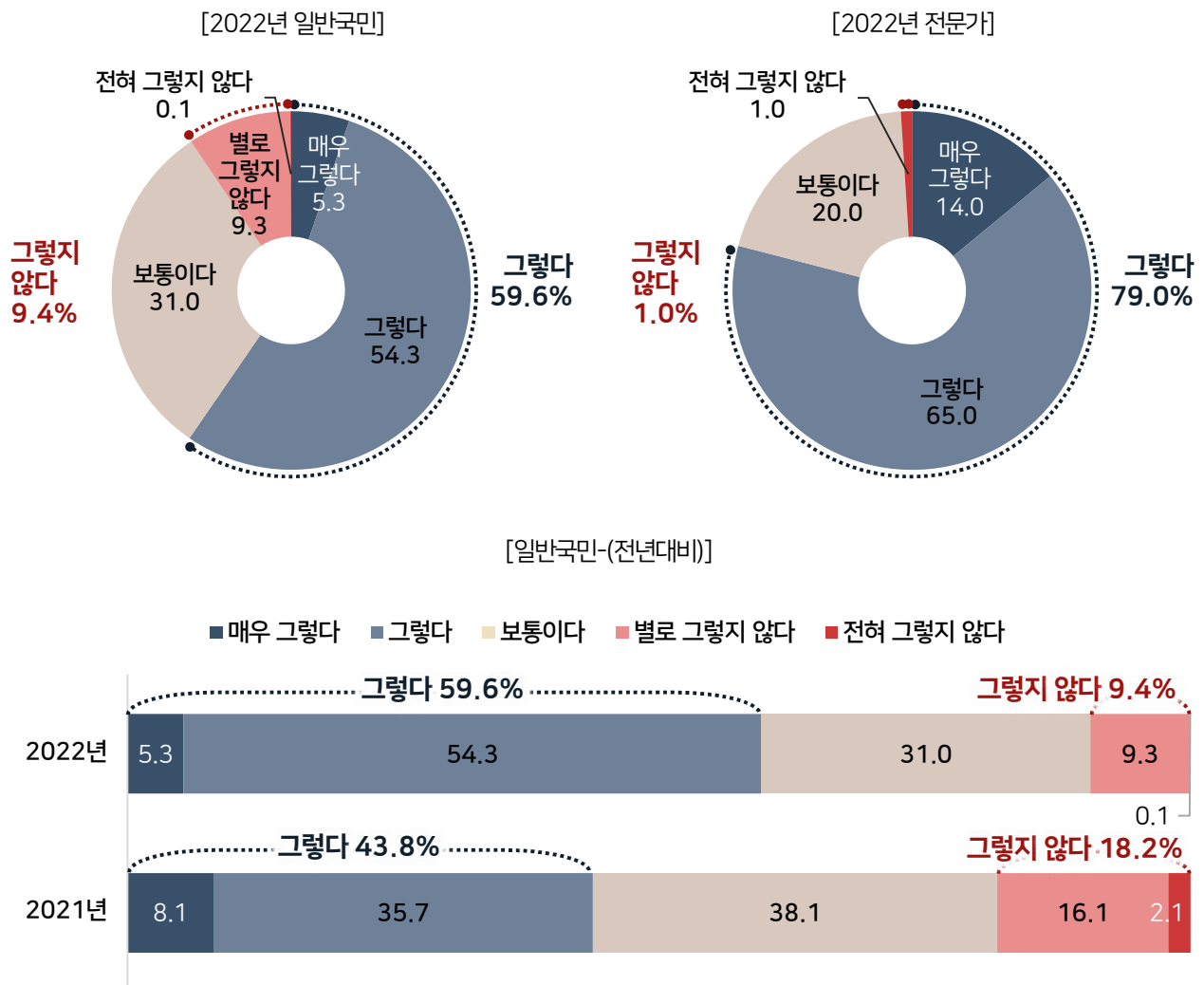
II.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 동맹관계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9.6%, 전문가 79.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9.6%로, '그렇지 않다'(9.4%)보다 50.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응답은 15.8%p(2021년 43.8%)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p(2021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9.0%로, '그렇지 않다'(1.0%)보다 78.0%p 높게 나타남.

<그림 2-1> 한·미 동맹관계



[특성별 분석]

- ▷ 한·미동맹관계의 굳건함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01> 한·미 동맹관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5.9	55.2	30.2	8.6	0.2	61.1	30.2	8.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	54.3	31.0	9.3	0.1	59.6	31.0	9.4
	전문가	100	14.0	65.0	20.0	-	1.0	79.0	20.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7	58.4	23.0	10.7	0.2	66.1	23.0	10.9
	중	570	3.9	54.4	34.4	7.4	0.0	58.2	34.4	7.4
	하	190	3.7	44.7	39.5	12.1	0.0	48.4	39.5	12.1
성별	남성	720	5.4	54.2	30.8	9.4	0.1	59.6	30.8	9.6
	여성	480	5.0	54.6	31.3	9.2	0.0	59.6	31.3	9.2
연령별	20대 이하	227	3.1	48.9	37.9	10.1	0.0	52.0	37.9	10.1
	30대	193	4.7	62.7	23.8	8.8	0.0	67.4	23.8	8.8
	40대	247	7.3	53.8	27.9	10.5	0.4	61.1	27.9	10.9
	50대	254	3.9	52.8	33.5	9.8	0.0	56.7	33.5	9.8
	60대 이상	279	6.8	54.8	30.8	7.5	0.0	61.6	30.8	7.5
지역별	서울	225	6.2	55.6	28.0	10.2	0.0	61.8	28.0	10.2
	경기/인천	386	6.0	53.6	32.1	8.3	0.0	59.6	32.1	8.3
	부산/울산/경남	179	5.0	63.1	27.9	3.9	0.0	68.2	27.9	3.9
	대구/경북	121	3.3	41.3	43.0	12.4	0.0	44.6	43.0	12.4
	광주/전라	114	4.4	46.5	25.4	23.7	0.0	50.9	25.4	23.7
	대전/충청/세종	127	3.9	66.1	29.1	0.8	0.0	70.1	29.1	0.8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6.3	41.7	35.4	14.6	2.1	47.9	35.4	16.7
	대도시	526	6.5	51.5	31.0	11.0	0.0	58.0	31.0	11.0
	중소도시	629	4.6	56.6	31.2	7.5	0.2	61.2	31.2	7.6
	읍/면	45	0.0	55.6	28.9	15.6	0.0	55.6	28.9	15.6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2.2	46.7	6.7	0.0	46.7	46.7	6.7
	자영업자	165	4.8	47.9	33.9	12.7	0.6	52.7	33.9	13.3
	판매/서비스직	236	6.4	59.3	25.8	8.5	0.0	65.7	25.8	8.5
	기능/숙련공	104	5.8	56.7	26.9	10.6	0.0	62.5	26.9	10.6
	일반 노무직	50	12.0	50.0	20.0	18.0	0.0	62.0	20.0	18.0
	사무/기술직	304	3.9	57.2	28.6	10.2	0.0	61.2	28.6	10.2
	경영/관리직	12	16.7	41.7	33.3	8.3	0.0	58.3	33.3	8.3
	전문/자유직	12	8.3	66.7	25.0	0.0	0.0	75.0	25.0	0.0
	전업주부	176	3.4	55.1	35.8	5.7	0.0	58.5	35.8	5.7
	학생	47	4.3	36.2	55.3	4.3	0.0	40.4	55.3	4.3
	무직/휴직/은퇴	40	7.5	52.5	32.5	7.5	0.0	60.0	32.5	7.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88.9	0.0	11.1	0.0	88.9	0.0	11.1
	중졸 이하	55	5.5	69.1	21.8	3.6	0.0	74.5	21.8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6	55.0	31.0	7.4	0.0	61.6	31.0	7.4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56.1	29.4	10.0	0.0	60.6	29.4	10.0
	4년제대학교(중/졸업)	410	4.4	50.5	33.2	12.0	0.0	54.9	33.2	12.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50.0	37.5	0.0	12.5	50.0	37.5	12.5
	상	62	8.1	51.6	32.3	6.5	1.6	59.7	32.3	8.1
	중	565	4.8	58.8	28.0	8.5	0.0	63.5	28.0	8.5
	하	573	5.4	50.3	33.9	10.5	0.0	55.7	33.9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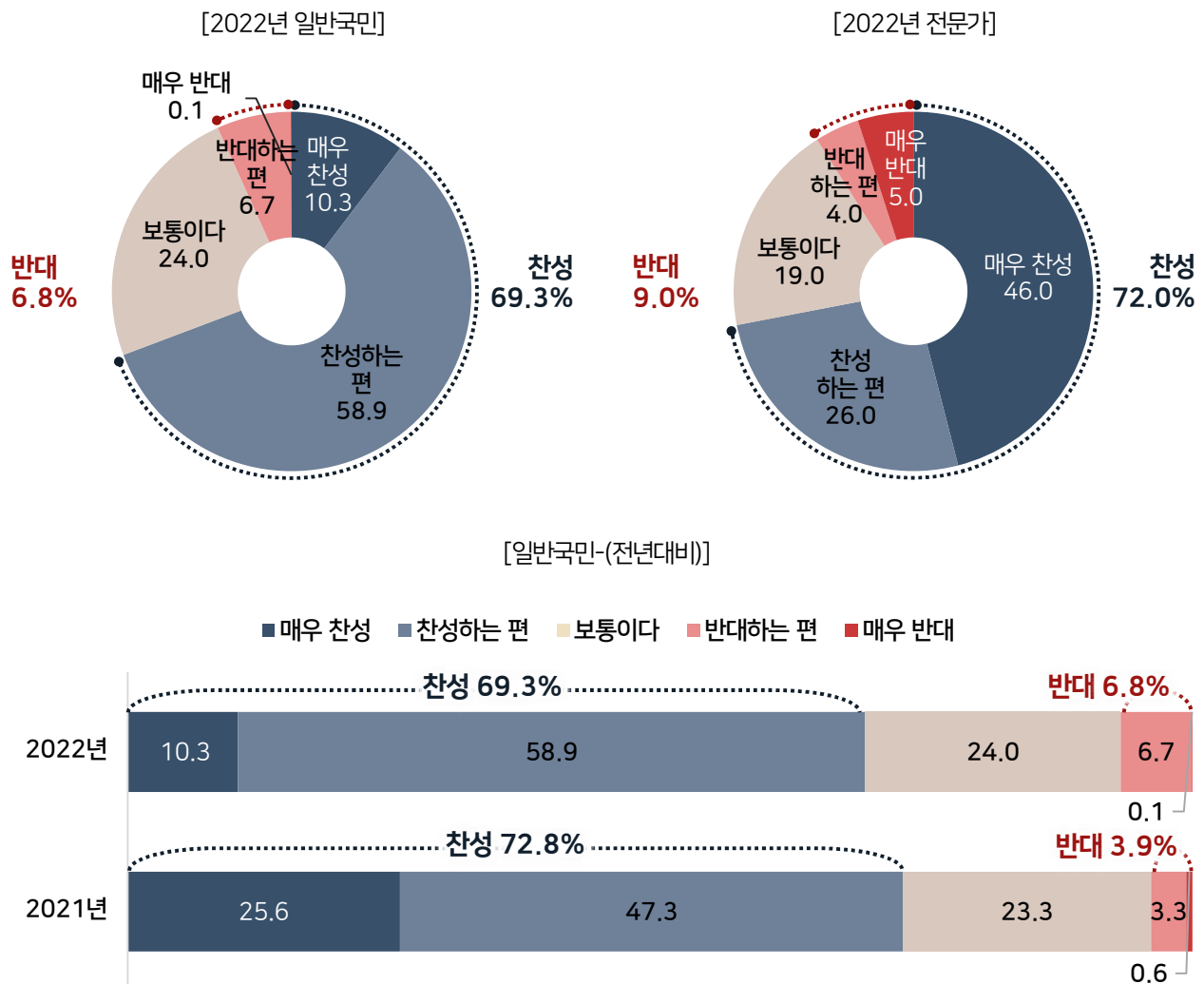
2.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1) 군사동맹 강화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9.3%, 전문가 7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3%로, '반대한다' (6.8%)는 응답보다 62.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3.5%p(2021년 72.8%)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2.9%p (2021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향후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2.0%로, '반대한다'(9.0%) 보다 63.0%p 높게 나타남.

<그림 2-2-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 동맹 강화



[특성별 분석]

- ▷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 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로 '30대',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2-102-1>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군사 동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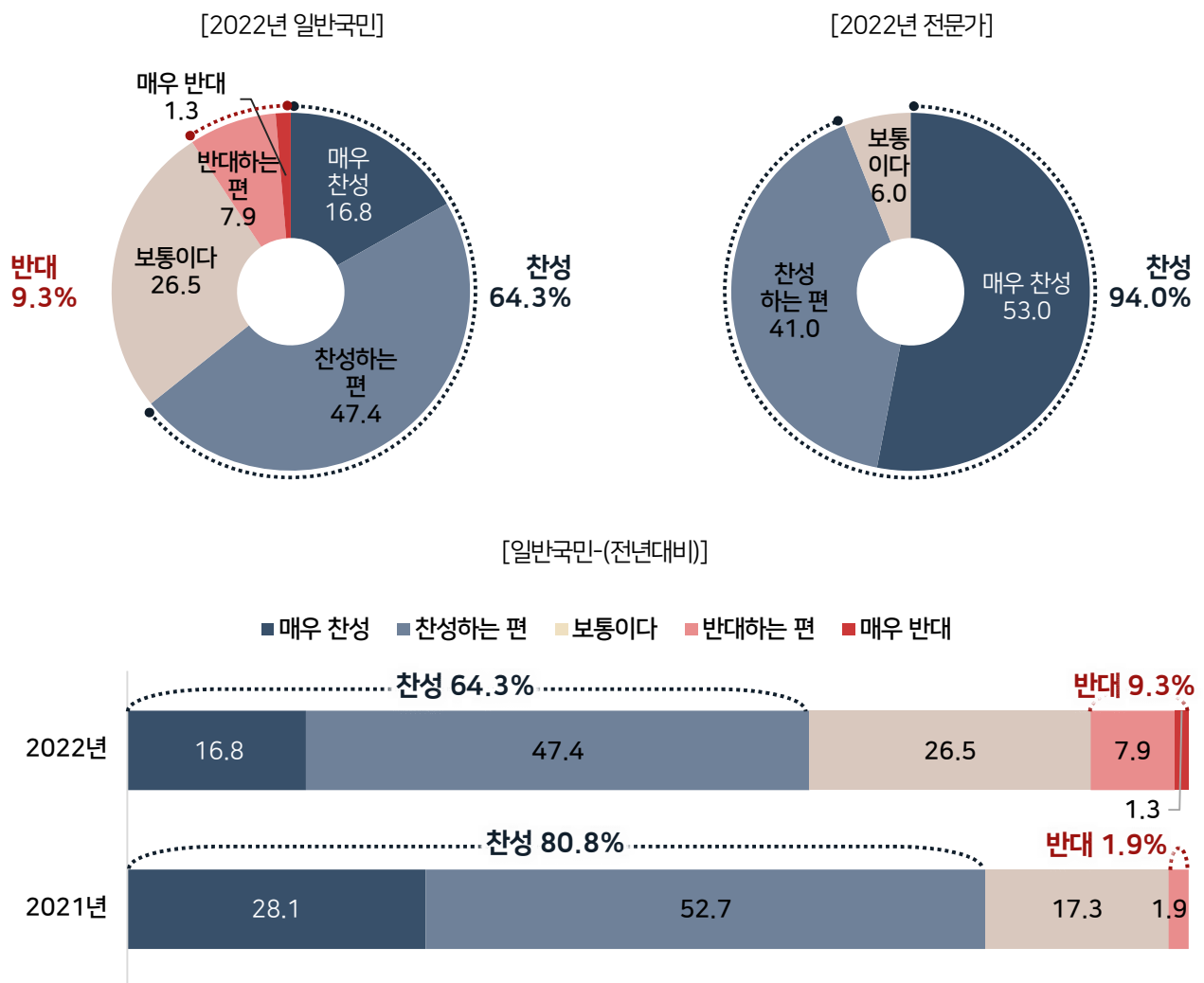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3.1	56.4	23.6	6.5	0.5	69.5	23.6	6.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3	58.9	24.0	6.7	0.1	69.3	24.0	6.8
	전문가	100	46.0	26.0	19.0	4.0	5.0	72.0	19.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3.6	60.5	19.5	6.1	0.2	74.1	19.5	6.4
	중	570	8.1	60.0	26.0	6.0	0.0	68.1	26.0	6.0
	하	190	9.5	52.1	28.4	10.0	0.0	61.6	28.4	10.0
성별	남성	720	10.3	61.7	21.8	6.1	0.1	71.9	21.8	6.3
	여성	480	10.4	54.8	27.3	7.5	0.0	65.2	27.3	7.5
연령별	20대 이하	227	9.3	58.6	25.6	6.6	0.0	67.8	25.6	6.6
	30대	193	10.9	62.2	21.8	5.2	0.0	73.1	21.8	5.2
	40대	247	10.1	58.7	25.5	5.3	0.4	68.8	25.5	5.7
	50대	254	8.3	57.1	24.4	10.2	0.0	65.4	24.4	10.2
	60대 이상	279	12.9	58.8	22.6	5.7	0.0	71.7	22.6	5.7
지역별	서울	225	9.8	59.6	22.2	8.4	0.0	69.3	22.2	8.4
	경기/인천	386	18.1	56.7	17.4	7.8	0.0	74.9	17.4	7.8
	부산/울산/경남	179	4.5	58.1	33.5	3.9	0.0	62.6	33.5	3.9
	대구/경북	121	10.7	53.7	33.1	2.5	0.0	64.5	33.1	2.5
	광주/전라	114	2.6	66.7	16.7	14.0	0.0	69.3	16.7	14.0
	대전/충청/세종	127	2.4	68.5	26.0	3.1	0.0	70.9	26.0	3.1
	강원/제주	48	10.4	45.8	39.6	2.1	2.1	56.3	39.6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12.0	61.6	20.7	5.7	0.0	73.6	20.7	5.7
	중소도시	629	9.7	56.4	26.4	7.3	0.2	66.1	26.4	7.5
	읍/면	45	0.0	62.2	28.9	8.9	0.0	62.2	28.9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66.7	20.0	13.3	0.0	66.7	20.0	13.3
	자영업자	165	9.1	60.6	21.8	7.9	0.6	69.7	21.8	8.5
	판매/서비스직	236	11.0	58.5	23.3	7.2	0.0	69.5	23.3	7.2
	기능/숙련공	104	7.7	60.6	26.0	5.8	0.0	68.3	26.0	5.8
	일반 노무직	50	14.0	50.0	34.0	2.0	0.0	64.0	34.0	2.0
	사무/기술직	304	10.2	59.2	22.4	8.2	0.0	69.4	22.4	8.2
	경영/관리직	12	33.3	41.7	25.0	0.0	0.0	75.0	25.0	0.0
	전문/자유직	12	25.0	50.0	8.3	16.7	0.0	75.0	8.3	16.7
	전업주부	176	12.5	58.0	25.0	4.5	0.0	70.5	25.0	4.5
	학생	47	8.5	63.8	23.4	4.3	0.0	72.3	23.4	4.3
	무직/휴직/은퇴	40	10.0	55.0	35.0	0.0	0.0	65.0	35.0	0.0
	기타	9	0.0	66.7	33.3	0.0	0.0	66.7	33.3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54.5	30.9	9.1	0.0	60.0	30.9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0.5	57.4	25.3	6.8	0.0	67.9	25.3	6.8
	전문대(중퇴/졸업)	269	11.9	66.5	16.7	4.8	0.0	78.4	16.7	4.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9.5	56.6	26.3	7.6	0.0	66.1	26.3	7.6
	대학원 이상	8	25.0	37.5	25.0	0.0	12.5	6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2.9	54.8	25.8	4.8	1.6	67.7	25.8	6.5
	중	565	10.4	59.6	24.8	5.1	0.0	70.1	24.8	5.1
	하	573	9.9	58.6	23.0	8.4	0.0	68.6	23.0	8.4

2) 경제 분야 협력 강화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3%, 전문가 9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4.3%로, '반대한다' (9.3%)는 응답보다 55.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16.5%p(2021년 80.8%)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7.4%p (2021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향후 한·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4.0%로 높게 나타남 (반대 : 0.0%).

<그림 2-2-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특성별 분석]

- ▷ 한·미 경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2-2-2>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경제 분야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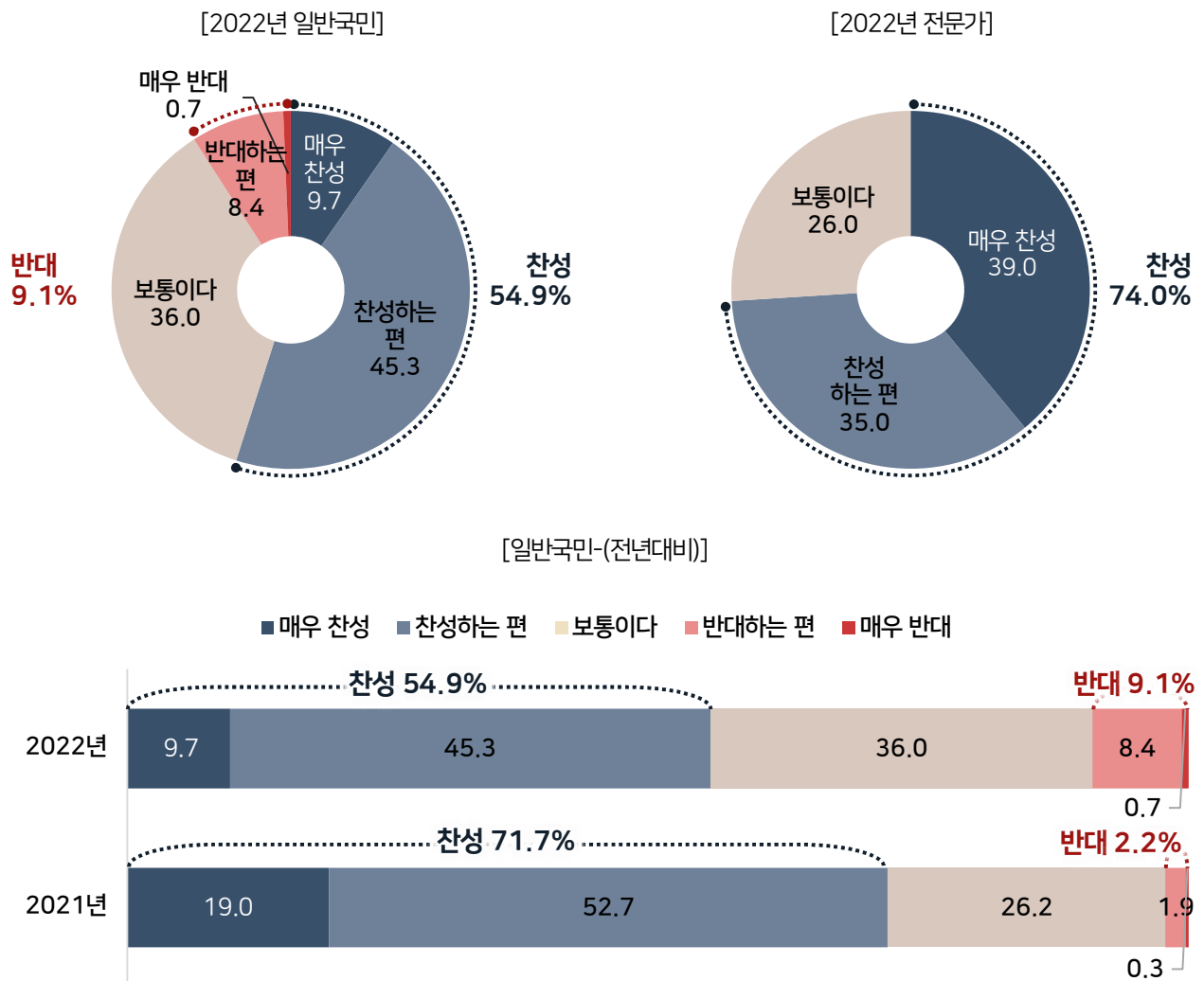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매우 반대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9.6	46.9	24.9	7.3	1.2	66.5	24.9	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8	47.4	26.5	7.9	1.3	64.3	26.5	9.3
	전문가	100	53.0	41.0	6.0	-	-	94.0	6.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5	53.4	23.6	6.6	1.8	68.0	23.6	8.4
	중	570	19.6	46.0	26.1	7.5	0.7	65.6	26.1	8.2
	하	190	13.7	37.9	34.2	12.1	2.1	51.6	34.2	14.2
성별	남성	720	16.9	46.7	27.5	7.6	1.3	63.6	27.5	8.9
	여성	480	16.7	48.5	25.0	8.3	1.5	65.2	25.0	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2	49.8	28.2	8.4	0.4	63.0	28.2	8.8
	30대	193	16.6	49.2	26.4	7.3	0.5	65.8	26.4	7.8
	40대	247	17.8	45.7	25.5	8.5	2.4	63.6	25.5	10.9
	50대	254	15.4	44.5	31.1	7.5	1.6	59.8	31.1	9.1
	60대 이상	279	20.4	48.4	21.9	7.9	1.4	68.8	21.9	9.3
지역별	서울	225	11.6	52.9	22.7	12.0	0.9	64.4	22.7	12.9
	경기/인천	386	19.7	43.8	28.0	7.5	1.0	63.5	28.0	8.5
	부산/울산/경남	179	21.8	43.6	23.5	11.2	0.0	65.4	23.5	11.2
	대구/경북	121	14.0	52.1	28.9	5.0	0.0	66.1	28.9	5.0
	광주/전라	114	23.7	40.4	21.9	6.1	7.9	64.0	21.9	14.0
	대전/충청/세종	127	10.2	54.3	32.3	3.1	0.0	64.6	32.3	3.1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8.3	52.1	33.3	4.2	2.1	60.4	33.3	6.3
	대도시	526	13.5	52.3	25.3	8.0	1.0	65.8	25.3	8.9
	중소도시	629	19.9	42.4	27.8	8.4	1.4	62.3	27.8	9.9
직업별	읍/면	45	13.3	60.0	22.2	0.0	4.4	73.3	22.2	4.4
	농/어/임업	45	8.9	51.1	35.6	0.0	4.4	60.0	35.6	4.4
	자영업자	165	13.3	53.9	24.8	6.1	1.8	67.3	24.8	7.9
	판매/서비스직	236	18.2	45.3	27.1	8.1	1.3	63.6	27.1	9.3
	기능/숙련공	104	19.2	36.5	27.9	13.5	2.9	55.8	27.9	16.3
	일반 노무직	50	22.0	48.0	24.0	6.0	0.0	70.0	24.0	6.0
	사무/기술직	304	16.1	49.3	26.0	8.2	0.3	65.5	26.0	8.6
	경영/관리직	12	16.7	50.0	33.3	0.0	0.0	66.7	33.3	0.0
	전문/자유직	12	25.0	33.3	25.0	16.7	0.0	58.3	25.0	16.7
	전업주부	176	17.6	47.2	26.1	6.8	2.3	64.8	26.1	9.1
	학생	47	12.8	53.2	27.7	6.4	0.0	66.0	27.7	6.4
	무직/휴직/은퇴	40	17.5	47.5	17.5	17.5	0.0	65.0	17.5	17.5
최종 학력별	기타	9	44.4	11.1	44.4	0.0	0.0	55.6	44.4	0.0
	중졸 이하	55	16.4	47.3	30.9	3.6	1.8	63.6	30.9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6.8	46.3	27.3	8.7	0.9	63.1	27.3	9.6
	전문대(중퇴/졸업)	269	18.2	46.8	27.1	6.3	1.5	65.1	27.1	7.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5.9	49.3	24.6	8.8	1.5	65.1	24.6	10.2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25.0	37.5	25.0	0.0	12.5	62.5	25.0	12.5
	상	62	9.7	50.0	25.8	12.9	1.6	59.7	25.8	14.5
	중	565	19.5	46.0	26.2	7.6	0.7	65.5	26.2	8.3
	하	573	15.0	48.5	26.9	7.7	1.9	63.5	26.9	9.6

3)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4.9%, 전문가 7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9%로, '반대한다'(9.1%)는 응답보다 45.8%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16.8%p(2021년 71.7%)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6.9%p(2021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향후 한·미 사회 및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4.0%로 높게 나타남(반대 : 0.0%).

<그림 2-2-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특성별 분석]

- ▷ 한·미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하', 직업별로 '기능/숙련공', 생활수준이 '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3>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사회 및 문화 협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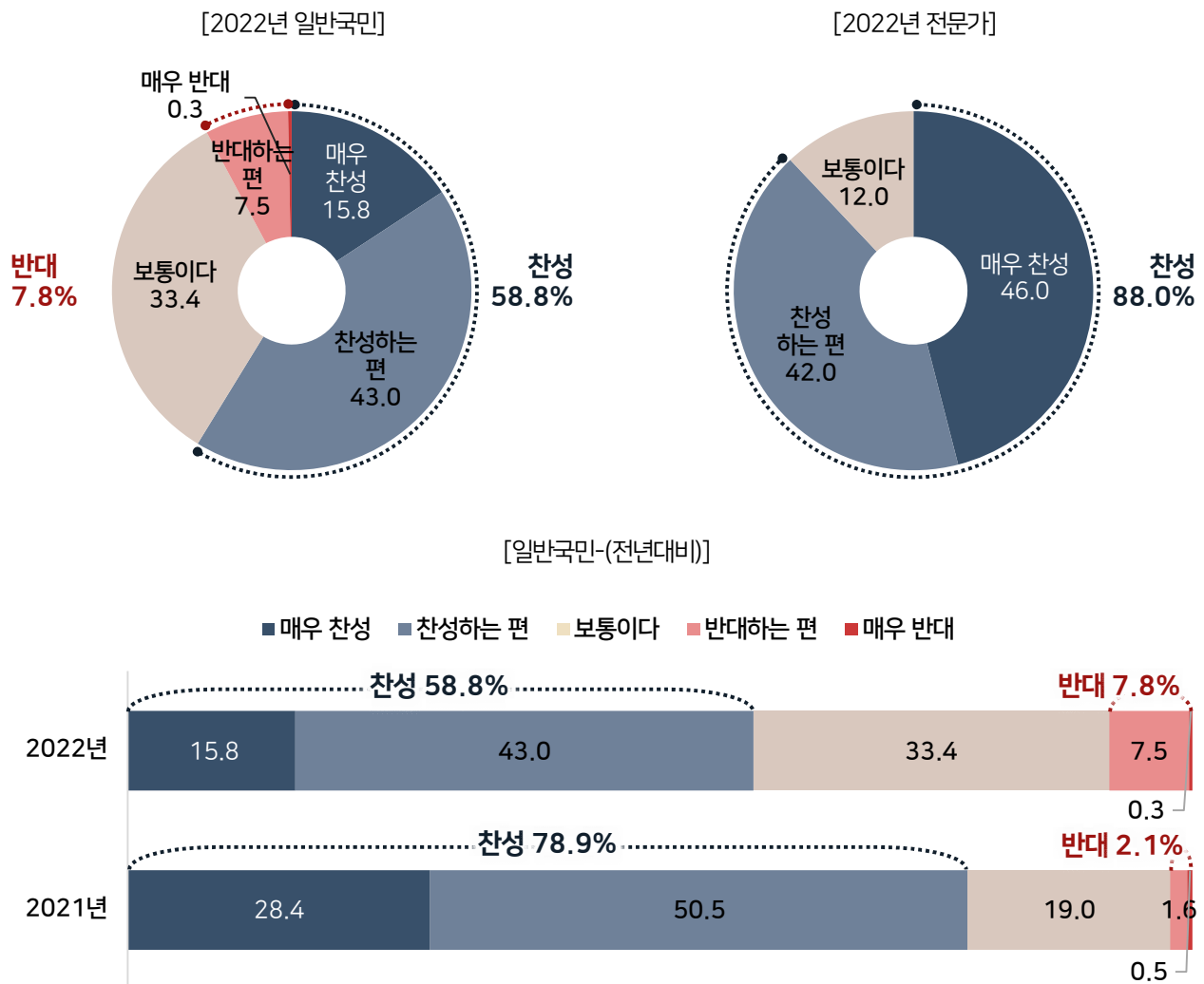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1.9	44.5	35.2	7.8	0.6	56.4	35.2	8.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7	45.3	36.0	8.4	0.7	54.9	36.0	9.1
	전문가	100	39.0	35.0	26.0	-	-	74.0	26.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2.0	45.9	33.0	8.0	1.1	58.0	33.0	9.1
	중	570	9.1	47.7	36.1	6.8	0.2	56.8	36.1	7.0
	하	190	5.8	36.3	42.6	14.2	1.1	42.1	42.6	15.3
성별	남성	720	9.0	46.4	35.1	8.8	0.7	55.4	35.1	9.4
	여성	480	10.6	43.5	37.3	7.9	0.6	54.2	37.3	8.5
연령별	20대 이하	227	10.6	49.8	30.4	9.3	0.0	60.4	30.4	9.3
	30대	193	7.8	44.6	40.4	7.3	0.0	52.3	40.4	7.3
	40대	247	11.3	42.5	36.8	8.1	1.2	53.8	36.8	9.3
	50대	254	9.1	43.7	36.2	9.1	2.0	52.8	36.2	11.0
	60대 이상	279	9.3	45.9	36.6	8.2	0.0	55.2	36.6	8.2
지역별	서울	225	6.7	49.3	31.6	12.0	0.4	56.0	31.6	12.4
	경기/인천	386	15.8	41.7	31.6	10.4	0.5	57.5	31.6	10.9
	부산/울산/경남	179	7.8	44.7	40.8	6.7	0.0	52.5	40.8	6.7
	대구/경북	121	5.0	47.9	40.5	5.8	0.8	52.9	40.5	6.6
	광주/전라	114	7.0	51.8	28.1	10.5	2.6	58.8	28.1	13.2
	대전/충청/세종	127	5.5	40.2	53.5	0.8	0.0	45.7	53.5	0.8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0.4	47.9	35.4	4.2	2.1	58.3	35.4	6.3
	대도시	526	9.5	43.5	37.6	8.6	0.8	53.0	37.6	9.3
	중소도시	629	10.2	46.6	34.0	8.7	0.5	56.8	34.0	9.2
직업별	읍/면	45	4.4	46.7	44.4	2.2	2.2	51.1	44.4	4.4
	농/어/임업	45	2.2	44.4	48.9	2.2	2.2	46.7	48.9	4.4
	자영업자	165	7.3	46.7	35.8	8.5	1.8	53.9	35.8	10.3
	판매/서비스직	236	11.9	44.5	34.3	9.3	0.0	56.4	34.3	9.3
	기능/숙련공	104	8.7	38.5	35.6	16.3	1.0	47.1	35.6	17.3
	일반 노무직	50	6.0	40.0	50.0	4.0	0.0	46.0	50.0	4.0
	사무/기술직	304	11.2	46.4	33.6	7.9	1.0	57.6	33.6	8.9
	경영/관리직	12	33.3	33.3	33.3	0.0	0.0	66.7	33.3	0.0
	전문/자유직	12	8.3	66.7	25.0	0.0	0.0	75.0	25.0	0.0
	전업주부	176	10.2	46.6	34.7	8.5	0.0	56.8	34.7	8.5
	학생	47	8.5	57.4	31.9	2.1	0.0	66.0	31.9	2.1
	무직/휴직/은퇴	40	5.0	42.5	40.0	12.5	0.0	47.5	40.0	12.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22.2	77.8	0.0	0.0	22.2	77.8	0.0
	중졸 이하	55	7.3	43.6	38.2	10.9	0.0	50.9	38.2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9.6	40.4	40.0	9.2	0.9	50.0	40.0	10.0
	전문대(중퇴/졸업)	269	12.6	46.1	32.7	8.2	0.4	58.7	32.7	8.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3	50.0	34.1	7.1	0.5	58.3	34.1	7.6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62.5	0.0	25.0	12.5	62.5	0.0	37.5
	상	62	8.1	50.0	25.8	14.5	1.6	58.1	25.8	16.1
	중	565	9.9	48.0	34.2	7.6	0.4	57.9	34.2	8.0
	하	573	9.6	42.1	38.9	8.6	0.9	51.7	38.9	9.4

4)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향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8.8%, 전문가 8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7.8%)는 응답보다 51.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20.1%p(2021년 78.9%)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5.7%p(2021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향후 한·미가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8.0%로 높게 나타남(반대 : 0.0%).

<그림 2-2-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특성별 분석]

- ▷ 한·미가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하자는 의견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서울'에서 높게 나타남.

<표 2-2-4>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 세계 문제에 공동 대처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18.1	42.9	31.8	6.9	0.3	61.0	31.8	7.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8	43.0	33.4	7.5	0.3	58.8	33.4	7.8
	전문가	100	46.0	42.0	12.0	-	-	88.0	12.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9.5	45.5	27.3	7.3	0.5	65.0	27.3	7.7
	중	570	15.3	42.8	35.1	6.7	0.2	58.1	35.1	6.8
	하	190	8.4	37.9	42.6	10.5	0.5	46.3	42.6	11.1
성별	남성	720	15.6	42.9	33.1	8.2	0.3	58.5	33.1	8.5
	여성	480	16.0	43.1	34.0	6.5	0.4	59.2	34.0	6.9
연령별	20대 이하	227	10.6	47.1	32.2	10.1	0.0	57.7	32.2	10.1
	30대	193	15.5	46.6	29.5	7.8	0.5	62.2	29.5	8.3
	40대	247	16.2	45.7	33.6	4.5	0.0	61.9	33.6	4.5
	50대	254	16.1	38.2	37.4	7.5	0.8	54.3	37.4	8.3
	60대 이상	279	19.4	39.1	33.3	7.9	0.4	58.4	33.3	8.2
지역별	서울	225	10.2	44.4	33.3	12.0	0.0	54.7	33.3	12.0
	경기/인천	386	19.7	41.5	29.3	8.8	0.8	61.1	29.3	9.6
	부산/울산/경남	179	24.6	36.9	30.7	7.8	0.0	61.5	30.7	7.8
	대구/경북	121	5.8	52.1	40.5	1.7	0.0	57.9	40.5	1.7
	광주/전라	114	20.2	42.1	26.3	10.5	0.9	62.3	26.3	11.4
	대전/충청/세종	127	4.7	44.9	49.6	0.8	0.0	49.6	49.6	0.8
	강원/제주	48	20.8	45.8	33.3	0.0	0.0	66.7	33.3	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15.2	46.0	31.2	7.2	0.4	61.2	31.2	7.6
	중소도시	629	16.7	39.9	35.3	7.8	0.3	56.6	35.3	8.1
	읍/면	45	8.9	51.1	33.3	6.7	0.0	60.0	33.3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11.1	35.6	42.2	11.1	0.0	46.7	42.2	11.1
	자영업자	165	16.4	45.5	32.1	6.1	0.0	61.8	32.1	6.1
	판매/서비스직	236	12.7	41.9	34.7	10.2	0.4	54.7	34.7	10.6
	기능/숙련공	104	17.3	35.6	34.6	11.5	1.0	52.9	34.6	12.5
	일반 노무직	50	26.0	24.0	46.0	4.0	0.0	50.0	46.0	4.0
	사무/기술직	304	17.4	47.7	27.6	6.9	0.3	65.1	27.6	7.2
	경영/관리직	12	33.3	33.3	16.7	16.7	0.0	66.7	16.7	16.7
	전문/자유직	12	16.7	50.0	25.0	8.3	0.0	66.7	25.0	8.3
	전업주부	176	13.6	47.2	36.4	2.3	0.6	60.8	36.4	2.8
	학생	47	8.5	48.9	36.2	6.4	0.0	57.4	36.2	6.4
	무직/휴직/은퇴	40	17.5	37.5	32.5	12.5	0.0	55.0	32.5	12.5
	기타	9	22.2	11.1	55.6	11.1	0.0	33.3	55.6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6.4	27.3	50.9	5.5	0.0	43.6	50.9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4.8	39.5	36.9	8.3	0.4	54.4	36.9	8.7
	전문대(중퇴/졸업)	269	17.5	45.0	29.7	7.4	0.4	62.5	29.7	7.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5.6	47.3	29.8	7.1	0.2	62.9	29.8	7.3
	대학원 이상	8	12.5	62.5	25.0	0.0	0.0	75.0	25.0	0.0
생활 수준별	상	62	21.0	41.9	27.4	9.7	0.0	62.9	27.4	9.7
	중	565	19.8	44.4	29.4	6.2	0.2	64.2	29.4	6.4
	하	573	11.2	41.7	38.0	8.6	0.5	52.9	38.0	9.1

3.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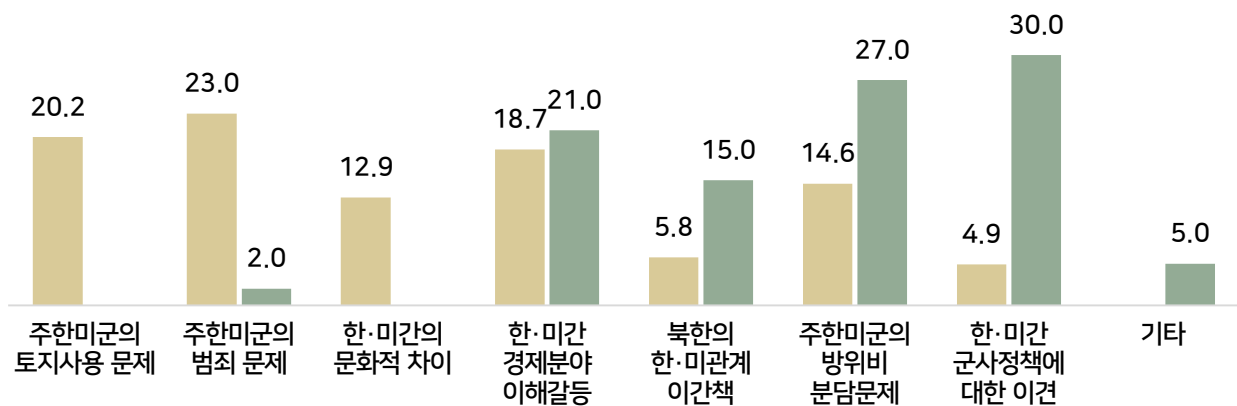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일반국민은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23.0%), 전문가는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3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가 2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20.2%),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1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는 13.1%p(2021년 7.1%) 증가하였고,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는 11.0%p(2021년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이 3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27.0%),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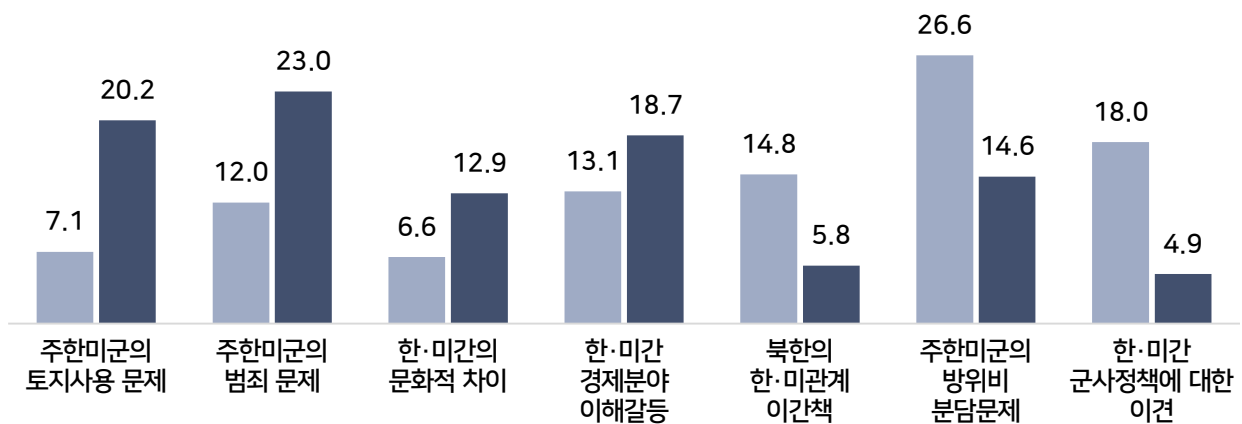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최종 학력별로 '중졸 이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3> 한·미 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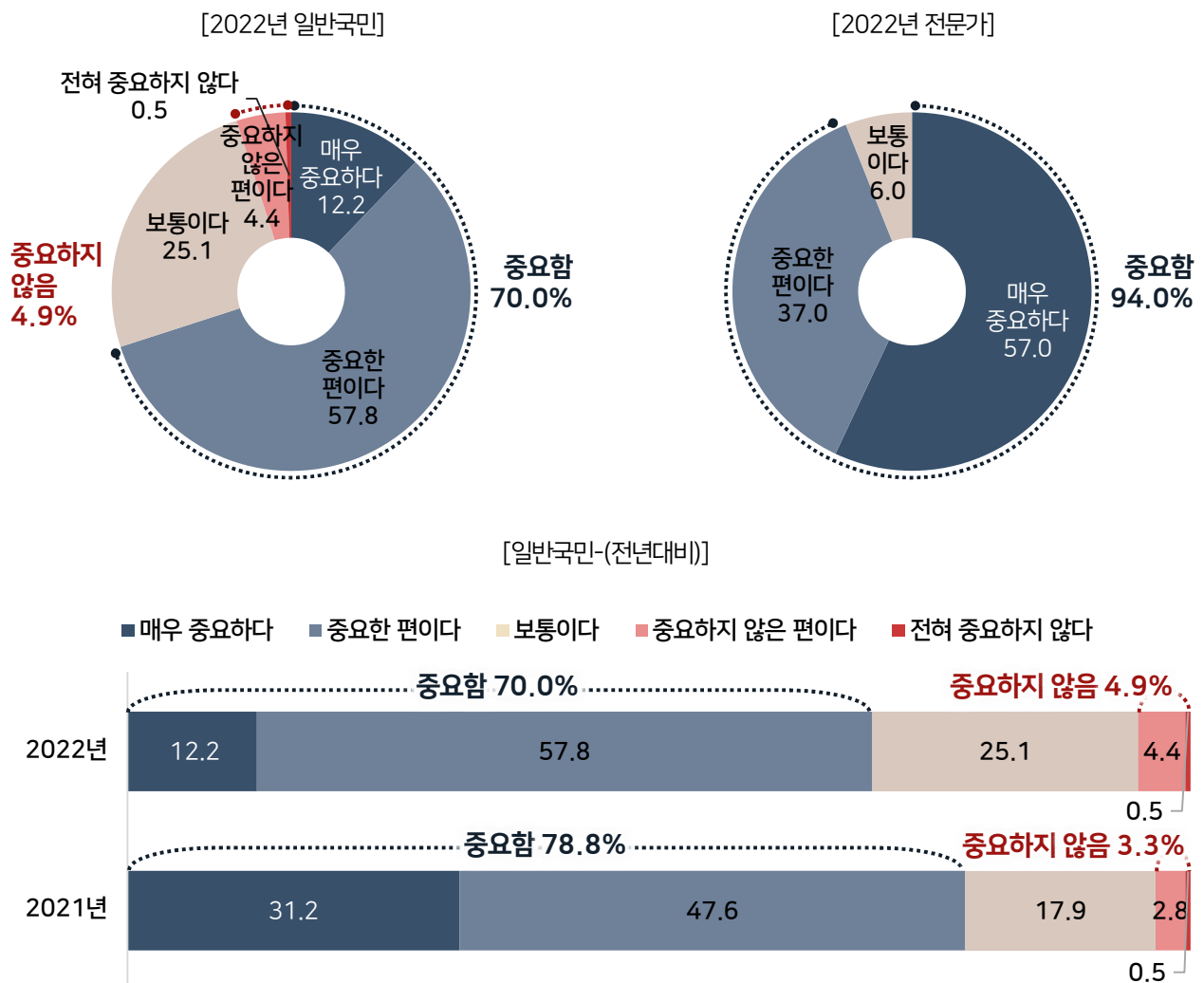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기타
전체		1,300	18.6	21.4	11.9	18.8	6.5	15.5	6.8	0.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2	23.0	12.9	18.7	5.8	14.6	4.9	-
	전문가	100	-	2.0	-	21.0	15.0	27.0	30.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2.3	23.2	11.4	19.5	5.5	12.5	5.7	-
	중	570	20.9	21.9	11.1	19.6	6.3	16.0	4.2	-
	하	190	13.2	25.8	22.1	13.7	4.7	15.3	5.3	-
성별	남성	720	20.7	21.8	12.9	20.0	5.4	13.9	5.3	-
	여성	480	19.4	24.8	12.9	16.7	6.3	15.6	4.4	-
연령별	20대 이하	227	16.3	23.8	10.1	18.9	9.7	15.0	6.2	-
	30대	193	22.3	22.8	13.0	21.2	5.2	12.4	3.1	-
	40대	247	20.2	21.9	13.4	17.8	5.7	16.6	4.5	-
	50대	254	22.4	22.8	11.8	17.3	4.3	15.0	6.3	-
	60대 이상	279	19.7	23.7	15.8	18.6	4.3	13.6	4.3	-
지역별	서울	225	19.6	17.8	12.4	20.4	4.9	20.4	4.4	-
	경기/인천	386	18.9	23.1	14.5	18.4	7.0	14.5	3.6	-
	부산/울산/경남	179	25.1	27.9	6.7	22.9	1.7	10.6	5.0	-
	대구/경북	121	27.3	16.5	10.7	16.5	6.6	13.2	9.1	-
	광주/전라	114	17.5	19.3	10.5	14.9	7.9	24.6	5.3	-
	대전/충청/세종	127	17.3	37.0	22.0	12.6	5.5	4.7	0.8	-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0.4	16.7	12.5	27.1	8.3	8.3	16.7	-
	대도시	526	20.7	21.3	10.6	17.3	4.6	19.8	5.7	-
	중소도시	629	20.0	24.3	15.4	19.1	7.0	10.3	3.8	-
	읍/면	45	15.6	24.4	4.4	28.9	2.2	13.3	11.1	-
직업별	농/어/임업	45	17.8	26.7	24.4	13.3	6.7	2.2	8.9	-
	자영업자	165	21.2	20.6	11.5	17.0	5.5	17.6	6.7	-
	판매/서비스직	236	23.7	25.0	8.9	20.8	4.2	11.9	5.5	-
	기능/숙련공	104	26.0	23.1	13.5	18.3	6.7	10.6	1.9	-
	일반 노무직	50	16.0	26.0	12.0	20.0	4.0	14.0	8.0	-
	사무/기술직	304	16.1	20.1	14.5	20.7	6.6	17.4	4.6	-
	경영/관리직	12	8.3	16.7	8.3	16.7	8.3	33.3	8.3	-
	전문/자유직	12	16.7	16.7	0.0	16.7	25.0	16.7	8.3	-
	전업주부	176	18.2	25.6	13.6	18.2	4.0	17.6	2.8	-
	학생	47	27.7	23.4	12.8	12.8	6.4	12.8	4.3	-
	무직/휴직/은퇴	40	25.0	20.0	22.5	17.5	7.5	2.5	5.0	-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55.6	0.0	0.0	11.1	22.2	0.0	-
	중졸 이하	55	20.0	34.5	10.9	21.8	1.8	9.1	1.8	-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3.8	25.5	13.5	16.4	5.0	11.1	4.6	-
	전문대(중퇴/졸업)	269	18.2	21.6	14.1	18.2	8.9	14.1	4.8	-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7.1	19.5	12.0	21.5	5.1	19.3	5.6	-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37.5	25.0	0.0	0.0	0.0	25.0	12.5	-
	상	62	19.4	14.5	12.9	24.2	1.6	22.6	4.8	-
	중	565	18.8	23.2	12.0	19.3	6.4	14.7	5.7	-
	하	573	21.6	23.7	13.8	17.5	5.6	13.6	4.2	-

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0.0%, 전문가 9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중요하지 않다'(4.9%)보다 65.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중요하다'는 8.8%p(2021년 78.8%) 감소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1.6%p(2021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남(중요하지 않다 : 0.0%).
- ▶ 지속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주한 미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2-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2-4>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300	15.6	56.2	23.6	4.1	0.5	71.8	23.6	4.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2	57.8	25.1	4.4	0.5	70.0	25.1	4.9
	전문가	100	57.0	37.0	6.0	-	-	94.0	6.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3	62.0	20.0	3.4	0.2	76.4	20.0	3.6
	중	570	10.7	57.9	27.7	3.5	0.2	68.6	27.7	3.7
	하	190	11.6	47.9	28.9	9.5	2.1	59.5	28.9	11.6
성별	남성	720	11.8	58.9	24.4	4.3	0.6	70.7	24.4	4.9
	여성	480	12.7	56.3	26.0	4.6	0.4	69.0	26.0	5.0
연령별	20대 이하	227	9.3	60.8	25.6	4.4	0.0	70.0	25.6	4.4
	30대	193	11.9	61.1	21.8	4.7	0.5	73.1	21.8	5.2
	40대	247	11.3	56.7	27.1	4.0	0.8	68.0	27.1	4.9
	50대	254	10.6	59.8	25.2	3.5	0.8	70.5	25.2	4.3
	60대 이상	279	16.8	52.3	25.1	5.4	0.4	69.2	25.1	5.7
지역별	서울	225	8.9	64.9	21.3	4.9	0.0	73.8	21.3	4.9
	경기/인천	386	16.6	49.0	29.3	4.7	0.5	65.5	29.3	5.2
	부산/울산/경남	179	5.0	72.1	16.2	5.0	1.7	77.1	16.2	6.7
	대구/경북	121	20.7	48.8	28.9	1.7	0.0	69.4	28.9	1.7
	광주/전라	114	14.0	61.4	16.7	7.9	0.0	75.4	16.7	7.9
	대전/충청/세종	127	2.4	59.8	35.4	2.4	0.0	62.2	35.4	2.4
	강원/제주	48	18.8	52.1	25.0	2.1	2.1	70.8	25.0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12.9	59.1	22.4	4.8	0.8	72.1	22.4	5.5
	중소도시	629	11.9	57.1	26.4	4.3	0.3	69.0	26.4	4.6
	읍/면	45	6.7	53.3	37.8	2.2	0.0	60.0	37.8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8.9	46.7	0.0	0.0	53.3	46.7	0.0
	자영업자	165	18.2	54.5	23.6	3.0	0.6	72.7	23.6	3.6
	판매/서비스직	236	10.2	59.7	25.4	4.7	0.0	69.9	25.4	4.7
	기능/숙련공	104	4.8	58.7	26.0	8.7	1.9	63.5	26.0	10.6
	일반 노무직	50	22.0	42.0	30.0	6.0	0.0	64.0	30.0	6.0
	사무/기술직	304	9.2	65.8	20.1	3.9	1.0	75.0	20.1	4.9
	경영/관리직	12	16.7	41.7	41.7	0.0	0.0	58.3	41.7	0.0
	전문/자유직	12	16.7	58.3	16.7	8.3	0.0	75.0	16.7	8.3
	전업주부	176	17.0	52.3	26.1	4.5	0.0	69.3	26.1	4.5
	학생	47	17.0	66.0	14.9	2.1	0.0	83.0	14.9	2.1
	무직/휴직/은퇴	40	10.0	50.0	35.0	5.0	0.0	60.0	35.0	5.0
	기타	9	0.0	44.4	44.4	11.1	0.0	44.4	44.4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4.5	49.1	29.1	7.3	0.0	63.6	29.1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1.1	54.6	29.7	4.4	0.2	65.7	29.7	4.6
	전문대(중퇴/졸업)	269	11.9	62.1	22.7	2.6	0.7	74.0	22.7	3.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9	59.8	21.5	5.4	0.5	72.7	21.5	5.9
	대학원 이상	8	25.0	62.5	0.0	0.0	12.5	87.5	0.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6.1	51.6	21.0	8.1	3.2	67.7	21.0	11.3
	중	565	11.3	63.0	21.4	3.9	0.4	74.3	21.4	4.2
	하	573	12.6	53.4	29.1	4.5	0.3	66.0	29.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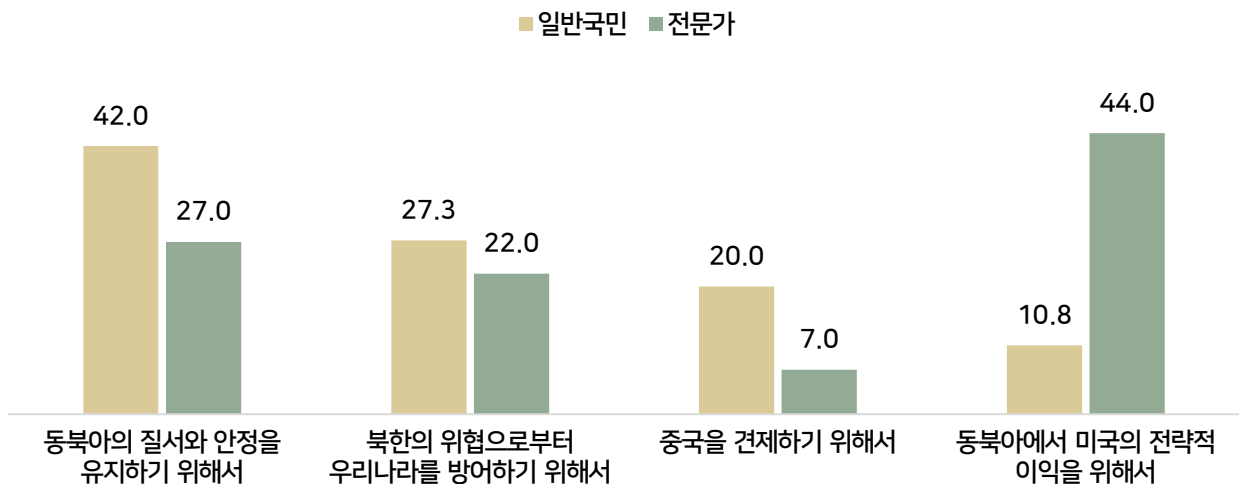
5. 주한미군 주둔 이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42.0%)가 가장 높고,
 전문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44.0%)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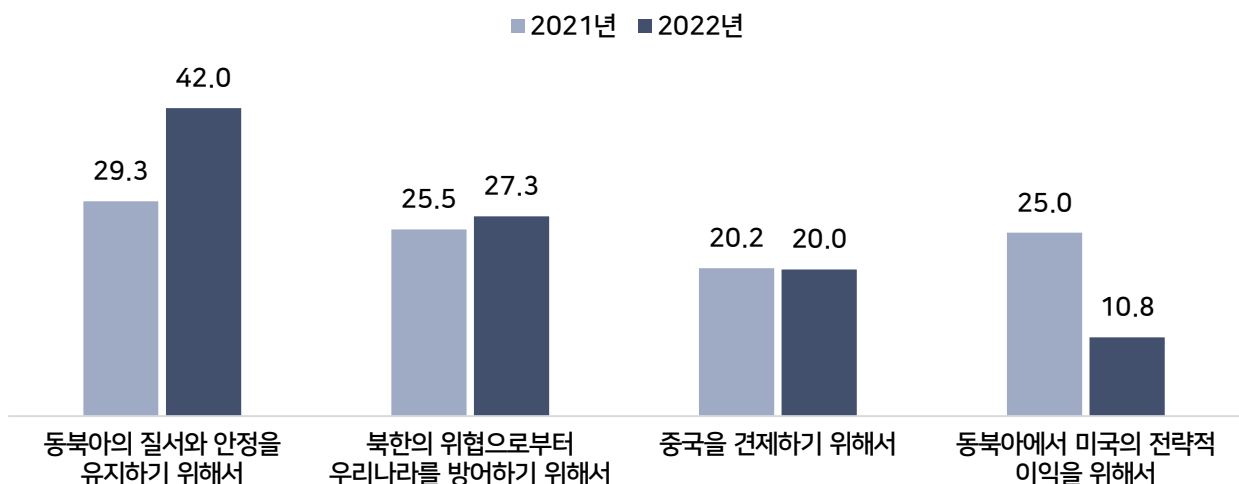
- ▶ **[일반국민]**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2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2.7%p(2021년 29.3%),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1.8%p(2021년 25.5%) 증가하였음.
- ▶ **[전문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가 4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주한미군 주둔 이유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5> 주한미군 주둔 이유

단위[%]		사례수 (명)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		1,300	40.8	26.8	19.0	13.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0	27.3	20.0	10.8
	전문가	100	27.0	22.0	7.0	4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3.0	27.5	19.3	10.2
	중	570	42.6	27.2	19.8	10.4
	하	190	37.9	26.8	22.1	13.2
성별	남성	720	42.6	26.5	19.4	11.4
	여성	480	41.0	28.3	20.8	9.8
연령별	20대 이하	227	42.7	23.8	18.9	14.5
	30대	193	42.0	22.3	23.3	12.4
	40대	247	42.5	25.5	19.4	12.6
	50대	254	40.9	29.5	22.0	7.5
	60대 이상	279	41.9	33.0	17.2	7.9
지역별	서울	225	43.1	22.7	23.6	10.7
	경기/인천	386	41.2	23.8	22.5	12.4
	부산/울산/경남	179	25.1	48.0	16.2	10.6
	대구/경북	121	30.6	28.9	30.6	9.9
	광주/전라	114	65.8	16.7	4.4	13.2
	대전/충청/세종	127	62.2	18.9	16.5	2.4
	강원/제주	48	25.0	41.7	16.7	16.7
지역크기	대도시	526	37.6	27.8	21.5	13.1
	중소도시	629	45.0	27.5	18.9	8.6
	읍/면	45	51.1	17.8	17.8	13.3
직업별	농/어/임업	45	64.4	15.6	13.3	6.7
	자영업자	165	37.6	30.3	23.6	8.5
	판매/서비스직	236	45.3	27.5	17.4	9.7
	기능/숙련공	104	34.6	32.7	22.1	10.6
	일반 노무직	50	38.0	34.0	18.0	10.0
	사무/기술직	304	42.4	21.7	22.7	13.2
	경영/관리직	12	66.7	16.7	16.7	0.0
	전문/자유직	12	25.0	33.3	16.7	25.0
	전업주부	176	39.8	31.8	17.6	10.8
	학생	47	42.6	34.0	8.5	14.9
	무직/휴직/은퇴	40	42.5	22.5	27.5	7.5
	기타	9	44.4	11.1	33.3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4.5	36.4	21.8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2.8	28.6	20.1	8.5
	전문대(중퇴/졸업)	269	41.6	30.1	17.5	10.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2.4	22.4	21.5	13.7
	대학원 이상	8	37.5	37.5	12.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41.9	24.2	22.6	11.3
	중	565	43.4	25.0	18.2	13.5
	하	573	40.7	29.8	21.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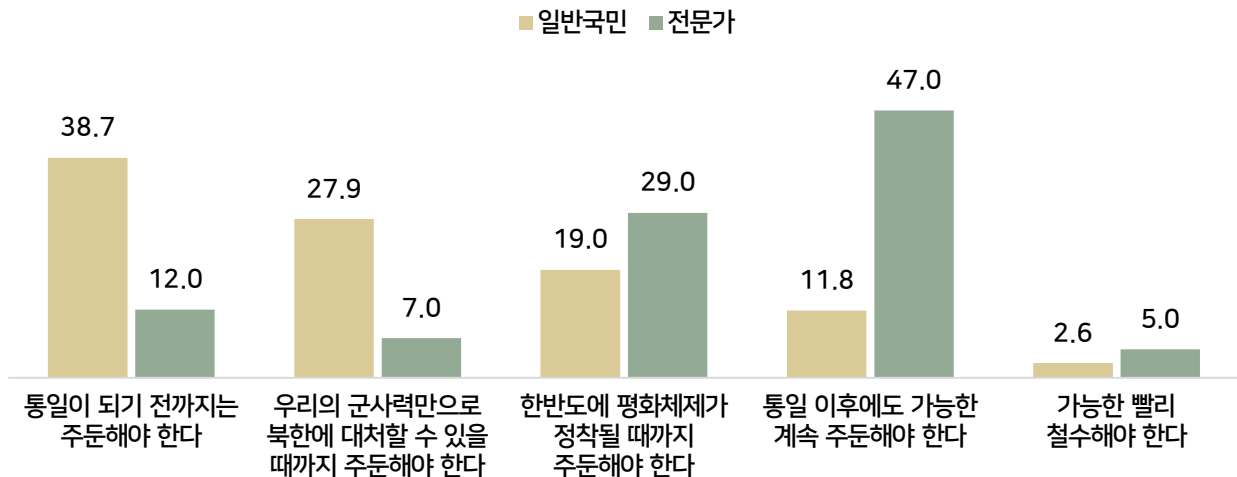
6. 주한미군 주둔시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38.7%), 전문가는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47.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13.2%p(2021년 25.5%),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3.1%p(2021년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가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9.0%),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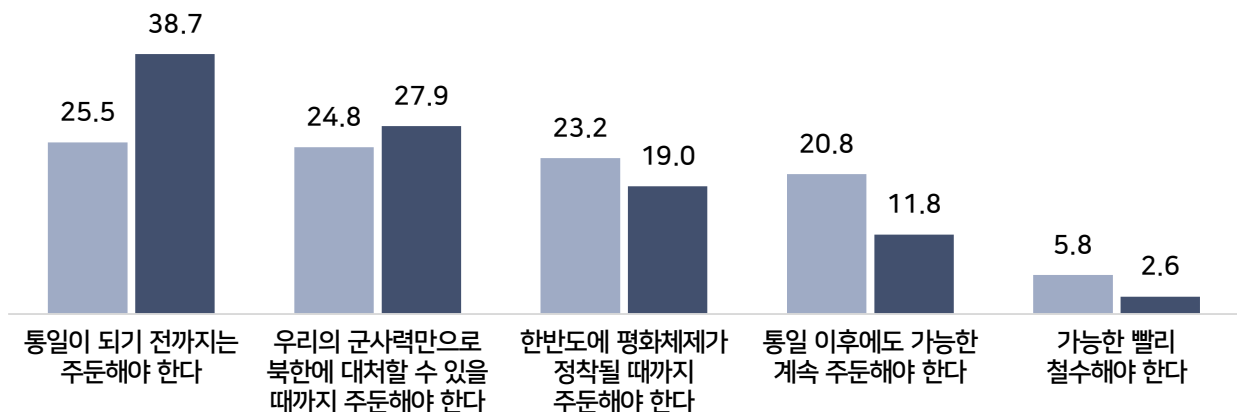
<그림 2-6> 주한미군 주둔 시기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6> 주한미군 주둔 시기

단위[%]		사례수 (명)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전체		1,300	36.6	26.3	19.8	14.5	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7	27.9	19.0	11.8	2.6
	전문가	100	12.0	7.0	29.0	47.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6.4	19.1	16.1	14.1	4.3
	중	570	35.6	30.4	21.9	10.5	1.6
	하	190	30.0	41.1	16.8	10.5	1.6
성별	남성	720	40.8	28.1	17.2	11.4	2.5
	여성	480	35.4	27.7	21.7	12.5	2.7
연령별	20대 이하	227	31.7	31.3	19.8	11.9	5.3
	30대	193	45.1	23.3	18.1	12.4	1.0
	40대	247	40.1	28.3	15.4	13.4	2.8
	50대	254	42.5	25.2	20.9	10.6	0.8
	60대 이상	279	35.1	30.5	20.4	11.1	2.9
지역별	서울	225	38.2	27.6	23.6	8.4	2.2
	경기/인천	386	37.6	31.3	21.0	7.8	2.3
	부산/울산/경남	179	43.6	29.1	11.2	15.6	0.6
	대구/경북	121	37.2	33.9	10.7	17.4	0.8
	광주/전라	114	36.0	21.1	22.8	10.5	9.6
	대전/충청/세종	127	47.2	16.5	15.0	19.7	1.6
	강원/제주	48	18.8	29.2	33.3	14.6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36.5	26.2	19.8	15.0	2.5
	중소도시	629	40.9	29.6	17.3	9.9	2.4
	읍/면	45	33.3	24.4	33.3	2.2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42.2	33.3	13.3	6.7	4.4
	자영업자	165	37.0	26.7	20.0	13.9	2.4
	판매/서비스직	236	46.2	26.7	12.3	13.6	1.3
	기능/숙련공	104	41.3	32.7	16.3	8.7	1.0
	일반 노무직	50	40.0	30.0	16.0	6.0	8.0
	사무/기술직	304	38.2	25.0	21.7	11.2	3.9
	경영/관리직	12	25.0	16.7	33.3	16.7	8.3
	전문/자유직	12	33.3	33.3	16.7	16.7	0.0
	전업주부	176	32.4	30.7	23.3	12.5	1.1
	학생	47	29.8	25.5	23.4	19.1	2.1
	무직/휴직/은퇴	40	37.5	27.5	25.0	7.5	2.5
	기타	9	33.3	55.6	11.1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41.8	30.9	14.5	9.1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7.6	29.9	17.5	12.9	2.2
	전문대(중퇴/졸업)	269	43.5	25.3	17.8	11.9	1.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6.6	27.3	22.2	10.5	3.4
	대학원 이상	8	25.0	12.5	12.5	37.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33.9	17.7	35.5	9.7	3.2
	중	565	36.1	28.7	21.4	11.9	1.9
	하	573	41.7	28.3	14.8	12.0	3.1

7. 주한미군 관련 의견

1)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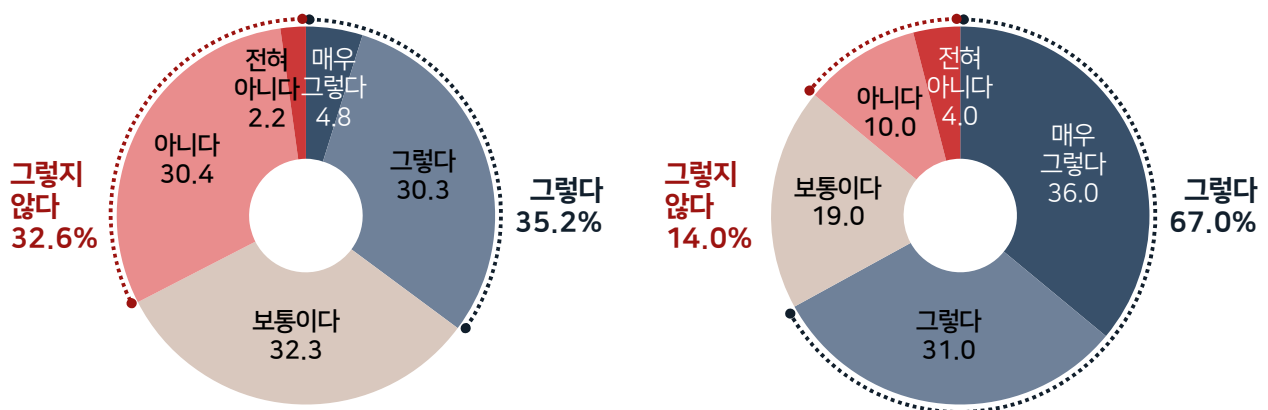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5.2%, 전문가 6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5.2%로, ‘그렇지 않다’(32.6%)는 응답보다 2.6%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3.9%p(2021년 39.1%)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7.6%p(2021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7.0%로, ‘그렇지 않다’(14.0%)보다 53.0%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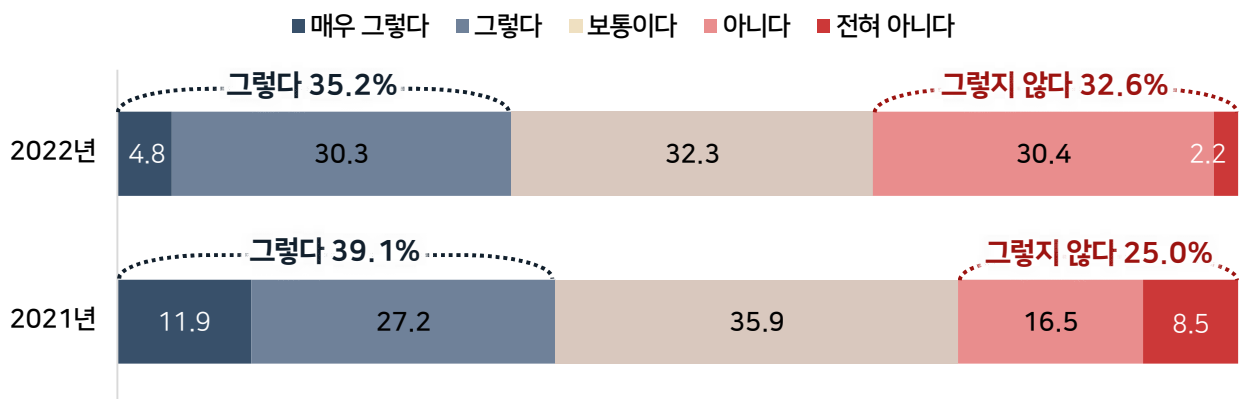
<그림 2-7-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7-1>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7.2	30.4	31.2	28.8	2.3	37.6	31.2	31.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8	30.3	32.3	30.4	2.2	35.2	32.3	32.6
	전문가	100	36.0	31.0	19.0	10.0	4.0	67.0	19.0	1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9	33.2	28.2	28.4	4.3	39.1	28.2	32.7
	중	570	3.7	31.2	34.2	29.8	1.1	34.9	34.2	30.9
	하	190	5.8	21.1	35.8	36.8	0.5	26.8	35.8	37.4
성별	남성	720	5.6	31.0	31.9	29.4	2.1	36.5	31.9	31.5
	여성	480	3.8	29.4	32.7	31.9	2.3	33.1	32.7	34.2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26.9	31.7	34.8	1.8	31.7	31.7	36.6
	30대	193	5.2	28.5	34.7	29.5	2.1	33.7	34.7	31.6
	40대	247	4.0	33.6	31.6	27.9	2.8	37.7	31.6	30.8
	50대	254	4.7	31.5	30.7	30.7	2.4	36.2	30.7	33.1
	60대 이상	279	5.4	30.5	33.0	29.4	1.8	35.8	33.0	31.2
지역별	서울	225	4.9	18.7	32.9	42.2	1.3	23.6	32.9	43.6
	경기/인천	386	7.3	38.6	21.8	31.6	0.8	45.9	21.8	32.4
	부산/울산/경남	179	1.7	29.1	57.0	12.3	0.0	30.7	57.0	12.3
	대구/경북	121	12.4	38.0	30.6	17.4	1.7	50.4	30.6	19.0
	광주/전라	114	0.0	28.1	28.9	35.1	7.9	28.1	28.9	43.0
	대전/충청/세종	127	0.0	27.6	29.1	40.9	2.4	27.6	29.1	43.3
	강원/제주	48	2.1	16.7	41.7	27.1	12.5	18.8	41.7	39.6
지역크기	대도시	526	6.7	27.4	32.3	31.6	2.1	34.0	32.3	33.7
	중소도시	629	3.7	33.9	31.0	29.3	2.2	37.5	31.0	31.5
	읍/면	45	0.0	15.6	48.9	33.3	2.2	15.6	48.9	35.6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17.8	37.8	40.0	2.2	20.0	37.8	42.2
	자영업자	165	5.5	24.2	35.8	30.9	3.6	29.7	35.8	34.5
	판매/서비스직	236	7.6	33.9	28.8	27.5	2.1	41.5	28.8	29.7
	기능/숙련공	104	3.8	36.5	35.6	23.1	1.0	40.4	35.6	24.0
	일반 노무직	50	6.0	40.0	24.0	30.0	0.0	46.0	24.0	30.0
	사무/기술직	304	3.0	30.9	32.2	31.3	2.6	33.9	32.2	33.9
	경영/관리직	12	8.3	33.3	8.3	50.0	0.0	41.7	8.3	50.0
	전문/자유직	12	0.0	33.3	25.0	41.7	0.0	33.3	25.0	41.7
	전업주부	176	4.5	26.7	33.5	33.5	1.7	31.3	33.5	35.2
	학생	47	4.3	19.1	27.7	44.7	4.3	23.4	27.7	48.9
	무직/휴직/은퇴	40	5.0	42.5	40.0	12.5	0.0	47.5	40.0	12.5
	기타	9	11.1	33.3	44.4	11.1	0.0	44.4	44.4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21.8	36.4	40.0	1.8	21.8	36.4	4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2	31.9	31.9	28.8	2.2	37.1	31.9	31.0
	전문대(중퇴/졸업)	269	5.9	36.8	30.9	26.0	0.4	42.8	30.9	26.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1	25.1	33.2	34.4	3.2	29.3	33.2	37.6
	대학원 이상	8	12.5	50.0	25.0	0.0	12.5	6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3.2	25.8	35.5	30.6	4.8	29.0	35.5	35.5
	중	565	3.9	29.9	35.2	28.7	2.3	33.8	35.2	31.0
	하	573	5.9	31.2	29.0	32.1	1.7	37.2	29.0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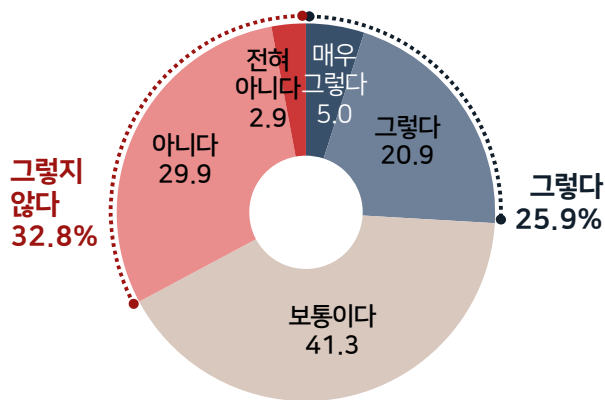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그렇지 않다’ 32.8%, 전문가는 ‘그렇다’ 4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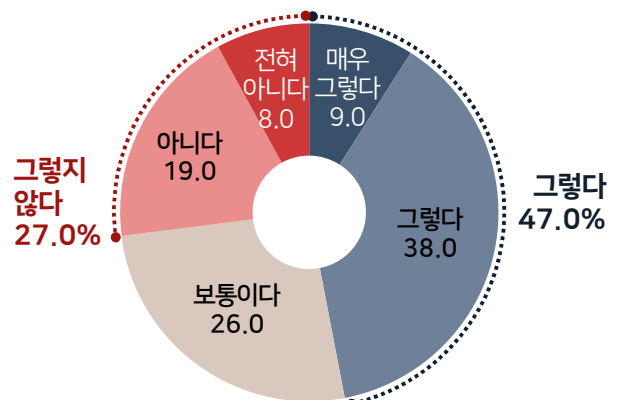
- ▶ **[일반국민]**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8%로, ‘그렇다’ (25.9%)는 응답보다 6.9%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7.0%로, ‘그렇지 않다’ (27.0%)보다 20.0%p 높게 나타남.

<그림 2-7-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7-2> 주한미군 관련 의견 -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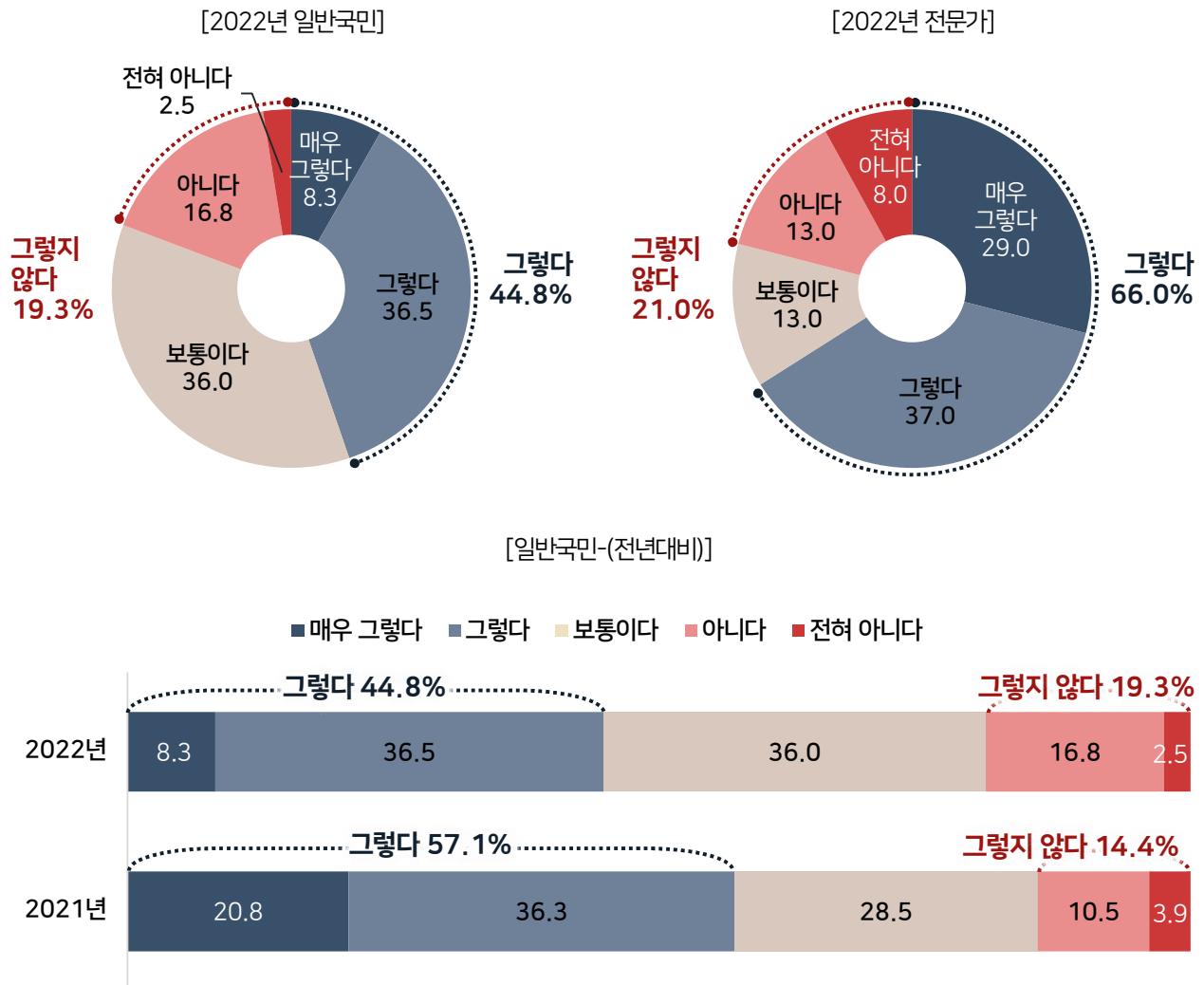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5.3	22.2	40.1	29.1	3.3	27.5	40.1	32.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0	20.9	41.3	29.9	2.9	25.9	41.3	32.8
	전문가	100	9.0	38.0	26.0	19.0	8.0	47.0	26.0	2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5	27.0	33.6	29.3	5.5	31.6	33.6	34.8
	중	570	5.6	17.7	44.0	31.4	1.2	23.3	44.0	32.6
	하	190	4.2	16.3	50.5	26.8	2.1	20.5	50.5	28.9
성별	남성	720	4.3	21.3	42.6	29.3	2.5	25.6	42.6	31.8
	여성	480	6.0	20.4	39.2	30.8	3.5	26.5	39.2	34.4
연령별	20대 이하	227	5.3	23.8	37.0	31.3	2.6	29.1	37.0	33.9
	30대	193	5.2	17.1	44.6	29.5	3.6	22.3	44.6	33.2
	40대	247	4.5	23.9	40.1	27.1	4.5	28.3	40.1	31.6
	50대	254	3.9	17.3	44.9	31.5	2.4	21.3	44.9	33.9
	60대 이상	279	6.1	21.9	40.1	30.1	1.8	28.0	40.1	31.9
지역별	서울	225	2.7	18.2	38.7	38.2	2.2	20.9	38.7	40.4
	경기/인천	386	8.3	24.6	35.2	30.6	1.3	32.9	35.2	31.9
	부산/울산/경남	179	0.0	14.0	47.5	38.5	0.0	14.0	47.5	38.5
	대구/경북	121	7.4	33.1	45.5	12.4	1.7	40.5	45.5	14.0
	광주/전라	114	4.4	21.9	43.9	15.8	14.0	26.3	43.9	29.8
	대전/충청/세종	127	6.3	14.2	46.5	30.7	2.4	20.5	46.5	33.1
	강원/제주	48	0.0	14.6	47.9	29.2	8.3	14.6	47.9	37.5
지역크기	대도시	526	3.0	22.8	38.4	33.1	2.7	25.9	38.4	35.7
	중소도시	629	6.8	19.6	42.8	28.0	2.9	26.4	42.8	30.8
	읍/면	45	2.2	17.8	53.3	20.0	6.7	20.0	53.3	26.7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15.6	51.1	22.2	4.4	22.2	51.1	26.7
	자영업자	165	2.4	23.0	41.2	30.9	2.4	25.5	41.2	33.3
	판매/서비스직	236	6.8	23.7	40.7	26.7	2.1	30.5	40.7	28.8
	기능/숙련공	104	2.9	18.3	46.2	27.9	4.8	21.2	46.2	32.7
	일반 노무직	50	12.0	12.0	44.0	30.0	2.0	24.0	44.0	32.0
	사무/기술직	304	5.3	19.7	42.1	28.0	4.9	25.0	42.1	32.9
	경영/관리직	12	8.3	25.0	25.0	41.7	0.0	33.3	25.0	41.7
	전문/자유직	12	8.3	16.7	33.3	41.7	0.0	25.0	33.3	41.7
	전업주부	176	4.5	21.0	39.2	34.1	1.1	25.6	39.2	35.2
	학생	47	2.1	25.5	29.8	42.6	0.0	27.7	29.8	42.6
	무직/휴직/은퇴	40	2.5	22.5	35.0	37.5	2.5	25.0	35.0	40.0
	기타	9	0.0	22.2	66.7	11.1	0.0	22.2	66.7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27.3	43.6	25.5	1.8	29.1	43.6	2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0	19.7	43.0	29.5	2.8	24.7	43.0	32.3
	전문대(중퇴/졸업)	269	5.9	26.4	39.8	26.8	1.1	32.3	39.8	27.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9	17.8	39.8	33.4	4.1	22.7	39.8	37.6
	대학원 이상	8	0.0	25.0	50.0	12.5	12.5	25.0	50.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6.5	12.9	40.3	38.7	1.6	19.4	40.3	40.3
	중	565	6.2	18.4	41.1	31.2	3.2	24.6	41.1	34.3
	하	573	3.7	24.3	41.5	27.7	2.8	27.9	41.5	30.5

3)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4.8%, 전문가 6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4.8%로, '그렇지 않다'(19.3%)는 응답보다 25.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12.3%p(2021년 57.1%)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4.9%p(2021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6.0%로, '그렇지 않다'(21.0%)보다 45.0%p 높게 나타남.

<그림 2-7-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대별로 '30대',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2-7-3>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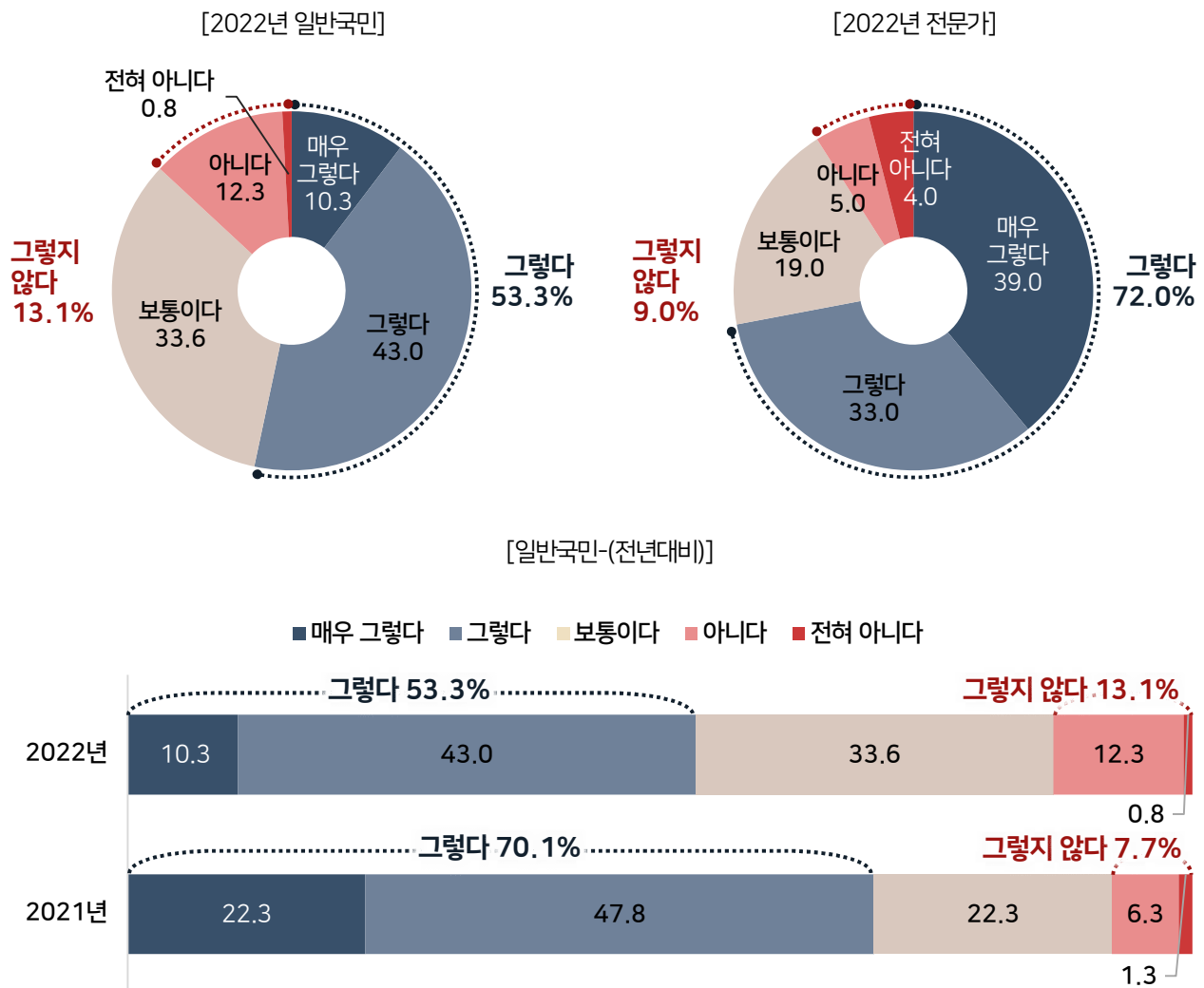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9.8	36.5	34.2	16.5	2.9	46.4	34.2	1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3	36.5	36.0	16.8	2.5	44.8	36.0	19.3
	전문가	100	29.0	37.0	13.0	13.0	8.0	66.0	13.0	2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0.0	34.3	32.5	18.4	4.8	44.3	32.5	23.2
	중	570	6.5	40.0	38.9	13.5	1.1	46.5	38.9	14.6
	하	190	9.5	31.1	35.3	22.6	1.6	40.5	35.3	24.2
성별	남성	720	9.3	34.2	36.1	18.8	1.7	43.5	36.1	20.4
	여성	480	6.7	40.0	35.8	13.8	3.8	46.7	35.8	17.5
연령별	20대 이하	227	9.3	31.3	37.4	19.8	2.2	40.5	37.4	22.0
	30대	193	6.2	43.5	30.6	17.1	2.6	49.7	30.6	19.7
	40대	247	8.9	34.4	39.7	13.4	3.6	43.3	39.7	17.0
	50대	254	8.7	33.1	36.6	19.7	2.0	41.7	36.6	21.7
	60대 이상	279	7.9	40.9	34.8	14.3	2.2	48.7	34.8	16.5
지역별	서울	225	3.6	43.6	33.3	17.8	1.8	47.1	33.3	19.6
	경기/인천	386	17.1	35.0	26.7	16.6	4.7	52.1	26.7	21.2
	부산/울산/경남	179	2.8	44.1	46.4	6.1	0.6	46.9	46.4	6.7
	대구/경북	121	9.1	39.7	38.8	12.4	0.0	48.8	38.8	12.4
	광주/전라	114	5.3	29.8	28.9	34.2	1.8	35.1	28.9	36.0
	대전/충청/세종	127	0.8	26.0	54.3	17.3	1.6	26.8	54.3	18.9
	강원/제주	48	4.2	22.9	45.8	20.8	6.3	27.1	45.8	27.1
지역크기	대도시	526	8.7	37.6	36.7	15.2	1.7	46.4	36.7	16.9
	중소도시	629	8.3	35.9	35.3	17.2	3.3	44.2	35.3	20.5
	읍/면	45	2.2	31.1	37.8	28.9	0.0	33.3	37.8	28.9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0.0	53.3	26.7	0.0	20.0	53.3	26.7
	자영업자	165	9.1	35.2	37.0	16.4	2.4	44.2	37.0	18.8
	판매/서비스직	236	9.7	39.0	34.3	14.8	2.1	48.7	34.3	16.9
	기능/숙련공	104	5.8	32.7	36.5	24.0	1.0	38.5	36.5	25.0
	일반 노무직	50	12.0	24.0	40.0	20.0	4.0	36.0	40.0	24.0
	사무/기술직	304	7.9	35.9	35.5	17.4	3.3	43.8	35.5	20.7
	경영/관리직	12	16.7	25.0	33.3	16.7	8.3	41.7	33.3	25.0
	전문/자유직	12	16.7	41.7	25.0	8.3	8.3	58.3	25.0	16.7
	전업주부	176	6.3	48.3	33.0	9.7	2.8	54.5	33.0	12.5
	학생	47	8.5	34.0	31.9	23.4	2.1	42.6	31.9	25.5
	무직/휴직/은퇴	40	15.0	27.5	40.0	17.5	0.0	42.5	40.0	17.5
	기타	9	0.0	44.4	44.4	11.1	0.0	44.4	44.4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0.9	36.4	41.8	7.3	3.6	47.3	41.8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9	36.5	36.5	19.4	1.7	42.4	36.5	21.2
	전문대(중퇴/졸업)	269	12.6	36.4	36.1	13.8	1.1	49.1	36.1	14.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7.8	36.6	34.6	17.1	3.9	44.4	34.6	21.0
	대학원 이상	8	0.0	37.5	37.5	12.5	12.5	37.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6	53.2	27.4	12.9	4.8	54.8	27.4	17.7
	중	565	9.2	34.5	34.7	17.9	3.7	43.7	34.7	21.6
	하	573	8.0	36.6	38.2	16.1	1.0	44.7	38.2	17.1

4)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3.3%, 전문가 7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3.3%로, ‘그렇지 않다’ (13.1%)는 응답보다 40.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16.8%p(2021년 70.1%)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5.4%p(2021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2.0%로, ‘그렇지 않다’ (9.0%)보다 63.0%p 높게 나타남.

<그림 2-7-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2-7-4> 주한미군 관련 의견 -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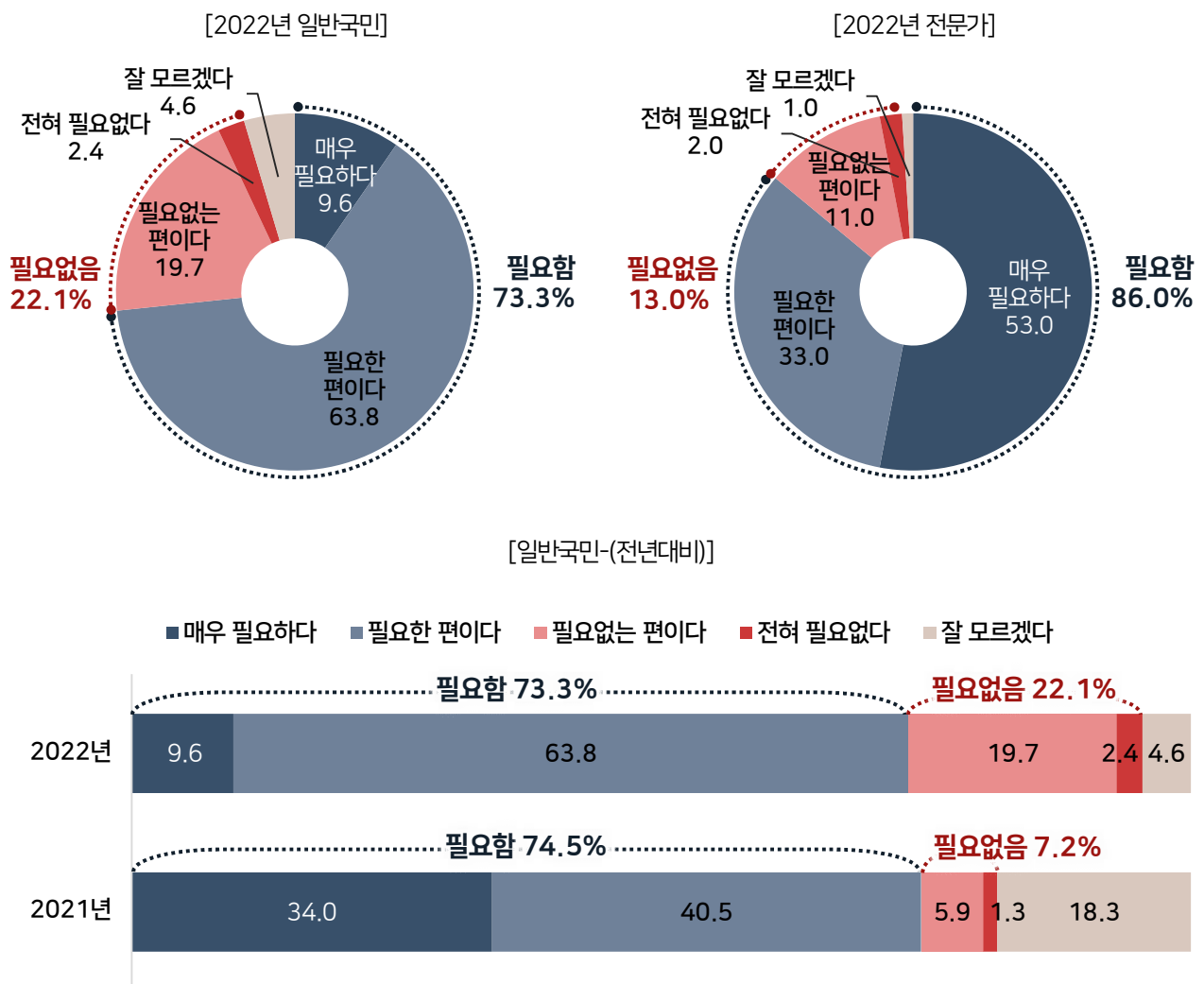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12.5	42.2	32.5	11.7	1.1	54.8	32.5	1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0.3	43.0	33.6	12.3	0.8	53.3	33.6	13.1
	전문가	100	39.0	33.0	19.0	5.0	4.0	72.0	19.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3.4	42.7	27.7	14.3	1.8	56.1	27.7	16.1
	중	570	8.4	44.6	36.8	10.0	0.2	53.0	36.8	10.2
	하	190	8.9	38.9	37.4	14.2	0.5	47.9	37.4	14.7
성별	남성	720	10.1	45.1	31.3	12.4	1.1	55.3	31.3	13.5
	여성	480	10.6	39.8	37.1	12.1	0.4	50.4	37.1	12.5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2	37.9	37.0	11.9	0.0	51.1	37.0	11.9
	30대	193	8.8	45.6	33.7	10.9	1.0	54.4	33.7	11.9
	40대	247	8.5	45.7	32.0	11.7	2.0	54.3	32.0	13.8
	50대	254	10.6	40.6	35.4	13.0	0.4	51.2	35.4	13.4
	60대 이상	279	10.4	45.2	30.5	13.3	0.7	55.6	30.5	14.0
지역별	서울	225	6.2	48.0	31.6	13.8	0.4	54.2	31.6	14.2
	경기/인천	386	19.9	37.8	31.1	10.6	0.5	57.8	31.1	11.1
	부산/울산/경남	179	2.2	54.2	35.2	8.4	0.0	56.4	35.2	8.4
	대구/경북	121	16.5	37.2	40.5	5.8	0.0	53.7	40.5	5.8
	광주/전라	114	3.5	34.2	34.2	25.4	2.6	37.7	34.2	28.1
	대전/충청/세종	127	0.8	47.2	37.8	14.2	0.0	48.0	37.8	14.2
	강원/제주	48	8.3	43.8	27.1	12.5	8.3	52.1	27.1	20.8
지역크기	대도시	526	11.0	46.4	31.4	11.0	0.2	57.4	31.4	11.2
	중소도시	629	10.2	41.2	33.7	13.5	1.4	51.4	33.7	14.9
	읍/면	45	4.4	28.9	57.8	8.9	0.0	33.3	57.8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8.9	44.4	24.4	0.0	31.1	44.4	24.4
	자영업자	165	8.5	47.9	34.5	7.9	1.2	56.4	34.5	9.1
	판매/서비스직	236	9.3	44.1	31.4	13.6	1.7	53.4	31.4	15.3
	기능/숙련공	104	8.7	46.2	26.9	17.3	1.0	54.8	26.9	18.3
	일반 노무직	50	8.0	30.0	44.0	16.0	2.0	38.0	44.0	18.0
	사무/기술직	304	9.2	42.8	34.9	12.5	0.7	52.0	34.9	13.2
	경영/관리직	12	33.3	8.3	33.3	25.0	0.0	41.7	33.3	25.0
	전문/자유직	12	25.0	50.0	25.0	0.0	0.0	75.0	25.0	0.0
	전업주부	176	12.5	45.5	33.0	9.1	0.0	58.0	33.0	9.1
	학생	47	21.3	40.4	31.9	6.4	0.0	61.7	31.9	6.4
	무직/휴직/은퇴	40	15.0	37.5	35.0	12.5	0.0	52.5	35.0	12.5
	기타	9	11.1	66.7	22.2	0.0	0.0	77.8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2.7	34.5	38.2	14.5	0.0	47.3	38.2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8.1	41.9	35.4	14.0	0.7	50.0	35.4	14.6
	전문대(중퇴/졸업)	269	10.8	47.2	29.0	12.3	0.7	58.0	29.0	13.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0	42.9	34.1	10.0	1.0	54.9	34.1	11.0
	대학원 이상	8	25.0	25.0	25.0	12.5	12.5	50.0	25.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6.5	58.1	22.6	11.3	1.6	64.5	22.6	12.9
	중	565	9.9	47.3	29.9	11.9	1.1	57.2	29.9	12.9
	하	573	11.2	37.2	38.4	12.7	0.5	48.3	38.4	13.3

8.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3.3%, 전문가 8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필요없다'(22.1%)보다 51.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1.2%p(2021년 74.5%)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14.9%p(2021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0%로, '필요없다'(13.0%)는 응답보다 73.0%p 높게 나타남.

<그림 2-8>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특성별 분석]

- ▷ 한·미 연합 훈련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높게 나타남.

<표 2-8>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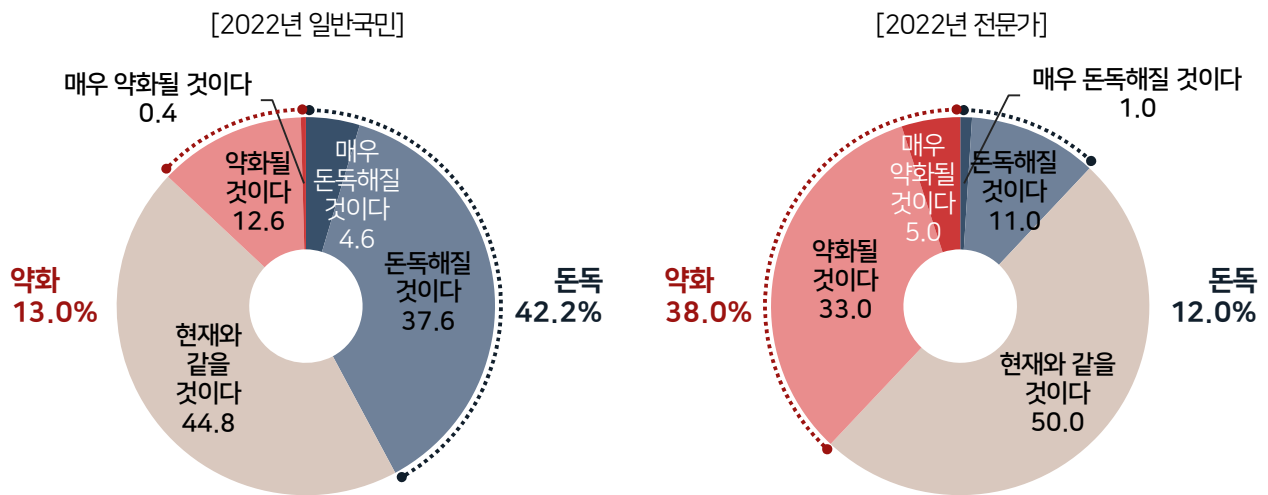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종합		
								필요함	필요없음	잘 모름
전체		1,300	12.9	61.4	19.0	2.4	4.3	74.3	21.4	4.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6	63.8	19.7	2.4	4.6	73.3	22.1	4.6
	전문가	100	53.0	33.0	11.0	2.0	1.0	86.0	13.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2.0	66.8	17.0	2.0	2.0	78.9	19.1	2.0
	중	570	7.9	66.0	19.6	1.2	5.3	73.9	20.9	5.3
	하	190	8.9	50.0	25.8	6.8	8.4	58.9	32.6	8.4
성별	남성	720	9.6	65.0	20.3	2.5	2.6	74.6	22.8	2.6
	여성	480	9.6	61.9	18.8	2.3	7.5	71.5	21.0	7.5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68.7	20.3	2.2	4.0	73.6	22.5	4.0
	30대	193	11.4	64.2	19.2	1.6	3.6	75.6	20.7	3.6
	40대	247	8.9	64.4	21.5	2.8	2.4	73.3	24.3	2.4
	50대	254	10.6	61.8	19.3	3.1	5.1	72.4	22.4	5.1
	60대 이상	279	11.8	60.6	18.3	2.2	7.2	72.4	20.4	7.2
지역별	서울	225	5.8	64.4	21.8	2.7	5.3	70.2	24.4	5.3
	경기/인천	386	13.5	54.9	23.6	3.9	4.1	68.4	27.5	4.1
	부산/울산/경남	179	4.5	80.4	12.3	0.6	2.2	84.9	12.8	2.2
	대구/경북	121	21.5	57.9	12.4	0.0	8.3	79.3	12.4	8.3
	광주/전라	114	7.0	64.9	22.8	5.3	0.0	71.9	28.1	0.0
	대전/충청/세종	127	1.6	70.1	23.6	0.0	4.7	71.7	23.6	4.7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2.5	64.6	6.3	2.1	14.6	77.1	8.3	14.6
	대도시	526	11.2	62.0	20.9	2.3	3.6	73.2	23.2	3.6
	중소도시	629	8.9	65.3	18.0	2.4	5.4	74.2	20.3	5.4
	읍/면	45	0.0	62.2	28.9	4.4	4.4	62.2	33.3	4.4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73.3	15.6	2.2	4.4	77.8	17.8	4.4
	자영업자	165	11.5	62.4	19.4	1.8	4.8	73.9	21.2	4.8
	판매/서비스직	236	6.8	66.1	22.5	0.8	3.8	72.9	23.3	3.8
	기능/숙련공	104	9.6	62.5	21.2	4.8	1.9	72.1	26.0	1.9
	일반 노무직	50	14.0	54.0	16.0	4.0	12.0	68.0	20.0	12.0
	사무/기술직	304	8.9	65.5	19.1	3.9	2.6	74.3	23.0	2.6
	경영/관리직	12	33.3	41.7	25.0	0.0	0.0	75.0	25.0	0.0
	전문/자유직	12	0.0	58.3	41.7	0.0	0.0	58.3	41.7	0.0
	전업주부	176	12.5	59.7	17.0	1.7	9.1	72.2	18.8	9.1
	학생	47	6.4	78.7	8.5	0.0	6.4	85.1	8.5	6.4
	무직/휴직/은퇴	40	10.0	52.5	32.5	2.5	2.5	62.5	35.0	2.5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77.8	11.1	0.0	0.0	88.9	11.1	0.0
	중졸 이하	55	9.1	69.1	16.4	0.0	5.5	78.2	16.4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9.0	61.4	20.3	2.2	7.2	70.3	22.5	7.2
	전문대(중퇴/졸업)	269	9.7	65.8	19.0	2.2	3.3	75.5	21.2	3.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0	64.9	20.0	2.9	2.2	74.9	22.9	2.2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25.0	37.5	12.5	12.5	12.5	62.5	25.0	12.5
	상	62	6.5	67.7	16.1	8.1	1.6	74.2	24.2	1.6
	중	565	9.2	66.9	19.1	2.1	2.7	76.1	21.2	2.7
	하	573	10.3	60.2	20.6	2.1	6.8	70.5	22.7	6.8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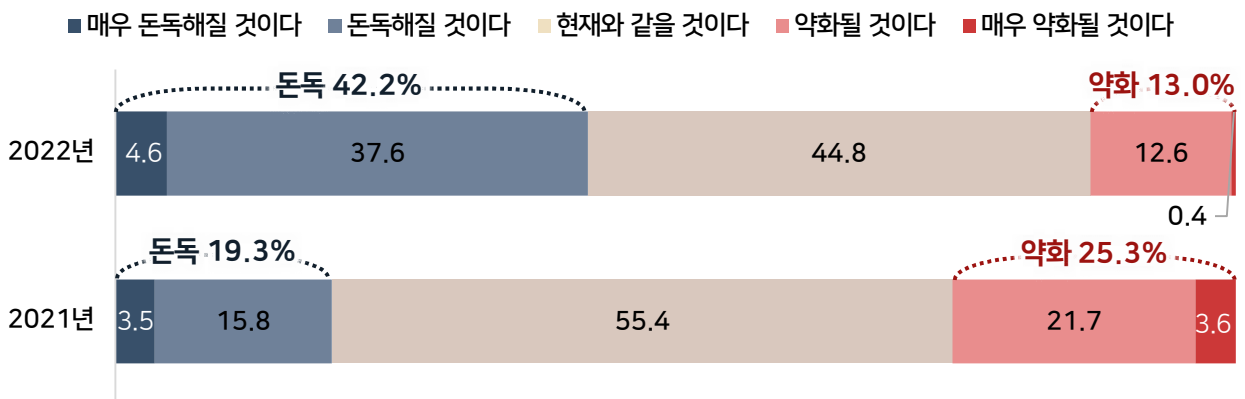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일반국민은 '돈독해질 것이다'(42.2%), 전문가는 '약화될 것이다'(38.0%)가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42.2%로, '약화될 것이다' (13.0%)보다 29.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는 22.9%p(2021년 19.3%) 증가하였고, '약화될 것이다'는 12.3%p(2021년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8.0%로, '돈독해질 것이다' (12.0%)보다 26.0%p 높게 나타남.

<그림 2-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2-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돈독해질 것이다	돈독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매우 악화될 것이다	종합		
								돈독	변화없음	악화
전체		1,300	4.3	35.5	45.2	14.2	0.8	39.8	45.2	1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6	37.6	44.8	12.6	0.4	42.2	44.8	13.0
	전문가	100	1.0	11.0	50.0	33.0	5.0	12.0	50.0	3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2	41.1	41.6	11.8	0.2	46.4	41.6	12.0
	중	570	3.9	37.9	45.6	12.1	0.5	41.8	45.6	12.6
	하	190	5.3	28.4	50.0	15.8	0.5	33.7	50.0	16.3
성별	남성	720	4.4	37.6	43.8	13.5	0.7	42.1	43.8	14.2
	여성	480	4.8	37.5	46.5	11.3	0.0	42.3	46.5	11.3
연령별	20대 이하	227	4.0	33.9	50.7	11.5	0.0	37.9	50.7	11.5
	30대	193	5.7	35.2	46.1	13.0	0.0	40.9	46.1	13.0
	40대	247	3.6	40.5	44.1	10.5	1.2	44.1	44.1	11.7
	50대	254	4.3	38.6	43.7	13.0	0.4	42.9	43.7	13.4
	60대 이상	279	5.4	38.7	40.9	14.7	0.4	44.1	40.9	15.1
지역별	서울	225	2.2	36.9	44.9	16.0	0.0	39.1	44.9	16.0
	경기/인천	386	4.1	38.3	42.2	14.0	1.3	42.5	42.2	15.3
	부산/울산/경남	179	2.2	34.6	49.7	13.4	0.0	36.9	49.7	13.4
	대구/경북	121	15.7	33.1	47.1	4.1	0.0	48.8	47.1	4.1
	광주/전라	114	1.8	31.6	44.7	21.9	0.0	33.3	44.7	21.9
	대전/충청/세종	127	6.3	48.8	44.1	0.8	0.0	55.1	44.1	0.8
	강원/제주	48	2.1	41.7	43.8	12.5	0.0	43.8	43.8	12.5
지역크기	대도시	526	6.7	36.9	42.0	13.9	0.6	43.5	42.0	14.4
	중소도시	629	3.2	39.6	45.8	11.1	0.3	42.8	45.8	11.4
	읍/면	45	0.0	17.8	64.4	17.8	0.0	17.8	64.4	17.8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37.8	46.7	8.9	2.2	42.2	46.7	11.1
	자영업자	165	6.7	40.0	38.2	15.2	0.0	46.7	38.2	15.2
	판매/서비스직	236	3.0	42.4	42.8	11.4	0.4	45.3	42.8	11.9
	기능/숙련공	104	3.8	39.4	44.2	12.5	0.0	43.3	44.2	12.5
	일반 노무직	50	4.0	32.0	46.0	16.0	2.0	36.0	46.0	18.0
	사무/기술직	304	3.0	34.2	48.7	13.8	0.3	37.2	48.7	14.1
	경영/관리직	12	8.3	16.7	58.3	16.7	0.0	25.0	58.3	16.7
	전문/자유직	12	0.0	50.0	25.0	16.7	8.3	50.0	25.0	25.0
	전업주부	176	6.3	36.4	47.7	9.7	0.0	42.6	47.7	9.7
	학생	47	10.6	27.7	46.8	14.9	0.0	38.3	46.8	14.9
	무직/휴직/은퇴	40	5.0	45.0	40.0	10.0	0.0	50.0	40.0	10.0
	기타	9	11.1	44.4	44.4	0.0	0.0	55.6	44.4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29.1	50.9	14.5	0.0	34.5	50.9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1	39.7	46.3	9.2	0.7	43.9	46.3	9.8
	전문대(중퇴/졸업)	269	6.3	40.1	39.8	13.0	0.7	46.5	39.8	13.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7	34.9	46.1	15.4	0.0	38.5	46.1	15.4
	대학원 이상	8	12.5	25.0	25.0	37.5	0.0	37.5	25.0	37.5
생활 수준별	상	62	6.5	45.2	33.9	14.5	0.0	51.6	33.9	14.5
	중	565	3.7	35.6	45.8	14.3	0.5	39.3	45.8	14.9
	하	573	5.2	38.7	45.0	10.6	0.3	44.0	45.0	11.0

III. 북한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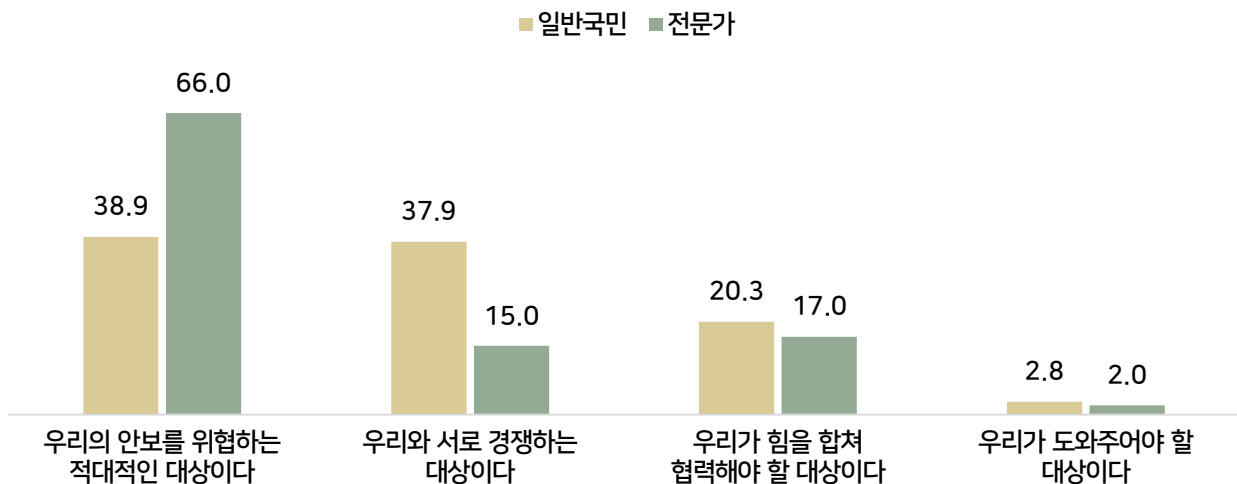
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38.9%, 전문가는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3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22.4%p(2021년 61.3%) 감소하였고,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는 22.6%p(2021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라는 응답이 6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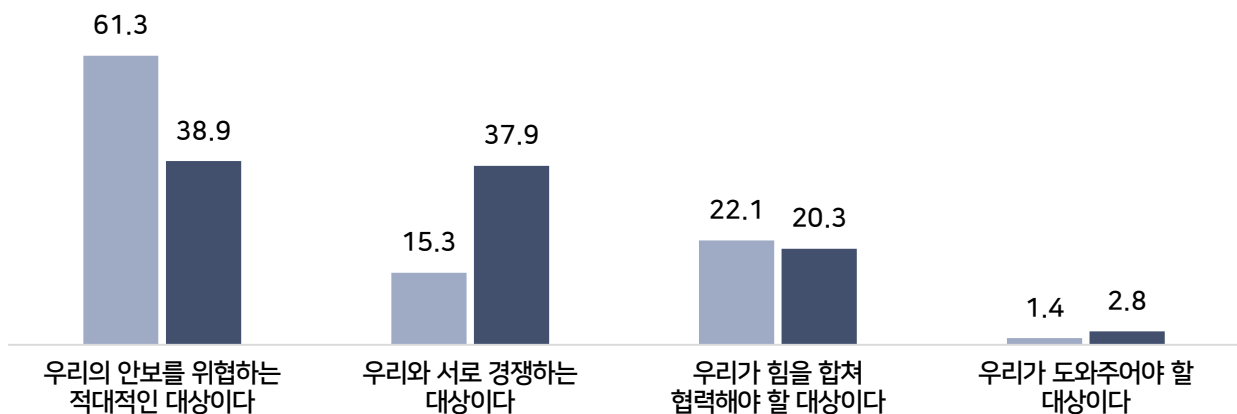
<그림 3-1>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4>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전체		1,300	41.0	36.2	20.1	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9	37.9	20.3	2.8
	전문가	100	66.0	15.0	17.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2.5	33.6	22.5	1.4
	중	570	38.9	39.5	18.4	3.2
	하	190	30.5	43.2	21.1	5.3
성별	남성	720	38.6	37.9	21.0	2.5
	여성	480	39.4	37.9	19.4	3.3
연령별	20대 이하	227	34.8	40.1	23.3	1.8
	30대	193	40.4	39.9	16.6	3.1
	40대	247	41.3	37.7	18.6	2.4
	50대	254	35.0	37.8	23.2	3.9
	60대 이상	279	42.7	35.1	19.4	2.9
지역별	서울	225	33.8	39.6	24.0	2.7
	경기/인천	386	41.5	40.4	16.8	1.3
	부산/울산/경남	179	40.2	27.4	22.9	9.5
	대구/경북	121	62.8	28.9	8.3	0.0
	광주/전라	114	36.0	36.0	25.4	2.6
	대전/충청/세종	127	9.4	62.2	26.8	1.6
	강원/제주	48	62.5	12.5	22.9	2.1
지역크기	대도시	526	41.3	36.3	17.5	4.9
	중소도시	629	37.7	39.9	21.3	1.1
	읍/면	45	28.9	28.9	40.0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0.0	55.6	24.4	0.0
	자영업자	165	48.5	31.5	15.8	4.2
	판매/서비스직	236	33.1	39.0	25.4	2.5
	기능/숙련공	104	42.3	30.8	24.0	2.9
	일반 노무직	50	36.0	40.0	20.0	4.0
	사무/기술직	304	39.8	36.5	20.7	3.0
	경영/관리직	12	50.0	33.3	16.7	0.0
	전문/자유직	12	25.0	75.0	0.0	0.0
	전업주부	176	43.8	38.6	15.3	2.3
	학생	47	38.3	34.0	23.4	4.3
	무직/후직/은퇴	40	30.0	45.0	22.5	2.5
	기타	9	11.1	88.9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20.0	43.6	34.5	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5.6	43.9	17.2	3.3
	전문대(중퇴/졸업)	269	43.1	36.4	18.2	2.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2.2	32.0	23.2	2.7
	대학원 이상	8	50.0	12.5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46.8	32.3	17.7	3.2
	중	565	41.4	34.3	21.8	2.5
	하	573	35.6	42.1	19.2	3.1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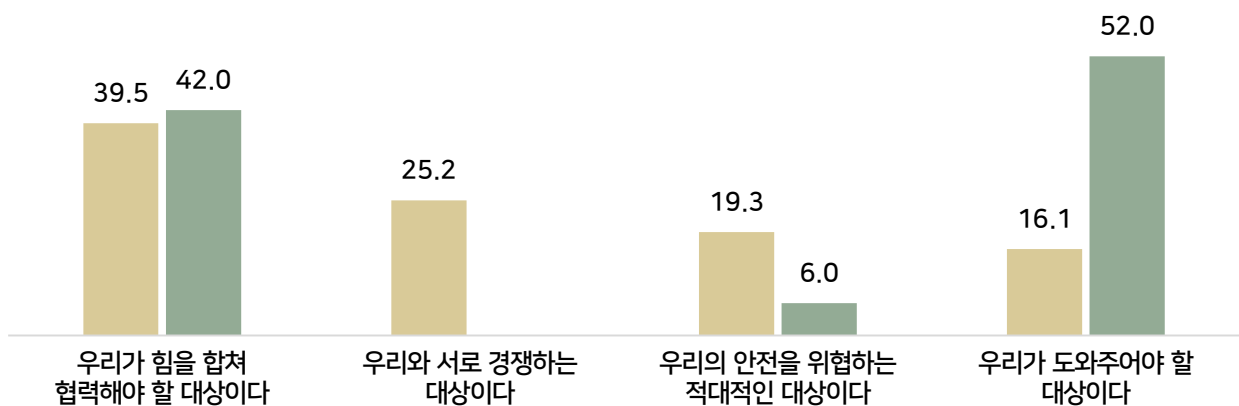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국민은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가 39.5%, 전문가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6.2%p(2021년 45.7%) 감소하였고,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는 14.3%p(2021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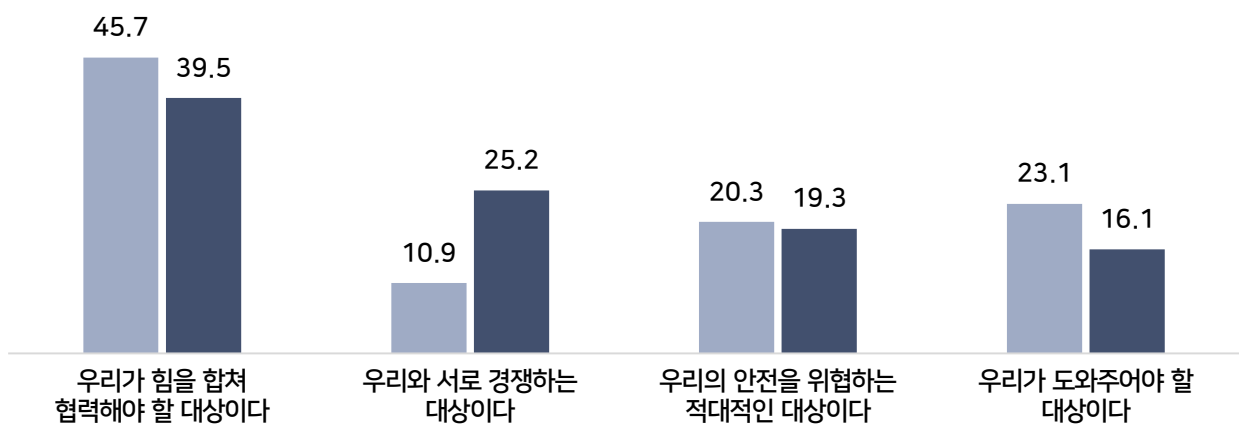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5>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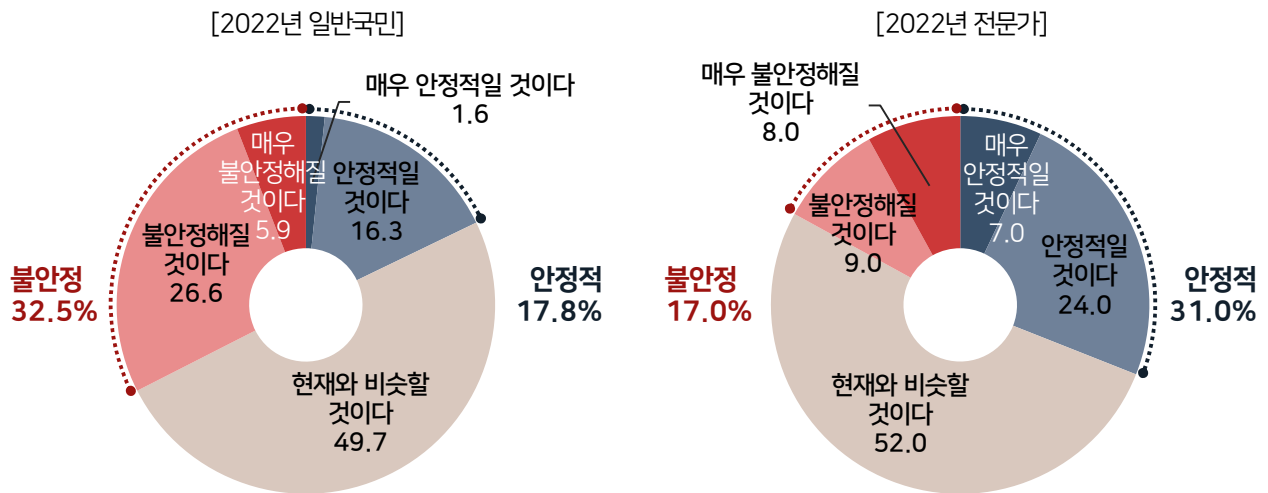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전체		1,300	39.7	23.2	18.8	1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9.5	25.2	19.3	16.1
	전문가	100	42.0	-	6.0	5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0.9	26.8	19.1	13.2
	중	570	37.7	25.1	20.0	17.2
	하	190	41.6	21.6	17.4	19.5
성별	남성	720	41.4	24.9	17.6	16.1
	여성	480	36.7	25.6	21.7	16.0
연령별	20대 이하	227	43.6	28.6	13.2	14.5
	30대	193	33.7	24.4	20.7	21.2
	40대	247	44.5	23.9	18.2	13.4
	50대	254	39.0	26.0	20.1	15.0
	60대 이상	279	36.2	23.3	23.3	17.2
지역별	서울	225	41.8	22.7	14.2	21.3
	경기/인천	386	37.0	28.0	22.0	13.0
	부산/울산/경남	179	43.0	24.6	12.3	20.1
	대구/경북	121	14.0	28.1	54.5	3.3
	광주/전라	114	46.5	28.1	14.9	10.5
	대전/충청/세종	127	54.3	21.3	2.4	22.0
	강원/제주	48	43.8	12.5	12.5	31.3
지역크기	대도시	526	33.8	21.7	21.7	22.8
	중소도시	629	43.4	28.6	18.3	9.7
	읍/면	45	51.1	17.8	4.4	26.7
직업별	농/어/임업	45	46.7	28.9	6.7	17.8
	자영업자	165	37.6	20.0	29.1	13.3
	판매/서비스직	236	36.4	30.1	18.2	15.3
	기능/숙련공	104	49.0	26.9	9.6	14.4
	일반 노무직	50	42.0	20.0	22.0	16.0
	사무/기술직	304	38.8	26.0	16.8	18.4
	경영/관리직	12	41.7	8.3	33.3	16.7
	전문/자유직	12	33.3	33.3	16.7	16.7
	전업주부	176	38.1	22.2	26.7	13.1
	학생	47	42.6	25.5	14.9	17.0
	무직/휴직/은퇴	40	40.0	27.5	10.0	22.5
	기타	9	33.3	11.1	11.1	44.4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45.5	27.3	9.1	1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8.6	26.6	18.8	15.9
	전문대(중퇴/졸업)	269	41.6	24.2	22.3	11.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8.3	23.9	19.0	18.8
	대학원 이상	8	37.5	25.0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32.3	19.4	24.2	24.2
	중	565	41.1	24.8	17.5	16.6
	하	573	38.7	26.2	20.4	14.7

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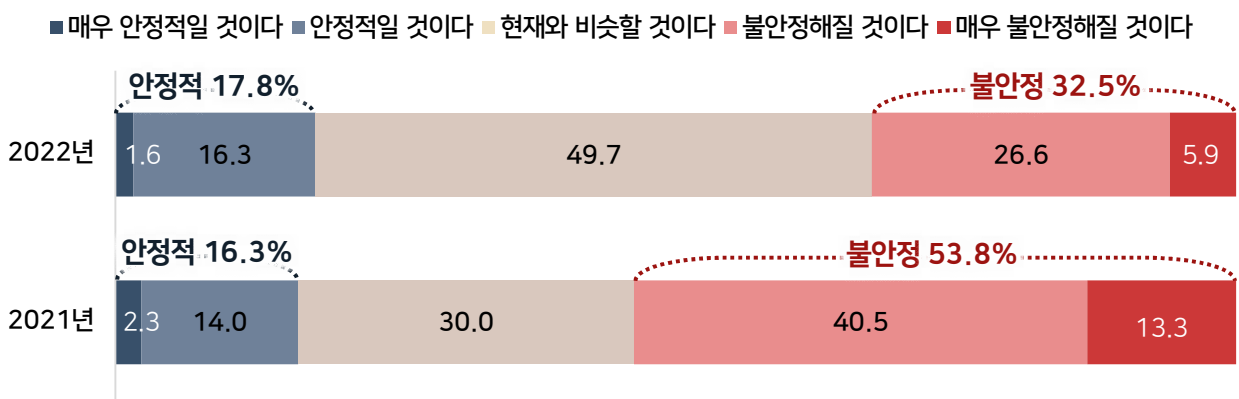
향후 5년 내 김정은 체제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불안정적이다'(32.5%), 전문가가 '안정적이다'(31.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32.5%로, '안정적일 것이다'(17.8%) 응답보다 14.7%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불안정적일 것이다'는 21.3%p(2021년 53.8%) 감소하였고, '안정적일 것이다'는 1.5%p(2021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이 '안정적일 것이다'는 응답이 31.0%로, '불안정적일 것이다'(17.0%)보다 14.0%p 높게 나타남.

<그림 3-3>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김정은 체제에 대한 향후(5년 내외)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 '30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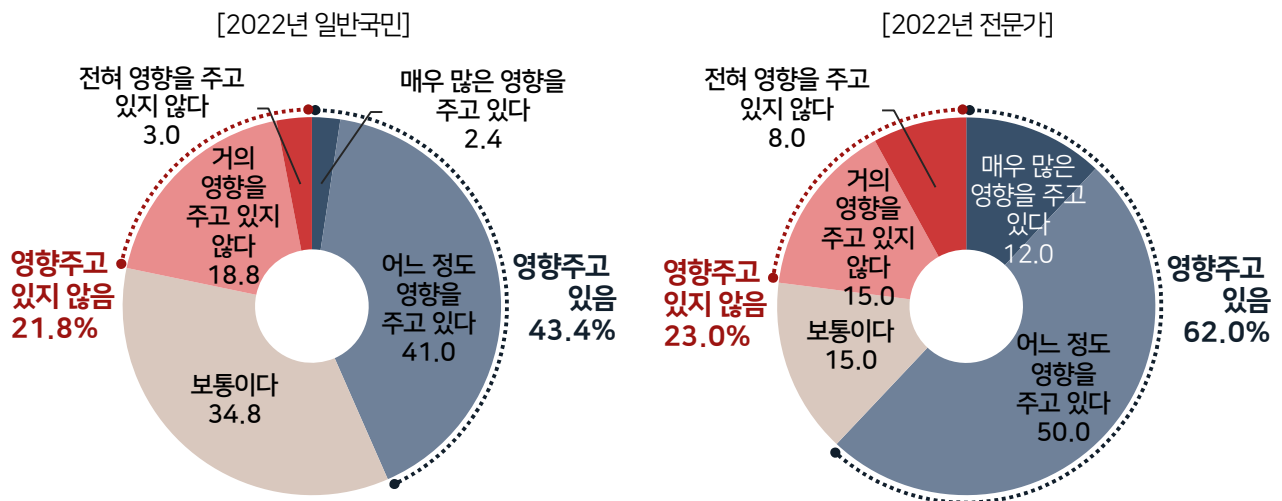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안정적일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불안정해 질 것이다	매우 불안정해 질 것이다	종합		
								안정적일 것	보통	불안정할 것
전체		1,300	2.0	16.8	49.8	25.2	6.1	18.8	49.8	31.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6	16.3	49.7	26.6	5.9	17.8	49.7	32.5
	전문가	100	7.0	24.0	52.0	9.0	8.0	31.0	52.0	1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6	20.7	48.4	24.8	4.5	22.3	48.4	29.3
	중	570	1.4	13.9	51.2	26.7	6.8	15.3	51.2	33.5
	하	190	2.1	13.2	47.9	30.5	6.3	15.3	47.9	36.8
성별	남성	720	1.7	16.5	49.0	26.8	6.0	18.2	49.0	32.8
	여성	480	1.5	15.8	50.6	26.3	5.8	17.3	50.6	32.1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17.2	50.7	26.0	5.7	17.6	50.7	31.7
	30대	193	1.6	15.0	47.2	33.7	2.6	16.6	47.2	36.3
	40대	247	1.6	17.0	47.8	25.9	7.7	18.6	47.8	33.6
	50대	254	1.2	15.4	51.2	26.4	5.9	16.5	51.2	32.3
	60대 이상	279	2.9	16.5	50.9	22.9	6.8	19.4	50.9	29.7
지역별	서울	225	1.8	16.0	43.6	35.1	3.6	17.8	43.6	38.7
	경기/인천	386	3.1	16.6	43.3	28.2	8.8	19.7	43.3	37.0
	부산/울산/경남	179	0.0	22.3	62.0	10.6	5.0	22.3	62.0	15.6
	대구/경북	121	1.7	11.6	53.7	24.8	8.3	13.2	53.7	33.1
	광주/전라	114	0.9	17.5	51.8	29.8	0.0	18.4	51.8	29.8
	대전/충청/세종	127	0.0	13.4	61.4	22.0	3.1	13.4	61.4	25.2
	강원/제주	48	0.0	8.3	37.5	41.7	12.5	8.3	37.5	5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1.7	14.8	49.2	29.7	4.6	16.5	49.2	34.2
	중소도시	629	1.6	17.3	50.1	23.5	7.5	18.9	50.1	31.0
	읍/면	45	0.0	17.8	48.9	33.3	0.0	17.8	48.9	33.3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4.4	51.1	20.0	4.4	24.4	51.1	24.4
	자영업자	165	2.4	13.9	47.3	27.3	9.1	16.4	47.3	36.4
	판매/서비스직	236	1.3	16.9	58.5	19.9	3.4	18.2	58.5	23.3
	기능/숙련공	104	1.0	26.0	37.5	29.8	5.8	26.9	37.5	35.6
	일반 노무직	50	6.0	6.0	60.0	24.0	4.0	12.0	60.0	28.0
	사무/기술직	304	1.6	13.5	46.4	31.6	6.9	15.1	46.4	38.5
	경영/관리직	12	16.7	16.7	25.0	25.0	16.7	33.3	25.0	41.7
	전문/자유직	12	0.0	8.3	41.7	33.3	16.7	8.3	41.7	50.0
	전업주부	176	0.6	18.8	53.4	23.9	3.4	19.3	53.4	27.3
	학생	47	0.0	17.0	46.8	31.9	4.3	17.0	46.8	36.2
	무직/휴직/은퇴	40	0.0	15.0	50.0	25.0	10.0	15.0	50.0	35.0
	기타	9	0.0	0.0	33.3	55.6	11.1	0.0	33.3	66.7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21.8	63.6	9.1	3.6	23.6	63.6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7	18.1	48.9	23.8	7.4	19.9	48.9	31.2
	전문대(중퇴/졸업)	269	1.9	15.2	52.8	25.3	4.8	17.1	52.8	30.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	14.4	46.6	32.7	5.1	15.6	46.6	37.8
	대학원 이상	8	0.0	0.0	50.0	37.5	12.5	0.0	50.0	50.0
생활 수준별	상	62	0.0	16.1	30.6	45.2	8.1	16.1	30.6	53.2
	중	565	1.8	15.8	50.4	26.9	5.1	17.5	50.4	32.0
	하	573	1.6	16.8	51.0	24.3	6.5	18.3	51.0	30.7

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3.4%, 전문가 6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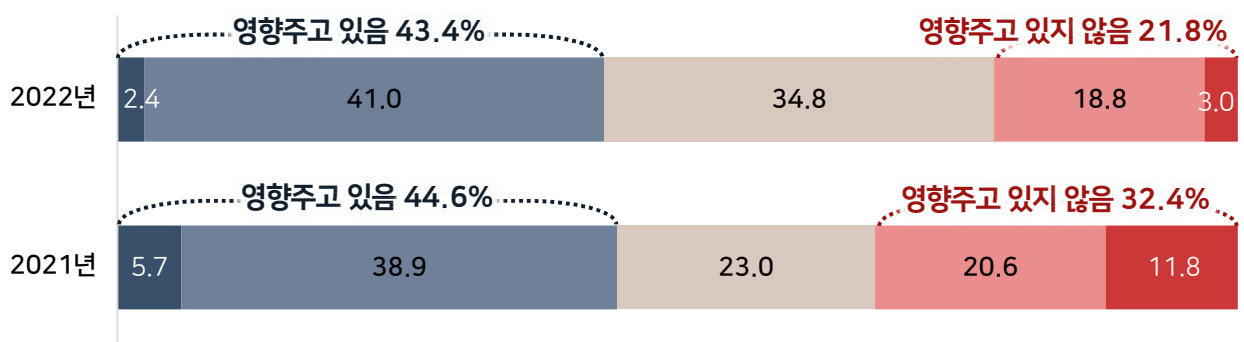
- ▶ **[일반국민]**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3.4%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1.8%)보다 21.6%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영향을 준다'는 1.2%p(2021년 44.6%),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0.6%p(2021년 32.4%) 감소하였음.
- ▶ **[전문가]**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2.0%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0%)보다 39.0%p 높게 나타남.

<그림 3-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일반국민-(전년대비)]

■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 보통이다 ■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특성별 분석]

-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서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4>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통이다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종합		
								영향 주고 있음	보통	영향 주고 있지 않음
전체		1,300	3.2	41.7	33.3	18.5	3.4	44.8	33.3	21.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	41.0	34.8	18.8	3.0	43.4	34.8	21.8
	전문가	100	12.0	50.0	15.0	15.0	8.0	62.0	15.0	2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2	48.0	29.8	16.4	2.7	51.1	29.8	19.1
	중	570	2.3	42.1	37.2	16.0	2.5	44.4	37.2	18.4
	하	190	1.1	21.6	39.5	32.6	5.3	22.6	39.5	37.9
성별	남성	720	3.1	41.3	36.0	16.9	2.8	44.3	36.0	19.7
	여성	480	1.5	40.6	33.1	21.5	3.3	42.1	33.1	24.8
연령별	20대 이하	227	2.2	41.9	35.7	16.3	4.0	44.1	35.7	20.3
	30대	193	1.6	42.0	37.3	17.6	1.6	43.5	37.3	19.2
	40대	247	2.0	43.3	32.4	19.4	2.8	45.3	32.4	22.3
	50대	254	2.8	39.4	35.8	20.1	2.0	42.1	35.8	22.0
	60대 이상	279	3.2	39.1	33.7	19.7	4.3	42.3	33.7	24.0
지역별	서울	225	4.9	49.8	28.0	16.4	0.9	54.7	28.0	17.3
	경기/인천	386	1.8	36.8	37.3	19.9	4.1	38.6	37.3	24.1
	부산/울산/경남	179	0.0	45.3	38.0	15.1	1.7	45.3	38.0	16.8
	대구/경북	121	2.5	17.4	41.3	30.6	8.3	19.8	41.3	38.8
	광주/전라	114	5.3	40.4	36.0	17.5	0.9	45.6	36.0	18.4
	대전/충청/세종	127	0.8	52.0	29.1	17.3	0.8	52.8	29.1	18.1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50.0	31.3	10.4	6.3	52.1	31.3	16.7
	대도시	526	3.6	40.9	33.3	20.2	2.1	44.5	33.3	22.2
	중소도시	629	1.1	40.4	36.2	18.3	4.0	41.5	36.2	22.3
	읍/면	45	6.7	51.1	33.3	8.9	0.0	57.8	33.3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33.3	46.7	11.1	2.2	40.0	46.7	13.3
	자영업자	165	1.2	41.8	32.1	19.4	5.5	43.0	32.1	24.8
	판매/서비스직	236	1.3	42.4	33.5	19.9	3.0	43.6	33.5	22.9
	기능/숙련공	104	2.9	45.2	36.5	15.4	0.0	48.1	36.5	15.4
	일반 노무직	50	4.0	32.0	34.0	22.0	8.0	36.0	34.0	30.0
	사무/기술직	304	3.0	42.4	35.5	17.1	2.0	45.4	35.5	19.1
	경영/관리직	12	0.0	50.0	41.7	8.3	0.0	50.0	41.7	8.3
	전문/자유직	12	8.3	8.3	66.7	8.3	8.3	16.7	66.7	16.7
	전업주부	176	2.3	40.3	32.4	22.2	2.8	42.6	32.4	25.0
	학생	47	0.0	44.7	29.8	21.3	4.3	44.7	29.8	25.5
	무직/휴직/은퇴	40	5.0	27.5	37.5	27.5	2.5	32.5	37.5	3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66.7	33.3	0.0	0.0	66.7	33.3	0.0
	중졸 이하	55	3.6	41.8	41.8	12.7	0.0	45.5	41.8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7	41.9	34.3	18.6	3.5	43.7	34.3	22.1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39.4	34.6	21.6	3.0	40.9	34.6	24.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4	41.0	34.9	18.0	2.7	44.4	34.9	20.7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37.5	25.0	12.5	12.5	50.0	25.0	25.0
	상	62	8.1	40.3	32.3	17.7	1.6	48.4	32.3	19.4
	중	565	2.8	43.0	34.5	16.6	3.0	45.8	34.5	19.6
	하	573	1.4	39.1	35.4	20.9	3.1	40.5	35.4	24.1

5.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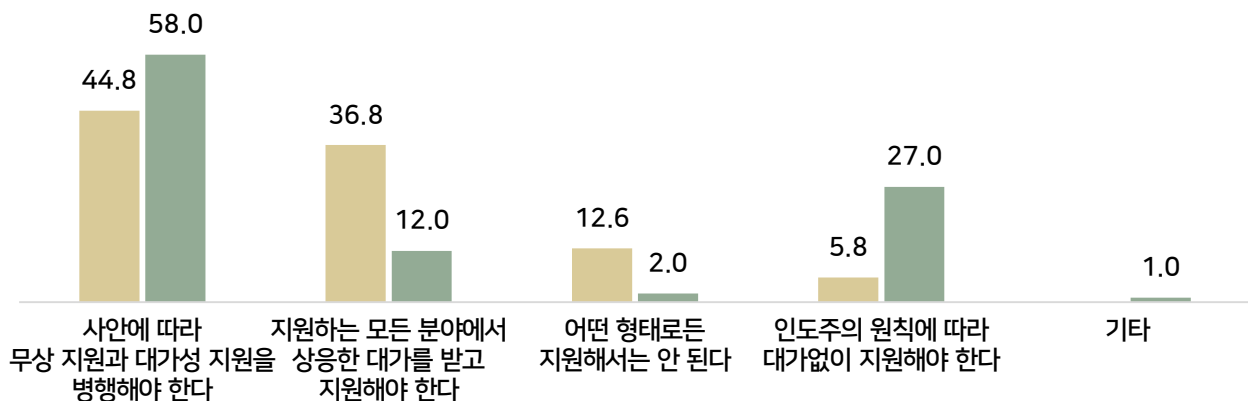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44.8%, 전문가는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가 4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12.1%p (2021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으로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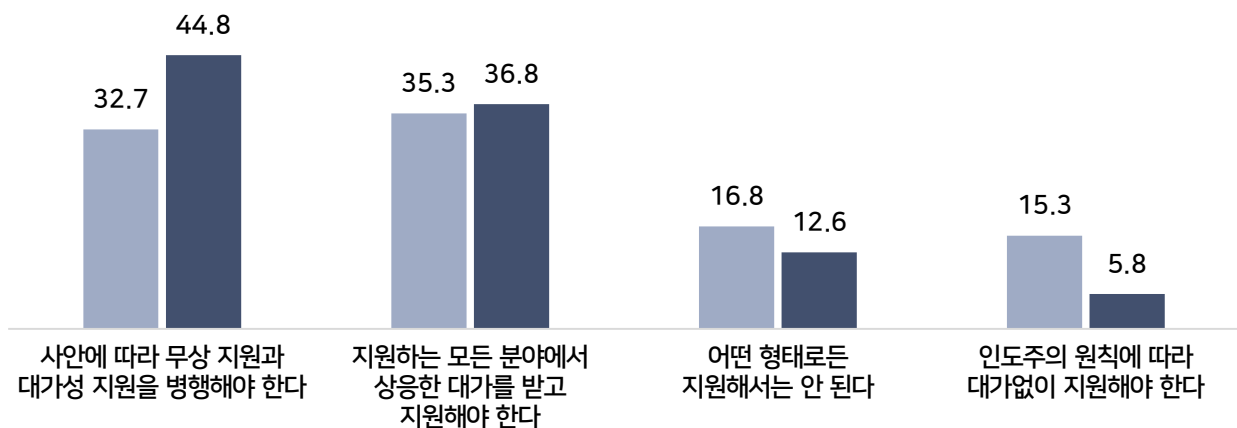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5>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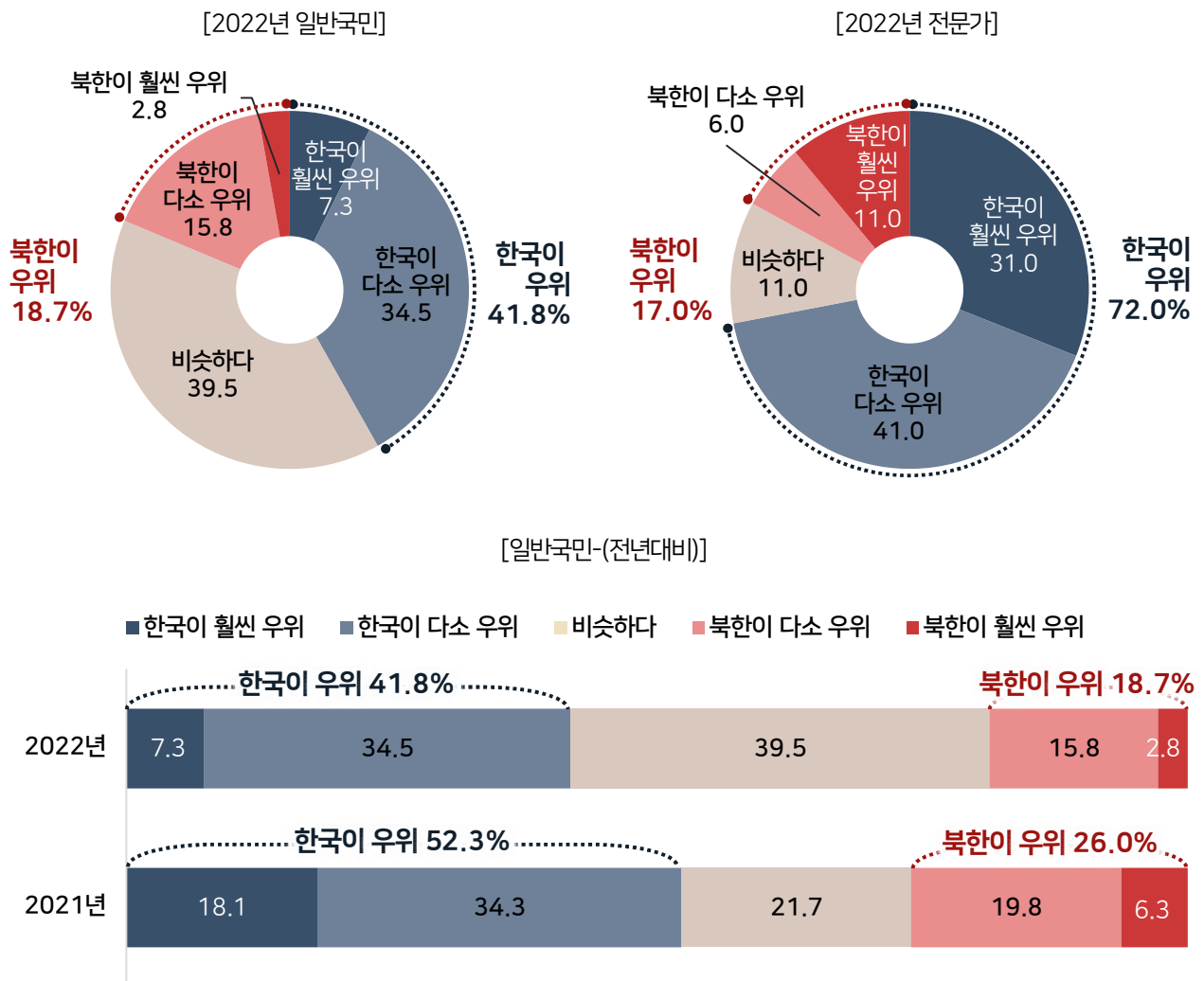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	기타
전체		1,300	45.8	34.9	11.8	7.4	0.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4.8	36.8	12.6	5.8	-
	전문가	100	58.0	12.0	2.0	27.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2.3	31.4	10.0	6.4	-
	중	570	43.9	37.4	13.0	5.8	-
	하	190	30.5	47.9	17.4	4.2	-
성별	남성	720	44.6	37.8	12.1	5.6	-
	여성	480	45.2	35.4	13.3	6.0	-
연령별	20대 이하	227	41.0	39.2	12.8	7.0	-
	30대	193	44.0	41.5	10.9	3.6	-
	40대	247	48.2	34.4	10.9	6.5	-
	50대	254	42.9	38.2	13.8	5.1	-
	60대 이상	279	47.3	32.6	14.0	6.1	-
지역별	서울	225	45.3	36.9	13.3	4.4	-
	경기/인천	386	41.2	39.9	14.5	4.4	-
	부산/울산/경남	179	59.2	32.4	5.6	2.8	-
	대구/경북	121	20.7	33.1	33.1	13.2	-
	광주/전라	114	53.5	28.1	7.9	10.5	-
	대전/충청/세종	127	52.0	40.2	2.4	5.5	-
	강원/제주	48	39.6	50.0	6.3	4.2	-
지역크기	대도시	526	43.0	35.7	14.3	7.0	-
	중소도시	629	45.2	38.5	11.6	4.8	-
	읍/면	45	62.2	26.7	6.7	4.4	-
직업별	농/어/임업	45	53.3	33.3	8.9	4.4	-
	자영업자	165	41.2	35.2	17.0	6.7	-
	판매/서비스직	236	45.3	36.0	11.0	7.6	-
	기능/숙련공	104	51.0	38.5	8.7	1.9	-
	일반 노무직	50	44.0	36.0	18.0	2.0	-
	사무/기술직	304	44.1	38.8	12.2	4.9	-
	경영/관리직	12	58.3	16.7	25.0	0.0	-
	전문/자유직	12	25.0	50.0	16.7	8.3	-
	전업주부	176	44.9	34.7	14.8	5.7	-
	학생	47	38.3	36.2	12.8	12.8	-
	무직/휴직/은퇴	40	55.0	37.5	2.5	5.0	-
	기타	9	11.1	77.8	0.0	11.1	-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43.6	34.5	7.3	14.5	-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7.4	36.5	10.7	5.5	-
	전문대(중퇴/졸업)	269	43.9	36.4	13.8	5.9	-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3.4	37.8	14.4	4.4	-
	대학원 이상	8	12.5	37.5	25.0	25.0	-
생활 수준별	상	62	38.7	35.5	19.4	6.5	-
	중	565	47.3	36.8	11.3	4.6	-
	하	573	43.1	37.0	13.1	6.8	-

6.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41.8%, 전문가 7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41.8%로, '북한이 우위' (18.7%)라는 응답보다 23.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한국이 우위'는 10.5%p(2021년 52.3%), '북한이 우위'는 7.3%p(2021년 2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72.0%로, '북한이 우위' (17.0%)보다 55.0%p 높게 나타남.

<그림 3-6>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특성별 분석]

- ▷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6>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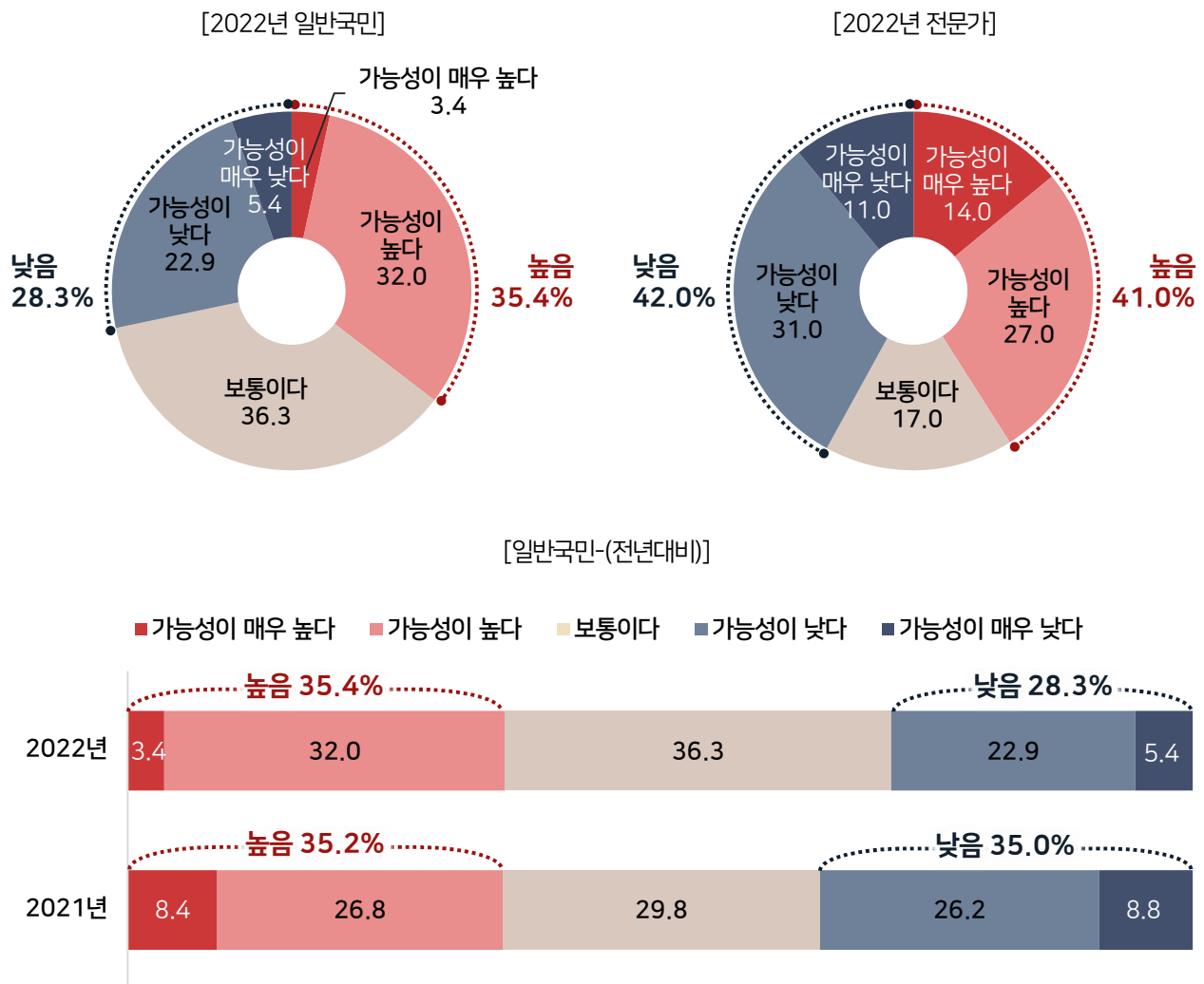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하다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종합		
								한국이 우위	비슷	북한이 우위
전체		1,300	9.2	35.0	37.3	15.1	3.5	44.2	37.3	18.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3	34.5	39.5	15.8	2.8	41.8	39.5	18.7
	전문가	100	31.0	41.0	11.0	6.0	11.0	72.0	11.0	1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7	34.3	39.3	16.6	2.0	42.0	39.3	18.6
	중	570	6.3	34.4	40.2	15.6	3.5	40.7	40.2	19.1
	하	190	9.5	35.3	37.9	14.7	2.6	44.7	37.9	17.4
성별	남성	720	7.5	35.1	39.3	14.9	3.2	42.6	39.3	18.1
	여성	480	7.1	33.5	39.8	17.3	2.3	40.6	39.8	19.6
연령별	20대 이하	227	7.9	37.4	35.2	15.4	4.0	45.4	35.2	19.4
	30대	193	6.7	34.2	39.4	17.1	2.6	40.9	39.4	19.7
	40대	247	7.3	33.2	37.2	19.4	2.8	40.5	37.2	22.3
	50대	254	7.9	33.1	41.7	15.4	2.0	40.9	41.7	17.3
	60대 이상	279	6.8	34.8	43.0	12.5	2.9	41.6	43.0	15.4
지역별	서울	225	5.8	32.0	35.1	17.3	9.8	37.8	35.1	27.1
	경기/인천	386	8.0	31.1	43.3	15.8	1.8	39.1	43.3	17.6
	부산/울산/경남	179	1.1	35.2	45.8	16.8	1.1	36.3	45.8	17.9
	대구/경북	121	5.8	33.1	42.1	18.2	0.8	38.8	42.1	19.0
	광주/전라	114	2.6	15.8	52.6	28.1	0.9	18.4	52.6	28.9
	대전/충청/세종	127	11.8	64.6	19.7	3.9	0.0	76.4	19.7	3.9
	강원/제주	48	35.4	39.6	20.8	2.1	2.1	75.0	20.8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7.4	35.9	35.4	16.0	5.3	43.3	35.4	21.3
	중소도시	629	7.5	32.8	42.6	16.2	1.0	40.2	42.6	17.2
	읍/면	45	4.4	42.2	44.4	8.9	0.0	46.7	44.4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35.6	44.4	17.8	0.0	37.8	44.4	17.8
	자영업자	165	6.1	30.9	38.8	19.4	4.8	37.0	38.8	24.2
	판매/서비스직	236	7.6	31.8	44.9	14.4	1.3	39.4	44.9	15.7
	기능/숙련공	104	7.7	27.9	44.2	16.3	3.8	35.6	44.2	20.2
	일반 노무직	50	18.0	36.0	44.0	2.0	0.0	54.0	44.0	2.0
	사무/기술직	304	8.2	37.5	36.2	16.1	2.0	45.7	36.2	18.1
	경영/관리직	12	0.0	33.3	16.7	50.0	0.0	33.3	16.7	50.0
	전문/자유직	12	0.0	25.0	58.3	16.7	0.0	25.0	58.3	16.7
	전업주부	176	7.4	31.3	38.6	18.8	4.0	38.6	38.6	22.7
	학생	47	4.3	44.7	27.7	12.8	10.6	48.9	27.7	23.4
	무직/휴직/은퇴	40	5.0	57.5	32.5	2.5	2.5	62.5	32.5	5.0
	기타	9	0.0	55.6	33.3	11.1	0.0	55.6	33.3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43.6	49.1	3.6	0.0	47.3	49.1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0	37.3	41.9	12.7	1.1	44.3	41.9	13.8
	전문대(중퇴/졸업)	269	6.3	34.6	37.5	19.3	2.2	40.9	37.5	21.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3	30.7	36.8	18.5	5.6	39.0	36.8	24.1
	대학원 이상	8	37.5	0.0	37.5	25.0	0.0	37.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8.1	25.8	30.6	17.7	17.7	33.9	30.6	35.5
	중	565	7.6	32.0	40.9	16.8	2.7	39.6	40.9	19.5
	하	573	7.0	37.9	39.1	14.7	1.4	44.9	39.1	16.1

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에 대해
일반국민은 '높다'(35.4%), 전문가는 '낮다'(42.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높다'는 응답이 35.4%로, '낮다'(28.3%)보다 7.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높다'는 0.2%p(2021년 35.2%) 증가하였고, '낮다'는 6.7%p(2021년 35.0%) 감소하였음.
- ▶ **[전문가]**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 내)이 '낮다'는 응답이 42.0%로, '높다'(4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특성별 분석]

- ▷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2~3년내)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높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7>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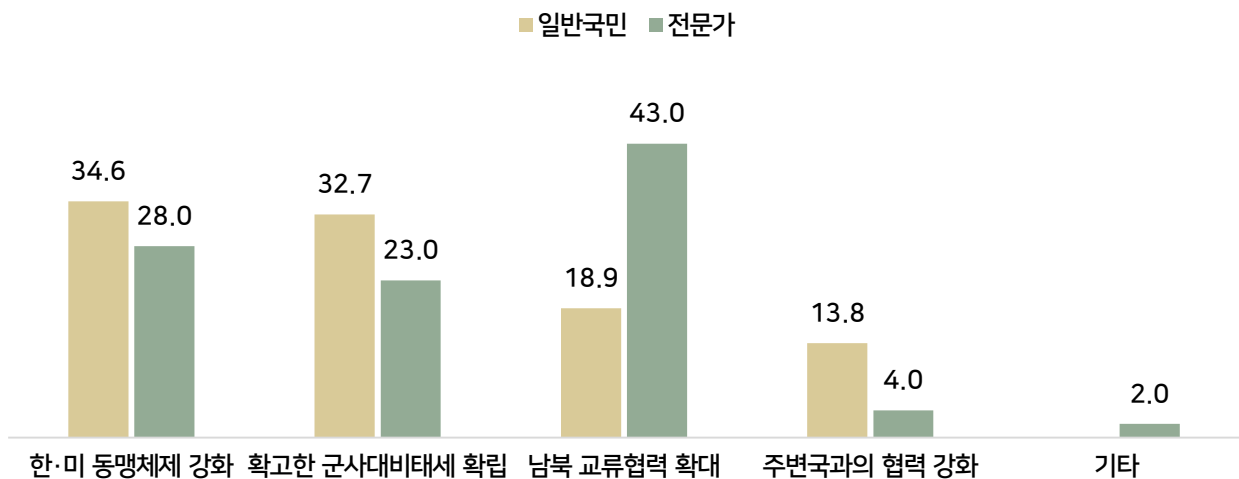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	보통이다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종합		
								높음	보통	낮음
전체		1,300	4.2	31.6	34.8	23.5	5.8	35.8	34.8	29.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	32.0	36.3	22.9	5.4	35.4	36.3	28.3
	전문가	100	14.0	27.0	17.0	31.0	11.0	41.0	17.0	4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0	36.6	28.2	23.6	6.6	41.6	28.2	30.2
	중	570	2.8	30.5	39.8	21.6	5.3	33.3	39.8	26.8
	하	190	1.6	25.8	44.2	25.3	3.2	27.4	44.2	28.4
성별	남성	720	3.6	30.8	35.4	24.7	5.4	34.4	35.4	30.1
	여성	480	3.1	33.8	37.5	20.2	5.4	36.9	37.5	25.6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35.2	33.5	22.0	4.4	40.1	33.5	26.4
	30대	193	3.6	31.1	35.8	24.9	4.7	34.7	35.8	29.5
	40대	247	3.6	34.4	32.4	22.3	7.3	38.1	32.4	29.6
	50대	254	2.0	28.0	39.4	25.2	5.5	29.9	39.4	30.7
	60대 이상	279	3.2	31.5	39.4	20.8	5.0	34.8	39.4	25.8
지역별	서울	225	3.1	30.2	37.3	25.3	4.0	33.3	37.3	29.3
	경기/인천	386	3.1	34.2	35.5	19.9	7.3	37.3	35.5	27.2
	부산/울산/경남	179	0.0	26.8	43.0	25.7	4.5	26.8	43.0	30.2
	대구/경북	121	14.9	33.1	43.0	6.6	2.5	47.9	43.0	9.1
	광주/전라	114	1.8	27.2	32.5	34.2	4.4	28.9	32.5	38.6
	대전/충청/세종	127	1.6	40.9	22.0	28.3	7.1	42.5	22.0	35.4
	강원/제주	48	0.0	27.1	41.7	25.0	6.3	27.1	41.7	31.3
지역크기	대도시	526	4.6	32.5	36.3	19.6	7.0	37.1	36.3	26.6
	중소도시	629	2.7	31.2	35.9	25.8	4.5	33.9	35.9	30.2
	읍/면	45	0.0	37.8	40.0	22.2	0.0	37.8	40.0	22.2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4.4	42.2	8.9	0.0	48.9	42.2	8.9
	자영업자	165	5.5	30.9	34.5	21.8	7.3	36.4	34.5	29.1
	판매/서비스직	236	4.7	28.0	40.7	21.2	5.5	32.6	40.7	26.7
	기능/숙련공	104	1.0	33.7	35.6	24.0	5.8	34.6	35.6	29.8
	일반 노무직	50	2.0	26.0	40.0	22.0	10.0	28.0	40.0	32.0
	사무/기술직	304	2.6	32.2	32.2	27.0	5.9	34.9	32.2	32.9
	경영/관리직	12	8.3	16.7	16.7	50.0	8.3	25.0	16.7	58.3
	전문/자유직	12	0.0	41.7	41.7	16.7	0.0	41.7	41.7	16.7
	전업주부	176	3.4	33.5	39.2	19.9	4.0	36.9	39.2	23.9
	학생	47	2.1	42.6	23.4	25.5	6.4	44.7	23.4	31.9
	무직/휴직/은퇴	40	0.0	30.0	40.0	30.0	0.0	30.0	40.0	30.0
	기타	9	11.1	33.3	55.6	0.0	0.0	44.4	55.6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29.1	54.5	16.4	0.0	29.1	54.5	1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3	34.5	34.7	21.4	6.1	37.8	34.7	27.5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30.1	37.2	24.2	4.1	34.6	37.2	28.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4	30.5	35.4	24.9	5.9	33.9	35.4	30.7
	대학원 이상	8	0.0	50.0	12.5	12.5	25.0	50.0	12.5	37.5
생활 수준별	상	62	4.8	41.9	21.0	22.6	9.7	46.8	21.0	32.3
	중	565	1.6	28.3	35.6	28.1	6.4	29.9	35.6	34.5
	하	573	5.1	34.6	38.6	17.8	4.0	39.6	38.6	21.8

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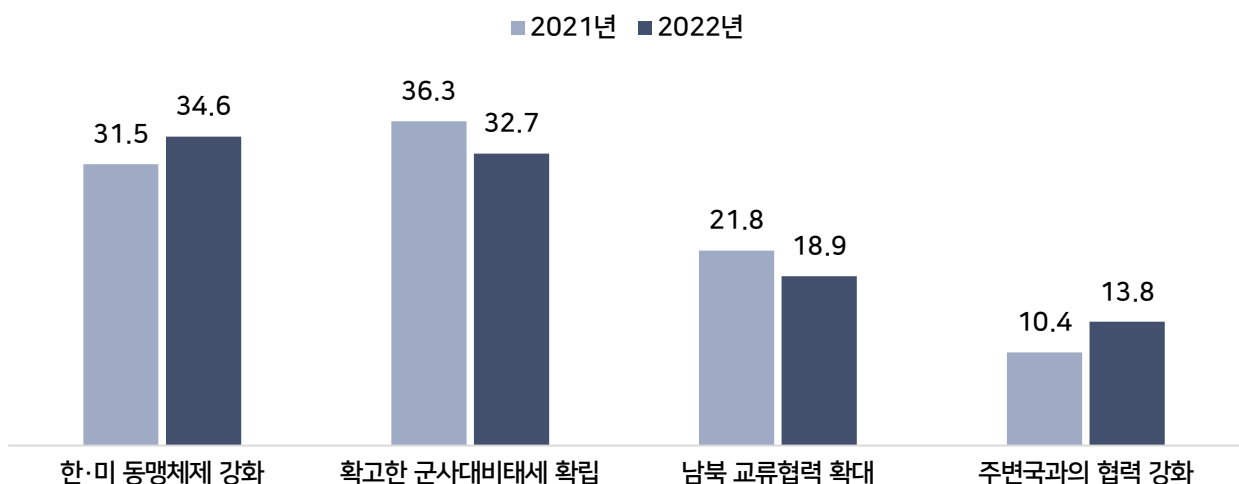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한·미 동맹체제 강화'(34.6%), 전문가는 '남북 교류협력 확대'(43.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32.7%), '남북 교류협력 확대'(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은 3.1%p(2021년 31.5%) 증가하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응답은 3.6%p(2021년 3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 확대'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체제 강화'(28.0%),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23.0%) 등의 순으로 인식함.

<그림 3-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안보 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미 동맹체제 강화'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8> 안보 위협 요인 감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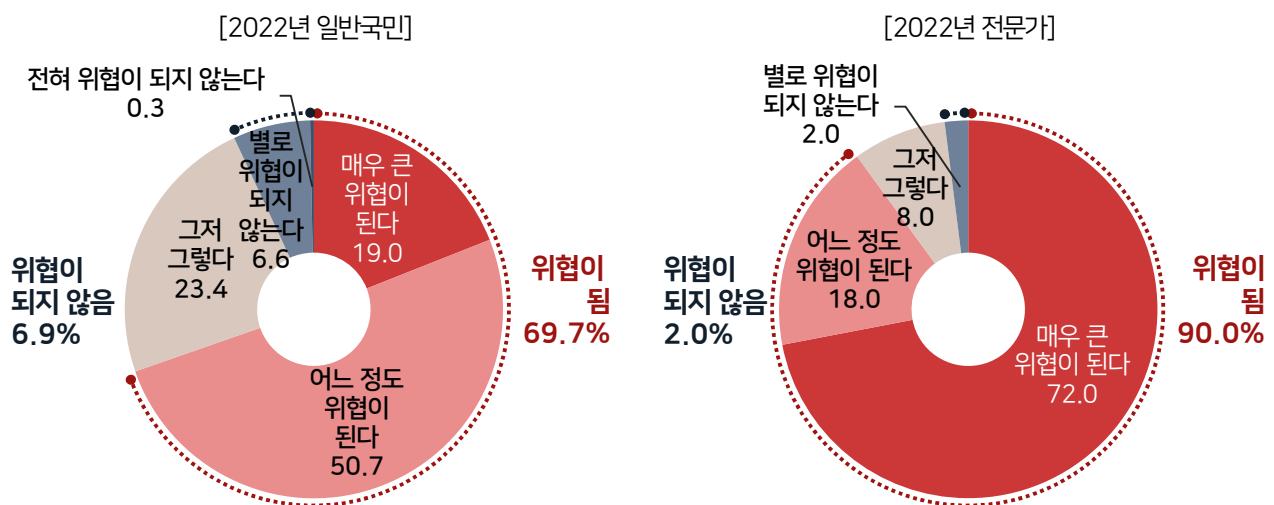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한·미 동맹체제 강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남북 교류협력 확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기타
전체		1,300	34.1	31.9	20.8	13.1	0.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4.6	32.7	18.9	13.8	-
	전문가	100	28.0	23.0	43.0	4.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9.8	38.4	20.7	11.1	-
	중	570	36.8	30.2	19.3	13.7	-
	하	190	38.9	26.8	13.7	20.5	-
성별	남성	720	34.0	32.4	18.6	15.0	-
	여성	480	35.4	33.1	19.4	12.1	-
연령별	20대 이하	227	33.9	28.2	21.1	16.7	-
	30대	193	33.7	37.3	18.1	10.9	-
	40대	247	37.2	34.0	19.4	9.3	-
	50대	254	35.8	29.5	17.7	16.9	-
	60대 이상	279	32.3	34.8	18.3	14.7	-
지역별	서울	225	31.6	39.6	16.4	12.4	-
	경기/인천	386	30.8	36.3	15.8	17.1	-
	부산/울산/경남	179	30.7	35.2	22.9	11.2	-
	대구/경북	121	51.2	26.4	4.1	18.2	-
	광주/전라	114	44.7	23.7	19.3	12.3	-
	대전/충청/세종	127	36.2	18.1	37.8	7.9	-
	강원/제주	48	22.9	37.5	27.1	12.5	-
지역크기	대도시	526	37.8	31.2	17.3	13.7	-
	중소도시	629	32.3	34.3	19.1	14.3	-
	읍/면	45	28.9	26.7	35.6	8.9	-
직업별	농/어/임업	45	37.8	28.9	22.2	11.1	-
	자영업자	165	40.0	30.3	15.8	13.9	-
	판매/서비스직	236	36.4	31.4	21.2	11.0	-
	기능/숙련공	104	36.5	36.5	12.5	14.4	-
	일반 노무직	50	34.0	22.0	28.0	16.0	-
	사무/기술직	304	30.3	33.2	21.1	15.5	-
	경영/관리직	12	25.0	16.7	16.7	41.7	-
	전문/자유직	12	33.3	33.3	16.7	16.7	-
	전업주부	176	33.0	41.5	15.3	10.2	-
	학생	47	23.4	23.4	29.8	23.4	-
	무직/휴직/은퇴	40	50.0	27.5	12.5	10.0	-
	기타	9	33.3	44.4	0.0	22.2	-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0.9	36.4	25.5	7.3	-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7.3	31.0	18.1	13.5	-
	전문대(중퇴/졸업)	269	30.5	36.4	17.1	16.0	-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4.6	31.7	19.8	13.9	-
	대학원 이상	8	37.5	25.0	37.5	0.0	-
생활 수준별	상	62	29.0	33.9	27.4	9.7	-
	중	565	29.9	33.8	19.5	16.8	-
	하	573	39.8	31.4	17.5	11.3	-

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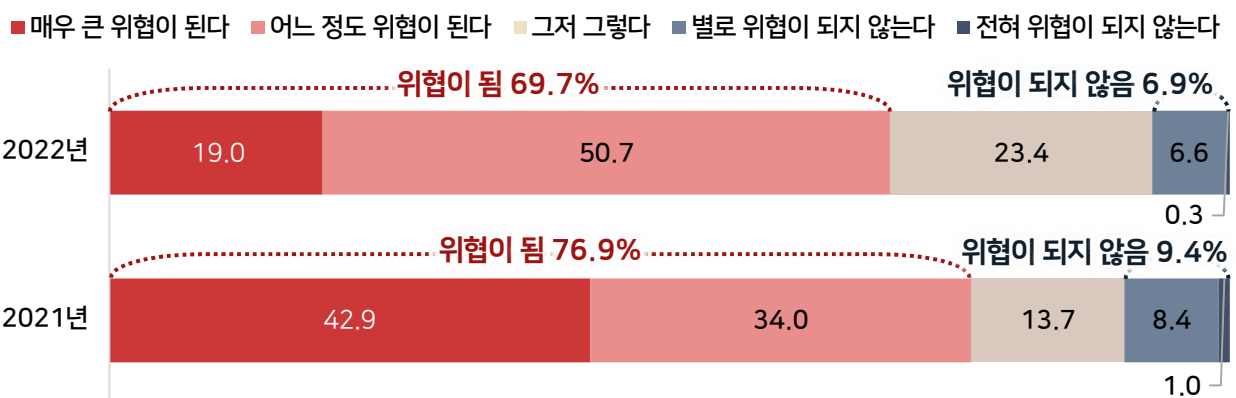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9.7%, 전문가 9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69.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6.9%)보다 62.8%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위협이 된다'는 7.2%p(2021년 76.9%),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2.5%p(2021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90.0%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2.0%)보다 88.0%p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9>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큰 위협이 된다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종합		
								위협이 됨	그저 그렇다	위협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23.1	48.2	22.2	6.2	0.3	71.2	22.2	6.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9.0	50.7	23.4	6.6	0.3	69.7	23.4	6.9
	전문가	100	72.0	18.0	8.0	2.0	-	90.0	8.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2.3	53.2	19.8	4.1	0.7	75.5	19.8	4.8
	중	570	18.2	50.5	25.1	6.0	0.2	68.8	25.1	6.1
	하	190	13.7	45.3	26.8	14.2	0.0	58.9	26.8	14.2
성별	남성	720	18.2	50.0	24.6	6.8	0.4	68.2	24.6	7.2
	여성	480	20.2	51.7	21.7	6.3	0.2	71.9	21.7	6.5
연령별	20대 이하	227	16.3	55.1	23.3	5.3	0.0	71.4	23.3	5.3
	30대	193	16.6	50.8	24.9	7.3	0.5	67.4	24.9	7.8
	40대	247	20.2	48.6	23.5	7.7	0.0	68.8	23.5	7.7
	50대	254	16.5	53.5	22.8	6.3	0.8	70.1	22.8	7.1
	60대 이상	279	24.0	46.2	22.9	6.5	0.4	70.3	22.9	6.8
지역별	서울	225	19.6	55.1	17.3	8.0	0.0	74.7	17.3	8.0
	경기/인천	386	25.4	48.4	19.4	6.7	0.0	73.8	19.4	6.7
	부산/울산/경남	179	7.3	59.8	23.5	8.4	1.1	67.0	23.5	9.5
	대구/경북	121	28.9	38.0	31.4	0.8	0.8	66.9	31.4	1.7
	광주/전라	114	16.7	59.6	18.4	5.3	0.0	76.3	18.4	5.3
	대전/충청/세종	127	5.5	43.3	43.3	7.9	0.0	48.8	43.3	7.9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5.0	43.8	22.9	6.3	2.1	68.8	22.9	8.3
	대도시	526	20.5	52.5	19.4	7.2	0.4	73.0	19.4	7.6
	중소도시	629	18.6	48.8	25.8	6.5	0.3	67.4	25.8	6.8
	읍/면	45	6.7	55.6	37.8	0.0	0.0	62.2	37.8	0.0
직업별	농/어/임업	45	17.8	48.9	28.9	4.4	0.0	66.7	28.9	4.4
	자영업자	165	21.8	46.1	24.8	6.7	0.6	67.9	24.8	7.3
	판매/서비스직	236	14.8	55.5	22.9	6.4	0.4	70.3	22.9	6.8
	기능/숙련공	104	13.5	53.8	22.1	10.6	0.0	67.3	22.1	10.6
	일반 노무직	50	26.0	48.0	20.0	4.0	2.0	74.0	20.0	6.0
	사무/기술직	304	20.7	49.0	22.7	7.6	0.0	69.7	22.7	7.6
	경영/관리직	12	25.0	41.7	33.3	0.0	0.0	66.7	33.3	0.0
	전문/자유직	12	33.3	41.7	8.3	16.7	0.0	75.0	8.3	16.7
	전업주부	176	17.6	57.4	18.8	5.7	0.6	75.0	18.8	6.3
	학생	47	19.1	51.1	27.7	2.1	0.0	70.2	27.7	2.1
	무직/휴직/은퇴	40	27.5	35.0	32.5	5.0	0.0	62.5	32.5	5.0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11.1	77.8	0.0	0.0	22.2	77.8	0.0
	중졸 이하	55	14.5	47.3	32.7	5.5	0.0	61.8	32.7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7.7	51.1	24.2	6.8	0.2	68.8	24.2	7.0
	전문대(중퇴/졸업)	269	17.1	52.8	21.9	8.2	0.0	69.9	21.9	8.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2.0	49.8	22.4	5.6	0.2	71.7	22.4	5.9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37.5	25.0	12.5	0.0	25.0	62.5	12.5	25.0
	상	62	21.0	54.8	19.4	4.8	0.0	75.8	19.4	4.8
	중	565	20.5	49.7	22.5	7.1	0.2	70.3	22.5	7.3
	하	573	17.3	51.1	24.8	6.3	0.5	68.4	24.8	6.8

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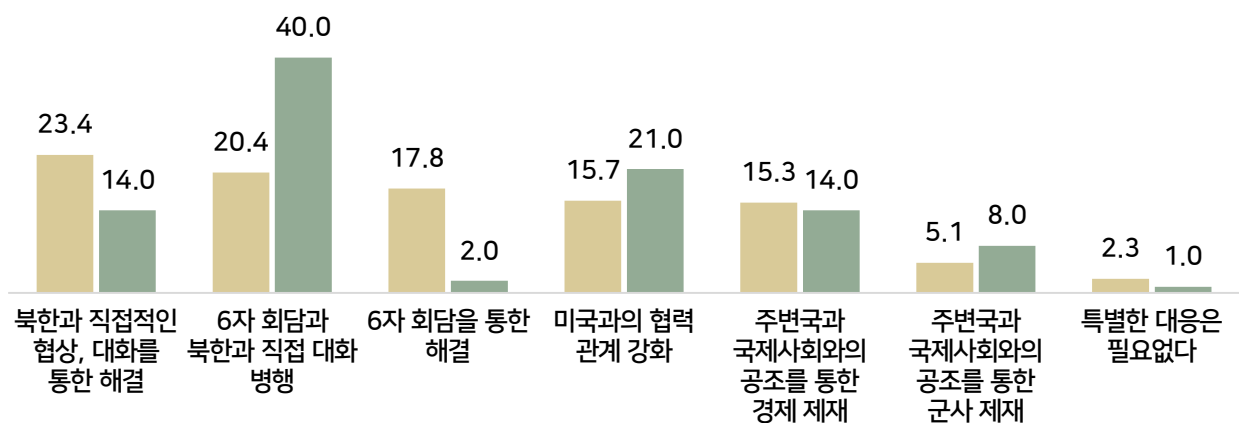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국민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23.4%), 전문가는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4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 2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은 5.7%p(2021년 17.7%) 증가하였고,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은 6.4%p(2021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이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을, 일반국민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었음.

<그림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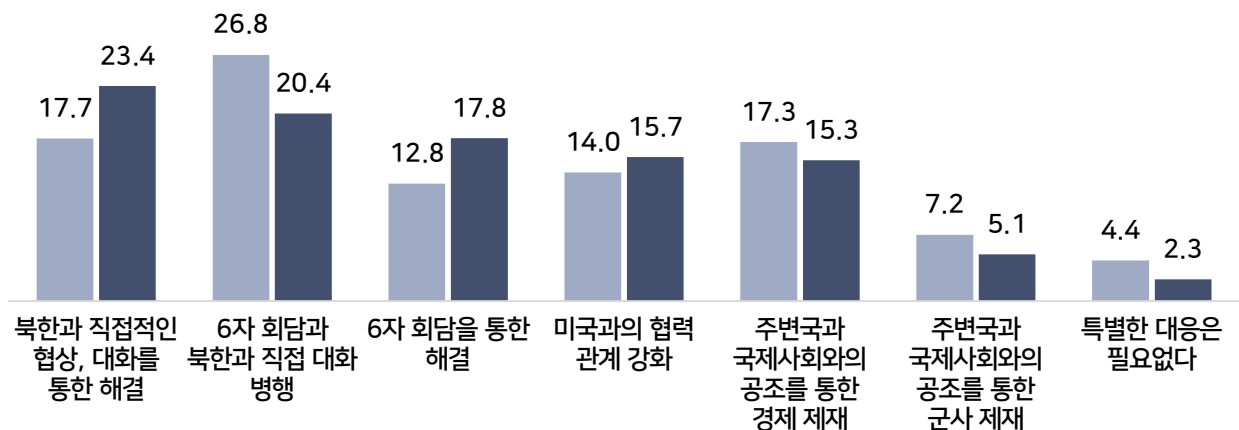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3-10>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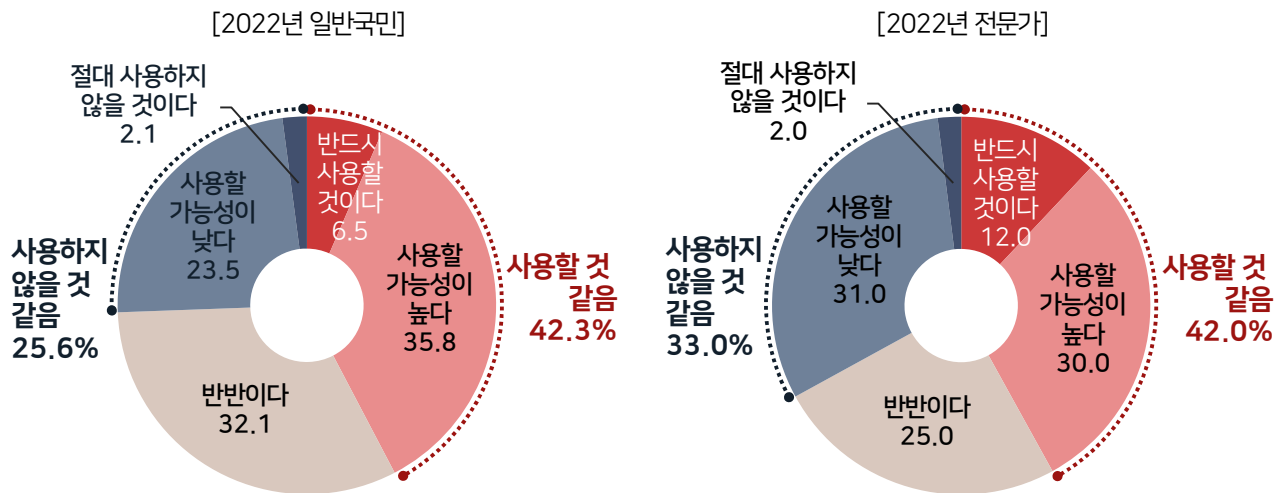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전체		1,300	22.7	21.9	16.5	16.1	15.2	5.3	2.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4	20.4	17.8	15.7	15.3	5.1	2.3
	전문가	100	14.0	40.0	2.0	21.0	14.0	8.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5.5	20.2	15.7	16.4	14.3	5.2	2.7
	중	570	22.6	21.2	19.3	14.7	15.3	4.9	1.9
	하	190	21.1	18.4	17.9	16.8	17.9	5.3	2.6
성별	남성	720	24.0	19.4	18.2	15.6	15.1	5.1	2.5
	여성	480	22.5	21.9	17.1	15.8	15.6	5.0	2.1
연령별	20대 이하	227	25.1	18.9	18.5	15.4	15.4	5.3	1.3
	30대	193	21.8	18.7	16.6	16.6	17.1	5.2	4.1
	40대	247	20.2	26.3	17.4	14.6	15.8	4.0	1.6
	50대	254	22.4	18.5	16.9	16.9	16.9	5.1	3.1
	60대 이상	279	26.9	19.4	19.0	15.1	12.2	5.7	1.8
지역별	서울	225	23.1	20.9	17.3	12.9	16.4	5.3	4.0
	경기/인천	386	15.0	22.0	12.4	20.7	20.7	7.5	1.6
	부산/울산/경남	179	29.1	14.5	21.8	13.4	16.2	3.4	1.7
	대구/경북	121	19.8	15.7	21.5	14.9	19.0	5.0	4.1
	광주/전라	114	21.1	27.2	23.7	15.8	7.9	2.6	1.8
	대전/충청/세종	127	43.3	21.3	17.3	11.8	0.8	3.9	1.6
	강원/제주	48	33.3	20.8	25.0	8.3	10.4	0.0	2.1
지역크기	대도시	526	27.9	14.6	19.4	12.9	16.5	6.1	2.5
	중소도시	629	19.6	25.0	15.4	18.0	15.3	4.5	2.4
	읍/면	45	24.4	24.4	31.1	15.6	2.2	2.2	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8.9	15.6	28.9	15.6	2.2	8.9	0.0
	자영업자	165	20.6	15.8	18.2	20.6	19.4	4.8	0.6
	판매/서비스직	236	29.7	22.0	16.1	16.5	11.4	2.1	2.1
	기능/숙련공	104	19.2	19.2	25.0	14.4	11.5	3.8	6.7
	일반 노무직	50	38.0	24.0	4.0	16.0	8.0	10.0	0.0
	사무/기술직	304	17.4	22.7	18.1	15.8	16.4	6.6	3.0
	경영/관리직	12	16.7	25.0	0.0	8.3	8.3	41.7	0.0
	전문/자유직	12	25.0	16.7	8.3	8.3	25.0	16.7	0.0
	전업주부	176	18.2	21.6	19.3	15.9	19.3	2.3	3.4
	학생	47	34.0	12.8	19.1	8.5	21.3	4.3	0.0
	무직/휴직/은퇴	40	45.0	15.0	5.0	7.5	22.5	5.0	0.0
	기타	9	11.1	44.4	33.3	0.0	11.1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27.3	21.8	30.9	10.9	3.6	5.5	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4.9	19.9	19.0	15.5	14.0	3.9	2.8
	전문대(중퇴/졸업)	269	20.8	21.2	15.6	17.8	16.0	5.6	3.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3.2	20.2	16.1	15.1	17.8	6.1	1.5
	대학원 이상	8	12.5	25.0	12.5	12.5	25.0	0.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21.0	11.3	19.4	11.3	27.4	6.5	3.2
	중	565	24.2	22.3	14.0	14.7	16.3	6.4	2.1
	하	573	22.9	19.5	21.3	17.1	13.1	3.7	2.4

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2.3%, 전문가 4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다'는 응답이 42.3%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25.6%)보다 16.7%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용할 것 같다'는 응답이 42.0%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33.0%)보다 9.0%p 높게 나타남.

<그림 3-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용할 것 같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1> 남북한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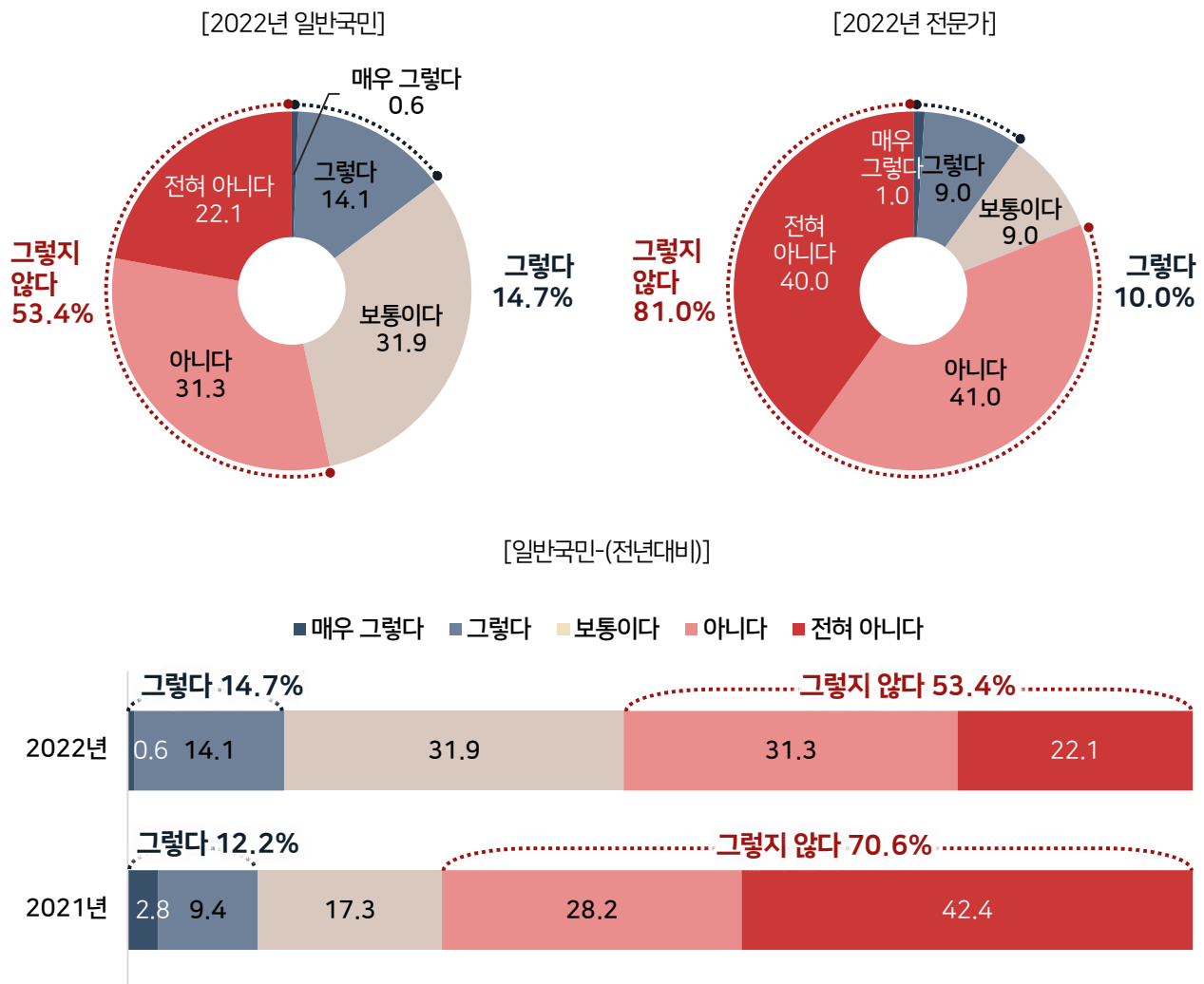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반이다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사용할 것 같음	반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음
전체		1,300	6.9	35.4	31.5	24.1	2.1	42.3	31.5	26.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5	35.8	32.1	23.5	2.1	42.3	32.1	25.6
	전문가	100	12.0	30.0	25.0	31.0	2.0	42.0	25.0	3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2	41.4	26.4	21.8	2.3	49.5	26.4	24.1
	중	570	5.6	33.7	34.0	24.6	2.1	39.3	34.0	26.7
	하	190	5.3	29.5	39.5	24.2	1.6	34.7	39.5	25.8
성별	남성	720	6.4	35.3	31.9	24.2	2.2	41.7	31.9	26.4
	여성	480	6.7	36.7	32.3	22.5	1.9	43.3	32.3	24.4
연령별	20대 이하	227	6.2	36.6	33.9	22.5	0.9	42.7	33.9	23.3
	30대	193	5.7	36.3	30.1	23.8	4.1	42.0	30.1	28.0
	40대	247	6.1	36.4	28.7	25.5	3.2	42.5	28.7	28.7
	50대	254	5.9	35.8	33.5	23.6	1.2	41.7	33.5	24.8
	60대 이상	279	8.2	34.4	33.7	22.2	1.4	42.7	33.7	23.7
지역별	서울	225	2.7	38.7	30.7	26.2	1.8	41.3	30.7	28.0
	경기/인천	386	9.8	35.2	32.4	20.5	2.1	45.1	32.4	22.5
	부산/울산/경남	179	1.1	32.4	45.8	19.0	1.7	33.5	45.8	20.7
	대구/경북	121	12.4	47.9	32.2	7.4	0.0	60.3	32.2	7.4
	광주/전라	114	8.8	36.8	23.7	26.3	4.4	45.6	23.7	30.7
	대전/충청/세종	127	2.4	24.4	26.0	44.1	3.1	26.8	26.0	47.2
	강원/제주	48	8.3	37.5	20.8	31.3	2.1	45.8	20.8	33.3
지역크기	대도시	526	4.9	36.1	32.7	23.6	2.7	41.1	32.7	26.2
	중소도시	629	7.9	34.8	31.5	24.0	1.7	42.8	31.5	25.8
	읍/면	45	4.4	46.7	33.3	15.6	0.0	51.1	33.3	15.6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0.0	37.8	17.8	0.0	44.4	37.8	17.8
	자영업자	165	9.7	37.6	27.9	23.0	1.8	47.3	27.9	24.8
	판매/서비스직	236	4.7	37.7	33.9	21.6	2.1	42.4	33.9	23.7
	기능/숙련공	104	6.7	31.7	31.7	26.0	3.8	38.5	31.7	29.8
	일반 노무직	50	12.0	30.0	28.0	26.0	4.0	42.0	28.0	30.0
	사무/기술직	304	6.6	36.2	32.9	22.7	1.6	42.8	32.9	24.3
	경영/관리직	12	16.7	41.7	0.0	33.3	8.3	58.3	0.0	41.7
	전문/자유직	12	16.7	41.7	16.7	25.0	0.0	58.3	16.7	25.0
	전업주부	176	4.5	37.5	33.5	22.7	1.7	42.0	33.5	24.4
	학생	47	4.3	42.6	25.5	23.4	4.3	46.8	25.5	27.7
	무직/휴직/은퇴	40	5.0	12.5	45.0	37.5	0.0	17.5	45.0	37.5
	기타	9	0.0	22.2	44.4	33.3	0.0	22.2	44.4	33.3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38.2	40.0	21.8	0.0	38.2	40.0	2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6	34.1	32.8	24.7	2.0	40.6	32.8	26.6
	전문대(중퇴/졸업)	269	6.3	31.6	35.3	23.8	3.0	37.9	35.3	26.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7.1	40.2	28.5	22.2	2.0	47.3	28.5	24.1
	대학원 이상	8	25.0	37.5	12.5	25.0	0.0	62.5	12.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6.5	32.3	37.1	21.0	3.2	38.7	37.1	24.2
	중	565	7.4	34.7	31.5	24.1	2.3	42.1	31.5	26.4
	하	573	5.6	37.3	32.1	23.2	1.7	42.9	32.1	25.0

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3.4%, 전문가 81.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4%로, '그렇다'(14.7%)보다 38.7%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그렇다'는 2.5%p(2021년 12.2%) 증가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17.2%p(2021년 7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1.0%로, '그렇다'(10.0%) 보다 71.0%p 높게 나타남.

<그림 3-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특성별 분석]

-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클수록,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종합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0.6	13.7	30.2	32.1	23.5	14.3	62.2	23.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14.1	31.9	31.3	22.1	14.7	31.9	53.4
	전문가	100	1.0	9.0	9.0	41.0	40.0	10.0	9.0	8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0.0	16.1	28.6	28.6	26.6	16.1	28.6	55.2
	중	570	0.9	13.2	33.3	32.5	20.2	14.0	33.3	52.6
	하	190	1.1	12.1	35.3	34.2	17.4	13.2	35.3	51.6
성별	남성	720	0.4	14.2	32.2	32.1	21.1	14.6	32.2	53.2
	여성	480	0.8	14.0	31.5	30.2	23.5	14.8	31.5	53.8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13.2	32.6	30.4	22.9	14.1	32.6	53.3
	30대	193	0.5	14.5	27.5	30.1	27.5	15.0	27.5	57.5
	40대	247	0.8	15.4	32.4	31.6	19.8	16.2	32.4	51.4
	50대	254	0.8	11.8	35.4	31.9	20.1	12.6	35.4	52.0
	60대 이상	279	0.0	15.4	30.8	32.3	21.5	15.4	30.8	53.8
지역별	서울	225	0.9	14.7	26.7	34.7	23.1	15.6	26.7	57.8
	경기/인천	386	0.8	13.0	31.9	26.9	27.5	13.7	31.9	54.4
	부산/울산/경남	179	0.0	16.2	46.4	31.8	5.6	16.2	46.4	37.4
	대구/경북	121	1.7	10.7	32.2	20.7	34.7	12.4	32.2	55.4
	광주/전라	114	0.0	17.5	16.7	36.0	29.8	17.5	16.7	65.8
	대전/충청/세종	127	0.0	15.0	35.4	39.4	10.2	15.0	35.4	49.6
	강원/제주	48	0.0	10.4	29.2	43.8	16.7	10.4	29.2	6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0.6	13.3	30.0	32.5	23.6	13.9	30.0	56.1
	중소도시	629	0.6	14.8	33.1	30.2	21.3	15.4	33.1	51.5
	읍/면	45	0.0	13.3	37.8	33.3	15.6	13.3	37.8	48.9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0.0	31.1	31.1	17.8	20.0	31.1	48.9
	자영업자	165	1.2	10.9	35.2	27.9	24.8	12.1	35.2	52.7
	판매/서비스직	236	0.8	16.1	33.9	28.8	20.3	16.9	33.9	49.2
	기능/숙련공	104	1.0	19.2	23.1	41.3	15.4	20.2	23.1	56.7
	일반 노무직	50	0.0	12.0	36.0	24.0	28.0	12.0	36.0	52.0
	사무/기술직	304	0.7	14.8	30.9	28.0	25.7	15.5	30.9	53.6
	경영/관리직	12	0.0	0.0	16.7	58.3	25.0	0.0	16.7	83.3
	전문/자유직	12	0.0	16.7	33.3	41.7	8.3	16.7	33.3	50.0
	전업주부	176	0.0	14.2	29.5	35.2	21.0	14.2	29.5	56.3
	학생	47	0.0	6.4	29.8	40.4	23.4	6.4	29.8	63.8
	무직/휴직/은퇴	40	0.0	5.0	45.0	30.0	20.0	5.0	45.0	50.0
	기타	9	0.0	11.1	55.6	33.3	0.0	11.1	55.6	33.3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18.2	47.3	21.8	12.7	18.2	47.3	3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4	15.1	33.8	31.4	19.2	15.5	33.8	50.7
	전문대(중퇴/졸업)	269	1.1	14.5	28.6	33.1	22.7	15.6	28.6	55.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5	12.0	30.2	31.2	26.1	12.4	30.2	57.3
	대학원 이상	8	0.0	25.0	12.5	37.5	25.0	25.0	12.5	62.5
생활 수준별	상	62	0.0	11.3	29.0	30.6	29.0	11.3	29.0	59.7
	중	565	0.7	12.4	30.8	33.1	23.0	13.1	30.8	56.1
	하	573	0.5	16.1	33.3	29.7	20.4	16.6	33.3	50.1

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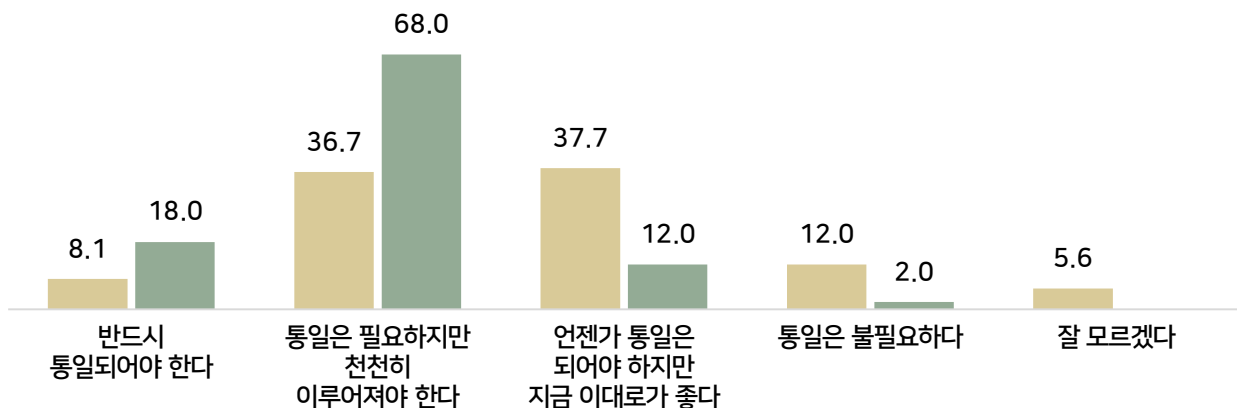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37.7%), 전문가는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68.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3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36.7%), '통일은 불필요하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10.5%p(2021년 27.2%) 증가하였고,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1.6%p(2021년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가 6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18.0%),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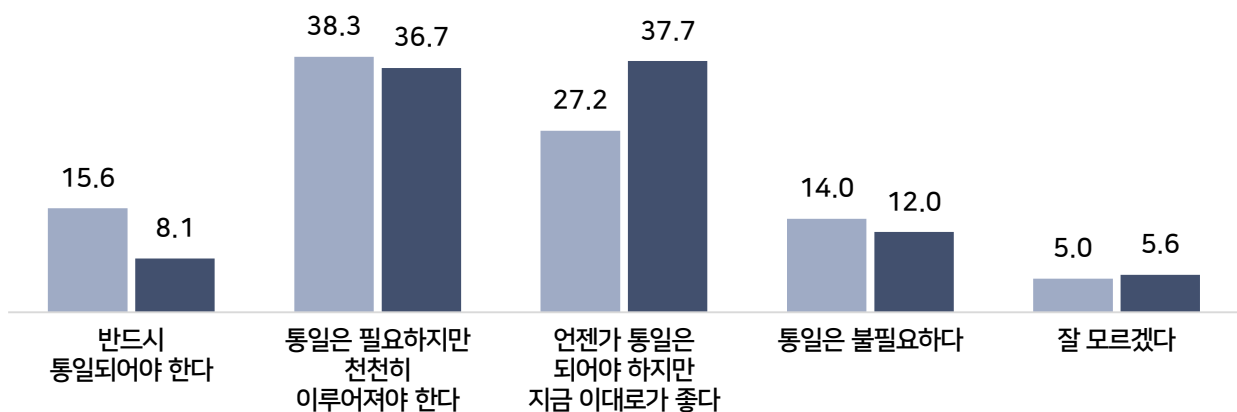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3> 한반도 평화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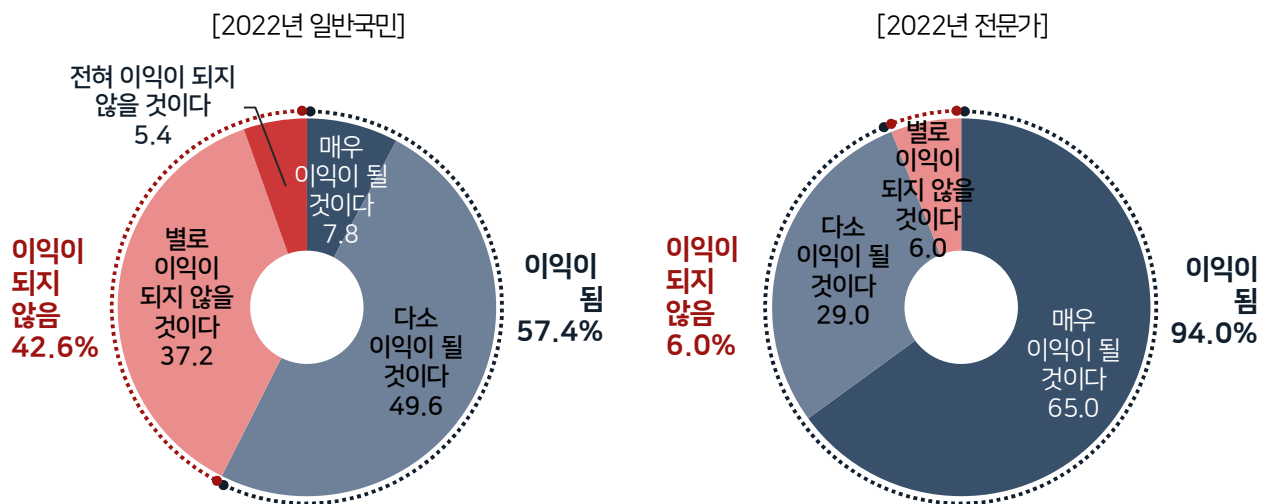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좋다	통일은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종합		
								통일 필요	통일 불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1,300	8.8	39.1	35.7	11.2	5.2	47.9	46.9	5.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1	36.7	37.7	12.0	5.6	44.8	49.7	5.6
	전문가	100	18.0	68.0	12.0	2.0	-	86.0	14.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0.0	42.5	33.0	9.8	4.8	52.5	42.7	4.8
	중	570	7.5	37.9	38.4	11.8	4.4	45.4	50.2	4.4
	하	190	5.3	19.5	46.3	17.9	11.1	24.7	64.2	11.1
성별	남성	720	8.1	36.1	39.0	11.9	4.9	44.2	51.0	4.9
	여성	480	8.1	37.5	35.6	12.1	6.7	45.6	47.7	6.7
연령별	20대 이하	227	5.3	31.3	41.4	15.0	7.0	36.6	56.4	7.0
	30대	193	6.7	33.7	39.9	14.5	5.2	40.4	54.4	5.2
	40대	247	10.5	36.8	36.8	11.3	4.5	47.4	48.2	4.5
	50대	254	6.3	37.4	41.7	11.0	3.5	43.7	52.8	3.5
	60대 이상	279	10.8	42.3	30.1	9.3	7.5	53.0	39.4	7.5
지역별	서울	225	12.9	40.4	31.6	8.4	6.7	53.3	40.0	6.7
	경기/인천	386	9.8	34.7	37.6	12.2	5.7	44.6	49.7	5.7
	부산/울산/경남	179	6.1	37.4	37.4	16.2	2.8	43.6	53.6	2.8
	대구/경북	121	3.3	27.3	41.3	19.0	9.1	30.6	60.3	9.1
	광주/전라	114	5.3	38.6	36.0	16.7	3.5	43.9	52.6	3.5
	대전/충청/세종	127	1.6	42.5	47.2	3.9	4.7	44.1	51.2	4.7
	강원/제주	48	14.6	35.4	37.5	4.2	8.3	50.0	41.7	8.3
지역크기	대도시	526	9.5	36.1	34.4	14.3	5.7	45.6	48.7	5.7
	중소도시	629	7.5	36.9	39.9	10.3	5.4	44.4	50.2	5.4
	읍/면	45	0.0	40.0	44.4	8.9	6.7	40.0	53.3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28.9	57.8	2.2	11.1	28.9	60.0	11.1
	자영업자	165	9.1	40.6	34.5	12.7	3.0	49.7	47.3	3.0
	판매/서비스직	236	6.4	33.1	42.4	11.9	6.4	39.4	54.2	6.4
	기능/숙련공	104	7.7	38.5	34.6	15.4	3.8	46.2	50.0	3.8
	일반 노무직	50	16.0	26.0	36.0	10.0	12.0	42.0	46.0	12.0
	사무/기술직	304	6.9	37.5	36.8	13.2	5.6	44.4	50.0	5.6
	경영/관리직	12	16.7	41.7	41.7	0.0	0.0	58.3	41.7	0.0
	전문/자유직	12	0.0	41.7	50.0	8.3	0.0	41.7	58.3	0.0
	전업주부	176	10.2	40.9	33.0	10.2	5.7	51.1	43.2	5.7
	학생	47	8.5	31.9	31.9	17.0	10.6	40.4	48.9	10.6
	무직/휴직/은퇴	40	15.0	37.5	32.5	15.0	0.0	52.5	47.5	0.0
	기타	9	0.0	33.3	66.7	0.0	0.0	33.3	66.7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0.9	40.0	41.8	3.6	3.6	50.9	45.5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8.1	39.7	35.6	9.8	6.8	47.8	45.4	6.8
	전문대(중퇴/졸업)	269	6.7	33.8	39.4	13.0	7.1	40.5	52.4	7.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5	34.4	38.5	14.9	3.7	42.9	53.4	3.7
	대학원 이상	8	12.5	50.0	25.0	12.5	0.0	62.5	37.5	0.0
생활 수준별	상	62	9.7	33.9	48.4	6.5	1.6	43.5	54.8	1.6
	중	565	6.2	38.4	38.8	12.0	4.6	44.6	50.8	4.6
	하	573	9.8	35.3	35.4	12.6	7.0	45.0	48.0	7.0

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7.4%, 전문가 9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57.4%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42.6%)보다 14.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94.0%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6.0%)보다 88.0%p 높게 나타남.

<그림 3-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4>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이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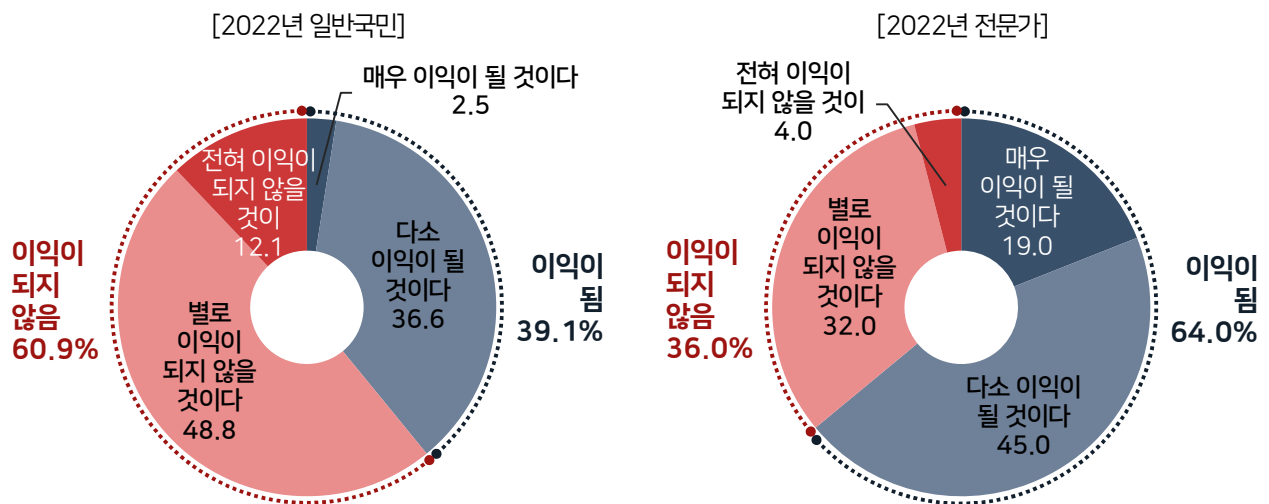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이익이 됨	이익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12.2	48.0	34.8	5.0	60.2	3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8	49.6	37.2	5.4	57.4	42.6
	전문가	100	65.0	29.0	6.0	-	94.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9.8	52.0	33.2	5.0	61.8	38.2
	중	570	7.4	50.7	37.9	4.0	58.1	41.9
	하	190	4.7	40.5	44.2	10.5	45.3	54.7
성별	남성	720	9.4	47.9	36.8	5.8	57.4	42.6
	여성	480	5.4	52.1	37.7	4.8	57.5	42.5
연령별	20대 이하	227	8.8	46.7	37.9	6.6	55.5	44.5
	30대	193	4.7	48.2	40.4	6.7	52.8	47.2
	40대	247	9.7	48.6	38.1	3.6	58.3	41.7
	50대	254	5.9	50.4	39.0	4.7	56.3	43.7
	60대 이상	279	9.3	53.0	31.9	5.7	62.4	37.6
지역별	서울	225	13.3	52.9	32.0	1.8	66.2	33.8
	경기/인천	386	8.3	51.3	34.7	5.7	59.6	40.4
	부산/울산/경남	179	2.2	54.7	38.5	4.5	57.0	43.0
	대구/경북	121	3.3	38.0	47.1	11.6	41.3	58.7
	광주/전라	114	6.1	35.1	50.9	7.9	41.2	58.8
	대전/충청/세종	127	2.4	59.8	35.4	2.4	62.2	37.8
	강원/제주	48	29.2	37.5	22.9	10.4	66.7	33.3
지역크기	대도시	526	9.1	48.9	36.1	5.9	58.0	42.0
	중소도시	629	7.3	50.9	36.9	4.9	58.2	41.8
	읍/면	45	0.0	40.0	53.3	6.7	40.0	60.0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0.0	51.1	4.4	44.4	55.6
	자영업자	165	6.7	47.9	38.8	6.7	54.5	45.5
	판매/서비스직	236	7.6	48.3	40.3	3.8	55.9	44.1
	기능/숙련공	104	7.7	49.0	40.4	2.9	56.7	43.3
	일반 노무직	50	16.0	40.0	34.0	10.0	56.0	44.0
	사무/기술직	304	8.6	52.3	33.2	5.9	60.9	39.1
	경영/관리직	12	8.3	66.7	25.0	0.0	75.0	25.0
	전문/자유직	12	0.0	50.0	50.0	0.0	50.0	50.0
	전업주부	176	5.7	52.3	36.4	5.7	58.0	42.0
	학생	47	12.8	42.6	29.8	14.9	55.3	44.7
	무직/휴직/은퇴	40	7.5	55.0	37.5	0.0	62.5	37.5
	기타	9	11.1	66.7	22.2	0.0	77.8	22.2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54.5	36.4	3.6	60.0	4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9	47.8	39.3	5.0	55.7	44.3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51.3	38.7	5.6	55.8	44.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2	49.3	34.4	6.1	59.5	40.5
	대학원 이상	8	12.5	75.0	12.5	0.0	87.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2.9	61.3	22.6	3.2	74.2	25.8
	중	565	8.1	49.4	38.2	4.2	57.5	42.5
	하	573	7.0	48.5	37.7	6.8	55.5	44.5

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60.9%), 전문가는 '이익이 된다'(6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9%로, '이익이 된다' (39.1%)보다 21.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64.0%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36.0%)보다 28.0%p 높게 나타남.

<그림 3-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5>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이익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이익이 됨	이익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3.8	37.2	47.5	11.5	41.0	5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00	2.5	36.6	48.8	12.1	39.1
	전문가	100	19.0	45.0	32.0	4.0	64.0	3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5	41.1	46.6	9.8	43.6	56.4
	중	570	2.8	37.5	49.3	10.4	40.4	59.6
	하	190	1.6	23.2	52.6	22.6	24.7	75.3
성별	남성	720	2.9	38.5	48.2	10.4	41.4	58.6
	여성	480	1.9	33.8	49.8	14.6	35.6	64.4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	33.5	49.3	14.5	36.1	63.9
	30대	193	0.5	37.3	52.3	9.8	37.8	62.2
	40대	247	4.5	36.8	46.6	12.1	41.3	58.7
	50대	254	2.4	35.4	49.6	12.6	37.8	62.2
	60대 이상	279	2.2	39.4	47.3	11.1	41.6	58.4
지역별	서울	225	3.1	43.6	47.6	5.8	46.7	53.3
	경기/인천	386	3.1	39.9	43.0	14.0	43.0	57.0
	부산/울산/경남	179	0.0	48.6	45.3	6.1	48.6	51.4
	대구/경북	121	2.5	21.5	57.0	19.0	24.0	76.0
	광주/전라	114	2.6	23.7	58.8	14.9	26.3	73.7
	대전/충청/세종	127	0.0	29.9	55.9	14.2	29.9	70.1
	강원/제주	48	10.4	18.8	52.1	18.8	29.2	70.8
지역크기	대도시	526	1.9	36.7	48.3	13.1	38.6	61.4
	중소도시	629	3.2	37.5	48.0	11.3	40.7	59.3
	읍/면	45	0.0	22.2	66.7	11.1	22.2	77.8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8.9	62.2	6.7	31.1	68.9
	자영업자	165	3.6	45.5	40.6	10.3	49.1	50.9
	판매/서비스직	236	1.7	34.7	51.7	11.9	36.4	63.6
	기능/숙련공	104	0.0	42.3	50.0	7.7	42.3	57.7
	일반 노무직	50	4.0	38.0	38.0	20.0	42.0	58.0
	사무/기술직	304	3.0	34.2	50.3	12.5	37.2	62.8
	경영/관리직	12	0.0	41.7	41.7	16.7	41.7	58.3
	전문/자유직	12	0.0	41.7	33.3	25.0	41.7	58.3
	전업주부	176	2.3	35.2	50.0	12.5	37.5	62.5
	학생	47	6.4	34.0	36.2	23.4	40.4	59.6
	무직/휴직/은퇴	40	2.5	25.0	67.5	5.0	27.5	72.5
	기타	9	0.0	44.4	44.4	11.1	44.4	55.6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41.8	47.3	9.1	43.6	5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2	37.3	49.3	11.1	39.5	60.5
	전문대(중퇴/졸업)	269	1.1	33.5	51.7	13.8	34.6	65.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7	37.1	46.6	12.7	40.7	59.3
	대학원 이상	8	12.5	37.5	50.0	0.0	50.0	50.0
생활 수준별	상	62	4.8	51.6	37.1	6.5	56.5	43.5
	중	565	2.8	35.9	51.0	10.3	38.8	61.2
	하	573	1.9	35.6	48.0	14.5	37.5	62.5

16. 한반도 통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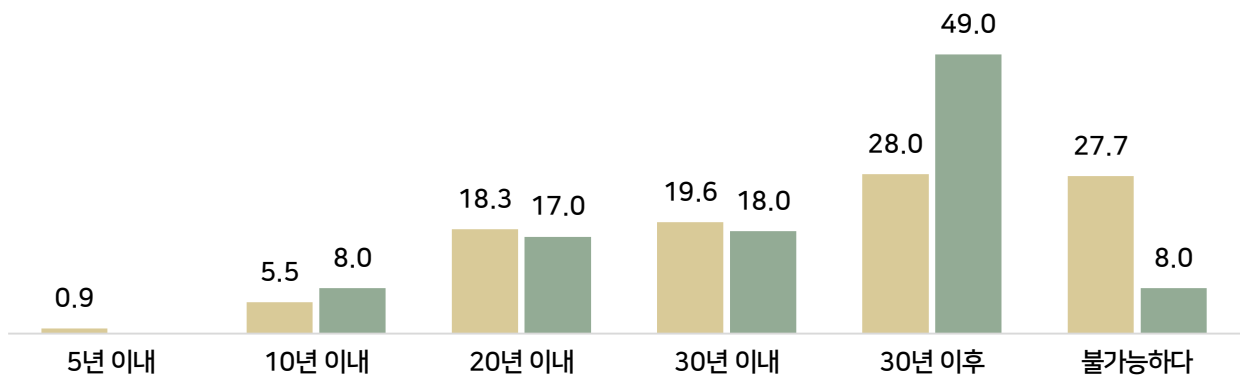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일반국민은 '30년 이후'라는 응답이 일반국민(28.0%), 전문가(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가능하다' (27.7%), '30년 이내'(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30년 이후'는 21.5%p(2021년 49.5%) 감소함.
- ▶ [전문가]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30년 이후'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년 이내'(18.0%), '20년 이내'(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한반도 통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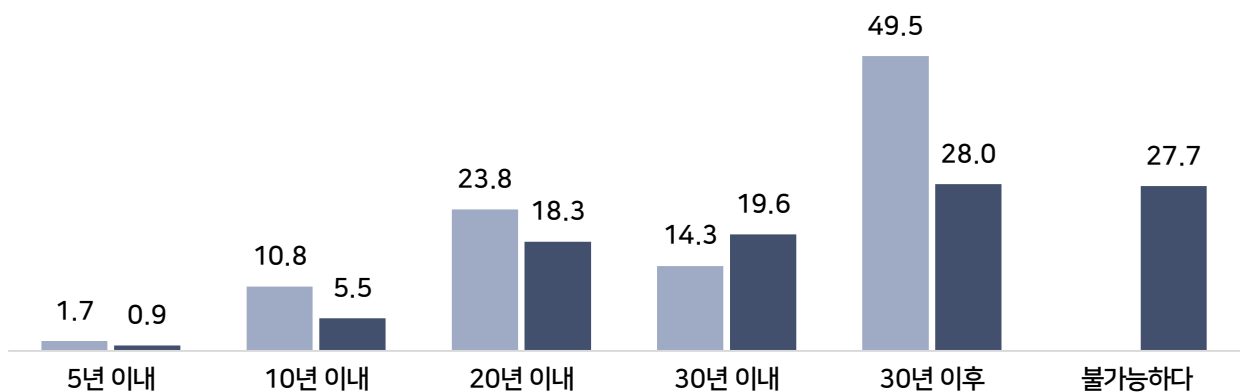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30년 이후'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중',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6> 한반도 통일 전망

단위[%]		사례수 (명)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후	불가능하다
전체		1,300	0.8	5.7	18.2	19.5	29.6	26.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5.5	18.3	19.6	28.0	27.7
	전문가	100	-	8.0	17.0	18.0	49.0	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	6.6	17.3	20.7	22.0	32.0
	중	570	0.5	5.8	19.6	18.1	32.3	23.7
	하	190	1.1	2.1	16.8	21.6	28.9	29.5
성별	남성	720	0.8	4.6	17.9	20.3	28.9	27.5
	여성	480	1.0	6.9	19.0	18.5	26.7	27.9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4.8	19.8	18.5	29.1	27.3
	30대	193	1.0	6.2	20.7	14.5	26.9	30.6
	40대	247	1.6	6.5	16.2	22.3	29.1	24.3
	50대	254	0.8	4.3	17.3	19.7	28.7	29.1
	60대 이상	279	0.7	5.7	18.3	21.5	26.2	27.6
지역별	서울	225	0.9	12.0	22.2	17.3	21.8	25.8
	경기/인천	386	0.8	6.2	24.4	17.9	23.1	27.7
	부산/울산/경남	179	0.0	0.0	7.8	27.9	41.9	22.3
	대구/경북	121	0.0	7.4	12.4	6.6	24.8	48.8
	광주/전라	114	5.3	3.5	21.1	20.2	20.2	29.8
	대전/충청/세종	127	0.0	0.8	7.9	26.0	49.6	15.7
	강원/제주	48	0.0	2.1	27.1	27.1	14.6	29.2
지역크기	대도시	526	0.6	6.5	16.7	19.6	28.9	27.8
	중소도시	629	1.3	4.9	20.0	18.3	27.8	27.7
	읍/면	45	0.0	2.2	13.3	37.8	20.0	26.7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4	22.2	24.4	24.4	24.4
	자영업자	165	1.2	4.8	17.6	12.7	28.5	35.2
	판매/서비스직	236	1.3	5.1	14.8	22.9	29.7	26.3
	기능/숙련공	104	1.0	1.9	14.4	26.0	26.9	29.8
	일반 노무직	50	0.0	6.0	14.0	20.0	34.0	26.0
	사무/기술직	304	1.0	5.9	20.4	16.4	26.6	29.6
	경영/관리직	12	0.0	8.3	16.7	41.7	25.0	8.3
	전문/자유직	12	0.0	8.3	33.3	25.0	16.7	16.7
	전업주부	176	1.1	7.4	18.8	19.3	27.3	26.1
	학생	47	0.0	4.3	21.3	21.3	31.9	21.3
	무직/휴직/은퇴	40	0.0	10.0	20.0	17.5	35.0	17.5
	기타	9	0.0	0.0	55.6	33.3	0.0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1.8	23.6	27.3	12.7	3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6.1	17.9	19.4	27.3	28.6
	전문대(중퇴/졸업)	269	1.1	4.5	12.6	19.3	33.5	29.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	6.1	22.0	18.8	27.3	24.6
	대학원 이상	8	0.0	0.0	12.5	25.0	25.0	37.5
생활 수준별	상	62	0.0	9.7	22.6	21.0	25.8	21.0
	중	565	0.5	5.3	19.5	18.6	32.4	23.7
	하	573	1.4	5.2	16.8	20.4	23.9	32.3

17. 한반도 통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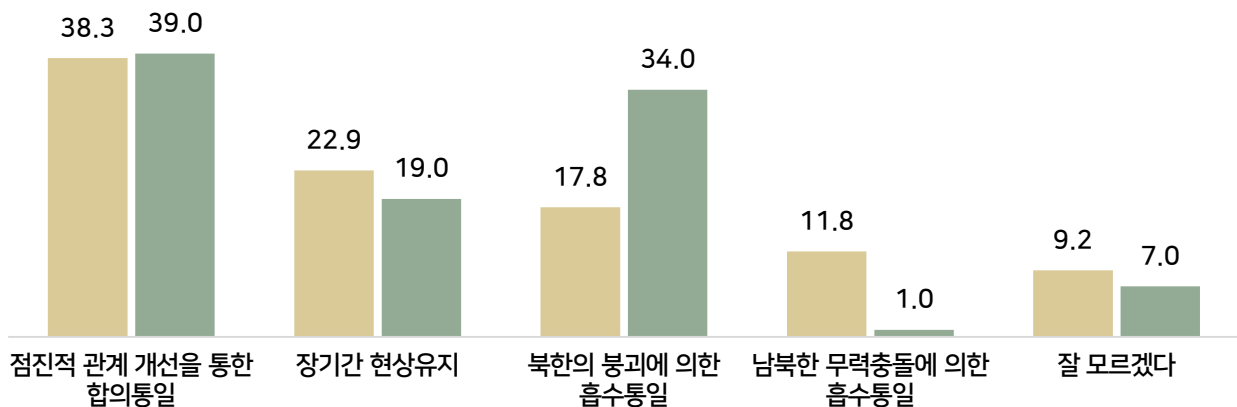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8.3%, 전문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간 현상유지'(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은 2.2%p(2021년 36.1%) 증가하였고, '장기간 현상유지'는 2.7%p(2021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3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한반도 통일방식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들 공히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으로 나타남.

<그림 3-17> 한반도 통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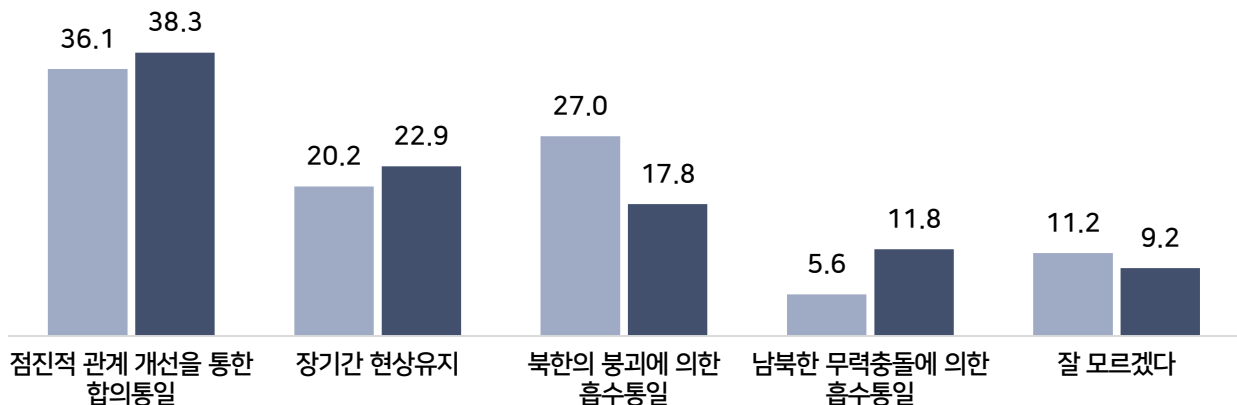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7> 한반도 통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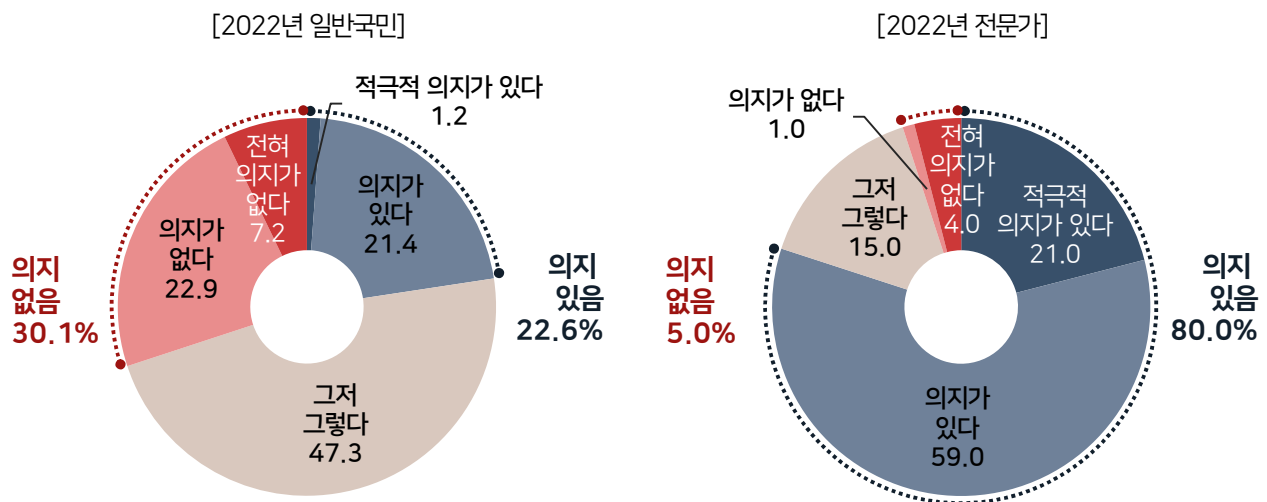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장기간 현상유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38.4	22.6	19.1	10.9	9.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8.3	22.9	17.8	11.8	9.2
	전문가	100	39.0	19.0	34.0	1.0	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6.4	20.2	21.6	12.5	9.3
	중	570	41.6	21.4	16.5	12.6	7.9
	하	190	33.2	33.7	13.2	7.4	12.6
성별	남성	720	39.6	21.9	18.1	12.9	7.5
	여성	480	36.5	24.4	17.5	10.0	11.7
연령별	20대 이하	227	35.2	26.9	16.7	12.8	8.4
	30대	193	38.9	20.7	19.2	12.4	8.8
	40대	247	43.7	21.5	16.6	10.5	7.7
	50대	254	37.4	24.8	17.3	12.2	8.3
	60대 이상	279	36.6	20.8	19.4	11.1	12.2
지역별	서울	225	39.6	23.1	12.4	14.7	10.2
	경기/인천	386	38.1	21.5	16.3	11.4	12.7
	부산/울산/경남	179	40.8	27.4	19.6	10.6	1.7
	대구/경북	121	20.7	21.5	27.3	17.4	13.2
	광주/전라	114	36.8	30.7	16.7	11.4	4.4
	대전/충청/세종	127	52.8	15.0	18.9	7.1	6.3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35.4	22.9	25.0	4.2	12.5
	대도시	526	32.7	24.5	24.3	10.8	7.6
	중소도시	629	42.1	22.1	12.2	13.2	10.3
	읍/면	45	51.1	15.6	20.0	2.2	11.1
직업별	농/어/임업	45	37.8	17.8	15.6	15.6	13.3
	자영업자	165	38.8	22.4	17.6	10.9	10.3
	판매/서비스직	236	37.3	24.2	16.5	16.5	5.5
	기능/숙련공	104	39.4	19.2	22.1	13.5	5.8
	일반 노무직	50	30.0	18.0	26.0	8.0	18.0
	사무/기술직	304	40.5	22.7	18.4	10.2	8.2
	경영/관리직	12	41.7	25.0	8.3	16.7	8.3
	전문/자유직	12	58.3	25.0	8.3	0.0	8.3
	전업주부	176	35.8	25.0	16.5	9.7	13.1
	학생	47	29.8	29.8	21.3	10.6	8.5
	무직/휴직/은퇴	40	45.0	27.5	12.5	5.0	10.0
최종 학력별	기타	9	55.6	0.0	11.1	22.2	11.1
	중졸 이하	55	45.5	7.3	12.7	18.2	1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5.6	21.4	19.2	12.9	10.9
	전문대(중퇴/졸업)	269	36.4	27.1	17.8	10.4	8.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1.2	24.1	17.1	10.5	7.1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62.5	12.5	12.5	12.5	0.0
	상	62	40.3	24.2	22.6	9.7	3.2
	중	565	41.8	24.2	15.4	10.3	8.3
	하	573	34.7	21.5	19.7	13.4	10.6

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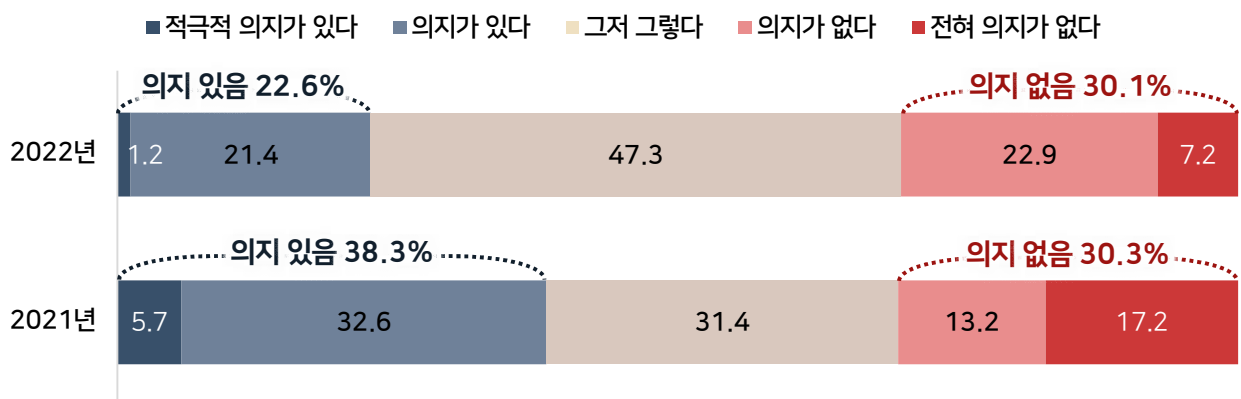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일반국민은 '의지가 없다'(30.1%), 전문가는 '의지가 있다'(8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응답이 30.1%로, '의지가 있다'(22.6%)는 응답보다 7.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의지가 있다'는 응답은 15.7%p(2021년 38.3%),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0.2%p(2021년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통일비용 지불 의향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응답이 80.0%로, '의지가 없다'(5.0%)는 응답보다 75.0%p 높게 나타남.

<그림 3-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통일비용 지불 의지에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3-18> 통일비용 지불 의지

단위[%]		사례수 (명)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저 그렇다	의지가 없다	전혀 의지가 없다	종합		
								의지 있음	보통	의지 없음
전체		1,300	2.7	24.3	44.8	21.2	6.9	27.0	44.8	2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	21.4	47.3	22.9	7.2	22.6	47.3	30.1
	전문가	100	21.0	59.0	15.0	1.0	4.0	80.0	15.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	25.7	45.5	22.0	5.5	27.0	45.5	27.5
	중	570	1.1	19.1	49.5	23.2	7.2	20.2	49.5	30.4
	하	190	1.1	18.4	45.3	24.2	11.1	19.5	45.3	35.3
성별	남성	720	1.5	21.0	47.4	23.2	6.9	22.5	47.4	30.1
	여성	480	0.6	22.1	47.3	22.5	7.5	22.7	47.3	3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25.1	43.2	24.2	7.0	25.6	43.2	31.3
	30대	193	1.0	20.7	45.1	25.4	7.8	21.8	45.1	33.2
	40대	247	2.0	22.3	49.8	19.8	6.1	24.3	49.8	25.9
	50대	254	0.4	18.5	49.2	23.2	8.7	18.9	49.2	31.9
	60대 이상	279	1.8	20.8	48.4	22.6	6.5	22.6	48.4	29.0
지역별	서울	225	0.9	24.4	52.4	20.4	1.8	25.3	52.4	22.2
	경기/인천	386	0.8	22.5	46.1	21.8	8.8	23.3	46.1	30.6
	부산/울산/경남	179	0.0	20.7	46.9	23.5	8.9	20.7	46.9	32.4
	대구/경북	121	1.7	5.0	50.4	29.8	13.2	6.6	50.4	43.0
	광주/전라	114	0.9	22.8	41.2	28.9	6.1	23.7	41.2	35.1
	대전/충청/세종	127	1.6	29.9	48.0	18.1	2.4	31.5	48.0	20.5
	강원/제주	48	8.3	16.7	39.6	22.9	12.5	25.0	39.6	35.4
지역크기	대도시	526	0.8	23.2	44.5	23.4	8.2	24.0	44.5	31.6
	중소도시	629	1.6	19.6	49.6	22.6	6.7	21.1	49.6	29.3
	읍/면	45	0.0	26.7	48.9	22.2	2.2	26.7	48.9	24.4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2.2	60.0	11.1	4.4	24.4	60.0	15.6
	자영업자	165	1.8	23.6	43.6	20.6	10.3	25.5	43.6	30.9
	판매/서비스직	236	0.4	17.8	47.5	27.5	6.8	18.2	47.5	34.3
	기능/숙련공	104	1.9	27.9	38.5	25.0	6.7	29.8	38.5	31.7
	일반 노무직	50	4.0	24.0	40.0	22.0	10.0	28.0	40.0	32.0
	사무/기술직	304	1.3	21.7	48.7	21.7	6.6	23.0	48.7	28.3
	경영/관리직	12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전문/자유직	12	0.0	25.0	58.3	16.7	0.0	25.0	58.3	16.7
	전업주부	176	0.6	19.9	50.6	22.7	6.3	20.5	50.6	29.0
	학생	47	0.0	29.8	31.9	25.5	12.8	29.8	31.9	38.3
	무직/휴직/은퇴	40	0.0	10.0	57.5	30.0	2.5	10.0	57.5	32.5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11.1	77.8	0.0	11.1	11.1	77.8	11.1
	중졸 이하	55	3.6	16.4	67.3	10.9	1.8	20.0	67.3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3	22.5	47.6	21.8	6.8	23.8	47.6	28.6
	전문대(중퇴/졸업)	269	0.0	19.7	43.1	29.7	7.4	19.7	43.1	37.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	22.0	47.6	21.0	8.3	23.2	47.6	29.3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25.0	25.0	37.5	0.0	37.5	25.0	37.5
	상	62	1.6	16.1	59.7	19.4	3.2	17.7	59.7	22.6
	중	565	1.1	22.7	47.3	22.1	6.9	23.7	47.3	29.0
	하	573	1.2	20.8	46.1	24.1	7.9	22.0	46.1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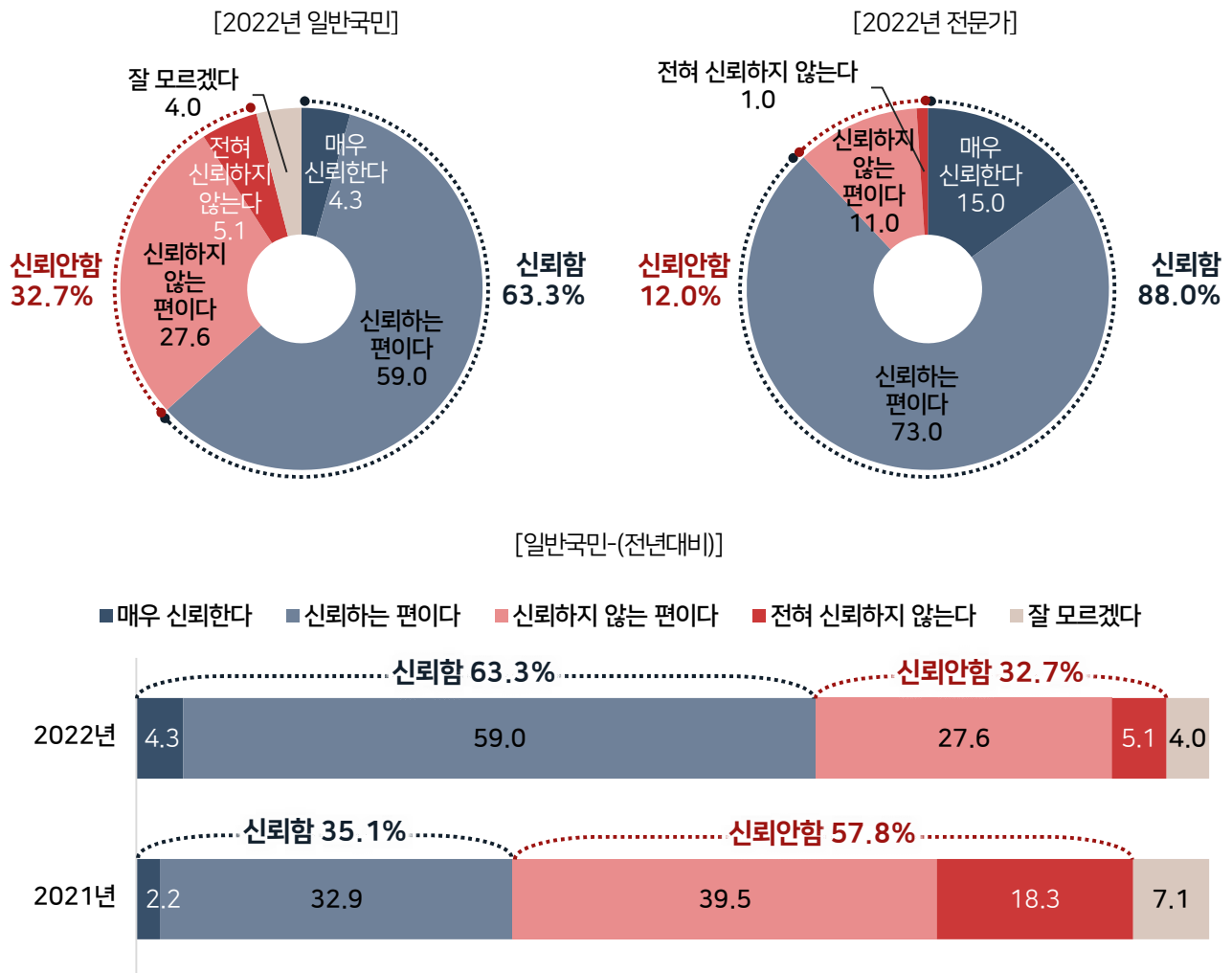
I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 군에 대한 신뢰도

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63.3%, 전문가는 8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에 대해 '신뢰한다'(63.3%)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32.7%)보다 30.6%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신뢰한다'는 28.2%p(2021년 35.1%) 증가하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25.1%p(2021년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8.0%로, '신뢰하지 않는다'(12.0%)보다 76.0%p 높게 나타남.

<그림 4-1> 군에 대한 신뢰도



[특성별 분석]

- ▷ 군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 군에 대한 신뢰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종합		
								신뢰함	신뢰하지 않음	잘 모름
전체		1,300	5.2	60.1	26.3	4.8	3.7	65.2	31.1	3.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	59.0	27.6	5.1	4.0	63.3	32.7	4.0
	전문가	100	15.0	73.0	11.0	1.0	-	88.0	12.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0	63.9	24.5	3.2	1.4	70.9	27.7	1.4
	중	570	3.0	57.9	30.4	4.0	4.7	60.9	34.4	4.7
	하	190	2.1	51.1	26.3	12.6	7.9	53.2	38.9	7.9
성별	남성	720	5.1	57.5	28.1	6.1	3.2	62.6	34.2	3.2
	여성	480	3.1	61.3	26.9	3.5	5.2	64.4	30.4	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	63.9	24.2	6.2	3.1	66.5	30.4	3.1
	30대	193	4.7	51.3	35.2	5.7	3.1	56.0	40.9	3.1
	40대	247	5.3	58.3	25.9	6.5	4.0	63.6	32.4	4.0
	50대	254	4.3	57.9	28.7	4.3	4.7	62.2	33.1	4.7
	60대 이상	279	4.7	62.0	25.4	3.2	4.7	66.7	28.7	4.7
지역별	서울	225	5.8	64.9	24.0	4.4	0.9	70.7	28.4	0.9
	경기/인천	386	4.1	49.5	33.2	9.1	4.1	53.6	42.2	4.1
	부산/울산/경남	179	2.8	65.4	29.6	2.2	0.0	68.2	31.8	0.0
	대구/경북	121	3.3	43.8	40.5	1.7	10.7	47.1	42.1	10.7
	광주/전라	114	5.3	73.7	16.7	3.5	0.9	78.9	20.2	0.9
	대전/충청/세종	127	0.8	73.2	13.4	3.9	8.7	74.0	17.3	8.7
	강원/제주	48	14.6	50.0	22.9	2.1	10.4	64.6	25.0	1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5.3	60.5	29.3	3.6	1.3	65.8	32.9	1.3
	중소도시	629	3.7	57.7	26.7	6.0	5.9	61.4	32.8	5.9
	읍/면	45	2.2	60.0	20.0	8.9	8.9	62.2	28.9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62.2	20.0	2.2	8.9	68.9	22.2	8.9
	자영업자	165	4.8	57.0	30.9	4.2	3.0	61.8	35.2	3.0
	판매/서비스직	236	3.4	64.0	23.7	6.4	2.5	67.4	30.1	2.5
	기능/숙련공	104	6.7	57.7	26.0	7.7	1.9	64.4	33.7	1.9
	일반 노무직	50	2.0	64.0	16.0	8.0	10.0	66.0	24.0	10.0
	사무/기술직	304	4.9	54.9	30.9	5.6	3.6	59.9	36.5	3.6
	경영/관리직	1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전문/자유직	12	8.3	25.0	66.7	0.0	0.0	33.3	66.7	0.0
	전업주부	176	2.3	61.9	26.7	2.8	6.3	64.2	29.5	6.3
	학생	47	2.1	61.7	25.5	6.4	4.3	63.8	31.9	4.3
	무직/휴직/은퇴	40	7.5	55.0	30.0	2.5	5.0	62.5	32.5	5.0
	기타	9	11.1	77.8	11.1	0.0	0.0	88.9	11.1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70.9	14.5	0.0	7.3	78.2	14.5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3	65.1	24.0	3.5	4.1	68.3	27.5	4.1
	전문대(중퇴/졸업)	269	6.7	54.3	26.8	7.4	4.8	61.0	34.2	4.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7	53.4	34.1	5.9	2.9	57.1	40.0	2.9
	대학원 이상	8	0.0	75.0	12.5	12.5	0.0	75.0	25.0	0.0
생활 수준별	상	62	4.8	40.3	45.2	8.1	1.6	45.2	53.2	1.6
	중	565	4.8	57.5	26.7	6.0	5.0	62.3	32.7	5.0
	하	573	3.8	62.5	26.5	3.8	3.3	66.3	30.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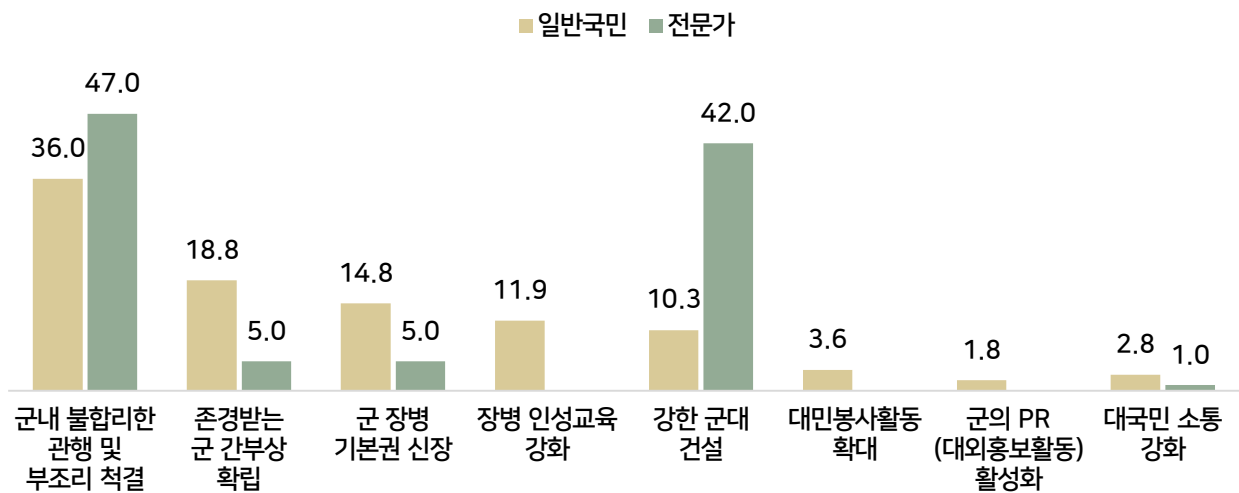
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36.0%, 전문가는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3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18.8%), '군 장병 기본권 신장'(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한 군대 건설'(4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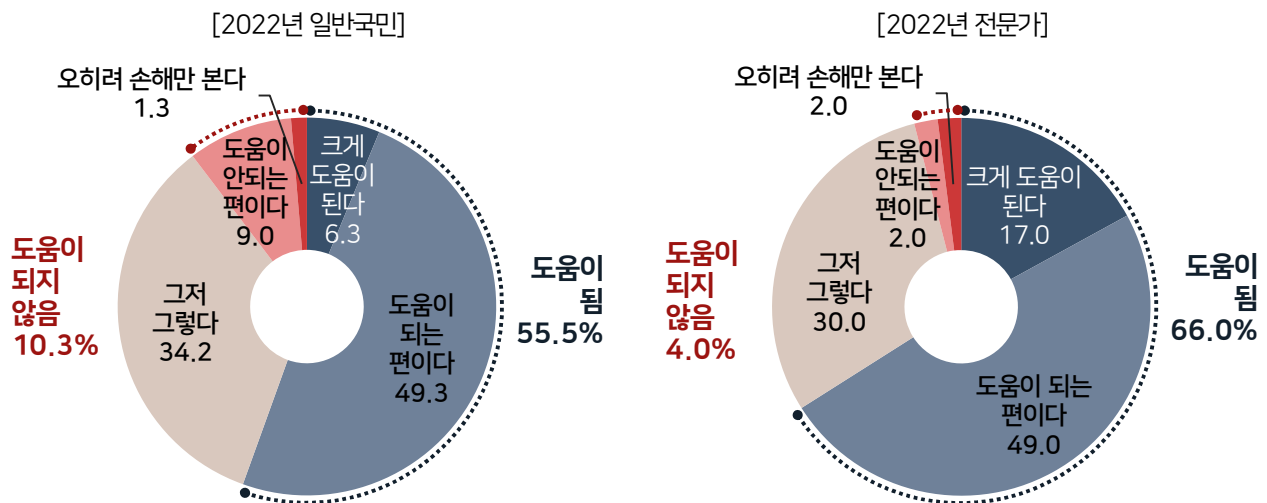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군 장병 기본권 신장	장병 인성교육 강화	강한 군대 건설	대민봉사 활동 확대	군의 PR (대외홍보 활동) 활성화	대국민 소통 강화
전체		1,300	36.8	17.7	14.1	11.0	12.8	3.3	1.7	2.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6.0	18.8	14.8	11.9	10.3	3.6	1.8	2.8
	전문가	100	47.0	5.0	5.0	-	42.0	-	-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5.7	19.5	14.1	10.2	11.1	3.0	1.8	4.5
	중	570	39.5	17.7	13.7	11.1	10.4	4.2	1.8	1.8
	하	190	26.3	20.0	20.0	18.4	8.4	3.2	2.1	1.6
성별	남성	720	36.5	17.4	15.0	12.5	10.4	3.6	1.9	2.6
	여성	480	35.2	20.8	14.6	11.0	10.2	3.5	1.7	2.9
연령별	20대 이하	227	32.2	20.3	15.4	12.8	10.1	5.3	0.0	4.0
	30대	193	38.9	12.4	18.1	14.0	10.4	1.6	2.6	2.1
	40대	247	37.7	19.4	12.6	10.5	8.9	4.0	2.8	4.0
	50대	254	35.4	17.7	15.4	14.2	10.2	3.1	2.0	2.0
	60대 이상	279	36.2	22.2	13.6	9.0	11.8	3.6	1.8	1.8
지역별	서울	225	40.4	16.0	12.9	9.3	14.7	3.6	0.9	2.2
	경기/인천	386	37.0	21.2	11.1	12.4	11.1	3.9	1.8	1.3
	부산/울산/경남	179	44.1	19.6	12.3	10.6	4.5	1.7	2.8	4.5
	대구/경북	121	47.1	15.7	14.9	9.1	7.4	1.7	3.3	0.8
	광주/전라	114	20.2	12.3	25.4	14.9	10.5	4.4	3.5	8.8
	대전/충청/세종	127	15.0	26.0	24.4	18.1	9.4	5.5	0.0	1.6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41.7	12.5	12.5	8.3	14.6	6.3	0.0	4.2
	대도시	526	40.9	16.5	13.3	9.5	11.0	2.9	1.9	4.0
	중소도시	629	31.0	20.7	16.5	13.8	10.5	4.0	1.7	1.7
	읍/면	45	48.9	17.8	8.9	13.3	0.0	6.7	2.2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4.4	17.8	13.3	24.4	8.9	11.1	0.0	0.0
	자영업자	165	41.8	20.0	13.9	7.9	9.7	2.4	2.4	1.8
	판매/서비스직	236	33.1	22.5	11.0	12.3	11.9	3.8	2.1	3.4
	기능/숙련공	104	32.7	11.5	17.3	17.3	11.5	2.9	1.9	4.8
	일반 노무직	50	32.0	16.0	22.0	12.0	14.0	2.0	2.0	0.0
	사무/기술직	304	37.2	17.1	15.8	12.5	10.2	3.0	1.6	2.6
	경영/관리직	12	50.0	33.3	8.3	0.0	8.3	0.0	0.0	0.0
	전문/자유직	12	58.3	0.0	33.3	0.0	0.0	0.0	8.3	0.0
	전업주부	176	37.5	20.5	13.1	8.5	10.2	4.5	2.3	3.4
	학생	47	46.8	14.9	21.3	6.4	2.1	4.3	0.0	4.3
	무직/휴직/은퇴	40	22.5	20.0	17.5	22.5	10.0	5.0	0.0	2.5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44.4	11.1	11.1	22.2	0.0	0.0	0.0
	중졸 이하	55	25.5	27.3	12.7	14.5	10.9	5.5	0.0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1.9	21.4	15.7	13.1	10.9	3.3	2.0	1.7
	전문대(중퇴/졸업)	269	37.2	16.0	16.4	10.4	11.2	3.3	1.5	4.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0.7	16.3	13.4	11.2	9.3	3.9	2.2	2.9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62.5	25.0	0.0	12.5	0.0	0.0	0.0	0.0
	상	62	51.6	19.4	8.1	11.3	4.8	0.0	3.2	1.6
	중	565	36.1	17.9	14.3	12.6	11.9	3.7	1.4	2.1
	하	573	34.2	19.5	16.1	11.3	9.4	3.8	2.1	3.5

3.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5.5%, 전문가 6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5.5%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3%)는 응답보다 45.2%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6.0%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0%)는 응답보다 62.0%p 높게 나타남.

<그림 4-3>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서울',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3>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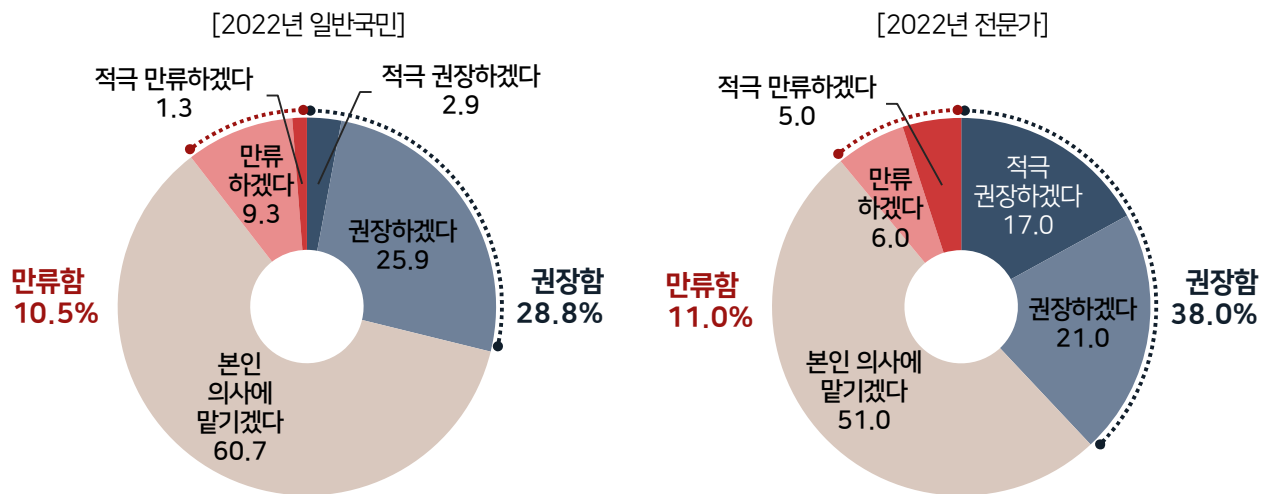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크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오히려 손해만 본다	종합		
								도움이 됨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음
전체		1,300	7.1	49.2	33.8	8.5	1.4	56.3	33.8	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3	49.3	34.2	9.0	1.3	55.5	34.2	10.3
	전문가	100	17.0	49.0	30.0	2.0	2.0	66.0	30.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4	55.9	28.4	6.4	0.9	64.3	28.4	7.3
	중	570	4.6	48.9	35.4	9.8	1.2	53.5	35.4	11.1
	하	190	6.3	34.7	43.7	12.6	2.6	41.1	43.7	15.3
성별	남성	720	6.7	49.6	32.6	9.9	1.3	56.3	32.6	11.1
	여성	480	5.6	48.8	36.5	7.7	1.5	54.4	36.5	9.2
연령별	20대 이하	227	5.3	48.5	37.9	7.5	0.9	53.7	37.9	8.4
	30대	193	6.7	47.7	31.1	14.0	0.5	54.4	31.1	14.5
	40대	247	5.3	51.8	33.6	7.7	1.6	57.1	33.6	9.3
	50대	254	5.9	46.9	37.0	9.1	1.2	52.8	37.0	10.2
	60대 이상	279	7.9	50.9	31.2	7.9	2.2	58.8	31.2	10.0
지역별	서울	225	8.0	56.9	26.2	8.4	0.4	64.9	26.2	8.9
	경기/인천	386	9.1	43.3	34.7	11.9	1.0	52.3	34.7	13.0
	부산/울산/경남	179	2.8	60.3	27.4	5.6	3.9	63.1	27.4	9.5
	대구/경북	121	4.1	28.9	54.5	9.1	3.3	33.1	54.5	12.4
	광주/전라	114	0.9	57.0	34.2	7.9	0.0	57.9	34.2	7.9
	대전/충청/세종	127	1.6	55.1	37.8	5.5	0.0	56.7	37.8	5.5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8.8	37.5	31.3	12.5	0.0	56.3	31.3	12.5
	대도시	526	6.5	49.8	30.8	10.6	2.3	56.3	30.8	12.9
	중소도시	629	6.4	49.4	35.9	7.6	0.6	55.8	35.9	8.3
	읍/면	45	2.2	40.0	48.9	8.9	0.0	42.2	48.9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40.0	53.3	4.4	0.0	42.2	53.3	4.4
	자영업자	165	6.1	49.1	33.9	9.7	1.2	55.2	33.9	10.9
	판매/서비스직	236	5.1	51.3	33.5	9.7	0.4	56.4	33.5	10.2
	기능/숙련공	104	4.8	58.7	24.0	9.6	2.9	63.5	24.0	12.5
	일반 노무직	50	10.0	40.0	42.0	6.0	2.0	50.0	42.0	8.0
	사무/기술직	304	6.9	49.0	32.6	10.2	1.3	55.9	32.6	11.5
	경영/관리직	12	0.0	33.3	50.0	16.7	0.0	33.3	50.0	16.7
	전문/자유직	12	0.0	41.7	33.3	16.7	8.3	41.7	33.3	25.0
	전업주부	176	7.4	48.9	35.2	7.4	1.1	56.3	35.2	8.5
	학생	47	10.6	48.9	38.3	2.1	0.0	59.6	38.3	2.1
	무직/휴직/은퇴	40	5.0	52.5	30.0	7.5	5.0	57.5	30.0	12.5
	기타	9	11.1	22.2	44.4	22.2	0.0	33.3	44.4	22.2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47.3	38.2	5.5	1.8	54.5	38.2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8	48.3	38.4	7.4	1.1	53.1	38.4	8.5
	전문대(중퇴/졸업)	269	7.1	49.1	32.7	9.3	1.9	56.1	32.7	11.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7.1	51.0	30.0	10.7	1.2	58.0	30.0	12.0
	대학원 이상	8	12.5	37.5	25.0	25.0	0.0	50.0	25.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6.5	54.8	21.0	16.1	1.6	61.3	21.0	17.7
	중	565	6.5	49.4	33.8	9.0	1.2	55.9	33.8	10.3
	하	573	5.9	48.5	36.0	8.2	1.4	54.5	36.0	9.6

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8.8%, 전문가 3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28.8%로, '만류한다'(10.5%)는 응답보다 18.3%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38.0%로 '만류한다'(11.0%)보다 27.0%p 높게 나타남.

<그림 4-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가족/친지/친구가 직업군인이 되는 것에 대해 '권장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4>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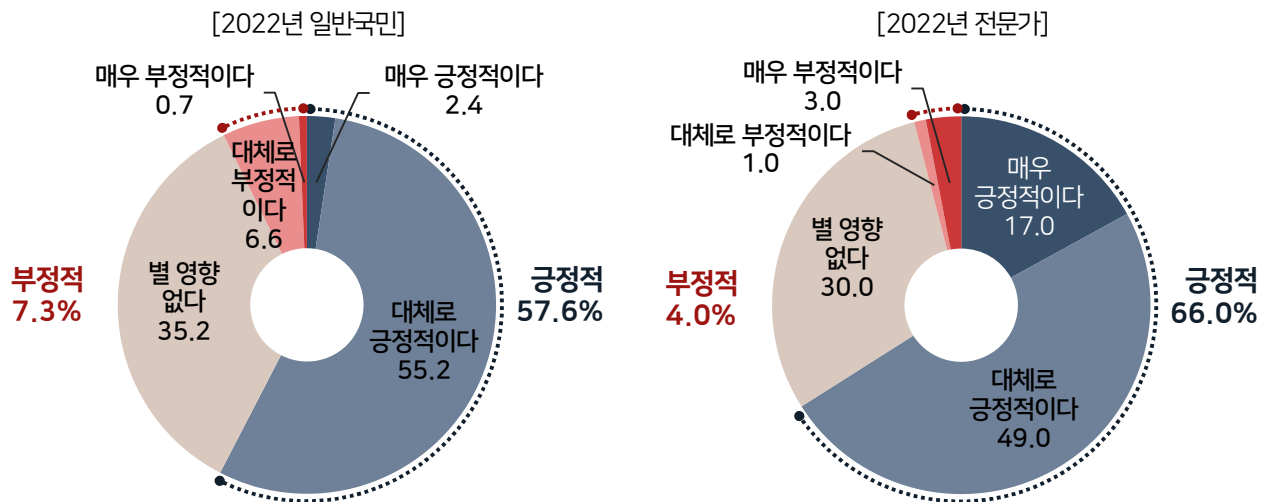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적극 권장하겠다	권장하겠다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만류하겠다	적극 만류하겠다	종합 본인 의사에 맡김		
								권장함	의사에 맡김	만류함
전체		1,300	4.0	25.5	59.9	9.0	1.5	29.5	59.9	10.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	25.9	60.7	9.3	1.3	28.8	60.7	10.5
	전문가	100	17.0	21.0	51.0	6.0	5.0	38.0	51.0	1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5	26.4	61.6	6.8	0.7	30.9	61.6	7.5
	중	570	1.8	26.7	61.8	8.4	1.4	28.4	61.8	9.8
	하	190	2.6	22.6	55.3	17.4	2.1	25.3	55.3	19.5
성별	남성	720	3.1	26.3	60.1	9.4	1.1	29.3	60.1	10.6
	여성	480	2.7	25.4	61.5	9.0	1.5	28.1	61.5	10.4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22.9	65.2	8.8	1.3	24.7	65.2	10.1
	30대	193	1.6	22.8	62.2	12.4	1.0	24.4	62.2	13.5
	40대	247	3.6	27.1	58.7	8.9	1.6	30.8	58.7	10.5
	50대	254	3.1	24.8	63.4	7.5	1.2	28.0	63.4	8.7
	60대 이상	279	3.9	30.5	55.2	9.3	1.1	34.4	55.2	10.4
지역별	서울	225	2.2	24.9	64.0	8.4	0.4	27.1	64.0	8.9
	경기/인천	386	3.9	25.1	55.2	14.2	1.6	29.0	55.2	15.8
	부산/울산/경남	179	1.7	24.0	65.9	5.0	3.4	25.7	65.9	8.4
	대구/경북	121	0.8	24.8	62.8	9.9	1.7	25.6	62.8	11.6
	광주/전라	114	1.8	26.3	62.3	9.6	0.0	28.1	62.3	9.6
	대전/충청/세종	127	1.6	33.9	61.4	3.1	0.0	35.4	61.4	3.1
	강원/제주	48	14.6	25.0	58.3	2.1	0.0	39.6	58.3	2.1
지역크기	대도시	526	2.7	26.4	60.3	8.9	1.7	29.1	60.3	10.6
	중소도시	629	3.2	25.4	60.6	9.9	1.0	28.6	60.6	10.8
	읍/면	45	2.2	26.7	66.7	4.4	0.0	28.9	66.7	4.4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2.2	51.1	6.7	0.0	42.2	51.1	6.7
	자영업자	165	3.6	27.9	58.8	8.5	1.2	31.5	58.8	9.7
	판매/서비스직	236	4.2	22.9	61.4	11.0	0.4	27.1	61.4	11.4
	기능/숙련공	104	2.9	23.1	64.4	7.7	1.9	26.0	64.4	9.6
	일반 노무직	50	6.0	26.0	54.0	12.0	2.0	32.0	54.0	14.0
	사무/기술직	304	1.3	24.3	64.1	8.9	1.3	25.7	64.1	10.2
	경영/관리직	12	0.0	33.3	58.3	8.3	0.0	33.3	58.3	8.3
	전문/자유직	12	0.0	25.0	41.7	25.0	8.3	25.0	41.7	33.3
	전업주부	176	1.7	27.8	61.4	8.0	1.1	29.5	61.4	9.1
	학생	47	4.3	34.0	53.2	6.4	2.1	38.3	53.2	8.5
	무직/휴직/은퇴	40	7.5	17.5	57.5	15.0	2.5	25.0	57.5	17.5
	기타	9	11.1	22.2	66.7	0.0	0.0	33.3	66.7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25.5	60.0	10.9	0.0	29.1	60.0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3	27.9	59.8	7.9	1.1	31.2	59.8	9.0
	전문대(중퇴/졸업)	269	3.3	22.7	63.9	8.9	1.1	26.0	63.9	1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7	25.9	60.0	10.7	1.7	27.6	60.0	12.4
	대학원 이상	8	25.0	25.0	37.5	12.5	0.0	50.0	37.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6.5	25.8	59.7	8.1	0.0	32.3	59.7	8.1
	중	565	1.8	24.8	63.7	8.3	1.4	26.5	63.7	9.7
	하	573	3.7	27.1	57.8	10.3	1.2	30.7	57.8	11.5

5.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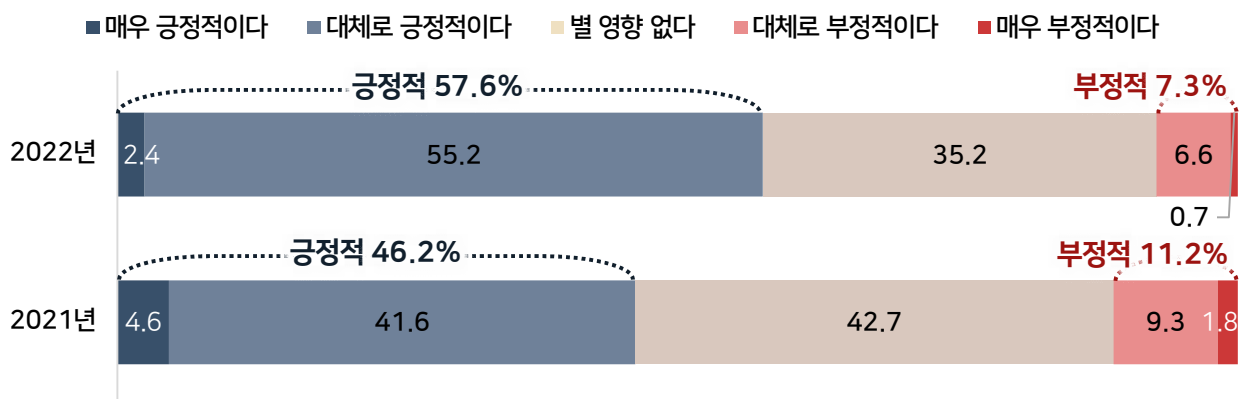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7.6%, 전문가 6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57.6%로, '부정적이다'는 응답(7.3%)보다 50.3%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긍정적이다'는 11.4%p(2021년 46.2%) 증가하였고, '부정적이다'는 3.9%p(2021년 11.2%) 감소하였음.
- ▶ **[전문가]**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6.0%로, '부정적이다'는 응답(4.0%)보다 62.0%p 높게 나타남.

<그림 4-5>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4-5>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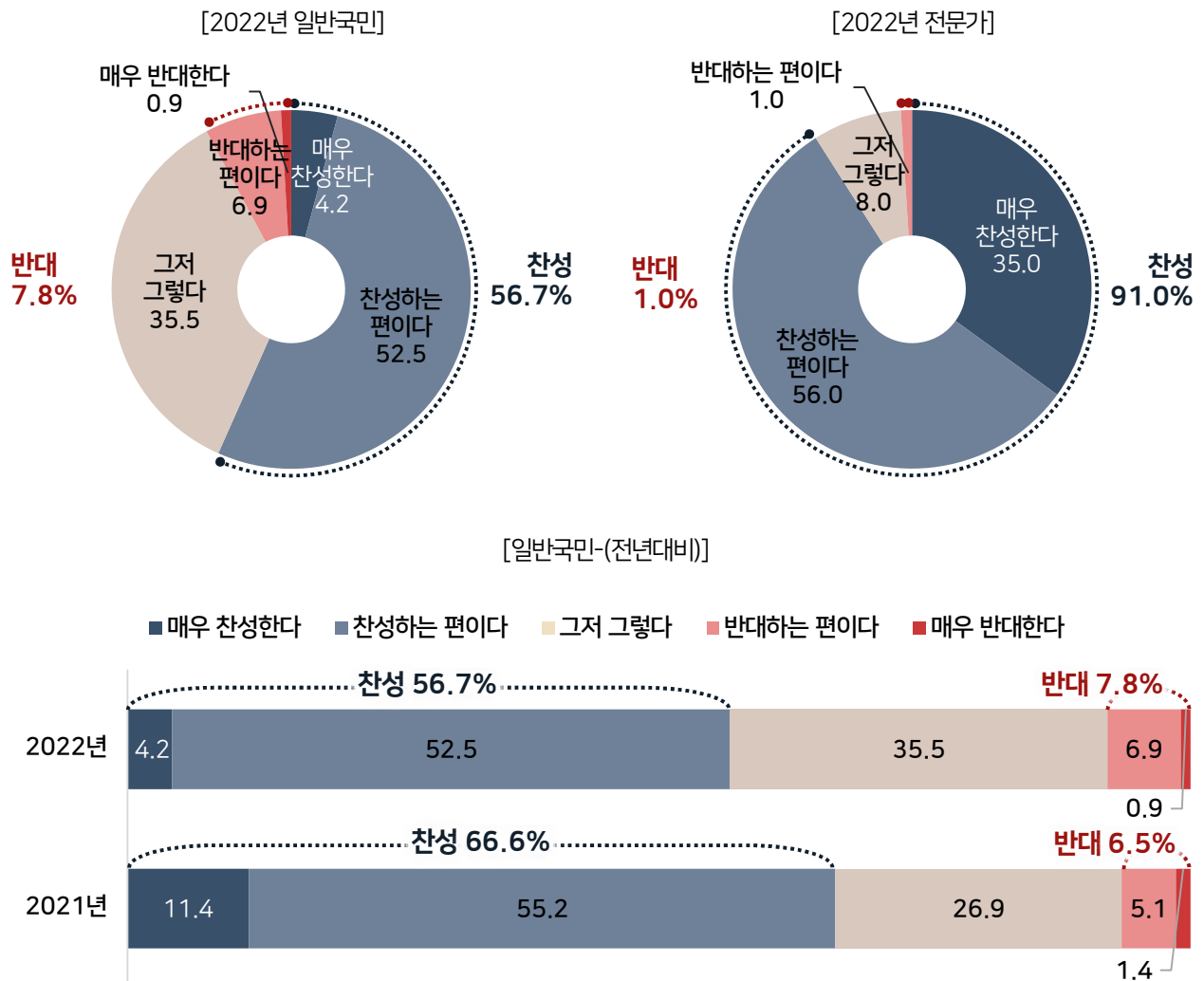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별 영향 없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종합 별 영향 없음		
								긍정적		부정적
전체		1,300	3.5	54.7	34.8	6.2	0.8	58.2	34.8	7.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4	55.2	35.2	6.6	0.7	57.6	35.2	7.3
	전문가	100	17.0	49.0	30.0	1.0	3.0	66.0	30.0	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1	61.4	30.0	4.3	0.2	65.5	30.0	4.5
	중	570	1.2	53.9	37.7	6.3	0.9	55.1	37.7	7.2
	하	190	2.1	44.7	39.5	12.6	1.1	46.8	39.5	13.7
성별	남성	720	2.6	53.3	36.0	7.4	0.7	56.0	36.0	8.1
	여성	480	2.1	57.9	34.0	5.4	0.6	60.0	34.0	6.0
연령별	20대 이하	227	4.4	52.9	37.9	4.0	0.9	57.3	37.9	4.8
	30대	193	1.6	49.7	38.9	8.8	1.0	51.3	38.9	9.8
	40대	247	2.4	58.3	32.4	6.1	0.8	60.7	32.4	6.9
	50대	254	1.6	55.5	35.0	7.5	0.4	57.1	35.0	7.9
	60대 이상	279	2.2	57.7	33.0	6.8	0.4	59.9	33.0	7.2
지역별	서울	225	2.2	61.3	26.7	9.8	0.0	63.6	26.7	9.8
	경기/인천	386	2.6	48.2	39.4	9.1	0.8	50.8	39.4	9.8
	부산/울산/경남	179	0.6	59.8	33.0	5.0	1.7	60.3	33.0	6.7
	대구/경북	121	5.0	47.1	45.5	0.8	1.7	52.1	45.5	2.5
	광주/전라	114	1.8	52.6	40.4	5.3	0.0	54.4	40.4	5.3
	대전/충청/세종	127	0.8	67.7	29.9	1.6	0.0	68.5	29.9	1.6
	강원/제주	48	8.3	58.3	25.0	8.3	0.0	66.7	25.0	8.3
지역크기	대도시	526	2.5	56.3	33.1	7.4	0.8	58.7	33.1	8.2
	중소도시	629	2.4	54.5	36.2	6.2	0.6	56.9	36.2	6.8
	읍/면	45	2.2	51.1	44.4	2.2	0.0	53.3	44.4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46.7	42.2	8.9	0.0	48.9	42.2	8.9
	자영업자	165	3.6	53.3	38.8	4.2	0.0	57.0	38.8	4.2
	판매/서비스직	236	2.5	55.5	36.4	5.5	0.0	58.1	36.4	5.5
	기능/숙련공	104	1.9	55.8	29.8	11.5	1.0	57.7	29.8	12.5
	일반 노무직	50	0.0	46.0	42.0	10.0	2.0	46.0	42.0	12.0
	사무/기술직	304	1.6	55.6	33.9	7.6	1.3	57.2	33.9	8.9
	경영/관리직	1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전문/자유직	12	0.0	25.0	75.0	0.0	0.0	25.0	75.0	0.0
	전업주부	176	1.1	63.6	29.0	5.7	0.6	64.8	29.0	6.3
	학생	47	12.8	53.2	29.8	4.3	0.0	66.0	29.8	4.3
	무직/휴직/은퇴	40	2.5	62.5	25.0	7.5	2.5	65.0	25.0	10.0
	기타	9	0.0	11.1	88.9	0.0	0.0	11.1	88.9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52.7	40.0	7.3	0.0	52.7	40.0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0	53.5	38.2	5.9	0.4	55.5	38.2	6.3
	전문대(중퇴/졸업)	269	4.1	56.5	29.4	9.3	0.7	60.6	29.4	10.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0	56.3	35.4	5.4	1.0	58.3	35.4	6.3
	대학원 이상	8	12.5	62.5	12.5	12.5	0.0	75.0	12.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4.8	51.6	32.3	9.7	1.6	56.5	32.3	11.3
	중	565	2.7	57.3	33.3	6.2	0.5	60.0	33.3	6.7
	하	573	1.9	53.4	37.3	6.6	0.7	55.3	37.3	7.3

6.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6.7%, 전문가 91.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7%로, '반대한다'(7.8%)보다 48.9%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9.9%p(2021년 66.6%)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1.3%p(2021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91.0%로, '반대한다'(1.0%)보다 90.0%p 높게 나타남.

<그림 4-6>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서울',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6>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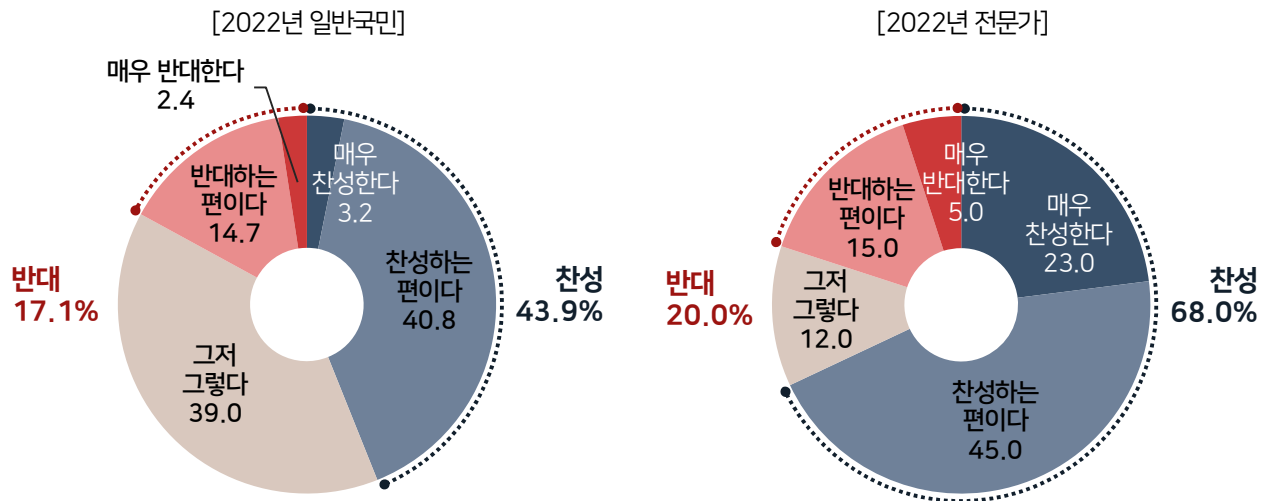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6.5	52.8	33.4	6.5	0.8	59.3	33.4	7.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2	52.5	35.5	6.9	0.9	56.7	35.5	7.8
	전문가	100	35.0	56.0	8.0	1.0	-	91.0	8.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6.8	59.3	28.4	5.0	0.5	66.1	28.4	5.5
	중	570	2.8	51.4	39.3	5.4	1.1	54.2	39.3	6.5
	하	190	2.1	40.0	40.5	15.8	1.6	42.1	40.5	17.4
성별	남성	720	5.0	53.8	33.9	6.7	0.7	58.8	33.9	7.4
	여성	480	2.9	50.6	37.9	7.3	1.3	53.5	37.9	8.5
연령별	20대 이하	227	5.7	51.5	33.9	7.5	1.3	57.3	33.9	8.8
	30대	193	3.6	52.3	37.8	5.7	0.5	56.0	37.8	6.2
	40대	247	2.0	53.4	35.2	8.5	0.8	55.5	35.2	9.3
	50대	254	4.3	53.5	35.4	5.5	1.2	57.9	35.4	6.7
	60대 이상	279	5.0	51.6	35.5	7.2	0.7	56.6	35.5	7.9
지역별	서울	225	5.8	60.9	26.2	6.2	0.9	66.7	26.2	7.1
	경기/인천	386	4.1	54.4	33.9	6.7	0.8	58.5	33.9	7.5
	부산/울산/경남	179	0.0	52.0	38.0	8.9	1.1	52.0	38.0	10.1
	대구/경북	121	6.6	43.0	42.1	5.0	3.3	49.6	42.1	8.3
	광주/전라	114	0.9	50.0	43.0	6.1	0.0	50.9	43.0	6.1
	대전/충청/세종	127	3.1	46.5	42.5	7.9	0.0	49.6	42.5	7.9
	강원/제주	48	16.7	45.8	29.2	8.3	0.0	62.5	29.2	8.3
지역크기	대도시	526	6.3	51.5	31.9	8.6	1.7	57.8	31.9	10.3
	중소도시	629	2.7	53.9	37.5	5.6	0.3	56.6	37.5	5.9
	읍/면	45	0.0	44.4	48.9	6.7	0.0	44.4	48.9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2.2	40.0	13.3	0.0	46.7	40.0	13.3
	자영업자	165	5.5	49.7	39.4	5.5	0.0	55.2	39.4	5.5
	판매/서비스직	236	3.8	53.0	36.9	5.9	0.4	56.8	36.9	6.4
	기능/숙련공	104	3.8	60.6	23.1	10.6	1.9	64.4	23.1	12.5
	일반 노무직	50	10.0	46.0	36.0	4.0	4.0	56.0	36.0	8.0
	사무/기술직	304	2.0	56.3	34.5	5.9	1.3	58.2	34.5	7.2
	경영/관리직	12	8.3	50.0	33.3	8.3	0.0	58.3	33.3	8.3
	전문/자유직	12	8.3	33.3	58.3	0.0	0.0	41.7	58.3	0.0
	전업주부	176	2.8	52.8	36.9	6.8	0.6	55.7	36.9	7.4
	학생	47	12.8	40.4	31.9	12.8	2.1	53.2	31.9	14.9
	무직/휴직/은퇴	40	5.0	45.0	40.0	10.0	0.0	50.0	40.0	10.0
	기타	9	0.0	77.8	22.2	0.0	0.0	77.8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50.9	36.4	10.9	0.0	52.7	36.4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7	50.2	38.0	7.4	0.7	53.9	38.0	8.1
	전문대(중퇴/졸업)	269	4.1	57.6	32.0	4.8	1.5	61.7	32.0	6.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9	52.2	34.9	7.3	0.7	57.1	34.9	8.0
	대학원 이상	8	12.5	37.5	37.5	0.0	12.5	50.0	37.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8.1	53.2	27.4	11.3	0.0	61.3	27.4	11.3
	중	565	3.9	57.3	32.7	5.3	0.7	61.2	32.7	6.0
	하	573	4.0	47.6	39.1	8.0	1.2	51.7	39.1	9.2

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3.9%, 전문가 68.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3.9%로, '반대한다'(17.1%)보다 26.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8.0%로, '반대한다'(20.0%)보다 48.0%p 높게 나타남.

<그림 4-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30대',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4-7> 국제평화 기여를 위해 전투 발생 지역 파병(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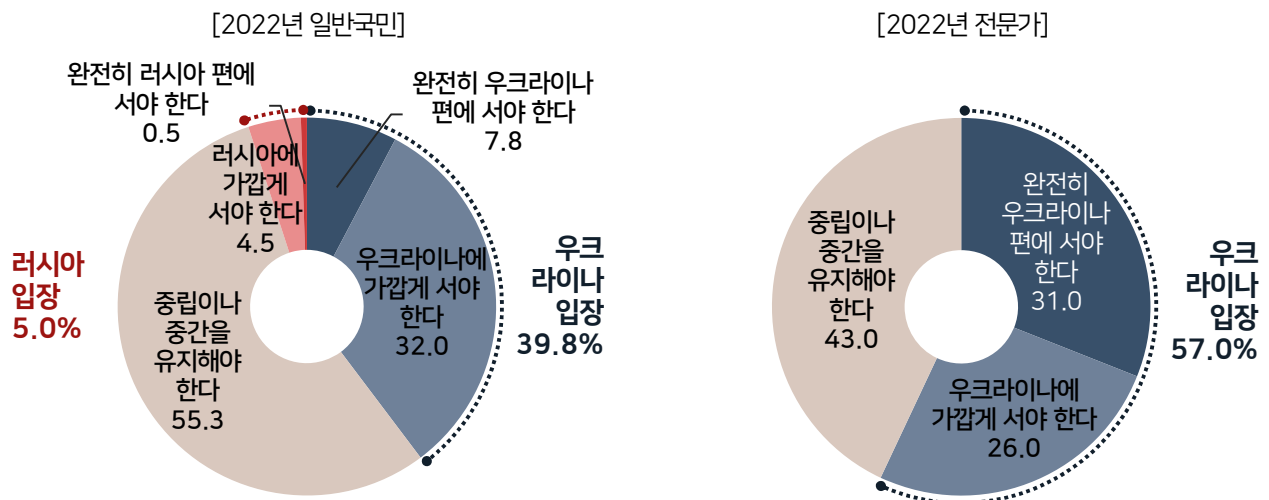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4.7	41.1	36.9	14.7	2.6	45.8	36.9	17.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40.8	39.0	14.7	2.4	43.9	39.0	17.1
	전문가	100	23.0	45.0	12.0	15.0	5.0	68.0	12.0	2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9	45.5	31.6	16.1	0.9	51.4	31.6	17.0
	중	570	1.2	40.4	45.4	10.7	2.3	41.6	45.4	13.0
	하	190	2.6	31.1	36.8	23.2	6.3	33.7	36.8	29.5
성별	남성	720	3.6	42.2	39.0	13.8	1.4	45.8	39.0	15.1
	여성	480	2.5	38.5	39.0	16.0	4.0	41.0	39.0	2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4.0	40.1	39.2	14.5	2.2	44.1	39.2	16.7
	30대	193	2.6	46.1	33.7	15.5	2.1	48.7	33.7	17.6
	40대	247	3.2	40.1	35.6	17.8	3.2	43.3	35.6	21.1
	50대	254	1.6	41.7	42.9	11.4	2.4	43.3	42.9	13.8
	60대 이상	279	4.3	37.3	41.9	14.3	2.2	41.6	41.9	16.5
지역별	서울	225	5.8	48.4	32.9	12.9	0.0	54.2	32.9	12.9
	경기/인천	386	4.1	36.5	38.1	16.1	5.2	40.7	38.1	21.2
	부산/울산/경남	179	0.6	42.5	42.5	12.8	1.7	43.0	42.5	14.5
	대구/경북	121	1.7	48.8	43.0	3.3	3.3	50.4	43.0	6.6
	광주/전라	114	0.9	34.2	28.9	36.0	0.0	35.1	28.9	36.0
	대전/충청/세종	127	0.8	33.1	55.1	10.2	0.8	33.9	55.1	11.0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8.3	47.9	33.3	8.3	2.1	56.3	33.3	10.4
	대도시	526	3.8	43.9	32.1	16.7	3.4	47.7	32.1	20.2
	중소도시	629	2.7	39.0	43.9	12.7	1.7	41.7	43.9	14.5
	읍/면	45	2.2	28.9	51.1	17.8	0.0	31.1	51.1	17.8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33.3	46.7	15.6	2.2	35.6	46.7	17.8
	자영업자	165	4.8	39.4	43.6	11.5	0.6	44.2	43.6	12.1
	판매/서비스직	236	3.4	40.3	39.8	13.6	3.0	43.6	39.8	16.5
	기능/숙련공	104	2.9	44.2	33.7	16.3	2.9	47.1	33.7	19.2
	일반 노무직	50	2.0	34.0	42.0	16.0	6.0	36.0	42.0	22.0
	사무/기술직	304	3.3	39.1	37.2	17.4	3.0	42.4	37.2	20.4
	경영/관리직	12	0.0	50.0	33.3	8.3	8.3	50.0	33.3	16.7
	전문/자유직	12	0.0	33.3	50.0	16.7	0.0	33.3	50.0	16.7
	전업주부	176	1.1	47.2	37.5	13.1	1.1	48.3	37.5	14.2
	학생	47	6.4	40.4	31.9	17.0	4.3	46.8	31.9	21.3
	무직/휴직/은퇴	40	5.0	40.0	40.0	15.0	0.0	45.0	40.0	15.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44.4	55.6	0.0	0.0	44.4	55.6	0.0
	중졸 이하	55	5.5	32.7	43.6	14.5	3.6	38.2	43.6	1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0	39.1	41.7	15.5	1.7	41.0	41.7	17.2
	전문대(중퇴/졸업)	269	4.1	39.4	39.4	14.9	2.2	43.5	39.4	17.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4	44.4	35.1	13.9	3.2	47.8	35.1	17.1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50.0	37.5	0.0	0.0	62.5	37.5	0.0
	상	62	4.8	46.8	33.9	11.3	3.2	51.6	33.9	14.5
	중	565	3.4	38.8	39.5	15.8	2.7	42.1	39.5	18.4
	하	573	2.8	42.1	39.1	14.0	2.1	44.9	39.1	16.1

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39.8%, 전문가 5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이라는 응답이 39.8%로, '러시아 입장'(5.0%)보다 34.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이라는 응답이 57.0%로 높게 나타남(러시아 입장 : 0.0%).

<그림 4-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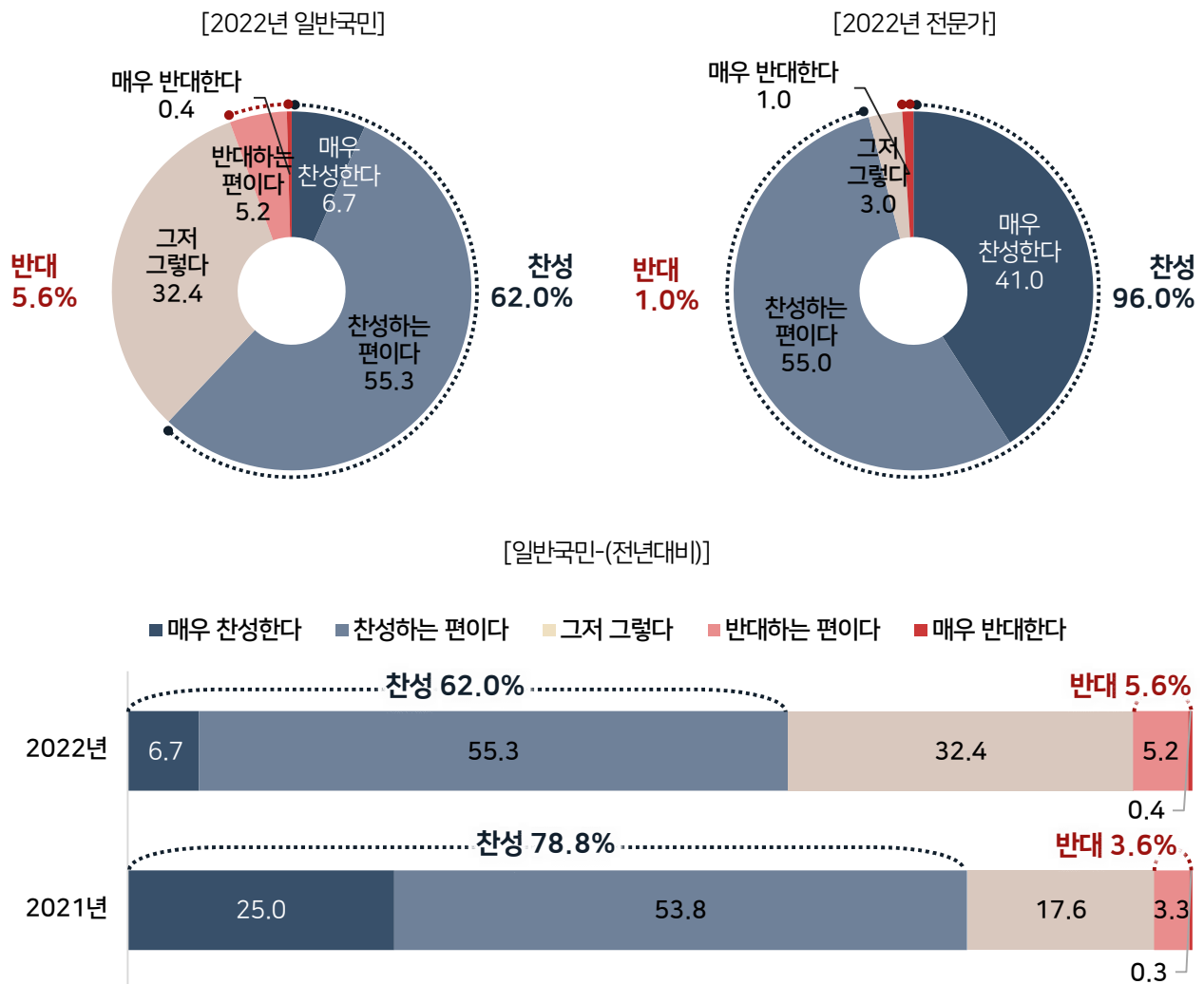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한다	우크 라이나에 가깝게 서야 한다	중립이나 중간을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에 가깝게 서야 한다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야 한다	종합		
								우크라이나 입장	중립	러시아 입장
전체		1,300	9.5	31.5	54.3	4.2	0.5	41.1	54.3	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8	32.0	55.3	4.5	0.5	39.8	55.3	5.0
	전문가	100	31.0	26.0	43.0	-	-	57.0	43.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0	33.9	55.2	3.6	0.2	40.9	55.2	3.9
	중	570	9.1	33.7	53.2	3.9	0.2	42.8	53.2	4.0
	하	190	5.3	22.6	61.6	8.4	2.1	27.9	61.6	10.5
성별	남성	720	7.9	32.9	54.4	4.2	0.6	40.8	54.4	4.7
	여성	480	7.5	30.6	56.5	5.0	0.4	38.1	56.5	5.4
연령별	20대 이하	227	5.3	33.9	56.8	3.5	0.4	39.2	56.8	4.0
	30대	193	7.8	33.7	52.3	6.2	0.0	41.5	52.3	6.2
	40대	247	9.3	34.4	51.4	4.0	0.8	43.7	51.4	4.9
	50대	254	6.3	29.9	58.3	4.7	0.8	36.2	58.3	5.5
	60대 이상	279	9.7	29.0	56.6	4.3	0.4	38.7	56.6	4.7
지역별	서울	225	10.2	36.4	48.4	4.0	0.9	46.7	48.4	4.9
	경기/인천	386	10.6	29.8	55.2	3.9	0.5	40.4	55.2	4.4
	부산/울산/경남	179	3.9	38.5	53.1	3.9	0.6	42.5	53.1	4.5
	대구/경북	121	3.3	51.2	45.5	0.0	0.0	54.5	45.5	0.0
	광주/전라	114	0.0	21.9	73.7	3.5	0.9	21.9	73.7	4.4
	대전/충청/세종	127	3.9	18.1	64.6	13.4	0.0	22.0	64.6	13.4
	강원/제주	48	27.1	16.7	52.1	4.2	0.0	43.8	52.1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7.0	41.8	44.9	5.5	0.8	48.9	44.9	6.3
	중소도시	629	7.6	25.0	63.6	3.5	0.3	32.6	63.6	3.8
	읍/면	45	17.8	15.6	60.0	6.7	0.0	33.3	60.0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24.4	68.9	2.2	0.0	28.9	68.9	2.2
	자영업자	165	10.9	35.2	52.1	1.8	0.0	46.1	52.1	1.8
	판매/서비스직	236	6.8	33.9	52.1	6.4	0.8	40.7	52.1	7.2
	기능/숙련공	104	6.7	32.7	50.0	7.7	2.9	39.4	50.0	10.6
	일반 노무직	50	6.0	24.0	66.0	4.0	0.0	30.0	66.0	4.0
	사무/기술직	304	7.9	33.6	54.6	3.6	0.3	41.4	54.6	3.9
	경영/관리직	12	25.0	25.0	50.0	0.0	0.0	50.0	50.0	0.0
	전문/자유직	12	8.3	8.3	83.3	0.0	0.0	16.7	83.3	0.0
	전업주부	176	8.0	30.7	57.4	4.0	0.0	38.6	57.4	4.0
	학생	47	4.3	38.3	48.9	8.5	0.0	42.6	48.9	8.5
	무직/휴직/은퇴	40	7.5	17.5	67.5	7.5	0.0	25.0	67.5	7.5
	기타	9	0.0	44.4	55.6	0.0	0.0	44.4	55.6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14.5	70.9	7.3	0.0	21.8	70.9	7.3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0	32.5	55.2	4.4	0.9	39.5	55.2	5.2
	전문대(중퇴/졸업)	269	5.9	29.7	59.1	4.8	0.4	35.7	59.1	5.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9.8	35.4	50.5	4.1	0.2	45.1	50.5	4.4
	대학원 이상	8	12.5	25.0	62.5	0.0	0.0	37.5	62.5	0.0
생활 수준별	상	62	19.4	43.5	30.6	6.5	0.0	62.9	30.6	6.5
	중	565	9.0	31.2	55.8	3.7	0.4	40.2	55.8	4.1
	하	573	5.2	31.6	57.4	5.1	0.7	36.8	57.4	5.8

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2.0%, 전문가 9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2.0%로, '반대한다'(5.6%)보다 56.4%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16.8%p(2021년 78.8%)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2.0%p(2021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6.0%로, '반대한다'(1.0%)는 응답보다 95.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특성별 분석]

- ▷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9>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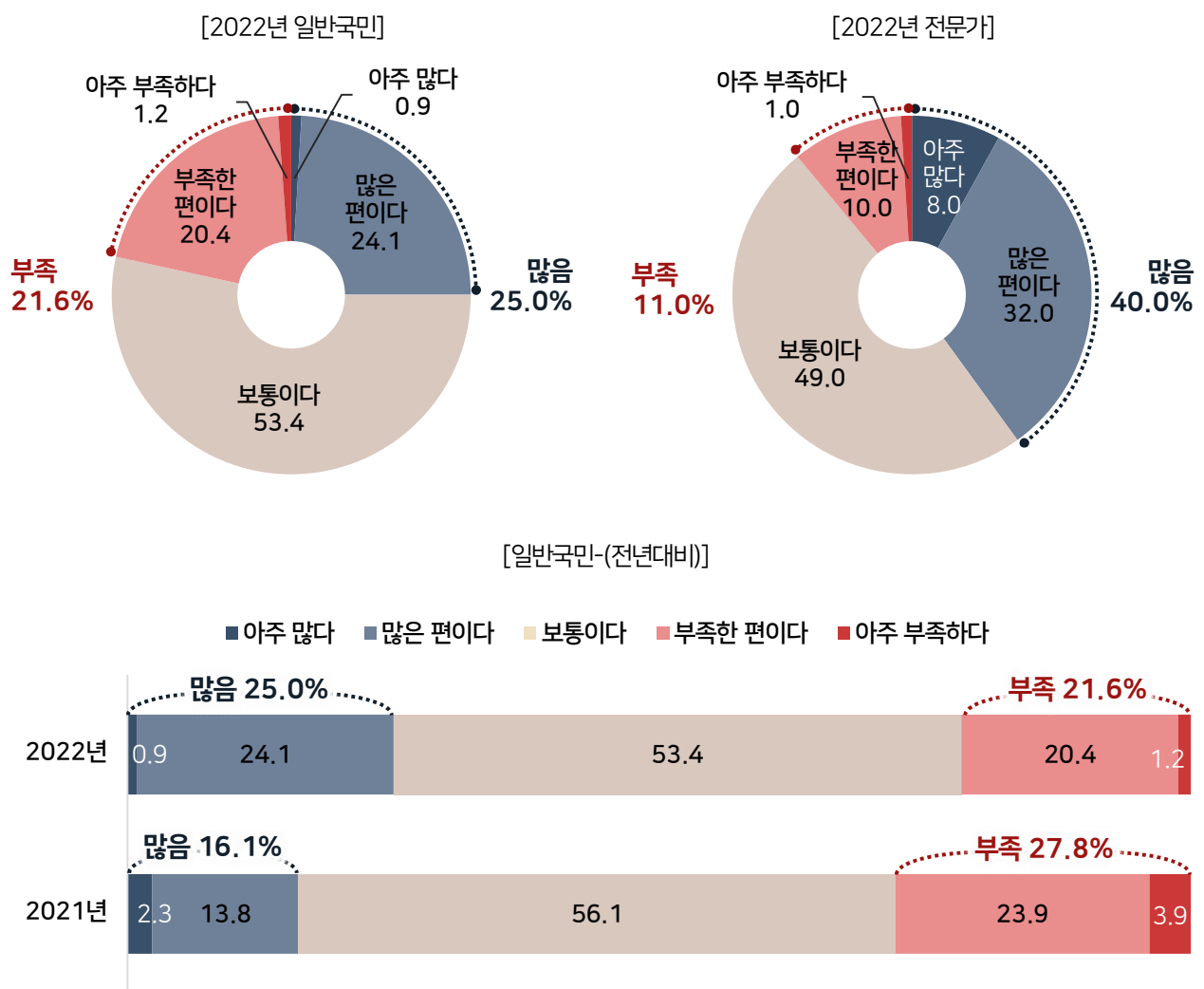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보통	반대
전체		1,300	9.3	55.3	30.2	4.8	0.5	64.6	30.2	5.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6.7	55.3	32.4	5.2	0.4	62.0	32.4	5.6
	전문가	100	41.0	55.0	3.0	-	1.0	96.0	3.0	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9	63.2	25.0	3.0	0.0	72.0	25.0	3.0
	중	570	5.3	53.0	36.1	5.3	0.4	58.2	36.1	5.6
	하	190	5.8	44.2	38.4	10.0	1.6	50.0	38.4	11.6
성별	남성	720	6.1	55.4	32.6	5.4	0.4	61.5	32.6	5.8
	여성	480	7.5	55.2	32.1	4.8	0.4	62.7	32.1	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5.7	61.2	27.8	5.3	0.0	67.0	27.8	5.3
	30대	193	6.2	57.5	30.6	5.2	0.5	63.7	30.6	5.7
	40대	247	6.5	51.4	36.8	4.0	1.2	57.9	36.8	5.3
	50대	254	7.9	53.5	33.5	5.1	0.0	61.4	33.5	5.1
	60대 이상	279	6.8	54.1	32.6	6.1	0.4	60.9	32.6	6.5
지역별	서울	225	8.0	55.1	27.1	9.8	0.0	63.1	27.1	9.8
	경기/인천	386	8.8	51.3	33.9	5.4	0.5	60.1	33.9	6.0
	부산/울산/경남	179	1.1	58.7	33.5	5.6	1.1	59.8	33.5	6.7
	대구/경북	121	5.8	48.8	40.5	4.1	0.8	54.5	40.5	5.0
	광주/전라	114	6.1	67.5	22.8	3.5	0.0	73.7	22.8	3.5
	대전/충청/세종	127	0.0	61.4	38.6	0.0	0.0	61.4	38.6	0.0
	강원/제주	48	25.0	47.9	27.1	0.0	0.0	72.9	27.1	0.0
지역크기	대도시	526	7.2	55.3	29.8	6.8	0.8	62.5	29.8	7.6
	중소도시	629	6.5	54.8	34.3	4.1	0.2	61.4	34.3	4.3
	읍/면	45	2.2	62.2	35.6	0.0	0.0	64.4	35.6	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55.6	37.8	4.4	2.2	55.6	37.8	6.7
	자영업자	165	10.9	51.5	31.5	6.1	0.0	62.4	31.5	6.1
	판매/서비스직	236	8.5	50.8	36.0	4.7	0.0	59.3	36.0	4.7
	기능/숙련공	104	2.9	58.7	29.8	7.7	1.0	61.5	29.8	8.7
	일반 노무직	50	12.0	48.0	38.0	2.0	0.0	60.0	38.0	2.0
	사무/기술직	304	5.3	61.8	27.6	4.9	0.3	67.1	27.6	5.3
	경영/관리직	12	8.3	58.3	25.0	8.3	0.0	66.7	25.0	8.3
	전문/자유직	12	0.0	41.7	58.3	0.0	0.0	41.7	58.3	0.0
	전업주부	176	5.1	55.7	34.1	4.5	0.6	60.8	34.1	5.1
	학생	47	8.5	59.6	23.4	8.5	0.0	68.1	23.4	8.5
	무직/휴직/은퇴	40	7.5	52.5	32.5	5.0	2.5	60.0	32.5	7.5
	기타	9	0.0	22.2	77.8	0.0	0.0	22.2	77.8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49.1	43.6	5.5	0.0	50.9	43.6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1	54.1	34.7	4.8	0.2	60.3	34.7	5.0
	전문대(중퇴/졸업)	269	5.9	58.0	30.9	4.8	0.4	63.9	30.9	5.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0	56.1	29.3	5.9	0.7	64.1	29.3	6.6
	대학원 이상	8	25.0	37.5	37.5	0.0	0.0	62.5	37.5	0.0
생활 수준별	상	62	8.1	50.0	29.0	12.9	0.0	58.1	29.0	12.9
	중	565	7.4	58.1	28.8	5.1	0.5	65.5	28.8	5.7
	하	573	5.8	53.2	36.3	4.4	0.3	59.0	36.3	4.7

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25.0%, 전문가 4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25.0%로, '부족하다'(21.6%)보다 3.4%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많다'는 8.9%p(2021년 16.1%) 증가하였고, '부족하다'는 6.2%p(2021년 2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으로 '많다'는 응답이 40.0%로, '부족하다'(11.0%)보다 29.0%p 높게 나타남.

<그림 4-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특성별 분석]

- ▷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많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0>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

단위[%]		사례수 (명)	아주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아주 부족하다	종합		
								많음	보통	부족
전체		1,300	1.5	24.7	53.1	19.6	1.2	26.2	53.1	20.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9	24.1	53.4	20.4	1.2	25.0	53.4	21.6
	전문가	100	8.0	32.0	49.0	10.0	1.0	40.0	49.0	11.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	27.5	51.1	18.6	1.6	28.6	51.1	20.2
	중	570	0.5	21.9	58.1	19.1	0.4	22.5	58.1	19.5
	하	190	1.6	22.6	44.7	28.4	2.6	24.2	44.7	31.1
성별	남성	720	0.8	25.1	53.2	19.7	1.1	26.0	53.2	20.8
	여성	480	1.0	22.5	53.8	21.5	1.3	23.5	53.8	22.7
연령별	20대 이하	227	0.9	26.9	49.3	21.6	1.3	27.8	49.3	22.9
	30대	193	1.0	23.3	56.0	19.2	0.5	24.4	56.0	19.7
	40대	247	0.4	23.1	55.1	21.1	0.4	23.5	55.1	21.5
	50대	254	1.2	22.8	52.8	21.3	2.0	24.0	52.8	23.2
	60대 이상	279	1.1	24.4	54.1	19.0	1.4	25.4	54.1	20.4
지역별	서울	225	1.8	22.2	46.7	28.9	0.4	24.0	46.7	29.3
	경기/인천	386	0.8	25.1	47.2	25.4	1.6	25.9	47.2	26.9
	부산/울산/경남	179	0.6	22.3	57.5	17.9	1.7	22.9	57.5	19.6
	대구/경북	121	1.7	16.5	66.1	14.0	1.7	18.2	66.1	15.7
	광주/전라	114	0.0	26.3	64.9	8.8	0.0	26.3	64.9	8.8
	대전/충청/세종	127	0.0	35.4	54.3	10.2	0.0	35.4	54.3	10.2
	강원/제주	48	2.1	14.6	58.3	20.8	4.2	16.7	58.3	25.0
지역크기	대도시	526	1.3	18.8	56.7	22.6	0.6	20.2	56.7	23.2
	중소도시	629	0.6	28.9	48.8	19.9	1.7	29.6	48.8	21.6
	읍/면	45	0.0	17.8	80.0	2.2	0.0	17.8	80.0	2.2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2.2	62.2	6.7	6.7	24.4	62.2	13.3
	자영업자	165	1.2	23.6	49.7	24.2	1.2	24.8	49.7	25.5
	판매/서비스직	236	1.3	24.2	57.6	15.7	1.3	25.4	57.6	16.9
	기능/숙련공	104	0.0	24.0	57.7	18.3	0.0	24.0	57.7	18.3
	일반 노무직	50	0.0	36.0	54.0	10.0	0.0	36.0	54.0	10.0
	사무/기술직	304	0.3	21.7	53.6	23.7	0.7	22.0	53.6	24.3
	경영/관리직	12	0.0	25.0	58.3	16.7	0.0	25.0	58.3	16.7
	전문/자유직	12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전업주부	176	1.7	21.6	52.3	23.3	1.1	23.3	52.3	24.4
	학생	47	0.0	42.6	34.0	21.3	2.1	42.6	34.0	23.4
	무직/휴직/은퇴	40	0.0	22.5	42.5	32.5	2.5	22.5	42.5	35.0
	기타	9	11.1	22.2	55.6	11.1	0.0	33.3	55.6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18.2	61.8	12.7	5.5	20.0	61.8	1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27.5	54.4	16.4	1.1	28.2	54.4	17.5
	전문대(중퇴/졸업)	269	1.5	27.5	50.2	20.4	0.4	29.0	50.2	20.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7	19.0	53.2	26.1	1.0	19.8	53.2	27.1
	대학원 이상	8	0.0	12.5	62.5	12.5	12.5	12.5	62.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6	24.2	41.9	30.6	1.6	25.8	41.9	32.3
	중	565	0.7	23.0	54.0	21.1	1.2	23.7	54.0	22.3
	하	573	1.0	25.1	54.1	18.7	1.0	26.2	54.1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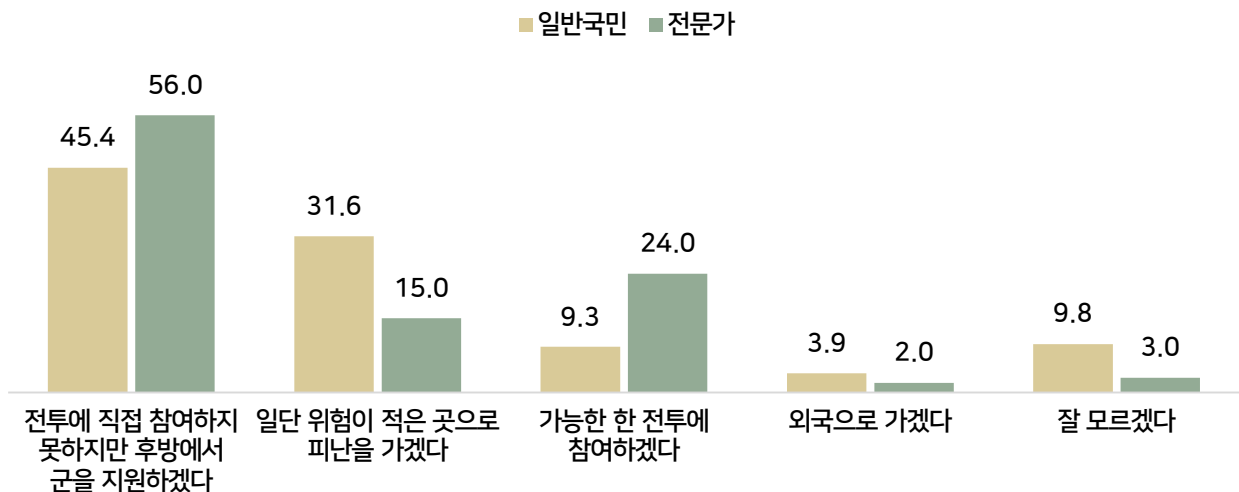
11.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5.4%, 전문가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31.6%),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2.1%p(2021년 43.3%) 증가하였고,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응답은 10.9%p(2021년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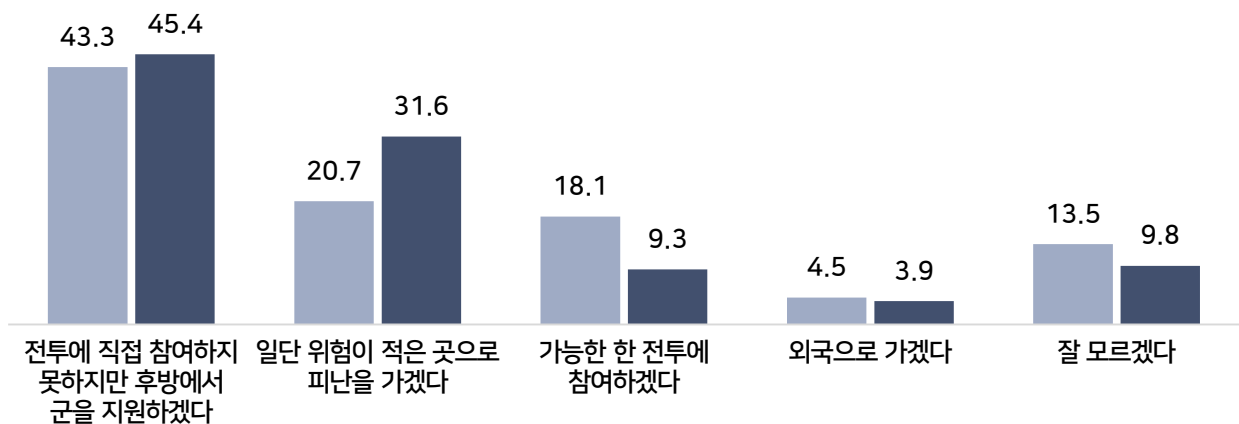
<그림 4-11>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1> 전쟁 발생시 대처방법

단위[%]		사례수 (명)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외국으로 가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46.2	30.3	10.4	3.8	9.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5.4	31.6	9.3	3.9	9.8
	전문가	100	56.0	15.0	24.0	2.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6.4	22.5	12.0	2.0	7.0
	중	570	43.3	36.1	8.1	3.2	9.3
	하	190	26.3	38.9	6.3	10.5	17.9
성별	남성	720	52.1	23.2	13.9	3.9	6.9
	여성	480	35.4	44.2	2.3	4.0	14.2
연령별	20대 이하	227	39.6	34.4	13.2	4.4	8.4
	30대	193	46.1	30.1	9.8	2.6	11.4
	40대	247	45.7	28.7	11.3	7.3	6.9
	50대	254	50.8	26.8	8.7	3.9	9.8
	60대 이상	279	44.4	37.3	4.3	1.4	12.5
지역별	서울	225	46.2	35.6	5.3	3.6	9.3
	경기/인천	386	38.1	34.2	7.5	5.7	14.5
	부산/울산/경남	179	47.5	30.7	15.6	2.8	3.4
	대구/경북	121	40.5	32.2	4.1	6.6	16.5
	광주/전라	114	76.3	14.0	6.1	0.0	3.5
	대전/충청/세종	127	42.5	34.6	17.3	1.6	3.9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39.6	27.1	16.7	4.2	12.5
	대도시	526	47.5	30.8	10.3	3.8	7.6
	중소도시	629	42.8	32.9	8.3	4.1	11.9
직업별	읍/면	45	57.8	22.2	11.1	2.2	6.7
	농/어/임업	45	51.1	24.4	8.9	0.0	15.6
	자영업자	165	51.5	30.9	6.1	4.2	7.3
	판매/서비스직	236	47.0	30.5	9.7	2.5	10.2
	기능/숙련공	104	55.8	20.2	11.5	6.7	5.8
	일반 노무직	50	40.0	30.0	14.0	4.0	12.0
	사무/기술직	304	42.4	32.2	12.8	3.6	8.9
	경영/관리직	12	58.3	8.3	8.3	0.0	25.0
	전문/자유직	12	33.3	25.0	8.3	16.7	16.7
	전업주부	176	35.8	42.6	2.3	4.0	15.3
	학생	47	40.4	27.7	21.3	8.5	2.1
	무직/휴직/은퇴	40	57.5	32.5	0.0	2.5	7.5
	기타	9	33.3	66.7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4	49.1	0.0	0.0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4.3	33.2	7.6	3.9	10.9
	전문대(중퇴/졸업)	269	49.8	26.8	9.7	4.1	9.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5.1	30.7	11.7	4.1	8.3
	대학원 이상	8	37.5	25.0	25.0	12.5	0.0
생활 수준별	상	62	48.4	30.6	4.8	6.5	9.7
	중	565	47.8	28.5	10.4	3.7	9.6
	하	573	42.8	34.7	8.6	3.8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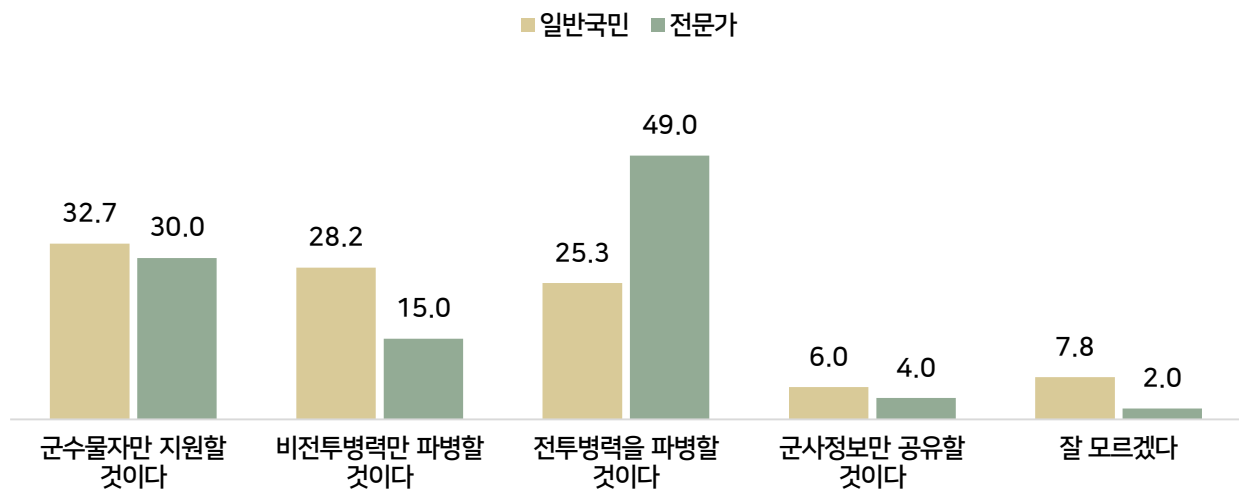
12.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32.7%), 전문가는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다'(49.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으로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전투병력만 파병할 것이다'(28.2%),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다'(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30.0%), '비전투병력만 파병할 것이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1> 한반도 내 북한과 전쟁 재발 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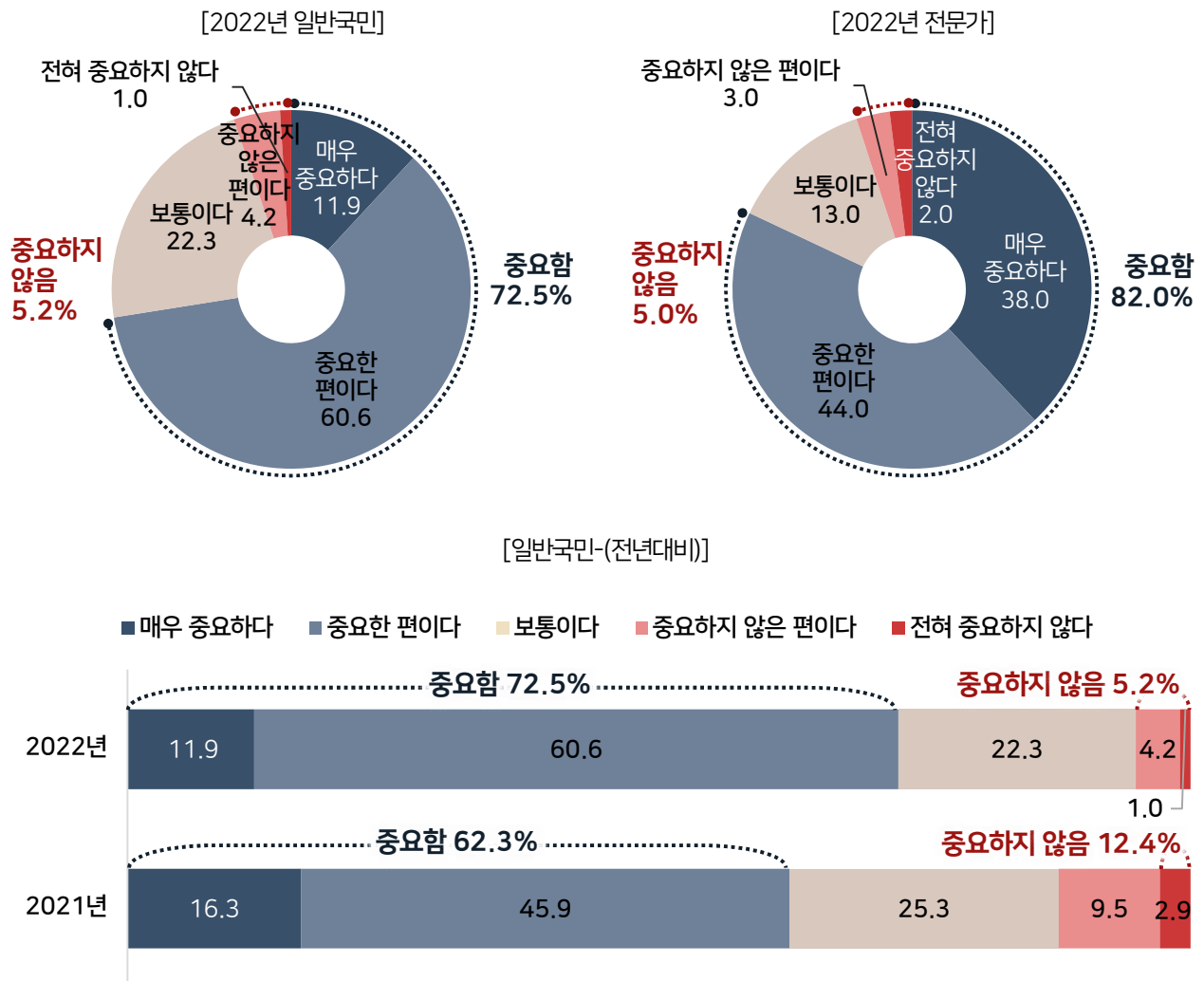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	비전투병력만 파병할 것이다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다	군사정보만 공유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32.5	27.2	27.2	5.8	7.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7	28.2	25.3	6.0	7.8
	전문가	100	30.0	15.0	49.0	4.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0.0	28.4	28.2	7.0	6.4
	중	570	33.3	29.6	25.1	4.9	7.0
	하	190	36.8	23.2	19.5	6.8	13.7
성별	남성	720	30.7	30.6	26.9	6.4	5.4
	여성	480	35.6	24.6	22.9	5.4	11.5
연령별	20대 이하	227	32.2	26.4	26.4	5.3	9.7
	30대	193	32.1	33.2	22.3	4.7	7.8
	40대	247	29.6	27.9	30.8	6.5	5.3
	50대	254	36.6	27.6	22.4	5.9	7.5
	60대 이상	279	32.6	26.9	24.4	7.2	9.0
지역별	서울	225	35.1	30.2	21.8	7.6	5.3
	경기/인천	386	32.9	25.6	25.4	6.0	10.1
	부산/울산/경남	179	27.9	25.1	39.1	3.4	4.5
	대구/경북	121	32.2	35.5	12.4	3.3	16.5
	광주/전라	114	39.5	27.2	15.8	13.2	4.4
	대전/충청/세종	127	33.9	34.6	25.2	2.4	3.9
	강원/제주	48	18.8	16.7	45.8	8.3	1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30.4	31.2	26.2	6.1	6.1
	중소도시	629	34.7	25.8	25.0	5.7	8.9
	읍/면	45	31.1	26.7	20.0	8.9	13.3
직업별	농/어/임업	45	33.3	33.3	15.6	6.7	11.1
	자영업자	165	33.9	32.1	22.4	6.1	5.5
	판매/서비스직	236	36.0	29.2	23.3	6.4	5.1
	기능/숙련공	104	33.7	20.2	30.8	10.6	4.8
	일반 노무직	50	24.0	28.0	28.0	8.0	12.0
	사무/기술직	304	30.6	31.3	26.3	4.3	7.6
	경영/관리직	12	41.7	8.3	41.7	0.0	8.3
	전문/자유직	12	41.7	8.3	25.0	16.7	8.3
	전업주부	176	31.8	23.3	26.7	3.4	14.8
	학생	47	29.8	23.4	29.8	6.4	10.6
	무직/휴직/은퇴	40	32.5	27.5	25.0	12.5	2.5
	기타	9	33.3	66.7	0.0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0.9	30.9	18.2	5.5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2.5	30.3	23.4	6.6	7.2
	전문대(중퇴/졸업)	269	30.5	26.8	27.1	5.2	10.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4.9	26.3	27.3	5.6	5.9
	대학원 이상	8	12.5	25.0	25.0	25.0	12.5
생활 수준별	상	62	41.9	17.7	25.8	9.7	4.8
	중	565	34.5	27.6	26.7	5.7	5.5
	하	573	29.8	29.8	23.9	5.9	10.5

13.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일반국민(72.5%), 전문가(8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72.5%로 '중요하지 않다'(5.2%)라는 응답보다 67.3%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10.2%p(2021년 62.3%) 증가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2%p(2021년 12.4%) 감소하였음.
- ▶ **[전문가]**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82.0%로 '중요하지 않다'(5.0%)는 응답보다 77.0%p 높게 나타남.

<그림 4-13>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특성별 분석]

- ▷ 현재 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3> 현재 예비군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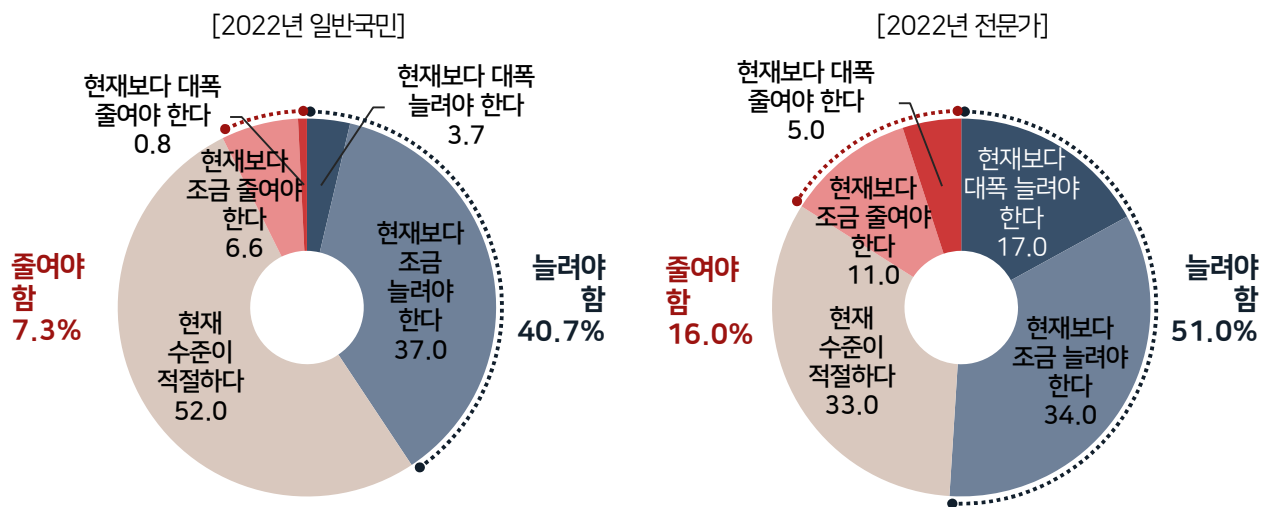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종합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체		1,300	13.9	59.3	21.6	4.1	1.1	73.2	21.6	5.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9	60.6	22.3	4.2	1.0	72.5	22.3	5.2
	전문가	100	38.0	44.0	13.0	3.0	2.0	82.0	13.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6.6	66.1	14.1	2.3	0.9	82.7	14.1	3.2
	중	570	8.8	61.2	25.1	4.0	0.9	70.0	25.1	4.9
	하	190	10.5	45.8	33.2	8.9	1.6	56.3	33.2	10.5
성별	남성	720	12.5	60.1	21.7	4.4	1.3	72.6	21.7	5.7
	여성	480	11.0	61.3	23.3	3.8	0.6	72.3	23.3	4.4
연령별	20대 이하	227	8.4	61.2	24.2	4.8	1.3	69.6	24.2	6.2
	30대	193	13.5	61.7	19.7	4.7	0.5	75.1	19.7	5.2
	40대	247	11.3	66.0	17.0	4.9	0.8	77.3	17.0	5.7
	50대	254	13.0	59.8	22.8	3.1	1.2	72.8	22.8	4.3
	60대 이상	279	13.3	55.2	26.9	3.6	1.1	68.5	26.9	4.7
지역별	서울	225	13.8	61.3	19.6	5.3	0.0	75.1	19.6	5.3
	경기/인천	386	13.2	59.6	19.4	6.0	1.8	72.8	19.4	7.8
	부산/울산/경남	179	8.9	78.8	10.6	1.1	0.6	87.7	10.6	1.7
	대구/경북	121	13.2	36.4	44.6	3.3	2.5	49.6	44.6	5.8
	광주/전라	114	10.5	73.7	13.2	2.6	0.0	84.2	13.2	2.6
	대전/충청/세종	127	2.4	58.3	35.4	3.1	0.8	60.6	35.4	3.9
	강원/제주	48	29.2	33.3	33.3	4.2	0.0	62.5	33.3	4.2
지역크기	대도시	526	14.1	63.3	18.4	4.0	0.2	77.4	18.4	4.2
	중소도시	629	10.5	57.6	25.9	4.3	1.7	68.0	25.9	6.0
	읍/면	45	6.7	71.1	17.8	4.4	0.0	77.8	17.8	4.4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64.4	31.1	2.2	2.2	64.4	31.1	4.4
	자영업자	165	16.4	54.5	21.2	7.3	0.6	70.9	21.2	7.9
	판매/서비스직	236	12.3	57.6	26.7	2.1	1.3	69.9	26.7	3.4
	기능/숙련공	104	14.4	64.4	13.5	4.8	2.9	78.8	13.5	7.7
	일반 노무직	50	10.0	48.0	36.0	4.0	2.0	58.0	36.0	6.0
	사무/기술직	304	9.2	66.4	18.4	5.6	0.3	75.7	18.4	5.9
	경영/관리직	12	8.3	41.7	33.3	8.3	8.3	50.0	33.3	16.7
	전문/자유직	12	8.3	75.0	16.7	0.0	0.0	83.3	16.7	0.0
	전업주부	176	13.6	64.8	20.5	1.1	0.0	78.4	20.5	1.1
	학생	47	10.6	57.4	21.3	8.5	2.1	68.1	21.3	10.6
	무직/휴직/은퇴	40	20.0	42.5	35.0	2.5	0.0	62.5	35.0	2.5
	기타	9	0.0	77.8	22.2	0.0	0.0	77.8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7.3	60.0	32.7	0.0	0.0	67.3	32.7	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2.2	59.8	22.5	3.9	1.5	72.1	22.5	5.5
	전문대(중퇴/졸업)	269	11.9	59.1	23.8	4.1	1.1	71.0	23.8	5.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0	62.7	19.8	5.1	0.5	74.6	19.8	5.6
	대학원 이상	8	25.0	50.0	25.0	0.0	0.0	75.0	25.0	0.0
생활 수준별	상	62	9.7	67.7	16.1	6.5	0.0	77.4	16.1	6.5
	중	565	11.2	61.4	21.9	3.9	1.6	72.6	21.9	5.5
	하	573	12.9	59.0	23.4	4.2	0.5	71.9	23.4	4.7

14.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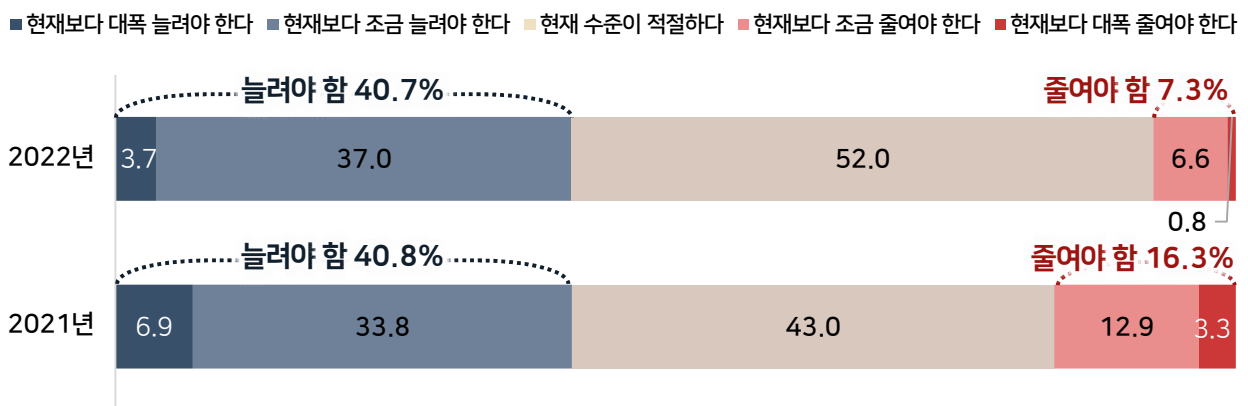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40.7%, 전문가 51.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줄여야 한다'(7.3%)보다 33.4%p 높게 나타남(적절함 : 52.0%).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0.1%p(2021년 40.8%), '줄여야 한다'는 9.0%p(2021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1.0%로, '줄여야 한다'(16.0%)보다 35.0%p 높게 나타남(적절함 : 33.0%).

<그림 4-14>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4>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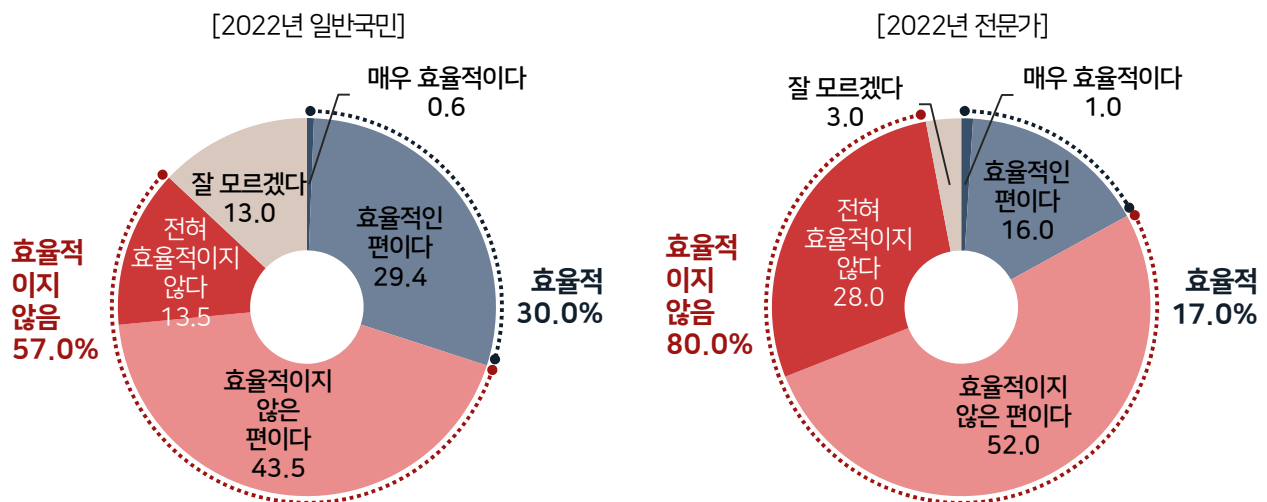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종합		
								늘려야 함	적절함	줄여야 함
전체		1,300	4.7	36.8	50.5	6.9	1.1	41.5	50.5	8.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7	37.0	52.0	6.6	0.8	40.7	52.0	7.3
	전문가	100	17.0	34.0	33.0	11.0	5.0	51.0	33.0	1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9	42.0	47.3	5.9	0.9	45.9	47.3	6.8
	중	570	3.7	34.6	56.0	5.3	0.5	38.2	56.0	5.8
	하	190	3.2	32.6	51.1	12.1	1.1	35.8	51.1	13.2
성별	남성	720	3.3	37.9	51.3	6.7	0.8	41.3	51.3	7.5
	여성	480	4.2	35.6	53.1	6.5	0.6	39.8	53.1	7.1
연령별	20대 이하	227	3.5	36.1	55.5	4.4	0.4	39.6	55.5	4.8
	30대	193	3.6	38.3	53.4	4.1	0.5	42.0	53.4	4.7
	40대	247	3.2	41.7	44.9	8.9	1.2	44.9	44.9	10.1
	50대	254	4.3	31.1	56.7	6.7	1.2	35.4	56.7	7.9
	60대 이상	279	3.6	38.0	50.2	7.9	0.4	41.6	50.2	8.2
지역별	서울	225	0.9	38.7	48.4	11.1	0.9	39.6	48.4	12.0
	경기/인천	386	4.4	45.1	43.5	5.4	1.6	49.5	43.5	7.0
	부산/울산/경남	179	1.1	31.8	62.0	5.0	0.0	33.0	62.0	5.0
	대구/경북	121	9.1	42.1	41.3	6.6	0.8	51.2	41.3	7.4
	광주/전라	114	7.0	21.1	67.5	4.4	0.0	28.1	67.5	4.4
	대전/충청/세종	127	0.0	27.6	66.9	5.5	0.0	27.6	66.9	5.5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8.3	33.3	50.0	8.3	0.0	41.7	50.0	8.3
	대도시	526	4.0	38.6	46.8	9.9	0.8	42.6	46.8	10.6
	중소도시	629	3.7	37.7	53.9	4.0	0.8	41.3	53.9	4.8
직업별	읍/면	45	0.0	8.9	86.7	4.4	0.0	8.9	86.7	4.4
	농/어/임업	45	0.0	24.4	57.8	15.6	2.2	24.4	57.8	17.8
	자영업자	165	3.0	40.0	47.3	7.9	1.8	43.0	47.3	9.7
	판매/서비스직	236	4.7	33.9	56.8	3.8	0.8	38.6	56.8	4.7
	기능/숙련공	104	5.8	28.8	58.7	6.7	0.0	34.6	58.7	6.7
	일반 노무직	50	4.0	28.0	60.0	8.0	0.0	32.0	60.0	8.0
	사무/기술직	304	3.9	39.8	51.3	4.6	0.3	43.8	51.3	4.9
	경영/관리직	12	0.0	41.7	50.0	8.3	0.0	41.7	50.0	8.3
	전문/자유직	1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전업주부	176	3.4	43.2	44.3	8.5	0.6	46.6	44.3	9.1
	학생	47	4.3	31.9	51.1	10.6	2.1	36.2	51.1	12.8
	무직/휴직/은퇴	40	0.0	45.0	45.0	10.0	0.0	45.0	45.0	10.0
최종 학력별	기타	9	0.0	22.2	77.8	0.0	0.0	22.2	77.8	0.0
	중졸 이하	55	1.8	30.9	61.8	5.5	0.0	32.7	61.8	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3	33.8	53.5	8.3	1.1	37.1	53.5	9.4
	전문대(중퇴/졸업)	269	3.7	42.4	49.8	3.3	0.7	46.1	49.8	4.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4	37.8	50.2	7.1	0.5	42.2	50.2	7.6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37.5	62.5	0.0	0.0	37.5	62.5	0.0
	상	62	3.2	40.3	46.8	9.7	0.0	43.5	46.8	9.7
	중	565	3.7	35.4	55.0	5.5	0.4	39.1	55.0	5.8
	하	573	3.7	38.2	49.6	7.3	1.2	41.9	49.6	8.6

1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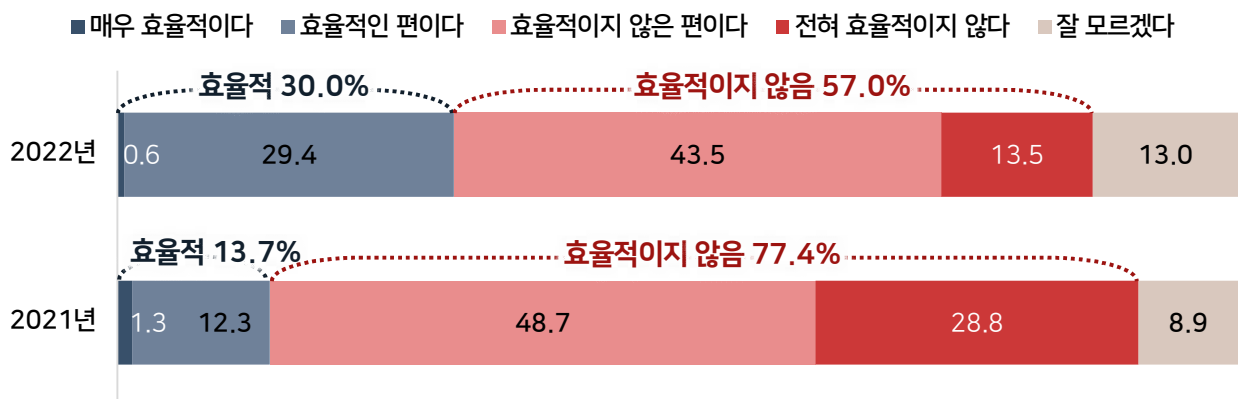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7.0%, 전문가 8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7.0%로, '효율적이다'(30.0%)보다 27.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효율적이다'는 16.3%p(2021년 13.7%) 증가하였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20.4%p(2021년 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0.0%로, '효율적이다'(17.0%)보다 63.0%p 높게 나타남.

<그림 4-1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최종 학력별로 '4년제 대학교(중퇴/졸업)'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5>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편이다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잘 모르겠다	종합		
								효율적	효율적이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1,300	0.6	28.4	44.2	14.6	12.2	29.0	58.8	12.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0.6	29.4	43.5	13.5	13.0	30.0	57.0	13.0
	전문가	100	1.0	16.0	52.0	28.0	3.0	17.0	80.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	32.3	46.4	12.5	7.7	33.4	58.9	7.7
	중	570	0.2	29.5	40.7	13.5	16.1	29.6	54.2	16.1
	하	190	0.5	22.6	45.3	15.8	15.8	23.2	61.1	15.8
성별	남성	720	0.4	30.3	43.6	15.1	10.6	30.7	58.8	10.6
	여성	480	0.8	28.1	43.3	11.0	16.7	29.0	54.4	16.7
연령별	20대 이하	227	0.4	25.6	48.5	12.8	12.8	26.0	61.2	12.8
	30대	193	0.5	25.9	45.1	13.5	15.0	26.4	58.5	15.0
	40대	247	0.4	33.6	37.7	17.0	11.3	34.0	54.7	11.3
	50대	254	0.4	29.5	42.5	14.6	13.0	29.9	57.1	13.0
	60대 이상	279	1.1	31.2	44.4	10.0	13.3	32.3	54.5	13.3
지역별	서울	225	0.0	26.7	49.3	12.9	11.1	26.7	62.2	11.1
	경기/인천	386	1.0	14.5	46.9	18.7	18.9	15.5	65.5	18.9
	부산/울산/경남	179	0.0	54.2	30.7	5.6	9.5	54.2	36.3	9.5
	대구/경북	121	0.8	19.8	47.9	19.8	11.6	20.7	67.8	11.6
	광주/전라	114	0.9	36.8	50.0	8.8	3.5	37.7	58.8	3.5
	대전/충청/세종	127	0.0	53.5	27.6	7.1	11.8	53.5	34.6	11.8
	강원/제주	48	2.1	12.5	52.1	16.7	16.7	14.6	68.8	16.7
지역크기	대도시	526	0.6	28.9	44.3	14.6	11.6	29.5	58.9	11.6
	중소도시	629	0.6	30.2	41.8	12.6	14.8	30.8	54.4	14.8
	읍/면	45	0.0	24.4	57.8	13.3	4.4	24.4	71.1	4.4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4.4	37.8	6.7	11.1	44.4	44.4	11.1
	자영업자	165	0.6	21.2	47.3	15.8	15.2	21.8	63.0	15.2
	판매/서비스직	236	0.4	41.1	40.3	10.2	8.1	41.5	50.4	8.1
	기능/숙련공	104	1.0	39.4	41.3	11.5	6.7	40.4	52.9	6.7
	일반 노무직	50	0.0	18.0	48.0	16.0	18.0	18.0	64.0	18.0
	사무/기술직	304	1.0	25.3	46.4	16.1	11.2	26.3	62.5	11.2
	경영/관리직	12	0.0	8.3	33.3	25.0	33.3	8.3	58.3	33.3
	전문/자유직	12	0.0	16.7	66.7	0.0	16.7	16.7	66.7	16.7
	전업주부	176	0.6	27.8	38.1	12.5	21.0	28.4	50.6	21.0
	학생	47	0.0	29.8	42.6	10.6	17.0	29.8	53.2	17.0
	무직/휴직/은퇴	40	0.0	20.0	50.0	17.5	12.5	20.0	67.5	12.5
	기타	9	0.0	0.0	55.6	33.3	11.1	0.0	88.9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34.5	43.6	7.3	12.7	36.4	50.9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0.7	33.0	42.4	11.1	12.9	33.6	53.5	12.9
	전문대(중퇴/졸업)	269	0.7	32.7	37.5	13.4	15.6	33.5	50.9	15.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0.2	22.7	49.0	16.8	11.2	22.9	65.9	11.2
	대학원 이상	8	0.0	25.0	25.0	25.0	25.0	25.0	50.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0.0	19.4	37.1	24.2	19.4	19.4	61.3	19.4
	중	565	0.7	31.3	42.5	12.6	12.9	32.0	55.0	12.9
	하	573	0.5	28.6	45.2	13.3	12.4	29.1	58.5	12.4

1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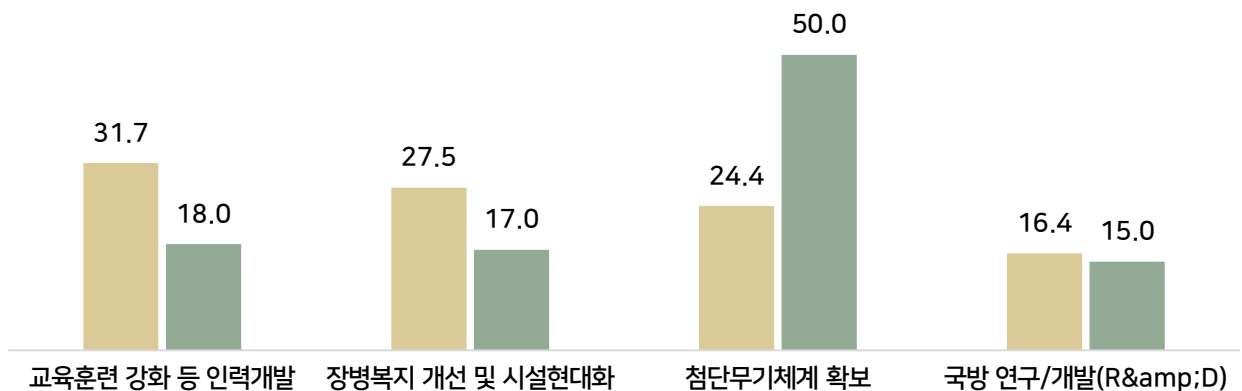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31.7%), 전문가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50.0%)가 가장 높게 타남.

- ▶ **[일반국민]**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5%), '첨단 무기체계 확보'(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17.1%p(2021년 14.6%),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라는 응답은 0.2%p(2021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첨단 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18.0%),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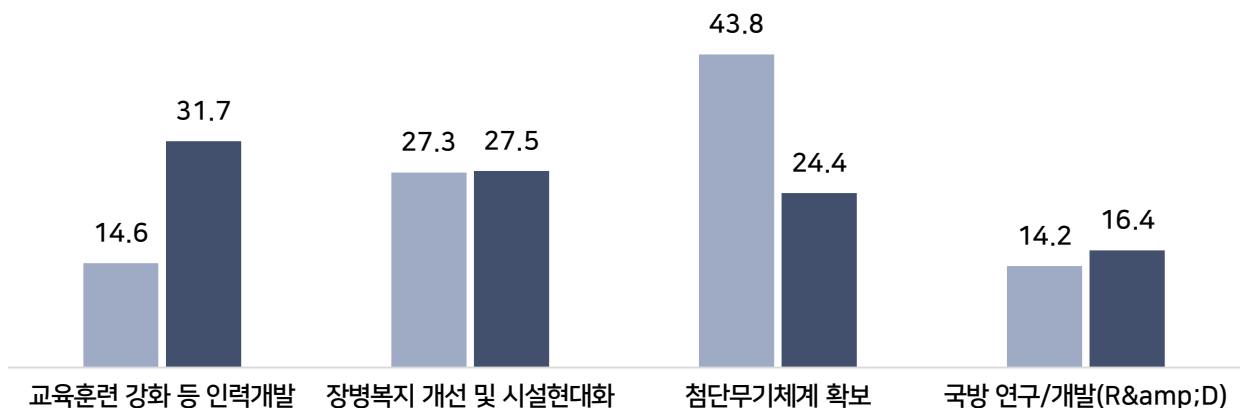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6>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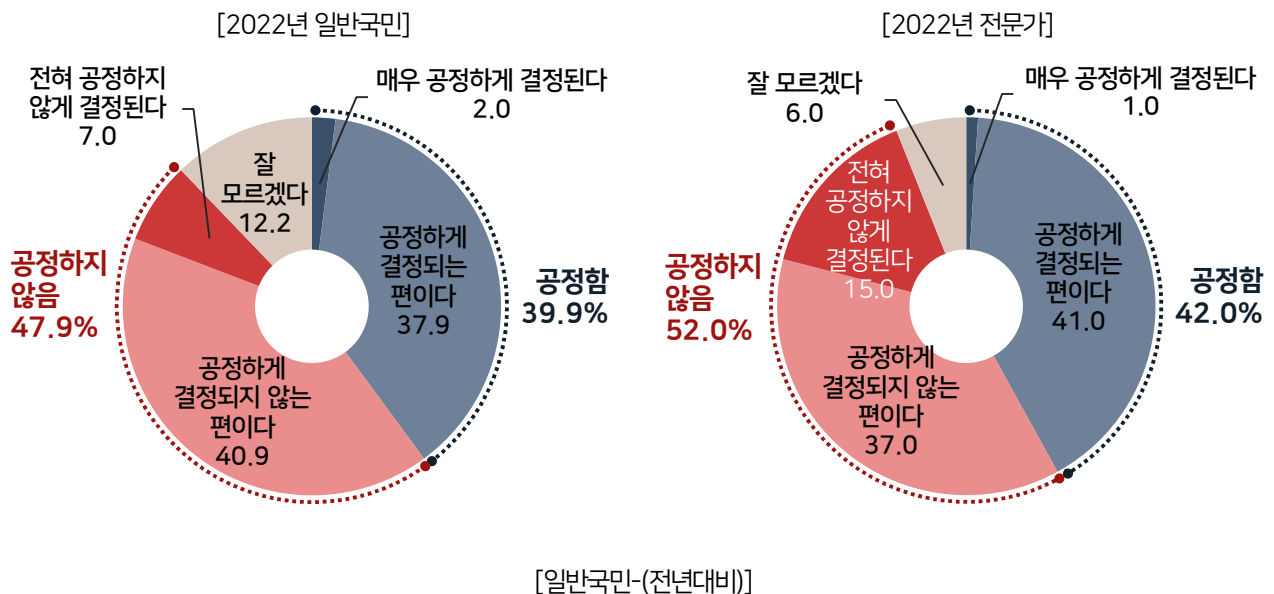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첨단무기체계 확보	국방 연구/ 개발(R&D)
전체		1,300	30.6	26.7	26.4	16.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1.7	27.5	24.4	16.4
	전문가	100	18.0	17.0	50.0	1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0.7	28.4	30.5	10.5
	중	570	33.3	25.4	23.2	18.1
	하	190	28.9	31.6	14.2	25.3
성별	남성	720	30.7	28.6	24.6	16.1
	여성	480	33.1	25.8	24.2	16.9
연령별	20대 이하	227	29.5	28.6	24.7	17.2
	30대	193	32.1	28.5	23.8	15.5
	40대	247	35.2	26.3	24.7	13.8
	50대	254	32.7	29.5	20.9	16.9
	60대 이상	279	29.0	25.1	27.6	18.3
지역별	서울	225	34.7	20.0	24.0	21.3
	경기/인천	386	29.5	25.9	23.3	21.2
	부산/울산/경남	179	35.8	26.8	26.8	10.6
	대구/경북	121	21.5	25.6	38.0	14.9
	광주/전라	114	31.6	43.0	16.7	8.8
	대전/충청/세종	127	37.8	35.4	15.0	11.8
	강원/제주	48	29.2	25.0	35.4	10.4
지역크기	대도시	526	30.4	20.0	28.9	20.7
	중소도시	629	33.7	31.8	21.0	13.5
	읍/면	45	17.8	55.6	20.0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33.3	44.4	13.3	8.9
	자영업자	165	27.9	27.3	28.5	16.4
	판매/서비스직	236	34.7	28.0	24.6	12.7
	기능/숙련공	104	34.6	24.0	26.0	15.4
	일반 노무직	50	40.0	28.0	20.0	12.0
	사무/기술직	304	29.6	27.3	25.3	17.8
	경영/관리직	12	16.7	25.0	41.7	16.7
	전문/자유직	12	33.3	25.0	33.3	8.3
	전업주부	176	35.2	20.5	22.7	21.6
	학생	47	14.9	42.6	29.8	12.8
	무직/휴직/은퇴	40	30.0	30.0	12.5	27.5
	기타	9	44.4	33.3	0.0	22.2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29.1	38.2	23.6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4.9	26.0	22.5	16.6
	전문대(중퇴/졸업)	269	33.1	28.3	24.2	14.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7.6	27.6	26.6	18.3
	대학원 이상	8	25.0	12.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27.4	24.2	32.3	16.1
	중	565	29.6	28.8	23.7	17.9
	하	573	34.2	26.5	24.3	15.0

17.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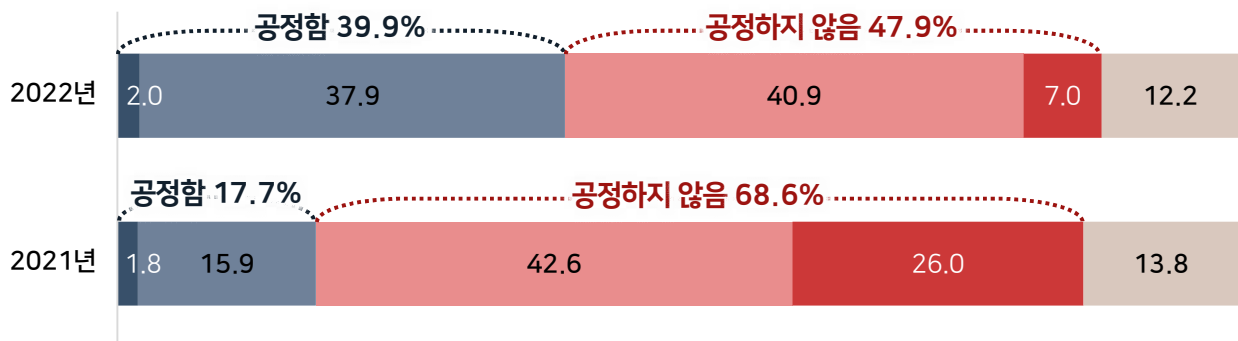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7.9%, 전문가 52.0%로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9%로, '공정하다' (39.9%)보다 8.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는 20.7%p(2021년 68.6%) 감소하였고, '공정하다'는 22.2%p(2021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2.0%로, '공정하다' (42.0%)보다 10.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더욱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함.

<그림 4-17>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 잘 모르겠다



[특성별 분석]

- ▷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 '남성',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7〉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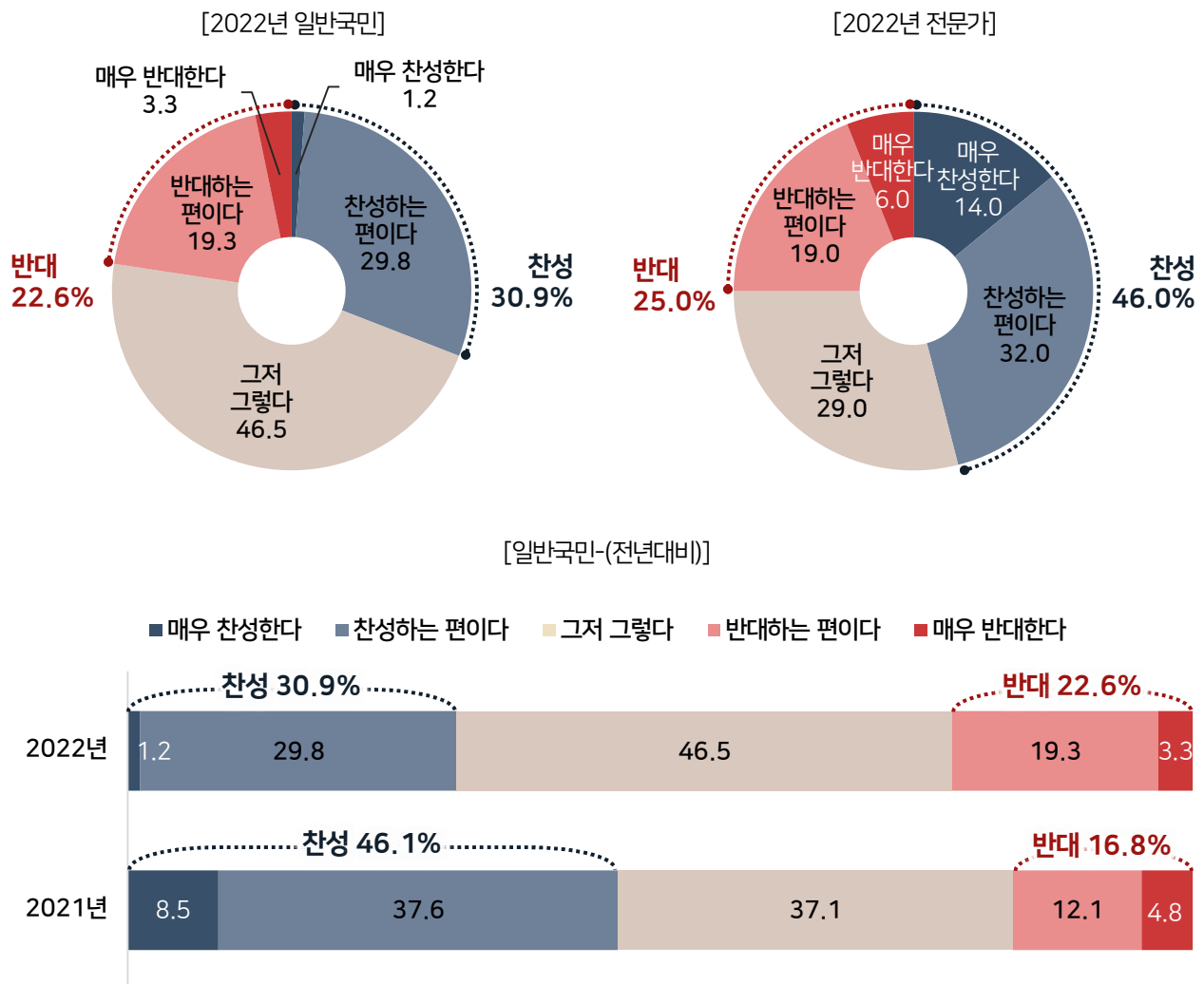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잘 모르겠다	종합		
								공정함	공정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전체		1,300	1.9	38.2	40.6	7.6	11.7	40.1	48.2	11.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	37.9	40.9	7.0	12.2	39.9	47.9	12.2
	전문가	100	1.0	41.0	37.0	15.0	6.0	42.0	52.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0	44.5	36.8	7.5	8.2	47.5	44.3	8.2
	중	570	1.8	35.3	41.8	5.8	15.4	37.0	47.5	15.4
	하	190	0.5	30.5	47.9	9.5	11.6	31.1	57.4	11.6
성별	남성	720	2.1	38.3	41.9	6.9	10.7	40.4	48.9	10.7
	여성	480	1.9	37.3	39.4	7.1	14.4	39.2	46.5	14.4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38.8	40.5	7.0	11.9	40.5	47.6	11.9
	30대	193	2.6	34.2	42.0	8.3	13.0	36.8	50.3	13.0
	40대	247	2.4	40.5	38.5	7.3	11.3	42.9	45.7	11.3
	50대	254	1.2	37.0	43.7	6.7	11.4	38.2	50.4	11.4
	60대 이상	279	2.2	38.4	40.1	6.1	13.3	40.5	46.2	13.3
지역별	서울	225	1.3	37.8	40.0	6.7	14.2	39.1	46.7	14.2
	경기/인천	386	2.1	30.8	45.3	8.0	13.7	32.9	53.4	13.7
	부산/울산/경남	179	1.1	48.6	39.7	5.0	5.6	49.7	44.7	5.6
	대구/경북	121	3.3	25.6	45.5	14.9	10.7	28.9	60.3	10.7
	광주/전라	114	2.6	50.9	41.2	3.5	1.8	53.5	44.7	1.8
	대전/충청/세종	127	0.8	51.2	25.2	2.4	20.5	52.0	27.6	20.5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6.3	20.8	43.8	8.3	20.8	27.1	52.1	20.8
	대도시	526	1.7	38.2	40.9	8.9	10.3	39.9	49.8	10.3
	중소도시	629	2.4	38.0	40.2	5.4	14.0	40.4	45.6	14.0
직업별	읍/면	45	0.0	33.3	51.1	6.7	8.9	33.3	57.8	8.9
	농/어/임업	45	2.2	51.1	31.1	6.7	8.9	53.3	37.8	8.9
	자영업자	165	2.4	33.3	43.0	7.3	13.9	35.8	50.3	13.9
	판매/서비스직	236	2.1	44.5	39.8	5.9	7.6	46.6	45.8	7.6
	기능/숙련공	104	1.9	45.2	39.4	5.8	7.7	47.1	45.2	7.7
	일반 노무직	50	4.0	32.0	38.0	10.0	16.0	36.0	48.0	16.0
	사무/기술직	304	1.6	32.9	44.4	9.5	11.5	34.5	53.9	11.5
	경영/관리직	12	0.0	25.0	50.0	0.0	25.0	25.0	50.0	25.0
	전문/자유직	12	0.0	33.3	50.0	8.3	8.3	33.3	58.3	8.3
	전업주부	176	1.1	33.5	40.9	5.7	18.8	34.7	46.6	18.8
	학생	47	4.3	34.0	40.4	2.1	19.1	38.3	42.6	19.1
최종 학력별	무직/휴직/은퇴	40	2.5	62.5	20.0	7.5	7.5	65.0	27.5	7.5
	기타	9	0.0	22.2	66.7	0.0	11.1	22.2	66.7	11.1
	중졸 이하	55	3.6	43.6	38.2	5.5	9.1	47.3	43.6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0	39.3	42.6	5.2	10.9	41.3	47.8	10.9
	전문대(중퇴/졸업)	269	2.2	41.3	36.8	7.1	12.6	43.5	43.9	12.6
생활 수준별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7	33.4	41.7	9.3	13.9	35.1	51.0	13.9
	대학원 이상	8	0.0	37.5	62.5	0.0	0.0	37.5	62.5	0.0
	상	62	3.2	27.4	35.5	11.3	22.6	30.6	46.8	22.6
	중	565	1.8	37.7	42.1	7.3	11.2	39.5	49.4	11.2
	하	573	2.1	39.3	40.3	6.3	12.0	41.4	46.6	12.0

18.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0.9%, 전문가 46.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0.9%로, '반대한다' (22.6%)는 의견보다 8.3%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15.2%p(2021년 46.1%) 감소하였고, '반대한다'는 5.8%p (2021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6.0%로, '반대한다' (25.0%)보다 21.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자주국방과 전쟁억제력 강화를 위한 세금 상승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그림 4-18>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특성별 분석]

- ▷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8>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		
								찬성	그저 그렇다	반대
전체		1,300	2.2	29.9	45.2	19.3	3.5	32.1	45.2	2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	29.8	46.5	19.3	3.3	30.9	46.5	22.6
	전문가	100	14.0	32.0	29.0	19.0	6.0	46.0	29.0	2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8	34.3	40.9	19.3	3.6	36.1	40.9	23.0
	중	570	0.5	28.2	50.0	18.4	2.8	28.8	50.0	21.2
	하	190	1.6	23.7	48.9	22.1	3.7	25.3	48.9	25.8
성별	남성	720	0.7	30.1	47.2	19.3	2.6	30.8	47.2	21.9
	여성	480	1.9	29.2	45.4	19.4	4.2	31.0	45.4	23.5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28.2	43.6	23.3	3.1	30.0	43.6	26.4
	30대	193	0.5	27.5	51.8	17.1	3.1	28.0	51.8	20.2
	40대	247	1.2	32.0	45.7	18.2	2.8	33.2	45.7	21.1
	50대	254	0.4	28.0	50.0	19.3	2.4	28.3	50.0	21.7
	60대 이상	279	1.8	32.3	42.7	18.6	4.7	34.1	42.7	23.3
지역별	서울	225	1.3	32.0	48.4	18.2	0.0	33.3	48.4	18.2
	경기/인천	386	1.3	28.0	46.9	22.0	1.8	29.3	46.9	23.8
	부산/울산/경남	179	0.0	34.1	43.6	16.2	6.1	34.1	43.6	22.3
	대구/경북	121	1.7	24.8	54.5	9.1	9.9	26.4	54.5	19.0
	광주/전라	114	0.9	30.7	43.0	22.8	2.6	31.6	43.0	25.4
	대전/충청/세종	127	0.8	27.6	45.7	23.6	2.4	28.3	45.7	26.0
	강원/제주	48	4.2	33.3	35.4	20.8	6.3	37.5	35.4	27.1
지역크기	대도시	526	1.1	31.9	44.7	18.8	3.4	33.1	44.7	22.2
	중소도시	629	1.3	28.6	47.7	19.2	3.2	29.9	47.7	22.4
	읍/면	45	0.0	20.0	51.1	26.7	2.2	20.0	51.1	2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8.9	51.1	11.1	6.7	31.1	51.1	17.8
	자영업자	165	0.0	33.3	47.9	13.9	4.8	33.3	47.9	18.8
	판매/서비스직	236	0.4	30.5	47.0	20.8	1.3	30.9	47.0	22.0
	기능/숙련공	104	0.0	35.6	42.3	20.2	1.9	35.6	42.3	22.1
	일반 노무직	50	0.0	26.0	42.0	28.0	4.0	26.0	42.0	32.0
	사무/기술직	304	1.0	26.3	48.7	20.7	3.3	27.3	48.7	24.0
	경영/관리직	12	0.0	16.7	66.7	16.7	0.0	16.7	66.7	16.7
	전문/자유직	12	0.0	33.3	25.0	41.7	0.0	33.3	25.0	41.7
	전업주부	176	3.4	32.4	43.8	16.5	4.0	35.8	43.8	20.5
	학생	47	4.3	27.7	34.0	27.7	6.4	31.9	34.0	34.0
	무직/휴직/은퇴	40	0.0	25.0	52.5	20.0	2.5	25.0	52.5	22.5
	기타	9	11.1	11.1	77.8	0.0	0.0	22.2	77.8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23.6	56.4	18.2	1.8	23.6	56.4	2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5	31.4	45.0	18.3	3.7	33.0	45.0	22.1
	전문대(중퇴/졸업)	269	0.4	29.7	52.0	15.6	2.2	30.1	52.0	17.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5	28.3	43.9	22.9	3.4	29.8	43.9	26.3
	대학원 이상	8	0.0	50.0	12.5	25.0	12.5	50.0	12.5	37.5
생활 수준별	상	62	1.6	33.9	50.0	11.3	3.2	35.5	50.0	14.5
	중	565	0.9	29.9	45.3	21.1	2.8	30.8	45.3	23.9
	하	573	1.4	29.1	47.3	18.5	3.7	30.5	47.3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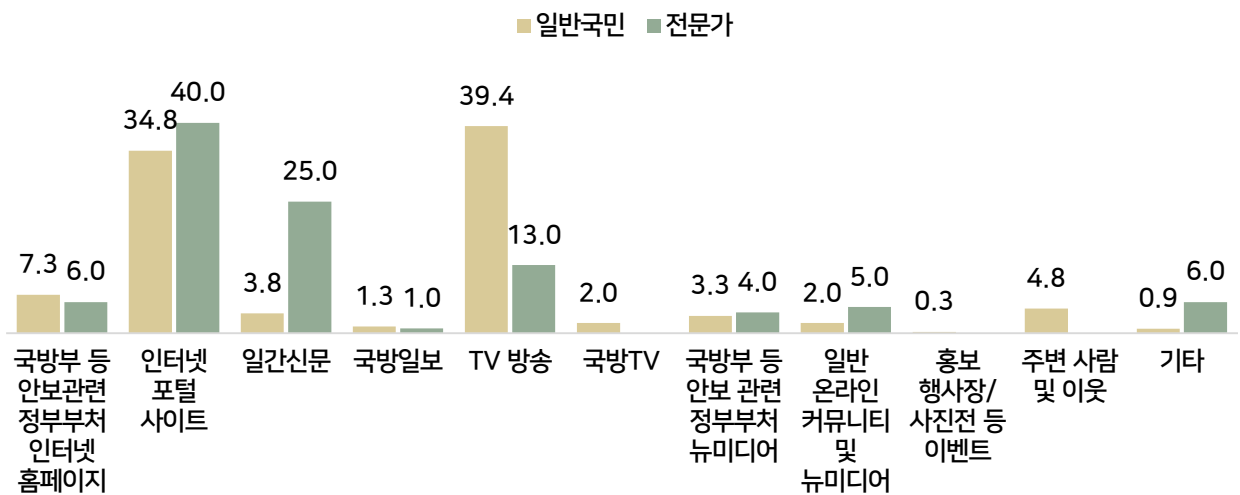
1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에 대해
일반국민은 'TV방송'(39.4%), 전문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4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 경로에 대해 'TV방송'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3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TV방송'이라는 응답은 6.8%p(2021년 46.2%) 감소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은 1.6%p(2021년 33.2%) 증가하였음.
- ▶ [전문가]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간신문'(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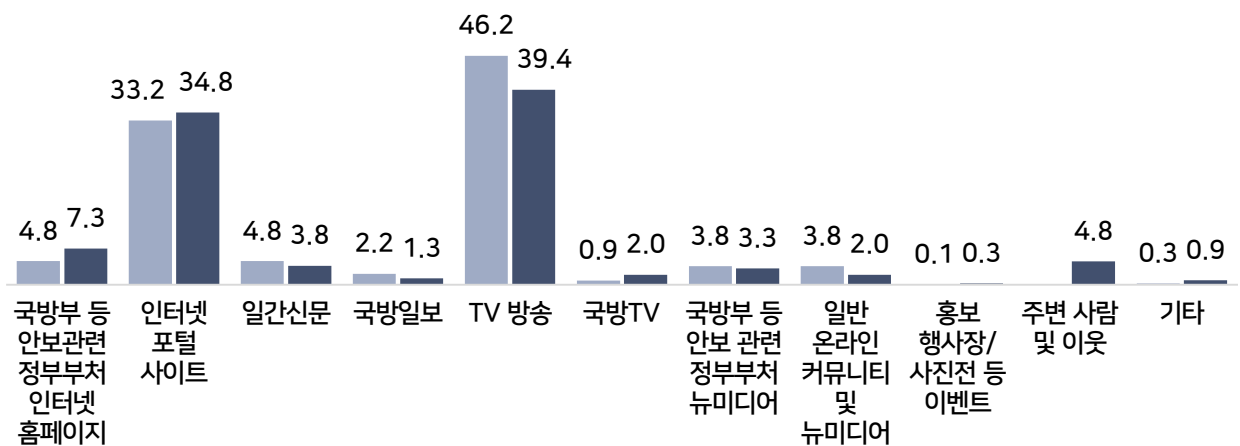
<그림 4-1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Legend: 2021년, 2022년



[특성별 분석]

- ▷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의 접촉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방송'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19>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단위[%]		사례수 (명)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일간 신문	국방 일보	TV 방송	국방 TV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홍보 행사장 /사진전 등 이벤트	주변 사람 및 이웃	기타
전체		1,300	7.2	35.2	5.5	1.3	37.4	1.8	3.4	2.2	0.3	4.4	1.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3	34.8	3.8	1.3	39.4	2.0	3.3	2.0	0.3	4.8	0.9
	전문가	100	6.0	40.0	25.0	1.0	13.0	-	4.0	5.0	-	-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0	33.0	4.3	1.4	40.9	2.0	3.6	2.7	0.2	3.9	0.9
	중	570	8.1	35.6	3.5	1.2	37.7	2.5	3.0	1.4	0.5	5.4	1.1
	하	190	5.8	36.3	3.7	1.6	41.1	0.5	3.7	2.1	0.0	4.7	0.5
성별	남성	720	7.6	36.0	4.3	2.1	37.5	2.4	3.3	1.9	0.4	3.6	0.8
	여성	480	6.9	32.9	3.1	0.2	42.3	1.5	3.3	2.1	0.2	6.5	1.0
연령별	20대 이하	227	6.6	46.3	1.3	1.3	32.2	1.8	3.1	1.3	0.9	4.8	0.4
	30대	193	7.8	45.1	5.2	1.0	26.9	1.6	3.6	3.6	0.0	4.7	0.5
	40대	247	9.3	36.8	3.2	1.6	34.4	1.6	2.4	2.4	0.0	6.1	2.0
	50대	254	7.9	31.1	5.1	1.2	42.5	3.1	3.1	1.2	0.4	2.8	1.6
	60대 이상	279	5.4	19.7	4.3	1.4	55.6	1.8	4.3	1.8	0.4	5.4	0.0
지역별	서울	225	5.3	24.0	4.9	0.0	47.6	4.4	6.2	1.3	0.0	3.6	2.7
	경기/인천	386	11.9	32.6	6.0	1.8	31.3	1.3	4.1	2.3	0.3	7.8	0.5
	부산/울산/경남	179	6.1	51.4	2.8	1.7	29.1	0.6	2.2	2.2	0.6	2.8	0.6
	대구/경북	121	6.6	46.3	0.0	1.7	40.5	0.8	0.0	0.8	0.0	3.3	0.0
	광주/전라	114	5.3	26.3	0.9	1.8	43.9	4.4	4.4	3.5	0.9	7.9	0.9
	대전/충청/세종	127	0.8	33.1	3.1	0.8	60.6	0.8	0.0	0.8	0.0	0.0	0.0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8.3	35.4	4.2	2.1	35.4	2.1	2.1	4.2	2.1	2.1	2.1
	대도시	526	4.9	32.9	4.2	1.1	43.2	2.5	3.8	2.1	0.0	3.8	1.5
	중소도시	629	9.7	36.7	3.7	1.6	35.0	1.4	3.2	1.9	0.6	5.7	0.5
직업별	읍/면	45	2.2	28.9	2.2	0.0	57.8	4.4	0.0	2.2	0.0	2.2	0.0
	농/어/임업	45	8.9	15.6	2.2	2.2	55.6	8.9	0.0	4.4	0.0	2.2	0.0
	자영업자	165	10.3	30.3	2.4	0.6	41.2	2.4	3.6	1.2	0.6	4.8	2.4
	판매/서비스직	236	5.9	39.0	3.8	0.8	36.0	1.3	3.0	3.0	0.8	5.5	0.8
	기능/숙련공	104	6.7	41.3	4.8	1.0	39.4	1.9	1.9	1.0	0.0	1.9	0.0
	일반 노무직	50	6.0	22.0	2.0	4.0	54.0	0.0	4.0	0.0	2.0	6.0	0.0
	사무/기술직	304	6.9	41.4	3.6	1.6	31.6	2.3	5.6	2.0	0.0	4.6	0.3
	경영/관리직	12	16.7	16.7	0.0	0.0	41.7	0.0	0.0	8.3	0.0	16.7	0.0
	전문/자유직	12	16.7	16.7	8.3	0.0	50.0	0.0	0.0	8.3	0.0	0.0	0.0
	전업주부	176	5.1	29.0	5.1	1.1	47.2	1.7	2.3	0.6	0.0	5.7	2.3
	학생	47	12.8	44.7	0.0	2.1	36.2	0.0	0.0	2.1	0.0	2.1	0.0
	무직/휴직/은퇴	40	5.0	30.0	7.5	2.5	35.0	2.5	5.0	5.0	0.0	7.5	0.0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0.0	22.2	0.0	66.7	0.0	0.0	0.0	0.0	0.0	0.0
	중졸 이하	55	3.6	5.5	1.8	1.8	70.9	0.0	3.6	3.6	0.0	9.1	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0	26.4	5.5	1.5	50.7	2.2	2.8	1.1	0.4	3.9	0.4
	전문대(중퇴/졸업)	269	8.9	46.8	3.3	1.1	28.6	1.5	1.5	2.6	0.4	4.8	0.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9.3	39.3	2.4	1.2	30.5	2.4	5.1	2.4	0.2	5.1	2.0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12.5	75.0	12.5	0.0	0.0	0.0	0.0	0.0	0.0	0.0	0.0
	상	62	8.1	30.6	9.7	1.6	25.8	1.6	4.8	3.2	0.0	4.8	9.7
	중	565	6.2	39.3	2.8	1.4	37.3	2.5	3.2	1.4	0.4	5.1	0.4
	하	573	8.4	30.7	4.2	1.2	42.9	1.6	3.3	2.4	0.3	4.4	0.5

20.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1)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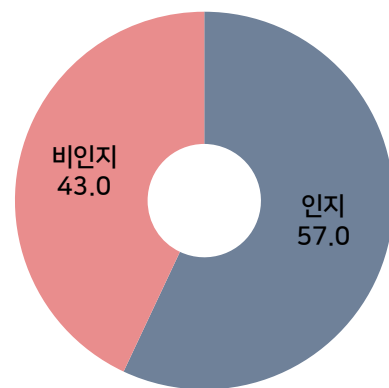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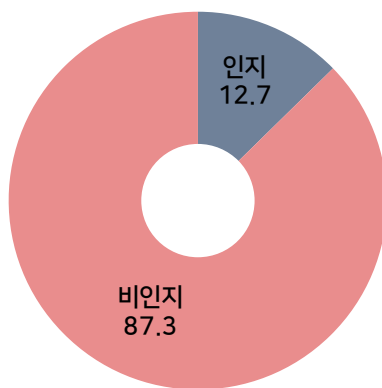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87.3%), 전문가는 '인지'(57.0%)가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은 87.3%로 '인지'(12.7%)라는 응답보다 74.6%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41.2%p(2021년 46.1%) 증가하였고, '인지'는 41.2%p (2021년 5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57.0%로 '비인지'(43.0%)라는 응답보다 14.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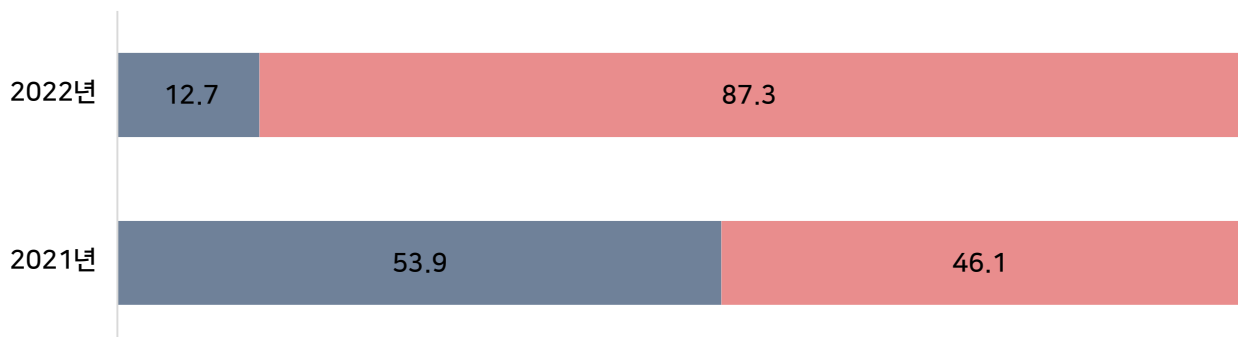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0-1>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16.1	83.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7	87.3
	전문가	100	57.0	4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7.3	82.7
	중	570	10.4	89.6
	하	190	8.9	91.1
성별	남성	720	16.4	83.6
	여성	480	7.1	92.9
연령별	20대 이하	227	17.2	82.8
	30대	193	9.8	90.2
	40대	247	17.8	82.2
	50대	254	11.8	88.2
	60대 이상	279	7.2	92.8
지역별	서울	225	8.9	91.1
	경기/인천	386	21.0	79.0
	부산/울산/경남	179	8.4	91.6
	대구/경북	121	9.1	90.9
	광주/전라	114	6.1	93.9
	대전/충청/세종	127	7.1	92.9
	강원/제주	48	18.8	81.3
지역크기	대도시	526	9.9	90.1
	중소도시	629	15.6	84.4
	읍/면	45	4.4	95.6
직업별	농/어/임업	45	8.9	91.1
	자영업자	165	13.3	86.7
	판매/서비스직	236	11.0	89.0
	기능/숙련공	104	12.5	87.5
	일반 노무직	50	12.0	88.0
	사무/기술직	304	17.1	82.9
	경영/관리직	12	25.0	75.0
	전문/자유직	12	25.0	75.0
	전업주부	176	4.0	96.0
	학생	47	23.4	76.6
	무직/휴직/은퇴	40	10.0	90.0
	기타	9	11.1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96.4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4	92.6
	전문대(중퇴/졸업)	269	17.8	82.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6.1	83.9
	대학원 이상	8	25.0	75.0
생활 수준별	상	62	22.6	77.4
	중	565	11.0	89.0
	하	573	13.3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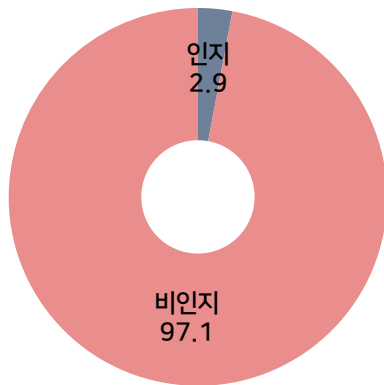
2) 국방백서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은 '비인지'(97.1%), 전문가는 '인지'(68.0%)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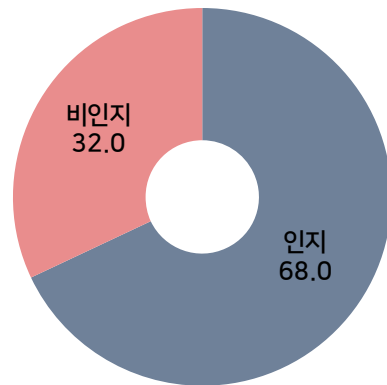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97.1%로 '인지'(2.9%)라는 응답보다 94.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45.3%p(2021년 51.8%) 증가하였고, '인지'는 45.3%p(2021년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이 68.0%로 '비인지'(32.0%)라는 응답보다 36.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2>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백서

[2022년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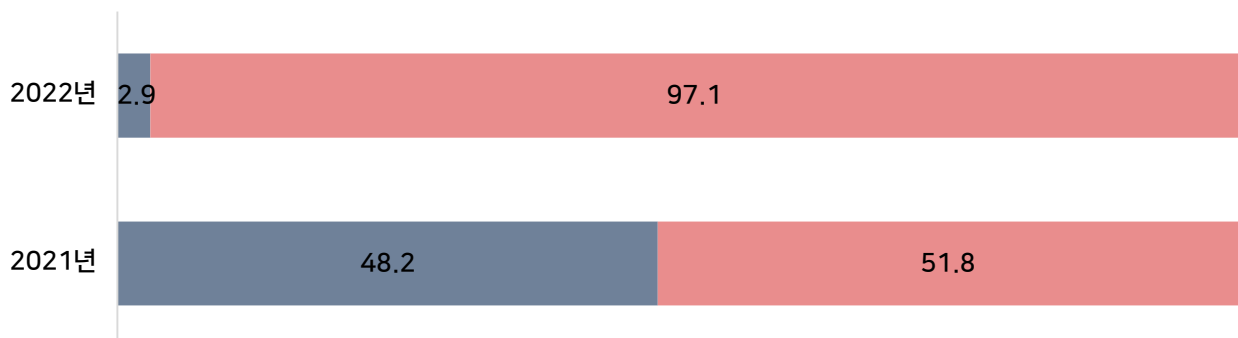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백서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0-2>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백서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7.9	92.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	97.1
	전문가	100	68.0	3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4.5	95.5
	중	570	2.1	97.9
	하	190	1.6	98.4
성별	남성	720	3.5	96.5
	여성	480	2.1	97.9
연령별	20대 이하	227	5.3	94.7
	30대	193	2.6	97.4
	40대	247	2.0	98.0
	50대	254	2.8	97.2
	60대 이상	279	2.2	97.8
지역별	서울	225	4.4	95.6
	경기/인천	386	3.9	96.1
	부산/울산/경남	179	1.1	98.9
	대구/경북	121	0.0	100.0
	광주/전라	114	1.8	98.2
	대전/충청/세종	127	0.0	100.0
	강원/제주	48	12.5	87.5
지역크기	대도시	526	3.2	96.8
	중소도시	629	2.9	97.1
	읍/면	45	0.0	100.0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100.0
	자영업자	165	0.0	100.0
	판매/서비스직	236	4.7	95.3
	기능/숙련공	104	2.9	97.1
	일반 노무직	50	2.0	98.0
	사무/기술직	304	3.9	96.1
	경영/관리직	12	0.0	100.0
	전문/자유직	12	0.0	100.0
	전업주부	176	1.7	98.3
	학생	47	4.3	95.7
	무직/휴직/은퇴	40	7.5	92.5
	기타	9	0.0	10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9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2	97.8
	전문대(중퇴/졸업)	269	5.2	94.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4	97.6
	대학원 이상	8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1.6	98.4
	중	565	3.0	97.0
	하	573	3.0	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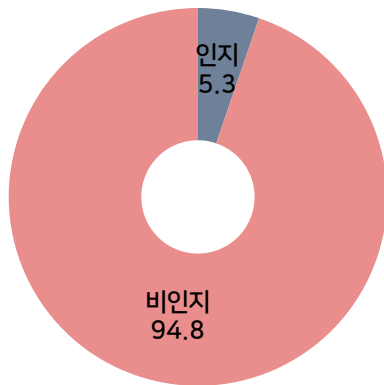
3) 국방일보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4.8%, 전문가는 36.0%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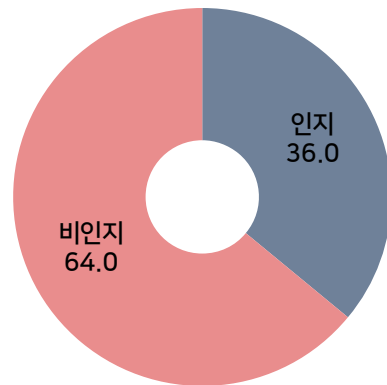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94.8%로 '인지'(5.3%)라는 응답보다 89.5%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44.4%p(2021년 50.4%) 증가하였고, '인지'는 44.3%p(2021년 4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64.0%로 '인지'(36.0%)라는 응답보다 28.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3>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일보

[2022년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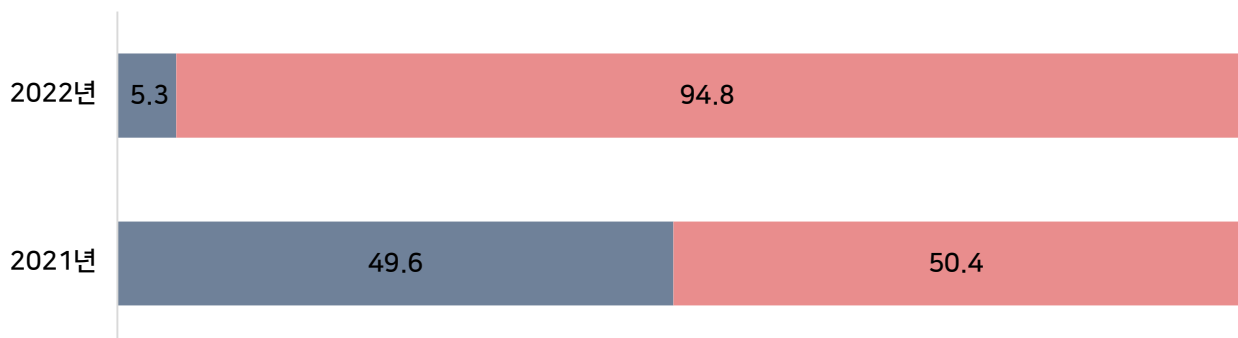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일보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0-3>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일보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7.6	92.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3	94.8
	전문가	100	36.0	6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7.3	92.7
	중	570	4.7	95.3
	하	190	2.1	97.9
성별	남성	720	7.8	92.2
	여성	480	1.5	98.5
연령별	20대 이하	227	7.0	93.0
	30대	193	5.7	94.3
	40대	247	3.6	96.4
	50대	254	5.9	94.1
	60대 이상	279	4.3	95.7
지역별	서울	225	1.8	98.2
	경기/인천	386	8.0	92.0
	부산/울산/경남	179	1.7	98.3
	대구/경북	121	2.5	97.5
	광주/전라	114	1.8	98.2
	대전/충청/세종	127	10.2	89.8
	강원/제주	48	14.6	85.4
지역크기	대도시	526	3.8	96.2
	중소도시	629	6.5	93.5
	읍/면	45	4.4	95.6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93.3
	자영업자	165	6.7	93.3
	판매/서비스직	236	3.8	96.2
	기능/숙련공	104	7.7	92.3
	일반 노무직	50	8.0	92.0
	사무/기술직	304	5.3	94.7
	경영/관리직	12	8.3	91.7
	전문/자유직	12	0.0	100.0
	전업주부	176	0.6	99.4
	학생	47	12.8	87.2
	무직/휴직/은퇴	40	7.5	92.5
	기타	9	11.1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100.0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9	94.1
	전문대(중퇴/졸업)	269	6.3	93.7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4.6	95.4
	대학원 이상	8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6.5	93.5
	중	565	4.4	95.6
	하	573	5.9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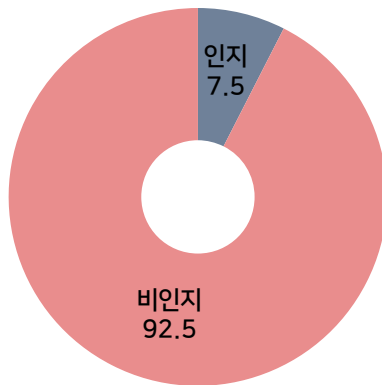
4) 국방FM(라디오)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92.5%, 전문가는 90.0%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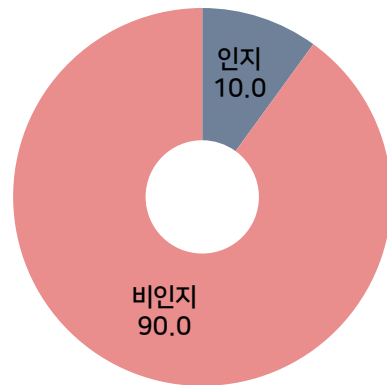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92.5%로 '인지'(7.5%)라는 응답보다 85.0%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40.7%p(2021년 51.8%) 증가하였고, '인지'는 40.7%p(2021년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90.0%로 '인지'(10.0%)라는 응답보다 80.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4>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FM(라디오)

[2022년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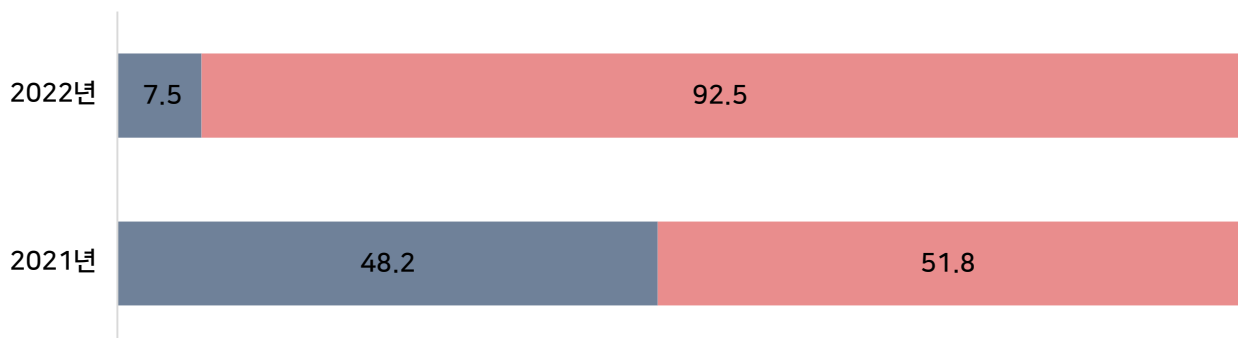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0-4>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FM(라디오)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7.7	92.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7.5	92.5
	전문가	100	10.0	9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8.4	91.6
	중	570	7.5	92.5
	하	190	5.3	94.7
성별	남성	720	9.2	90.8
	여성	480	5.0	95.0
연령별	20대 이하	227	8.8	91.2
	30대	193	7.3	92.7
	40대	247	7.7	92.3
	50대	254	7.9	92.1
	60대 이상	279	6.1	93.9
지역별	서울	225	8.4	91.6
	경기/인천	386	10.9	89.1
	부산/울산/경남	179	3.9	96.1
	대구/경북	121	0.8	99.2
	광주/전라	114	11.4	88.6
	대전/충청/세종	127	1.6	98.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12.5	87.5
	대도시	526	8.6	91.4
	중소도시	629	6.8	93.2
	읍/면	45	4.4	95.6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97.8
	자영업자	165	5.5	94.5
	판매/서비스직	236	8.1	91.9
	기능/숙련공	104	8.7	91.3
	일반 노무직	50	12.0	88.0
	사무/기술직	304	9.5	90.5
	경영/관리직	12	16.7	83.3
	전문/자유직	12	16.7	83.3
	전업주부	176	3.4	96.6
	학생	47	10.6	89.4
	무직/휴직/은퇴	40	2.5	97.5
	기타	9	11.1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9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8	93.2
	전문대(중퇴/졸업)	269	7.8	92.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8	91.2
	대학원 이상	8	12.5	87.5
생활 수준별	상	62	8.1	91.9
	중	565	8.3	91.7
	하	573	6.6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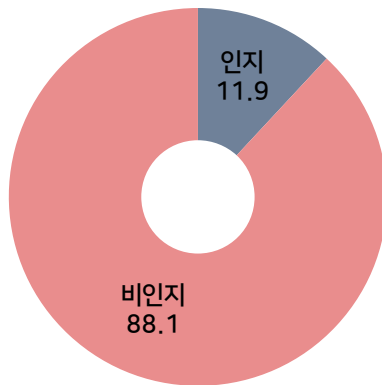
5) 국방TV(텔레비전)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88.1%, 전문가는 83.0%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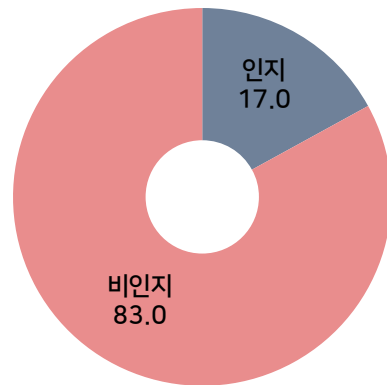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88.1%로 '인지' (11.9%)라는 응답보다 76.2%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40.5%p(2021년 47.6%) 증가하였고, '인지'는 40.5%p(2021년 5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FM(라디오)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83.0%로 '인지'(17.0%)라는 응답보다 66.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5>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TV(텔레비전)

[2022년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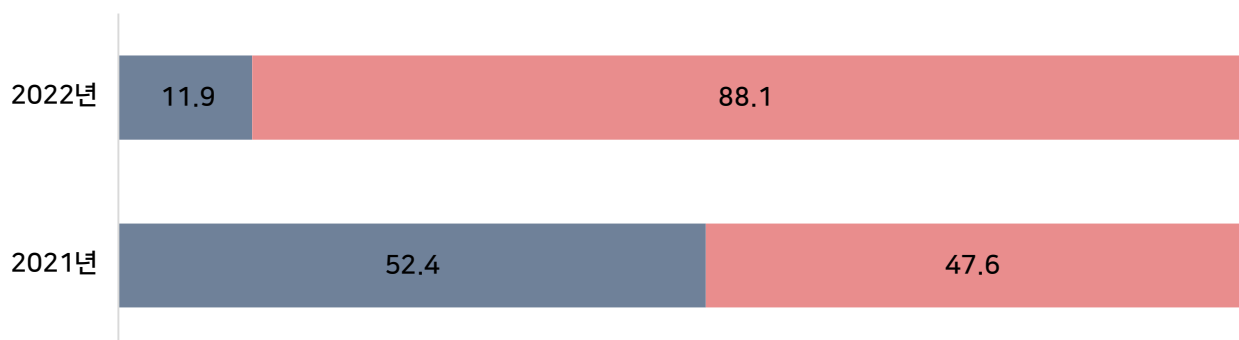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TV(텔레비전)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구/경북'에서 높게 나타남.

<표 4-20-5>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TV(텔레비전)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12.3	87.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9	88.1
	전문가	100	17.0	8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5.2	84.8
	중	570	11.1	88.9
	하	190	6.8	93.2
성별	남성	720	13.8	86.3
	여성	480	9.2	90.8
연령별	20대 이하	227	6.6	93.4
	30대	193	10.4	89.6
	40대	247	11.7	88.3
	50대	254	13.4	86.6
	60대 이상	279	16.1	83.9
지역별	서울	225	6.7	93.3
	경기/인천	386	9.1	90.9
	부산/울산/경남	179	25.1	74.9
	대구/경북	121	5.0	95.0
	광주/전라	114	15.8	84.2
	대전/충청/세종	127	12.6	87.4
	강원/제주	48	16.7	83.3
지역크기	대도시	526	9.1	90.9
	중소도시	629	14.1	85.9
	읍/면	45	13.3	86.7
직업별	농/어/임업	45	15.6	84.4
	자영업자	165	17.0	83.0
	판매/서비스직	236	12.7	87.3
	기능/숙련공	104	8.7	91.3
	일반 노무직	50	20.0	80.0
	사무/기술직	304	10.5	89.5
	경영/관리직	12	8.3	91.7
	전문/자유직	12	8.3	91.7
	전업주부	176	8.5	91.5
	학생	47	10.6	89.4
	무직/휴직/은퇴	40	10.0	90.0
	기타	9	11.1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6.4	8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2.4	87.6
	전문대(중퇴/졸업)	269	12.6	87.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5	89.5
	대학원 이상	8	0.0	100.0
생활 수준별	상	62	12.9	87.1
	중	565	14.0	86.0
	하	573	9.8	90.2

6)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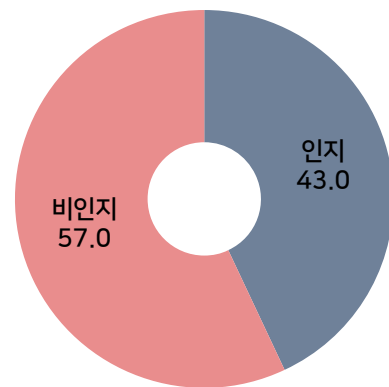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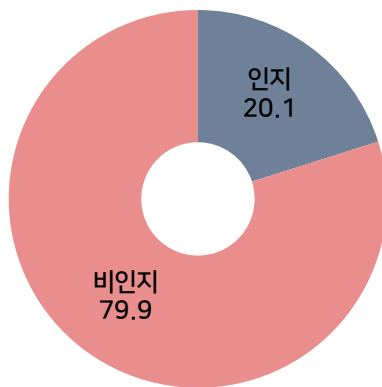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일반국민은 79.9%, 전문가는 57.0%로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79.9%로 '인지' (20.1%)라는 응답보다 59.8%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비인지'는 29.1%p(2021년 50.8%) 증가하였고, '인지'는 29.2%p(2021년 4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비인지'라는 응답이 57.0%로 '인지' (43.0%)라는 응답보다 14.0%p 높게 나타남.

<그림 4-20-6>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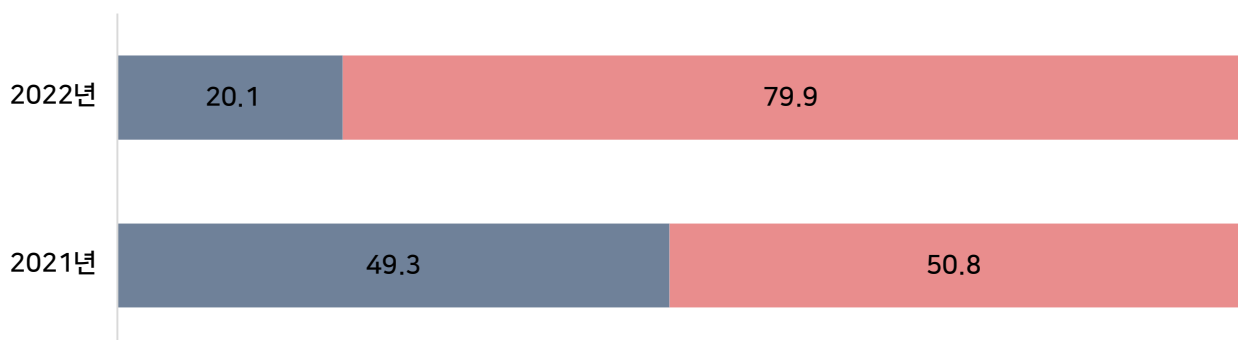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인지 ■ 비인지



[특성별 분석]

- ▷ 국방 홍보 매체 중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0-6>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 국방관련 기관 뉴미디어

단위[%]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전체		1,300	21.8	78.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0.1	79.9
	전문가	100	43.0	57.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4.5	75.5
	중	570	17.5	82.5
	하	190	17.4	82.6
성별	남성	720	23.6	76.4
	여성	480	14.8	8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4	73.6
	30대	193	25.4	74.6
	40대	247	25.9	74.1
	50대	254	13.8	86.2
	60대 이상	279	11.8	88.2
지역별	서울	225	11.1	88.9
	경기/인천	386	26.2	73.8
	부산/울산/경남	179	30.7	69.3
	대구/경북	121	11.6	88.4
	광주/전라	114	8.8	91.2
	대전/충청/세종	127	17.3	82.7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9.2	70.8
	대도시	526	18.4	81.6
	중소도시	629	22.4	77.6
	읍/면	45	6.7	93.3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93.3
	자영업자	165	22.4	77.6
	판매/서비스직	236	21.6	78.4
	기능/숙련공	104	13.5	86.5
	일반 노무직	50	16.0	84.0
	사무/기술직	304	24.0	76.0
	경영/관리직	12	25.0	75.0
	전문/자유직	12	33.3	66.7
	전업주부	176	13.1	86.9
	학생	47	36.2	63.8
	무직/휴직/은퇴	40	17.5	82.5
	기타	9	11.1	88.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9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3.8	86.2
	전문대(중퇴/졸업)	269	26.4	73.6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4.9	75.1
	대학원 이상	8	25.0	75.0
생활 수준별	상	62	24.2	75.8
	중	565	21.4	78.6
	하	573	18.3	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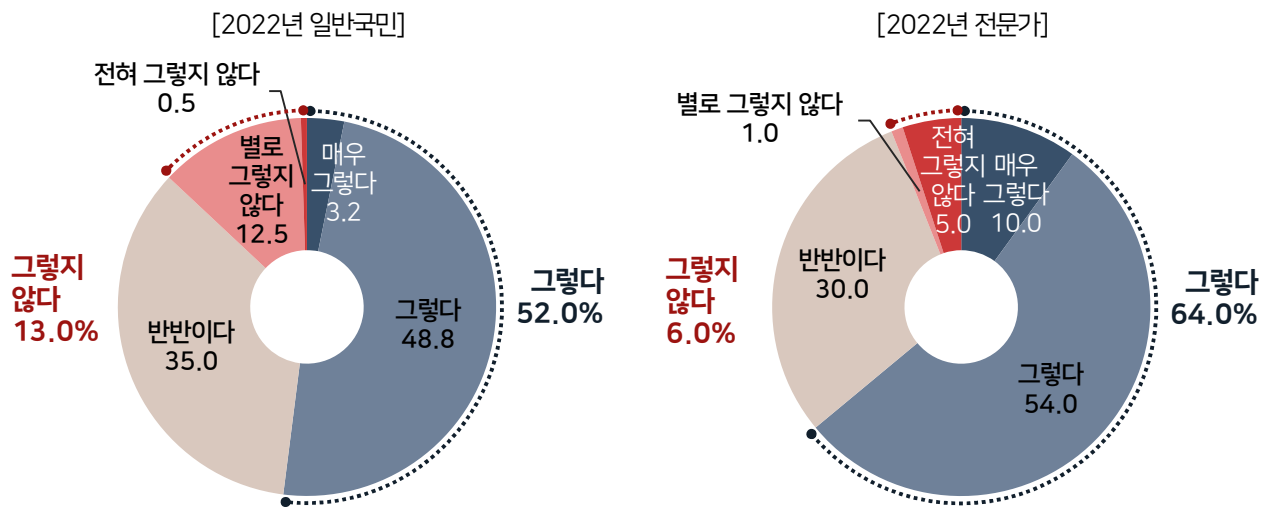
2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1) 믿을 수 있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52.0%, 전문가 6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52.0%로, '그렇지 않다' (13.0%)는 응답보다 39.0%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64.0%로, '그렇지 않다' (6.0%)보다 58.0%p 높게 나타남.

<그림 4-21-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믿을 수 있다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클수록,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1-1>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믿을 수 있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3.7	49.2	34.6	11.6	0.8	52.9	34.6	12.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2	48.8	35.0	12.5	0.5	52.0	35.0	13.0
	전문가	100	10.0	54.0	30.0	1.0	5.0	64.0	30.0	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2	53.0	31.1	12.3	0.5	56.1	31.1	12.7
	중	570	3.0	46.8	37.5	11.9	0.7	49.8	37.5	12.6
	하	190	3.7	45.3	36.3	14.7	0.0	48.9	36.3	14.7
성별	남성	720	3.3	48.2	34.7	13.2	0.6	51.5	34.7	13.8
	여성	480	2.9	49.8	35.4	11.5	0.4	52.7	35.4	11.9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	46.3	37.9	12.8	0.4	48.9	37.9	13.2
	30대	193	3.1	43.0	40.4	13.0	0.5	46.1	40.4	13.5
	40대	247	3.2	47.4	35.6	13.4	0.4	50.6	35.6	13.8
	50대	254	2.8	52.4	32.7	11.0	1.2	55.1	32.7	12.2
	60대 이상	279	3.9	53.0	30.5	12.5	0.0	57.0	30.5	12.5
지역별	서울	225	3.1	52.0	34.7	10.2	0.0	55.1	34.7	10.2
	경기/인천	386	5.2	44.8	38.3	11.1	0.5	50.0	38.3	11.7
	부산/울산/경남	179	0.6	45.3	40.2	14.0	0.0	45.8	40.2	14.0
	대구/경북	121	2.5	36.4	38.0	21.5	1.7	38.8	38.0	23.1
	광주/전라	114	3.5	64.9	21.9	9.6	0.0	68.4	21.9	9.6
	대전/충청/세종	127	0.8	66.9	18.9	12.6	0.8	67.7	18.9	13.4
	강원/제주	48	4.2	25.0	56.3	12.5	2.1	29.2	56.3	14.6
지역크기	대도시	526	3.4	49.6	32.9	13.9	0.2	53.0	32.9	14.1
	중소도시	629	3.0	48.3	37.2	10.8	0.6	51.4	37.2	11.4
	읍/면	45	2.2	46.7	28.9	20.0	2.2	48.9	28.9	22.2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48.9	24.4	20.0	0.0	55.6	24.4	20.0
	자영업자	165	2.4	47.9	37.0	11.5	1.2	50.3	37.0	12.7
	판매/서비스직	236	2.5	54.2	30.5	11.9	0.8	56.8	30.5	12.7
	기능/숙련공	104	6.7	47.1	26.0	19.2	1.0	53.8	26.0	20.2
	일반 노무직	50	0.0	58.0	30.0	12.0	0.0	58.0	30.0	12.0
	사무/기술직	304	3.6	45.1	40.8	10.2	0.3	48.7	40.8	10.5
	경영/관리직	12	0.0	33.3	50.0	16.7	0.0	33.3	50.0	16.7
	전문/자유직	12	0.0	33.3	33.3	33.3	0.0	33.3	33.3	33.3
	전업주부	176	2.8	47.2	36.4	13.6	0.0	50.0	36.4	13.6
	학생	47	2.1	55.3	34.0	8.5	0.0	57.4	34.0	8.5
	무직/휴직/은퇴	40	2.5	50.0	40.0	7.5	0.0	52.5	40.0	7.5
	기타	9	0.0	55.6	44.4	0.0	0.0	55.6	44.4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63.6	21.8	10.9	0.0	67.3	21.8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9	53.9	29.3	12.2	0.7	57.9	29.3	12.9
	전문대(중퇴/졸업)	269	2.6	47.6	36.1	13.4	0.4	50.2	36.1	13.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7	42.2	42.4	12.2	0.5	44.9	42.4	12.7
	대학원 이상	8	0.0	37.5	37.5	25.0	0.0	37.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6	30.6	53.2	14.5	0.0	32.3	53.2	14.5
	중	565	4.2	47.8	35.8	11.7	0.5	52.0	35.8	12.2
	하	573	2.3	51.8	32.3	13.1	0.5	54.1	32.3	13.6

2) 청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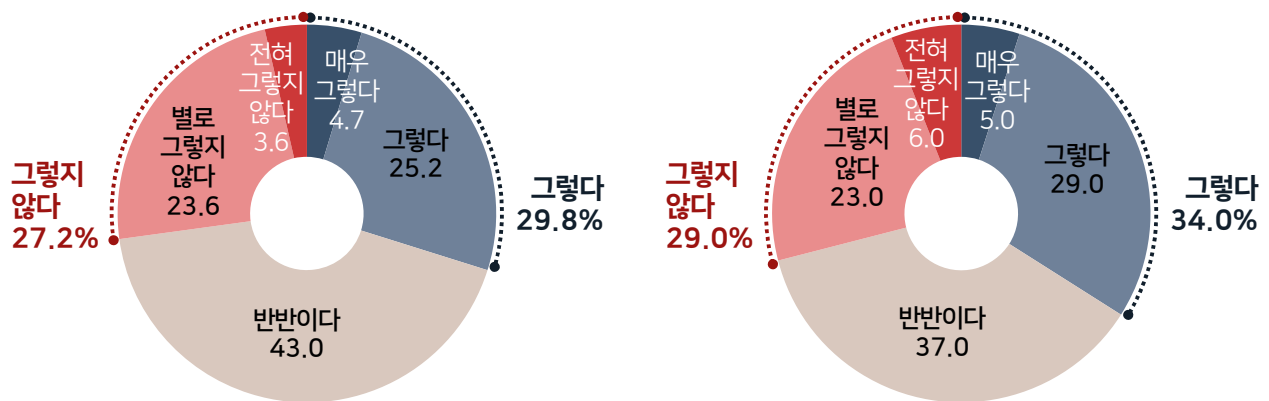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29.8%, 전문가 34.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29.8%로, '그렇지 않다'(27.2%)는 응답보다 2.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34.0%로, '그렇지 않다'(29.0%)보다 5.0%p 높게 나타남.

<그림 4-21-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청렴하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1-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청렴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4.7	25.5	42.5	23.5	3.8	30.2	42.5	27.3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7	25.2	43.0	23.6	3.6	29.8	43.0	27.2
	전문가	100	5.0	29.0	37.0	23.0	6.0	34.0	37.0	2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7	28.2	38.4	23.2	4.5	33.9	38.4	27.7
	중	570	4.4	23.2	45.4	24.2	2.8	27.5	45.4	27.0
	하	190	3.2	24.2	46.3	22.6	3.7	27.4	46.3	26.3
성별	남성	720	3.9	24.2	44.9	23.6	3.5	28.1	44.9	27.1
	여성	480	5.8	26.7	40.2	23.5	3.8	32.5	40.2	27.3
연령별	20대 이하	227	3.5	26.0	41.4	24.2	4.8	29.5	41.4	29.1
	30대	193	3.6	22.8	40.9	28.5	4.1	26.4	40.9	32.6
	40대	247	4.5	23.1	43.3	25.5	3.6	27.5	43.3	29.1
	50대	254	4.3	26.0	42.5	23.6	3.5	30.3	42.5	27.2
	60대 이상	279	6.8	27.2	45.9	17.9	2.2	34.1	45.9	20.1
지역별	서울	225	0.9	26.7	48.4	22.7	1.3	27.6	48.4	24.0
	경기/인천	386	4.1	31.3	34.7	22.0	7.8	35.5	34.7	29.8
	부산/울산/경남	179	0.0	11.2	54.7	34.1	0.0	11.2	54.7	34.1
	대구/경북	121	7.4	14.0	40.5	34.7	3.3	21.5	40.5	38.0
	광주/전라	114	10.5	26.3	42.1	19.3	1.8	36.8	42.1	21.1
	대전/충청/세종	127	12.6	40.2	37.0	8.7	1.6	52.8	37.0	10.2
	강원/제주	48	2.1	6.3	64.6	22.9	4.2	8.3	64.6	27.1
지역크기	대도시	526	1.5	25.1	45.1	26.2	2.1	26.6	45.1	28.3
	중소도시	629	7.3	25.9	39.7	22.3	4.8	33.2	39.7	27.0
	읍/면	45	4.4	15.6	64.4	11.1	4.4	20.0	64.4	15.6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35.6	42.2	13.3	2.2	42.2	42.2	15.6
	자영업자	165	3.0	17.6	50.3	23.6	5.5	20.6	50.3	29.1
	판매/서비스직	236	5.5	29.7	39.8	22.9	2.1	35.2	39.8	25.0
	기능/숙련공	104	4.8	26.0	35.6	28.8	4.8	30.8	35.6	33.7
	일반 노무직	50	6.0	20.0	54.0	18.0	2.0	26.0	54.0	20.0
	사무/기술직	304	4.6	24.7	39.8	25.7	5.3	29.3	39.8	30.9
	경영/관리직	12	0.0	33.3	41.7	8.3	16.7	33.3	41.7	25.0
	전문/자유직	12	0.0	25.0	25.0	50.0	0.0	25.0	25.0	50.0
	전업주부	176	4.0	26.7	46.0	22.2	1.1	30.7	46.0	23.3
	학생	47	2.1	23.4	44.7	27.7	2.1	25.5	44.7	29.8
	무직/휴직/은퇴	40	12.5	25.0	45.0	15.0	2.5	37.5	45.0	17.5
	기타	9	0.0	0.0	77.8	22.2	0.0	0.0	77.8	22.2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30.9	54.5	10.9	0.0	34.5	54.5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6.8	27.1	41.5	22.1	2.6	33.8	41.5	24.7
	전문대(중퇴/졸업)	269	3.7	26.4	45.0	19.0	5.9	30.1	45.0	24.9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3.2	21.7	42.0	29.5	3.7	24.9	42.0	33.2
	대학원 이상	8	0.0	12.5	37.5	50.0	0.0	12.5	37.5	50.0
생활 수준별	상	62	1.6	17.7	50.0	25.8	4.8	19.4	50.0	30.6
	중	565	4.2	25.5	40.4	23.9	6.0	29.7	40.4	29.9
	하	573	5.4	25.7	44.9	23.0	1.0	31.1	44.9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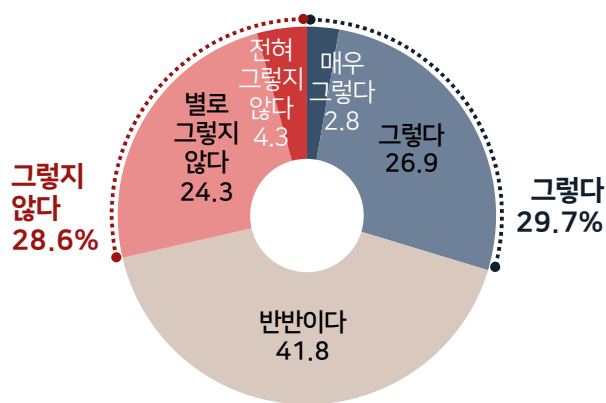
3) 개방적이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일반국민은 '그렇다'(29.7%),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44.0%)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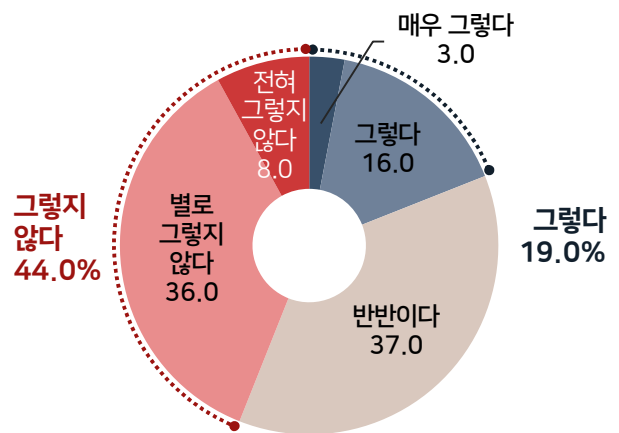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29.7%로, '그렇지 않다' (28.6%)는 응답보다 1.1%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0%로, '그렇다' (19.0%)보다 25.0%p 높게 나타남.

<그림 4-21-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개방적이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경기/인천',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1-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개방적이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2.8	26.1	41.4	25.2	4.5	28.8	41.4	29.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8	26.9	41.8	24.3	4.3	29.7	41.8	28.6
	전문가	100	3.0	16.0	37.0	36.0	8.0	19.0	37.0	4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0	27.7	35.5	27.3	6.6	30.7	35.5	33.9
	중	570	2.8	27.4	45.6	21.1	3.2	30.2	45.6	24.2
	하	190	2.1	23.7	44.7	27.4	2.1	25.8	44.7	29.5
성별	남성	720	2.5	26.7	41.5	25.6	3.8	29.2	41.5	29.3
	여성	480	3.1	27.3	42.1	22.5	5.0	30.4	42.1	27.5
연령별	20대 이하	227	3.1	30.4	38.8	22.9	4.8	33.5	38.8	27.8
	30대	193	1.6	23.3	41.5	30.1	3.6	24.9	41.5	33.7
	40대	247	2.4	26.7	38.1	27.5	5.3	29.1	38.1	32.8
	50대	254	3.1	24.0	50.0	18.1	4.7	27.2	50.0	22.8
	60대 이상	279	3.2	29.4	40.1	24.4	2.9	32.6	40.1	27.2
지역별	서울	225	0.9	28.4	53.3	17.3	0.0	29.3	53.3	17.3
	경기/인천	386	4.9	31.1	37.0	19.7	7.3	36.0	37.0	26.9
	부산/울산/경남	179	0.6	11.7	36.9	47.5	3.4	12.3	36.9	50.8
	대구/경북	121	4.1	30.6	35.5	24.0	5.8	34.7	35.5	29.8
	광주/전라	114	3.5	24.6	43.9	22.8	5.3	28.1	43.9	28.1
	대전/충청/세종	127	1.6	33.1	44.1	19.7	1.6	34.6	44.1	21.3
	강원/제주	48	0.0	22.9	47.9	25.0	4.2	22.9	47.9	29.2
지역크기	대도시	526	0.8	25.9	45.4	25.1	2.9	26.6	45.4	27.9
	중소도시	629	4.5	28.1	38.2	23.8	5.4	32.6	38.2	29.3
	읍/면	45	2.2	22.2	48.9	22.2	4.4	24.4	48.9	26.7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28.9	44.4	20.0	2.2	33.3	44.4	22.2
	자영업자	165	1.2	27.9	45.5	20.0	5.5	29.1	45.5	25.5
	판매/서비스직	236	4.2	26.7	42.8	22.9	3.4	30.9	42.8	26.3
	기능/숙련공	104	2.9	20.2	35.6	37.5	3.8	23.1	35.6	41.3
	일반 노무직	50	0.0	34.0	36.0	26.0	4.0	34.0	36.0	30.0
	사무/기술직	304	1.6	27.0	42.1	24.0	5.3	28.6	42.1	29.3
	경영/관리직	12	0.0	8.3	41.7	25.0	25.0	8.3	41.7	50.0
	전문/자유직	12	0.0	16.7	25.0	41.7	16.7	16.7	25.0	58.3
	전업주부	176	4.5	27.3	42.0	23.9	2.3	31.8	42.0	26.1
	학생	47	2.1	38.3	34.0	21.3	4.3	40.4	34.0	25.5
	무직/휴직/은퇴	40	5.0	30.0	40.0	25.0	0.0	35.0	40.0	25.0
	기타	9	0.0	0.0	88.9	11.1	0.0	0.0	88.9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34.5	41.8	18.2	0.0	40.0	41.8	18.2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5	28.8	40.0	24.7	3.1	32.3	40.0	27.7
	전문대(중퇴/졸업)	269	2.6	26.4	42.0	23.8	5.2	29.0	42.0	29.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7	24.4	43.4	24.9	5.6	26.1	43.4	30.5
	대학원 이상	8	0.0	12.5	50.0	37.5	0.0	12.5	50.0	37.5
생활 수준별	상	62	0.0	8.1	58.1	25.8	8.1	8.1	58.1	33.9
	중	565	4.2	22.5	41.8	25.3	6.2	26.7	41.8	31.5
	하	573	1.6	33.3	40.0	23.2	1.9	34.9	40.0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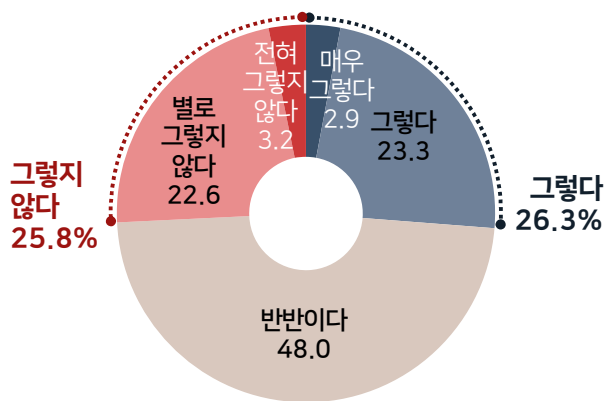
4) 혁신적이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일반국민은 '그렇다'(26.3%),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56.0%)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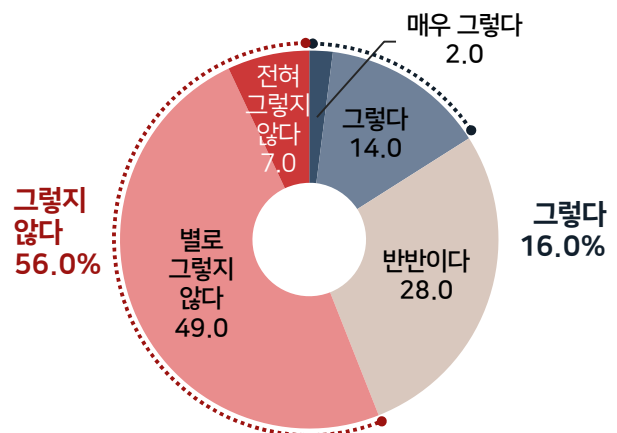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26.3%로, '그렇지 않다' (25.8%)는 응답보다 0.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0%로, '그렇다' (16.0%)보다 40.0%p 높게 나타남.

<그림 4-21-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혁신적이다

[2022년 일반국민]



[2022년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라',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1-4>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혁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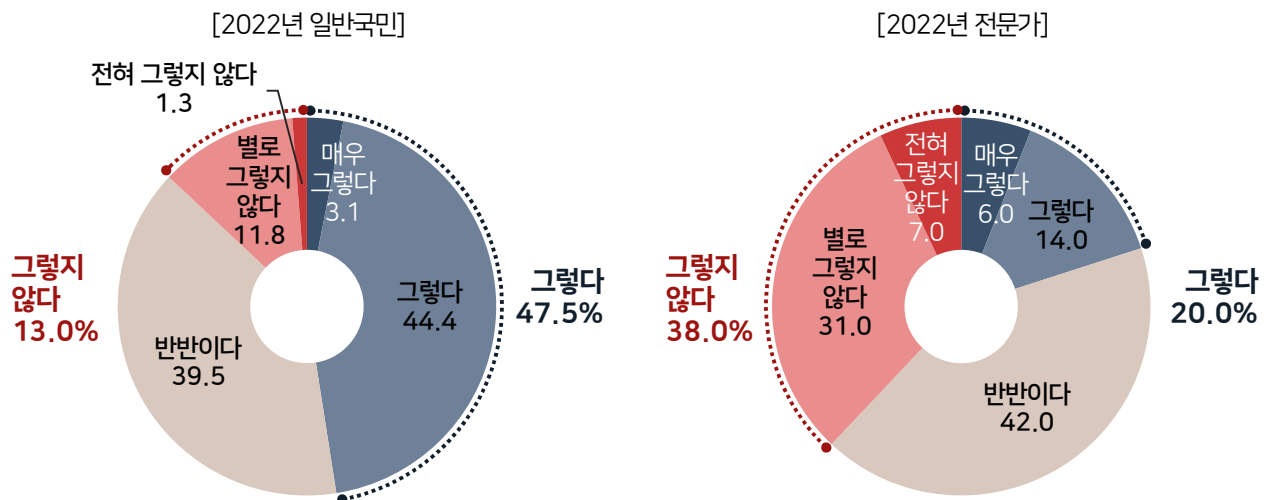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2.8	22.6	46.5	24.6	3.5	25.5	46.5	2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	23.3	48.0	22.6	3.2	26.3	48.0	25.8
	전문가	100	2.0	14.0	28.0	49.0	7.0	16.0	28.0	56.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9	27.0	41.6	23.4	4.1	30.9	41.6	27.5
	중	570	2.5	23.0	50.5	21.8	2.3	25.4	50.5	24.0
	하	190	2.1	15.8	55.3	23.2	3.7	17.9	55.3	26.8
성별	남성	720	2.9	25.1	45.8	23.6	2.5	28.1	45.8	26.1
	여성	480	2.9	20.6	51.3	21.0	4.2	23.5	51.3	2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	22.5	49.8	23.3	2.6	24.2	49.8	26.0
	30대	193	2.6	18.1	53.4	22.8	3.1	20.7	53.4	25.9
	40대	247	3.2	24.7	43.7	24.3	4.0	27.9	43.7	28.3
	50대	254	3.9	23.6	46.1	23.2	3.1	27.6	46.1	26.4
	60대 이상	279	2.9	26.2	48.4	19.7	2.9	29.0	48.4	22.6
지역별	서울	225	0.9	25.8	51.1	20.9	1.3	26.7	51.1	22.2
	경기/인천	386	6.5	21.8	45.6	20.2	6.0	28.2	45.6	26.2
	부산/울산/경남	179	0.0	17.3	49.2	31.3	2.2	17.3	49.2	33.5
	대구/경북	121	0.8	18.2	54.5	24.8	1.7	19.0	54.5	26.4
	광주/전라	114	4.4	37.7	39.5	16.7	1.8	42.1	39.5	18.4
	대전/충청/세종	127	1.6	30.7	46.5	19.7	1.6	32.3	46.5	21.3
	강원/제주	48	0.0	6.3	56.3	33.3	4.2	6.3	56.3	37.5
지역크기	대도시	526	1.5	20.2	51.1	24.7	2.5	21.7	51.1	27.2
	중소도시	629	4.0	25.9	45.6	20.8	3.7	29.9	45.6	24.5
	읍/면	45	4.4	24.4	44.4	22.2	4.4	28.9	44.4	26.7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31.1	46.7	20.0	2.2	31.1	46.7	22.2
	자영업자	165	3.0	19.4	46.7	24.8	6.1	22.4	46.7	30.9
	판매/서비스직	236	2.5	25.4	52.5	17.8	1.7	28.0	52.5	19.5
	기능/숙련공	104	2.9	27.9	35.6	33.7	0.0	30.8	35.6	33.7
	일반 노무직	50	2.0	18.0	58.0	18.0	4.0	20.0	58.0	22.0
	사무/기술직	304	3.3	25.3	44.4	23.4	3.6	28.6	44.4	27.0
	경영/관리직	12	0.0	25.0	58.3	8.3	8.3	25.0	58.3	16.7
	전문/자유직	12	0.0	16.7	33.3	41.7	8.3	16.7	33.3	50.0
	전업주부	176	5.1	17.6	51.1	23.3	2.8	22.7	51.1	26.1
	학생	47	2.1	23.4	51.1	21.3	2.1	25.5	51.1	23.4
	무직/휴직/은퇴	40	0.0	27.5	50.0	17.5	5.0	27.5	50.0	22.5
	기타	9	0.0	11.1	88.9	0.0	0.0	11.1	88.9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3.6	27.3	47.3	20.0	1.8	30.9	47.3	2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4.1	22.7	48.7	22.3	2.2	26.9	48.7	24.5
	전문대(중퇴/졸업)	269	1.1	25.7	46.8	22.3	4.1	26.8	46.8	26.4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7	22.2	48.0	23.2	3.9	24.9	48.0	27.1
	대학원 이상	8	0.0	12.5	50.0	37.5	0.0	12.5	50.0	37.5
생활 수준별	상	62	1.6	14.5	59.7	22.6	1.6	16.1	59.7	24.2
	중	565	3.5	24.8	43.0	23.9	4.8	28.3	43.0	28.7
	하	573	2.4	22.9	51.7	21.3	1.7	25.3	51.7	23.0

5) 친근하다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일반국민은 '그렇다'(47.5%),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38.0%)가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는 의견에 '그렇다'는 응답이 47.5%로, '그렇지 않다'(13.0%)는 응답보다 34.5%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0%로, '그렇다'(20.0%)보다 18.0%p 높게 나타남.

<그림 4-21-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친근하다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4-21-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 친근하다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 않다
전체		1,300	3.3	42.1	39.7	13.2	1.7	45.4	39.7	14.9
대상별	일반국민	1,200	3.1	44.4	39.5	11.8	1.3	47.5	39.5	13.0
	전문가	100	6.0	14.0	42.0	31.0	7.0	20.0	42.0	38.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2	48.6	37.7	8.9	1.6	51.8	37.7	10.5
	중	570	3.2	43.3	40.0	12.6	0.9	46.5	40.0	13.5
	하	190	2.6	37.9	42.1	15.8	1.6	40.5	42.1	17.4
성별	남성	720	3.6	44.7	40.1	10.3	1.3	48.3	40.1	11.5
	여성	480	2.3	44.0	38.5	14.0	1.3	46.3	38.5	15.2
연령별	20대 이하	227	2.6	46.7	35.7	12.8	2.2	49.3	35.7	15.0
	30대	193	2.1	44.0	40.9	11.4	1.6	46.1	40.9	13.0
	40대	247	5.7	42.1	39.7	11.3	1.2	47.8	39.7	12.6
	50대	254	2.8	42.9	41.7	12.2	0.4	45.7	41.7	12.6
	60대 이상	279	2.2	46.2	39.4	11.1	1.1	48.4	39.4	12.2
지역별	서울	225	0.9	47.6	40.0	11.6	0.0	48.4	40.0	11.6
	경기/인천	386	6.2	43.3	34.5	14.2	1.8	49.5	34.5	16.1
	부산/울산/경남	179	0.0	42.5	43.6	13.4	0.6	42.5	43.6	14.0
	대구/경북	121	1.7	39.7	48.8	8.3	1.7	41.3	48.8	9.9
	광주/전라	114	1.8	59.6	35.1	2.6	0.9	61.4	35.1	3.5
	대전/충청/세종	127	4.7	47.2	37.0	10.2	0.8	52.0	37.0	11.0
	강원/제주	48	2.1	14.6	56.3	20.8	6.3	16.7	56.3	27.1
지역크기	대도시	526	1.9	43.0	42.8	11.2	1.1	44.9	42.8	12.4
	중소도시	629	4.1	46.1	36.7	11.8	1.3	50.2	36.7	13.0
	읍/면	45	2.2	37.8	40.0	17.8	2.2	40.0	40.0	20.0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46.7	37.8	11.1	0.0	51.1	37.8	11.1
	자영업자	165	2.4	38.8	42.4	13.9	2.4	41.2	42.4	16.4
	판매/서비스직	236	2.1	47.5	38.1	11.9	0.4	49.6	38.1	12.3
	기능/숙련공	104	6.7	41.3	40.4	10.6	1.0	48.1	40.4	11.5
	일반 노무직	50	6.0	46.0	38.0	10.0	0.0	52.0	38.0	10.0
	사무/기술직	304	4.3	48.0	37.5	8.9	1.3	52.3	37.5	10.2
	경영/관리직	12	0.0	16.7	58.3	16.7	8.3	16.7	58.3	25.0
	전문/자유직	12	0.0	16.7	58.3	25.0	0.0	16.7	58.3	25.0
	전업주부	176	1.1	41.5	39.2	17.6	0.6	42.6	39.2	18.2
	학생	47	0.0	42.6	44.7	8.5	4.3	42.6	44.7	12.8
	무직/휴직/은퇴	40	2.5	50.0	40.0	5.0	2.5	52.5	40.0	7.5
	기타	9	0.0	77.8	22.2	0.0	0.0	77.8	22.2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0.0	54.5	34.5	9.1	1.8	54.5	34.5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8	47.4	36.0	13.1	0.7	50.2	36.0	13.8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42.0	42.4	10.4	0.7	46.5	42.4	11.2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9	41.5	42.2	11.5	2.0	44.4	42.2	13.4
	대학원 이상	8	0.0	37.5	37.5	12.5	12.5	37.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6	32.3	46.8	17.7	1.6	33.9	46.8	19.4
	중	565	3.9	42.8	39.1	12.7	1.4	46.7	39.1	14.2
	하	573	2.4	47.3	39.1	10.1	1.0	49.7	39.1	11.2

V.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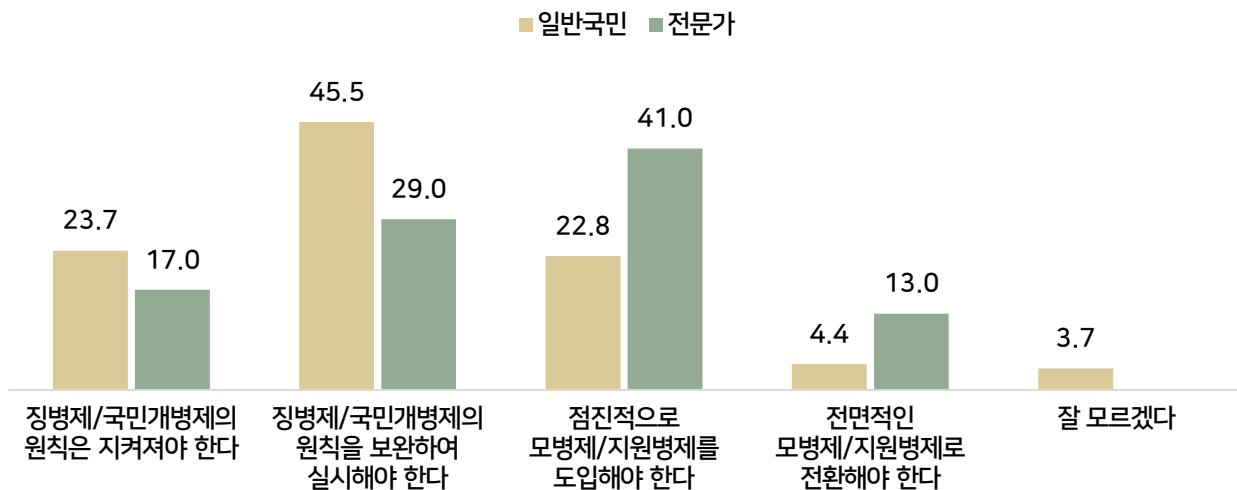
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국민개병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45.5%), 전문가는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41.0%)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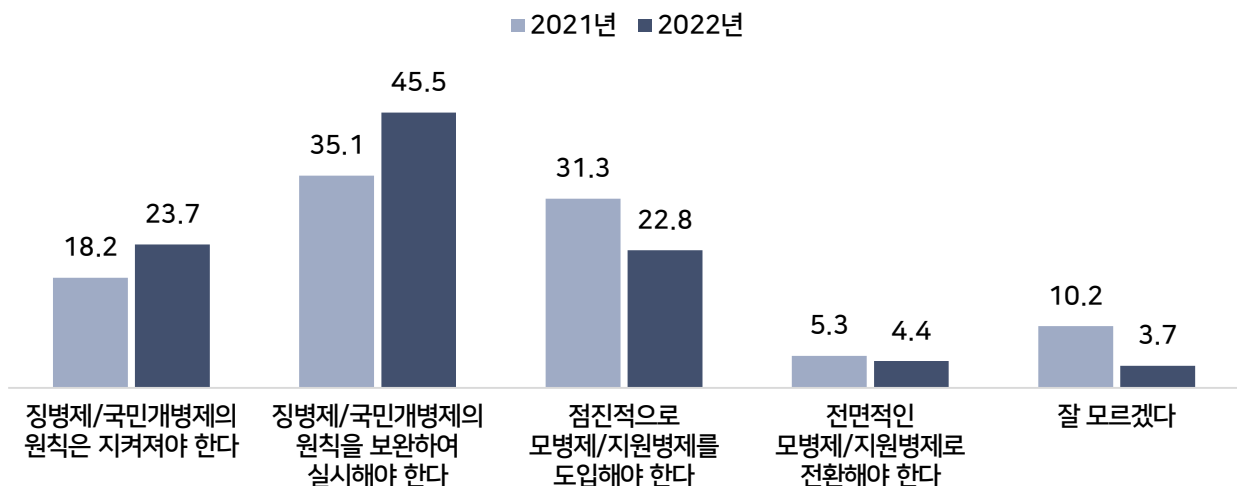
- ▶ **[일반국민]**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10.4%p(2021년 35.1%),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은 5.5%p(2021년 18.2%) 증가하였음.
- ▶ **[전문가]**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국민개병제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히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5-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국민개병제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크기가 클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1> 국민개병제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명)	징병제/ 국민 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징병제/ 국민 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점진적 으로 모병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면적인 모병제/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종합		
								징병제/ 국민개병제	모병제/ 지원병제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23.2	44.2	24.2	5.1	3.4	67.4	29.2	3.4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3.7	45.5	22.8	4.4	3.7	69.2	27.2	3.7
	전문가	100	17.0	29.0	41.0	13.0	-	46.0	54.0	-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8.2	41.4	22.3	5.2	3.0	69.5	27.5	3.0
	중	570	23.0	48.8	21.6	3.5	3.2	71.8	25.1	3.2
	하	190	15.3	45.3	27.4	5.3	6.8	60.5	32.6	6.8
성별	남성	720	24.9	44.2	23.6	4.6	2.8	69.0	28.2	2.8
	여성	480	21.9	47.5	21.5	4.2	5.0	69.4	25.6	5.0
연령별	20대 이하	227	22.5	45.4	22.9	6.6	2.6	67.8	29.5	2.6
	30대	193	21.2	44.6	22.8	7.8	3.6	65.8	30.6	3.6
	40대	247	20.6	45.7	25.5	4.9	3.2	66.4	30.4	3.2
	50대	254	28.0	43.3	23.6	1.2	3.9	71.3	24.8	3.9
	60대 이상	279	25.1	48.0	19.4	2.9	4.7	73.1	22.2	4.7
지역별	서울	225	26.2	53.3	16.0	2.7	1.8	79.6	18.7	1.8
	경기/인천	386	15.5	44.6	30.1	6.2	3.6	60.1	36.3	3.6
	부산/울산/경남	179	29.6	57.0	11.7	0.6	1.1	86.6	12.3	1.1
	대구/경북	121	48.8	29.8	14.9	1.7	5.0	78.5	16.5	5.0
	광주/전라	114	23.7	33.3	29.8	8.8	4.4	57.0	38.6	4.4
	대전/충청/세종	127	12.6	51.2	29.9	5.5	0.8	63.8	35.4	0.8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0.8	27.1	20.8	6.3	25.0	47.9	27.1	25.0
	대도시	526	32.1	43.7	19.6	2.5	2.1	75.9	22.1	2.1
	중소도시	629	17.5	48.8	24.2	5.7	3.8	66.3	29.9	3.8
	읍/면	45	11.1	20.0	40.0	8.9	20.0	31.1	48.9	2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8.9	37.8	26.7	2.2	4.4	66.7	28.9	4.4
	자영업자	165	27.3	43.0	19.4	4.8	5.5	70.3	24.2	5.5
	판매/서비스직	236	22.5	49.6	22.0	2.5	3.4	72.0	24.6	3.4
	기능/숙련공	104	22.1	47.1	25.0	1.9	3.8	69.2	26.9	3.8
	일반 노무직	50	30.0	38.0	22.0	4.0	6.0	68.0	26.0	6.0
	사무/기술직	304	22.0	42.8	25.7	7.6	2.0	64.8	33.2	2.0
	경영/관리직	12	8.3	41.7	41.7	8.3	0.0	50.0	50.0	0.0
	전문/자유직	12	33.3	41.7	16.7	8.3	0.0	75.0	25.0	0.0
	전업주부	176	27.3	50.0	17.0	1.7	4.0	77.3	18.8	4.0
	학생	47	14.9	34.0	31.9	12.8	6.4	48.9	44.7	6.4
	무직/휴직/은퇴	40	17.5	57.5	22.5	0.0	2.5	75.0	22.5	2.5
	기타	9	11.1	66.7	11.1	0.0	11.1	77.8	11.1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25.5	54.5	16.4	0.0	3.6	80.0	16.4	3.6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26.6	45.6	20.5	3.5	3.7	72.3	24.0	3.7
	전문대(중퇴/졸업)	269	23.8	41.3	23.4	6.7	4.8	65.1	30.1	4.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9.3	47.3	25.9	4.6	2.9	66.6	30.5	2.9
	대학원 이상	8	62.5	25.0	12.5	0.0	0.0	87.5	12.5	0.0
생활 수준별	상	62	16.1	54.8	24.2	1.6	3.2	71.0	25.8	3.2
	중	565	20.4	46.9	25.7	4.8	2.3	67.3	30.4	2.3
	하	573	27.7	43.1	19.7	4.4	5.1	70.9	24.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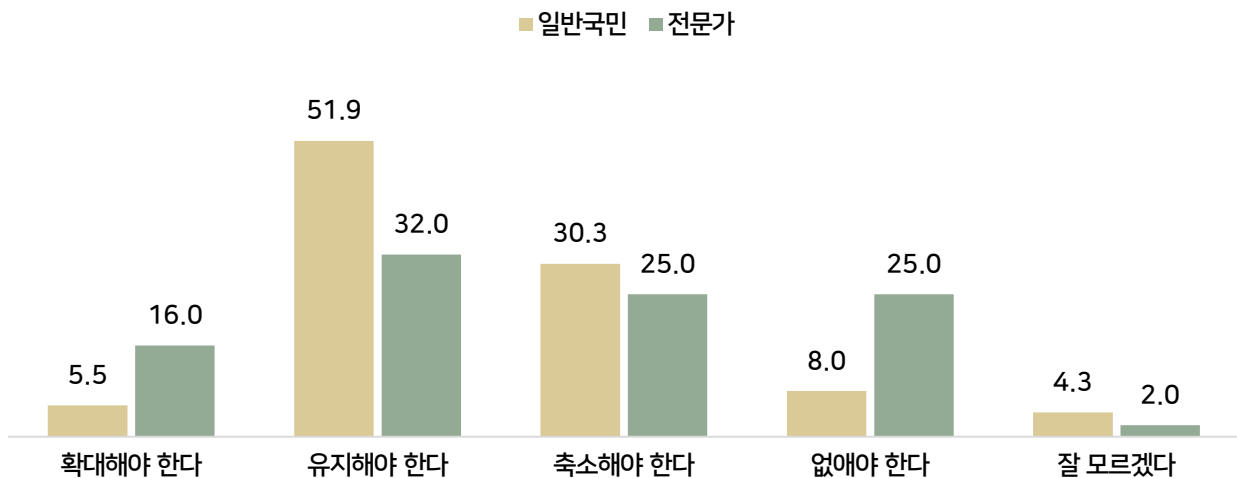
2.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일반국민(51.9%), 전문가(3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소해야 한다'(3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소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각 2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2>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제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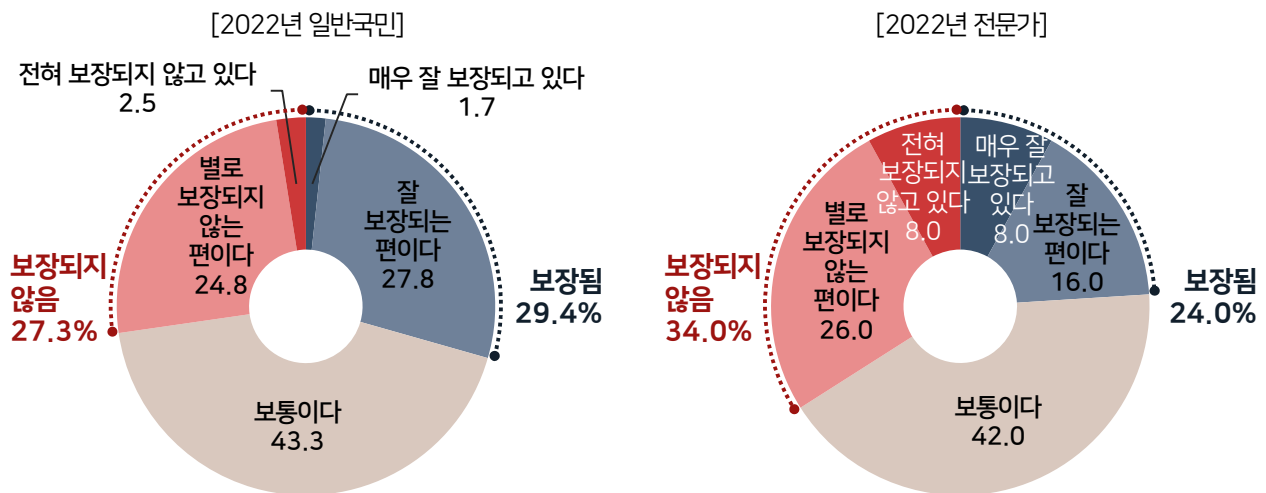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확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00	6.3	50.4	29.9	9.3	4.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5.5	51.9	30.3	8.0	4.3
	전문가	100	16.0	32.0	25.0	25.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5.2	50.7	31.4	9.8	3.0
	중	570	6.5	54.6	28.4	6.0	4.6
	하	190	3.2	46.8	33.7	10.0	6.3
성별	남성	720	6.0	51.4	30.8	8.3	3.5
	여성	480	4.8	52.7	29.6	7.5	5.4
연령별	20대 이하	227	4.8	51.5	30.8	8.4	4.4
	30대	193	8.3	47.2	32.6	8.8	3.1
	40대	247	4.0	55.1	30.8	6.1	4.0
	50대	254	2.8	53.9	30.7	9.1	3.5
	60대 이상	279	7.9	50.9	27.6	7.9	5.7
지역별	서울	225	8.0	59.6	25.3	4.4	2.7
	경기/인천	386	4.7	47.9	33.7	9.3	4.4
	부산/울산/경남	179	2.2	55.3	33.5	8.4	0.6
	대구/경북	121	7.4	30.6	33.1	18.2	10.7
	광주/전라	114	2.6	55.3	36.0	6.1	0.0
	대전/충청/세종	127	8.7	70.1	18.9	2.4	0.0
	강원/제주	48	6.3	33.3	25.0	6.3	29.2
지역크기	대도시	526	5.5	50.0	33.5	8.6	2.5
	중소도시	629	5.9	54.5	27.5	7.5	4.6
	읍/면	45	0.0	37.8	33.3	8.9	20.0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60.0	13.3	11.1	8.9
	자영업자	165	4.2	45.5	38.2	6.7	5.5
	판매/서비스직	236	4.7	58.9	28.4	5.5	2.5
	기능/숙련공	104	4.8	51.9	28.8	10.6	3.8
	일반 노무직	50	4.0	52.0	26.0	10.0	8.0
	사무/기술직	304	6.9	47.4	33.2	8.6	3.9
	경영/관리직	12	0.0	25.0	58.3	8.3	8.3
	전문/자유직	12	0.0	58.3	25.0	16.7	0.0
	전업주부	176	4.5	57.4	27.3	6.3	4.5
	학생	47	8.5	44.7	31.9	10.6	4.3
	무직/휴직/은퇴	40	12.5	45.0	25.0	15.0	2.5
	기타	9	0.0	88.9	11.1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2.7	56.4	16.4	5.5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5.2	53.1	29.7	7.6	4.4
	전문대(중퇴/졸업)	269	4.5	53.5	30.9	7.8	3.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5.6	49.5	32.2	8.8	3.9
	대학원 이상	8	0.0	25.0	50.0	12.5	12.5
생활 수준별	상	62	1.6	58.1	25.8	9.7	4.8
	중	565	5.3	51.9	30.4	8.3	4.1
	하	573	6.1	51.3	30.7	7.5	4.4

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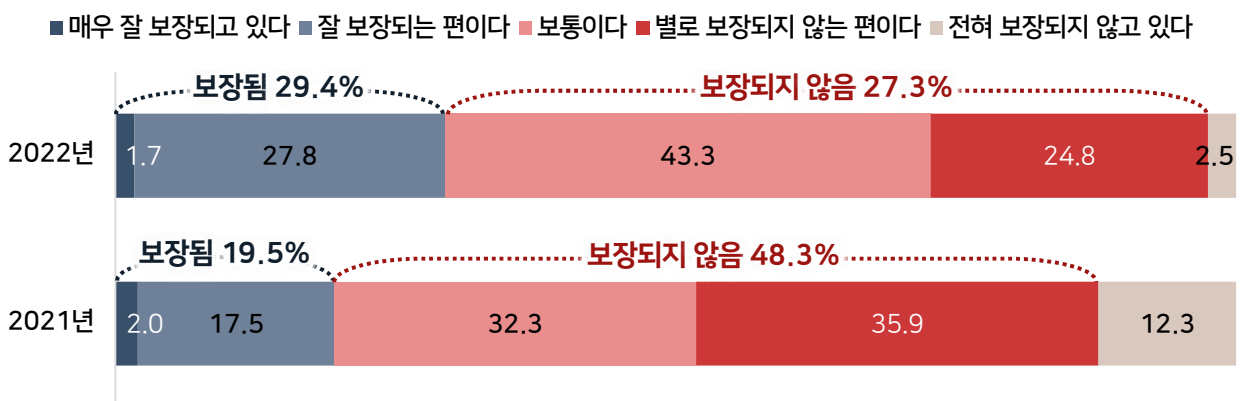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국민은 '보장됨'(29.4%), 전문가는 '보장되지 않음'(34.0%)이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된다'는 응답이 29.4%로, '보장되지 않는다'(27.3%)보다 2.1%p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보장된다'는 9.9%p(2021년 19.5%) 증가하였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21.0%p(2021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의견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0%로, '보장된다'(24.0%)보다 10.0%p 높게 나타남.
- ▷ 국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그림 5-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일반국민-(전년대비)]



[특성별 분석]

- ▷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보장된다'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3> 군내의 인권 보장 정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잘 보장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종합		
								보장됨	보통	보장되지 않음
전체		1,300	2.2	26.8	43.2	24.8	2.9	29.0	43.2	27.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	27.8	43.3	24.8	2.5	29.4	43.3	27.3
	전문가	100	8.0	16.0	42.0	26.0	8.0	24.0	42.0	34.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5	28.0	38.4	27.5	3.6	30.5	38.4	31.1
	중	570	1.6	27.4	48.6	20.9	1.6	28.9	48.6	22.5
	하	190	0.0	28.4	38.9	30.0	2.6	28.4	38.9	32.6
성별	남성	720	1.9	26.9	43.5	24.6	3.1	28.9	43.5	27.6
	여성	480	1.3	29.0	43.1	25.0	1.7	30.2	43.1	26.7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	28.2	38.8	26.0	5.7	29.5	38.8	31.7
	30대	193	3.1	29.0	43.5	21.2	3.1	32.1	43.5	24.4
	40대	247	1.2	27.5	42.1	27.1	2.0	28.7	42.1	29.1
	50대	254	1.6	27.6	43.7	26.0	1.2	29.1	43.7	27.2
	60대 이상	279	1.4	26.9	47.7	22.9	1.1	28.3	47.7	24.0
지역별	서울	225	0.4	32.9	39.6	26.7	0.4	33.3	39.6	27.1
	경기/인천	386	3.1	24.1	40.9	27.5	4.4	27.2	40.9	31.9
	부산/울산/경남	179	0.0	26.8	45.8	26.8	0.6	26.8	45.8	27.4
	대구/경북	121	2.5	14.0	50.4	27.3	5.8	16.5	50.4	33.1
	광주/전라	114	0.0	27.2	50.0	21.9	0.9	27.2	50.0	22.8
	대전/충청/세종	127	2.4	50.4	33.9	13.4	0.0	52.8	33.9	13.4
	강원/제주	48	2.1	12.5	62.5	16.7	6.3	14.6	62.5	22.9
지역크기	대도시	526	1.5	28.3	41.3	26.0	2.9	29.8	41.3	28.9
	중소도시	629	1.9	28.1	42.9	24.6	2.4	30.0	42.9	27.0
	읍/면	45	0.0	15.6	73.3	11.1	0.0	15.6	73.3	11.1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31.1	57.8	8.9	0.0	33.3	57.8	8.9
	자영업자	165	1.2	25.5	47.3	24.2	1.8	26.7	47.3	26.1
	판매/서비스직	236	1.3	31.4	43.2	22.9	1.3	32.6	43.2	24.2
	기능/숙련공	104	4.8	20.2	39.4	34.6	1.0	25.0	39.4	35.6
	일반 노무직	50	0.0	28.0	42.0	26.0	4.0	28.0	42.0	30.0
	사무/기술직	304	1.3	29.3	37.8	27.6	3.9	30.6	37.8	31.6
	경영/관리직	12	0.0	8.3	58.3	25.0	8.3	8.3	58.3	33.3
	전문/자유직	12	0.0	25.0	33.3	33.3	8.3	25.0	33.3	41.7
	전업주부	176	1.7	29.5	46.6	20.5	1.7	31.3	46.6	22.2
	학생	47	2.1	21.3	42.6	27.7	6.4	23.4	42.6	34.0
	무직/휴직/은퇴	40	0.0	32.5	40.0	25.0	2.5	32.5	40.0	27.5
	기타	9	11.1	0.0	88.9	0.0	0.0	11.1	88.9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27.3	45.5	25.5	0.0	29.1	45.5	25.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1	29.3	45.4	22.9	1.3	30.3	45.4	24.2
	전문대(중퇴/졸업)	269	3.3	29.0	39.4	25.3	3.0	32.3	39.4	28.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	25.6	43.2	26.3	3.7	26.8	43.2	30.0
	대학원 이상	8	0.0	12.5	50.0	25.0	12.5	12.5	50.0	37.5
생활 수준별	상	62	0.0	17.7	46.8	29.0	6.5	17.7	46.8	35.5
	중	565	2.3	25.7	40.5	28.8	2.7	28.0	40.5	31.5
	하	573	1.2	30.9	45.7	20.2	1.9	32.1	45.7	22.2

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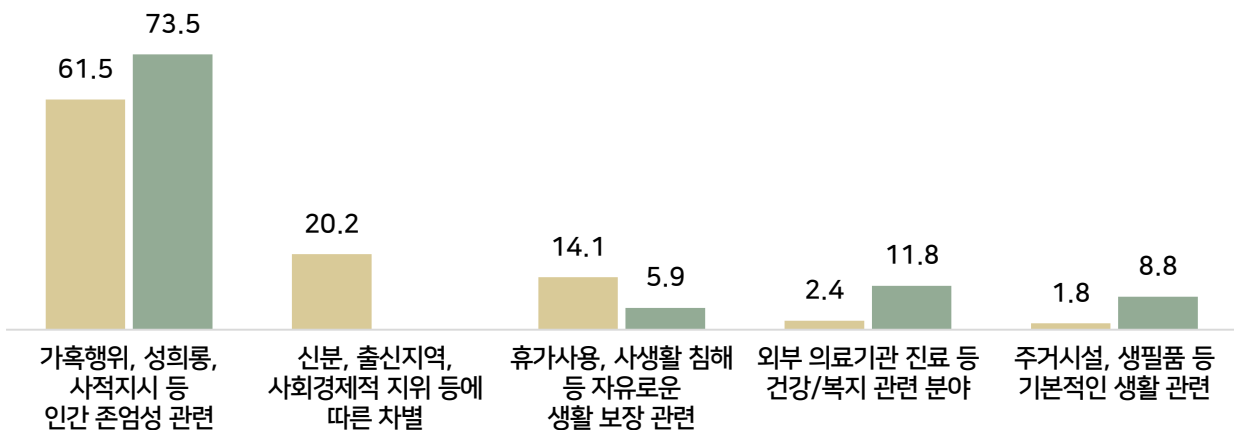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일반국민(61.5%), 전문가(7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20.2%),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일반국민-(전년대비)]** 2021년 대비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은 8.4%p(2021년 69.9%) 감소하였고,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은 10.2%p(2021년 10.0%) 증가하였음.
- ▶ **[전문가]**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 7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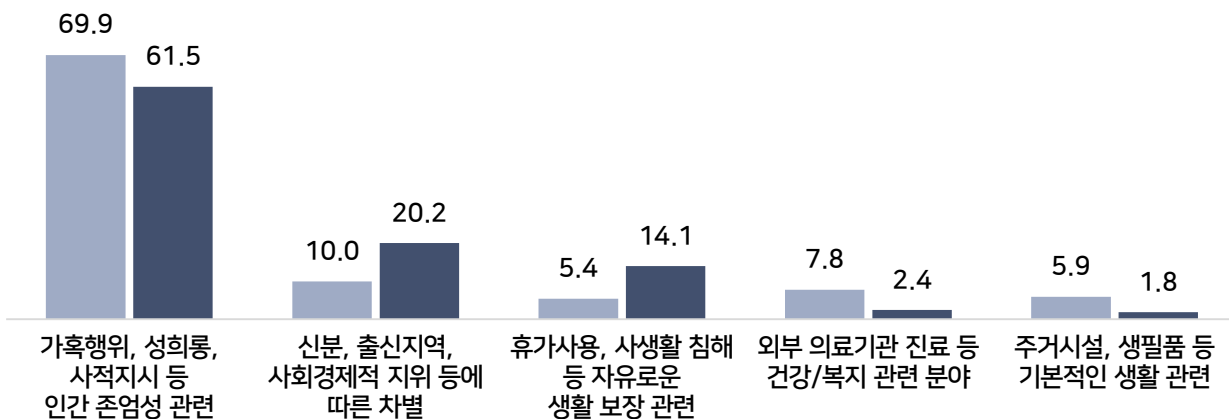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 전문가



[일반국민-(전년대비)]

■ 2021년 ■ 2022년



[특성별 분석]

- ▷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 크기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표 5-3-1>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단위[%]		사례수 (명)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전체		361	62.6	18.3	13.3	3.3	2.5
대상별	일반국민	327	61.5	20.2	14.1	2.4	1.8
	전문가	34	73.5	-	5.9	11.8	8.8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137	68.6	10.9	14.6	2.9	2.9
	중	128	59.4	18.0	18.0	3.1	1.6
	하	62	50.0	45.2	4.8	0.0	0.0
성별	남성	199	57.3	22.6	15.1	2.5	2.5
	여성	128	68.0	16.4	12.5	2.3	0.8
연령별	20대 이하	72	63.9	15.3	16.7	4.2	0.0
	30대	47	70.2	10.6	12.8	4.3	2.1
	40대	72	55.6	27.8	13.9	0.0	2.8
	50대	69	52.2	31.9	11.6	2.9	1.4
	60대 이상	67	68.7	11.9	14.9	1.5	3.0
지역별	서울	61	63.9	24.6	9.8	1.6	0.0
	경기/인천	123	50.4	26.8	17.1	1.6	4.1
	부산/울산/경남	49	61.2	14.3	18.4	6.1	0.0
	대구/경북	40	82.5	10.0	7.5	0.0	0.0
	광주/전라	26	84.6	3.8	11.5	0.0	0.0
	대전/충청/세종	17	47.1	23.5	17.6	5.9	5.9
	강원/제주	11	63.6	18.2	9.1	9.1	0.0
지역크기	대도시	152	70.4	19.1	7.9	2.0	0.7
	중소도시	170	54.1	21.8	18.8	2.9	2.4
	읍/면	5	40.0	0.0	40.0	0.0	20.0
직업별	농/어/임업	4	50.0	50.0	0.0	0.0	0.0
	자영업자	43	55.8	25.6	14.0	0.0	4.7
	판매/서비스직	57	66.7	15.8	15.8	1.8	0.0
	기능/숙련공	37	56.8	29.7	13.5	0.0	0.0
	일반 노무직	15	60.0	20.0	6.7	13.3	0.0
	사무/기술직	96	60.4	18.8	15.6	3.1	2.1
	경영/관리직	4	50.0	25.0	25.0	0.0	0.0
	전문/자유직	5	60.0	20.0	0.0	0.0	20.0
	전업주부	39	69.2	12.8	12.8	2.6	2.6
	학생	16	56.3	25.0	18.8	0.0	0.0
최종 학력별	무직/휴직/은퇴	11	72.7	9.1	9.1	9.1	0.0
	중졸 이하	14	71.4	14.3	14.3	0.0	0.0
	고등학교(중퇴/졸업)	111	60.4	21.6	11.7	3.6	2.7
	전문대(중퇴/졸업)	76	59.2	17.1	18.4	3.9	1.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123	61.8	22.0	13.8	0.8	1.6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3	100.0	0.0	0.0	0.0	0.0
	상	22	50.0	27.3	9.1	4.5	9.1
	중	178	57.9	23.0	14.0	3.4	1.7
	하	127	68.5	15.0	15.0	0.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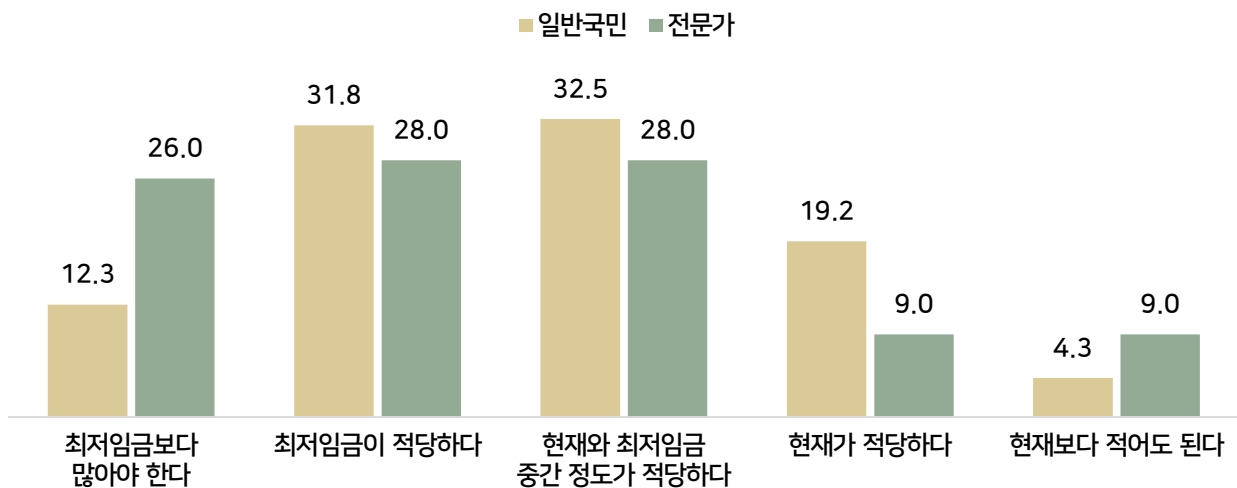
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은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32.5%), 전문가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각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에 대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적당하다'(31.8%), '현재가 적당하다'(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 2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2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 연령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광주/전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4>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명)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현재가 적당하다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
전체		1,300	13.3	31.5	32.2	18.4	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2.3	31.8	32.5	19.2	4.3
	전문가	100	26.0	28.0	28.0	9.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7.3	27.7	31.1	18.2	5.7
	중	570	8.9	33.2	34.6	19.3	4.0
	하	190	10.5	37.4	29.5	21.1	1.6
성별	남성	720	13.3	30.7	33.2	18.2	4.6
	여성	480	10.6	33.5	31.5	20.6	3.8
연령별	20대 이하	227	10.1	33.0	33.9	17.6	5.3
	30대	193	10.9	34.7	31.6	18.7	4.1
	40대	247	14.2	30.4	32.8	19.0	3.6
	50대	254	13.0	33.9	31.9	16.9	4.3
	60대 이상	279	12.5	28.3	32.3	22.9	3.9
지역별	서울	225	8.4	30.2	32.9	23.6	4.9
	경기/인천	386	10.1	35.2	34.5	16.8	3.4
	부산/울산/경남	179	9.5	21.8	30.2	29.1	9.5
	대구/경북	121	10.7	34.7	35.5	17.4	1.7
	광주/전라	114	15.8	15.8	50.0	17.5	0.9
	대전/충청/세종	127	28.3	52.8	11.8	6.3	0.8
	강원/제주	48	10.4	25.0	29.2	22.9	12.5
지역크기	대도시	526	10.8	30.8	30.2	22.4	5.7
	중소도시	629	12.7	34.0	34.3	15.6	3.3
	읍/면	45	22.2	13.3	33.3	31.1	0.0
직업별	농/어/임업	45	24.4	26.7	33.3	13.3	2.2
	자영업자	165	12.7	27.9	35.2	17.0	7.3
	판매/서비스직	236	11.4	36.4	33.5	16.1	2.5
	기능/숙련공	104	10.6	27.9	37.5	20.2	3.8
	일반 노무직	50	14.0	26.0	34.0	22.0	4.0
	사무/기술직	304	11.8	31.9	31.9	19.4	4.9
	경영/관리직	12	16.7	33.3	25.0	16.7	8.3
	전문/자유직	12	25.0	41.7	16.7	16.7	0.0
	전업주부	176	9.7	37.5	24.4	25.6	2.8
	학생	47	19.1	23.4	29.8	23.4	4.3
	무직/휴직/은퇴	40	5.0	32.5	37.5	17.5	7.5
	기타	9	11.1	0.0	88.9	0.0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2	21.8	32.7	25.5	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0.3	30.6	33.6	22.1	3.5
	전문대(중퇴/졸업)	269	13.8	34.2	32.3	15.2	4.5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2.7	33.7	31.7	17.1	4.9
	대학원 이상	8	12.5	0.0	12.5	50.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8.1	41.9	29.0	16.1	4.8
	중	565	17.2	28.8	32.0	17.2	4.8
	하	573	7.9	33.7	33.3	21.5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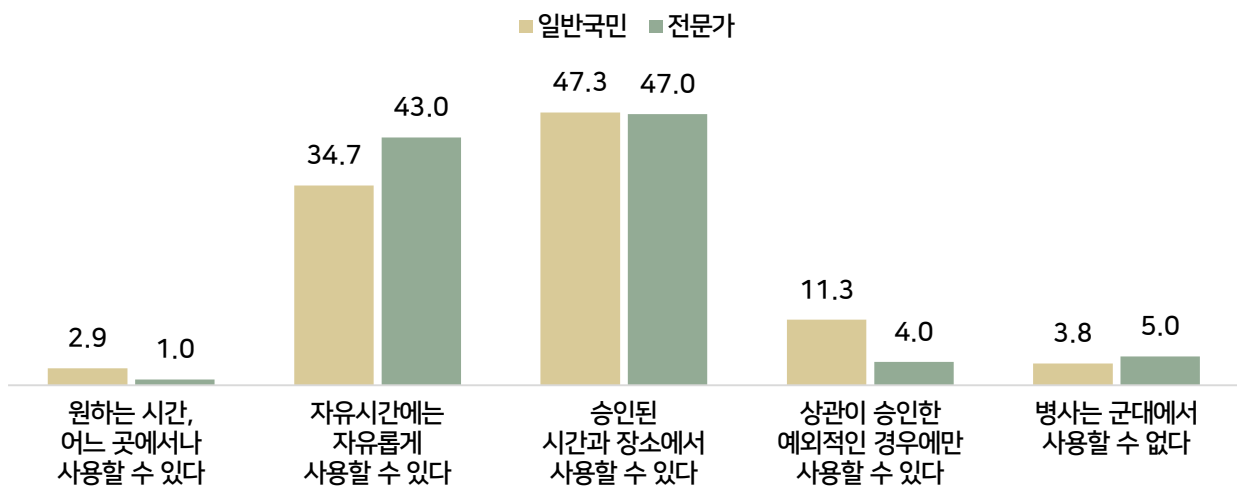
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해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반국민은 47.3%, 전문가는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으로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유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3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으로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유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4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

[2022년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명)	원하는 시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유시간 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관이 승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병사는 군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2.8	35.3	47.3	10.8	3.8	38.1	47.3	14.6
대상별	일반국민	1,200	2.9	34.7	47.3	11.3	3.8	37.6	47.3	15.1
	전문가	100	1.0	43.0	47.0	4.0	5.0	44.0	47.0	9.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3.4	38.0	47.3	8.4	3.0	41.4	47.3	11.4
	중	570	1.9	35.1	46.8	11.8	4.4	37.0	46.8	16.1
	하	190	4.7	25.8	48.9	16.8	3.7	30.5	48.9	20.5
성별	남성	720	3.1	34.6	46.9	12.2	3.2	37.6	46.9	15.4
	여성	480	2.7	34.8	47.9	10.0	4.6	37.5	47.9	14.6
연령별	20대 이하	227	6.2	37.9	42.3	10.6	3.1	44.1	42.3	13.7
	30대	193	1.6	35.8	46.1	13.5	3.1	37.3	46.1	16.6
	40대	247	0.8	38.1	50.2	9.3	1.6	38.9	50.2	10.9
	50대	254	3.5	31.9	49.2	9.8	5.5	35.4	49.2	15.4
	60대 이상	279	2.5	30.8	48.0	13.6	5.0	33.3	48.0	18.6
지역별	서울	225	0.9	36.0	45.3	12.0	5.8	36.9	45.3	17.8
	경기/인천	386	1.3	35.5	45.3	14.2	3.6	36.8	45.3	17.9
	부산/울산/경남	179	2.8	38.0	48.0	9.5	1.7	40.8	48.0	11.2
	대구/경북	121	8.3	28.9	52.9	5.8	4.1	37.2	52.9	9.9
	광주/전라	114	5.3	28.9	56.1	8.8	0.9	34.2	56.1	9.6
	대전/충청/세종	127	4.7	44.9	40.2	9.4	0.8	49.6	40.2	10.2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2.1	10.4	54.2	16.7	16.7	12.5	54.2	33.3
	대도시	526	2.5	36.5	46.0	10.5	4.6	39.0	46.0	15.0
	중소도시	629	3.5	33.9	47.1	12.4	3.2	37.4	47.1	15.6
	읍/면	45	0.0	24.4	66.7	6.7	2.2	24.4	66.7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2.2	22.2	60.0	13.3	2.2	24.4	60.0	15.6
	자영업자	165	1.8	30.3	52.1	10.3	5.5	32.1	52.1	15.8
	판매/서비스직	236	3.4	37.7	48.7	6.8	3.4	41.1	48.7	10.2
	기능/숙련공	104	1.9	35.6	40.4	16.3	5.8	37.5	40.4	22.1
	일반 노무직	50	4.0	24.0	46.0	18.0	8.0	28.0	46.0	26.0
	사무/기술직	304	3.0	38.2	45.7	11.5	1.6	41.1	45.7	13.2
	경영/관리직	12	0.0	41.7	41.7	16.7	0.0	41.7	41.7	16.7
	전문/자유직	12	0.0	50.0	41.7	8.3	0.0	50.0	41.7	8.3
	전업주부	176	2.8	34.1	46.6	11.4	5.1	36.9	46.6	16.5
	학생	47	8.5	42.6	40.4	4.3	4.3	51.1	40.4	8.5
	무직/휴직/은퇴	40	0.0	27.5	47.5	22.5	2.5	27.5	47.5	25.0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0.0	66.7	22.2	0.0	11.1	66.7	22.2
	중졸 이하	55	3.6	20.0	61.8	9.1	5.5	23.6	61.8	14.5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3.1	31.9	46.9	13.1	5.0	34.9	46.9	18.1
	전문대(중퇴/졸업)	269	3.0	39.8	44.2	11.9	1.1	42.8	44.2	13.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2.7	36.6	47.3	9.5	3.9	39.3	47.3	13.4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25.0	75.0	0.0	0.0	25.0	75.0	0.0
	상	62	3.2	40.3	38.7	12.9	4.8	43.5	38.7	17.7
	중	565	3.4	38.1	44.2	11.2	3.2	41.4	44.2	14.3
	하	573	2.4	30.7	51.3	11.3	4.2	33.2	51.3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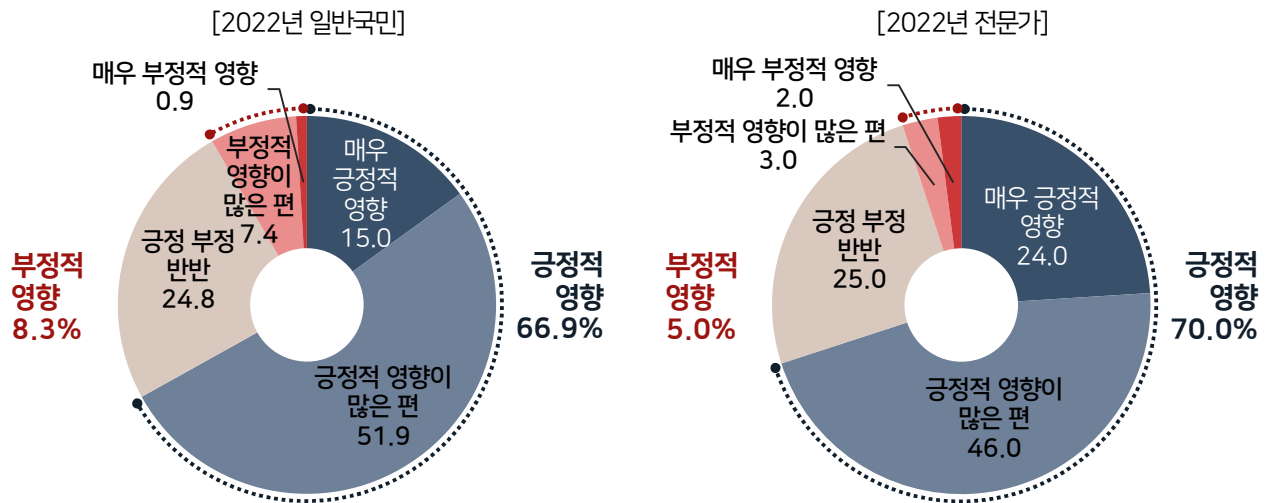
6.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1)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6.9%, 전문가 7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66.9%로, '부정적 영향'(8.3%)이라는 응답보다 58.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70.0%로, '부정적 영향'(5.0%)보다 65.0%p 높게 나타남.

<그림 5-6-1>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1>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외부와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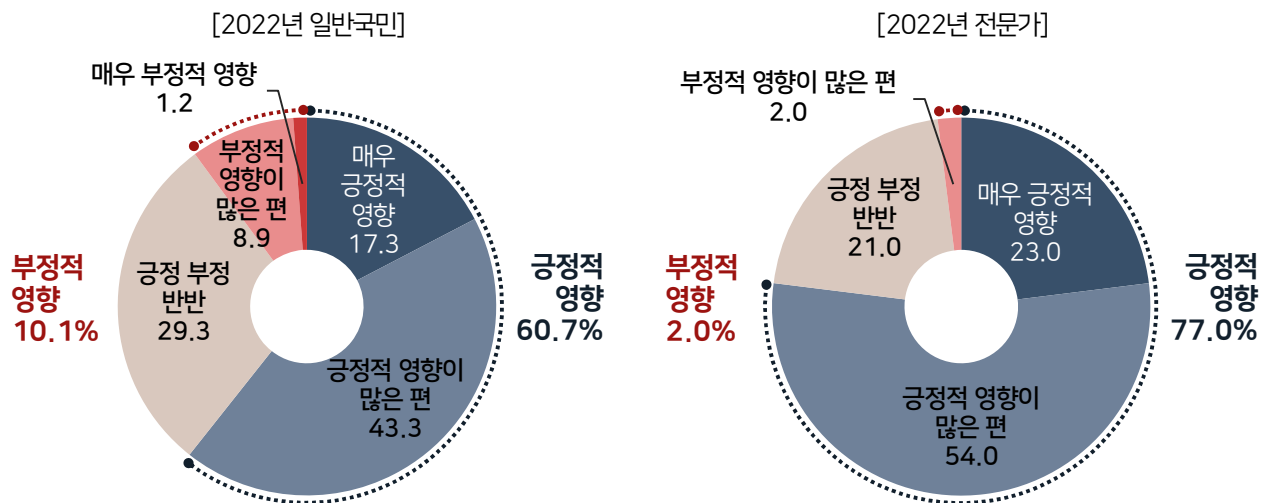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15.7	51.5	24.8	7.1	1.0	67.2	24.8	8.1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0	51.9	24.8	7.4	0.9	66.9	24.8	8.3
	전문가	100	24.0	46.0	25.0	3.0	2.0	70.0	25.0	5.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4.8	51.8	26.4	6.1	0.9	66.6	26.4	7.0
	중	570	14.7	54.2	22.8	7.2	1.1	68.9	22.8	8.2
	하	190	16.3	45.3	26.8	11.1	0.5	61.6	26.8	11.6
성별	남성	720	14.6	51.7	25.3	7.4	1.1	66.3	25.3	8.5
	여성	480	15.6	52.3	24.0	7.5	0.6	67.9	24.0	8.1
연령별	20대 이하	227	15.0	56.4	20.7	7.9	0.0	71.4	20.7	7.9
	30대	193	16.6	52.8	23.8	6.2	0.5	69.4	23.8	6.7
	40대	247	15.8	53.0	24.3	5.7	1.2	68.8	24.3	6.9
	50대	254	13.8	49.6	27.6	8.7	0.4	63.4	27.6	9.1
	60대 이상	279	14.3	48.7	26.5	8.2	2.2	63.1	26.5	10.4
지역별	서울	225	2.7	63.6	23.6	9.8	0.4	66.2	23.6	10.2
	경기/인천	386	19.7	50.3	21.2	7.8	1.0	69.9	21.2	8.8
	부산/울산/경남	179	8.9	41.3	43.6	6.1	0.0	50.3	43.6	6.1
	대구/경북	121	22.3	50.4	24.8	0.8	1.7	72.7	24.8	2.5
	광주/전라	114	18.4	56.1	13.2	12.3	0.0	74.6	13.2	12.3
	대전/충청/세종	127	26.0	52.0	19.7	1.6	0.8	78.0	19.7	2.4
	강원/제주	48	2.1	43.8	29.2	18.8	6.3	45.8	29.2	25.0
지역크기	대도시	526	10.8	57.0	23.4	7.8	1.0	67.9	23.4	8.7
	중소도시	629	18.9	46.6	26.6	7.2	0.8	65.5	26.6	7.9
	읍/면	45	8.9	66.7	15.6	6.7	2.2	75.6	15.6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8.9	44.4	33.3	13.3	0.0	53.3	33.3	13.3
	자영업자	165	15.8	44.2	30.3	7.3	2.4	60.0	30.3	9.7
	판매/서비스직	236	11.0	55.9	24.6	8.5	0.0	66.9	24.6	8.5
	기능/숙련공	104	11.5	50.0	26.0	9.6	2.9	61.5	26.0	12.5
	일반 노무직	50	18.0	50.0	26.0	4.0	2.0	68.0	26.0	6.0
	사무/기술직	304	17.1	56.3	20.1	6.6	0.0	73.4	20.1	6.6
	경영/관리직	12	50.0	41.7	8.3	0.0	0.0	91.7	8.3	0.0
	전문/자유직	12	16.7	41.7	33.3	8.3	0.0	58.3	33.3	8.3
	전업주부	176	12.5	53.4	25.6	7.4	1.1	65.9	25.6	8.5
	학생	47	27.7	48.9	17.0	6.4	0.0	76.6	17.0	6.4
	무직/휴직/은퇴	40	17.5	47.5	27.5	5.0	2.5	65.0	27.5	7.5
	기타	9	11.1	44.4	44.4	0.0	0.0	55.6	44.4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56.4	30.9	10.9	0.0	58.2	30.9	10.9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2.9	50.2	27.7	8.3	0.9	63.1	27.7	9.2
	전문대(중퇴/졸업)	269	15.2	55.0	23.4	5.9	0.4	70.3	23.4	6.3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9.0	51.2	21.7	6.8	1.2	70.2	21.7	8.0
	대학원 이상	8	12.5	50.0	12.5	12.5	12.5	62.5	12.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21.0	45.2	25.8	4.8	3.2	66.1	25.8	8.1
	중	565	17.7	50.4	25.8	5.3	0.7	68.1	25.8	6.0
	하	573	11.7	54.1	23.6	9.8	0.9	65.8	23.6	10.6

2)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60.7%, 전문가 77.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60.7%로, '부정적 영향'(10.1%)이라는 응답보다 50.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77.0%로, '부정적 영향'(2.0%)보다 75.0%p 높게 나타남.

<그림 5-6-2>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6-2>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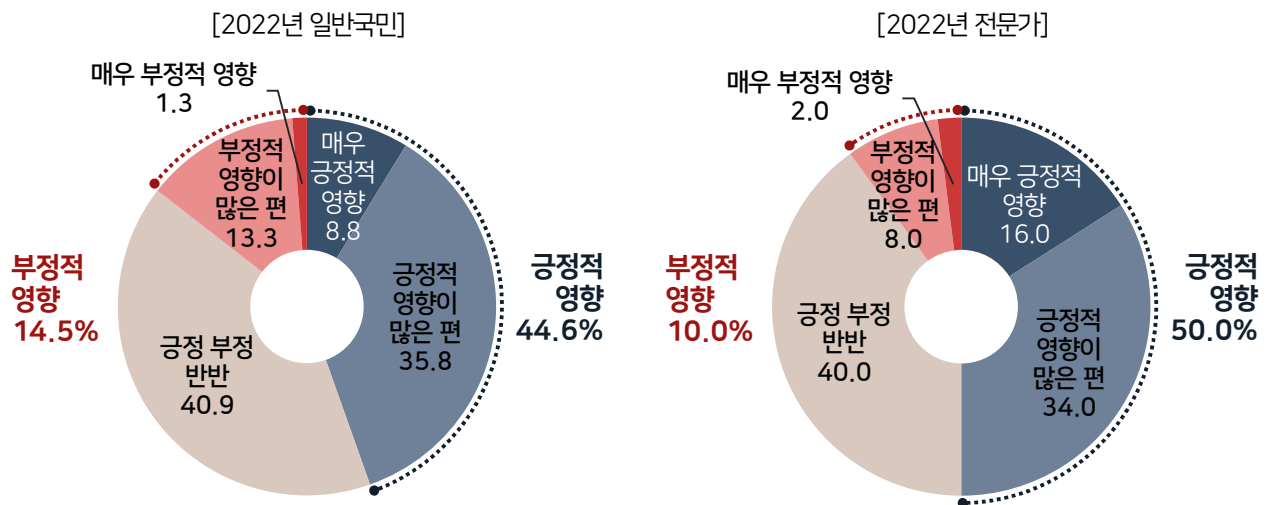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17.8	44.2	28.6	8.4	1.1	61.9	28.6	9.5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7.3	43.3	29.3	8.9	1.2	60.7	29.3	10.1
	전문가	100	23.0	54.0	21.0	2.0	-	77.0	21.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22.3	43.9	25.5	7.0	1.4	66.1	25.5	8.4
	중	570	15.4	43.0	30.4	9.8	1.4	58.4	30.4	11.2
	하	190	11.6	43.2	34.7	10.5	0.0	54.7	34.7	10.5
성별	남성	720	15.1	43.2	31.5	8.9	1.3	58.3	31.5	10.1
	여성	480	20.6	43.5	25.8	9.0	1.0	64.2	25.8	1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20.7	43.2	27.3	8.4	0.4	63.9	27.3	8.8
	30대	193	17.1	43.5	28.0	10.4	1.0	60.6	28.0	11.4
	40대	247	15.0	42.5	32.8	8.1	1.6	57.5	32.8	9.7
	50대	254	13.8	45.3	30.3	9.8	0.8	59.1	30.3	10.6
	60대 이상	279	20.1	42.3	27.6	8.2	1.8	62.4	27.6	10.0
지역별	서울	225	7.6	43.6	34.7	13.8	0.4	51.1	34.7	14.2
	경기/인천	386	17.9	41.7	29.8	9.3	1.3	59.6	29.8	10.6
	부산/울산/경남	179	20.1	36.9	30.7	12.3	0.0	57.0	30.7	12.3
	대구/경북	121	23.1	37.2	33.9	5.0	0.8	60.3	33.9	5.8
	광주/전라	114	26.3	43.9	24.6	1.8	3.5	70.2	24.6	5.3
	대전/충청/세종	127	20.5	59.1	18.9	0.8	0.8	79.5	18.9	1.6
	강원/제주	48	4.2	52.1	20.8	18.8	4.2	56.3	20.8	22.9
지역크기	대도시	526	13.1	46.6	30.6	8.9	0.8	59.7	30.6	9.7
	중소도시	629	21.0	40.1	28.3	9.4	1.3	61.0	28.3	10.7
	읍/면	45	15.6	51.1	26.7	2.2	4.4	66.7	26.7	6.7
직업별	농/어/임업	45	11.1	40.0	40.0	6.7	2.2	51.1	40.0	8.9
	자영업자	165	13.9	44.2	30.3	9.7	1.8	58.2	30.3	11.5
	판매/서비스직	236	16.1	44.1	28.8	10.2	0.8	60.2	28.8	11.0
	기능/숙련공	104	17.3	39.4	30.8	9.6	2.9	56.7	30.8	12.5
	일반 노무직	50	20.0	38.0	32.0	8.0	2.0	58.0	32.0	10.0
	사무/기술직	304	19.4	47.4	26.6	5.9	0.7	66.8	26.6	6.6
	경영/관리직	12	33.3	58.3	8.3	0.0	0.0	91.7	8.3	0.0
	전문/자유직	12	16.7	41.7	16.7	25.0	0.0	58.3	16.7	25.0
	전업주부	176	17.6	38.6	31.3	11.9	0.6	56.3	31.3	12.5
	학생	47	19.1	48.9	25.5	6.4	0.0	68.1	25.5	6.4
	무직/휴직/은퇴	40	20.0	37.5	27.5	12.5	2.5	57.5	27.5	15.0
	기타	9	11.1	33.3	55.6	0.0	0.0	44.4	55.6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6.4	40.0	30.9	12.7	0.0	56.4	30.9	12.7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6.4	42.1	30.3	10.0	1.1	58.5	30.3	11.1
	전문대(중퇴/졸업)	269	17.5	42.4	32.3	7.4	0.4	59.9	32.3	7.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8.8	45.4	26.1	7.8	2.0	64.1	26.1	9.8
	대학원 이상	8	0.0	62.5	12.5	25.0	0.0	62.5	12.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14.5	46.8	22.6	14.5	1.6	61.3	22.6	16.1
	중	565	19.6	46.4	26.0	7.3	0.7	66.0	26.0	8.0
	하	573	15.4	40.0	33.2	9.9	1.6	55.3	33.2	11.5

3) 병사들의 자기개발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4.6%, 전문가 50.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4.6%로, '부정적 영향'(14.5%)이라는 응답보다 30.1%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50.0%로, '부정적 영향'(10.0%)보다 40.0%p 높게 나타남.

<그림 5-6-3>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자기개발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자기개발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3>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자기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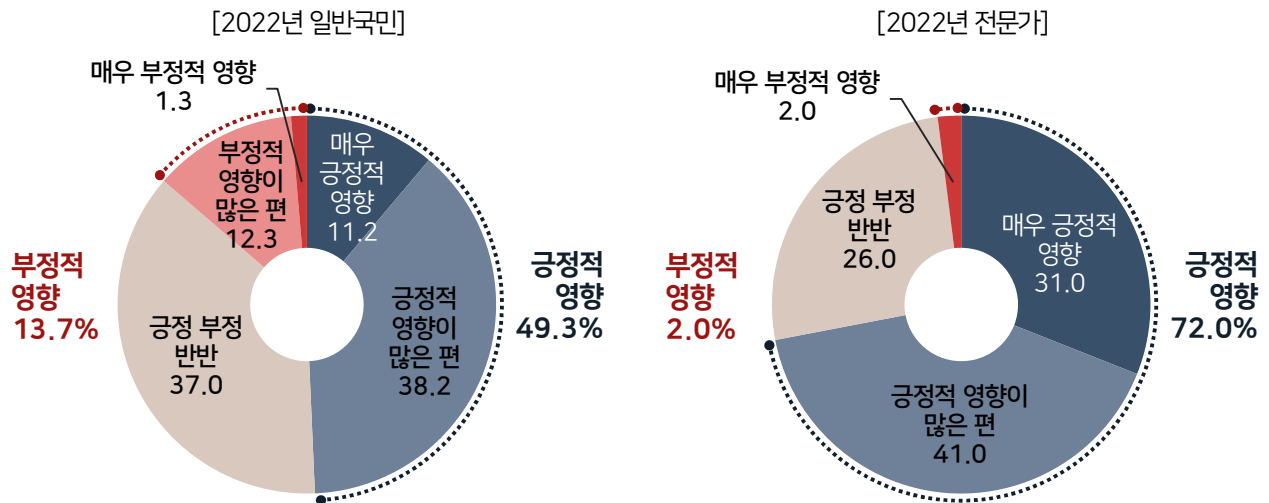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9.3	35.7	40.8	12.8	1.3	45.0	40.8	14.2
대상별	일반국민	1,200	8.8	35.8	40.9	13.3	1.3	44.6	40.9	14.5
	전문가	100	16.0	34.0	40.0	8.0	2.0	50.0	40.0	10.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1.6	35.0	41.8	10.2	1.4	46.6	41.8	11.6
	중	570	6.8	37.2	40.0	14.7	1.2	44.0	40.0	16.0
	하	190	7.9	33.7	41.6	15.8	1.1	41.6	41.6	16.8
성별	남성	720	8.2	35.7	39.6	15.3	1.3	43.9	39.6	16.5
	여성	480	9.6	36.0	42.9	10.2	1.3	45.6	42.9	11.5
연령별	20대 이하	227	11.9	32.6	42.7	12.3	0.4	44.5	42.7	12.8
	30대	193	10.4	32.1	42.0	15.0	0.5	42.5	42.0	15.5
	40대	247	10.1	36.0	40.1	11.3	2.4	46.2	40.1	13.8
	50대	254	6.3	37.4	39.8	15.0	1.6	43.7	39.8	16.5
	60대 이상	279	6.1	39.4	40.5	12.9	1.1	45.5	40.5	14.0
지역별	서울	225	4.9	29.8	48.9	16.4	0.0	34.7	48.9	16.4
	경기/인천	386	10.1	33.7	39.9	15.3	1.0	43.8	39.9	16.3
	부산/울산/경남	179	7.3	40.8	36.3	15.1	0.6	48.0	36.3	15.6
	대구/경북	121	14.0	33.1	39.7	11.6	1.7	47.1	39.7	13.2
	광주/전라	114	2.6	44.7	43.9	5.3	3.5	47.4	43.9	8.8
	대전/충청/세종	127	15.7	44.1	33.9	4.7	1.6	59.8	33.9	6.3
	강원/제주	48	4.2	27.1	43.8	20.8	4.2	31.3	43.8	25.0
지역크기	대도시	526	9.5	32.9	44.5	12.7	0.4	42.4	44.5	13.1
	중소도시	629	8.7	38.6	36.9	14.1	1.6	47.4	36.9	15.7
	읍/면	45	0.0	31.1	55.6	6.7	6.7	31.1	55.6	13.3
직업별	농/어/임업	45	0.0	42.2	48.9	2.2	6.7	42.2	48.9	8.9
	자영업자	165	6.7	39.4	34.5	16.4	3.0	46.1	34.5	19.4
	판매/서비스직	236	9.3	33.9	44.1	12.3	0.4	43.2	44.1	12.7
	기능/숙련공	104	11.5	30.8	39.4	17.3	1.0	42.3	39.4	18.3
	일반 노무직	50	6.0	38.0	36.0	18.0	2.0	44.0	36.0	20.0
	사무/기술직	304	10.5	33.9	44.7	10.2	0.7	44.4	44.7	10.9
	경영/관리직	12	0.0	50.0	33.3	16.7	0.0	50.0	33.3	16.7
	전문/자유직	12	0.0	33.3	50.0	16.7	0.0	33.3	50.0	16.7
	전업주부	176	8.0	40.9	36.4	13.6	1.1	48.9	36.4	14.8
	학생	47	8.5	40.4	36.2	14.9	0.0	48.9	36.2	14.9
	무직/휴직/은퇴	40	15.0	27.5	35.0	22.5	0.0	42.5	35.0	22.5
	기타	9	11.1	0.0	88.9	0.0	0.0	11.1	88.9	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1.8	34.5	54.5	9.1	0.0	36.4	54.5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7.0	35.8	41.0	15.1	1.1	42.8	41.0	16.2
	전문대(중퇴/졸업)	269	13.8	33.8	38.7	13.4	0.4	47.6	38.7	13.8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8.5	37.3	40.5	11.7	2.0	45.9	40.5	13.7
	대학원 이상	8	0.0	37.5	37.5	12.5	12.5	37.5	37.5	25.0
생활 수준별	상	62	3.2	40.3	41.9	12.9	1.6	43.5	41.9	14.5
	중	565	9.9	38.1	37.5	13.8	0.7	48.0	37.5	14.5
	하	573	8.2	33.2	44.2	12.7	1.7	41.4	44.2	14.5

4) 병영부조리 예방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영부조리 예방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49.3%, 전문가 72.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영부조리 예방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9.3%로, '부정적 영향'(13.7%)이라는 응답보다 35.6%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영부조리 예방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72.0%로, '부정적 영향'(2.0%)보다 70.0%p 높게 나타남.

<그림 5-6-4>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영부조리 예방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영부조리 예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성별로 '여성', 연령대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4>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영부조리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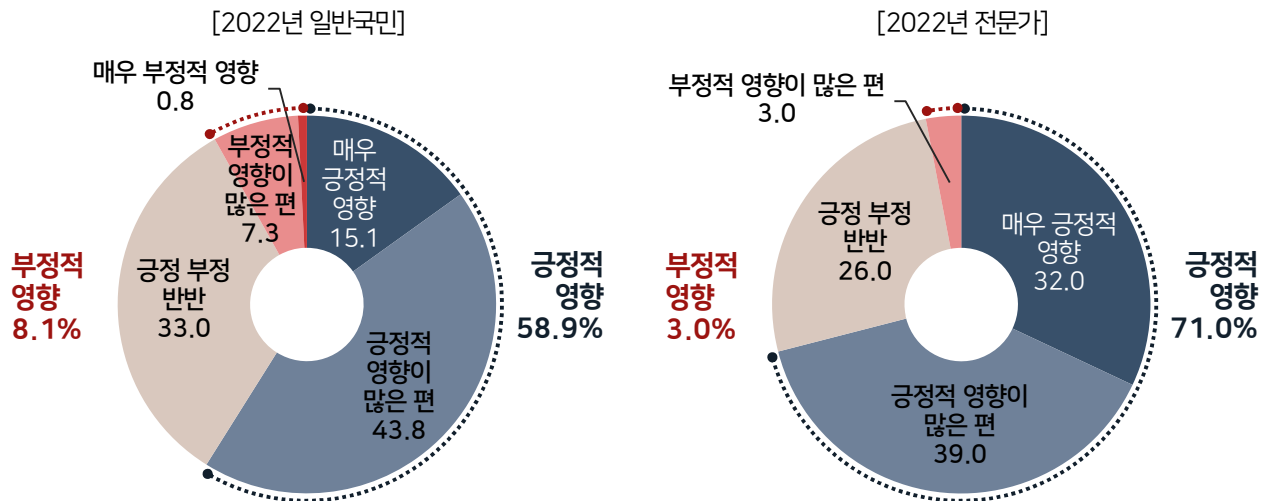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12.7	38.4	36.2	11.4	1.4	51.1	36.2	12.8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1.2	38.2	37.0	12.3	1.3	49.3	37.0	13.7
	전문가	100	31.0	41.0	26.0	-	2.0	72.0	26.0	2.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5.5	41.4	30.5	10.9	1.8	56.8	30.5	12.7
	중	570	8.6	36.3	41.8	12.3	1.1	44.9	41.8	13.3
	하	190	8.9	36.3	37.9	15.8	1.1	45.3	37.9	16.8
성별	남성	720	10.7	37.2	38.2	12.6	1.3	47.9	38.2	13.9
	여성	480	11.9	39.6	35.2	11.9	1.5	51.5	35.2	13.3
연령별	20대 이하	227	13.2	38.3	35.2	12.3	0.9	51.5	35.2	13.2
	30대	193	12.4	42.5	29.0	14.5	1.6	54.9	29.0	16.1
	40대	247	13.0	36.8	36.8	12.6	0.8	49.8	36.8	13.4
	50대	254	9.8	37.0	42.1	9.8	1.2	46.9	42.1	11.0
	60대 이상	279	8.2	37.3	39.4	12.9	2.2	45.5	39.4	15.1
지역별	서울	225	3.1	41.3	40.4	14.2	0.9	44.4	40.4	15.1
	경기/인천	386	14.0	37.3	31.6	15.3	1.8	51.3	31.6	17.1
	부산/울산/경남	179	17.9	34.1	35.2	12.3	0.6	52.0	35.2	12.8
	대구/경북	121	14.0	38.8	42.1	3.3	1.7	52.9	42.1	5.0
	광주/전라	114	7.0	38.6	37.7	16.7	0.0	45.6	37.7	16.7
	대전/충청/세종	127	11.8	47.2	36.2	3.1	1.6	59.1	36.2	4.7
	강원/제주	48	2.1	18.8	58.3	16.7	4.2	20.8	58.3	20.8
지역크기	대도시	526	9.3	40.5	37.1	12.0	1.1	49.8	37.1	13.1
	중소도시	629	13.4	36.6	36.2	12.6	1.3	49.9	36.2	13.8
	읍/면	45	2.2	33.3	46.7	13.3	4.4	35.6	46.7	17.8
직업별	농/어/임업	45	6.7	35.6	42.2	13.3	2.2	42.2	42.2	15.6
	자영업자	165	6.1	37.6	43.6	11.5	1.2	43.6	43.6	12.7
	판매/서비스직	236	13.6	38.1	35.2	12.3	0.8	51.7	35.2	13.1
	기능/숙련공	104	14.4	38.5	34.6	9.6	2.9	52.9	34.6	12.5
	일반 노무직	50	4.0	34.0	44.0	18.0	0.0	38.0	44.0	18.0
	사무/기술직	304	11.8	42.8	33.6	11.2	0.7	54.6	33.6	11.8
	경영/관리직	12	16.7	50.0	25.0	8.3	0.0	66.7	25.0	8.3
	전문/자유직	12	16.7	16.7	33.3	33.3	0.0	33.3	33.3	33.3
	전업주부	176	10.8	36.4	37.5	12.5	2.8	47.2	37.5	15.3
	학생	47	17.0	40.4	25.5	17.0	0.0	57.4	25.5	17.0
	무직/휴직/은퇴	40	10.0	27.5	47.5	12.5	2.5	37.5	47.5	15.0
	기타	9	11.1	11.1	66.7	11.1	0.0	22.2	66.7	11.1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55	5.5	25.5	47.3	20.0	1.8	30.9	47.3	21.8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9.2	37.8	41.9	9.6	1.5	46.9	41.9	11.1
	전문대(중퇴/졸업)	269	16.7	36.4	33.8	13.0	0.0	53.2	33.8	13.0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0.5	41.5	32.4	13.7	2.0	52.0	32.4	15.6
	대학원 이상	8	12.5	37.5	25.0	25.0	0.0	50.0	25.0	25.0
생활 수준별	상	62	8.1	40.3	38.7	11.3	1.6	48.4	38.7	12.9
	중	565	12.9	41.9	34.2	9.4	1.6	54.9	34.2	11.0
	하	573	9.8	34.2	39.6	15.4	1.0	44.0	39.6	16.4

5)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 58.9%, 전문가 71.0%로 나타남.

- ▶ [일반국민]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58.9%로, '부정적 영향'(8.1%)이라는 응답보다 50.8%p 높게 나타남.
- ▶ [전문가]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71.0%로, '부정적 영향'(3.0%)보다 68.0%p 높게 나타남.

<그림 5-6-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



*2022년 문항 및 보기 항목 변경으로 2021년과 비교 어려움.

[특성별 분석]

- ▷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중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본인 안보수준이 높을수록, 성별로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5-6-5> 군 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력 -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종합		
								긍정적 영향	반반	부정적 영향
전체		1,300	16.4	43.5	32.5	7.0	0.7	59.8	32.5	7.7
대상별	일반국민	1,200	15.1	43.8	33.0	7.3	0.8	58.9	33.0	8.1
	전문가	100	32.0	39.0	26.0	3.0	-	71.0	26.0	3.0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440	18.4	45.0	28.9	6.6	1.1	63.4	28.9	7.7
	중	570	13.5	43.7	34.2	7.9	0.7	57.2	34.2	8.6
	하	190	12.1	41.6	38.9	7.4	0.0	53.7	38.9	7.4
성별	남성	720	13.3	43.8	34.7	7.4	0.8	57.1	34.7	8.2
	여성	480	17.7	44.0	30.4	7.3	0.6	61.7	30.4	7.9
연령별	20대 이하	227	15.9	48.5	25.6	9.7	0.4	64.3	25.6	10.1
	30대	193	18.1	41.5	34.2	4.7	1.6	59.6	34.2	6.2
	40대	247	17.8	40.9	35.2	5.3	0.8	58.7	35.2	6.1
	50대	254	13.8	43.7	34.3	7.5	0.8	57.5	34.3	8.3
	60대 이상	279	11.1	44.4	35.1	9.0	0.4	55.6	35.1	9.3
지역별	서울	225	4.4	48.9	36.4	9.8	0.4	53.3	36.4	10.2
	경기/인천	386	17.9	46.1	26.4	9.3	0.3	64.0	26.4	9.6
	부산/울산/경남	179	16.8	31.3	41.9	10.1	0.0	48.0	41.9	10.1
	대구/경북	121	18.2	38.8	40.5	1.7	0.8	57.0	40.5	2.5
	광주/전라	114	12.3	50.9	29.8	5.3	1.8	63.2	29.8	7.0
	대전/충청/세종	127	26.0	41.7	29.9	0.8	1.6	67.7	29.9	2.4
지역크기	강원/제주	48	6.3	50.0	33.3	6.3	4.2	56.3	33.3	10.4
	대도시	526	9.5	48.1	33.7	8.6	0.2	57.6	33.7	8.7
	중소도시	629	20.5	39.6	32.4	6.5	1.0	60.1	32.4	7.5
	읍/면	45	4.4	53.3	33.3	4.4	4.4	57.8	33.3	8.9
직업별	농/어/임업	45	4.4	35.6	53.3	4.4	2.2	40.0	53.3	6.7
	자영업자	165	11.5	39.4	43.6	4.2	1.2	50.9	43.6	5.5
	판매/서비스직	236	15.7	38.1	38.1	6.8	1.3	53.8	38.1	8.1
	기능/숙련공	104	17.3	44.2	28.8	7.7	1.9	61.5	28.8	9.6
	일반 노무직	50	12.0	48.0	30.0	10.0	0.0	60.0	30.0	10.0
	사무/기술직	304	17.8	49.0	27.0	6.3	0.0	66.8	27.0	6.3
	경영/관리직	12	50.0	16.7	25.0	8.3	0.0	66.7	25.0	8.3
	전문/자유직	12	8.3	50.0	33.3	8.3	0.0	58.3	33.3	8.3
	전업주부	176	11.9	47.2	29.5	10.8	0.6	59.1	29.5	11.4
	학생	47	19.1	48.9	21.3	10.6	0.0	68.1	21.3	10.6
	무직/휴직/은퇴	40	17.5	37.5	32.5	12.5	0.0	55.0	32.5	12.5
최종 학력별	기타	9	11.1	77.8	11.1	0.0	0.0	88.9	11.1	0.0
	중졸 이하	55	7.3	43.6	40.0	9.1	0.0	50.9	40.0	9.1
	고등학교(중퇴/졸업)	458	12.2	42.1	36.5	8.7	0.4	54.4	36.5	9.2
	전문대(중퇴/졸업)	269	20.8	37.2	34.9	6.7	0.4	58.0	34.9	7.1
	4년제대학교(중퇴/졸업)	410	15.9	49.8	27.1	5.9	1.5	65.6	27.1	7.3
생활 수준별	대학원 이상	8	0.0	62.5	25.0	12.5	0.0	62.5	25.0	12.5
	상	62	12.9	54.8	17.7	14.5	0.0	67.7	17.7	14.5
	중	565	19.3	43.0	31.2	5.8	0.7	62.3	31.2	6.5
	하	573	11.2	43.5	36.5	8.0	0.9	54.6	36.5	8.9

제4장

시계열 GAP분석

제4장 시계열 GAP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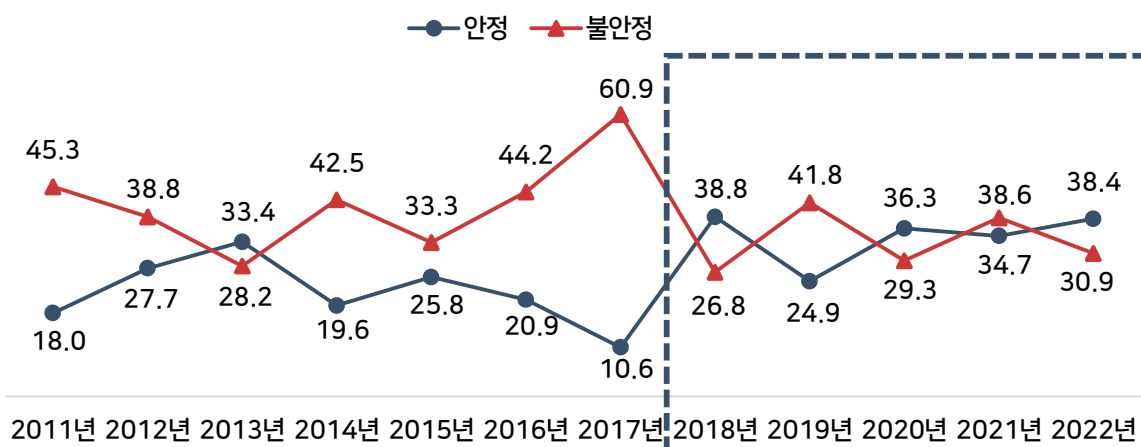
I. 국가안보 관련 일반사항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문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38.4%로 '불안정적'(30.9%)보다 7.5%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8.4%로 3.7%p 증가한 반면, '불안정적'이라는 응답은 30.9%로 7.7%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4%p 증가하였고, '불안정'이라는 응답은 14.4%p 감소함.
- ▶ 최근 10년 내 조사 결과 중 대부분은 안보상황을 '불안정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불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최고조에 달했음.

<그림>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연도별 비교



<표> 우리나라의 전반적 안보상황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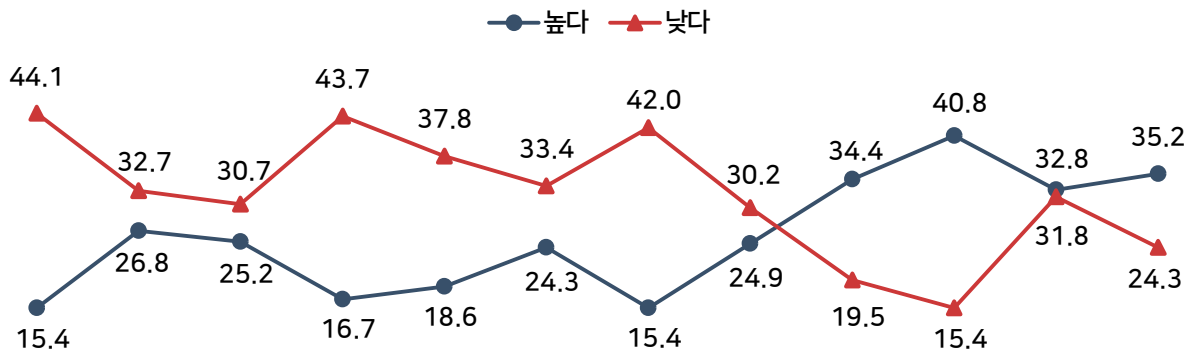
구 분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안정 ④	불안정 ⑤	GAP (④-⑤)
2022년 ①	1.5	36.9	30.7	28.2	2.8	38.4	30.9	7.5
2021년 ②	5.8	28.8	26.8	28.9	9.7	34.7	38.6	-3.9
GAP(①-②)	-4.3	8.1	3.9	-0.7	-7.0	3.7	-7.7	-
2020년	1.4	34.8	34.4	27.0	2.3	36.3	29.3	6.9
2019년	1.0	23.9	33.3	33.3	8.5	24.9	41.8	-16.9
2018년	3.1	35.8	34.3	22.8	4.1	38.8	26.8	12.0
2017년	1.2	9.4	28.5	47.4	13.5	10.6	60.9	-50.3
2016년	1.8	19.1	35.0	38.6	5.6	20.9	44.2	-23.3
2015년	0.9	24.9	40.9	29.8	3.5	25.8	33.3	-7.5
2014년	1.3	18.3	37.9	39.2	3.3	19.6	42.5	-22.9
2013년	2.2	31.2	38.4	25.6	2.6	33.4	28.2	5.2
2012년	1.9	25.8	33.5	35.0	3.8	27.7	38.8	-11.1
2011년 ③	0.4	17.6	36.7	41.6	3.7	18.0	45.3	-27.3
GAP(①-③)	1.1	19.3	-6.0	-13.4	-1.0	20.4	-14.4	-

2.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문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35.2%로 '낮다'(24.3%)보다 10.9%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높다'는 응답은 2.4%p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7.5%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높다'는 응답은 19.8%p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9.8%p 감소함.

<그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연도별 비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표>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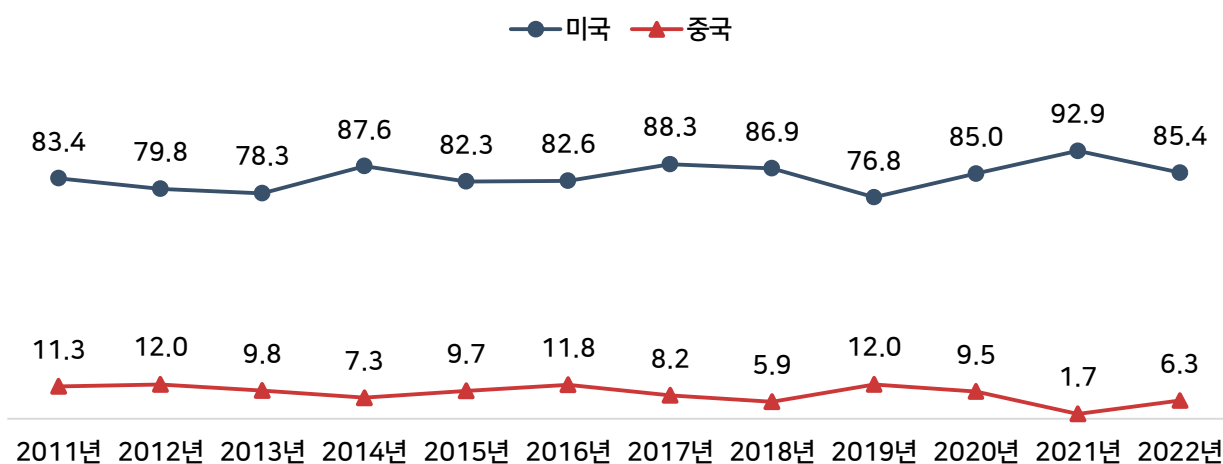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높음	높은 편	보통	낮은 편	매우 낮음	높다 ④	낮다 ⑤	GAP (④-⑤)
2022년 ①	1.4	33.8	40.6	22.8	1.4	35.2	24.3	10.9
2021년 ②	4.3	28.6	35.3	26.5	5.3	32.8	31.8	1.0
GAP(①-②)	-2.9	5.2	5.3	-3.7	-3.9	2.4	-7.6	-
2020년	1.9	38.9	43.8	14.8	0.6	40.8	15.4	25.4
2019년	1.8	32.7	46.1	17.1	2.4	34.5	19.5	15
2018년	4.5	20.4	44.9	26.8	3.4	24.9	30.2	-5.3
2017년	0.8	14.6	42.6	36.9	5.1	15.4	42	-26.6
2016년	2.4	21.9	42.3	28.8	3.6	24.3	32.4	-8.1
2015년	1.2	17.4	43.6	34.1	3.7	18.6	37.8	-19.2
2014년	1.9	14.8	39.6	38.9	4.8	16.7	43.7	-27
2013년	1.8	23.4	44.1	27	3.7	25.2	30.7	-5.5
2012년	4.5	22.3	40.5	29.8	2.9	26.8	32.7	-5.9
2011년 ③	1.1	14.3	40.5	38.5	5.6	15.4	44.1	-28.7
GAP(①-③)	0.3	19.5	0.1	-15.7	-4.2	19.8	-19.9	-

3.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8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6.3%), '러시아'(4.5%), '일본'(2.7%) 순으로 나타남(기타 1.1%).
- ▶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7.5%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4.6%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라는 응답은 2.0%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5.0%p 감소함.

<그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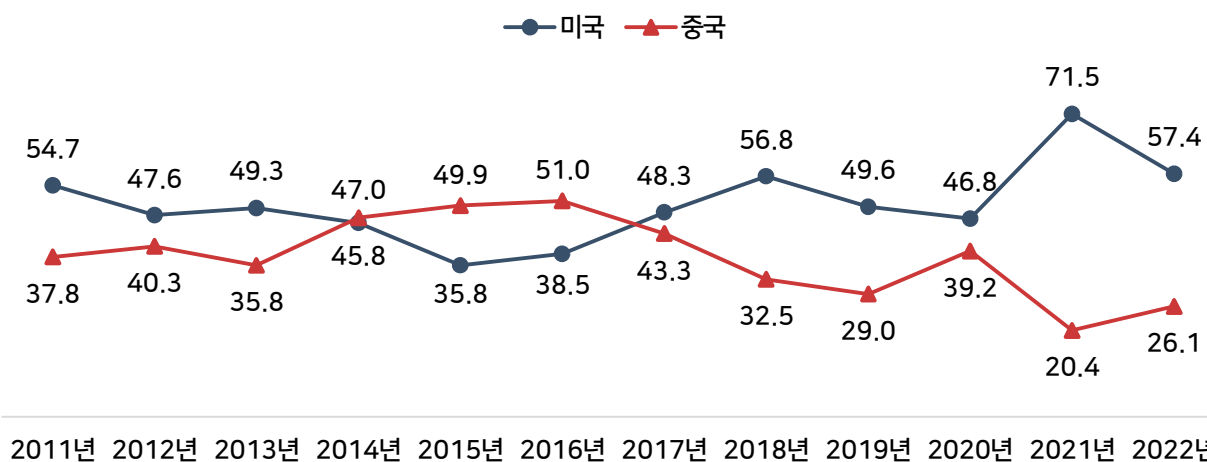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②	2022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83.4	79.8	78.3	87.6	82.3	82.6	88.3	86.9	76.8	85.0	92.9	85.4	-7.5	2.0
중국	11.3	12.0	9.8	7.3	9.7	11.8	8.2	5.9	12.0	9.5	1.7	6.3	4.6	-5.0
일본	3.5	6.2	9.5	3.1	6.0	3.7	1.8	4.3	8.7	4.5	1.1	2.7	1.6	-0.8
러시아	0.5	2.0	1.9	0.3	1.8	1.5	1.0	1.7	2.3	0.6	1.3	4.5	3.2	4.0
기타	1.3	-	0.5	1.8	0.2	0.5	0.8	1.3	0.3	0.4	3.1	1.1	-2.0	-0.2

4.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문 귀하는 경제안보적 측면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26.1%), '일본'(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미국'이라는 응답은 14.1%p 감소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5.7%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라는 응답은 2.7%p 증가하였고, '중국'이라는 응답은 11.7%p 감소함.

<그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 분	2011년 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②	2022년 ③	GAP ③-②	GAP ③-①
미국	54.7	47.6	49.3	45.8	35.8	38.5	48.3	56.8	49.6	46.8	71.5	57.4	-14.1	2.7
중국	37.8	40.3	35.8	47.0	49.9	51.0	43.3	32.5	29.0	39.2	20.4	26.1	5.7	-11.7
일본	5.1	8.8	8.9	4.6	10.9	8.1	6.1	7.4	17.6	11.3	2.8	9.3	6.5	4.2
러시아	1.4	3.3	-4.3	1.8	2.6	1.8	1.6	1.9	3.2	1.8	1.3	3.3	2.0	1.9
기타	1.1	-	1.7	0.8	0.8	0.6	0.8	1.4	0.7	0.9	3.9	3.9	0.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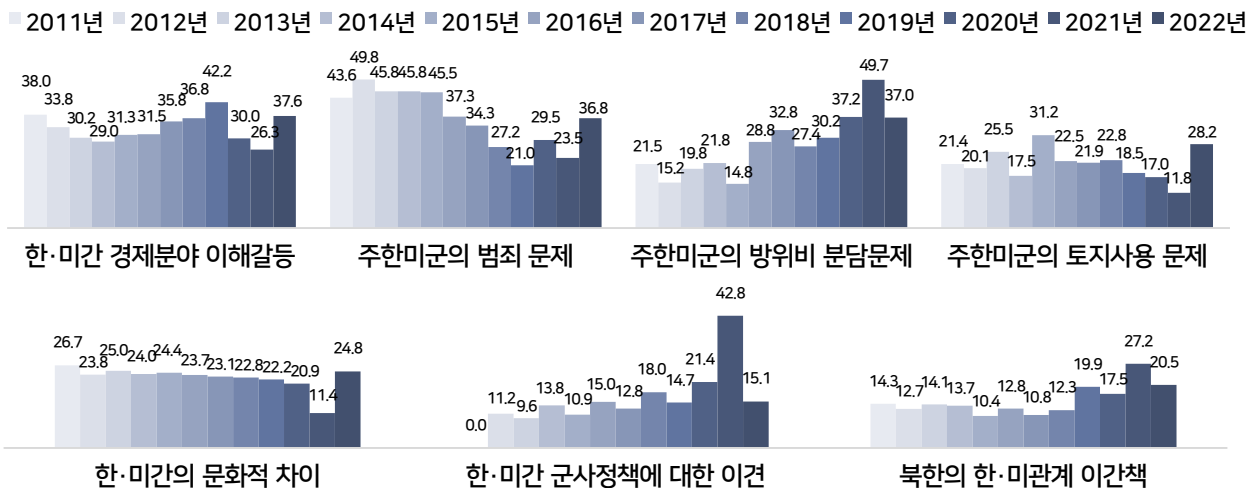
II.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문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이 3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37.0%),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3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은 11.3%p 증가하였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는 12.7%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은 0.4%p 감소함.

<그림>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



<표> 한·미동맹관계 발전 저해 요인 연도별 비교 - 중복응답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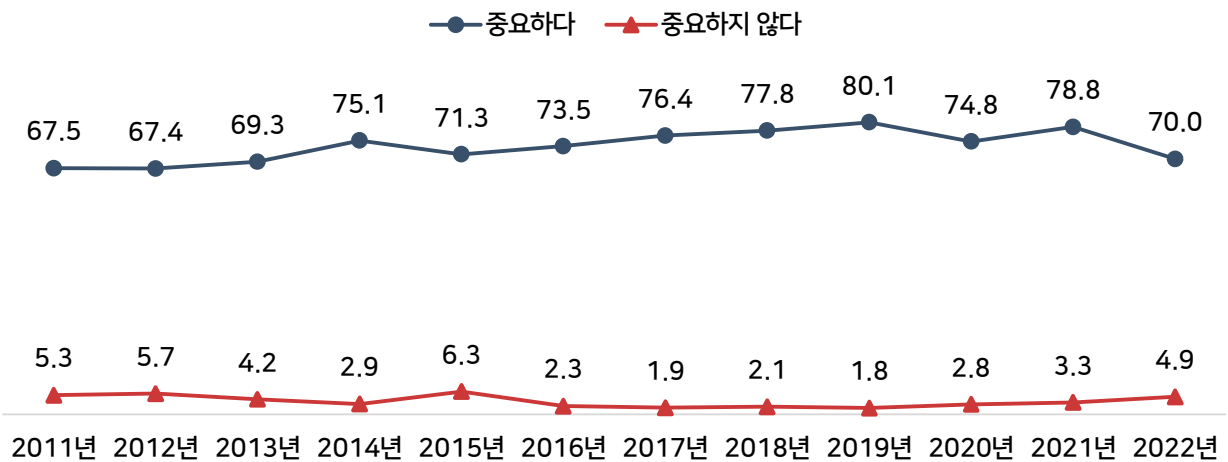
구 분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한국내 반미감정/ 미국내 반한감정	기타
2022년 ①	37.6	36.8	37.0	28.2	24.8	15.1	20.5	-	-
2021년 ②	26.3	23.5	49.7	11.8	11.4	42.8	27.2	-	2.9
GAP(①-②)	11.3	13.3	-12.7	16.4	13.4	-27.7	-6.7	-	-
2020년	30.0	29.5	37.2	17.0	20.9	21.4	17.5	26.5	-
2019년	42.2	21.0	30.2	18.5	22.2	14.7	19.9	31.2	0.3
2018년	36.8	27.2	27.4	22.8	22.8	18.0	12.3	31.7	0.8
2017년	35.8	34.3	32.8	21.9	23.1	12.8	10.8	27.3	1.3
2016년	31.5	37.3	28.8	22.5	23.7	15.0	12.8	28.0	0.2
2015년	31.3	45.5	14.8	31.2	24.4	10.9	10.4	31.5	0.0
2014년	29.0	45.8	21.8	17.5	24.0	13.8	13.7	34.2	0.2
2013년	30.2	45.8	19.8	25.5	25.0	9.6	14.1	29.8	0.1
2012년	33.8	49.8	15.2	20.1	23.8	11.2	12.7	32.3	0.6
2011년 ③	38.0	43.6	21.5	21.4	26.7	-	14.3	32.9	-
GAP(①-③)	-0.4	-6.8	15.5	6.8	-1.9	-	6.2	-	-

2.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문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중요하지 않다'(4.9%)보다 65.1%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은 8.8%p 감소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중요하다'는 응답은 2.5%p 증가하였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4%p 감소함.

<그림>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연도별 비교



<표>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중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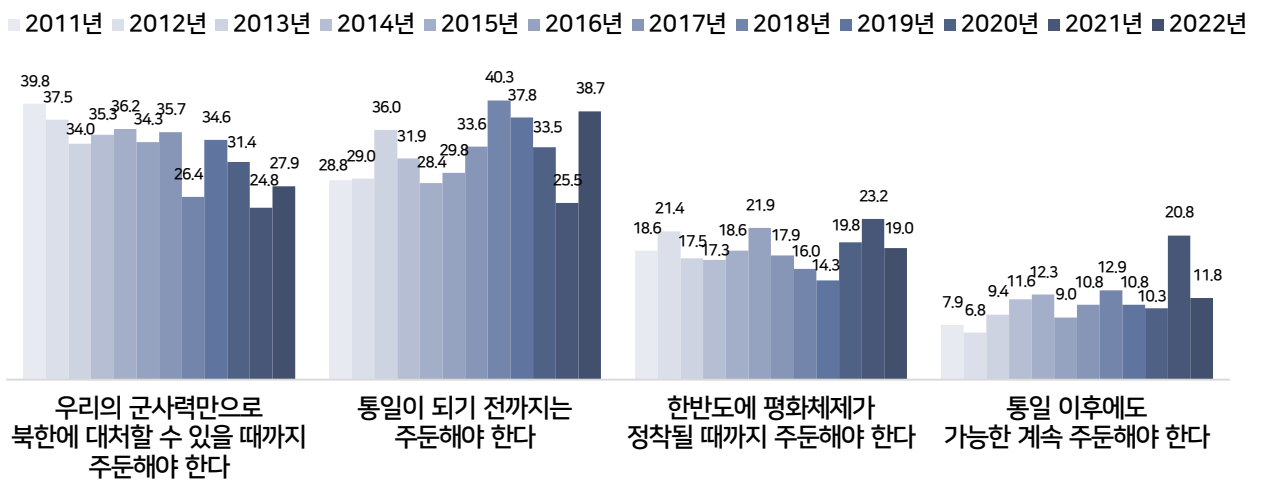
구 분	매우 중요	중요한 편	보통	중요하지 않은 편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④	중요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2년 ①	12.2	57.8	25.1	4.4	0.5	70.0	4.9	65.1
2021년 ②	31.2	47.6	17.9	2.8	0.5	78.8	3.3	75.5
GAP(①-②)	-19.0	10.2	7.2	1.6	0.0	-8.8	1.6	-
2020년	12.8	62.1	22.4	2.8	-	74.8	2.8	72.0
2019년	17.0	63.1	18.1	1.8	0.0	80.1	1.8	78.3
2018년	25.5	52.3	20.1	1.8	0.3	77.8	2.1	75.7
2017년	20.2	56.3	21.7	1.8	0.1	76.4	1.9	74.5
2016년	16.5	57.0	24.3	2.1	0.2	73.5	2.3	71.2
2015년	14.6	56.7	22.4	6.0	0.3	71.3	6.3	65.0
2014년	16.8	58.3	22.0	2.6	0.3	75.1	2.9	72.2
2013년	16.6	52.7	26.5	3.9	0.3	69.3	4.2	65.1
2012년	19.0	48.4	26.9	5.4	0.3	67.4	5.7	61.7
2011년 ③	18.8	48.7	27.2	4.8	0.5	67.5	5.3	62.2
GAP(①-③)	-6.6	9.1	-2.1	-0.4	0.0	2.5	-0.4	-

3. 주한미군 주둔 시기

문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2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 되기 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9.9%p 증가함.

<그림> 주한미군 주둔 시기 연도별 비교



<표> 주한미군 주둔 시기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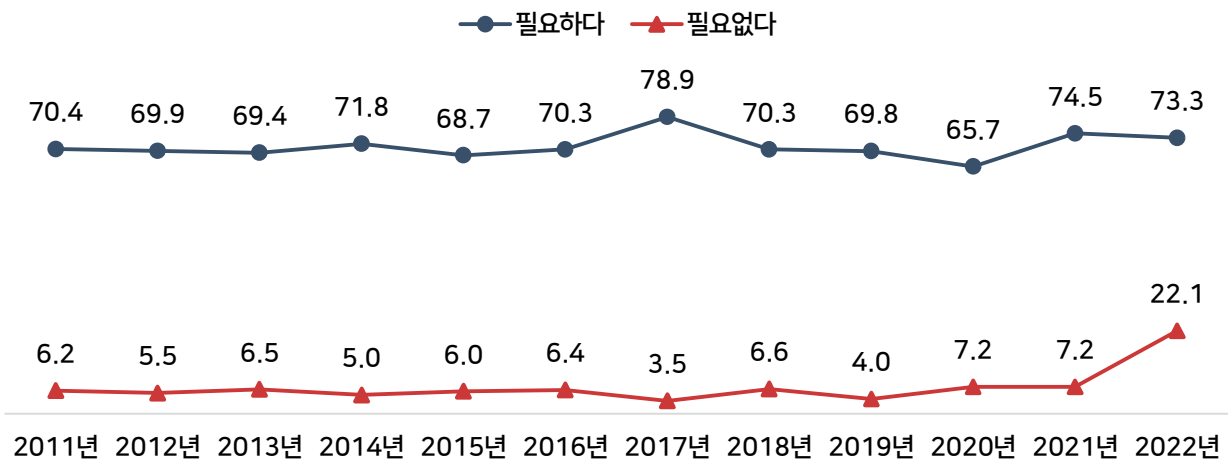
구 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2022년 ①	27.9	38.7	19.0	11.8	2.6
2021년 ②	24.8	25.5	23.2	20.8	5.8
GAP(①-②)	3.1	13.2	-4.2	-9.0	-3.2
2020년	31.4	33.5	19.8	10.3	5.0
2019년	34.6	37.8	14.3	10.8	2.5
2018년	26.4	40.3	16.0	12.9	4.3
2017년	35.7	33.6	17.9	10.8	2.1
2016년	34.3	29.8	21.9	9.0	4.9
2015년	36.2	28.4	18.6	12.3	4.5
2014년	35.3	31.9	17.3	11.6	3.9
2013년	34.0	36.0	17.5	9.4	3.1
2012년	37.5	29.0	21.4	6.8	5.3
2011년 ③	39.8	28.8	18.6	7.9	4.8
GAP(①-③)	-11.9	9.9	0.4	3.9	-2.2

4.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문 귀하는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필요없다'(22.1%)보다 51.3%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1.2%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는 응답은 2.9%p 증가함.

<그림>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연도별 비교



<표> 한·미연합훈련 필요성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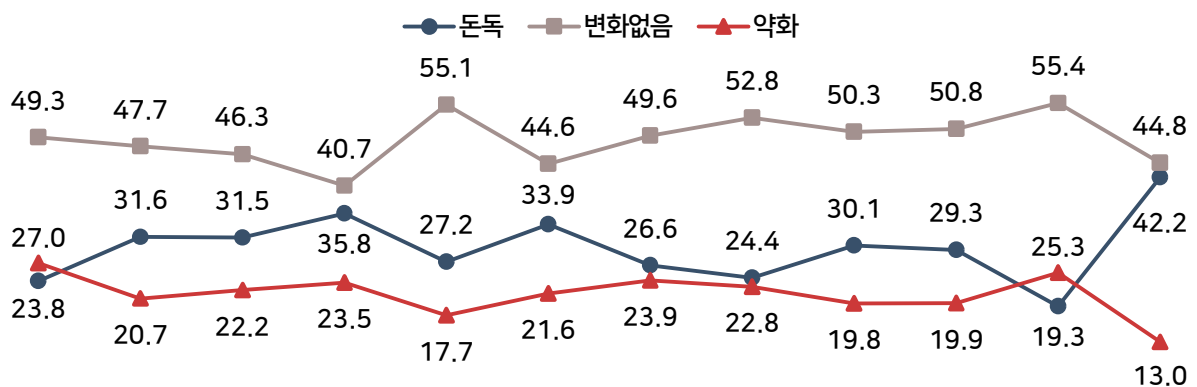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없다	잘 모르겠다	필요함 ④	필요 없음 ⑤	GAP (④-⑤)
2022년 ①	9.6	63.8	19.7	2.4	4.6	73.3	22.1	51.3
2021년 ②	34.0	40.5	5.9	1.3	18.3	74.5	7.2	67.3
GAP(①-②)	-24.4	23.3	13.8	1.1	-13.7	-1.2	14.9	-
2020년	8.2	57.5	7.0	0.2	27.2	65.7	7.2	58.5
2019년	10.8	58.9	3.4	0.6	26.3	69.8	4.0	65.8
2018년	16.3	54.0	5.8	0.8	23.2	70.3	6.6	63.7
2017년	20.4	58.5	3.2	0.3	17.6	78.9	3.5	75.4
2016년	15.0	55.3	5.9	0.5	23.3	70.3	6.4	63.9
2015년	14.1	54.6	5.5	0.5	25.3	68.7	6.0	62.7
2014년	19.6	52.2	4.7	0.3	23.2	71.8	5.0	66.8
2013년	14.0	55.4	5.8	0.7	24.1	69.4	6.5	62.9
2012년	19.0	50.9	5.0	0.5	24.6	69.9	5.5	64.4
2011년 ③	17.7	52.7	5.5	0.7	23.4	70.4	6.2	64.2
GAP(①-③)	-8.1	11.1	14.2	1.7	-18.8	2.9	15.9	-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문 귀하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에 대해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이 42.2%로, '약화될 것이다'(13.0%)보다 29.2%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22.9%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돈독해질 것이다'는 응답은 18.4%p 증가함.

<그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연도별 비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변화 연도별 비교

(단위: %, %p)

구 분	매우 돈독해질 것	돈독해질 것	현재와 같을 것	약화될 것	매우 약화될 것	돈독 ④	약화 ⑤	GAP (④-⑤)
2022년 ①	4.6	37.6	44.8	12.6	0.4	42.2	13.0	29.2
2021년 ②	3.5	15.8	55.4	21.7	3.6	19.3	25.3	-6.0
GAP(①-②)	1.1	21.8	-10.6	-9.1	-3.2	22.9	-12.3	-
2020년	0.8	28.5	50.8	19.7	0.3	29.3	19.9	9.3
2019년	2.3	27.8	50.3	17.7	2.1	30.1	19.8	10.3
2018년	4.0	20.4	52.8	20.3	2.5	24.4	22.8	1.6
2017년	2.6	24.0	49.6	22.8	1.1	26.6	23.9	2.7
2016년	5.2	28.7	44.6	20.3	1.3	33.9	21.6	12.3
2015년	3.1	24.1	55.1	16.1	1.6	27.2	17.7	9.5
2014년	5.3	30.5	40.7	22.7	0.8	35.8	23.5	12.3
2013년	3.7	27.8	46.3	20.3	1.9	31.5	22.2	9.3
2012년	4.2	27.4	47.7	19.4	1.3	31.6	20.7	10.9
2011년 ③	3.1	20.8	49.3	26.5	0.6	23.8	27.0	-3.2
GAP(①-③)	1.5	16.8	-4.5	-13.9	-0.2	18.4	-1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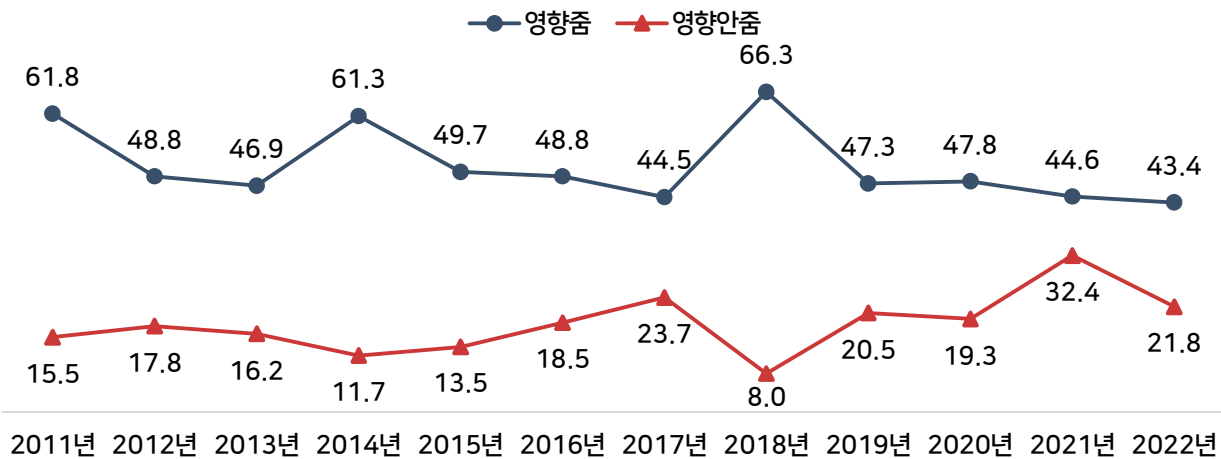
III. 북한 관련 사항

1.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문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3.4%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21.8%)보다 21.6%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2%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18.4%p 감소함.

<그림>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연도별 비교



<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의 영향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 분	매우 많은 영향	어느 정도 영향	보통이다	거의 영향 안줌	전혀 영향 안줌	영향줌 ④	영향안줌 ⑤	GAP (④-⑤)
2022년 ①	2.4	41.0	34.8	18.8	3.0	43.4	21.8	21.7
2021년 ②	5.7	38.9	23.0	20.6	11.8	44.6	32.4	12.2
GAP(①-②)	-3.3	2.1	11.8	-1.9	-8.8	-1.2	-10.7	-
2020년	2.8	44.9	33.0	16.3	2.9	47.8	19.3	28.5
2019년	3.8	43.6	32.2	17.9	2.6	47.3	20.5	26.8
2018년	14.1	52.2	25.8	6.7	1.3	66.3	8.0	58.3
2017년	5.3	39.2	31.8	20.5	3.2	44.5	23.7	20.8
2016년	8.2	40.6	32.8	16.3	2.2	48.8	18.5	30.3
2015년	5.3	44.4	36.8	12.1	1.4	49.7	13.5	36.2
2014년	12.1	49.2	27.0	10.2	1.5	61.3	11.7	49.6
2013년	6.0	40.9	36.9	14.1	2.1	46.9	16.2	30.7
2012년	5.7	43.1	33.4	14.5	3.3	48.8	17.8	31.0
2011년 ③	10.0	51.8	22.8	12.7	2.8	61.8	15.5	46.3
GAP(①-③)	-7.6	-10.8	12.0	6.1	0.2	-18.4	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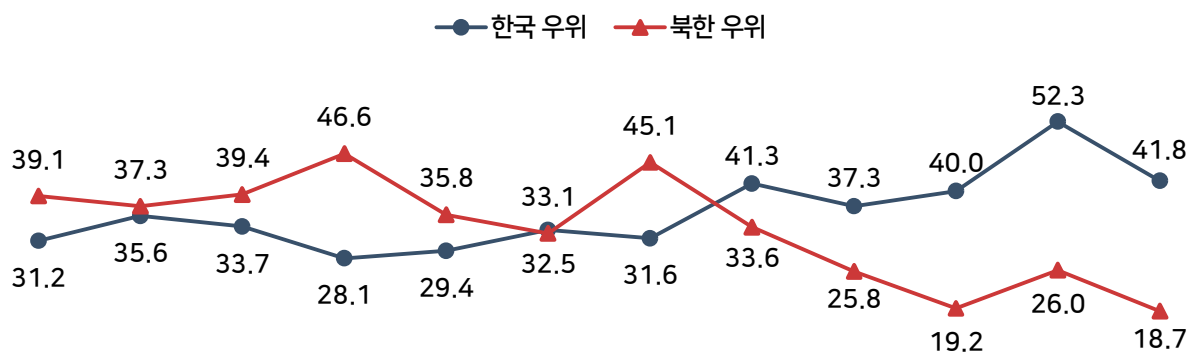
2.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문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 우위'라는 응답이 41.8%로, '북한 우위'(18.7%)라는 응답보다 23.1%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10.5%p,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7.3%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우위'라는 응답은 10.6%p 증가하였고, '북한 우위'라는 응답은 20.4%p 감소함.

<그림>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연도별 비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표>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연도별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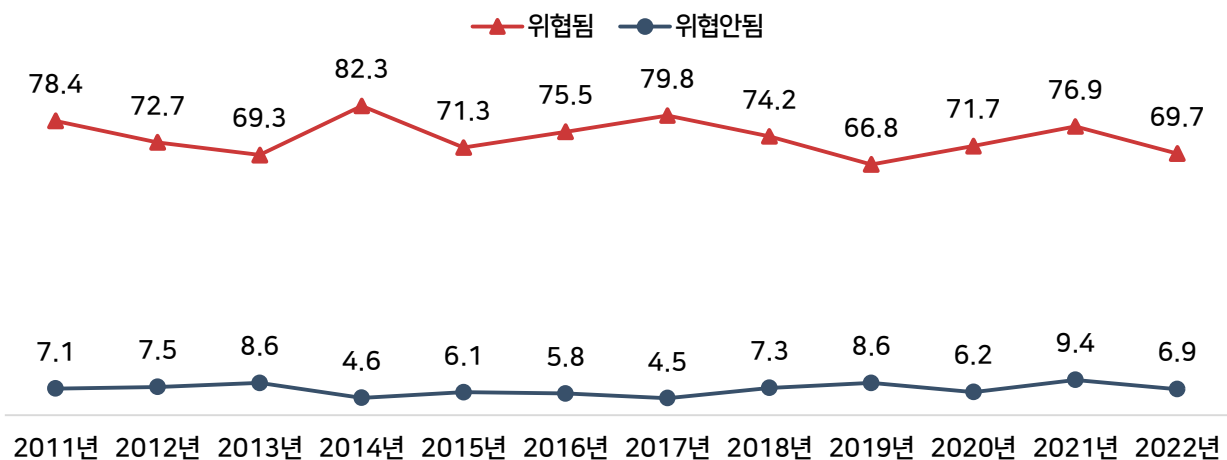
구 분	한국이 훨씬 우위	한국이 다소 우위	비슷	북한이 다소 우위	북한이 훨씬 우위	한국 우위 ④	북한 우위 ⑤	GAP (④-⑤)
2022년 ①	7.3	34.5	39.5	15.8	2.8	41.8	18.7	23.2
2021년 ②	18.1	34.3	21.7	19.8	6.3	52.3	26.0	26.3
GAP(①-②)	-10.8	0.2	17.8	-4.0	-3.5	-10.5	-7.3	-
2020년	4.7	35.3	40.8	17.2	2.0	40.0	19.2	20.8
2019년	3.8	33.5	37.0	20.3	5.4	37.3	25.8	11.5
2018년	14.7	26.7	25.1	27.1	6.5	41.3	33.6	7.7
2017년	7.3	24.3	23.3	34.7	10.4	31.6	45.1	-13.5
2016년	7.8	25.3	34.4	26.0	6.5	33.1	32.5	0.6
2015년	4.2	25.2	34.8	29.1	6.7	29.4	35.8	-6.4
2014년	4.9	23.2	25.3	38.8	7.8	28.1	46.6	-18.5
2013년	6.6	27.1	26.9	31.9	7.5	33.7	39.4	-5.7
2012년	7.9	27.7	27.1	32.7	4.6	35.6	37.3	-1.7
2011년 ③	6.8	24.4	29.7	32.8	6.3	31.2	39.1	-7.9
GAP(①-③)	0.5	10.1	9.8	-17.0	-3.5	10.6	-20.4	-

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문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69.7%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6.9%)보다 62.8%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7.2%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북한 핵무기 보유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8.7%p 감소함.

<그림>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연도별 비교



<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 분	매우 큰 위협	어느 정도 위협	그저 그렇다	별로 위협 안됨	전혀 위협 안됨	위협됨 ④	위협안됨 ⑤	GAP (④-⑤)
2022년 ①	19.0	50.7	23.4	6.6	0.3	69.7	6.9	62.8
2021년 ②	42.9	34.0	13.7	8.4	1.0	76.9	9.4	67.5
GAP(①-②)	-23.9	16.7	9.7	-1.8	-0.7	-7.2	-2.5	-
2020년	18.5	53.2	22.2	6.2	0.0	71.7	6.2	65.5
2019년	21.3	45.4	24.7	8.2	0.4	66.8	8.6	58.2
2018년	29.9	44.3	18.6	6.5	0.8	74.2	7.3	66.9
2017년	38.9	40.9	15.7	4.3	0.3	79.8	4.5	75.3
2016년	30.4	45.1	18.7	5.3	0.5	75.5	5.8	69.7
2015년	25.8	45.5	22.6	5.8	0.3	71.3	6.1	65.2
2014년	39.6	42.7	13.1	4.2	0.4	82.3	4.6	77.7
2013년	25.5	43.8	22.1	7.7	0.9	69.3	8.6	60.7
2012년	30.5	42.2	19.8	6.8	0.7	72.7	7.5	65.2
2011년 ③	38.7	39.7	14.5	6.3	0.8	78.4	7.1	71.3
GAP(①-③)	-19.7	11.0	8.9	0.3	-0.5	-8.7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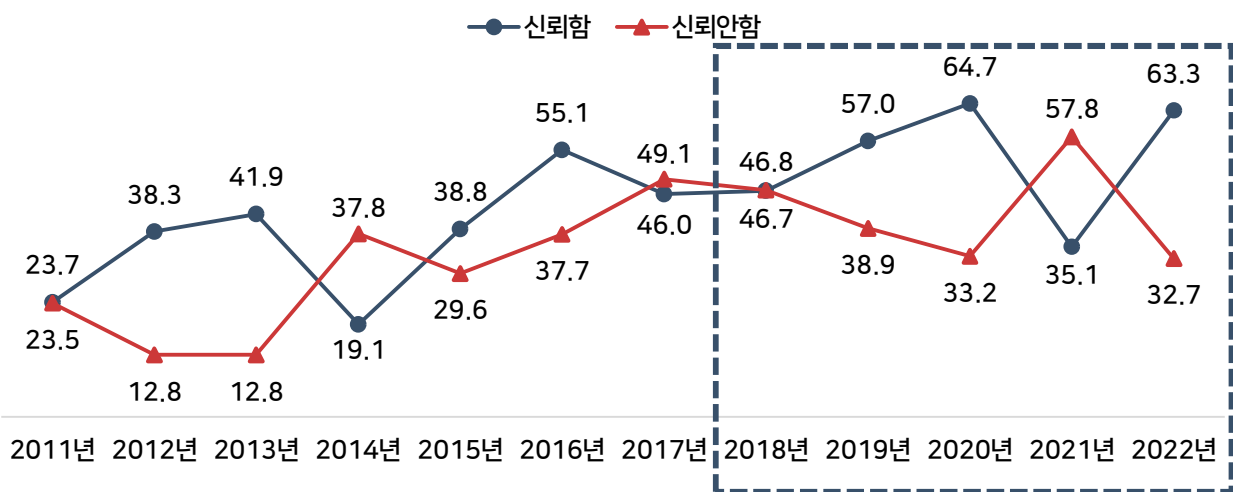
IV.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

1. 군에 대한 신뢰도

문 귀하는 우리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 ▶ 군에 대해 '신뢰한다'(63.3%)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32.7%)보다 30.6%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28.2%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9.6%p 증가함.

<그림> 군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표> 군에 대한 신뢰도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 분	신뢰함 ④	신뢰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2년 ①	63.3	32.7	30.6
2021년 ②	35.1	57.8	-22.7
GAP(①-②)	28.2	-25.1	-
2020년	64.7	33.2	31.5
2019년	57.0	38.9	18.1
2018년	46.7	46.8	-0.1
2017년	46.0	49.1	-3.1
2016년	55.1	37.7	17.4
2015년	38.8	29.6	9.2
2014년	19.1	37.8	-18.7
2013년	41.9	12.8	29.1
2012년	38.3	12.8	25.5
2011년 ③	23.7	23.5	0.2
GAP(①-③)	39.6	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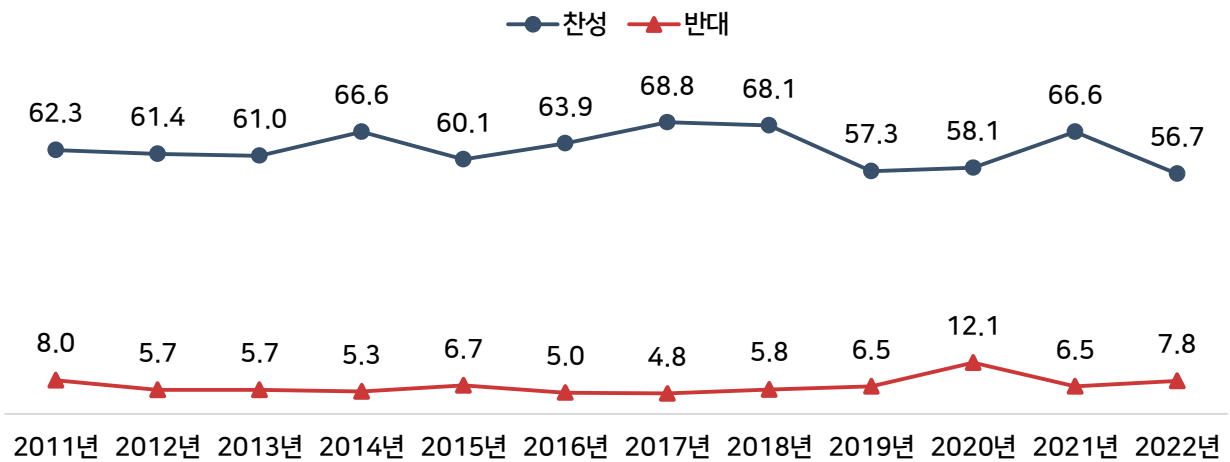
2.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제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7%로, '반대한다'(7.8%)보다 48.8%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은 9.9%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찬성한다'는 응답은 5.6%p 감소함.

<그림>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연도별 비교



<표>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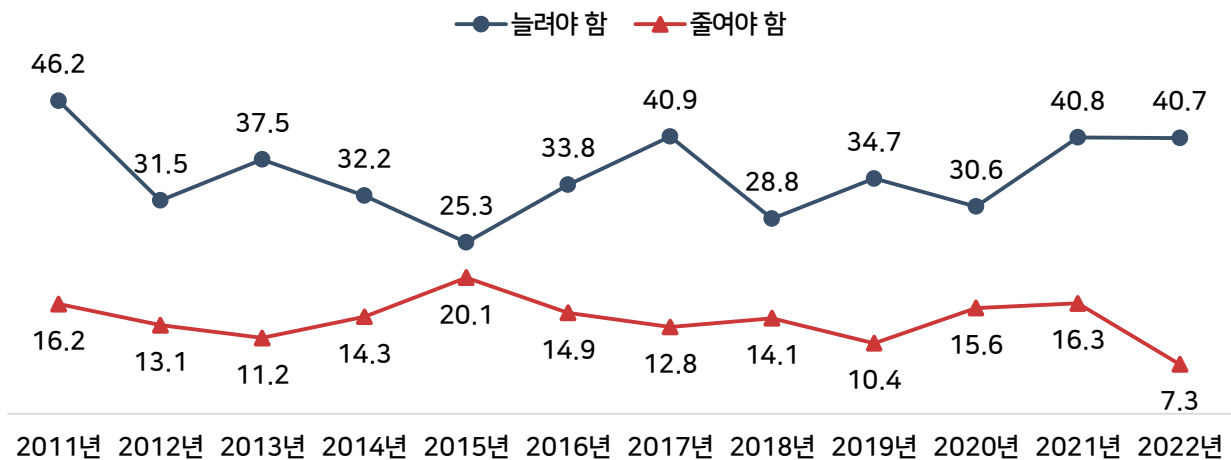
구 분	찬성 ④	반대 ⑤	GAP (④-⑤)
2022년 ①	56.7	7.8	48.8
2021년 ②	66.6	6.5	60.1
GAP(①-②)	-9.9	1.3	-
2020년	58.1	12.1	46.0
2019년	57.3	6.5	50.8
2018년	68.1	5.8	62.3
2017년	68.8	4.8	64.0
2016년	63.9	5.0	58.9
2015년	60.1	6.7	53.4
2014년	66.6	5.3	61.3
2013년	61.0	5.7	55.3
2012년	61.4	5.7	55.7
2011년 ③	62.3	8.0	54.3
GAP(①-③)	-5.6	-0.2	-

3. 한국의 국방비 수준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한국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0.7%로, '줄여야 한다'(7.3%)보다 33.4%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0.1%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5%p 감소함.

<그림> 한국의 국방비 수준 연도별 비교



<표> 한국의 국방비 수준 연도별 비교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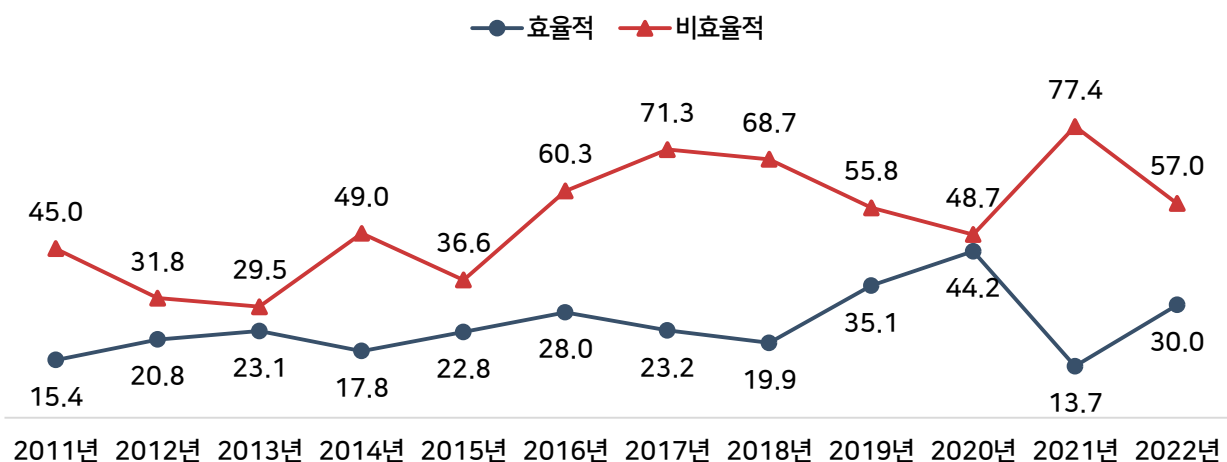
구 분	늘려야 함 ④	줄여야 함 ⑤	GAP (④-⑤)
2022년 ①	40.7	7.3	33.3
2021년 ②	40.8	16.3	24.5
GAP(①-②)	-0.1	-9.0	-
2020년	30.6	15.6	15.0
2019년	34.7	10.4	24.3
2018년	28.8	14.1	14.7
2017년	40.9	12.8	28.1
2016년	33.8	14.9	18.9
2015년	25.3	20.1	5.2
2014년	32.2	14.3	17.9
2013년	37.5	11.2	26.3
2012년	31.5	13.1	18.4
2011년 ③	46.2	16.2	30.0
GAP(①-③)	-5.5	-8.9	-

4.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문 귀하는 우리 군이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이 57.0%로, '효율적이다'(30.0%)보다 27.0%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20.4%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이다'는 응답은 12.0%p 증가함.

<그림>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



<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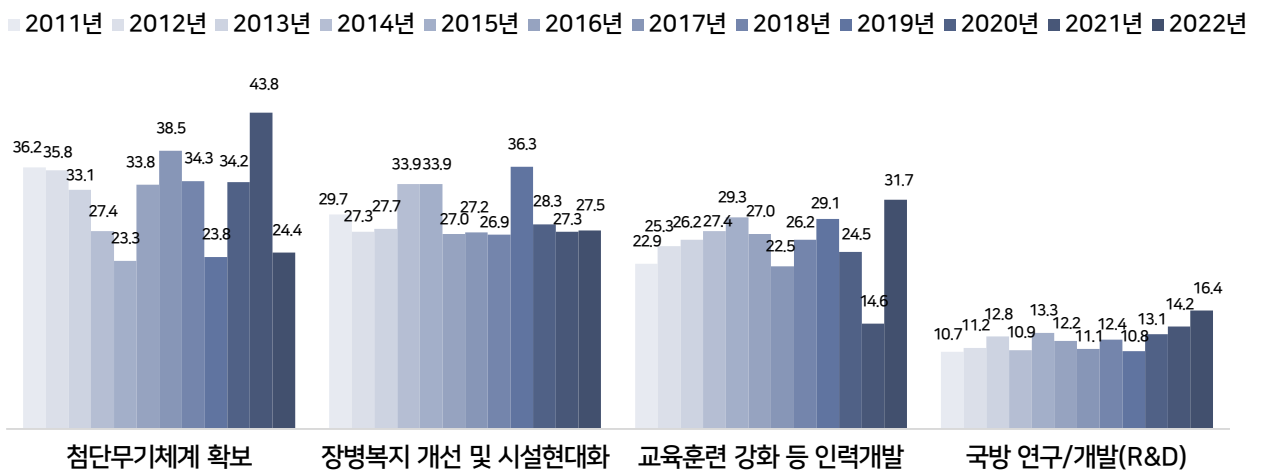
구 분	효율적 ④	비효율적 ⑤	GAP (④-⑤)
2022년 ①	30.0	57.0	-27.0
2021년 ②	13.7	77.4	-63.7
GAP(①-②)	16.3	-20.4	-
2020년	44.2	48.7	-4.5
2019년	35.1	55.8	-20.7
2018년	19.9	68.7	-48.8
2017년	23.2	71.3	-48.1
2016년	28.0	60.3	-32.3
2015년	22.8	36.6	-13.8
2014년	17.8	49.0	-31.2
2013년	23.1	29.5	-6.4
2012년	20.8	31.8	-11.0
2011년 ③	15.4	45.0	-29.6
GAP(①-③)	14.6	12.0	-

5.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문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7.5%), '첨단무기체계 확보'(2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21년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17.1%p 증가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이라는 응답은 8.8%p 증가함.

<그림>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



<표> 향후 국방비 투자 분야 연도별 비교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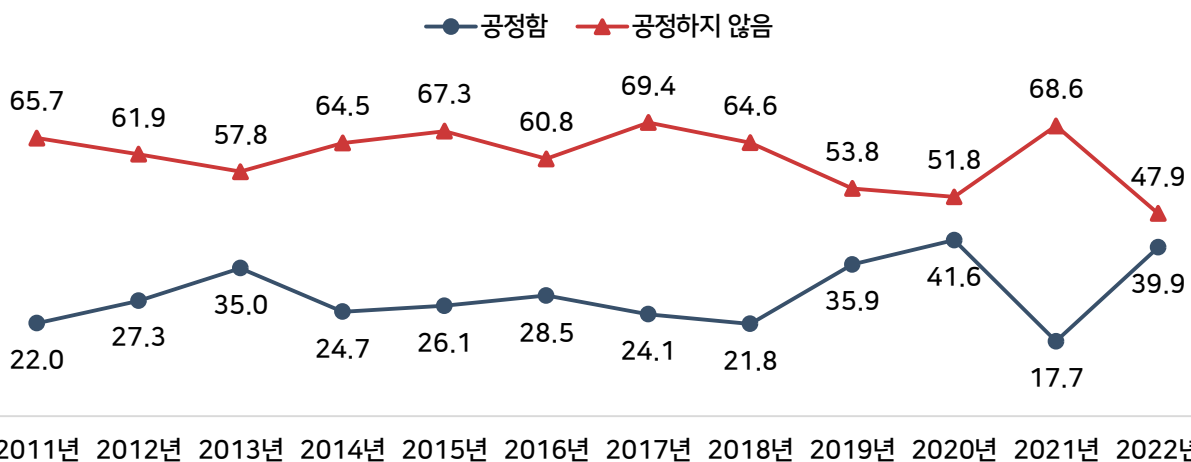
구 분	첨단무기체계 확보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국방 연구/개발(R&D)	기타
2022년 ①	24.4	27.5	31.7	16.4	-
2021년 ②	43.8	27.3	14.6	14.2	0.1
GAP(①-②)	-19.4	0.2	17.1	2.2	-
2020년	34.2	28.3	24.5	13.1	-
2019년	23.8	36.3	29.1	10.8	0.1
2018년	34.3	26.9	26.2	12.4	0.3
2017년	38.5	27.2	22.5	11.1	0.8
2016년	33.8	27.0	27.0	12.2	0.2
2015년	23.3	33.9	29.3	13.3	0.2
2014년	27.4	33.9	27.4	10.9	0.4
2013년	33.1	27.7	26.2	12.8	0.2
2012년	35.8	27.3	25.3	11.2	0.4
2011년 ③	36.2	29.7	22.9	10.7	0.6
GAP(①-③)	-11.8	-2.2	8.8	5.7	-

6.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문 귀하는 무기선정 등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9%로, '공정하다'(39.9%) 보다 8.0%p 높게 나타남.
- ▶ 2021년 대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0.7%p 감소함.
-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7.8%p 감소함.

<그림>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연도별 비교



<표>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연도별 비교

(단위 : %, %p)

구 분	매우 공정하게 결정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	잘 모르겠다	공정함 ④	공정하지 않음 ⑤	GAP (④-⑤)
2022년 ①	2.0	37.9	40.9	7.0	12.2	39.9	47.9	-8.0
2021년 ②	1.8	15.9	42.6	26.0	13.8	17.7	68.6	-50.9
GAP(①-②)	0.2	22.0	-1.7	-19.0	-1.6	22.2	-20.7	-
2020년	1.3	40.3	42.3	9.5	6.7	41.6	51.8	-10.2
2019년	1.2	34.8	44.0	9.8	10.3	35.9	53.8	-17.9
2018년	2.4	19.4	42.3	22.3	13.6	21.8	64.6	-42.8
2017년	2.8	21.3	44.6	24.8	6.5	24.1	69.4	-45.3
2016년	2.3	26.2	39.8	21.0	10.8	28.5	60.8	-32.3
2015년	2.4	23.7	42.4	24.9	6.6	26.1	67.3	-41.2
2014년	3.2	21.5	39.3	25.2	7.2	24.7	64.5	-39.8
2013년	4.1	30.9	44.8	13.0	7.2	35.0	57.8	-22.8
2012년	3.3	24.0	47.0	14.9	10.8	27.3	61.9	-34.6
2011년 ③	2.1	19.9	46.8	18.9	12.3	22.0	65.7	-43.7
GAP(①-③)	-0.1	18.0	-5.9	-11.9	-0.1	17.9	-17.8	-

부록

설문지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용)

ID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소는 안보관련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1972년 설립된 국방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1989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33조에 의거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안보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10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정해일

연구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INSA)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송유근 책임컨설턴트(02-3415-5143)

-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설문응답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응답자에게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한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

		응답란							
□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제주	
□ 지역크기	1.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				

먼저, 귀하께서 면접할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SQ1. 성별은?

응답란

1) 남성

2) 여성

S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18세 미만, 75세 이상 면접 중단

먼저 국가안보 관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안정적이다
- 2) 안정적인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불안정한 편이다
- 5) 매우 불안정하다

문2. 귀하는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높다
- 2) 높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낮은 편이다
- 5) 매우 낮다

문3. 귀하는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높다
- 2) 높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낮은 편이다
- 5) 매우 낮다

문4. 귀하는 다음과 같은 대외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응답란
1) 강대국의 패권전쟁	1	2	3	4	5	
2) 국가 간 전쟁·영토분쟁	1	2	3	4	5	
3) 에너지 · 자원 공급 차질	1	2	3	4	5	
4) 세계 경제 침체	1	2	3	4	5	
5) 국제범죄·테러 증가	1	2	3	4	5	
6) 대규모 난민·불법 이주	1	2	3	4	5	
7) 주변국 군사력 증강	1	2	3	4	5	
8) 북한 군사적 위협	1	2	3	4	5	
9) 해외 사이버테러·공격	1	2	3	4	5	
10) 첨단기술 범죄이용	1	2	3	4	5	
11) 전 지구적 기후변화	1	2	3	4	5	
12) 주변국 환경오염	1	2	3	4	5	

문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국내 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 아님	작은 위험	보통 위험	큰 위험	매우 큰 위험	응답란
1) 국내정치 불안정	1	2	3	4	5	
2) 부정부패 확산	1	2	3	4	5	
3) 물가상승·경기침체	1	2	3	4	5	
4) 불평등심화·양극화	1	2	3	4	5	
5) 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1	2	3	4	5	
6) 저출산·고령화 · 인구절벽	1	2	3	4	5	
7) 불충분한 한국 군사력	1	2	3	4	5	
8) 한미 군사동맹 약화	1	2	3	4	5	
9) 개인정보 유출	1	2	3	4	5	
10) 과학기술 경시 및 투자미흡	1	2	3	4	5	
11) 질병·감염병 확산	1	2	3	4	5	
12) 자연재해·환경파괴	1	2	3	4	5	

문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 하는 편	보통 이다	반대 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정치에 저항할 것이다.	1	2	3	4	5	
2) 재산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겠다.	1	2	3	4	5	
3)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언제나 자랑스롭다.	1	2	3	4	5	
4) 전쟁이 발생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1	2	3	4	5	
5)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1	2	3	4	5	
6)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겠다.	1	2	3	4	5	

다음은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7.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응답란
1) 군사안보적 측면	1	2	3	4	5	
2) 경제안보적 측면	1	2	3	4	5	

문8. 만약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국가들이 각기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를 적극 지원	우리 나라에 우호적 입장	중립	북한에 우호적 입장	북한적 지원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9. 귀하는 다음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영향	대체로 긍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대체로 부정적 영향	매우 부정적 영향	응답란
1) 미국	1	2	3	4	5	
2) 일본	1	2	3	4	5	
3) 중국	1	2	3	4	5	
4) 러시아	1	2	3	4	5	

문10. 귀하는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응답란

문11. 귀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12. 귀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한·미 양자동맹 강화
- 2) 한·미·일 삼자협력 강화
- 3) 한·중·일 삼자협력 강화
- 4)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
- 5) 한·중 양자협력 강화

다음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자주국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3. 귀하는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14. 다음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응답란
1)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군사동맹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2) 경제분야 갈등 해소, 과학 기술 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	2	3	4	5	
3) 가치관 차이 해소 등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 시켜야 한다	1	2	3	4	5	
4) 국제테러, 기후 변화 등 세계 문제에 함께 대처 하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문15.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골라

1순위	2순위

- 1) 주한미군의 토지사용 문제
- 2)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
- 3)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
- 4) 한·미간 경제분야 이해갈등
- 5)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책
- 6)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문제
- 7)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전작권전환, 유엔사 역할 등)
- 8) 기타 (내용 기술:)

문16. 귀하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중요하다
- 2) 중요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17. 귀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 2)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 3)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 4)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 5) 기타 (내용 기술:)

문18. 귀하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통일 이후에도 가능한 계속 주둔해야 한다
- 2)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둔해야 한다
- 3)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 4)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 5)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

문19. 귀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란
1)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비용이 절약되고 있다.	1	2	3	4	5	
2)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적절한 수준이다.	1	2	3	4	5	
3)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국군의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이다.	1	2	3	4	5	
4)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1	2	3	4	5	

문20. 귀하는 우리 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필요하다
- 2) 필요한 편이다
- 3) 필요없는 편이다
- 4) 전혀 필요없다
- 5)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음.

- 1) 매우 돈독해질 것이다
- 2) 돈독해질 것이다
- 3) 현재와 같을 것이다
- 4) 약화될 것이다
- 5) 매우 약화될 것이다

다음은 북한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 1)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23. 귀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란

-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다
- 2) 우리와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다
- 3)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4)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문24. 귀하는 향후 5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 2) 안정적일 것이다
- 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 4) 불안정해질 것이다
- 5)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문25. 귀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 5)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문26. 다음 의견 중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응답란

- 1)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
- 2)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3)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
- 4)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
- 5) 기타 (내용 기술:)

문27. 귀하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한국이 훨씬 우위
- 2) 한국이 다소 우위
- 3) 비슷하다
- 4) 북한이 다소 우위
- 5) 북한이 훨씬 우위

문28. 귀하는 향후 2~3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란

- 1)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가능성이 높다
- 3) 보통이다
- 4) 가능성이 낮다
- 5)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29. 대외적으로 남북한 간의 안보위협 요인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남북 교류협력 확대
- 2)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3) 한·미 동맹체제 강화

- 4)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5) 기타 (내용 기술:)

문30. 귀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큰 위협이 된다
- 2)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 5)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문31. 귀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6자 회담국 :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1)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를 통한 해결
- 2) 6자 회담을 통한 해결
- 3) 6자 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 4)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 5)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경제 제재
- 6)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군사 제재
- 7)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문32. 귀하는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 2)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3) 반반이다
- 4)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 5)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33. 귀하는 북한이 외교적 협상과정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아니다
- 5) 전혀 아니다

문34.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 2)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 3)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목이 좋다
- 4) 통일은 불필요하다
- 5) 잘 모르겠다

문35.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36.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개인)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37.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5) 30년 이후
- 6) 불가능하다

문38.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 2)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 3)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 4) 장기간 현상유지
- 5) 잘 모르겠다

문39. 귀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응답란

- 1) 적극적 의지가 있다
- 2) 의지가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의지가 없다
- 5) 전혀 의지가 없다

다음은 국방정책 및 국방현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40. 귀하는 우리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 편입니까?

응답란

- 1) 매우 신뢰한다
- 2) 신뢰하는 편이다
-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41. 귀하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골라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1)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 2)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
- 3) 군 장병 기본권 신장
- 4) 장병 인성교육 강화
- 5) 강한 군대 건설
- 6) 대민봉사활동 확대
- 7) 군의 PR (대외홍보활동) 활성화
- 8) 대국민 소통 강화
- 9) 기타 (내용 기술:)

문42. 귀하는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크게 도움이 된다
-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 5) 오히려 손해만 본다

문43. 귀하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중에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 1) 적극 권장하겠다
- 2) 권장하겠다
- 3) 본인 의사에 맡기겠다
- 4) 만류하겠다
- 5) 적극 만류하겠다

문44.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긍정적이다
- 2) 대체로 긍정적이다
- 3) 별 영향 없다
- 4) 대체로 부정적이다
- 5) 매우 부정적이다

문45.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제 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46.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파병(평화유지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47. 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한다
- 2) 우크라이나에 가깝게 서야 한다
- 3) 중립이나 중개를 유지해야 한다
- 4) 러시아에 가깝게 서야 한다
- 5)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야 한다

문48. 귀하는 우리 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49. 귀하는 우리 군의 병력 수 (22년 기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아주 많다
- 2) 많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부족한 편이다
- 5) 아주 부족하다

문50.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란

- 1)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 2)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 3)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 4) 외국으로 가겠다
- 5) 잘 모르겠다

문51.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쟁이 재발한다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2022년 9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국제사회는 전투병력 파병 없이 군수물자만 지원

- 1) 전투병력을 파병할 것이다
- 2) 비전투병력만 파병할 것이다
- 3) 군수물자만 지원할 것이다
- 4) 군사정보만 공유할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문52. 귀하는 현재 예비군 /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예비군은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예비전력입니다.

- 1) 매우 중요하다
- 2) 중요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문53. 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국방비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2.69% 수준입니다.

- 1)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 2) 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 3)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 4) 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 5) 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문54. 귀하는 우리 군이 국방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효율적이다
- 2) 효율적인 편이다
- 3) 효율적이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55. 귀하는 국방비가 향후 어느 분야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첨단무기체계 확보
- 2)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
- 3) 장비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
- 4) 국방 연구/개발(R&D)
- 5) 기타 (내용 기술 :)

문56. 귀하는 무기선정 등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공정하게 결정된다

- 2) 공정하게 결정되는 편이다
- 3)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공정하지 않게 결정된다
- 5) 잘 모르겠다

문57. 귀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하는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58. 귀하는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을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얻고 계십니까?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야후, 네이버, 구글 등)
- 3) 일간신문
- 4) 국방일보
- 5) TV 방송 (KBS, MBC, SBS, 종편 등)
- 6) 국방TV (위성TV 채널 153)
- 7)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정부부처 뉴미디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8)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뉴미디어
- 9) 홍보 행사장/사진전 등 이벤트
- 10) 주변 사람 및 이웃
- 11) 기타(관련 책자, 영상 등)

문5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국방홍보 매체를 접한 적이 있으신지요?

	예	아니오	응답란
1) 국방부 등 국방관련 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1	2	
2) 국방백서	1	2	
3) 국방일보	1	2	
4) 국방FM(라디오)	1	2	
5) 국방TV(텔레비전)	1	2	
6) 군 기관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	2	

문60.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반반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란
1) 믿을 수 있다	1	2	3	4	5	
2) 청렴하다	1	2	3	4	5	
3) 개방적이다	1	2	3	4	5	
4) 혁신적이다	1	2	3	4	5	
5) 친근하다	1	2	3	4	5	

다음은 병역제도와 병영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61. 귀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2)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 3) 점진적으로 모병제 /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 4) 전면적인 모병제 /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62. 귀하는 능력이 탁월한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병역특례제도: 3~4주 기초군사훈련과 2년 10개월 동안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중사함으로써 군 복무를 마치는 것

- 1) 확대해야 한다
- 2) 유지해야 한다
- 3) 축소해야 한다
- 4) 없애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63. 귀하는 현재 군대 내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 2) 잘 보장되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 5)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문63-1(문63에서 4), 5)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귀하는 군대 내에서 인권 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 2)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 3)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 4)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 5)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 6) 기타 (내용 기술 :)

문64. 귀하는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월 191만원
 · 군간부: 하사 170만원, 중사 179만원, 소위 175만원, 중위 192만원
 · 병사: 이등병 51만원, 일등병 55만원, 상등병 61만원, 병장 67만원
 * 병사에게는 숙식, 피복 등이 제공됩니다.
 * 군간부 봉급은 1호봉으로 관련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 2) 최저임금이 적당하다

- 3)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
- 4) 현재가 적당하다
- 5)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

문65. 귀하는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범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원하는 시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 2) 자유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3) 승인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4) 상관이 승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5) 병사는 군대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문66. 귀하는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다음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 많은 편	긍정 부정 반반	부정적 영향이 많은 편	매우 부정적 영향	응답란
1) 병사들의 외부 (가족 친구)와의 소통	1	2	3	4	5	
2)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	1	2	3	4	5	
3) 병사들의 자기개발	1	2	3	4	5	
4) 병영부조리 예방	1	2	3	4	5	
5)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도	1	2	3	4	5	

다음은 자료분류용 질문입니다. 통계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 1) 중졸 이하
- 2)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 3) 전문대(재학, 중퇴 또는 졸업)
- 4) 4년제 대학교(재학, 중퇴 또는 졸업)
- 5) 대학원 이상

DQ2. 귀하의 종교나 신앙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 1) 기독교/개신교
- 2) 불교
- 3) 천주교/가톨릭
- 4) 원불교
- 5) 기타 (내용 기술:)
- 6) 종교없음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응답란

- 1) 미혼
- 2) 기혼
- 3) 이혼/별거
- 4) 사별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응답란

- 1)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 2) 자영업자(종업원 9명이하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판매/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목공, 숙련공 등)
- 5) 일반 노무직(토목 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향해사 등)
-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등)
- 9) 군인/경찰/소방
- 10) 전업주부
- 11) 학생
- 12) 무직/휴직/은퇴
- 13) 기타 (내용 기술:)

DQ5. 귀하는 군 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란

- 1) 예
- 2) 아니오

DQ5-1. (DQ5에서 '1') 응답자만) 군 복무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복무를 하셨습니까?

응답란

- 1) 현역병
- 2) 부사관(하사관)
- 3) 준사관
- 4) 장교
- 5)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방위병 등
- 6)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
- 7) 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 8) 기타 (내용 기술:)

DQ6. 귀하 가족의 월소득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세금 내기 전을 말씀해주시시오.)

응답란

- 1) 소득없음,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7)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8)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 1000만원 이상

DQ7. 귀하의 가정은 생활 수준면에서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상층
- 2) 중상층
- 3) 중간층
- 4) 중하층
- 5) 하층

DQ8. 귀하의 생각이나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란

- 1) 매우 진보적
- 2) 진보적인 편
- 3) 중도
- 4) 보수적인 편
- 5) 매우 보수적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 결과보고서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발행	일	: 2022년 12월
발행	처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	인	: 김홍석(국방대학교 총장)
편집	인	: 박영준(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주소		: (33021)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전화		: 041-831-6421
인쇄	처	: (주)타라그래픽스
수행	처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소유하고 있으며,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 결과보고서」 00쪽에서 인용하였음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질의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Perception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일반국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